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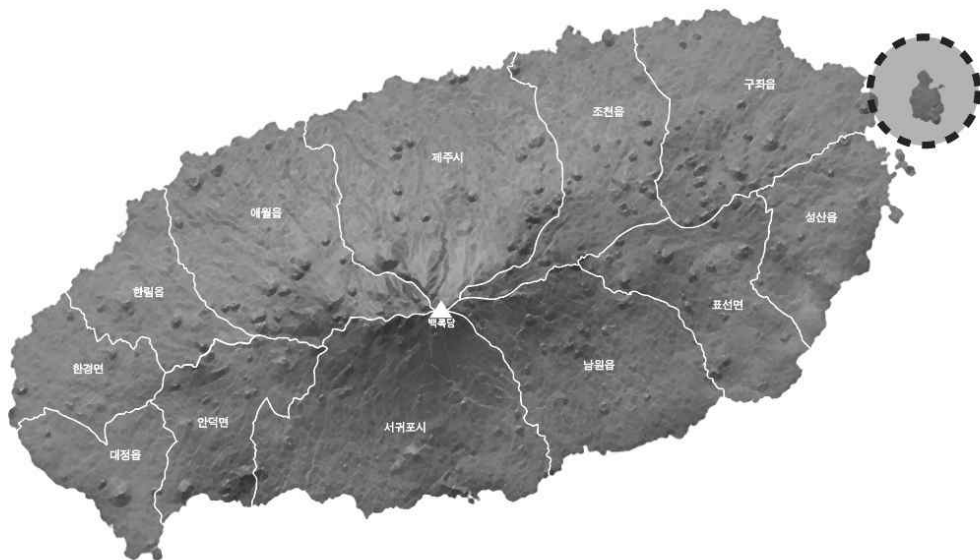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57-01

#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제주시 우도면

구술: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승연

# 22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원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2

## 목 차

###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103
3. 밭일 .....	166
4. 들일 .....	235
5. 바다일 .....	257
6. 의생활 .....	313
7. 식생활 .....	378



# 1.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의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흥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헛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ㄴ’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렁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II. 구술 자료

(@: 김승연, #1: 한두영, #4: 고옥녀, #5: 홍한옥)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기 삼촌님, 삼촌님 이쪽으로 영 해가지고 발음이 영 예예.(이 마을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기 삼촌님, 삼촌님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이렇게 예예.)

101001 #1 그 만들어진 것은 이제 저가 지금 천구백 사십오 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예.(그 만들어진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천구백 사십오 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101001 @ 예.(예.)

101001 #1 예, 그래서 그때가 으섯 설 때 돌아가셔수다.(예, 그래서 그때가 여섯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105001 @ 예.(예.)

105001 #1 저 으섯 설 때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머 이 저 저 마을이 어떻 형성 된 건 자세히 모르쿠다.(저 여섯 살 때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머 이 저 저 마을이 어떻게 형성 된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05001 @ 아 예.(아 예.)

101001 #1 마을이 형성된 건,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 저 우도 소섬이라고 했고 또 행정상으로는 구좌면 연평리랏수다. 그때까지만 흥두라도.(마을이 형성된 건,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이 저 우도 소섬이라고 했고 또 행정상으로는 구좌면 연평이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01001 @ 예.(예.)

101001 #1 이제 그 출장소가 소가 잇었고 초등학교가 잇어나수다게.(이제 그 출장소가 소가 있었고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는 이제 천구백 예 오십사 년도 유월 이십일 날 그 고태주교장선생이 이제 좀 노력을 해 개교 인가가 나왔수다게.(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학교는 이제 천구백 예 오십사 년도 유월 이십일 날 그 고태주교장선생이 이제 좀 노력을 해 개교 인가가 나왔습니다.)

101001 @ 음.(음.)

101001 #1 경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 촌 통합이 된 것은, 이제 그 그 후에 머 육십

년 대7지만 ㅎ드레도 ㅁ 인구가 ㅎ 집이 지금 ㅎ 가정에 식구가 지금 ㅎ 일곱 사람도  
 ㄹ 사람도 ㄹ고예. 그 부부가 ㅈ식을 보통 다섯으로부터 ㅎ 열7지 ㄹ ㄹ ㅎ 사람  
 7지 난 가정도 있수다. 그렇게 ㅎ다보니까 인구가 ㅎ 삼천칠백 7지 ㄹ 낮는데 그 이  
 후에 한 칠십 년데 이후에는 그 가족 계획제도가 나와 가니까. 이젠 한 가정이 두 사람  
 ㅅ만 낳자. 이렇게 ㅎ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ㅎ여 가니까 이제 ㅈ식덜 나는 게 줄어들  
 고.(그렇게 ㅎ고 그렇게 해서 이제 ㅁ 참 통합이 된 것은, 이제 그 그 후에 ㅁ 육십년  
 대까지만 하더라도 ㅁ 인구가 한 집에 지금 한 가정에 식구가 지금 한 일곱 사람도 되  
 고 ㄹ 사람도 되고요. 그 부부가 자식을 보통 다섯으로부터 한 열까지 ㄹ ㄹ한 사람까  
 지 난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구가 한 삼천칠백까지 되었는데 그 이후  
 에 한 칠십 년대 이후에는 그 가족 계획제도가 나와 가니까. 이젠 한 가정이 두 사람씩  
 만 낳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ㅎ 가니까 이제 자식들 낳는 게 줄어가지고.)

101001 @ 예.(예.)

101001 #1 예. 지금에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예. 지금.(예. 지금에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요 지금.)

101001 @ 예.(예.)

101001 #1 저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ㅎ ㅎ 몇 년 전만 ㅎ드라도 ㅎ 육십 명뻔긴  
 안뻔서마썸. 이제.(저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ㅎ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육십 명밖  
 에는 안뻔었어요. 이제.)

101001 @ 예.(예.)

101001 #1 또 중학교도 ㅎ 삼십 명뻔긴 안뻔고 이렇게 ㅎ니까 이제는 통합을 ㅎ야  
 ㄹ겟다 이렇게 통합을 ㅎ 지금 통합학교로 ㄹ엇수다.(또 중학교도 한 삼십 명밖에는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니까 이제는 통합을 ㅎ야 되겟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통합학교로  
 되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이제 학생 수는 이제 경 ㄹ고, 마을은 또 저 중앙동이엔 ㅎ 다가, 칠십 년  
 대로부터 ㅅ 사람이 살기 시작했수다. 그렇게 ㅎ는데 거기가 이제는 중앙지가 ㄹ다보니까.  
 상가들이 생기고 또 기관이 이제 ㅅ시 하나 두 게 생기면서 불어나게 ㄹ어네 기관  
 도 많아지고, 이렇게 ㅎ네 지금, 마을이 중앙이라든 중앙동이렌 해서 그 세대가 ㅎ ㄹ  
 세대 이상이 ㄹ어가니까 지금 세대수가 지금 가긔 수가 지금 ㅎ 삼십 가구 이상 ㄹ거우  
 다게. 게 중앙동에서 열두 게 부락으로 ㄹ어수다. 부락은, 그 전에는 해방당시만 ㅎ더라  
 도 부락이 ㄹ 부락 이랸는데, 우리 상하고수동이 지금 또 분동이 ㄹ어네.(이제 학생 수  
 는 이제 그렇게 되고, 마을은 또 저 중앙동이라고 한테 가, 칠십 년대로부터 ㅅ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ㅎ는데 거기가 이제는 중앙지가 되다보니까. 상가들이 생  
 기고 또 기관이 이제 다시 하나 두 게 생기면서 불어나게 되서 기관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이 중앙이라든 중앙동이라고 해서 그 세대가 한 ㄹ 세대 이상이 되어가  
 니까 지금 세대수가 지금 가구 수가 지금 한 삼십 가구 이상 될 겍니다. 게 중앙동에서  
 열두 게 부락으로 되었습니다. 부락은, 그 전에는 해방당시만 하더라도 부락이 ㄹ 부락

이었는데, 우리 상하고수동이 지금 또 분동이 되어서.)

101001 @ 예.(예.)

101001 #1 게 열흔 부락 뒤편다가 또 칠십 년대 이후에는 중앙동이 이제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가니까 이제 또, 이제 거기도 이제는 부락이라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락이, 이제 참 반장도 부락장도 생기고.(그럼 열한 부락 되었다가 또 칠십 년대 이후에는 중앙동이 이제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가니까 이제 또, 이제 거기도 이제는 부락이라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락이, 이제 참 반장도 부락장도 생기고.)

101001 @ 예.(예.)

101001 #1 이렇게 해서 이제, 부락이 열 부락이 되게 됐수다.(이렇게 해서 이제, 부락이 열 부락이 되게 됐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부락 부락 형성은 그렇게 된 건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락 부락 형성은 그렇게 된 건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1001 @ 예. 그거는 또 예. 경 뵈구나예. 지금은 뭐 막 그저 도항선 해가지고.(예. 그거는 또 예. 그렇게 됐군요. 지금은 뭐 막 그저 도항선 해가지고.)

101001 #1 예.(예.)

101001 @ 그 관광지로 해서.(그 관광지로 해서.)

101001 #1 도항선<sup>1)</sup>은 그 구십이년, 구십년도까지만 헤드라도 범선,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범선이 탕기기 시작해수다. 옛날에는 그.(‘도항선’은 그 구십이년, 구십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범선, 저 옛날 아주 옛날에는 범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101001 @ 예.(예.)

101001 #1 돛단배가 다니기 시작하다가, 육십 년도 육십일 년도부터는 그 오○○엔 현 사람이.(돛단배가 다니기 시작하다가, 육십 년도 육십일 년도부터는 그 오○○라고 한 사람이.)

101001 @ 예.(예.)

101001 #1 그 머구리선<sup>2)</sup> 그 발동기 그걸로 이제 저 도항선을 시작해수다.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는 이젠 또, 여러 사람덜이 이젠 또 발동선을 해갖고 지금 이제 저, 큰 섬을 드나들기 시작했수다. 저 세화장<sup>3)</sup>에도 장 보레도 그 배 탕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배 탄 세화리 강 오단 딱시 배 얹어져 갖고 사람덜이 죽은 적 잇었수다. 육십일 년도에 지금, 예. 그렇게 현 적도 잇었고 헛는데, 그렇게 뵈고 그 자연호<sup>4)</sup> 연봉호<sup>5)</sup>엔 현디가 도항선 허가를 받아갖고 정식으로 현 이십 년 동안 다녔수다.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현

1) ‘도항선’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 연락선을 통틀어 말한다.

2) ‘머구리선’은 잠수기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머구리’는 잠수를 뜻하는 일본어 ‘모구리(もぐり)’에서 온 말이다.

3) ‘세화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마을에서 오 일마다 서는 민속장이다.

4) ‘자연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던 해상 정기 연락선을 말한다.

5) ‘연봉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던 해상 정기 연락선을 말한다.

번 오후에 한번 씩 이렇게 다니다가 구십 년도에 강○○이엔 현 사람이 그 도항선 자연 호하고 연봉호를 자기가 인수를 받아갖고.(그 ‘머구리선’ 그 발동기 그걸로 이제 저 ‘도항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는 이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젠 또 발동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 큰 섬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화장’에도 장 보러 그 배 타서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배 타서 세화이 가서 오다가 다시 배 얹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적 있었습니다. 육십일 년도에 지금, 예.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그 ‘자연호’ ‘연봉호’라고 한테가 ‘도항선’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한 이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씩 이렇게 다니다가 구십 년도에 강○○이라고 한 사람이 그 ‘도항선’ ‘자연호’하고 ‘연봉호’를 자기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101001 @ 예.(예.)

101001 #1 그 배로해서 인젠 그거를 폐기 시켜붙고 군 지원을 받아 갖고 이제 바지선, 그 자동차 싣는 배를 만들어수다.(그 배로해서 이제는 그거를 폐기 시켜버리고 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지선, 그 자동차 싣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1010010 @ 예.(예.)

101001 #1 만들어서 이젠 우일호<sup>6)</sup>라고 현 그 바지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젠 그 큰 차는 이제 못 싣거도 이제 승용차는 싣게 다녀수다게.(만들어서 이젠 ‘우일호’라고 한 그 바지선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젠 그 큰 차는 이제 못 싣어도 이제 승용차는 싣어 다녔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렇게 해가니까 이제는 저 그렇게 해서 혼 일 년쯤 다녀가는 도중에 또 임○○이엔 허는 사람이 서귀포에 가서 그 자연호 연봉호를 팔아두고 그 사람한테 강○○이 헌디 팔아두고, 가서 거기 가서 사업도 안 돼니까 자기도 도로 이제는 도선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가 이제 강○○이가 아 경정 헌민은 배 수지도 안 맞이곡, 이제 자기가 또 위험 때문에 고생도 하고 헌니까 이제 강○○이 저 임○○이 안티, 자기 허는 배를 맡아부리라 그래서 우일호를 그 사람이 맡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가족들을 동원 해갖고, 또 큰 배를 만들기 시작 해수다게.(그렇게 해가니까 이제는 저 그렇게 해서 한 일 년쯤 다녀가는 도중에 또 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귀포에 가서 그 ‘자연호’ ‘연봉호’를 팔아두고 그 사람한테 강○○이 한테 팔아두고, 가서 거기 가서 사업도 안 되니까. 자기도 도로 이제는 도선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가 이제 강○○이가 아 그렇고 저렇고 하면은 배 수지도 안 맞고, 이제 자기가 또 위험 때문에 고생도 하고 헌니까 이제 강○○이 저 임○○이 한테, 자기 하는 배를 맡아버려라 그래서 ‘우일호’를 그 사람이 맡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가족들을 동원 해가지고, 또 큰 배를 만들기 시작 했습니다.)

101001 @ 예. 임○○이엔 현 사람이예.(예. 임○○이라고 한 사람이요.)

6) ‘우일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던 해상 정기 연락선을 말한다.

101001 #1 예. 그 사람이.(예. 그 사람이.)

101001 @ 계민 저기 우도 소섬 사람잇과?(그러면 저기 우도 소섬 사람입니까?)

101001 #1 예. 하르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육십 년대 태인호<sup>7)</sup>라고 도항선을 헤나수다. 그 사람이 허다가 그때는 도항선 허는 배가 허가 없이 헐 때니까 여러 사람이 경쟁 허니까 밀려 나갔고, 그 뱔 저 추자도에 팔아부러수다. 경 영 에 허테기니까. 예. 그렇게 헐는디 그 후에 임○○이가 짝끔 자기가 좀 힘있으니까.(예.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육십 년대 ‘태인호’라고 ‘도항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다가 그때는 ‘도항선’ 하는 배가 허가 없이 할 때니까 여러 사람이 경쟁하니까 밀려 나가지고, 그 배를 저 추자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에 허덕이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 후에 임○○이가 조금 자기가 좀 힘 있으니까.)

1010010 @ 응.(응.)

101001 #1 이제 그 또 고흥○○씨 흥○○이엔 혼 하르방 헝고 ㄹ치 그 자연호를 ㄹ치 동아리를 헝는 거라마씨. ㄹ치 이제 동업을 ㄹ치해서 ㄹ치헝다가 쫓내는 이제 임○○이가 그 자연호를 마트게 뵈 거십주.(이제 그 또 고흥○○씨 흥○○이라고 한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 ‘자연호’를 같이 동아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동업을 같이해서 같이 하다가 쫓내는 이제 임○○이가 그 ‘자연호’를 맡게 된 것이지요.)

101001 @ 예.(예.)

101001 #1 맡게 뵈고, 나중에 것도 자기가 수지 안 맞으니까 또 팔아두고 나갔다가 또 도로 와 갖고 이제 저 또 이제 우도 도항선 이제 바지선을 크게 세 척을 뵈들아 놔나수다. 세 척을.(맡게 되고, 나중에 것도 자기가 수지 안 맞으니까 또 팔아두고 나갔다가 또 도로 와 가지고 이제 저 또 이제 우도 ‘도항선’ 이제 바지선을 크게 세 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척을.)

101001 @ 응.(응.)

101001 #1 뵈들아서 이제 허는 도중에 또 이제 강○○이렌 허는 사람이 이제 덕일호<sup>8)</sup>, 이거 바지선을 이제 화물선을 만들어서 이제 허가를 못 받고, 도항선을 허가를 못 받고 허는데, 하도 귀찮게 저 도항선을 싣고 다녀가니까 아 저저 저 다른 차를 화물선이니까 싣어 다닐 수가 이십주. 그렇게 해가니까 경쟁해서 귀찮다고 해서 ㄹ치 동업을 해버렸수다. 하나로 묶어 부렸수다.(만들어서 이제 하는 도중에 또 이제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덕일호<sup>9)</sup>, 이거 바지선을 이제 화물선을 만들어서 이제 허가를 못 받고, ‘도항선’을 허가를 못 받고 하는데, 하도 귀찮게 저 ‘도항선’을 싣고 다녀가니까 아 저저 저 다른 차를 화물선이니까 싣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니까 경쟁해서 귀찮다고 해서 같이 동업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로 묶어 버렸습니다.)

101001 @ 예.(예.)

7) ‘태인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던 해상 정기 연락선을 말한다.

8) ‘덕일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던 해상 정기 연락선을 말한다.

9) ‘덕일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던 해상 정기 연락선을 말한다.

101001 #1 묶어서 이제 그 임봉순이렌 혼 사람이 이제 또 우일호, 우일호까지도 이제 군수한테 가서 자기가 말 말겠다. 아, 이 저 강영길이.(묶어서 이제 그 임○○이라고 혼 사람이 이제 또 ‘우일호’, ‘우일호’까지도 이제 군수한테 가서 자기가 말 말겠다. 아, 이 저 강○○이.)

101001 @ 예.(예.)

101001 #1 것을 이제 군에서, 보조해준 거주만은 군에서 유지하지 말고 나 한티 전부 다 전권을 주어서 나한테 풀게 해주시오 해서, 자기가 맡아갖고 그 사람이 도항선 세 척 네 척 중에, 스십 프로 이 그 주권을 가져 낫수다게.(것을 이제 군에서, 보조해준 거지만 군에서 유지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다 전권을 주어서 나한테 팔게 해주시오 해서,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도항선’ 세 척 네 척 중에, 사십 프로 이 그 주권을 가졌 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래서 그 사람이 혼 몇 십 년 동안에 몇 십억 벌어본 거라마씨.(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몇 십 년 동안에 몇 십억 벌어버린 거예요.)

101001 @ 예.(예.)

101001 #1 그렇게 해가니까 이제는 우도사랑<sup>10)</sup>이란 저 회사에서 딱시 이제 그 배가 무슨 회사인가는 예, 이제 저기 도항선을 ㄴ치 허겔다고 저 자기네가 허겔다고 해서 하우목동<sup>11)</sup>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식을 모아 갖고 우도 사랑이란 1호<sup>12)</sup>, 2호<sup>13)</sup> 배를 만들게 나와십주. 이제 삼백 톤급, 그렇게 해서 그때가 예 이 천 혼 삼 사 년도 돼수다 그때, 그때에 예 그 해를 나니까 또 그 후에 이제는 그 사람들 배 해가니까 또 이제 우도랜드<sup>14)</sup>라 해서, 이제 세 번째 회사가 나와네 이제, 지금 ㄴ치 경쟁을 행 허다가 또 경영하는 데는 머 주식을 배당하는 데는 이제 각자가 다 가르주만은 그자 운영허는디만 합의를 해갖고, 이제 싸움 없이 합의를 헐 해갖고 잇수다게. 도항선에.(그렇게 해가니까 이제는 ‘우도사랑’이란 저 회사에서 다시 이제 그 배가 무슨 회사인가 예, 이제 저기 ‘도항선’을 같이 하겔다고 저 자기네가 하겔다고 해서 ‘하우목동’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식을 모아가지고 ‘우도사랑’이란 ‘1호, 2호’ 배를 만들게 나왔습니다. 이제 삼백 톤급, 그렇게 해서 그때가 예 이 천 한 삼 사 년도 됐습니다 그때, 그때에 예 그 해를 나니까 또 그 후에 이제는 그 사람들 배 해가니까 또 이제 ‘우도랜드’라 해서, 이제 세 번째 회사가 나와서 이제, 지금 같이 경쟁을 해서 하다가 또 경영하는 데는 뭐 주식을 배당하는 데는 이제 각자가 다 가르지만은 그자 운영하는 데만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싸움 없이 합의를 해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도항선’에.)

10) ‘우도사랑’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연락선이다.

11) ‘하우목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의 한 동이다.

12) ‘1호’는 ‘우도사랑 1호’ 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연락선이다.

13) ‘2호’는 ‘우도사랑 2호’ 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연락선이다.

14) ‘우도랜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연락선의 회사명이다.

101001 @ 예. 그러면은 그 배에 관해서는, 마을 이 우도 사람들이 소유권 같은 것도.(예. 그러면은 그 배에 관해서는, 마을 이 우도 사람들이 소유권 같은 것도.)

101001 #1 주식 주식에서 다 가입헌 겁니다. 출자를 해서.(주식 주식에서 다 가입헌 겁니다. 출자를 해서.)

101001 @ 출자를 해서 다 가입허고?(출자를 해서 다 가입하고?)

101001 #1 예예.(예예.)

101001 @ 주식 그 배당금도 다 가입헌 사람들은 받고.(주식 그 배당금도 다 가입헌 사람들은 받고.)

101001 #1 예예. 게서 이익금들도 배당을 받고.(예예. 그래서 이익금들도 배당을 받고.)

101001 @ 예. 계난 삼촌님도 이제 주식투자 해가지고.(예. 그러니까 삼촌님도 이제 주식투자 해가지고.)

101001 #1 나도 지금 저 일차로 이천 처음 할 때 우도해운에.(나도 지금 저 일차로 이천 처음 할 때 우도해운<sup>15)</sup>에.(나도 지금 저 일차로 이천 처음 할 때 ‘우도해운’에.)

101001 @ 예.(예.)

101001 #1 에 저 돈 액수로 그자 저 천오백만 원 출자해네 지금.(에 저 돈 액수로 그 저 저 천오백만 원 출자해서 지금.)

101001 @ 예.(예.)

101001 #1 저 용돈을 벌었쥬다.(저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101001 @ 예. 용돈 벌었예. 용돈 버는 거는 해마다?(예. 용돈 벌어서요. 용돈 버는 거는 해마다?)

101001 #1 예.(예.)

101001 @ 해마다 갈라근에예?(해마다 갈라서요?)

101001 #1 예.(예.)

101001 @ 계문.(그러면.)

101001 #1 달 달이 이제, 그 대여금으로 해서 인수를 받읍니다.(다달이 이제, 그 대여금으로 해서 인수를 받읍니다.)

101001 @ 그러면 참여헌 우도 주민들이 대략 몇 가구 정도, 회원이 몇 사람?(그러면 참여한 우도 주민들이 대략 몇 가구 정도, 회원이 몇 사람?)

101001 #1 또 에 한 오 년 전만 허드라도 지금 이제 믯을 전 십이 개 자연부락에 그 마을에.(또 에 한 오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마을 전 십이 개 자연부락에 그 마을에.)

101001 @ 예.(예.)

101001 #1 마을 세를 네야 됩니다. 마을 운영비를.(마을 세를 네야 됩니다. 마을 운영비를.)

---

15) ‘우도해운’은 ‘우도랜드’와 더불어 불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 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연락선의 회사명이다.

101001 @ 예예.(예예.)

101001 #1 네는 호수가 흔 오백쯤 오백 호는 돼나수다게. 켜디 마을에 네는 게 일 년에 흔 돈 십만 원씩 네야 돼마씨. 마을운영비로 이제.(내는 호수가 한 오백쯤 오백호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네는 게 일 년에 한 돈 십만 원씩 네야 되요. 마을운영비로 이제.)

101001 @ 예.(예.)

101001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름들은 여기 안 살고 다 노인들만 우도에 살게 된 거라마씨. 계난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이제 톨<sup>16)</sup> ㄱ든 것도, 이제 ㄱ치 부역을 해서 톨을 ㄱ치 캐면은 그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늙어노니까 톨을 캐질 못하는 거라마씨.(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름들은 여기 안 살고 다 노인들만 우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살다보니까 이제 톨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부역을 해서 톨을 같이 캐면 그 배당을 받았는데, 이제 늙어버리니까 톨을 캐질 못하는 거예요.)

101001 @ 예.(예.)

101001 #1 예. 계민 캐지 안혀는 사름은, 그 배당을 안주는 거라마씨.(예. 그러면 캐지 않는 사름은, 그 배당을 안주는 거예요.)

101001 @ 아.(아.)

101001 #1 안줘마씨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들은 이젠 톨을 못 배당 받을 바에는 ㄱ을에 참여 행 머 허느냐 세금을 낸 가입 행 머 허느냐. 그래서 다 사퇴를 해볼엄수다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삼백오십 가구 삼백한 구십 가구벧기 안웁수다. 지금.(안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들은 이젠 톨을 못 배당 받을 바에는 마을에 참여해서 뭐 하느냐 세금을 내서 가입해서 뭐 하느냐. 그래서 다 사퇴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은, 삼백오십 가구 삼백한 구십 가구밖에 안됩니다. 지금.)

101001 @ 예. 마을회에 참여한 사름은예.(예. 마을회에 참여한 사름은요.)

101001 #1 예.(예.)

101001 @ 응.(응.)

105001 #1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모르니까 이번에 또 우도사랑협동조합<sup>17)</sup>이라고 발족해서, 거기가 생긴지가 지금 지난 십이 월 달에 호당 십만 원씩 출자 해갖고, 이 우도사랑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도에서 뭐 이제 그 춤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이제 예 관광객덜을 실리서 우도 구경을 시키면서 해볼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도 즈동차 전기즈동차가 보급해 줄테니까 또 보조도 해 줄테니까 전기 즈동차를 해 봐라.(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모르니까 이번에 또 ‘우도사랑협동조합’이라고 발족해서, 거기가 생긴 지가 지금 지난 십이 월 달에 호당 십만 원씩 출자 해가지고, 이 ‘우도 사랑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도

16) ‘톨’은 톨으로 갈조류 등복과의 해조다. 몸은 섬유상의 뿌리로 지탱되며,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다. 늦은 여름 발아하여 겨울에 자라기 시작하여 이듬해 봄이 되면 30~100cm까지 자라서 여름에 말라 죽는다. 바닷가 바윗돌에 붙어 자라는데 채취하여 잎을 식용한다.

17) ‘우도사랑협동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항구에서 제주시 우도면사이를 다니며 운항하는 해상 정기연락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다.



에서 뭐 이제 그 참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이제 예 관광객들을 싣고 우도 구경을 시키면서 해보려고 해서 지금 도에서도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보급해 줄 터이니. 또 보조도해 줄 터이니 전기 자동차를 해 보라.)

101001 @ 예.(예.)

101001 #1 이십인 승.(이십인 승.)

101001 @ 예.(예.)

101001 #1 그걸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지난, 저.(그걸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지난, 저.)

101001 @ 예.(예.)

101001 #1 십이월 달에 호당 십만 원씩 출자를 해갖고 지금, 발족을 해연에 예 지난 스월에 법인등기를 마친.(십이월 달에 호당 십만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지금, 발족을 해서 예 지난 사월에 법인등기를 마쳐서.)

101001 @ 응.(응.)

101001 #1 이제 정식으로 사업헬라고 해서, 지금 호당 천만 원씩.(이제 정식으로 사업하려고 해서, 지금 호당 천만 원씩.)

101001 @ 예.(예.)

101001 #1 출자금을 조성 모금을 하고 잇수다.(출자금을 조성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때 모금 허는 거 통지를 보니까. 삼백오십사 가구로 돼 잇어마썸. 건 뭐나 허면 십만 원씩 낸 호수만 삼백 오십사 가구라마썸.(그때 모금 하는 거 통지를 보니까. 삼백오십사 가구로 돼 잇어요. 건 뭐나 허면 십만 원씩 낸 호수만 삼백 오십사 가구 예요.)

101001 @ 예. 우도사랑.(예. 우도사랑.)

101001 #1 예.(예.)

101001 @ 협동조합이.(협동조합이.)

101001 #1 예예. 출자금 일차 십만 원씩 낸 호수만, 그렇게 해서 지금 출자 모금을 흥는디 나도 천만 원 출자해십주.(예예. 출자금 일차 십만 원씩 낸 호수만, 그렇게 해서 지금 출자 모금을 하는데 나도 천만 원 출자했습니다.)

101001 @ 아, 예.(아, 예.)

101001 #1 나도 이제 했는데. 지금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백오십 가구만 천만 원씩 냈다 흥여마썸.(나도 이제 했는데. 지금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백오십 가구만 천만 원씩 냈다 해요.)

101001 @ 예.(예.)

101001 #1 지금 현재 그래서.(지금 현재 그래서.)

101001 @ 이거는 자동차에 관한 거예.(이거는 자동차에 관한 거요.)

101001 #1 예. 자동차를 사서 이제 허는 거.(예. 자동차를 사서 이제 하는 거.)

101001 @ 예에 허는 거고예.(예에 허는 거고요.)

101001 #1 사업 그 관광 사업을 해볼라고.(사업 그 관광 사업을 해보려고.)

101001 @ 관광 사업예.(관광 사업예요.)

101001 #1 예예.(예예.)

101001 @ 그러면 아까 삼백 오십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 도항선에 관계된 저 저기 그 우도에 출자한.(그러면 아까 삼백 오십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 도항선에 관계된 저 저기 그 우도에 출자한.)

101001 #1 천오백만 원은 도항선에 출자를 했고.(천오백만 원은 도항선에 출자를 했고.)

101001 @ 예. 도항선에 한 거고 거기에 또 십만 원씩 낸 사람도 전부 합쳐 삼백오십명 정도.(예. 도항선에 한 거고 거기에 또 십만 원씩 낸 사람도 전부 합쳐서 삼백오십명 정도.)

101001 #1 이번에 보니까 우도사랑협동조합은 그 십만 원씩은 일차로 등록을 할라면.(이번에 보니까 우도사랑협동조합은 그 십만 원씩은 일차로 등록을 하려면.)

101001 @ 예.(예.)

101001 #1 이제 출자금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십만 원씩만 우선 출자를 해갖고, 한 후에 이제 등록이 끝나니까 이제는 천만 원씩을 모아갖고.(이제 출자금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십만 원씩만 우선 출자를 해가지고, 한 후에 이제 등록이 끝나니까 이제는 천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101001 @ 예.(예.)

101001 #1 이제 자동차도 사고 또 부지도, 자동차 이제 할 차고지도 사고, 또 모든 준비를 하자.(이제 자동차도 사고 또 부지도, 자동차 이제 할 차고지도 사고, 또 모든 준비를 하자.)

101001 @ 예.(예.)

101001 #1 예. 이렇게 해서하고 있는 걸로 끝이 났다.(예. 이렇게 해서하고 있는 걸로 끝이 났다.)

101001 @ 예. 그거는 자동차 부분예.(예. 그거는 자동차 부분요.)

101001 #1 예.(예.)

101001 @ 자동차 그 출자하는 거고.(자동차 그 출자하는 거고.)

101001 #1 예.(예.)

101001 @ 그러면은 저 맨 처음에 그 도항선에 출자는.(그러면은 저 맨 처음에 그 ‘도항선’에 출자는.)

101001 #1 출자는 천오백만 원 출자 했다가.(출자는 천오백만 원 출자 했다가.)

101001 @ 했다가.(했다가.)

101001 #1 나중에 도항선 그 동급을 하나 이제 폐기하게 됐수다.(나중에 ‘도항선’ 그 동급을 하나 이제 폐기하게 됐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폐기해서 새로 큰 배를 세 삼백 톤급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 대신 그렇

게 해서 또 천만 원씩 또 추가 출자를 했수다.(폐기해서 새로 큰 배를 에 삼백 톤급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또 천만 원씩 또 추가 출자를 했습니다.)

101001 @ 아.(아.)

101001 #1 겐 나가 이천오백만 원씩 출자헌 셈입주마씨.(그래서 내가 이천오백만 원씩 출자한 셈입지요.)

101001 @ 게민 그런 디 출자헌 사름들 다 모두 몇 명 정도 돼쿠과?(그러면 그런데 출자한 사름들 다 모두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101001 #1 우리 우도 회원에.(우리 우도 회원에.)

101001 @ 십만 원 낸 사름도 잇고.(십만 원 낸 사름도 있고.)

101001 #1 출자헌 사름은 한 오십 명 될 거우다.(출자한 사름은 한 오십 명 될 겁니다.)

101001 @ 아, 우도회원은 오십 명예.(아, 우도회원은 오십 명이요.)

101001 #1 예. 우도회원.(예. 우도회원.)

101001 @ 예예.(예예.)

101001 #1 또 우도사랑에는 한 백여 명 될 거우다 우도 사랑에는 또.(또 ‘우도사랑’에는 한 백여 명 될 겁니다 ‘우도사랑’에는 또.)

101001 @ 예.(예.)

105001 #1 또 우도랜드에는 혼 이백 명쯤 웬다허는 거 님읍디다.(또 ‘우도랜드’에는 한 이백 명쯤 된다하는 거 같습디다.)

101001 @ 한 이백 명예. 예예, 경 헛구나. 그러면은 이 처음에 질문이 이 마을이 형성에 대해서 해줍센 허니까는 삼촌님 그, 저기 태어난 후로부터는 말씀해 주신 거 부터고 그 전 이야기를.(한 이백 명예. 예예, 그렇게 헛구나. 그러면은 이 처음에 질문이 이 마을이 형성에 대해서 해주십사하고 하니까는 삼촌님 그, 저기 태어난 후로부터는 말씀해 주신 거부터이고 그 전 이야기를.)

101001 #1 예.(예.)

101001 @ 그전 이야기들 뭐 하르버지안티 들은 거나, 누구 이웃 누구안티 들은 거라도 잇이민예. 골아줍서 그니깐 삼촌님 태어난 그전에, 들엇던 일도 이거는 되는 거니까 예.(그전 이야기들 뭐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나, 누구 이웃 누구한테 들은 거라도 있으면 요 말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촌님 태어난 그전에, 들엇던 일도 이거는 되는 거니까요.)

101001 #1 예.(예.)

101001 @ 삼촌님 경험헌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들.(삼촌님 경험헌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들.)

101001 #1 게 그러니 마을이 형성이 웬 건 네가 이제 좀 천팔백 스십이년도에 이전에는 여기가 도립목장이엔 해낫젠마썸 여기가.(그럼 그러니 마을이 형성이 된 건 내가 이제 좀 천팔백 사십이년도에 이전에는 여기가 도립목장이라고 했다고요 여기가.)

101001 @ 예예.(예예.)

101001 #1 거 이형상 도립목장 도립목장이엔 헛다고 허는데 예, 천구백 스십이 년도

에는 그 이형상 목사가, 이제는 목장을 해지시켜 불겟다.(거 이형상 도립목장 도립목장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 천팔백 사십이 년도에는 그 이형상 목사가, 이제는 목장을 해지시켜 버리겠다.)

101001 @ 아, 천팔백사십이년.(아, 천팔백사십이년.)

101001 #1 예. 스십이년에 개인이 갈아, 갈아 먹으라.(예. 사십이년에 개인이 갈아, 갈아 먹어라.)

101001 @ 예.(예.)

101001 #1 저 저 땅을 만들어서.(저 저 땅을 만들어서.)

101001 @ 예.(예.)

101001 #1 그래서 또 스십스년에는 이제 김성림, 그 이제 그 김진사님네 김성림이라는 그 분이 그 진사 벼슬을 해난 모양이라마쭈.(그래서 또 사십사년에는 이제 김성림<sup>18)</sup>, 그 이제 그 ‘김진사님’네 ‘김성림’이라는 그 분이 그 진사 벼슬을 했던 모양이에요.)

101001 @ 예.(예.)

101001 #1 그 분이 여기완 살면서도 쯤 나앗던 모양이라. 켜 관에 가서.(그 분이 여기와서 살면서도 쯤 나앗던 모양이야. 그래서 관에 가서.)

101001 @ 예.(예.)

101001 #1 우도도 행정구역 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인가를 해 줬던 해마쭈.(우도도 행정구역 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인가를 해 주었다 해요.)

101001 @ 사십사년에예.(사십사년에요.)

101001 #1 예예.(예예.)

101001 @ 예. 천팔백사십사년에.(예. 천팔백사십사년에.)

101001 #1 예예. 그때 경흥곡 그때 왜로는 하르방덜이, 이 우리 우도가 정의면<sup>19)</sup> 허고 예 옛날 정의면 허고 모관<sup>20)</sup> 모관허고 이제 양 사이에 잇수다게.(예예. 그때 그렇게 하고 그때 왜로는 할아버지들이, 이 우리 우도가 ‘정의면’ 하고 예 옛날 ‘정의면하고 모관 모관하고 이제 양 사이에 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정의는 성산<sup>21)</sup>이고 모관은 종달리<sup>22)</sup> 이쪽으로 아넛과.(‘정의’는 성산이고 모관은 종달리 이 쪽으로 아넛과.(‘정의’는 ‘성산’이고 ‘모관’은 ‘종달리’ 이쪽으로 아넛니까.)

101001 @ 예.(예.)

101001 #1 계난 우리가 양 사이에 잇수다.(그러니까 우리가 양 사이에 있습니다.)

101001 @ 예.(예.)

18) ‘김성림’은 제주시 우도읍에서 진사 배출을 한 김진사라는 인물이다.

19) ‘정의면’은 서귀포시의 조선시대 행정단위를 이르는 ‘정의’에 현재 행정단위인 ‘면’ 덧붙인 말이다.

20) ‘모관’은 제주시 동지역으로 조선시대 행정단위인 제주목이다.

21)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이다.

22) ‘종달리’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이다.

101001 #1 그러니까 이제, 왜 그때 왜 모관 쪽에 부딪느냐. 계란 그때 하르방덜이 나  
은 하르방덜이 이왕이면 좀 높은 사람 밑으로 가자.(그러니까 이제, 왜 그때 왜 ‘모관’  
쪽에 붙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들이 난 할아버지들이 이왕이면 좀 높은 사람  
밑으로 가자.)

101001 @ 예.(예.)

101001 #1 모관에는 그때 판관이 저.(모관에는 그때 판관이 저.)

101001 @ 예.(예.)

101001 #1 이제 그뜨면은 이제 그저 제일 높은 수령이랴고, 저 이 서이는 사또.(이제  
같으면 이제 그저 제일 높은 수령이었고, 저 이 서에는 사또.)

101001 @ 예.(예.)

101001 #1 즉 말하면, 그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판사가 저 판관이 높지 않느냐. 이렇  
게 해서 이쪽으로 부딪다고 험니다게, 그래서.(즉 말하면, 그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판  
사가 저 판관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1001 @ 예. 경 헛구나예.(예. 그렇게 했군요.)

101001 #1 그렇게 해서 행정구역은 그 쪽에서 하고, 또 우도에 어느 쪽 사람들이 많  
이 왔느냐 하면은, 보통 김녕<sup>23)</sup>, 월정<sup>24)</sup>, 행원<sup>25)</sup> 에, 하도<sup>26)</sup>, 세화<sup>27)</sup> 이쪽 사람들이 많  
이 온 거라마썸. 게 경 허가가 나오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라마썸. 들어서 이제 우도 가  
면은 이제 저 내분 땅에 내버린 땅에 이제 참 주어서 담 다와서, 이제 밭을 만들어서  
해 먹을 수 있더라 허드라 그 소식을 듣고 우도 다 들어온 거라마썸.(그렇게 해서 행정  
구역은 그 쪽에서 하고, 또 ‘우도’에 어느 쪽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하면은, 보통 ‘김녕’,  
‘월정’, ‘행원’ 에, ‘하도’, ‘세화’ 이쪽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허가가 나  
오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제 우도 가면은 이제 저 내버린 땅에 내버린  
땅에 이제 참 주어서 담 쌓아서, 이제 밭을 만들어서 해 먹을 수 있더라 하더라 그 소  
식을 듣고 우도 다 들어온 거예요.)

105015 @ 예.(예.)

105015 #1 그 이전에도 사람이 목장 때만 헛드라도 사람은 출입은 해난 모양이라마  
썸.(그 이전에도 사람이 목장 때만 하더라도 사람은 출입은 했던 모양이에요.)

101001 @ 예.(예.)

101001 #1 그 이 저 해산물 허래.(그 이 저 해산물 하러.)

101001 @ 예.(예.)

101001 #1 터우선<sup>28)</sup> 터웃배로 다니명 많이 중간 오다가 풍파도 만났 죽고, 여기 우  
도지 보문예. 사람도 죽으면 뭐 성씨 깃지도 이름 깃지도 다 나와잇수다게. 우리 한 씨

23)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이다.

24) ‘월정’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이다.

25) ‘행원’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이다.

26) ‘하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이다.

27) ‘세화’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이다.

28) ‘터우선’은 ‘테우’, ‘터우’는 때의 제주어로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이다.

도 많이 죽어서마썸. 이 사이에 그 터웃배로 다니다가.(때 때로 다니면서 많이 중간 오다가 풍파도 만나서 죽고, 여기 우도지 보면요. 사람도 죽으면 뭐 성씨 까지도 이름 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씨도 많이 죽었어요. 이 사이에 그 때로 다니다가.)

101001 @ 예. 터웃배로 다니다가예?(예. 때로 다니다가요?)

101001 #1 예. 풍파 만나갖고. 이제 그렇게 헛다고 해서 해서 헛면은, 보통 보면은 그 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는 저 해안가.(예. 풍파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헛다고 해서 해서 하면, 보통 보면 그 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는 저 해안가.)

101001 @ 예.(예.)

101001 #1 해안가는 돌이 만허고 하니까 돌 구허기 쉬우니까 해안가 쪽으로 담을 다 와서마썸.(해안가는 돌이 많고 하니까 돌 구하기 쉬우니까 해안가 쪽으로 담을 쌓았어요.)

101001 @ 예.(예.)

101001 #1 그래서 해안가 쪽으로 가보면은 돌이 겹담으로 막 쌓아 잇수다게.(그래서 해안가 쪽으로 가보면 돌이 겹담으로 마구 쌓아 있어요.)

101001 @ 예.(예.)

101001 #1 그걸 우리 면에서는 문화제로 보호허자고 해서, 거기를 이제 거기를 어떻게 게 허는데 그걸 파손도 못허게 허는데 그 곳이 이제 광광지가 돼 가니까 일부가 좀 파손된 디도 잇어마썸. 집을 지어가니까 우리 면에서도 건 막지 못 허는 거라 자기 땅에 뭐, 자기 기지에 저 집짓는 게 저 그걸 파손해서 집짓는 게 이 뭐냐 해서 허는데, 그 대신 면에서는 그걸 보호홀랴고 노력을 험수다. 지금.(그걸 우리 면에서는 문화제로 보호하자고 해서, 거기를 이제 거기를 어떻게 그레 하는데 그걸 파손도 못하게 하는데 그 곳이 이제 관광지가 돼 가니까 일부가 좀 파손된 데도 있어요. 집을 지어가니까 우리 면에서도 건 막지 못하는 거야 자기 땅에 뭐, 자기 기지에 저 집짓는 게 저 그걸 파손해서 집짓는 게 이 뭐냐 해서 하는데, 그 대신 면에서는 그걸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1001 @ 예.(예.)

101001 #1 저 문화재 허가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쿠다마는 지금 문화제로 보호 홀랴고 허고, 저 산호사<sup>29)</sup>마는 막 지금, 문화제로 보호헤네.(저 문화재 허가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제로 보호 하려고 하고, 저 ‘산호사’만은 아주 지금, 문화재로 보호해서.)

101001 @ 예.(예.)

101001 #1 지금, 꼼짝도 못허게 멘들암수다게.(지금,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1001 @ 예. 저기 저.(예. 저기 저.)

101001 #1 켄디 여기 돌담 둘른 건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헐게 허지는 못허는 모양이라 헐 수도 잇게 허는 모양이라마썸.(그런데 여기 돌담 두른 건 지금 아직까지는 완

---

29) ‘산호사’는 제주시 우도읍 하우목동에 위치한 산호 해변이다.

전혀 헐게 하지는 못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게 하는 모양이에요.)

101001 @ 예. 계난 그 돌담은 바람 막젠.(예. 그러니까 그 돌담은 바람 막으려고.)

101001 #1 예. 바람막이로마씨.(예. 바람막이로요.)

101001 @ 예. 저쪽으로 이쪽엔 엇언게마는.(예. 저쪽으로 이쪽에는 없더니만.)

101001 #1 예. 이 이쪽으로가 이 동네에서는 허는 거고.(예. 이 이 쪽으로가 이 동네에서는 하는 거고.)

101001 @ 예.(예.)

101001 #1 저쪽도 째끔씩은 잇수다. 저 서쪽으로도.(저쪽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 서쪽으로도.)

101001 @ 예.(예.)

101001 #1 째끔씩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헐는데 여기는 계절적으로 옛 저 셋브름 셋브름 여기는 동풍.(조끔씩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았았는데 여기는 계절적으로 예 저 셋바람 셋바람 여기는 동풍.)

101001 @ 예.(예.)

101001 #1 동풍이 많이 불주마썸. 겐 조 ㄱ든 걸 해 먹젠 허민은 담 막이를 해야마썸. 담 막이 없으면은 조를 그 바람에 쓸어버리면.(동풍이 많이 불지요. 그래서 조 같은 걸 해 먹으려고 하면 담 막이를 해요. 담 막이 없으면 조를 그 바람에 쓸어버리면.)

101001 @ 예.(예.)

101001 #1 그 조가 잘 안 뽕주마씨.(그 조가 잘 안 뽕지요.)

101001 @ 예.(예.)

101001 #1 그때는 조허고 보리만 갈아 먹었어, 옛날에는.(그때는 조하고 보리만 갈아 먹었어, 옛날에는.)

101001 @ 예.(예.)

101001 #1 그러다가 이제 예 팔십년도, 육십년도부터는 고구마를 갈기 시작했수다.(그러다가 이제 예 팔십년도, 육십년도부터는 고구마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그 브름에 그 피해가 덜 가니까. 고구마를 갈아먹기 시작하니까. 고구마를 한 칠십년 팔십년도까지는, 고구마를 갈면서 처음에는 고구마 갈면서 중요로 하다가 이제는 절간고구마, 위낙 생산을 그 옛날 고구마보다 고구마는 잘 들어나서마썸.(그 바람에 그 피해가 덜 가니까. 고구마를 갈아먹기 시작하니까. 고구마를 한 칠십년 팔십년도까지는, 고구마를 갈면서 처음에는 고구마 갈면서 중요로 하다가 이제는 절간고구마, 위낙 생산을 그 옛날 고구마보다 고구마는 잘 들었어요.)

101001 @ 예.(예.)

101001 #1 지금 나온 고구마가, 절간을 해서 마른 고구마.(지금 나온 고구마가, 절간을 해서 말린 고구마.)

101001 @ 예예.(예예.)

101001 #1 마른 고구마를 흐면은 그걸 이제 또 말려서 농협에서는 수매를 해서마

썸.(마른 고구마를 하면은 그걸 이제 또 말려서 농협에서는 수매를 했어요.)

101001 @ 예.(예.)

101001 #1 에, 즉 말하면 그 소주 원료로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 갈기 시작. 사다가, 그게 이제는 저 구십년대 썸 나가니까. 고구마 말린 고구마 허는 것보다 전분 원료로 전분 원료로 이제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분 원료로 해서 한 두어 번 한 이년 동안 육 30) 큰섬31)에 가서 팔아오는데 아 것도 팔기가 까다로운 거라. 이제 경하고 또 이제 그 오○○이엔 한 사람이 거 우리 땅콩을 해봅시다, 땅콩. 그래서 땅콩을 갈기 시작한 거라. 또 그때부터 땅콩도.(예, 즉 말하면 그 소주 원료로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 갈기 시작. 사다가, 그게 이제는 저 구십년대 썸 나가니까. 고구마 말린 고구마 하는 것보다 전분 원료로 전분 원료로 이제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분 원료로 해서 한 두어 번 한 이년 동안 육 ‘30) ‘큰섬’에 가서 팔아오는데 아 것도 팔기가 까다로 운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오○○이라고 한 사람이 거 우리 땅콩을 해봅시다, 땅콩. 그래서 땅콩을 갈기 시작한 거야. 또 그때부터 땅콩도.)

101001 @ 예.(예.)

101001 #1 그래서 이제 고구마보다 고구마를 육지에서 팔라고 하니 그때는 절간이 육지에도 이제는 전분공장이 많이 있다가, 공해가 된다고 해서 전분공장도 육지에선 큰 섬에선 못 하게 한 거라마씨. 그러니 이 마른 이 저 전분이 고구마 저 늘고구마를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한 거라마씨.(그래서 이제 고구마보다 고구마를 육지에서 팔려고 하니 그때는 절간이 육지에도 이제는 전분공장이 많이 있다가, 공해가 된다고 해서 전분 공장도 육지에선 ‘큰섬’에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른 저 전분이 고구마 저 늘고구마를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한 거예요.)

101001 @ 예.(예.)

101001 #1 경 허난에 땅콩을 갑시다. 게 땅콩을 갈면서 이제는 또 땅콩을 이제 저 면에서 저 저 저 농협에서 몇 년 동안 추곡을 해수다게.(그렇게 하니 땅콩을 갑시다. 그래서 땅콩을 갈면서 이제는 또 땅콩을 이제 저 면에서 저 저 저 농협에서 몇 년 동안 추곡을 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허다가 몇 년 후에는 이제 농협에서도 추곡허기가 곤란하다 이제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저 유통공사까지도 가야되는데.(하다가 몇 년 후에는 이제 농협에서도 추곡허기가 곤란하다 이제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저 유통공사까지도 가야되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유통공사에 그 이 이 땅콩 사 들일걸 꺼리고 있다. 예, 이제 수량도 적고 또 이제 그걸 또 저 원료로 누게 사 갈려고 앓고 또 이제 사먹는 사람이 없다.(유통공사에 그 이 이 땅콩 사 들일걸 꺼리고 있다. 예, 이제 수량도 적고 또 이제 그걸 또 저 원료로 누게 사 가려고 안하고 또 이제 사먹는 사람이 없다.)

30) ‘30)’은 제주시 우도읍에서 제주본섬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31) ‘큰섬’은 제주시 우도읍에서 제주본섬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101001 @ 예.(예.)

101001 #1 이렇게 하니까 땅콩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우리 마을 대표들이 국회의원을 데려가고 유통공사에 가서 우리 삼 년만.(이렇게 하니까 땅콩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우리 마을 대표들이 국회의원을 데려가고 유통공사에 가서 우리 삼 년만.)

101001 @ 예.(예.)

101001 #1 갈 테니까 삼 년 동안만 다른 작물로 교체 함 동안 물색함 동안 좀 어떻게 기다려 하니까 그렇게 허라.(갈 테니까 삼 년 동안만 다른 작물로 교체 함 동안 물색함 동안 좀 어떻게 기다리라 하니까 그렇게 하라.)

101001 @ 예.(예.)

101001 #1 그렇게 했는데 삼 년 끝난 후에는 아 우도에 이제 관광객이 다녀가기 시작했수다게. 아 이제 관광객한테 이걸 자기대로 저 수확해갖고 볍아 갖고 파니까 돈이 되는 거라마씨. 예. 수지가 맞는 거라마씨. 그렇게 땅콩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참 또 마늘도 이제는 그전에는 마늘도 조금씩 같았는데 팔아먹기가 힘들었수다게. (그렇게 했는데 삼 년 끝난 후에는 아 우도에 이제 관광객이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관광객한테 이걸 자기대로 저 수확해가지고 볍아 갖고 파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땅콩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참 또 마늘도 이제는 그전에는 마늘도 조금씩 같았는데 팔아먹기가 힘들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힘들어났는데, 아 이젠 농협에서가 마늘을 수매하겠다.(힘들었는데, 아 이젠 농협에서가 마늘을 수매하겠다.)

101001 @ 아.(아.)

105001 #1 아,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수매하겠다 해서 계약하지 계산 제 값도 많이 주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마늘을 갈기 시작해서마씨.(아,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수매하겠다 해서 계약하지 계산 제 값도 많이 주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마늘을 갈기 시작했어요.)

101001 @ 예.(예.)

101001 #1 경 험다가 또 쪽파를 갈기 시작한 거라.(그렇게 하다가 또 쪽파를 갈기 시작한 거야.)

101001 @ 예.(예.)

101001 #1 아, 쪽파도 이젠 알아보니까 아 그 씨앗용으로 저 전라도 보성 사람들[싸름덜] 또 충청도 서천 서산 이디 사람들 이제 아 쪽파를 이제 원료를 씨로 이제 막 사가거든요마씨. 아 것도 수지가 맞는 거라마씨.(아 쪽파도 이젠 알아보니까 아 그 씨앗용으로 저 전라도 보성 사람들 또 충청도 서천 서산 여기 사람들 이제 아 쪽파를 이제 원료를 씨로 이제 막 사가거든요. 아 것도 수지가 맞는 거예요.)

101001 @ 예. 종자로예?(예. 종자로요?)

101001 #1 예. 그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정착됐기는 땅콩하고.(예. 그

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정착되기는 땅콩하고.)

101001 @ 예.(예.)

101001 #1 이 저 아까 쪽파.(이 저 아까 쪽파.)

101001 @ 예.(예.)

101001 #1 마늘을 많이 갈다가 구십년도부터 혼 이천 혼 십 십오년도까지는 십 혼 이삼년도까지는 많이 갈다가, 이제 마늘은 좀 수지가 맞추마는 이 힘들어마썸. 사람 빌어서 허곡 제 따시 그제 뽑곡 뭘 하기 힘들니까 이 쪽파는 기계로 할 수가 있어마썸.(마늘을 많이 갈다가 구십년도부터 한 이천 한 십 십오년도까지는 십 한 이삼년도까지는 많이 갈다가, 이제 마늘은 좀 수지가 맞추마는 이 힘들어요. 사람 빌려서 하고 제 다시 그제 뽑고 뭘 하기 힘들니까 이 쪽파는 기계로 할 수가 있어요.)

101001 @ 아.(아.)

101001 #1 예예. 값을 이제 시 시가를 변동은 시세 변동은 심해주만은 허기가 쉬우니까는 이제는 쪽파를 하는 거우다게.(예예. 값을 이제 시 시가를 변동은 시세 변동은 심하지만은 하기가 쉬우니까는 이제는 쪽파를 하는 겁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예. 그래서 이제 쪽파하고 거이가 이제 그 땅콩농가. 주 농작물로 많이 정착이 되어있수다게, 지금.(예. 그래서 이제 쪽파하고 거이가 이제 그 땅콩농가. 주 농작물로 많이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101001 @ 예. 농산물로는예?(예. 농산물로는요?)

101001 #1 예예. 젠디 그 다음에 이제 저 마늘.(예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저 마늘.)

101001 @ 예.(예.)

101001 #1 마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ㄱ만이 네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제, 예 저 땅콩이 연작 피해가 있어. 연작이 잘 안 돼어마썸.(마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가만히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제, 예 저 땅콩이 연작 피해가 있어. 연작이 잘 안 돼요.)

101001 @ 아.(아.)

101001 #1 두 해 계속 갈면은 피해가 있어마썸. 그래서 혼 해 놀랐다가, 혼 해 놀면 또 그 그르에 우선 마늘이나 쪽파나 갈았다가 그 그르에 쪽파 갈곡.(두 해 계속 갈면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놀렸다가, 한 해 놀면 또 그 그루에 우선 마늘이나 쪽파나 갈았다가 그 그루에 쪽파 갈고.)

101001 @ 아.(아.)

101001 #1 또 쪽파 그르에 또 마늘 갈고.(또 쪽파 그루에 또 마늘 갈고.)

101001 @ 마늘 갈고.(마늘 갈고.)

101001 #1 이렇게 교차하고 가니까 되고 또 이제 유채 갈고 유채.(이렇게 교차하고 가니까 되고 또 이제 유채 갈고 유채.)

101001 @ 예.(예.)

101001 #1 보리를 갈라고 하니깐 보리가 또 수지가 안 맞아마썸. 이 자기 기계 말리는 기계나 자기가 이제 비는 기계가 없는 사람은, 요 비는 품 말리는 품 주다보니까 보리가 수지 안 맞아마썸, 이제. 그러니까 이제예. 정부에서 또 우도가 이제 관광지니까 유채 환경직불금이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유채 갈커든 갈렌 해서 이제는 유채를 갈고 잇수다게, 지금예.(보리를 갈려고 하니깐 보리가 또 수지가 안 맞아요. 이 자기 기계 말리는 기계나 자기가 이제 베는 기계가 없는 사람은, 요 베는 품 말리는 품 주다보니까 보리가 수지 안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요 정부에서 또 우도가 이제 관광지니까 유채 환경직불금이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유채 갈졌으면 갈라 해서 이제는 유채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요.)

101001 @ 예. 지금 현재예.(예. 지금 현재요.)

101001 #1 예. 유채 그리에 이제 유채에 어떤 사람은 보리를 가는 사람도 잇수다. 몇 사람 그래서 우도에는 보리가 지금 천 가마니 이상 나올 거우다.(예. 유채 그루에 이제 유채에 어떤 사람은 보리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사람 그래서 우도에는 보리가 지금 천 가마니 이상 나올 겁니다.)

101001 @ 아.(아.)

101001 #1 보리를 갈아깎고 자기 기계 잇곡 또 자기대로 갈곡 비곡 물리곡 흐는 사람들은.(보리를 갈아가지고 자기 기계 잇고 또 자기대로 갈고 베고 말리고 하는 사람들은.)

105015 @ 음.(음.)

105015 #1 이렇게 해서 한 삼백 가마니까지 흐는 사람이 잇수다, 한두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삼백 가마니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지금.)

101001 @ 아.(아.)

101001 #1 경흐곡 또 그렇게 못흐는 사람은 그자 유채, 자기 소유에 잇는 사람들은 한 천 평이나 한 이천 평까지도 유채를 가는 사람들이 잇수다, 지금.(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자 유채, 자기 소유에 잇는 사람들은 한 천 평이나 한 이천 평까지도 유채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105015 @ 예.(예.)

105015 #1 나도 이제 한 저 이천 평 유채를 가는데, 이 지금 유채는 환경직불금으로 해서 천 평에 한 칠십만 원 나옵니다게. 저 영 흐곡.(나도 이제 한 저 이천 평 유채를 가는데, 이 지금 유채는 환경직불금으로 해서 천 평에 한 칠십만 원 나옵니다. 저 이렇게 하고.

101001 @ 아.(아.)

101001 #1 보리는 뭐 천 평에, 한 백 한 이삼십 만원씩 나지만은 이것저것 따중당 보면 별 이익이 없어마썸. 게 보리를 자연적 아까 말 한대로 자기대로 하는 사람은 허곡 자기대로 못흐는 사람은 그자 유채 가는 게 쉽수다게.(보리는 뭐 천 평에, 한 백 한 이삼십 만원씩 나지만은 이것저것 따지다가 보면 별 이익이 없어요. 그럼 보리를 자연적 아까 말 한대로 자기대로 하는 사람은 하고 자기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자 유채 가는

게 쉽습니다.)

101001 @ 아, 경 헛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1001 #1 게서 그런 작물을 지금 갖고 잇수다게, 지금 현재는.(그래서 그런 작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1001 @ 예. 저기 대충 전체에 대해서 산업도 말씀해 주시고.(예. 저기 대충 전체에 대해서 산업도 말씀해 주시고.)

101001 #1 예.(예.)

101001 @ 예. 바다 일만 아니고예.(예. 바다 일만 아니고요.)

101001 #1 예.(예.)

101001 @ 예. 그거는 골아주시고예.(예. 그거는 말해주시고요.)

101001 #1 예. 바닷 거.(예. 바다 거.)

101002 @ 예. 그거는 또 나중에 다 다르게 질문허कु다예. 예. 이 마을에 성씨 성씨는 주로예. 보통 이 성.(예. 그거는 또 나중에 다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마을에 성씨 성씨는 주로요 보통 이 성.)

101002 #1 예.(예.)

101002 @ 성을 한번 저기 대부분 영, 골아줍서.(성을 한번 저기 대부분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101002 #1 예. 성씨는 우도 이 으라 성이우다, 지금.(예. 성씨는 우도 이 여러 성입니다, 지금.)

101002 @ 예.(예.)

101002 #1 김, 이, 박이 잇고 첫체는예.(김, 이, 박이 잇고 첫째는요.)

101002 @ 예.(예.)

101002 #1 김, 이, 박, 그 다음에 강 씨도 이제 제비 강이 잇고 펜안 강이 잇고예.(김, 이, 박, 그 다음에 강 씨도 이제 제비 강이 잇고 편안 강이 잇고요.)

101002 @ 예.(예.)

101002 #1 또 우리 한 씨도 잇고 전 씨도 잇고 이제 예 공 씨도 잇고 임 씨도 잇고 여기가 한 이십 성 이상 될거우다. 지금예. 이십 다 허면은 계민 나가 기록을 해보면 알지만은 예, 한 이십 성 가까이 될 거우다.(또 우리 한 씨도 잇고 전 씨도 잇고 이제 예 공 씨도 잇고 임 씨도 잇고 여기가 한 이십 성 이상 될 겁니다. 지금요. 이십 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기록을 해보면 알지만은 예, 한 이십 성 가까이 될 겁니다.)

101002 @ 오 씨.(오 씨.)

101002 #1 예. 오 씨 오 씨도 잇고 정 씨도 잇고.(예. 오 씨 오 씨도 잇고 정 씨도 잇고.)

101002 @ 정 씨 송 씨도 잇수과?(정 씨 송 씨도 있습니까?)

101002 #1 예. 송 씨도 잇수다. 송 씨도 잇고.(예. 송 씨도 있습니다. 송 씨도 잇고.)

101002 @ 송 씨도 잇고 고 씨.(송 씨도 잇고 고 씨.)

101002 #1 응, 고 씨도 잇고요. 으. 아까나 고·량·부.(응, 고 씨도 잇고요. 으. 아까나

고 량 부.)

101002 @ 고량부예.(고량부요.)

101002 #1 고량부도 잇고.(고량부도 잇고.)

101002 @ 고량부는 잇고예.(고량부는 잇고요.)

101002 #1 예. 우 씨도 잇고.(예. 우 씨도 잇고.)

101002 @ 우 씨도 잇고예.(우 씨도 잇고요.)

101002 #1 예.(예.)

101002 @ 최 씨.(최 씨.)

101002 #1 예. 최 씨도 잇고.(예. 최 씨도 잇고.)

101002 @ 어, 최 씨, 희귀성 가진 아까 공 씨엔 헛지예.(어, 최 씨, 희귀성 가진 아까 공 씨라고 헛지요.)

101002 #1 예.(예.)

101002 @ 예. 공 씨.(예. 공 씨.)

101002 #1 공자.(공자.)

101002 @ 예. 공 씨 잇고예.(예. 공 씨 잇고요.)

101002 #1 또 여기 편 씨도 잇수다. 편 씨.(또 여기 편 씨도 있습니다. 편 씨.)

101002 @ 편 씨마씨?(편 씨요?)

101002 #1 예. 편 씨도 그 사름 죽어벗는데 어머니 살앙 잇수다. 편○○이라고 으 작년이 죽어벗는데 경 우리도 앓으면 아 희성이 잇다고 영 헤나시명 이야길 험주마씨게. (예. 편 씨도 그 사람 죽어버렸는데 어머니 살아서 있습니다. 편○○이라고 요 작년에 죽어버렸는데 그렇게 우리도 앓으면 아 희성이 잇다고 이렇게 헛으면서 이야길 합지요.)

101002 @ 예. 변 씨 잇수과? 변 씨? 변 가?(예. 변 씨 있습니까? 변 씨? 변 가?)

101002 #1 변 씨가 변 씨는 엇일 겨우다. 여기.(변 씨가 변 씨는 없을 겁니다. 여기.)

101002 @ 변 가 없고예.(변 가 없고요.)

101002 #1 예.(예.)

101002 @ 최 씨 잇고예.(최 씨 잇고요.)

101002 #1 예. 최 씨가 잇고 채 씨가 잇고.(예. 최 씨가 잇고 채 씨가 잇고.)

101002 @ 아, 채 씨 잇고예.(아, 채 씨 잇고요.)

101002 #1 예.(예.)

101002 @ 채 가 잇고.(채 가 잇고.)

101002 #1 최예. 최 씨가 잇고 채 씨가 잇고. 전 씨, 마 씨도 잇고예.(최요 최 씨가 잇고 채 씨가 잇고. 전 씨, 마 씨도 잇고요.)

101002 @ 마 씨?(마 씨?)

101002 #1 예.(예.)

101002 @ 마 마?(마 마?)

101002 #1 예. 임 씨.(예. 임 씨.)

101002 @ 나, 나 씨?(나 나 씨?)

101002 #1 임, 마 마 물 마 자.(임, 마 마 말 마 자.)  
 101002 @ 예. 마 씨예.(예. 마 씨요.)  
 101002 #1 예. 물 마 자.(예. 말마 자.)  
 101002 @ 예. 임 씨는 아까 잇고.(예. 임 씨는 아까 잇고.)  
 101002 #1 예. 임 씨도 잇고.(예. 임 씨도 잇고.)  
 101002 @ 나 씨는 없고예?(나 씨는 없고요>)  
 101002 #1 수풀임 짜 임 씨도 잇고.(수풀임 자 임 씨도 잇고.)  
 101002 @ 아 임 씨?(아 임 씨?)  
 101002 #1 예. 수풀 임 자 임 씨.(예. 수풀 임 자 임 씨.)  
 101002 @ 예. 그러면 나 씨 나, 나.(예. 그러면 나 씨 나, 나.)  
 101002 #1 나 씨가 엇어, 엇어마씨.(나 씨가 없어, 없어요.)  
 101002 @ 나 씨는 엇고예.(나 씨는 없고요.)  
 101002 #1 예. 나 씨는 여기 우도 등대 와네 우도 등대소장이 나 씨우다.(예. 나 씨는  
 여기 우도 등대 와서 우도 등대소장이 나 씨입니다.)  
 101002 @ 아, 등대장으로예?(아, 등대장으로요?)  
 101002 #1 그 웨에 나 씨는 엇일 겨우다.(그 외에 나 씨는 없을 겁니다.)  
 101002 @ 아, 그러면 석 씨?(아, 그러면 석 씨?)  
 101002 #1 석 씨도 엇수다.(석 씨도 없습니다.)  
 101002 @ 탁 씨 엇고예.(탁 씨 없고요.)  
 101002 #1 탁 씨도 엇수다.(탁 씨도 없습니다.)  
 101002 @ 예. 계민 그 정도 쓰물예. 쓰물 여남은.(예. 그러면 그 정도 스물요. 스물  
 여남은.)  
 101002 #1 쓰무남으. 성 쉼 겨우다.(스무남은 성 쉼 겁니다.)  
 101002 @ 예. 쓰무남으. 성 쉼수다예.(예. 스무남은 성 됩니다.)  
 101003 @ 예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은 농사짓고.(예. 이, 마을 사람들은 주  
 로 하는 일은 농사짓고.)  
 101003 #1 또.(또.)  
 101003 @ 바당일 허고.(바다일 하고.)  
 101003 #1 예. 잠수들은 바다에.(예. 잠수들은 바다에.)  
 101003 @ 바다에 헛고.(바다에 하고.)  
 101003 #1 바다에 헛고예.(바다에 하고요.)  
 101003 @ 배 부리는 거.(배 부리는 거.)  
 101003 #1 예. 배도. 옛날에는 많이 헛는데 이제는예. 네저용으로벳기 허는 사람이 없  
 어. 또 구물 허는 사람.(예. 배도. 옛날에는 많이 헛는데 이제는데요, 레저용으로 밖에 하  
 는 사람이 없어. 또 그물 하는 사람.)  
 101003 @ 구물?(그물?)  
 101003 #1 예. 구물을 으 저, 저 허는 사람이 혼 배가 너댓 척 서너 척벳기 안 돼어.

수지가 안 맞아. 이젠 구물 해봐야.(예. 그물을 요 저, 저 하는 사람이 한 배가 네댓 척 서너 척밖에 안 돼. 수지가 안 맞아. 이젠 그물 해봐야.)

101003 @ 지금 그물 해가지고.(지금 그물 해가지고.)

101003 #1 예.(예.)

101003 #1 젊은, 종사혈라고 사람도 없고 이제는 관광업에 많이 종사를 해 부는 거라.(젊은, 종사하려고 사람도 없고 이제는 관광업에 많이 종사를 해 버리는 거야.)

101003 @ 관광업에.(관광업에.)

101003 #1 예. 오토바이 ㄴ든 거예.(예. 오토바이 같은 거요.)

101003 @ 예.(예.)

101003 #1 예. 이런 거 허지 장사 허지 이렇게 해서 허고 또, 바다에 종사 해 봐야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말라 버려서마씨. 그러니 구물을 안 허는 거라. 구물배를 봐야 수직 안 맞는다고 해서.(예. 이런 거 하지 장사 하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바다에 종사 해 봐야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말라 버렸어요. 그러니 그물을 얹는 거야. 그물배를 해 봐야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101003 @ 주낙도 주낙으로.(주낙도 주낙으로.)

101003 #1 주낙도 엇고마씨.(주낙도 없고요.)

101003 @ 주낙도 엇고예.(주낙도 없고요.)

101003 #1 예.(예.)

101003 @ 저기 소 키우거나 몰.(저기 소 키우거나 말.)

101003 #1 소 키우는 사람도 지금,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두 사람이 죽어 버렸어. 혼 백 마리덜 키우는 사람덜이. 갑자기 혼 사람은 죽을 행 죽어불고 혼 사람이 암 걸연 죽어불고 혼난애. 지금 뭐 소 키우는 사람이 소 혼 서너 마리 키우는 사람이 혼 사람이 잇일거우다. 으 특구로 잇는 사람이.(소 키우는 사람도 지금,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 한 백 마리들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한 사람이 암 걸려서 죽어버리고 하니까. 지금 뭐 소 키우는 사람이 소 한 서너 마리 키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 특구로 잇는 사람이.)

101003 @ 예.(예.)

101003 #1 이저 우리 우도에 양○○라고, 이제 현재 면사무소에 ○○. 도서지역 ○○라고 그 사람이 혼 몇 마리 질랍실 거우다.(이 저 우리 우도에 양○○라고, 이제 현재 면사무소에 ○○. 도서지역 ○○라고 그 사람이 한 몇 마리 기르고 있을 겁니다.)

101003 @ 예. 돼지 키우는 사람.(예. 돼지 키우는 사람.)

101003 #1 돼지 키우는 사람도 혼 사람 잇다가 하도 마을에 말썽도 나고 헤가니까 또 그 사람이 돈 벌만이 벌어서, 혼 이십 년 동안 벌어지니까. 이제 괴롭고 허니까 이제는 폐기시켜 버렸수다.(돼지 키우는 사람도 한 사람 잇다가 하도 마을에 말썽도 나고 헤가니까 또 그 사람이 돈 벌만이 벌어서, 한 이십 년 동안 벌어지니까. 이제 괴롭고 하니까 이제는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101003 @ 닭.(닭.)

101003 #1 예.(예.)

101003 @ 양계하는 디는?(양계하는 데는?)

101003 #1 양계도 양계도 아녀고.(양계도 양계도 았고.)

101003 @ 양계도 엇고예. 공장도 공장은 저기 저기 넓메역허는 디 공장이라 나신디  
이제는.(양계도 았고요. 공장도 공장은 저기 저기 넓미역하는 데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101003 #1 것도 아녀고 우도 땅콩ㅎ는디 이제 가공공장이 ㅎ나 잇수다. 가공해서 이  
제 푸는 사름 그건 이제 거 우리 저 조합으로 해갓고.(것도 았고 우도 땅콩 하는데 이제  
가공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공해서 이제 파는 사람 그건 이제 거 우리 저 조합으로  
해가지고.)

101003 @ 예. 조합으로.(예. 조합으로.)

101003 #1 예. 땅콩 가공공장에 예 그 감사로 헤기네 이천삼백만 원 출자도 헨 잇고  
예. 헤네 허니까 이제 가공공장에서 일 년에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헬수다.(예. 땅콩 가  
공공장에 예 그 감사로 해서 이천삼백만 원 출자도 해서 잇고요. 해서 허니까 이제 가  
공공장에서 일 년에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1003 @ 아.(아.)

101003 #1 삼년 동안에 그 삼십억 보조를 받아네 시설을 허고 상품 개발을 허고 헤  
네, 삼년 동안 준비허단 보난에 금년부터 시작을 허는데 금년에 한 만 오천 키로, 땅콩  
을 수매해갓고 지금 보끄명 풀암수다.(삼년 동안에 그 삼십억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하  
고 상품 개발을 하고 해서, 삼년 동안 준비하다가 보니까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금년  
에 한 만 오천 킬로, 땅콩을 수매해가지고 지금 북으면서 팔고 있습니다.)

101003 @ 아.(아.)

101003 #1 예. 경ㅎ국 또 그 이웨로, 땅콩만 푸는 게 아니라 땅콩을 가미해갓고도 다  
른 상품도 개발헤연 허고.(예.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외로, 땅콩만 파는 게 아니라 땅콩  
을 가미해가지고도 다른 상품도 개발해서 허고.)

101003 @ 응.(응.)

101003 #1 또 그 웨로 미역 ㄴ쁜 거.(또 그 외로 미역 같은 거.)

101003 @ 예.(예.)

101003 #1 또 톳 ㄴ쁜 거, 이 지역에 생산되는 거니까. 땃시 이제 저 ㄴ미자<sup>32)</sup> 뎡 뎡  
ㄴ쁜 거. 이런 것도 풀고.(또 톳 같은 거, 이 지역에 생산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저 ㄴ  
미자 모자반 모자반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고.)

101003 @ 예. 뎡 ㅎ고예.(예. 모자반하고요.)

101003 #1 이제 저 막걸리 향토주로 해서 저 제주시에 가서 이제 그 공장에, 막걸리  
기계를 우리가 살려고 허니까 비싸니까 아적은 우리가 살 준비가 안 돼어네, 저 제주시  
막걸리 공장에 위탁헤어네.(이제 저 막걸리 향토주로 해서 저 제주시에 가서 이제 그 공  
장에, 막걸리 기계를 우리가 사려고 허니까 비싸니까 아적은 우리가 살 준비가 안 돼서,

32) ‘ㄴ미자’는 제보자가 모자반을 잘못 말한 것이다.



저 제주시 막걸리 공장에 위탁해서.)

101003 @ 예.(예.)

101003 #1 겐 거기서 이제 제조해당 허고 우리가 여기서 풀암수다게.(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조해다가 하고 우리가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101003 @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어른덜은 저기.(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어른들은 저기.)

101003 #1 일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디.(일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101003 @ 예.(예.)

101003 #1 아적은 그 이제 공장이 한정적이라노니까.(아직은 그 이제 공장이 한정적 아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볍아근에 이제 푼는 일만 해노니까.(볶아서 이제 파는 일만 하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아 이제 또 원료도 준비가 돼고 자본도 또 준비가 안됐서마씨.(아 이제 또 원료도 준비가 되고 자본도 또 준비가 안됐어요.)

101003 @ 예.(예.)

101003 #1 자본이 어렵수다게.(자본이 어렵습니다.)

101003 @ 예. 경허고.(예. 그렇게 허고.)

101003 #1 저 지금 한 이억 삼천만 원아치 저 땅콩을 수매해네, 예 그걸로 더러 막걸리 흐는 디도 보내주고 원료로예.(저 지금 한 이억 삼천만 원어치 저 땅콩을 수매해서, 예 그걸로 더러 막걸리 하는 데도 보내주고 원료로요.)

101003 @ 예.(예.)

101003 #1 또 그 타 그 웨로 가공허는 상품이 이수다게.(또 그 타 그 외로 가공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101003 @ 응.(응.)

101003 #1 경 해서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101003 @ 게민 여기 저기 예전에는 뭐 그 옛날에 이삼십 년 전에는 경허니까 그물 놔근에예. 배도 부리고.(그럼 여기 저기 예전에는 뭐 그 옛날에 이삼십 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물 놔서요 배도 부리고.)

101003 #1 예. 배도 해나곡.(예. 배도 했었고.)

101003 @ 잠수도 허고 해신디 이제는.(잠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101003 #1 예.(예.)

101003 @ 대부분 식당허고.(대부분 식당하고.)

101003 #1 예.(예.)

101003 @ 우도 사람이 험지예.(우도 사람이 하고 있지요.)

101003 #1 예.(예.)

101003 @ 식당허고 펜션.(식당하고 펜션.)

101003 #1 펜션.(펜션.)

101003 @ 식당 숙박업 허고. 마트허고.(식당 숙박업 하고. 마트하고.)

101003 #1 마트도 허고 마트도 뭐 마트도 두 군데 뿐이우다. 농협마트<sup>33)</sup>허고.(마트도 하고 마트도 뭐 마트도 두 군데 뿐입니다. 농협마트하고.)

101003 @ 아.(아.)

101003 #1 또 그린마트<sup>34)</sup>라고 개인 사람이 허고.(또 그린마트라고 개인 사람이 하 고.)

101003 @ 예. 상점.(예. 상점.)

101003 #1 그 전이는 이 우도에 각 마을마다 저 점방.(그 전에는 이 우도에 각 마을 마다 저 점방.)

101003 @ 예. 점방.(예. 점방.)

101003 #1 이 가게가 있어나수다게.(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101003 @ 예.(예.)

101003 #1 게 매일 그 가게에서 저 동남 ㄱ튼 디 출입해근에, 여기 이제 생활필수품, 첫째는 식료품.(게 매일 그 가게에서 저 동남 같은 데 출입해서, 여기 이제 생활필수품, 첫째는 식료품.)

101003 @ 예.(예.)

101003 #1 이제 반찬거리를 해다가 팔았는데, 이제 마트가 다 독점 행 잇수다. 마트가 독점 행 돌아부니까 이제 가게덜도 수지가 안 맞는 거라마썸.(이제 반찬거리를 해다가 팔았는데, 이제 마트가 다 독점해서 있습니다. 마트가 독점해서 팔아버리니까 이제 가게들도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101003 @ 예.(예.)

101003 #1 계난 각 마을마다 가게 설러분 지도 이거 혼 십년 이상 텀수다.(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가게 그만둔 지도 이거 한 십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101003 @ 마을마다예.(마을마다요.)

101003 #1 예. 구좌 농협마트가 다 독점을 해 해서 돌아부니까 농협에서 이제 전부다 우리 반찬거리나 머이나 다 농협에서 폰니까.(예. 구좌 농협마트가 다 독점을 많이 해서 팔아버리니까 농협에서 이제 전부다 우리 반찬거리나 밋이나 다 농협에서 파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예. 그렇게 해버리난 이제 이 가게가 이제 전부 엇어져불고.(예.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제 이 가게가 이제 전부 없어져버리고.)

101003 @ 그러면.(그러면.)

101003 #1 쫄 ㄱ튼 것도 옛날엔 혼 사람이 쫄도 이제는 그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것도 농협안티 일러부런, 농협이 다 말안 해불이고.(쌀 같은 것도 옛날에는 한 사람이 쌀 도 이제는 그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것도 농협한테 잃어버려서, 농협이 다 맡아서 해버

33) '농협마트'는 우도읍에 소재한 가게다.

34) '그린마트'는 제주시 우도읍에 소재한 가게다.

리고.)

101003 @ 계민 바다에서 레저 저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들은.(그럼 바다에서 레저 저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들은.)

101003 #1 낚시 배는 혼 두어 척 잇수다. 허가 받은 낚시 배는 잇수다.(낚시 배는 혼 두어 척 있습니다. 허가 받은 낚시 배는 있습니다.)

101003 @ 낚시 배는 거 하고.(낚시 배는 거 하고.)

101003 #1 예.(예.)

101003 @ 또 저기 영 돌아보니까는 해수욕장에, 그 직업들이 막 합디다 오토바이라든가 뭐.(또 저기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해수욕장에, 그 직업들이 아주 합디다 오토바이라든가 뭐.)

101003 #1 예.(예.)

101003 @ 그런 것들은 허는 사람들은 누구?(그런 것들은 하는 사람들은 누구?)

101003 #1 거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거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101003 @ 아, 젊은 사람들이.(아, 젊은 사람들이.)

101003 #1 거 돈을 많이 번 답니다 그거, 오토바이 하루 혼 시간에 빌려주면은 이만 원도 반곡 삼만 원도 반곡 하는데 오토바이 빌려주면, 거 돈을 엄청나게 벌어노니까 아, 심지어는 막 농사하던 사람덜이 막 농사도 설러버려두고 거이 다 종사를 험서마썸.(거 돈을 많이 번 답니다 그거, 오토바이 하루 한 시간에 빌려주면 이만 원도 받고 삼만 원도 받고 하는데 오토바이 빌려주면, 거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아, 심지어는 막 농사하던 사람들이 막 농사도 그만두어버리고 거의 다 종사를 하고있어요.)

101003 @ 아.(아.)

101003 #1 계난 우리 저 우도 사랑 협동조합도 그걸 해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잇수다 게. 겐디 그 건 해안가에 자기 기지가 있어야 돼여.(그러니까 우리 저 우도 사랑 협동조합도 그걸 해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안가에 자기 기지가 있어야 돼.)

101003 @ 예.(예.)

101003 #1 그 차를 거기 놔야 돼니까. 직접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면 직접 눈으로 보니까.(그 차를 거기 놔야 되니까. 직접 관광객이 배에서 내리면 직접 눈으로 보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아, 그렇게 해도 난 우리 거 대표되는 사람하고 우이 중앙지에 차고지를 맨들아 갖고 직접 인터넷으로 우도에 오면 좀 거기보다 헐하게 할 테니까 여기 배에서 저기 사람덜하고 약속해갖고 차로 그 사람덜을 실러다가 그 장소에 놔 갖고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허는 방법도 잇지 않으나.(아, 그렇게 해도 난 우리 거 대표되는 사람하고 위에 중앙지에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인터넷으로 우도에 오면 좀 거기보다 헐하게 할 테니까 여기 배에서 저기 사람들하고 약속해가지고 차로 그 사람들을 실어다가 그 장소에 놔가지고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하는 방법도 잇지 않으나.)

101003 @ 예.(예.)

101003 #1 그렇게 이야길 하는데.(그렇게 이야길 하는데.)

101003 @ 예.(예.)

101003 #1 우선은 자기 기지가 있어야 돼어마씨. 그 앞에 놔갖고 해야 그 사람덜안티 그 빌려주는 게 좀 쉬운 모양이라마씨.(우선은 자기 기지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놔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한테 그 빌려주는 게 좀 쉬운 모양이에요.)

101003 @ 그 젊은 사람들은 보면 들어오당 보니까는 그 배에예.(그 젊은 사람들은 보면 들어오다가 보니까는 그 배예요.)

101003 #1 예.(예.)

101003 @ 막 그 안내허고 주차를 허고.(막 그 안내하고 주차를 하고.)

101003 #1 예. 그 안전요원, 안전요원예.(예. 그 안전요원, 안전요원요.)

101003 @ 안전요원덜도 다 우도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우파예.(안전요원들도 다 우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요.)

101003 #1 예. 지금 선원덜 배에 오를 땡에는 이제 여기서 배에 오를 적이는 우도 사람들이 하고.(예. 지금 선원들 배에 오를 적에는 이제 여기서 배에 오를 적에는 우도 사람들이 하고.)

101003 @ 예.(예.)

101003 #1 또 성산포 주차장에서 저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성산포 부두 부두에 위탁을 줘 분거라마씨.(또 성산포 주차장에서 저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성산포 부두 부두에 위탁을 줘 버린 거예요.)

101003 @ 아.(아.)

101003 #1 선원 노조에.(선원 노조에.)

101003 @ 예.(예.)

101003 #1 노조가 그 안전관리 노조에서 말앙 허라. 여기에 거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그전에는 종사할 사람이 잇었는데 이제는 오토바이 헨 수지가 맞아놓니까. 오토바이 종사 행 돈 벌라 하지 이건 뭐 한 달 해봐야 이 백만 원 미만 받으니까 오토바이는 몇 백 만원 버는 모양이라. 오토바이 종사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도 사람 몇 사람 종사헬수다, 거기 이제.(노조가 그 안전관리 노조에서 말아서 하라. 여기에 거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그전에는 종사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토바이 해서 수지가 맞으니까. 오토바이 종사해서 돈 벌라하지 이건 뭐 한 달 해봐야 이 백만 원 미만 받으니까 오토바이는 몇 백만 원 버는 모양이야. 오토바이 종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도 사람 몇 사람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01003 @ 아.(아.)

101003 #1 배 선원들은 이웨에는 이제 선원들토 몇 사람이 엿수다. 다 이제 저.(배 선원들은 이웨에는 이제 선원들도 몇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제 저.)

101003 @ 웨지에서.(웨지에서.)

101003 #1 예. 웨지 사람덜토 몇 사람 잇수다.(예. 외지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101003 @ 성산포, 성산포 사름덜.(성산포, 성산포 사람들.)

101003 #1 예. 배.(예. 배.)

101003 @ 월급 받았 허는 거난예.(월급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101003 #1 배 네 척, 저 열에 배가 지금 혼 일곱 척인가 으덱 척인가 됐는데, 으섯 척인가 일곱 척인가 됐는데, 전부 거 그중에는 한 삼십 프로가 다 웨짓사름이우다. 지금 이제 본도사름은 육십 프로벳기 안돼마썸.(배 네 척, 저 열에 배가 지금 한 일곱 척인가 여덟 척인가 되는데, 여섯 척인가 일곱 척인가 되는데, 전부 거 그중에는 한 삼십 프로가 다 외지의 사름이우다. 지금 이제 본도사름은 육십 프로밖에 안돼요.)

101003 @ 것벳기 안 되고예.(것밖에 안 되고요.)

101003 #1 예. 게고 그거 큰 월급은 아니니까. 막상 해봐야 뭐 그 선원덜토 이제 백 오십 만원에서 이백 만원 그 사이 받암실거우다. 아 그렇지만 좋은 월급 아니웃과게. 집에서 잠자곡양 지금 허는 거니까 좋은 월급인데 얼마 받는지는 모르쿠다, 지금, 우리 머 나도 주주주마는예. 월급은 얼마 매 월급은 얼마 받는 사름이 몇 사름 몇 사름 이렇게 이야길 해줘야 됐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해마썸.(예. 그리고 그거 큰 월급은 아니니까. 막상 해봐야 뭐 그 선원들도 이제 백 오십 만원에서 이백 만원 그 사이 받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지만 좋은 월급 아닙니까. 집에서 잠자고요 지금 하는 거니까 좋은 월급인데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머 나도 주주지만요. 월급은 얼마 매 월급은 얼마 받는 사름이 몇 사름 몇 사름 이렇게 이야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101003 @ 예.(예.)

101003 #1 그냥 인건비 얼마, 으 토탈로 토탈로만 이야기하니까. 혼 사름이 얼마씩 받는지는 난.(그냥 인검비 얼마, 오 토탈로 토탈로만 이야기하니까. 한 사름이 얼마씩 받는지는 난.)

101003 @ 삼촌 대략 작년에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 이익 배당금은 어느 정도 받았수과. 그 배에 관해서는.(삼촌 대략 작년에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 이익 배당금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그 배에 관해서는.)

101003 #1 예, 게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저기에 출자를 헐 거 아닛과.(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저기에 출자를 할 거 아닙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게민 이젠 배에서 빚을 지는 거 아닛과?(그러면 이젠 배에서 빚을 지는 거 아닙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게난 배에선 벌면 걸 출자헌 걸 우리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대여를 대여금을 갚아지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그러니까 배에선 벌면 걸 출자한 걸 우리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대여를 대여금을 갚아지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하는데, 보통으로 그자 에 보통 혼 삼천만 원 출자헌 사름들이예.(하는데,

보통으로 그자 에 보통 한 삼천만 원 출자한 사람들이요.)

101003 @ 예.(예.)

101003 #1 이천삼년도에 삼천만원 출자한 사람들이 한 달에 그자 한 백만 원씩 받아  
마써? 예.(이천삼년도에 삼천만원 출자한 사람들이 한 달에 그자 한 백만 원씩 받아요?  
예.)

101003 @ 아, 이천만 원.(아, 이천만 원.)

101003 #1 그리고 천오백 만 원 출자한 사람은 한 오십만 원 경 받았수다.(그리고 천  
오백 만 원 출자한 사람은 한 오십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101003 @ 이자.(이자.)

101003 #1 게난 이자보단 훨씬 많이 나옴주.(그러니까 이자보단 훨씬 많이 나오죠.)

101003 @ 훨씬예.(훨씬요.)

101003 #1 이자는 천만 원이 에 지금 삼천만 원이면은 지금 농협에 지금 정기예탁은  
한 게 저저, 십육 프론가 십칠 프로벳긴 안 돼우다. 십칠 프로면은 저 천만원에 십칠만  
원벳긴 더 되는 것과게?(이자는 천만 원이 에 지금 삼천만 원이면 지금 농협에 지금 정  
기예탁은 한 게 저저, 십육 프론가 십칠 프로밖에 안 됩니다. 십칠 프로면 저 천만 원에  
십칠만 원밖에는 더 되는 겁니까?)

101003 @ 예. 십칠 프로면은 일 점 칠 프로 얘기 허는 거지예?(예. 십칠 프로면 일  
점 칠 프로 얘기하는 거지요?)

101003 #1 일 점 칠 프로. 예예.(일 점 칠 프로. 예예.)

101003 @ 예. 맞수다예.(예. 맞습니다요.)

101003 #1 일 년 치는 십칠 프로벳긴 안 되는 겁주.(일 년 치는 십칠 프로 밖에 안  
되는 겁지요.)

101003 @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액에 따라가지고예.(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  
액에 따라가지고요.)

101003 #1 예.(예.)

101003 @ 한 오십 명?(한 오십 명?)

101003 #1 예.(예.)

101003 @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예?(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01003 #1 예, 예, 예.(예, 예, 예.)

101003 @ 그리고 저기 조합이 여럿이난예.(그리고 저기 조합이 여럿이니까요.)

101003 #1 예, 예.(예, 예.)

101003 @ 이것도 만만한 거는 아니우다게.(이것도 만만한 거는 아닙니다.)

101003 #1 겐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천, 이천 이년도에, 신규로 들어갈 적에는  
삼십억 투자를 해놔수다.(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천, 이천 이년도에, 신규로 들  
어갈 적에는 삼십억 투자를 했습니다.)

101003 @ 예.(예.)

101003 #1 배 세 척에, 네 척에 그걸 깎으로 환산 해갖고, 출자를 해고 또 우도 사

량은 돈을 모안 지어오단 보니까 스십억인가 걸려났수다. 켜 배 두 척을 짓고, 그 땐 췌 값이 헐하고 할 땐디 지금은 배 이상 줘야 됩니다.(배 세 척에, 네 척에 그걸 값으로 환산 해가지고, 출자를 하고 또 우도 사랑은 돈을 모아서 지어오다 보니까 사십억인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을 짓고, 그 땐 쇠 값이 헐하고 할 땐데 지금은 배 이상 줘야 됩니다.)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1 배 이상 줘도 못 합니다.(배 이상 줘도 못 합니다.)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1 이번에 우리가 배 저, 예 삼백 톤짜리 하나 지어오는데 한 스십억 이상 걸려실 거우다, 지금.(이번에 우리가 배 저, 예 삼백 톤짜리 하나 지어오는데 한 사십억 이상 걸렸을 겁니다, 지금.)

101003 @ 아.(아.)

101003 #1 그 전에는 이제 전부 합쳐 오백 톤짜리가 삼십억베틀 안 걸려났는데 지금.(그 전에는 이제 전부 합쳐서 오백 톤짜리가 삼십억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101003 @ 예.(예.)

101003 #1 경 험 스십 억짜리 경 예 삼십 톤짜리가 하나에 스 십억 이상 걸려마썸. 그러니까 이제는 벨 수지가 배 배도 저거 연령이 여녕이 잇거든마썸.(그렇게 해서 사십억짜리 그렇게 예 삼십 톤짜리가 하나에 사십억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벨 수지가 배 배도 저거 연령이 연령이 잇거든요.)

101003 @ 예. 연령이 이서예.(예. 연령이 있어요.)

101003 #1 저거 이십오 년이 못 운영 허거든마썸.(저거 이십오 년이 못 운영 하거든요.)

101003 @ 예. 예.(예. 예.)

101003 #1 아무리 좋은 배라도 이십오 년 뒤편 딱 폐기 시켜야 뒤편마썸.(아무리 좋은 배라도 이십오 년 되면 딱 폐기 시켜야 돼요.)

101003 @ 예.(예.)

101003 #1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든지.(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든지.)

101003 #1 예. 유조선하고 도 도향선하고 또 차이가 이신디, 유조선은.(예. 유조선하고 도 도향선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유조선은.)

101003 @ 예.(예.)

101003 #1 삼십 년까지 뒤편.(삼십 년까지 뒤편.)

101003 @ 예예.(예예.)

101003 #1 도향선을 이십오 년까지 더 못 해여마썸.(도향선을 이십오 년까지 더 못 해요.)

101003 @ 예예. 맞수다.(예예. 맞습니다.)

101003 #1 계난 이게 도향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십오 년이민 배 여녕이 끄나는 모양이라마썸, 지금은.(그러니까 이게 도향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십오 년이면 배

연령이 끝나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101003 @ 계난 지금 현재는 농사일보다도 관광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사일보다도 관광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101003 #1 예. 경하고.(예. 그렇게 하고.)

101003 @ 이 저 운송업이다 예. 배 하나칸예.(이 저 운송업이다 예. 배 하나까요.)

101003 #1 예, 예.(예, 예.)

101003 @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공장.(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공장.)

101003 #1 공장을.(공장을.)

101003 @ 특산물해서 공장이라마씨.(특산물해서 공장이에요.)

101003 #1 공장을 공장도 잊어마씨.(공장을 공장도 없어요.)

101003 @ 공장도 잊고예.(공장도 없고요.)

101003 #1 예.(예.)

101003 @ 그럼 바다 잠녀는 어떻 뽕수과?(그럼 바다 잠녀는 어떻게 됩니까?)

101003 #1 잠 잠 줌수는 이제, 현재 지금, 예 막 젊은 줌수가 지금 오십 세 이우다.  
(잠 잠 줌수는 이제, 현재 지금, 예 막 젊은 잠수가 지금 오십 살입니다.)

101003 @ 예.(예.)

101003 #1 젊은 줌수가. 오십 세고 늙은 줌수가 이제 구십 흥나 뽕 할망도 우리 집 할망도 있고 경 흥데.(젊은 잠수가. 오십 살이고 늙은 잠수가 이제 구십 하나 된 할머니도 우리 집 할머니도 있고 그렇게 한데.)

101003 @ 아, 구십하나예? 예예.(아, 구십하나요? 예예.)

101003 #1 앞으로 문제는 삼십년 이십년 후 삼십년 이후에는 어떻게 이 지역에.(앞으로 문제는 삼십년 이십년 후 삼십년 이후에는 어떻게 이 지역에.)

101003 @ 예.(예.)

101003 #1 그 바닷물을 누가 따 갈 건고예?(그 바닷물을 누가 따 갈 건가요.)

101003 @ 예.(예)

101003 #1 천초나 툇이나 이건 해마다 나거든마썸. 육지에 풀 저 나듯이 저 풀 나듯이.(우뚝가사리나 툇이나 이건 해마다 나거든요. 육지에 풀 저 나듯이 저 풀 나듯이.)

101003 @ 예.(예)

101003 #1 때가 뽕거든 나거든마썸. 나는 건데 저걸 어느 사람이 왕 수확할는지 모르쿠다.(때가 되거든 나거든요. 나는 건데 저걸 어느 사람이 와서 수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101003 @ 예.(예.)

101003 #1 예. 지금예. 지금 천초덜도 더 남서마썸. 우리 할망도 지금 금년에 지금 팔십 센데, 이 스물다섯 개가 천초 저 삼십 키로짜리.(예. 지금요. 지금 천초들도 더 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지금 금년에 지금 팔십 세인데, 이 스물다섯 개가 천초 저 삼십 킬로짜리.)

101003 @ 예.(예.)



101003 #1 그 전에는 열 개도 못허다가, 해마다 점점 더 완서. 천초가 이제.(그 전에는 열 개도 못허다가, 해마다 점점 더 오고 있어. 우뭇가사리가 이제.)

101003 @ 아.(아.)

101003 #1 또, 또. 이제 해에 따라근에 잘나는 해도 쫘 잇고 안 나는 해도 잇수다마는 그래도 스무 개 안 들진 안헤여마썸.(또, 또. 이제 해에 따라서 잘나는 해도 쫘 잇고 안 나는 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스무 개 안 들진 않아요.)

101003 @ 예.(예.)

101003 #1 거 툇이 문제우다, 툇이. 툇을 저거 케면은 여기 사람 사람이 없어.(거 툇이 문제입니다, 툇이. 툇을 저거 케면 여기 사람 사람이 없어.)

101003 @ 예.(예.)

101003 #1 사람을 빌지 못허여.(사람을 빌지 못해.)

101003 @ 예.(예.)

101003 #1 게민 35)에 사람을 빌어당 제와 제우면서, 이제 그 툇을 헐려고 허면은, 지금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예. 또 이디 왕 자면서 헐려고 허는 사름이 엇어, 지금. (그러면 ‘35’에 사람을 빌려다가 재워 재우면서, 이제 그 툇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여기 와서 자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101003 @ 예. 그거는.(예. 그거는.)

101003 #1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툇 하루 케영 비는 거, 혼 시간 혼민 세 시간 혼는 거 오만 원씩 줍니다. 또 영.(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툇 하루 캐서 베는 거, 한 시간 하면 세 시간 하는 거 오만 원씩 줍니다. 또 이렇게.)

101003 @ 그것도 하루니깐예.(그것도 하루니까요.)

101003 #1 예. 영 지어네는 거, 지어네는 거 따시 십만 원씩 줘야 돼어 세 시간 일한 거예.(예. 이렇게 지어내는 거, 지어내는 거 다시 십만 원씩 줘야 돼서 세 시간 일한 거 예.)

101003 @ 지어 날르는 건 남자 어른들이 허는 거 아니우파예?(지어 나르는 건 남자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요?)

101003 #1 남자들이니까 그건.(남자들이니까 그건.)

101003 @ 예. 툇 마중이엔 험니까?(예. 툇 마중이라고 합니까?)

101003 #1 예. 툇 마중이라고 허면서, 십만 원씩 줘야 돼어, 하루.(예. 툇 마중이라고 하면서, 십만 원씩 줘야 돼, 하루.)

101003 @ 십만원 썸예?(십만 원 썸요?)

101003 #1 게난에 어중간이 툇 해봐야 인건비 들어불고 해가민 벨 그것도 수지가 안 맞으크라. 옛날에는 저 그 동네 사름을 쓰고 했는데.(그러니까 어중간히 툇 해봐야 인건비 들어버리고 해가면 벨 그것도 수지가 안 맞겠어. 옛날에는 저 그 동네 사름을 쓰고 했는데.)

101003 @ 예. 그 일벳기 엇어부니까.(예. 그 일밖에 없어버리니까.)

35) ‘35’은 제주시 우도읍에서 제주본섬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101003 #1 예. 예. 그때도 사람이 많으니까 저 호수가 줄어드는 거라, 지금.(예. 예. 그때도 사람이 많으니까 저 호수가 줄어드는 거야, 지금.)

101003 @ 예.(예.)

101003 #1 예. 다 늙어버리고 젊은 사람은 엇지 젊은 사람이 얼마 엇어마썸, 지금.(예. 다 늙어버리고 젊은 사람은 없지 젊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지금.)

101003 @ 예.(예.)

101003 #1 게난 이 나중에 바닷물에 바다엇 거는 해마다 이제 그때가 뒤편은 이제 생산이 쥔 건데 날 건데 이걸 누가 쥔 건고 다 늙어버리면 지금.(그러니까 이 나중에 바닷물에 바다에 거는 해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생산이 쥔 건데 날 건데 이걸 누가 쥔 건가 다 늙어버리면 지금.)

101003 @ 예.(예.)

101003 #1 예. 지금.(예. 지금.)

101003 @ 물고기도 누게가 잡을지도 모르쿠다.(물고기도 누가 잡을지도 모르겠습니까.)

101003 #1 게난 내가 삼십 년이나.(그러니까 내가 삼십 년이나.)

101003 @ 이 바닷에 고기 쥔기도 잡을 사람이.(이 바다에 고기 고기도 잡을 사람이.)

101003 #1 고기 고기가 엇어마썸.(고기 고기가 없어요.)

105015 @ 고기가 엇어예.(고기가 없어요.)

105015 #1 고기 씨가 달라버려마썸. 구경을 못허여. 옛날 우리 어릴 덕이는 뭐 돔, 돔이다 북바리다 응 뭐 저 웅이<sup>36</sup>다 아니면은 굼 구문쟁이<sup>37</sup>이다 아니면 다금바리다 헛는데예. 지금 구경을 못해마썸. 완전 씨가 달라버려 가지고.(고기 씨가 달라버려요. 구경을 못해.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뭐 돔, 돔이다 북바리다 응 뭐 저 ‘웅이’다 아니면은 굼 ‘구문쟁이’다 아니면 다금바리다 했는데요. 지금 구경을 못해요. 완전 씨가 달라버려 가지고.)

101003 @ 씨가 달라버려 가지고.(씨가 달라버려 가지고.)

101003 #1 또 전복도 씨가 말라 전복도 전복도 구경을 못해마썸. 여기 지금 전부다 상가에서 쏘는 거 이 저 완도서 사당으네 해당 풀암서마썸.(또 전복도 씨가 말라 전복도 전복도 구경을 못해요. 여기 지금 전부다 상가에서 쏘는 거 이 저 완도서 사다가 해다가 팔고 있어요.)

101003 @ 예. 전복은예.(예. 전복은요.)

101003 #1 여기서 토종 아니우다 전부 다.(여기서 토종 아닙니다 전부 다.)

101003 @ 오분재기는 아예. 쏘을 못 보고예.(‘오분재기’는 아예. 쏘을 못보고요.)

101003 #1 오분재기도예. 혼 이십년 동안은 많이 나다가 엇어진 디가 혼 삼스 년 후에는 엇어져 버셔 으, 썩하니.(‘오분재기’도요 한 이십년 동안은 많이 나다가 엇어진 데가 한 삼사 년 후에는 엇어져 버려서 오, 썩하니.)

36) ‘웅이’는 바다물고기의 한 종류다.

37) ‘구문쟁이’는 바다물고기의 한 종류다.

101003 @ 아, 이십 년 동안은 잘 낚구나예.(아, 이십 년 동안은 잘 낚군요.)

101003 #1 예. 혼 삼십년까지만 혼여도게 혼 스 오년까지만 혼여도 우리 할망이 매날 가도 이 키로 스 오 키로 해왔는디.(예. 한 삼십년까지만 해도 한 사 오년까지만 해도 우리 할머니가 매날 가도 이 킬로 사 오 킬로 해왔는데.)

101003 @ 아, 오분제길틀마씨?(아, ‘오분재기’를요?)

101003 #1 예. 이제는 구경을 못 혼크라 몰라 불언 어느 아침에 갑자기 몰라 불었다고 지금 예.(예. 이제는 구경을 못하겠어 말라버렸어 어느 아침에 갑자기 말라 버렸다고 지금 예.)

101003 @ 아 예.(아 예.)

101003 #1 그렇게 혼고 소라도 여기는 이 어장이 혼 군데 어장이 아니우다게. 어제 어촌계는 행정적으로 네 군데지만은, 바다는 뜨시 오섯 군데가 돼우다 바당은.(그렇게 하고 소라도 여기는 이 어장이 한 군데 어장이 아닙니다. 어제 어촌계는 행정적으로 네 군데지만은, 바다는 다시 여섯 군데가 됩니다 바다는.)

101003 @ 예.(예.)

101003 #1 그러니까 이젠 그 바당 관리를 누가 혼느냐 어촌계장도 못 합니다. 어촌계장도 법으로 혼건 돼지. 그 동네 잠수회장.(그러니까 이젠 그 바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어촌계장도 못 합니다. 어촌계장도 법으로 한건 되지. 그 동네 잠수회장.)

101003 @ 예.(예.)

101003 #1 그 동네 부락장 어촌 어장 어장 관리를 혼는데, 이 부락장들은 무관심 해 버리는 거라.(그 동네 부락장 어촌 어장 어장 관리를 하는데, 이 부락장들은 무관심 해 버리는 거야.)

101003 @ 예.(예.)

101003 #1 또 잠수회장도 자기 잠수질 혼고 뭐 혼고 홀라혼당 보면은 관심을 안 두어. 계민 준 소라 ㄱ쁜 거 봐지면 특히나 늑신네 할망들이 보아지면 늑 몰래 잡아다가 못아근에 어릴 때부터 먹어 불기 시작하는 거라. 경 허민 상품돼기 전에 벌써 반 이상은 죽어버리는 거라.(또 잠수회장도 자기 잠수질 하고 뭐 하고 하려고하다 보면은 관심을 안 뒀. 그러면 잔 소라 같은 거 봐지면 특히나 늑으신네 할머니들이 보아지면 남 몰래 잡아다가 무쉬 어릴 때부터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상품되기 전에 벌써 반 이상은 죽어버리는 거야.)

101003 @ 아 기간을 저기 뭐 못헤영예. 간수 못행.(아 기간을 저기 뭐 못해서 요 간수 못해서.)

101003 #1 예. 경허민 그걸 잠수덜.(예. 그렇게 하면 그걸 잠수들.)

105015 @ 예.(예.)

105015 #1 그 사람덜이 그걸 준 소랄 잡지 못하게 해야 돼는데, 이 늑은 늑신네 보아지면은 나 보아진 거. 저 소라는 이제 크면은 커갈수록 저 먼 바다로 나가거든.(그 사람들이 그걸 잔 소라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늑은 늑으신네 보아지면은 나 보아진 거. 저 소라는 이제 크면 커갈수록 저 먼 바다로 나가거든.)

101003 @ 예.(예.)

101003 #1 먼 바다로 나가면은 상군들 상군덜 허여 상군덜 그 사름들이 따 먹을 거라 그, 늙은 할망덜은 이 곳에 잇을 떡에 따 먹는 거뿐이거든.(먼 바다로 나가면 상군들 상군들 해 상군들 그 사름들이 따 먹을 거야 그, 늙은 할머니들은 이 제주에 잇을 적에 따 먹는 거뿐이거든.)

101003 @ 예.(예.)

101003 #1 경흐난 나 뭐 따 먹지 못헐꺼, 눈에 봐진 거나 따 먹쫘텐 허기네 누가 말도 안허민 슬쩍슬쩍 해가명 저 저 따 먹어볼민 상품되기 전에 케영 보면은 벨 물건이 있어. 또 이 나중에 따시 이제 물건을 해저 해도 굿뎃<sup>38)</sup> 거예.(그렇게 하나까 나 뭐 따 먹지 못할 거, 눈에 보아진 거나 따 먹쫘다고 해서 누가 말도 안하면 살쩍살쩍 해가면서 저 저 따 먹어버리면 상품되기 전에 캐어서 보면은 벨 물건이 없어. 또 이 나중에 다시 이제 물건을 해지니 해도 바닷가에 거예.)

101003 @ 예.(예.)

101003 #1 메 흐 지금 스 월 들부떠 금지헐기 시작합니다. 구 월 들 구 월말까지 흐 육 개월 동안 금지하면 그 동안 이제 관리는 돼어 이제, 쫘끔씩헐명 관리는 흐는디 또 이따가 나이롱 그물배 나일롱 그물배들이 밤이 왕 그 어장에 왕 슬쩍 낚당 걸어가 나이롱 그물 이 저 소라가 밤이민 영 물 중간에 나거든마씨 이동 흘떡에, 게민 그물에 걸리는 거라. 경 행 거기서 저 따 가버리지예. 예예. 걸어근에, 따 가버리지.(메 한 지금 사 월 달부터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구 월 달 구 월말까지 한 육 개월 동안 금지하면 그 동안 이제 관리는 돼 이제, 조금씩 하면서 관리는 하는데 또 이따가 나이롱 그물배 나일롱 그물배들이 밤에 와서 그 어장에 와서 살쩍 낚다가 걸어가 나이롱 그물 이 저 소라가 밤이면 이렇게 물 중간에 나거든요 이동 할적에, 그러면 그물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저 따 가버리지요. 예예. 걸어서, 따 가버리지.)

105015 @ 음.(음.)

105015 #1 이렇게 흐지 또 이 해지허민 굿뎃거만 상군들이영 뭐 ㄴ쫘 굿뎃거만 따 먹는거라. 게 먼 바다엿 건 흐 동네에 흐 두세 사름씩만 잇는 거라 상군덜.(이렇게 하지 또 이 해지하면 ‘굿뎃’거만 상군들하고 뭐 같이 ‘굿뎃’거만 따 먹는 거야. 그럼 먼 바다에 건 한 동네에 한 두세 사름씩만 잇는 거야 상군들.)

101003 @ 예.(예.)

101003 #1 단 십오 메다 이십 메다 들 수 잇는 사름들이 흐 동네에 두세 사름벧기 안 됩니다. 그 사름들은 지네만 독점헤여, 메날 가민 이십 만원에치 오십 만원에치 잡는 거라 그 사름덜은 메날, 세 바당 세 바당 허명 겐디 늑신네 우리 할망덜은 걸 저 해경<sup>39)</sup>흐는 날은 잘 흐민 이십 키로 강 따 오면은 그걸로 쫘나는 거 상군덜은 ㄴ쫘 따고 뭐 해불면은 굿디는 엇어 따기 쉬웁고, 또 바다가 좁고 뭐 해노니까 게도 우리 할망은 그자 처음 소라 그자 따오민 나 처음 얻어먹어 본 양 못 얻어먹어 봅니다게. 지금.(단

38) ‘굿뎃’는 ‘굿’이 바닷가를 말한다.

39) ‘해경’은 어촌계에서 일정한 시기동안 잠수들에게 바닷물 속의 해초의 채취를 금지했다가 채취허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십오 미터 이십 미터 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 두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독점해서, 맨날 가면 이십 만원어치 오십 만원어치 잡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맨날, 새 바다 새 바다 하면서 그런데 늙으신네 우리 할머니들은 걸 저 ‘해경’ 하는 날은 잘하면 이십 킬로 가서 따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상군들은 같이 따고 뭐 해버리면 ‘굿디’는 없어 따기 쉽고, 또 바다가 좁고 뭐 해서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그저 처음 소라 그저 따오면 나 처음 얻어먹어 본 대로 못 얻어먹어봅니다. 지금.)

101003 @ 응.(응.)

101003 #1 겐 다음에 보민 상군들은 십오 메다 이십 메다 잠수질을 하는 사람들은 해경날 가면은 삼십 만원씩 잡았저 이십 만원씩 잡았저 이렇게 해근에게 경 해그네 여기 상군덜은 잘 버는 사람덜은 천초 허지 천초 허여근에게 삼십 키로 짜리 한 삼사십 개씩 만들어 잡지. 또 소라 잡지 이 영 허다 보면은 한 이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그렇게 돈벌이 합니다. 상 상군들은.(그럼 다음에 보민 상군들은 십오 미터 이십 미터 잠수질을 하는 사람들은 ‘해경’날 가면은 삼십 만원씩 잡았다 이십 만원씩 잡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상군들은 잘 버는 사람들은 ‘천초’ 하지 ‘천초’ 해서 삼십 킬로 짜리 한 삼사십 개씩 만들어 잡지. 또 소라 잡지 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이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그렇게 돈벌이 합니다. 상 상군들은.)

101003 @ 연 소득이예.(연 소득이요.)

101003 #1 예. 우리 할망들은 해봐야 저 저 천초 해봐야, 그자 허면은 혼 삼백만원 혼 오백만원 썸은 벌주 우리 할망은.(예. 우리 할머니들은 해봐야 저 저 ‘천초’ 해봐야, 그저 하면은 한 삼백만원 한 오백만원 썸은 벌지 우리 할머니는.)

101003 @ 천초로예.(‘천초’로요.)

101003 #1 예. 팔십 난 할망이주만은.(예. 팔십 난 할머니지만.)

101003 @ 예. 경 해도예.(예. 그렇게 해도요.)

101003 #1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게난 잠수라고 다 벌지 못해여마씨.(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러니까 잠수라고 다 벌지 못해요.)

101003 @ 예.(예.)

101003 #1 삼백 만원 버는 사람 오백 만원 버는 사람 천 만원 버는 사람 이천 만원 버는 사람 부부가 켜.(삼백 만원 버는 사람 오백 만원 버는 사람 천만 원 버는 사람 이천 만원 버는 사람 부부가 켜.)

101003 @ 게민 바다에 관리허게 돼면은 이녁네 어장만 가는 거 아니웃과예.(그러면 바다에 관리하게 되면은 이녁 어장만 가는 거 아닙니까요.)

101003 #1 예게, 예예.(예. 예예.)

101003 @ 딱 경계 해기네예.(딱 그렇게 해서요.)

101003 #1 옛날 우리 하르방네 저 듬북.(옛날 우리 할아버지네 저 듬북.)

101003 @ 예.(예.)

101003 #1 옛날 듬북해기네 그걸 비료로 해기네 해 먹었거든마씨.(옛날 듬북해서 그걸 비료로 해서 해 먹었거든요.)

101003 @ 예예.(예예.)

101003 #1 경 행 하르방 때부터 듬북 굶<sup>40)</sup>이 있어.(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듬북 ‘굶’이 있어.)

101003 @ 예.(예.)

101003 #1 듬북 해먹어난 그게 경계라 원칙으로는, 춤 ㄴ 단일어촌계면 단일어장이 돼야 되는데 법이 필요 엇수다게. 어촌계에.(듬북 해먹었던 그게 경계라 원칙으로는, 참 오 단일어촌계면 단일어장이 되어야 되는데 법이 필요 없습니다. 어촌계에.)

101003 @ 바당으로.(바다로.)

101003 #1 행정적으로 말만 경 뗏지 어장은 다 구분 되어잇수다 옛날식.(행정적으로 말만 그렇게 뗏지 어장은 다 구분 되어있습니다 옛날식.)

101003 @ 옛날식 그대로예?(옛날식 그대로요?)

101003 #1 단일 어촌계에 단일 어장에 단일 어촌계가 돼야 되는데, 경 뗏질 아녀마 씨. 이게 이 마을에도 다섯 동이고 크고 어촌계가 하난데 어장이 지금 네 개로 갈라졌수다 네 개로 지금.(단일 어촌계에 단일 어장에 단일 어촌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이 마을에도 다섯 동이고 크고 어촌계가 하난데 어장이 지금 네 개로 갈라졌습니다 네 개로 지금.)

101003 @ 예.(예.)

101003 #1 네 개로 다섯 개로 갈라졌수다.(네 개로 다섯 개로 갈라졌습니다.)

101003 @ 아.(아.)

101003 #1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양 이 늠 또 어장 때문에.(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늠 또 어장 때문에.)

101003 @ 어장은 어디 어디 무슨 여 무슨 여는 어디 저기 다섯 개민 어떻게 갈라질 것과.(어장은 어디 어디 무슨 여 무슨 여는 어디 저기 다섯 개민 어떻게 갈라질 것입니까.)

101003 #1 여기 오봉리<sup>41)</sup>민예.(여기 오봉이면요.)

101003 @ 예.(예.)

101003 #1 오봉리 안네 이 주흥동<sup>42)</sup> 저저 상고수동<sup>43)</sup> 이제 상하고수동<sup>44)</sup>은 톨 바당은 틀러마썸. 톨 캐는 디는.(‘오봉리’ 안에 이 ‘주흥동’ 저저 ‘상고수동’ 이제 ‘상하고수동’은 톨 바다는 달라요. 톨 캐는 데는.)

101003 @ 예.(예.)

101003 #1 경흔디 수심초<sup>45)</sup>, 천초하는 거는 ㄴ찌 햅여 옛날 풍습이.(그렇게 한테 ‘수심초’, 우뭇가사리하는 거는 같이 햅 옛날 풍습이.)

101003 @ 예.(예.)

---

40) ‘굶’은 경계를 말한다.

41) ‘오봉리’는 제주시 우도읍의 오봉리이다.

42) ‘주흥동’은 제주시 우도읍의 주흥동이다.

43) ‘상고수동’은 제주시 우도읍의 상고수동이다.

44) ‘상하고수동’은 제주시 우도읍의 상하고수동이다.

45) ‘수심초’는 제보자가 해초를 표현해서 하는 말이다.

101003 #1 경 돼있고 전흘동<sup>46)</sup> 삼양동<sup>47)</sup> 상고수동.(그렇게 돼있고 ‘전흘동’ ‘삼양동’ ‘상고수동’.)

101003 @ 예.(예.)

101003 #1 거기도 톨 바당은 다 틀려.(거기도 톨 바다는 다 달라.)

101003 @ 톨 바당은.(톨 바다는.)

101003 #1 다 틀려마씨.(다 달라요.)

101003 @ 예.(예.)

101003 #1 거기도 수심초.(거기도 ‘수심초’.)

101003 @ 예.(예.)

101003 #1 뭐 옛날 하르방덜 기성훼 바당이다. 무신 거 바당이다 구실 부찌멍 바다를 다 잘라냈다고 이렇게 해 노니까.(뭐 옛날 할아버지들 기성회 바다다. 무슨 거 바다다 구실 붙이면서 바다를 다 잘라냈다고 이렇게 해서.)

101003 @ 예.(예.)

101003 #1 이 바다 따문에예. 참 감정덜이 감정이 아니우다게.(이 바다 때문예요 참 감정들이 감정이 아닙니다.)

101003 @ 수심초가 저기 우미를.(‘수심초’가 저기 우뭇가사리를.)

101003 #1 우 우 우미.(우 우 우뭇가사리.)

101003 @ 우미를 저기 저 수심초엔 험구나예.(우뭇가사리를 저기 저 ‘수심초’라고 하는군요.)

101003 #1 예. 우미를 수심초엔 허곡.(예. 우뭇가사리를 ‘수심초’라고 하고.)

101003 @ 수심초는 이기 저기 소섬 말잇과?(‘수심초’는 이기 저기 우도 말입니까.)

101003 #1 예게 우리 소섬<sup>48)</sup>예.(예. 우리 우도에.)

101003 @ 소섬에는 수심초렌 험니까?(우도에는 ‘수심초’라고 합니까.)

101003 #1 천초게 천초 천초.(‘천초’ ‘천초’ ‘천초’.)

101003 @ 천초를 수심초렌 험니까.(‘천초’를 ‘수심초’라고 합니까.)

101003 #1 예예. 물속에 잇이난게 물속에 잇이난.(예예.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101003 @ 아, 예. 천초를 소섬에는 수심초엔 험구나예.(아, 예. ‘천초’를 우도에는 ‘수심초’라고 하고 있군요.)

101003 #1 예예. 톨 ㄱ쁜 것은 물이 싸면은 켈 수가 있고, 저 천초는 머 ㄱ디서도 물 싸면은 켈 수가 있주만은.(예예. 톨 같은 것은 물이 써면 켈 수가 있고, 저 ‘천초’는 머 ‘ㄱ’에서도 물써면 켈 수가 있지만은.)

101003 @ 예.(예.)

101003 #1 요세는 물속에서 캐니까는.(요사이는 물속에서 캐니까는.)

101003 @ 그 수심초엔 험구나예. 저 소섬에는예.(그 ‘수심초’라고 하는군요 저 우도에

46) ‘전흘동’은 제주시 우도읍의 전흘동이다.

47) ‘삼양동’은 제주시 우도읍의 삼양동이다.

48) ‘소섬’은 제주시 우도읍을 가리켜 부르던 다른 이름이다.

는요.)

101003 #1 예. 천초 천초.(예. ‘천초’ ‘천초’.)

101003 @ 천초를 수심초엔 허는구나예.(‘천초’를 ‘수심초’라고 하는군요.)

101003 #1 수심초엔도 흠주마씨게.(‘수심초’라고도 합지요.)

101003 @ 아, 수심초 그냥 옛날.(아, ‘수심초’ 그냥 옛날.)

101003 #1 물속에 잇는 풀이다 허는 말인데.(물속에 잇는 풀이다 하는 말인데.)

101003 @ 예.(예.)

101003 #1 겐디 천초가 주릅쭈게 천초.(그런데 ‘천초’가 주로지요 ‘천초’)

101003 @ 천초가 주로예.(‘천초’가 주로요.)

101003 #1 우뭇가사리 우미 우미 우뭇가사리엔도 허고.(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라고도 하고.)

101003 @ 예. 우미엔도 허고 천초엔도 허고예.(예. 우미라고도 하고 ‘천초’라고도 하고요.)

101003 #1 예. 또 이 걸 한천 월료로 나가거든마씨 한천 원료로.(예. 또 이 걸 한천 원료로 나가거든요 한천 원료로.)

101003 @ 예. 예예. 게난 우뭇 말 우도에서 곤는 말.(예. 예예. 그러니까 우도의 말 우도에서 말하는 말.)

101003 #1 예.(예.)

101003 @ 우도에서 곤는 말은 그냥 우미?(우도에서 말하는 말은 그냥 우뭇가사리?)

101003 #1 예. 우미 우미.(예. 우미 우미.)

101003 @ 우미예. 예예. 그.(우미예. 예예. 그.)

101003 #1 겐데 우미도양 잘 나는 바당 잇고 소섬도.(그런데 우미도요 잘 나는 바다 잇고 우도도.)

101003 @ 예.(예.)

101003 #1 잘 안 나는 바당 이서마씨 우뭇는.(잘 안 나는 바다 있어요 우뭇가사리는.)

101003 @ 예예.(예예.)

101003 #1 이 동네가 제일 우뭇 많이 납니다.(이 동네가 제일 우뭇가사리는 많이 납니다.)

101003 @ 주홍동이?(‘주홍동’이?)

101003 #1 예. 저 우리 전홀동.(예. 저 우리 ‘전홀동’.)

101003 @ 예.(예.)

101003 #1 삼양동. 이 상하고수동이 제일 많이 납니다.(‘삼양동’. 이 ‘상하고수동’이 제일 많이 납니다.)

101003 @ 아. 우미는예.(아. 우뭇가사리요.)

101003 #1 우미 우미는.(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이 우도에 오름.(이 마을 주변에 이 우도에 오름.)

101004 #1 예.(예.)



101004 @ 내, 바위, 굴 같은 것이 잇이민 소개해줍서.(내, 바위, 굴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오.)

101004 #1 겐데.(그런데.)

101004 @ 오름은 우도봉.(오름은 ‘우도봉’.)

101004 #1 게메 오름은 저 저 뭐 저 서머리<sup>49)</sup>.(글쎄 오름은 저 저 뭐 저 ‘서머리’.)

101004 @ 서머리.(‘서머리’.)

101004 #1 서 서 머리엔 협주게 여기선, 소 소 머린데.(서 서 머리라고 하지요 여기선, 소 소 머린데.)

101004 @ 서머리.(‘서머리’.)

101004 #1 서머리엔도 이렇게 허고 굴은 여디 가민 오상텃굴<sup>50)</sup>이엔 해근에 그 해안가에.(‘서머리’라고도 이렇게 하고 굴은 저제 가면 ‘오상텃굴’이라고 해서 그 해안가에.)

101004 @ 예.(예.)

101004 #1 쪼끄마헌 굴이 헉나 잇어마썸.(쪼그마한 굴이 하나 있어요.)

101004 @ 오상텃굴.(‘오상텃굴’.)

101004 #1 옛날에 오상텍이란 사람이 그게 어떤 목적으로 행 거기 숨어 낫다가 내중에는 관에서 알안에 잡혀 갓다고 헉는디 잡현에 그 사람이 이에 잡혀갓다고 하는데, 예 또 그 사람 시체가 딱시 여기 잇젠 말도 잇고 그게 정확히지 못헤여마썸. 오상텃 굴이엔 흙쭈. 거기 잇고. 또 저 포경 소섬 밋테 가면은 굴이 잇는데 그 건 무신 굴이엔 헉는지 몰라마썸. 거기도 굴이 잇긴 잇서 거기.(옛날에 ‘오상텍’이란 사람이 그게 어떤 목적으로 해서 거기 숨었다가 나중에는 관에서 알아서 잡혀 갓다고 하는데 잡혀서 그 사람이 이에 잡혀갓다고 하는데, 예 또 그 사람 시체가 다시 여기 있다고 말도 잇고 그게 정확하지 못헤요. ‘오상텃굴’이라고 하쥬. 거기 잇고. 또 저 포경 우도 밑에 가면은 굴이 잇는데 그 건 무슨 굴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거기도 굴이 잇긴 잇어서 거기.)

101004 @ 음.(음.)

101004 #1 그거 완전히 탐지를 안 헉 잇수다게. 그 게 절로 강 저 서머리 밋트로 가민 나올 수 잇다고도 말이 잇고.(그거 완전히 탐지를 안 해서 있습니다. 그 게 절로 가서 저 ‘서머리’ 밑으로 가면 나올 수 잇다고도 말이 잇고.)

101004 @ 어디로 들어가민마썸.(어디로 들어가면요.)

101004 #1 저 저.(저 저.)

101004 @ 예.(예.)

101004 #1 밋테 굴이 잇수다게 거기.(밑에 굴이 있습니다 거기.)

101004 @ 글로 허면은 저쪽 서머리로 해근에.(그리로 하면은 저쪽 ‘서머리’로 해서.)

101004 #1 서머리로 나올 때도 잇고.(‘서머리’로 나올 때도 잇고.)

101004 @ 해보진 안허고예.(해보지는 앓고요.)

101004 #1 해보진 아넛수다 그깅지 통해 잇다.(해보지는 앓았습니다 그깅지 통해 있

49) ‘서머리’는 제주시 우도읍에 소재한 오름이다.

50) ‘오상텃굴’은 제주시 우도읍에 소재한 굴이다.

다.)

101004 @ 예.(예.)

101004 #1 이런 말도 잇는디 누가 탐색을 혼 적이 엇수다.(이런 말도 잇는데 누가 탐색을 한 적이 없습시다.)

101004 @ 그디 저 동굴 잇인 디예?(거기 저 동굴 잇는 데요?)

101004 #1 예. 그디에 동굴이.(예. 거기에 동굴이.)

101004 @ 뭐렌 험니까? 그디는?(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101004 #1 그디에 주간명월 그 굴이엔 흐는 디가 잇는데, 그 굴인데.(거기에 주간명월 그 굴이라고 하는 데가 잇는데, 그 굴인데.)

101004 @ 예.(예.)

101004 #1 그 굴 안에 들어가 안이 들어가면 해식 굴입쥬게. 해식 해식굴이라.(그 굴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면 해식 굴이지요. 해식 해식굴이야.)

101004 @ 예.(예.)

101004 #1 해식굴이고 이런 천정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보아 납디가?(해식굴이고 이런 천정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보았습니까?)

101004 @ 아니 저 사진만 봤수다.(아니 저 사진만 봤습시다.)

101004 #1 바위가 이렇게 둥구렇게 돼 잇서.(바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

101004 @ 예.(예.)

101004 #1 바우드령<sup>51)</sup>에 꼭 달 ㄴ치.(‘바우드령’에 꼭 달 같이.)

101004 @ 예.(예.)

101004 #1 돼잇고 가을에, 해가 남쪽으로 갈 떡에는, 한 열두 시쯤이는 그 게 반사 돼어마썸. 그 게 물을 비추면 물은 또 그대로 반사해어마썸.(돼잇고 가을에, 해가 남쪽으로 갈 적에는, 한 열두 시쯤에는 그 게 반사 돼요. 그 게 물을 비추면 물은 또 그대로 반사해요.)

101004 @ 예.(예.)

101004 #1 그 돌이 불그스름헌 모양이라.(그 돌이 불그스름한 모양이야.)

101004 @ 아.(아.)

101004 #1 그래서 그때 옛날 오십 년도에 그 어느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름이 그 디 잇다고 해서 그걸 보러왔다가, 실지 봐신고라 주간명월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왔다고 해 주간명월이라고예.(그래서 그때 옛날 오십 년도에 그 어느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름이 거기 잇다고 해서 그걸 보러왔다가, 실지 봤었는지 주간명월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왔다고 해 주간명월이라고요.)

101004 @ 아 주간명월.(아 주간명월.)

101004 #1 또 우도 팔경이렌 혼 사름은 팔십일 팔십이 년도에 김찬흠, 그 교장이라고 이수다.(또 우도 팔경이라고 한 사름은 팔십일 팔십이 년도에 김찬흠, 그 교장이라고 있습니다.)

---

51) ‘바우드령’은 제주시 우도읍에 소재한 곳이다.

101004 @ 예.(예.)

101004 #1 저 향토사학잔데 육성회장 때 여기 저 교장으로 와 나수다게. 그 분이 향토에 관심이 만헤연, 참 옛날 이 지역 사름덜 신분들도 잘 압디다게.(저 향토사학자인데 육성회장 때 여기 저 교장으로 왔습니다. 그 분이 향토에 관심이 많아서, 참 옛날 이 지역 사름들 신분들도 잘 압니다.)

101004 @ 예.(예.)

101004 #1 향토 사학가니까.(향토 사학가니까.)

101004 @ 예.(예.)

101004 #1 옛날 여기 독립투사덜 잘 내용도 잘 알고 해서, 나 우도에 와서 하나 우도 팔경을 이 하나 지어뒀 가쿠펜 경 험 참 우도 팔경을 지어 가십주게. 우도팔경을.(옛날 여기 독립투사들 잘 내용도 잘 알고 해서, 나 우도에 와서 하나 우도 팔경을 이 하나 지어두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우도 팔경을 지어서 갔습니다. 우도팔경을.)

101004 @ 나 잘 모르쿠다 곱아줍서.(나 잘 모르겠습니다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우도 팔경 모릅네까?(우도 팔경 모릅니까?)

101004 @ 예. 잘 모르쿠다.(예. 잘 모르겠습니다.)

101004 #1 이런.(이런.)

101004 @ 하나 하나 곱아줍서.(하나 하나 말해주십시오.)

101004 #1 게도 저 천지.(그래도 저 천지.)

101004 @ 예.(예.)

101004 #1 게민 저, 이 여기에 잇실건디, 천지 주야 예.(그러면 저, 이 여기에 있을건데, 천지 주야예.)

101004 @ 예.(예.)

101004 #1 천 주간명월 또 천진관산.(천 주간명월 또 천진관산.)

101004 @ 예. 관산예.(예. 관산요.)

101004 #1 천진관산하면 저 도향선 들어오는데 잇잔우파?(천진관산하면 저 ‘도향선’ 들어오는데 잇잖습니까?)

101004 @ 예.(예.)

101004 #1 그디서 할라산을 보면 그렇게 산이 고와.(거기서 한라산을 보면 그렇게 산이 고와.)

101004 @ 예.(예.)

101004 #1 보기 좋지 아넛과게.(보기 좋지 않습니까.)

101004 @ 예예.(예예.)

101004 #1 저 시<sup>52)</sup>에서 보면 악산이라고 산 그따보지 안하는데 여기는게 천진관산이라하고 주간명월 아까 나 말 헌디가 잇고예.(저 ‘시’에서 보면 악산이라고 산 같아보지 않는데 여기는 게 천진관산이라 하고 주간명월 아까 나 말한 데가 잇고요.)

101004 @ 예.(예.)

---

52) ‘시’는 제주시의 동지역이다.

101004 #1 또 서빈백사.(또 서빈백사.)

101004 @ 예.(예.)

101004 #1 으 서빈백사는 서쪽에 그 백사장이 잇잔우파.(오 서빈백사는 서쪽에 그 백사장이 있잖습니까.)

101004 @ 예.(예.)

101004 #1 또 동안경굴.(또 동안경굴.)

101004 @ 예.(예.)

101004 #1 또 예, 주간명월도 했고 천지 주야 또, 주야 주간명월 으, 아까 뭐이엔 천 주 했수과?(또 예, 주간명월도 했고 천지 주야 또, 주야 주간명월 오, 아까 뭐이라고 천 주 했습니까?)

101004 @ 서빈백사, 동안경굴.(서빈백사, 동안경굴.)

101004 #1 동안경굴예. 저 주, 야흥어봉, 주간명월, 아 저 주간 양.(동안경굴요. 저 주, 야흥어봉, 주간명월, 아 저 주간 양.)

101004 @ 주간명월예.(주간명월요.)

101004 #1 아, 주간명월 주 ㄴ만 잇자.(아, 주간명월 주 가만 잇자.)

101004 @ 계문 이거는 나중에라근예.(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라야.)

101004 #1 전포망도.(전포망도.)

101004 @ 전포망도.(전포망도.)

101004 #1 후애석벽.(후애석벽.)

101004 @ 예?(예?)

101004 #1 전포망도.(전포망도.)

101004 @ 예.(예.)

101004 #1 후애석벽.(후애석벽.)

101004 @ 후애석벽.(후애석벽.)

101004 #1 예. 후애석벽이면 후애동<sup>53)</sup>이 가면 이 여기를 저쪽에 가면 이 그 후애동이라고 합니다. 뒷바당 뒷바당 옛날에는 뒷바당이라고 했수다.(예. 후애석벽이면 ‘후애동’에 가면 이 여기를 저쪽에 가면 이 그 ‘후애동’이라고 합니다. 뒷바다 뒷바다 옛날에는 뒷바다라고 했습니다.)

101004 @ 아.(아.)

101004 #1 그 뒷바당을 뒷바당 동네를 후애동이렌 헤낫는데.(그 뒷바다를 뒷바다 동네를 ‘후애동’이라고 했는데.)

1101004 @ 예. 영일동.(예. 영일동.)

101004 #1 예? 영일동이 이젠 그 예 영일동<sup>54)</sup>을 동명이 갈안 동명이 변경 웬지가, 혼 삼십 년 뱃기 안뵈수다.(예? ‘영일동’이 이젠 그 예 ‘영일동’을 동명이 갈아서 동명이 변경 된지가, 한 삼십 년 밖에 안뵈었습니다.)

---

53) ‘후애동’은 우도읍의 후애동이다.

54) ‘영일동’은 우도읍의 영일동이다.

101004 @ 예예.(예예.)

101004 #1 왜냐하면은 후애동이렌 흥니까 맨날 믱을 체육대회 때 지금 잘 해도 자꾸 뒤떨어지는 거라, 계난 이 후 자 들어가 부리니까 영 현 거라고 해서 동네 모여갖고 동네에서 뭘 해갖고예.(왜냐하면은 ‘후애동’이라고 하니까 맨날 마을 체육대회 때 지금 잘 해도 자꾸 뒤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 자 들어가 버리니까 이러한 거라고 해서 동네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뭘 해가지고요.)

101004 @ 예.(예.)

101004 #1 저 뭐이엔 허나 걸 사름이 이제 그 그 뭐이라 해서 이젠 저 영일동이라고 허자.(저 뭇이라고 하나 그걸 사름이 이제 그 그 뭇이라 해서 이젠 저 ‘영일동’이라고 하자.)

101004 @ 해를 맞이하는 곳이라 해서.(저 뭇이라고 하나 그걸 사름이 이제 그 그 뭇이라 해서 이젠 저 ‘영일동’이라고 하자.)

101004 #1 예예예. 해를 맞이하는 동네라고. 그 후에 체육대회에 일등 해놔수다.(예예예. 해를 맞이하는 동네라고. 그 후에 체육대회에 일등 했습니다.)

101004 @ 아 깃과.(아 그렇습니까.)

101004 #1 (웃음)게 동네이름 ㄴ짜부니까 저 이제 했다고.((웃음)그럼 동네이름 고쳐 버리니까 저 이제 했다고.)

101004 @ 예.(예.)

101004 #1 주간명월 주간명월 주간 아 주간명월 후애석벽 주간명월?(주간명월 주간명월 주간 아 주간명월 후애석벽 주간명월?)

101004 @ 예.(예.)

101004 #1 예. 춤 지두청사.(예. 참 지두청사.)

101004 @ 예? 지두청사?(예? 지두청사?)

101004 #1 예. 지두청사.(예. 지두청사.)

101004 @ 지두청사.(지두청사.)

101004 #1 주간명월은 맞수다 주간명월은.(주간명월은 맞습니다 주간명월은.)

101004 @ 예.(예.)

101004 #1 으.(오.)

101004 @ 천지주야는 무스거렌 험니까?(천지주야는 무슨 거라고 합니까?)

101004 #1 그분이 경 흥거라 이 우리 우주만상을.(그분이 그렇게 한거야 이 우리 우주만상을.)

101004 @ 예.(예.)

101004 #1 천지.(천지.)

101004 @ 예.(예.)

101004 #1 동서.(동서.)

101004 @ 예.(예.)

101004 #1 좌우.(좌우.)

101004 @ 예.(예.)

101004 #1 주가 저 주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렇게 해서 팔 팔 상을 놔서 이제 그렇게 멘든 겁주.(주가 저 주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렇게 해서 팔 팔 상을 놔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지요.)

101004 @ 아 게 김찬흡선생이예.(아 것이 김찬흡선생이요.)

101004 #1 예예.(예예.)

101004 @ 경 해근예예. 예. 우도팔경을 헛구나예.(그렇게 해서요. 예. 우도팔경을 헛군요.)

101004 #1 예게.(예.)

101004 @ 아이고 종수다게 게문.(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101004 #1 게 그 어른이 그렇게 허자, 마침 빠지선으로.(그럼 그 어른이 그렇게 하자, 마침 바지선으로.)

101004 @ 예.(예.)

101004 #1 그래서 김○○네 여기 출신덜허곡 우도에는 주간명월이 저, 우도팔경이 있다하니까 관광지로 다 궁굼허는 거라 어떤 딴고.(그래서 김○○네 여기 출신들하고 우도에는 주간명월이 저, 우도팔경이 있다하니까 관광지로 다 궁굼한 거야 어떤 데인가.)

101004 @ 예.(예.)

101004 #1 그래서 빠지선이 오기 시작하니까 택시타기 시작해네 우도 와기네 그 주간명월 어떤 디냐.(그래서 바지선이 오기 시작하니까 택시타기 시작해서 우도 와서 그 주간명월 어떤 데냐.)

101004 @ 예.(예.)

101004 #1 막 와서 구경 행 가곡 허니까 그때부턴 아, 츠츠츠츠 우도가 이제 점점 이름이 나기 시작해 가는 거라.(막 와서 구경해서 가고 하니까 그때부턴 아, 차츰차츰 우도가 이제 점점 이름이 나기 시작해 가는 거야.)

101004 @ 예.(예.)

101004 #1 완 보니까 또 좋거든마씨 또 츠체는 배 탕 오는 게 좋지.(와서 보니까 또 좋거든요 또 첫체는 배 타서 오는 게 좋지.)

101004 @ 예.(예.)

101004 #1 두 두 번째는 우도 와서 보니까 조용허고, 또 저 오도바이를 타고 우도 흔 바뀌 ㄱ찌해보니까 얼마나 좋을것과 지금.(두 두 번째는 우도 와서 보니까 조용하고, 또 저 오토바이를 타고 우도 한 바퀴 같이해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101004 @ 예. 한 바퀴 오래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예.(예. 한 바퀴 오래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요.)

101004 #1 그게 오토바이 타러오는 거다. 아 여기 우리가 여기 오토바이를 이제 타지 못허게 허자허난, ㄴ 오토바이를 타러오는 거지 못 오게 행이야 그 사름덜이 읍니까.(그게 오토바이 타러오는 거다. 아 여기 우리가 여기 오토바이를 이제 타지 못허게 하자하니까, ㄴ 오토바이를 타러오는 거지 못 오게 해서야 그 사람들이 읍니까.)

101004 @ 아 요즘은예.(아 요즘은요.)

101004 #1 예. 아 계난 오토바이를 타니까 시끄럽기야 시끄럽쑈다게. 어떤 땐 위엄도  
헝곡, 스고에 헝루에 헝 번씩 죽진 아녀도 아적은 죽어본 적은 엇는데.(예. 아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니까 시끄럽기야 시끄럽습니다. 어떤 땐 위험도 하고, 사고에 하루에 한  
번씩 죽지는 았아도 아적은 죽어본 적은 없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가끔씩 스고도 헝 번씩 나는 거라마씨.(가끔씩 사고도 한 번씩 나는 거예  
요.)

101004 @ 예. 맞수다예.(예. 맞습니다요.)

101005 @ 이 마을 기관 잇지 안우파예.(이 마을 기관 잇지 았습니까요.)

101005 #1 예.(예.)

101005 @ 기관을 학교 영 뭐.(기관을 학교 이렇게 뭐.)

101005 #1 예게 기관은 많음주마쑈게.(예. 기관은 많습지요.)

101005 @ 예. 곶아 곶아봅서. 우체국으로부터 시작 행 경찰 파출소부터 옛날에는 경  
찰 파출소로부터 잇어나쑈과?(예. 말해 말해보십시오. 우체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찰 파  
출소부터 옛날에는 경찰 파출소로부터 았었습니까?)

101005 #1 예. 파출소로부터 예 옛날은 지서 지서 허다가.(예. 파출소로부터 예 옛날  
은 지서 지서 하다가.)

101005 @ 지서 허다가.(지서 하다가.)

101015 #1 이제는 파출소로 돼부니까.(이제는 파출소로 돼버리니까.)

101005 @ 예.(예.)

101005 #1 또 그 다음에 전화국 우체국 중학 중학교는 이제 통합학교 돼부니까헝곡  
예. 농협예.(또 그 다음에 전화국 우체국 중학 중학교는 이제 통합학교 돼버리니까 하고  
요. 농협요.)

101005 @ 예.(예.)

101005 #1 수협.(수협.)

101005 @ 예.(예.)

101005 #1 이제 예 우선은 기관이 들어왔기로는 것벳기 엇입주 아적은.(이제 예 우선  
은 기관이 들어왔기로는 것밖에 없지요 아적은.)

101005 @ 아적은예. 기관이예.(아적은요 기관이요.)

101005 #1 예. 도 소방서 소방서.(예. 도 소방서 소방서.)

101005 @ 아 소방서.(아 소방서.)

101005 #1 소방서도 요 근래 왕 소방대가 생겨잇고.(소방서도 요 근래 와서 소방대가  
생겨잇고.)

101005 @ 예.(예.)

101005 #1 그 스오 년까지 벳기 안 돼십주. 소방대가.(그 사오 년까지 밖에 안 되지  
요. 소방대가.)

101005 @ 예. 소방서 헌 지는예.(예. 소방서 한 지는요.)

101006 @ 삼촌 옛날에 계 접이엔 험니까. 계엔 험니까?(삼촌 옛날에 계 계라고 합니까. 계라고 합니까?)

101006 #1 그 옛날에는 어떻 해신고 예.(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예.)

101006 @ 어떻 험니까?(어떻게 합니까?)

101006 #1 그때가 칠십 년도에는 계가 좀 잇어났다고.(그때가 칠십 년도에는 계가 좀 있었다고.)

101006 @ 예.(예.)

101006 #1 뭇 사람이 으 그 동네에 막 경 허지는 아녀고 옛날에는 처음에는 무지게엔 무지게엔 그거 회 돈 모연 기관 장사가 돈놀이하는 디가 잇어나서.(뭇 사람이 오 그 동네에 막 그렇게 하지는 았고 옛날에는 처음에는 무지개라고 무지개라고 그거 회 돈 모여서 기관 장사가 돈놀이하는 데가 있었어.)

101006 @ 아 돈 놀이가 아니고 마을에서.(아 돈 놀이가 아니고 마을에서.)

101006 #1 예.(예.)

101006 @ 영장 나면 영장계, 그 뭐 쓸계.(영장 나면 영장계, 그 뭐 쌀계.)

101006 #1 아. 아주 옛날에는.(아. 아주 옛날에는.)

101006 @ 예.(예.)

101006 #1 우리가 어리기 전에는 워정 때라 워정 때.(우리가 어리기 전에는 일제강점기 때야 일제강점기 때.)

101006 @ 예.(예.)

101006 #1 우리가 혼 후젠 그런 계가 었어서 워정시대에.(우리가 한 후제는 그런 계가 없었어 왜정시대에.)

101006 @ 예.(예.)

101006 #1 워정시대에 이제 동네에.(일제강점기에 이제 동네에.)

101006 @ 예.(예.)

101006 #1 이제 젊은 사람덜 계를 구성 해갖고 늙 밧담도 다와주곡, 밧담도 다와주곡 해근에게 그디서 돈을 모으면.(이제 젊은 사람들 계를 구성 해가지고 남 밧담도 쌓고, 밧담도 쌓고 해서 거기서 돈을 모으면.)

101006 @ 예.(예.)

101006 #1 걸로 모아놔다근에 겨울 때 뉘면, 소도 잡아 먹고 돼지도 잡아 먹고 그렇게 해놔다햏여.(걸로 모아놔다가 겨울 때 되면, 소도 잡아 먹고 돼지도 잡아 먹고 그렇게 했다해.)

101006 @ 젊은 사람덜.(젊은 사람들.)

101006 #1 예예.(예예.)

101006 @ 이름이 뉘고예?(이름이 뉘가요?)

101006 #1 계난 그런 이름이 었어마씨. 이름은 었고.(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고.)



101006 @ 마을 사람들이?(마을 사람들이?)

101006 #1 예.(예.)

101006 @ 젊은 사름들끼리?(젊은 사름들끼리?)

101006 #1 예. 경 흐다가 예, 팔십 년대에는 우도에 친목회가 이제 우도면 쪽으로.  
(예. 그렇게 하다가 예, 팔십 년대에는 우도에 친목회가 이제 우도면 쪽으로.)

101006 @ 예.(예.)

101006 #1 좀 그 좀 나 나 좀좀 나 한 사름덜이 모여근에 친목회를 조직해난 적은 있어.(좀 그 좀 나 나 좀좀 나이 많은 사름이 모여서 친목회를 조직했던 적은 있어.)

101006 @ 예.(예.)

101006 #1 친목회를 해갖고 협동친목회다 또 이제 새마음친목회다. 시무친목회다 해서.(친목회를 해가지고 협동친목회다 또 이제 새마음친목회다. 시무친목회다 해서.)

101006 @ 예.(예.)

101006 #1 오 친목회를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이제, 이제 그 협동 경노잔치도 혼 두어 번씩해서.(오 친목회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제 그 협동 경노잔치도 한 두어 번씩해서.)

101006 @ 예.(예.)

101006 #1 그 회가 주관이 돼서, 노인덜을 이제 중앙에 모셔갖고 이제 춤 우동 ㄱ든 것도 해여근에 술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그 회가 주관이 되서, 노인들을 이제 중앙에 모셔가지고 이제 참 우동 같은 것도 해서 술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101006 @ 그거는 협동친목회는 경로 효도 관광 뭐 저가 질문하는 거는 저 농사 할 때.(그거는 협동친목회는 경로 효도 관광 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저 농사 할 때.)

101006 #1 예.(예.)

101006 @ 농사 할 때 수놓음 때나 아니면 영장 날 때.(농사 할 때 품앗이 때나 아니면 영장 날 때.)

101006 #1 예.(예.)

101006 @ 잔치 할 때.(잔치 할 때.)

101006 #1 예.(예.)

101006 @ 그 마을에 마을에 뭐.(그 마을에 마을에 뭐.)

101006 #1 그 믱을엔 화단<sup>55)</sup>ㄱ든 건.(그 마을엔 ‘화단’같은 건.)

101006 @ 예.(예.)

101006 #1 행정적으로 동네서 만들어 놔주 동네킨비용으로 화단ㄱ든 건 동네에서.(행정적으로 동네서 만들어 놔지 동네킨비용으로 ‘화단’같은 건 동네에서.)

101006 @ 동네에서.(동네에서.)

101006 #1 옛날엔 각 동네마다 화단이 있어났다고.(옛날엔 각 동네마다 화단이 있었다고.)

101006 @ 예. 게난 그 말을.(예. 그러니까 그 말을.)

55) ‘화단’은 상여에 지붕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이다.

101006 #1 헛다가 요 근래는 차로 운반하기 시작할 후로는 그 화단이 다 없어져버려서.(하다가 요 근래는 차로 운반하기 시작한 후로는 그 ‘화단’이 다 없어져버려서.)

101006 @ 그 계란.(그 그러니까.)

101006 #1 상여도 매어가곡 무시거.(상여도 매어가고 무엇.)

101006 @ 예.(예.)

101006 #1 선소리 허멍.(선소리 하면서.)

101006 @ 예.(예.)

101006 #1 상여소리 허멍 돈도 이제 모으곡 영 해근예.(상여메기는 소리 하면서 돈도 이제 모으고 이렇게 해서.)

101006 @ 예.(예.)

101006 #1 그 청년회 공금으로도 쓰곡 이렇게 해놔다고 그 상여 허면서.(그 청년회 공금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 상여 하면서.)

105015 @ 예.(예.)

105015 #1 이제 차비가 없어지난 나 못 가겠다고 이제 상여허는 사람이 이제 상주들 돈도 내놓고 해근예 그 돈 모아근예 청년회 공금도 만들고 이렇게 해놔는데, 그 후에 차로 당김 시작하니까 또 젊은 사람도 청년도 없어지고 없어져가고 그게 귀로우니까.(이제 차비가 없어지니까 나 못 가겠다고 이제 상여하는 사람이 이제 상주들 돈도 내놓고 해서 그 돈 모아서 청년회 공금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차로 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젊은 사람도 청년도 없어지고 없어져가고 그게 귀로우니까.)

105015 @ 예.(예.)

105015 #1 차로 운구하다가 내중에는 또 이제 우도에 팔십 년대부터는 구십 년대부터는 저 우도에, 그 장례예식장을 만들었다고 이제. 게민 사람을 죽으면 집에서 죽어도 글로 옮겨간다고.(차로 운구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우도에 팔십 년대부터는 구십 년대부터는 저 우도에, 그 장례예식장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러면 사람을 죽으면 집에서 죽어도 그리로 옮겨간다고.)

101006 @ 예.(예.)

101006 #1 게 거기서 이제는 소임도 반곡.(그럼 거기서 이제는 손님도 받고.)

101006 @ 예.(예.)

101006 #1 거기서 감장을 해서 거기서 소임도 데접을 해서 가까우니까는 저 뢰지 안에.(거기서 감장을 해서 거기서 손님도 대접을 해서 가까우니까는 저 뢰지 안에.)

101006 @ 아.(아.)

101006 #1 집이 잇어요 지금.(집이 잇어요 지금.)

101006 @ 아.(아.)

101006 #1 새로 지언 게축하고 잇어요 바로 금년부터.(새로 지어서 개축하고 잇어요 바로 금년부터.)

101006 @ 예.(예.)

101006 #1 금년 육억 육억인가 면에서 저 행정에서 지원 받아갖고 아주 신식으로 게

장을 허고 잇서요게.(금년 육억 육억인가 면에서 저 행정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아주 신식으로 개장을 하고 있어요.)

101006 @ 계난에 계민 현대에는 그렇게 허고 예전에는 화단이엔 현 거 잇어근네.(그러니까 그럼 현대에는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화단’이라고 한 거 있어서.)

101006 #1 예.(예.)

101006 @ 동네별로.(동네별로.)

101006 #1 예.(예.)

101006 @ 그거는 웃동네 알동네도 아니고 그냥 마을별로 했구나예.(그거는 웃동네 아랫동네도 아니고 그냥 마을별로 했군요.)

101006 #1 동네별로.(동네별로.)

101006 @ 동네별로?(동네별로?)

101006 #1 동네별로 잇서났어요 다.(동네별로 있었어요 다.)

101006 @ 동네면은 만약에.(동네면은 만약에.)

101006 #1 팔 개 동인데.(팔 개 동인데.)

101006 @ 예.(예.)

101006 #1 팔 개 동에 다 잇어났어요.(팔 개 동에 다 있었어요.)

101006 @ 팔 개 동에 여덟 개가 있다는 것과?(팔 개 동에 여덟 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101006 #1 예예. 여덟 개.(예예. 여덟 개.)

101006 @ 더 하진 안히고마씨?(더 많지는 않고요?)

101006 #1 예. 더 하진 않고 그 동네, 행정구역상으로 그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예. 더 많지는 않고 그 동네, 행정구역상으로 그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101006 @ 예. 그 동네서예.(예. 그 동네서요.)

101006 #1 그 동네에서 그걸 만들어놨다가.(그 동네에서 그걸 만들어놨다가.)

101006 @ 예. 그 동네 접예.(예. 그 동네 계요.)

101006 #1 그걸예.(그걸요.)

101006 @ 그거를 그 오봉리엔 허문 오봉리 접이엔 헤신가마씨?(그거를 그 오봉리라고 하면 오봉이계라고 했는가요?)

101006 #1 오봉리<sup>56)</sup> 아니고 동네.(오봉리 아니고 동네.)

101006 @ 아, 오봉리.(아, 오봉리.)

101006 #1 예. 상고수동 하고수동 삼양동 동네가 다섯 동네거든.(예. ‘상고수동’ ‘하고수동’ ‘삼양동’ 동네가 다섯 동네거든.)

101006 @ 예예.(예예.)

101006 #1 게 다섯 개가 잇었다고.(그럼 다섯 개가 있었다고.)

101006 @ 예예. 다섯 개에서.(예예. 다섯 개에서.)

101006 #1 화단이 다섯 개 잇었다고.(‘화단’이 다섯 개 있었다고.)

---

56) ‘오봉리’는 우도면의 ‘이(里)’ 명칭의 하나다.

101006 @ 저기예. 상고수동 동네엔 험니까?(저기요. ‘상고수동’ 동네라고 합니까?)

101006 #1 상고수동에는 상고수동 사람이 그거 해여네, 지금 그거 여기도 머만 있어, 틀만 화단은 어디 갔는지 모르크라. 지금 술아벗는가 어떻 했는가. 지금 그거 구경을 못 허크라.(‘상고수동’에는 ‘상고수동’ 사람이 그거 해서, 지금 그거 여기도 무엇만 있어, 틀만 ‘화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살라버렸는가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거 구경을 못하겠어.)

101006 @ 화단은 엇고예.(‘화단’은 없고요.)

101006 #1 예.(예.)

101006 @ 그 터가 잇언예.(그 터가 있어서요.)

101006 #1 예. 지금 화단이 지금 다 술아벼실거라 ㄴ만 동네 안에서도.(예. 지금 ‘화단’이 지금 다 살라버렸을 거야. 가만 동네 안에서도.)

101006 @ 경 허면은 만약에 검질메는 거 일에 관해서는 그런 거는 엇일 것과?(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김매는 거 일에 관해서는 그런 거는 없을 것입니까?)

101006 #1 검질메는 것도 우리 어렸을 적에도 접 안 허고.(김매는 것도 우리 어렸을 적에도 계 안 하고.)

101006 @ 예.(예.)

101006 #1 켜데 조 ㄴ쁜 거는 몰라도 수눌긴 쫘 헛어.(그런데 조 같은 거는 몰라도 품앗이는 쫘 헛어.)

101006 @ 수누는 거예.(품앗이하는 거요.)

101006 #1 혼 두세 사람 정도 두 집 세 집정도.(한 두세 사람 정도 두 집 세 집정도.)

101006 @ 예.(예.)

101006 #1 또 혼 요 멧 년 전ㄴ지만 흐드라도.(또 한 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1006 @ 예.(예.)

101006 #1 예 마늘 심을 때도.(예 마늘 심을 때도.)

101006 @ 예.(예.)

101006 #1 접을 헨 심었다고.(계를 해서 심었다고.)

101006 @ 마늘 헐 때도.(마늘 할 때도.)

101006 #1 마늘 심을 때도.(마늘 심을 때도.)

101006 @ 접을 헨예.(계를 해서요.)

101006 #1 요 서너 집이가 뭐 한 천 평 이천 평 심을 수 있는 집끼리만.(요 서너 집에가 뭐 한 천 평 이천 평 심을 수 있는 집끼리만.)

101006 @ 예.(예.)

101006 #1 서로 허다가, 나도 혼 이십 년 전에 허다가 누가 어느 사람이 밭 갈려 완.(서로 하다가, 나도 한 이십 년 전에 하다가 누가 어느 사람이 밭 갈러 와서.)

105015 @ 예.(예.)

105015 #1 그땐 트랙터로 갈 땐데 아이 서로 접 접 해기네, 혼 사람이 이녁 거 허젠 허민 남이 집이 혼 삼사일 걸릴 거 아닙니까.(그땐 트랙터로 갈 땐데 아니 서로 계 계

해서, 한 사람이 이녁 거 하려고 하면 남의 집에 한 삼사일 걸릴 거 아닙니까.)

101006 @ 예.(예.)

101006 #1 아, 이녁 집이서 혼자 편하게 흐민 말지. 남이 집이 강 허면은 비용도 마찬가지로 더 들 거고, 오히려 이녁 집이서 더 홀 일이 빠르고 더 쉽지 않느냐, 허연 것도 들언 보난 올은 말이라. 겐 나 혼자 하기 시작했어 그거 이제.(아, 이녁 집에서 혼자 편하게 하면 말지. 남의 집에 가서 하면은 비용도 마찬가지로 더 들 거고, 오히려 이녁 집에서 더 할 일이 빠르고 더 쉽지 않느냐, 해서 것도 들어서 보니까 옳은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하기 시작했어 그거 이제.)

101006 @ 아.(아.)

101006 #1 경 헛고 다른 사람도 경 허다 보니까 이제는 접허는 게, 벨 이익이 었다는 거야 오히려 손해다.(그렇게 헛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게 하는 게, 벨 이익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손해다.)

101006 @ 어.(어.)

101006 #1 분위기상으론 좋지만은 실지 따지고 보면은 큰 이익이 었어. 좀 비용도 더 들고.(분위기상으론 좋지만은 실지 따지고 보면 큰 이익이 없어. 좀 비용도 더 들고.)

101006 @ 예.(예.)

101006 #1 이녁 집이서 일 할 때 이녁만 일 할 땐에는 반찬도 안 출령 먹을 수가 있는데, 접을 출령 하게 돼면은 반찬을 잘 만들어야 돼거든게.(이녁 집에서 일 할 때 이녁만 일 할 적에는 반찬도 안 차려서 먹을 수가 있는데, 계를 차려서 하게 되면 반찬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

101006 @ 예.(예.)

101006 #1 게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거라.(그럼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거야.)

101006 @ 예.(예.)

101006 #1 쪼끔 이녁 이녁대로 나흘 동안 일허는 것광 ㄴ찌 접을 헤영 나흘 동안 일을 흐는 걸 하루에 한다고 해도 비용은 더 들어부는 거라.(쪼끔 이녁 이녁대로 나흘 동안 일하는 것하고 같이 계를 해서 나흘 동안 일을 하는 걸 하루에 한다고 해도 비용은 더 들어버리는 거야.)

101006 @ 예. 게민 옛날에 잔치할 때는, 그냥 동네에서 허는 거고예.(예. 그러면 옛날에 잔치할 때는, 그냥 동네에서 하는 거고요.)

101006 #1 예. 동네에서 허고, 또 동네에서 ㄴ치 돕자고 해서 혼디 으숏 사람끼리 친목계를 해서.(예. 동네에서 하고, 또 동네에서 같이 돕자고 해서 한테 여섯 사람끼리 친목계를 해서.)

101006 @ 예.(예.)

101006 #1 그 집이 관혼상제가 나면.(그 집에 관혼상제가 나면.)

101006 @ 예.(예.)

101006 #1 그 관혼상제가 나는 동안에 해 주기도 해나서.(그 관혼상제가 나는 동안에 해주기도 했어.)

101006 @ 예.(예.)

101006 #1 우리 할망도 이 동네서 허단, 아 접원 되는 사람하고 혼 번 말다툼을 해서.(우리 할머니도 이 동네에서 하다가, 아 접원 되는 사람하고 한 번 말다툼을 해서.)

101006 @ 예.(예.)

101006 #1 게 그 사람 미웁다고 나 탈퇴허겄다고.(게 그 사람 밍다고 나 탈퇴하겄다고.)

101006 @ 아.(아.)

101006 #1 탈퇴해난 적이 있어. 우리 할망도 지금.(탈퇴했던 적이 있어. 우리 할머니도 지금.)

101006 @ 예예.(예예.)

101006 #1 으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 할망이 우리 할망이고 뭐시고 모범적이랴주게. 겐디 우리 할망이 탈퇴혼 후로 그 조직이 흐터지더고만 지금.(오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고 무엇이고 모범적이었지.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탈퇴한 후로 그 조직이 흩어지더니만 지금.)

101006 @ 예.(예.)

101006 #1 겐 지금은 그런 접이 었어.(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어.)

101006 @ 그럼 예전에 바당에 멜후림 같은 것이 잇잖우파?(그럼 예전에 바다에 멀치후림 같은 것이 잇잖습니까?)

101006 #1 멜후림?(멀치후림?)

101006 @ 예.(예.)

101006 #1 옛날엔 멜 후러낫주. 옛날에는.(옛날에는 멀치 후렸었지. 옛날에는.)

101006 @ 경허난 그때도 접으로 저기 헤실 건디예?(그렇게 하나까 그때도 계로 저기 했을 건데요?)

101006 #1 그때 접으로가 아니고.(그때 접으로가 아니고.)

101006 @ 예.(예.)

101006 #1 동네로.(동네로.)

101006 @ 아. 것도 동네로예.(아. 것도 동네로요.)

101006 #1 여기 하교수동에.(여기 ‘하교수동’에.)

101006 @ 예.(예.)

101006 #1 육십년대 오십년대 육십년 대까지도 그때는 이 과학이 발단 안 돼네 불싸네 멜 거리는 배들이 었일 때거든.(육십년대 오십년대 육십년대까지도 그때는 이 과학이 발단 안 돼서 불 켜서 멀치 뜨는 배들이 없을 때거든.)

101006 @ 예.(예.)

101006 #1 게민 가만이 이서도 게 안네 멜이 들어와. 게민 후림 그물 만들어 갖고 가근에 둘러 싸근에, 땡겨다근에 그거 허면은 그걸 이젠 그뎨 돈도 안 돼고 전부다 밧디 걸름해서, 걸름.(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게 안에 멀치가 들어와. 그러면 후리그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둘러싸서, 당겨다가 그거 하면은 그걸 이젠 그뎨 돈도 안 되고 전부다 밧

에 거름했어, 거름.)

101006 @ 예.(예.)

101006 #1 말려근에 이제, 걸름 했는데 아 이제는 저 춤 바다에 가근에 먼 바다에 가근에 불 싸근에 잡기 시작한 후론, 들어올 시간이 었어 었이 잡아버리는 거라 지금.(말려서 이제, 거름 했는데 아 이제는 저 참 바다에 가서 먼 바다에 가서 불 켜서 잡기 시작한 후로는, 들어올 시간이 없어 없이 잡아버리는 거야 지금.)

101006 @ 음음.(음음.)

101006 #1 그 후로는 후리가 었어져 불었어.(그 후로는 후림이 었어져 버렸어.)

101006 @ 그때는 저 후림해서 그때는 접으로 해가지고 동네.(그때는 저 후리해서 그때는 계로 해가지고 동네.)

101006 #1 접으로하고 동네.(계로하고 동네.)

101006 @ 동네로 하고예.(동네로 하고요.)

101006 #1 세 접이라서 우리 우도에도.(세 계여서 우리 우도에도.)

101006 @ 우리 저 고수동 이 주홍동 접.(우리 저 ‘고수동’ 이 ‘주홍동계’.)

101006 #1 우리 고수동접.(우리 ‘고수동계’.)

101006 @ 예.(예.)

101006 #1 비양접<sup>57)</sup> 으 어장 하나 놔갖고, 으 서쪽에 관계가 돼거든, 저쪽 동네도 저쪽으로 짝끔 부터잇다고.(‘비양계’ 요 어장 하나 놔가지고, 아 서쪽에 관계가 되거든, 저쪽 동네도 저쪽으로 조금 붙어잇다고.)

101006 @ 부터잇고예.(붙어잇고요.)

101006 #1 또 우리도 이쪽에서도 부터잇고. 이 주홍동도 그때 우도가 한 어장이랴다고.(또 우리도 이쪽에서도 붙어잇고. 이 ‘주홍동’도 그때 우도가 한 어장이었다고.)

101006 @ 예.(예.)

101006 #1 뭐 저 잠수덜.(뭐 저 잠수들.)

101006 @ 예.(예.)

101006 #1 소라 잡는 것도 한 어장이랴는데, 이제는 바당이 갈라지기, 이 잠수덜 바당이 갈라지기 시작헌지는 지금 예 팔십 년도, 칠십 칠십삼 년도 스 년도에 갈라졌다고 그때는 이 동네 사람도 저 ‘영일동’.(소라 잡는 것도 한 어장이었는데, 이제는 바다가 갈라지기, 이 잠수들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지는 지금 예 팔십년도, 칠십 칠십삼년도 사 년도에 갈라졌다고 그때는 이 동네 사람도 저 ‘영일동’.)

101006 @ 예.(예.)

101006 #1 이제 저 무슨 바당이엔 혼 디 가그넵에 믋음테로, 너른지 너른짓바당<sup>58)</sup>에 강 믋음테로 잡아왔다고.(이제 저 무슨 바다라고 한 데 가서 마음대로, ‘너른지’ ‘너른짓바당’에 가서 마음대로 잡아왔다고.)

101006 @ 예.(예.)

57) ‘비양접’은 제주시 우도읍 비양동에서 하던 계를 말한다.

58) ‘너른짓바당’은 제주시 우도읍에 소재한 바다 이름이다.

101006 #1 배 탕 강, 이제.(배 타서 가서, 이제.)

101006 @ 예.(예.)

101006 #1 배 탕 가기도 흥곡 거기에 물발이 켜주게.(배 타서 가기도 하고 거기에 물발이 세지.)

101006 @ 예.(예.)

101006 #1 물발이 켜영 조금 때만 가민 줌수덜 흥는 덴디 여기서 배 탕 가기에 그리 쳐오랏긴 흥기도 헛는디 칠십년도부터 아, 칠십스년도부터는 소라 값이 올라가기 시작 흥 거라. 아 그러니까 거기가 다 물리기 시작헌 거라.(물발이 세어서 조금 때만 가면 잠수들 하는 데인데 여기서 배 타서 가서 거기 쳐왔기는 하기도 했는데 칠십년도부터 아, 칠십사년도부터는 소라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니까 거기가 다 물리기 시작한 거야.)

101006 @ 아.(아.)

101006 #1 아, 그러니까 그 동넷 사름들이 우리 바당에 오느냐. 오, 어떻 흥연 느네 바당이나. 거 옛날 공동바당 옛날 켜 육지 사름덜토, 궂이 사름덜[싸름덜]토 완에 이 너른지 왕 잡아 가랏수다. 또 이제 반대 바당이엔 헤기네 저 토끼섬<sup>59)</sup>, 하도 앞이 토끼섬.(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름들이 우리 바다에 오느냐. 오, 어떻게 해서 너네 바다냐. 거 옛날 공동바다 옛날 저 육지 사름들도, 제주에 사름들도 와서 이 ‘너른지’ 와서 잡아 갔습시다. 또 이제 반대 바다라고 해서 저 ‘토끼섬’, ‘하도’ 앞에 ‘토끼섬’.)

101006 @ 예.(예.)

101006 #1 거기 완도 우리도 우리 여기 사름도 간 물때 죽으면은 조금 때면 거기 간 소라도 잡아 와랏수다게. 게 그렇게 헛는 아 칠십스년도부터는 어장분쟁이 생겨갖고 나도 그때 부락장이라서 여기.(거기 와서도 우리도 우리 여기 사름도 가서 물때 작으면 조금 때면 거기 가서 소라도 잡아왔습시다. 그럼 그렇게 했는데 아 칠십사년도부터는 어장분쟁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때 부락장이어서 여기.)

101006 @ 아.(아.)

101006 #1 흥 겨울 내냥 서울 저기 시에서만 살앗수다. 이제, 저 검찰청하고 검찰에 고발웨연에 그때, 저 칠십삼스년도에 지금 삼년도 아 삼년도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헛구나, 삼 년도 저 삼 월 들부터, 지금 생기기 시작헤여네 스월 칠십 사 년도 만에 해결웨연 흥 칠십 오 년도 육년도까지 그 분쟁이 가다가 지금은 어장을 또 이젠 획을 지어 낫어요, 획을.(한 겨울 내내 서울 저기 ‘시’에서만 살았습시다. 이제, 저 검찰청하고 검찰에 고발되어서 그때, 저 칠십삼사년도에 지금 삼년도 아 삼년도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헛구나, 삼 년도 저 삼 월 달부터, 지금 생기기 시작해서 사월 칠십사년도 만에 해결되어서 한 칠십오년도 육년도까지 그 분쟁이 가다가 지금은 어장을 또 이젠 획을 지었어요, 획을.)

101006 @ 예.(예.)

101006 #1 획을 지어난 후에 그레도 막 지네끼리 싸웁다 지네덜이 싸웁다가 이제는

59) ‘토끼섬’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소재한 섬이다.



저 고정돼어 부렸어요 이제는 완전히.(획을 지어낸 후에 그래도 막 자기끼리 싸우다 자기들이 싸우다가 이제는 저 고정돼 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101006 @ 이제는데요. 여기에서 우미예.(이제는데요. 여기에서 우뭇가사리요.)

101006 #1 예.(예.)

101006 @ 우미 막 올 때는 그것도 저기.(우뭇가사리 막 올 때는 그것도 저기.)

101006 #1 우뭇 바당도.(우뭇가사리 바다도.)

101006 @ 우뭇 바당도 접해근에.(우뭇가사리 바다도 계해서.)

101006 #1 옛날에는 공동으로 허다가.(옛날에는 공동으로 하다가.)

101006 @ 예.(예.)

101006 #1 그 돈 값 안 가고 혈 떡엔 허다가, 이제는 저 그때 나는 저 바당으로 고정됨 시작하니까 우미 바당도 자기만이 고정되기 시작해 붙었어.(그 돈 값 안 가고 할 적엔 하다가, 이제는 저 그때 나는 저 바다로 고정되기 시작하니까 우뭇가사리 바다도 자기만큼 고정되기 시작해 버렸어.)

101006 @ 자기만씩.(자기만큼씩.)

101006 #1 예.(예.)

101006 @ 것도 어촌계로만 허는 게 아니라 것도.(것도 어촌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것도.)

101006 #1 동네.(동네.)

101006 @ 그 동네로 허는 거예.(그 동네로 하는 거요.)

101006 #1 예. 동네로 해서 저 동네로 부락장이 권한이 이 물질 실 때는 부락장이.(예. 동네로 해서 저 동네로 부락장이 권한이 이 물질 있을 때는 부락장이.)

101006 @ 예.(예.)

101006 #1 부락장덜이 다 지휘를 허고.(부락장들이 다 지휘를 하고.)

101006 @ 으.(으.)

101006 #1 줌수회장하고 또 협의 해갖고.(잠수회장하고 또 협의 해가지고.)

101006 @ 계민 여기 소섬은 동네로 다.(그러면 여기 우도는 동네로 다.)

101006 #1 동네로 어장이 형성돼어서 지금 이.(동네로 어장이 형성돼어서 지금 이.)

101006 @ 어장이.(어장이.)

101007 @ 이 마을예. 풍습예.(이 마을요 풍습요.)

101007 #1 예.(예.)

101007 @ 우리 저 우도 마을풍습, 옛날에는 칠십년 대는 잔치허젠 해도 썸 동네서 썸 동네 가젠 허문 가마타고 말 타고 행.(우리 저 우도 마을풍습, 옛날에는 칠십년 대는 잔치하려고 해도 저 동네서 저 동네 가려고하면 가마타고 말 타고 해서.)

101007 #1 예.(예.)

101007 @ 갓텐 허멍.(갓다고 하면서.)

101007 #1 예.(예.)

101007 @ 저기 해나신디 마을 이기 저기 차가 엇이난예.(저기 했었는데 마을 이 데

저기 차가 없으니까요.)

101007 #1 예. 나도 육십년 육십년도에 결혼했는데.(예. 나도 육십년 육십년도에 결혼했는데.)

101007 @ 예.(예.)

101007 #1 나 결혼할 때도 할망하고 저 비양동서 결혼해서 했는데 나도 뭇 탕 장게 가났어. 그때 그치록.(나 결혼할 때도 할머니하고 저 ‘비양동’서 결혼해서 했는데 나도 말 타서 장가갔었어. 그때 그처럼.)

101007 @ 예. 뭇 타긴에 영 가리곡예. 가마꾼헤기네 가마행 오고.(예. 말 타서 이렇게 가리고요. 가마꾼해서 가마해서 오고.)

101007 #1 예. 혼 칠십칠십년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예. 한 칠십칠십년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101007 @ 예.(예.)

101007 #1 가마타고 시집가고 해났어. 그때 칠십년대까지만 흐드라도 그 후로는 엇어 지기 시작했어.(가마타고 시집가고 했었어. 그때 칠십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후로는 엇어지기 시작했어.)

101007 @ 예. 게민 그때 가마 탈 때는 웨딩드레스 입었수과? 한복 입었수과?(예. 그러면 그때 가마 탈 때는 웨딩드레스 입었습니까? 한복 입었습니까?)

101007 #1 한복 입었주게.(한복 입었지.)

101007 @ 한복 입어수과?(한복 입었습니까?)

101007 #1 예. 가마타기 시작하기에는.(예. 가마타기 시작하기에는.)

101007 @ 가마타기 시작할 때는.(가마타기 시작할 때는.)

101007 #1 여기는 신식 결혼식장이 엇어서.(여기는 신식 결혼식장이 엇어서.)

101007 @ 게난.(그러니까.)

101007 #1 막 머흔 사람은 기자 신식 이녁 집이서, 가건물 만들어기네.(막 뒀한 사람은 그저 신식 이녁 집에서, 가건물 만들어서.)

101007 @ 예.(예.)

101007 #1 신식허는 데 거 한두 집이 해났고 불편하니까 허지도 안허고, 보통 이제는 시에 강 하영 헤 와버려, 이젠.(신식하는 데 거 한두 집이 했었고 불편하니까 하지도 않고, 보통 이제는 제주시에 가서 많이 헤 와버려, 이젠.)

101007 @ 예. 지금은 시에 왕 결혼식 헤 불곡예.(예. 지금은 제주시에 와서 결혼식 해버리고요.)

101007 #1 응, 시에 강 시에 시에.(응, 제주시에 가서 제주시에 제주시에.)

101007 @ 그때는 가마 탕 올 때는 마당에서.(그때는 가마 타서 올 때는 마당에서.)

101007 #1 마당이서.(마당에서.)

101007 @ 결혼식은 어떻 해신고예? 옛날예.(결혼식은 어떻게 했는가요? 옛날예.)

101007 #1 옛날예? 옛날 결혼식은?(옛날예? 옛날 결혼식은?)

101007 @ 예. 삼촌네 결혼식 헐 때.(예. 삼촌네 결혼식 할 때.)

101007 #1 사모관데 씨곡 여자들은 다 족두리 씨곡.(사모관데 쓰고 여자들은 다 족두리 쓰고.)

101007 @ 예.(예.)

101007 #1 경 해근에 신랑이 이제 저 물 타근에 저 신부 집이 강 그디 강 상 받곡 해여근에 이젠 또 사돈덜안티 이젠 상 받곡 해근에 이젠 저 우시로 간 사름은.(그렇게 해서 신랑이 이제 저 말 타서 저 신부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상 받고 해서 이젠 또 사돈들한테 이젠 상 받고 해서 이젠 저 위요로 간 사름은.)

101007 @ 예.(예.)

101007 #1 거 사돈 사돈덜안티 인사허곡 이제 우리가 데령 감수텐.(거 사돈 사돈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우리가 데려서 가고 있습니다고.)

101007 @ 예.(예.)

101007 #1 인사허곡 해여근에 이젠 여기 오면 이제 올 뻐이는 또 예, 저 신랑이 춤 신랑 집이 갈 적에는 옛날에는 느람지 저레 폐와근에 느람지 우로 이제 저 영 흐면은 혼 발 저 우시가 저 중방 산 사름이.(인사하고 해서 이젠 여기 오면 이제 올 적에는 또 예, 저 신랑이 참 신랑 집에 갈 적에는 옛날에는 이영 저리로 퍼서 이영위로 이제 저 이렇게 하면은 한 발 저 위요가 저 중방 선 사름이.)

101007 @ 예.(예.)

101007 #1 중방이엔 흐주 그 안네 자주.(중방이라고 하지 그 안에 자주.)

101007 @ 예.(예.)

101007 #1 영흐민 혼 발 놓곡 허민 혼 발 놓곡 흐명 이젠 이까지 와근에 여기 왕 딱시 이젠 예장.(이렇게 하면 한 발 놓고 하면 한 발 놓고 하면서 이젠 이까지 와서 여기 와서 다시 이젠 예장.)

101007 @ 예.(예.)

101007 #1 예장을 다 씨영 검토를 한다고.(예장을 다 써서 검토를 한다고.)

101007 @ 예.(예.)

101007 #1 예장을 검토허영 합격이 되면 이젠 들어오렌 흐민 들어 왕 상 받곡 해근에 흐민 상 끝나민 이젠 우시 텐 사름은 또 저 신부덜 친척덜 거기다 인사 이제 사돈대우60).(예장을 검토해서 합격이 되면 이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서 상 받고 해서 하면 상 끝나면 이젠 위요 된 사름은 또 저 신부들 친척들 거기다 인사 이제 ‘사돈대우’.)

105015 @ 예.(예.)

101007 #1 인사 해두곡 해근에 신부 데려아장 신부 집이 가근에, 저 신랑집이 와근에 이젠.(인사 해두고 해서 신부 데려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저 신랑 집에 와서 이젠.)

101007 @ 예.(예.)

101007 #1 신부가 이젠 상 받으민 아이고, 저 신랑 신부 어떻 와신고, 와근에 막 동네 이 사름덜 와근에 막 이제 밥 먹는 거 봐 가민.(신부가 이젠 상 받으면 아이고, 저

60) ‘사돈대우’는 ‘사돈잔치’, ‘사돈열맹’이라하며 결혼식에서 양가 사돈끼리 인사를 하며 예를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신랑 신부 어떻게 왔는가, 와서 막 동네 이 사람들 와서 막 이제 밥 먹는 거 봐 가면.)

101007 @ 예.(예.)

101007 #1 신부는 미안해근에 밥도 안 먹곡 이제.(신부는 미안해서 밥도 안 먹고 이제.)

101007 @ 예.(예.)

101007 #1 ㄴ만이 앓기만 허면 이제 그디 앓은 그 신부연 ㄴ찌 앓은 사름이 대반.(가만히 앓기만 하면 이제 거기 앓은 그 신부하고 같이 앓은 사름이 대반.)

101007 @ 예.(예.)

101007 #1 대반 앓은 사름이 신부안터레 영허라 정허라.(대반 앓은 사름이 신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01007 @ 예. ㄴ르켜 주기도 허멍.(예.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101007 #1 시켜주기도 흥곡 춤.(시켜주기도 하고 참.)

101007 @ 예.(예.)

101007 #1 이렇게 해기네 또 시 식 끝나면 이젠 집안사름덜 옷.(이렇게 해서 또 시 식 끝나면 이젠 집안사람들 옷.)

101007 @ 예.(예.)

101007 #1 옷 ㄴ뜬 것덜 이제 신부안티 선사를 허거든.(옷 같은 것들 이제 신부한테 선사를 하거든.)

101007 @ 예. 신부안티 선사를 헐예.(예. 신부한테 선사를 해서요.)

101007 #1 이거 누가 해준 옷이여. 이건 씨어멍이 해준 옷이여 아이면은 씨누이가 해준 옷이여 씨할망이 해준 옷이여 해근에 다 이제 이렇게 흥곡 지금은 돈으로 주지아녀 돈으로 이.(이거 누가 해준 옷이다. 이건 시어머니가 해준 옷이다 아니면 시누이가 해준 옷이다 시할머니가 해준 옷이다 해서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은 돈으로 주지 않아 돈으로 이.)

101007 @ 예.(예.)

101007 #1 지금은 돈으로 주는데 그때는 옷으로 전부다 신부안티 선물흥고 이렇게.(지금은 돈으로 주는데 그때는 옷으로 전부다 신부한테 선물하고 이렇게.)

101007 @ 으, 그 추룩해영 저녁에.(으, 그 그렇게 해서 저녁에.)

101007 #1 저녁 뎌 ㅌ시 이젠 똬면은 이젠 또 파티주 이제 ㄴ뜨면.(저녁 뎌 다시 이젠 똬면 이젠 또 파티지 이제 같으면.)

101007 @ 예. 지금 ㄴ뜨면 파티주.(예. 지금 같으면 파티지.)

101007 #1 해영 이젠 동네 청년들 다 모여근에 이젠 술덜 먹꼬 이젠 그 동네 저 사름 저 좀 머헌 사름 사훼 봐근에 다 돌아가멍 노래도 부르고 경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흥고 신부흥곡 불르게 흥여.(해서 이젠 동네 청년들 다 모여서 이제는 술들 먹고 이제는 그 동네 저 사름 저 좀 똬한 사름 사훼 봐서 다 돌아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랑하고 신부하고 부르게 해.)

101007 @ 예.(예.)

101007 #1 거민 이젠 저 신부가 안 부르거나 신랑이 안 부르면은, 이제는 신부 안 부르면은 이젠 신랑 막 돌아메여.(그러면 이제는 저 신부가 안 부르거나 신랑이 안 부르면, 이젠 신부 안 부르면 이제는 신랑 마구 달아매.)

101007 @ 예.(예.)

101007 #1 이젠 신부 저 노래 부를 때까지, 돌아메여근에 뭐 발창 때리곡 뭐하곡 이렇게 해놔는데 거민 신부가 아니 부를 것도 이젠 불러야 돼여 이젠.(이젠 신부 저 노래 부를 때까지, 달아매어서 뭐 발바닥 때리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부가 안 부를 것도 이제는 불러야 돼 이제는.)

101007 @ 예.(예.)

101007 #1 부르멍 이렇게 행 또 끝나면 또시 이젠 어떻게 험신곤 밤이 강 여 사근에 창가망 뽐라근에.(부르면서 이렇게 해서 또 끝나면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 밤에 가서 야수어서 창구멍 뚫어서.)

101007 @ 고망 뽐라근네.(고망 뚫어서.)

101007 #1 어떻게 험신딘 다 보곡.(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101007 @ 예.(예.)

101007 #1 심지어는 저 오 장방 옷 이불 꺾은 거 앓아다근에 저 마당더레 앓아당 텃겨두곡 들앙 가불곡 그런 장난까지 허멍 우리.(심지어는 저 오 장방 옷 이불 같은 거 가져다가 저 마당으로 가져다가 던져버리고 데려서 가버리고 그런 장난까지 하면서 우리.)

101007 @ 아.(아.)

101007 #1 아이고.(아이고.)

101007 @ 신랑 신부 저 줌자는디 강 이불을 그냥 슬쩍허게 뺏어다근에.(신랑 신부 저 잠자는데 가서 이불을 그냥 슬쩍하게 빼앗아다가.)

101007 #1 경 우리 영 친구 혼 사름은 하도 지금 그땐 군인 간덴 허난에, 군인 간덴 영장 받으난에 저 여름이주만은 영장 받으난 결혼 행 가젠 결혼 허는디 저 신랑 아방이 밤세낭 앓앙 지켜서.(그렇게 우리 이렇게 친구 한 사름은 하도 지금 그땐 군인 간다고 하니까, 군인 간다고 영장 받으니까 저 여름이지만은 영장 받으니까 결혼해서 가려고 결혼하는데 저 신랑 아버지가 밤새워서 앉아서 지켜서.)

101007 @ 예.(예.)

101007 #1 하도 신부신디 강으네게 막 저 방이.(하도 신부한테 가서 마구 저 방에.)

101007 @ 장난치카부덴.(장난칠까보다고.)

101007 #1 둘이가 자는디 강으네 오 장난 해부니까 경 허멍 이제 해난 적도 잇는디. 지금은 그런 일이 었지 이젠.(둘이가 자는데 강가서 오 장난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적도 잇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 이젠.)

101007 @ 예. 이 동네가 다 친구도 벗이곡 허니까는예.(예. 이 동네가 다 친구도 벗이고 하니까는요.)

101007 #1 예.(예.)

101007 @ 경하곡 결혼식은 경 허는디 이제 장례풍습은 어떻 헤신고마씨 그 옛날에.

(그렇게 하고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장례풍습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 옛날에.)

101007 #1 장례는 여기서 그자 사름은 죽으면.(장례는 여기야 그저 사름은 죽으면.)

101007 @ 예.(예.)

101007 #1 이제 집안에서 날 택일을 뵙 오주게.(이제 집안에서 날 택일을 봐서 오지.)

101007 @ 예.(예.)

101007 #1 아 게민 택일을, 강 봐오면은 택일이 잘 나면은 혼 삼일도 걸리곡, 저 혼 사일도 걸리곡 일주일도 허는디, 보통 스일장은 아너허, 죽을 팔자 들어왔젠 허영.(아 그러면 택일을, 가서 봐오면 택일이 잘 나면은 한 삼일도 걸리고, 저 한 사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하는데, 보통 사일 장은 안 해, 죽을 팔자 들어왔다고 해서.)

101007 @ 예.(예.)

101007 #1 삼일장이나 오일장이나 칠일장이나 영 행 그자, 그 풍수안티 들었으네 날 을 보기시작, 저 날 자를 보아근에 장례를 치렀는디, 나 나 모친 돌아갈 땐에는 나도 좀 이 동네 나보다 좀 유식한 분이 잇엇는디 그분이 좀 계획적이랴어. 이 저 뭇 볼 중 알 명도, 육갑은 쪼으곡 딱시 풍수도 쫓끔씩 알안, 그 분이 와서도 나신디 오랑 그르치명 놀명 이 사람아 그거 옛 돌아가는 시덴 무신 필요가 이신고.(삼일장이나 오일장이나 칠 일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저, 그 풍수한테 들어서 날을 보기시작, 저 날 자를 보아서 장 례를 치렀는데, 나 나 모친 돌아갈 적에는 나도 좀 이 동네 나보다 좀 유식한 분이 있 었는데 그분이 좀 계획적이었어. 이 저 뭇 볼 중 알면서도, 육갑은 지프고 다시 풍수도 조끔씩 알아서, 그 분이 왔어도 나한테 와서 가르치면서 놀면서 이 사람아 그거 옛 돌 아가는 시덴 무신 필요가 있는가.)

101007 @ 음.(음.)

101007 #1 거 필요 엇느니 경허명 이젠 난 저 우리 누님이 와근에 오늘 좋은 날이나 곳인 날이나 장 돛아 드렌 해도, 장 담으켄 오늘 곳인 날이나 좋은 날이나 영 물어도 난 좋은 날이엔 험수덴, 왜냐허민 저 육갑 안 지편 그자 좋은 날이엔 거짓말 허미엔, 아 장 공장이서 맨 날 장 담으난 어떻 험신가, 그 어른이 나신디 그런 이야기허명 해낫수 다게.(거 필요 없느니 그렇게 하면서 이젠 난 저 우리 누님이 와서 오늘 좋은 날이나 곳 은 날이나 장 담가 달라고 해도, 장 담그겠다고 오늘 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이렇게 물어도 난 좋은 날이라고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저 육갑 안 지퍼서 그저 좋은 날이라 고 거짓말 하면은, 아 장 공장에서 맨 날 장 담그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어른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101007 @ 예.(예.)

101007 #1 경허고 나 모친이 돌아간 후에는 돌아간 날 나 삼일장 원칙으로 험 삼일 장 나 봐낫어.(그렇게 하고 내 모친이 돌아간 후에는 돌아간 날 나 삼일장 원칙으로 해 서 삼일장 내 봤어.)

101007 @ 예.(예.)

101007 #1 겐데 게 여기는 삼일장 경 허는디도, 으 혼 몇 년 전만해도 택일을 고집허 게 보는 사름들이 있어. 게민 택일 보레 가민 그 풍수가, 아 어느 상제가 걸려부니까 이

건 몇 칠 날 날짜 이 해야 돼겠다. 또 사람이 땅속에 묻을 때 하관 할 때 이런 상준 보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해근에 그때 안 보는, 상주들도 있어났다고.(그런데 그럼 여기는 삼일장 그렇게 하는데도, 요 한 몇 년 전만해도 택일을 고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택일 보러 가면 그 풍수가, 아 어느 상제가 걸려버리니까 이건 몇 칠 날 날짜 이 해야 되겠다. 또 사람이 땅속에 묻을 때 하관 할 때 이런 상주는 보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해서 그때 안 보는, 상주들도 있었다고.)

101007 @ 예.(예.)

101007 #1 경 헌디 에 그 풍수 말 들어근에 삼일장도 걸리곡 오일장도 걸리곡 하면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곡.(그렇게 한테 에 그 풍수 말 들어서 삼일장도 걸리고 오일장도 걸리고 하면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101007 @ 경비도 많이 들어가곡.(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101007 #1 또 불편도 헛곡.(또 불편도 하고.)

101007 @ 예. 그 옛날에는 영장 혼 번 나젠 허면은 물 길어야 되는 거예.(예. 그 옛날에는 영장 한 번 나려고 하면 물 길어야 되는 거요.)

101007 #1 물?(물?)

101007 @ 물.(물.)

101007 #1 으.(으.)

101007 @ 여기 수도가 엇일 때는 물 해야 되고.(여기 수도가 없을 때는 물 해야 되고.)

101007 #1 아, 물은 또 이제 물은.(아, 물은 또 이제 물은.)

101007 @ 불 때는 것들 해야 되고 돼지 같은 것도.(불 때는 것들 해야 되고 돼지 같은 것도.)

101007 #1 아 게난 돼지도 옛날에는 여기 그 고○○이엔 헨 사름이 양돈허기 전에는 궂<sup>61</sup>)에 강 돼지를 강 사와나서.(아 그러니까 돼지도 옛날에는 여기 그 고○○이라고 한 사람이 양돈하기 전에는 제주에 가서 돼지를 가서 사왔어.)

101007 @ 예예.(예예.)

101007 #1 경 해다가 고○○이엔 헨 사름이 돼지를 많이 잡아네 여기서 보급하게웨니까 여기서 그 사름안티 강 저 사다근에, 잡기 시작했는데 나도 우리 큰아덜 팔 땐 그 사름 시작 안 할 때라 부난. 저 하도 가네 으둑 므리 도세기 사다근에 잡아나서.(그렇게 해다가 고○○이라고 한 사람이 돼지를 많이 잡아서 여기서 보급하게 되니까 여기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다가, 잡기 시작했는데 나도 우리 큰아들 팔 땐 그 사람 시작 안 할 때여 버리니까. 저 하도 가서 여덟 마리 돼지 사다가 잡았어.)

101007 @ 아.(아.)

101007 #1 저 구십이 년도에.(저 구십이 년도에.)

101007 @ 예.(예.)

101007 #1 겐디 그 사름이 게업흔지는 구십 한 오 혼 삼 년도인가 스 년도인가 게업

61) '궂'은 여기서 제주 본섬을 말한다.

헌난 그 사람이 돼지를 보급헌난에 그때부턴 큰섬이<sup>62)</sup> 간 안사와도 돼서.(그런데 그 사람이 개업한지는 구십 한 오 한 삼 년도인가 사 년도인가 개업하니까 그 사람이 돼지를 보급하니까 그때부터는 ‘큰섬’에 가서 안사와도 됐어.)

101007 @ 아.(아.)

101007 #1 돼고 또 영장 쫓나면은 보통 영장 혼 번 치루젠 혼면은 도세기 머 춤 다섯 마리까지도 죽어야 돼어. 잡아야 돼어.(되고 또 영장 끝나면 보통 영장 한 번 치르려고 하면은 돼지 뭐 참 다섯 마리까지도 죽어야 돼. 잡아야 돼.)

101007 @ 예.(예.)

101007 #1 거 그 동안 영장 흠 동안에, 먹젠 혼민 혼루에 혼 마리 먹거든 보통 지금.(거 그 동안 영장 하는 동안에, 먹으려고 하면 하루에 한 마리 먹거든 보통 지금.)

101007 @ 예.(예.)

101007 #1 경 닻새 걸리면 다솥 마리 먹어야 돼어 지금 이제.(그렇게 닻새 걸리면 다섯 마리 먹어야 돼 지금 이제.)

101007 @ 예.(예.)

101007 #1 잔치도 또 여기서 일주일치 걸려나서 잔치도 이제.(잔치도 또 여기서 일주일치 걸렸어 잔치도 이제.)

101007 @ 예. 가문잔치 전에.(예. ‘가문잔치’ 전에.)

101007 #1 가문잔치<sup>63)</sup>로 시작 해영 잡는 날 혼 잔치 본 결혼식 날 혼 이틀 앞서부터, 잡기 시작혼면은 또 잔치 쫓나도 혼 이틀까지지는 또 가 지금.(‘가문잔치’로 시작해서 잡는 날 한 잔치 본 결혼식 날 한 이틀 앞서부터, 잡기 시작하면은 또 잔치 끝나도 한 이틀까지지는 또 가 지금.)

101007 @ 예.(예.)

1010715 #1 경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영 혼멍 혼는디, 이제 그 영장은 머 집안에 형편에 돌아근에 지금 이제 오래 걸리는데도 잇곡 좀 늦게 혼는디도 잇는디 보통 그 자 삼스 일은 걸려야 돼어.(그렇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 영장은 뭐 집안에 형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오래 걸리는데도 있고 좀 늦게 하는데도 잇는데 보통 그저 삼사 일은 걸려야 돼.)

101007 @ 영장은예. 삼사 일예.(영장은요 삼사 일요.)

101007 #1 영장은 경 해어.(영장은 그렇게 해.)

101007 @ 물품 같은 경우는 장례식 헐 때 물품은 준비헻당 뇌근에 해신가예.(물품 같은 경우는 장례식 할 때 물품은 준비했다가 뇌서 했는가요.)

2101007 #1 경 혼주게 이제.(경 혼주게 이제.)

101007 @ 예. 장례식 혼고 마을에 만약에 경사가 낫다.(예. 장례식하고 마을에 만약에 경사가 낫다.)

101007 #1 응.(응.)

62) ‘큰 섬’은 제주도 본섬을 말한다.

63)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이 잔칫집에 모여서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말한다.



101007 @ 예. 경 허면은 마을잔치를 옛날에도 해실 거 닻아예. 무슨 경사라도 경사를 닻다 허면은, 저기 결혼식하고 장례식 때는 말고.(예. 그렇게 하면 마을잔치를 옛날에도 했을 거 같아요. 무슨 경사라도 경사를 닻다 하면은, 저기 결혼식하고 장례식 때는 말고.)

101007 #1 예.(예.)

101007 @ 무슨 경사 나가지고 그 집에서 그때는 마을에서 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큰.(무슨 경사 나가지고 그 집에서 그때는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큰.)

101007 #1 거 집이서 뭐 환갑잔치나, 환갑잔치 허는 사람도 몇 엇어. 조용히 집에서 막치지 동네사람들[동네싸름덜] 다 오랜 해기네 환갑잔치 허는 사람도 엇고, 또 뭐 칠순도 으세는 저 시에 가근에 저 전부터 호텔로 강 흐든지 식당으로 가근에 흐든지 경 흐는 거.(거 집에서 뭐 환갑잔치나,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몇 없어. 조용히 집에서 막치지 동네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칠순도 요새는 저 ‘시’에 가서 저 전부터 호텔로 가서 하던지 식당으로 가서 하던지 그렇게 하는 거.)

101007 @ 응.(응.)

101007 #1 칠순 흐 사람은 그 다음 팔순 팔순도 크게 흐는 사람 엇어 식구덜끼리만 그자 저 시에 가근에 머흐곡.(칠순 한 사람은 그 다음 팔순 팔순도 크게 하는 사람 없어 식구들끼리만 그저 저 ‘시’에 가서 뭐하고.)

101007 @ 혹시 그 옛날에 특별나게 잔치나 결혼식해서 기억난 건 엇수과? 결혼식 아니라도.(혹시 그 옛날에 특별나게 잔치나 결혼식해서 기억난 건 없습니까? 결혼식 아니라도.)

101007 #1 동네에서 크게 잔치 벌이멍 현 기억은 배랑 엇어.(동네에서 크게 잔치 벌이면서 한 기억은 별로 없어.)

101007 @ 그러면은 정월월에.(그러면은 정월달에.)

101007 #1 으.(으.)

101007 @ 정월달에 마을 그 청년이 하영이실 때 왜정시대라도예.(정월달에 마을 그 청년이 많이 있을 때 일제강점기라도요.)

101007 #1 예.(예.)

101007 @ 거 뭐 즐겁게 놀아났거나.(거 뭐 즐겁게 놀았거나.)

101007 #1 그때는 육십 년도로부터 흐 칠십 년도까지는 흐 십년 동안은.(그때는 육십 년도로부터 한 칠십 년도까지는 한 십년 동안은.)

101007 @ 예.(예.)

101007 #1 동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망년회라고 해서 으.(동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망년회라고 해서 어.)

101007 @ 아.(아.)

101007 #1 저 음력 시 월들 돼면은 춤 저, 동네청년들이 우동 그든 걸 해서 동넛 어른덜 읍센 해근에 흐 그릇씩 대접하고 영 해났어.(저 음력 시월 되면 참 저, 동네청년들이 우동 같은 걸 해서 동네에 어른들 오시라고 해서 한 그릇씩 대접하고 이렇게 했어.)

101007 @ 아.(아.)

101007 #1 헛는데 이제는 동네 청년들이 엇이니까 그런 청년조직이 엇어.(했는데 이제는 동네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청년조직이 엇어.)

101007 @ 아, 그때 조직이 이실 때예.(아, 그때 조직이 있을 때요.)

101007 #1 해서 또 동네 청년 그거 먹으면 또 고마운 사람은 동네 청년회 기부를 허렌 얼마 회사도 하고 이렇게 해놔는디 여기서는 이제 짝끔 머 허는 건 리 데향 체육대회를 할 때.(해서 또 동네 청년 그거 먹으면 또 고마운 사람은 동네 청년회 기부를 하라고 얼마 회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뭐 하는 건 이 데향 체육대회를 할 때.)

101007 @ 예.(예.)

101007 #1 그 땐 좀 우승이나 흥곡 허면은, 또 이자 그 리사무실에 모여근에 노래도 불르곡 그자 축하도 흥곡 그런 것벳기 엇지.(그 땐 좀 우승이나 하고 하면은, 또 이 저 그 리사무실에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그자 축하도 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101007 @ 예. 지금은예.(예. 지금은요.)

101007 #1 그런 거만 가끔 있고 그 웨로는 동네잔치는 엇어 이젠.(그런 거만 가끔 있고 그 외로는 동네잔치는 엇어 이젠.)

101007 @ 예.(예.)

101008 @ 이 마을에 특산물이엔 해서예. 저 지금 현재는 땅콩.(이 마을에 특산물이라고 했어요. 저 지금 현재는 땅콩.)

101008 #1 예.(예.)

101008 @ 그리고 마늘.(그리고 마늘.)

101008 #1 마늘.(마늘.)

101008 @ 마늘예.(마늘요.)

101008 #1 쪽파.(쪽파.)

101008 @ 쪽파예.(쪽파요.)

105015 #1 특산물로.(특산물로.)

105015 @ 예. 그렇게 잡안예.(예. 그렇게 잡아서요.)

101008 #1 그전에 이십 년 전에는 고구마.(그전에 이십 년 전에는 고구마.)

101008 #1 어, 고구마.(어, 고구마.)

101008 @ 고구마를 헛덴 허고.(고구마를 했다고 하고.)

101008 #1 아주 옛날에는 조허고 보리만 순 걸로 허다가.(아주 옛날에는 조하고 보리만 순 걸로 했다가.)

101008 @ 예.(예.)

101008 #1 그 후에 좀 어떻게 고구마를 갈기 시작헌 후로는 짝끔 경제가 짝끔 저 먹는 것이 좀 쉬와지다가.(그 후에 좀 어떻게 고구마를 갈기 시작한 후로는 조금 경제가 조금 저 먹는 것이 좀 쉬워지다가.)

101008 @ 예.(예.)

101008 #1 또 고구마를 많이 허면서 이젠 그 절간고구마.(또 고구마를 많이 허면서 이젠 그 절간고구마.)

101008 @ 예. 절간 행.(예. 절간해서.)

101008 #1 절간고구마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을 풀아서.(절간고구마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을 풀아서.)

101008 @ 예.(예.)

101008 #1 이제는 좁쌀 쌀을 받아먹기 시작해서.(이제는 좁쌀 쌀을 받아먹기 시작해서.)

101008 @ 예예.(예예.)

101008 #1 여기 저 쌀 풀아먹기 시작흔지가 고구마를 갈아서 절간을 만들어서 쌀 풀아먹기 시작흔지가 조를 안 갈아서.(여기 저 쌀 풀아먹기 시작한지가 고구마를 갈아서 절간을 만들어서 쌀 풀아먹기 시작한 때가 조를 안 갈아서.)

101008 @ 예.(예.)

101008 #1 조허고 보리만 주 농으로 허다가, 고구마 절간고구마 팔면서 쌀 풀아 먹은 지가 한 팔십 한.(조하고 보리만 주 농으로 하다가, 고구마 절간고구마 팔면서 쌀 팔아 먹은 지가 한 팔십 한.)

101008 @ 예.(예.)

101008 #1 오 년쯤에부터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풀아먹기 시작했어. 그 전엔 순 조허고 보리쌀을 먹기 시작해서.(오 년쯤에부터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풀아먹기 시작했어. 그 전엔 순 조하고 보리쌀을 먹기 시작해서.)

101008 @ 조허고 보리만 허단예. 그리고 이제 해산물로는, 이건 농산물인데 해산물로는 제일 한 게, 그 유명한 게 넙메역이엔 한.(조하고 보리만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해산물로는, 이건 농산물인데 해산물로는 제일 많은 것이, 그 유명한 것이 넙미역이라고 한.)

101008 #1 넙메역<sup>64)</sup> 한 건.(넙미역 한 것은.)

101008 @ 예.(예.)

101008 #1 에 칠십 년도 ㄱ지만 넙메역 건것서.(에 칠십 년도 까지만 넙미역 건졌어.)

101008 @ 게 넙메역을.(그럼 넙미역을.)

101008 #1 겐디 웨 넙메역을 안 건것느냐.(그런데 왜 넙미역을 안 건졌느냐.)

101008 @ 예.(예.)

101008 #1 육지에 양식미역이 나왔거든.(육지에 양식미역이 나왔거든.)

101008 @ 예. 게난 그.(예. 그러니까 그.)

101008 #1 그때는 여기서 넙메역을 허면은 저 군납으로도 나가곡 이.(그때는 여기서 넙미역을 하면은 저 군납으로도 나가고 이.)

101008 @ 어.(어.)

101008 #1 값을 잘 풀아먹었다고.(값을 잘 팔아먹었다고.)

---

64) '넙메역'은 우도가 주산지인 길이가 2~3미터에 이르는 크고 넓은 미역이다.

101008 @ 예.(예.)

101008 #1 허다가 육지에 양식미역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역은 안 사먹는 거라. 이 미역 넓메역을.(하다가 육지에 양식미역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역은 안 사먹는 거야. 이 미역 넓미역을.)

101008 @ 예.(예.)

101008 #1 그래서 미역을 안 건지기 시작하고 또 메역을 건질라면 힘들어.(그래서 미역을 안 건지기 시작하고 또 미역을 건지려면 힘들어.)

101008 @ 게메.(글썸.)

101008 #1 아, 한 십일 네지 십오 일까지 건지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거 막 깔쿠리로 땡길라고 하면.(아, 한 십일 내지 십오 일까지 건지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거 막 갈고리로 당기려고 하면.)

101008 @ 예.(예.)

101008 #1 사름이 반 죽어낸다고.(사람이 반 죽어난다고.)

101008 @ 어.(어.)

101008 #1 풍선에 배 돛단배 해가지고.(풍선에 배 돛단배 해가지고.)

101008 @ 돛단배 해가지고.(돛단배 해가지고.)

101008 #1 으.(오.)

101008 @ 그 물에 들어가근에 해녀.(그 물에 들어가서 해녀.)

101008 #1 아 저 해녀가 아니지.(아 저 해녀가 아니지.)

101008 @ 남자가.(남자가.)

101008 #1 이런 깔쿠릴 만들앙.(이런 갈고릴 만들어서.)

101008 @ 예.(예.)

101008 #1 물속에 너영.(물속에 넣어서.)

101008 @ 예.(예.)

101008 #1 물속에 너영 돛 돛단배로 그 그 그저 브름이 힘으로.(물속에 넣어서 돛 돛단배로 그 그 그저 바람이 힘으로.)

101008 @ 브람에 끌어와기네예.(바람에 끌어와서요.)

101008 #1 으 으, ㄸ스는 거라.(오 오, ㄸ는 거야.)

101008 @ 아.(아.)

101008 #1 ㄸ스면 이제 돌아가지 물속에서.(끌면 이제 돌아가지 물속에서.)

101008 @ 예.(예.)

101008 #1 돌아가면서 이제 미역이 그 깔쿠리에 붙으는 거라. 게민 그걸 땡겨 건져서 이제 메역을 따로 떼어갖고 배에 싣겠고 이젠 집에 와서 그걸 말리는 거라 이제.(돌아가면서 이제 미역이 그 갈고리에 붙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당겨 건져서 이제 미역을 따로 떼어가지고 배에 실어서하고 이젠 집에 와서 그걸 말리는 거야 이제.)

101008 @ 예.(예.)

101008 #1 물려서 이제.(말려서 이제.)

101008 #2 넙메역 연구하는 분들이라?(넙미역 연구하는 분들이야?)

101008 #1 넙메역이 아니고 우도 우도 이제 풍습을 연구하러 온 사람들 제주대학교.  
(넙미역이 아니고 우도 우도 이제 풍습을 연구하러 온 사람들 제주대학교.)

101008 #2 으. 으, 설명 해드려.(으. 으, 설명 해드려.)

101008 @ 경허문예.(그렇게 하면요.)

101008 #1 우리 저 여기 저 리장도 해나곡, 우리 스춘매부예요.(우리 저 여기 저 이  
장도 했고, 우리 사춘매부예요.)

101008 @ 아 그러시구나예.(아 그러시군요.)

101008 #1 잘 알아요.(잘 알아요.)

101008 #2 고생하고 이수다 야튼 우도를 피알 해 주는 데는 우리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지요.(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도를 피알 해주는 데는 우리 상당히 고마움을 느  
끼지요.)

101008 @ 예. 저기 넙미역했던 과정에 대해서 골아줍써. 그 풍션해야 돼고 남자들이  
강 해야돼고.(예. 저기 넙미역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그 풍션해야 되고 남자  
들이 가서 해야 되고.)

101008 #1 남자 풍션.(남자 풍션.)

101008 @ 뗏 사름.(뗏 사름.)

101008 #1 뗏단배 두 개에 보통 네 사람이.(뗏단배 두 개에 보통 네 사람이.)

101008 @ 네 사람이.(네 사람이.)

101008 #1 네 사람이 건져야 돼여.(네 사람이 건져야 돼.)

101008 @ 건져야 되고예.(건져야 되고요.)

101008 #1 예예.(예예.)

101008 @ 그 갈꾸리는 어떤 거엔 험니까?(그 갈고리는 어떤 거라고 합니까?)

101008 #1 갈꾸리는 다 만들야사 돼여.(갈고리는 다 만들어야 돼.)

101008 @ 예. 어떻.(예. 어떻게.)

101008 # 여기는 육지에 저 큰섬에 가면은.(여기는 육지에 저 ‘큰섬’에 가면은.)

101008 @ 예.(예.)

101008 #1 춤남이서 춤남 춤남.(참나무 있어 참나무 참 나무.)

101008 @ 춤남?(참나무?)

101008 #1 예. 참남을 그 비어다가.(예. 참나무를 그 베어다가.)

101008 @ 예.(예.)

101008 #1 걸로 이제 깔코리를 만드는 법이 있어.(걸로 이제 갈고리를 만드는 법이  
있어.)

101008 @ 아, 깔꾸리는 호미?(아, 갈고리는 낫?)

10100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1008 @ 호미로 헤수과? 큰낫으로마씨?(낫으로 했습니까? ‘큰낫’으로요?)

101008 #1 건 여기 깔코리에 뿔이 돋는다고 뿔 뿔 뿔.(건 여기 갈고리에 뿔이 돋는다

고 뿔 뿔 뿔.)

101008 @ 아예.(아예.)

101008 #1 경 뿔이 생겨갖고 뿔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흐는 거라 지금.(그렇게 뿔이 생겨가지고 뿔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101008 @ 예. 그렇게 해가지고예. 경 한 네 네 명 정도 해가지고 그거 갈르는 건 어  
뎡 갈라신고예?(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한 네 네 명 정도 해가지고 그거 가르  
는 건 어떻게 가르는가요?)

101008 #1 그거 이제 말려서 풀민.(그거 이제 말려서 팔면.)

101008 @ 예.(예.)

101008 #1 돈으로 갈르는 거지.(돈으로 가르는 거지.)

101008 @ 돈 저 헛 헛 사름 똑 같지예.(돈 저 한 한 사람 똑 같지요.)

101008 #1 응.(응.)

101008 @ 배 찍시 흐나.(배 깃 하나.)

101008 #1 응 배 목시 흐 목시.(응 배 뭇 한 뭇.)

101008 @ 목시하고.(뭇하고.)

101008 #1 또 흐 사름 목시마다 흐민.(또 한 사람 뭇마다 하면.)

101008 @ 하고.(하고.)

101008 #1 예.(예.)

101008 @ 깔꾸리는 또 누게 잇인 사람.(갈고리는 또 누구 있는 사람.)

101008 #1 깔꾸리는 서로 흐 사름 자기 자기 건 질 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뉘 뉘.  
(갈고리는 서로 한 사람 자기 자기 건 질 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뉘 뉘.)

101008 @ 예.(예.)

101008 #1 경 아녕.(그렇게 얹아서.)

101008 #2 우리도 데게 배를 운항 할여문, 그런 거를 배 선주로써.(우리도 데게 배를  
운항 하려면, 그런 거를 배 선주로써.)

101008 @ 예.(예.)

101008 #2 그 다 준비해 논다고.(그 다 준비해 놓는다고.)

101008 #1 준비해 놓기도 하고.(준비해 놓기도 하고.)

101008 #2 그래서 이제 그 준비가 딱 뉘문 그 선원 즉 말하자문 그런 그 줄.(그래서  
이제 그 준비가 딱 되면 그 선원 즉 말하자면 그런 그 줄.)

101008 @ 예.(예.)

101008 #2 그런 넓메역 줄 넓메역 줄 허는데 그걸 땡기면서 그 깔꾸리 바닷물에 던  
져서 쪽 돛 달아서 끌어 간 걸.(그런 넓미역 줄 넓미역 줄 허는데 그걸 당기면서 그 갈  
고리 바닷물에 던져서 쪽 돛 달아서 끌어 간 걸.)

101008 @ 예.(예.)

101008 #2 올려근에 행 왕 이제 그 해근에 건조 지금 저울로 돌아 또 늘로도 풀주만  
은 저울로 돌아서 저 물건이 어디로 나가냐면 목포 목포.(올려서 해서 와서 이제 그 해

서 건조 지금 저울로 달아 또 날로도 팔지만은 저울로 달아서 저 물건이 어디로 나가냐면 목포 목포.)

101008 @ 예.(예.)

101008 #2 즉 그 쪽으로 많이 나갔어. 데게 우리가 알기로는 군납을 많이 한 거 같애 그때 당시 군데 군인들 그저 국 끓여주곡.(즉 그 쪽으로 많이 나갔어. 데게 우리가 알기로는 군납을 많이 한 거 같아 그때 당시 군데 군인들 그저 국 끓여주고.)

101008 @ 예.(예.)

101008 #1 식용으로 많이 나갔고 어떻 양식미역 때문에 이것이 었어진 거지.(식용으로 많이 나갔고 어떻게 양식미역 때문에 이것이 었어진 거지.)

101008 #2 응.(응.)

101008 #1 양식 메역 아니 나시민 지금까지도 건저실 꺼여요.(양식 미역 아니 냈으면 지금까지도 건졌을 거예요.)

101008 @ 예.(예.)

101008 #1 지금까지도 겐디 양식메역 나오니까 이게 값이 헐 헤지고 어.(지금까지도 그런데 양식미역 나오니까 이게 값이 헐 헤지고 어.)

101008 @ 예.(예.)

101008 #1 힘이 들고 또.(힘이 들고 또.)

101008 #3 호미 어디 싯과 호미 호졸 빌저.(호미 어디 있습니까 호미 조금 빌자.)

101008 #1 호미마썸.(호미요.)

101008 #3 아 이디 저 나난 보난 겐질이 이만 헤신디이, 호미가 앓어 올 겐, 아 이디 저저 저냥 나두난 겐질이 막 잇인게이.(아 이데 저 나니까 보니까 김이 이만 했는데, 호미가 가지고 올 겐, 아 이데 저저 저렇게 놔두니까 김이 막 있네.)

101008 #2 그거 저분은 저 에 옛날 돛단배, 돛단배.(그거 저분은 저 에 옛날 돛단배, 돛단배.)

101008 @ 예.(예.)

101008 #2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게 이 생활이 수준이 짝금 영세하니까 [집안 전화기 울리는 소리.]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허는 겐 생각을 못했다고.(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게 이 생활이 수준이 조금 영세하니까 [집안 전화기 울리는 소리.]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겐 생각을 못했다고.)

101008 @ 예.(예.)

101008 #2 그거를 이제 멧 년 흐다가 예, 이젠 짝금 부유힌 사람들이 짝금 혼 삼 톤 정도 이 저 동력선, 동력선해서 뒤으로 갈퀴를 놔서, 그거는 갈퀴 한 여섯 개쯤 놓지.(그거를 이제 몇 년 하다가 예, 이젠 조금 부유힌 사람들이 조금 한 삼 톤 정도 이 저 동력선, 동력선해서 뒤로 갈고리를 놔서, 그거는 갈고리 한 여섯 개쯤 놓지.)

101008 @ 예.(예.)

101008 #2 그래서 이제 수확을 많이 올리지. 거기에 기관을 해서 발동기로 허니까 만약 이제 그 열 혼<sup>65</sup>을 놓게 돼문, 한 세 혼을 벳 찍을 때 주고.(그래서 이제 수확을 많

이 올리지. 거기에 기관을 해서 발동기로 하니까 만약 이제 그 열 ‘흔’을 놓게 되면, 한 세 ‘흔’을 배 갓을 떼 주고.)

101008 @ 예.(예.)

101008 #2 일곱 흔 가지고 거기 그 종사헌 사름덜[싸름덜] 나누는 거야.(일곱 ‘흔’ 가지고 거기 그 종사헌 사람들 나누는 거야.)

101008 @ 예. 해납디가?(예. 했었습니까?)

101008 #2 어.(어.)

101008 @ 메역 넓메역.(미역 넓미역.)

101008 #2 아 그 그 걸로만 헛주게.(아 그 그 걸로만 했지.)

101008 #1 나 허고 두 살 차이 아넛과게 나허고 두 살 차이랴.(나 하고 두 살 차이 아넛니까 나하고 두 살 차이야.)

101008 @ 아 것과.(아 그렇습니까.)

101008 #2 손이 어떤 땐 부물엉 다 터지고.(손이 어떤 땐 부르터서 다 터지고.)

101008 @ 아.(아.)

101008 #1 계난 흔 칠십.(그러니까 한 칠십.)

101008 #2 으즈금은 그래도 장갑덜또 좋은 것만 많이 나오주만은 그때는 좀.(요즘은 그래도 장갑들도 좋은 것만 많이 나오지만은 그때는 좀.)

101008 #1 장갑이 엇엇주.(장갑이 없었지.)

101008 #2 우리 생활이.(우리 생활이.)

101008 #1 여유가 엇엇주.(여유가 없었지.)

101008 #2 여유가 엇기 때문에 맨 손으로 헛다고.(여유가 없기 때문에 맨 손으로 헛다고.)

101008 #1 칠십 년대 이후에 장갑이 나왔주 그전에 장갑이 잇어서.(칠십 년대 이후에 장갑이 나왔지 그전에 장갑이 있었어.)

101008 @ 예.(예.)

101008 #1 장갑이 엇엇주.(장갑이 없었지.)

101008 @ 아이고.(아이고.)

101008 #1 계난 손이 다 부물고.(그러니까 손이 다 부르트고.)

101008 @ 어느 계절에 헤수과? (어느 계절에 헤수과?)

101008 #1 어.(어.)

101008 @ 이 월에 헤수과.(이 월에 했습니까.)

101008 #1 아니 아니 저 예, 양력 칠월 칠 일 날.(아니 아니 저 예, 양력 칠월 칠 일 날.)

101008 @ 예.(예.)

101008 #1 그때 소서거든 소서.(그때 소서거든 소서.)

101008 @ 예.(예.)

---

65) ‘흔’은 넓미역 한 단을 헤아리는 우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101008 #1 소서 소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조 농사가 끝나야.(소서 소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조 농사가 끝나야.)

101008 @ 예.(예.)

101008 #1 여기는 소서에 이제.(여기는 소서에 이제.)

101008 @ 예.(예.)

101008 #1 게민 뒷날부터 그 후부터는 이제 조 농사 끝나면.(그러면 뒷날부터 그 후부터는 이제 조 농사 끝나면.)

101008 @ 예.(예.)

101008 #1 그 후로부터는 넓메역을 혼 팔월 보통으로 칠월 칠 일부터는 시작을 허면은 에 팔월.(그 후로부터는 넓미역을 한 팔월 보통으로 칠월 칠 일부터는 시작을 하면은 에 팔월.)

101008 @ 예.(예.)

101008 #1 혼 칠월 말 댜면, 끝나지.(한 칠월 말 되면, 끝나지.)

101008 @ 칠월 말 댜면예.(칠월 말 되면요.)

101008 #1 응.(응.)

101008 @ 그러면은 이것도 스무날은[쓰무날은] 보꾼혜신게예.(그러면은 이것도 스무날은 바싹했네요.)

101008 #2 응 보통은 이십 일.(응 보통은 이십 일.)

101008 #1 열흘 네지 스물날[스물날].(열흘 내지 스무날.)

101008 @ 이때는 넓미역 다, 소섬사름덜[소섬싸름덜]은 넓메역.(이때는 넓미역 다, ‘소섬’사람들은 넓미역.)

101008 #1 예. 다 넓메역이주.(예. 다 넓미역이지.)

101008 @ 다 종사했구나예.(다 종사했군요.)

101008 #2 게난 그게 또 배를 혼 또 아버지나 잇인 사름덜은[싸름덜은].(그러니까 그게 또 배를 하는 또 아버지나 있는 사람들은.)

101008 #1 곳에 싸름덜 종달리, 어디 저 종다리 시흥리 오줄리.(제주에 사람들 ‘종달리’, 어디 저 ‘종달리’ ‘시흥리’ ‘오조리’.)

101008 @ 예.(예.)

101008 #1 종달리.(종달리.)

101008 #2 이 다 넓메역 건지레 온다고.(이 다 넓미역 건지러 온다고.)

101008 #1 그 사름덜토, 다 넓메역 건졌어. 우도만 건진 게 아니고.(그 사람들도, 다 넓미역 건졌어. 우도만 건진 게 아니고.)

101008 @ 우도만 건진 게 아니고예.(우도만 건진 게 아니고요.)

101008 #1 겐디 우도가 더 좃건이 좋고 우도 해안이 더 가까우니까 짝금.(그런데 우도가 더 조건이 좋고 우도 해안이 더 가까우니까 쫓금.)

101008 @ 가까우니까.(가까우니까.)

101008 #1 좃건이 좋고 우도 사름이 더 머 해서 헛지.(조건이 좋고 우도 사람이 더

뭐 해서 했지.)

101008 #2 우도에서도, 남편이 엇인 사름덜은[싸름덜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우도에서도,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101008 @ 예. 이거 남자일이라서예.(예. 이거 남자일이니까요.)

101008 #2 남편이 잇는 사름이 배를 헛을 때가 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동네가 만약 삼십 호가 산다면, 배허는 사람은 혼 데오숫도 안돼여.(남편이 잇는 사람이 배를 헛을 때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동네가 만약 삼십 호가 산다면, 배하는 사람은 한 대여섯도 안돼.)

101008 @ 예.(예.)

101008 #2 한 두 사람이나 하게 됴문 여기에 또 게 실은 남자들은 그 선두 뉼는 사람보고 아이고 난, 넓메역 허는디 우리 조금 부쳐 달라고 허거든.(한 두 사람이나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그럼 실은 남자들은 그 선두 되는 사람보고 아이고 난, 넓미역 하는데 우리 조금 붙여 달라고 하거든.)

101008 @ 예.(예.)

101008 #2 그럼 배 하나 가진 사람이 혼 이 선원을 너이쫘 데려서 이제 거를 운항 허는 거지.(그럼 배 하나 가진 사람이 한 이 선원을 넷쫘 데려서 이제 거를 운항 하는 거지.)

101008 @ 예.(예.)

101008 #2 혼자 그저.(혼자 그저.)

101008 @ 헐 수가 엇어예.(할 수가 없어요.)

101008 #2 여자 혼자 사는 사람 홀 어멍, 홀 어멍네 집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해녀들은 처음 해녀들은 그 넓메역을 즈문다고.(여자 혼자 사는 사람 홀어머니, 홀어머니네 집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해녀들은 처음 해녀들은 그 넓미역을 자맥질한다고.)

101008 #1 캐기 시작해서 물때 좋으민.(캐기 시작해서 물때 좋으면.)

101008 #2 즈물러 간다고.(자맥질하러 간다고.)

101008 #1 물속에 가서 캐오기 시작해서.(물속에 가서 캐오기 시작해서.)

101008 @ 이때도 시기는 (이때도 시기는.)

101008 #2 오.(오.)

101008 @ 이때? 이때?(이때? 이때?)

101008 #2 이 시기여 넓메역 이 시기 놓쳐버리민 이 보다 조금 앞텡겨 하는데.(이 시기가 넓미역 이 시기 놓쳐버리면 이 보다 조금 앞당겨 하는데.)

101008 #1 이거 해지허기 이전에.(이거 해지하기 이전에.)

101008 #2 이 시기 놓쳐 버리문 이 넓메역이라는 게 삭아져비여 그 바다이서 그 시기가 됴문.(이 시기 놓쳐 버리면 이 넓미역이라는 게 삭아져버려 그 바다에서 그 시기가 되면.)

101008 @ 예.(예.)

101008 #2 삭아져부러는디 여자덜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삭아져버리는데 여자들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101008 @ 예. 즈물엿예.(예. 자맥질해서요.)

101008 #2 거 상군이 흐는 거지 아무나 허는 건 아니고.(거 상군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101008 @ 거 넓메역 바당은 저기 가면은 거 상군바당에 들어가야 돼큰게. 한 십오 메타 정도예.(거 넓미역 바다는 저기 가면은 거 상군바다에 들어가야 되겠네. 한 십오 미터 정도요.)

101008 #1 게지 혼 이십 메다 이상 돼어.(그렇지 한 이십 미터 이상 돼.)

101008 @ 이십 메다 정도예. 십오에서 이십 메다예.(이십 미터 정도요. 십오에서 이십 미터요.)

101008 #1 예.(예.)

101008 @ 예예. 남자들이예.(예예. 남자들이요.)

101008 #1 저 저 상군들이 아니면 중군이하는 못 나가.(저 저 상군들이 아니면 중군이하는 못 나가.)

101008 @ 중군이 못 나가는 거예.(중군이 못 나가는 거요.)

101008 #1 예.(예.)

101008 @ 게난 이거가 특산 이거가 참 저 우도 허면은예. 소섬허면은 넓메역헛덴 헌 얘기를, 어디서도 좀 듣곡 해나니까는, 넓메역하고 그 다음에는 머 아까 땅콩 헛주만은 해산물에는 어떤 거 잇수과.(그러니까 이것이 특산 이것이 참 저 우도 하면은요. ‘소섬’ 하면은 넓미역했다고 한 얘기를, 어디서도 좀 듣고 했으니까는, 넓미역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까 땅콩 헛지만은 해산물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1008 #1 해산물에는 천초 우뭇가사리?(해산물에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101008 @ 예. 천초는 저.(예. 우뭇가사리는 저.)

101008 #1 톨.(톨.)

101008 @ 저기 삼월? 아니 사월?(저기 삼월? 아니 사월?)

101008 #1 천초 허는 건?(우뭇가사리 하는 건?)

101008 @ 예.(예.)

101008 #1 천초는 보통.(우뭇가사리는 보통.)

101008 #2 원래 오월 일 일이 법정 우리 여기서도.(원래 오월 일 일이 법정 우리 여기서도.)

101008 @ 예.(예.)

101008 #2 이건 우리 자치법으로, 오월 일일이 법정 기일로 헛었다고 천초 헤체허는 대개는, 여기는 이제 그 즉 말허자면 우도 면민이 다 허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이 있다고, 십일게.(이건 우리 자치법으로, 오월 일일이 법정 기일로 했다고 우뭇가사리 허채하는 대개는, 여기는 이제 그 즉 말하자면 우도 면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이 있다고, 십일.)

101008 @ 예.(예.)

101008 #2 예, 십 개 동네가 바다를 갖고 있다고 나눠서 여기는 에이란 동네 비란 동네 여기는 비란 동네.(예, 십 개 동네가 바다를 갖고 있다고 나눠서 여기는 에이란 동네 비란 동네 여기는 비란 동네.)

101008 @ 예.(예.)

101008 #2 이런 식으로 쪽 나가문, 물론 오월 일일을 준수해서 허는 디도 잇고 또 쪽끔 앞당기는.(이런 식으로 쪽 나가면, 물론 오월 일일을 준수해서 하는 데도 잇고 또 쪽끔 앞당기는.)

101008 #1 동네 스정에 따라서 그.(동네 사정에 따라서 그.)

101008 #2 대개는 오월 일일로 이제 천초는 헤쳐한다 이렇게 말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대개는 오월 일일로 이제 우뭇가사리는 허쳐한다 이렇게 말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

101008 @ 예.(예.)

101008 #1 해서 저 칠 월말까지.(해서 저 칠 월말까지.)

101008 @ 아, 칠 월 말까지.(아, 칠 월 말까지.)

101008 # 으.(으.)

101008 @ 거문 천초는 같이 헤가지고.(거문 우뭇가사리는 같이 헤가지고.)

101008 #2 응 ㄴ치.(응 같이.)

101008 @ 천초는 다 나가는 거 아니냐.(우뭇가사리는 다 나가는 거 아니냐.)

101008 #1 천초는 다 자기 개인 나시 허여.(우뭇가사리는 다 자기 개인 몫 해.)

101008 #2 각자.(각자.)

101008 @ 예.(예.)

101008 #1 공동이 아니라.(공동이 아니라.)

101008 @ 예.(예.)

101008 #1 응.(응.)

101008 @ 경 헤가지고 허고 툄는 여기는 툄도 하영 나지 안헉니까.(그렇게 헤가지고 하고 툄는 여기는 툄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101008 #1 툄는 거이 공동으로 거 동네 공동으로.(툄은 거의 공동으로 거 동네 공동으로.)

101008 @ 툄는 이월부터 헉니까?(툄은 이월부터 헉니까?)

101008 #1 응.(응.)

101008 #2 응 대충 이월 들 쉼 거라.(응 대충 이월 달 될 거야.)

101008 #1 이월 혼 십오 일부터.(이월 한 십오 일부터.)

101008 @ 이월 십오 일 부터예. 툄은예.(이월 십오 일부터요. 툄은요.)

101008 # 사 삼, 삼월 십오일부터.(사 삼, 삼월 십오일부터.)

101008 @ 아, 삼월 십오일마씨? 툄?(아, 삼월 십오일요? 툄?)

101008 #1 응, 삼월 십오일부터 저 스월 말까지.(응, 삼월 십오일부터 저 사월 말까

지.)

101008 @ 사월 말까지예. 툔 수확하는 거.(사월 말까지요. 툔 수확하는 거.)

01008 #1 스월 십오일까지도 흥곡.(사월 십오일까지도 하고.)

101008 @ 예.(예.)

101008 #1 (응.)

101008 @ 툔은 경하고 그 다음에는 천초가 아까 그거고.(툔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뭇가사리가 아까 그거고.)

101008 #1 으, 오월 일일이 법정 기일이라 해서.(으, 오월 일일이 법정 기일이라 해서.)

101008 @ 예예. 저기.(예예. 저기.)

101008 #1 소라 소라.(소라 소라.)

101008 @ 예. 소라는 십일월?(예. 소라는 십일월?)

101008 #1 시월일일부터.(시월일일부터.)

101008 @ 예. 시월일일부터.(예. 시월일일부터.)

101008 #1 천초 날 때까지. 사월 저 삼월말까지 보통.(우뭇가사리 날 때까지. 사월 저 삼월말까지 보통.)

101008 @ 삼월 삼월 말까지예. 삼월말까지예. 소라는예. 저 시월일일부터예.(삼 월 삼월말까지요. 삼월말까지요 소라는요. 저 시월일일부터요.)

101008 #1 으.(오.)

101008 @ 아 소라하고.(아 소라하고.)

101008 #1 법정기일이 여기서는 그렇게 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법정기일이 여기서는 그렇게 자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101008 @ 저 저기 저 듬북?(저 저기 저 ‘듬북’?)

101008 #1 듬북? 듬북 안 캐어 이젠.(‘듬북’? ‘듬북’ 안 캐 이젠.)

101008 @ 아, 그 옛날에.(아, 그 옛날에.)

101008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1008 @ 예. 올라온 것들.(예. 올라온 것들.)

101008 #1 저 어 옛날에는 하지 듬북이라고 해서 보통 예 스월 들로부터 혼 오 월들까지.(저 어 옛날에는 하지 ‘듬북’이라고 해서 보통 예 사월 달로부터 한 오월 달까지.)

101008 @ 예.(예.)

101008 #1 스월 오월 혼 두들 동안 했는데.(사월 오월 한 두달 동안 했는데.)

101008 @ 예.(예.)

101008 #1 지금은 안 캐.(지금은 안 캐.)

101008 @ 게난 지금은 안 캐지만은 그 옛날 것도 우리 여기 일이니깐예. 역사 뭐 문화 머 다 들어간 거니까는예.(그러니까 지금은 안 캐지만은 그 옛날 것도 우리 여기 일이니까요. 역사 뭐 문화 뭐 다 들어간 거니까요.)

101008 #1 예. 그리고 풍파에 올른 거.(예. 그리고 풍파에 오른 거.)

101008 @ 예. 풍파에.(예. 풍파에.)

101008 #1 올른 건 언제나 허고.(오른 건 언제나 하고.)

101008 @ 이거는.(이거는.)

101008 #1 겨울에도 허고.(겨울에도 하고.)

101008 @ 풍조엔 풍조엔 허잖아예.(풍조라고 풍조라고 하잖아요.)

101008 #1 풍조 풍조.(풍조 풍조.)

101008 @ 풍조예. 풍조 이거는 겨울이든 어디든 해가지고.(풍조요. 풍조 이거는 겨울이든 어디든 해가지고.)

101008 #1 예.(예.)

101008 @ 저 물려 놔뒀당 밧디에 흐는 거고예.(저 말려 놔두었다가 밧에 하는 거고요.)

101008 #1 예. 밧디에 물려 뒀.(예. 밧에 말려 두어서.)

101008 #2 저 남지 아까도 배 잇고 남자들 잇는 사름은 듬북흐는디 머흐난 줄낫시라는게 잇어, 줄나시<sup>66)</sup>는 예 이걸 여자들은 염두도 못네고 여기서 문 여기서 같으면 저깅지.(저 남지 아까도 배 잇고 남자들 잇는 사름은 듬북흐는디 머흐난 줄낫시라는게 잇어, ‘줄나시’는 예 이걸 여자들은 염두도 못내고 여기서 전부 여기서 같으면 저까지.)

101008 #1 으 칼 잇어.(오 칼 잇어.)

101008 #2 큰 칼 잇다고.(큰 칼 잇다고.)

101008 @ 줄 낫예.(줄 낫요.)

101008 #1 줄나시 줄나시.(‘줄나시’ ‘줄나시.’)

101008 #2 날카로운 칼.(날카로운 칼.)

101008 @ 줄나시?(‘줄나시?’)

101008 #1 예.(예.)

101008 #2 그게 이제 바다에 던져놓고 양쪽 줄을 걸어서 나가면서 빈다고.(그게 이제 바다에 던져놓고 양쪽 줄을 걸어서 나가면서 벤다고.)

101008 @ 예.(예.)

101008 #2 해서 힘으로 이거 비어진다고.(해서 힘으로 이거 베어진다고.)

101008 @ 예.(예.)

101008 #2 비문 뒤에서 그 이제 즉 말허자면 범선이라도 크지 그러면.(베면 뒤에서 그 이제 즉 말허자면 범선이라도 크지 그러면.)

101008 #1 비어지면서 바다로 뜨지 떠. 떠. 떠.(비어지면서 바다로 뜨지 떠. 떠. 떠.)

101008 #2 전부 배에다 실어놔서 말르면은.(전부 배에다 실어놔서 마르면은.)

101008 #1 저 메역 화물선에 화물선에 건져놓지 그걸 자구 그 웃터레.(저 미역 화물선에 화물선에 건져놓지 그걸 자구 그 위로.)

101008 @ 아.(아.)

101008 #2 뭐 동력선으로 허는게 아니고 이거는 즉 말허자면 저 범선.(뭐 동력선으로

66) ‘줄나시’는 낚미역 작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말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즉 말하자면 저 범선.)

101008 @ 예.(예.)

101008 #2 범선이라면 이 저 기관이 없는 거.(범선이라면 이 저 기관이 없는 거.)

101008 @ 예예.(예예.)

101008 #1 그게 화물선.(그게 화물선.)

101008 #2 말르젠 그 줄나시 흐는 사름덜[싸름덜] 이 팀만 갈라먹는 거지 동네사름덜[싸름덜] 다 주는 건 아니.(말리려고 그 ‘줄나시’ 하는 사람들 이 팀만 갈라먹는 거지 동네에 사람들 다 주는 건 아니.)

101008 @ 아, 줄나시엔 현 거는.(아, ‘줄나시’라고 하는 거는.)

101008 #1 뗏이 계를 해갖고 그.(뗏이 계를 해가지고 그.)

101008 #2 응 줄나시가 상당 이 줄나시가 중요했다고 옛날에.(응 ‘줄나시’가 상당 히 ‘줄나시’가 중요했다고 옛날에.)

101008 #1 뗏 사름이 계를 했다고.(뗏 사름이 계를 했다고.)

101008 #2 이 듬북이 캐는 데는.(이 ‘듬북’이 캐는 데는.)

101008 @ 아.(아.)

101008 #2 또 아까 그 두 번째는 저 어디 건지는 거 풍낭.(또 아까 그 두 번째는 저 어디 건지는 거 풍낭.)

101008 @ 예.(예.)

101008 #2 풍조 건 이 바람이 올르는 거는 그 이제 올라 있으면은,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바다에 나가서 저 굿드로 올라 있으면은 건조해근에 또 이제 따로 행 들렀다가 밧디에 가져가고.(풍조 건 이 바람이 오르는 거는 그 이제 올라 있으면은,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바다에 나가서 저 바닷가로 올라 있으면 건조해서 또 이제 따로 해서 말렸다가 밧에 가져가고.)

101008 #1 것도 허고 범선 잇는 사름은.(것도 하고 범선 잇는 사름은.)

101008 @ 예.(예.)

101008 #1 스월 오월 달에는 먼 바다에 가서 배타고 가서.(사월 오월 달에는 먼 바다에 가서 배타고 가서.)

101008 @ 예.(예.)

101008 #1 그 물 조류에 흘러 다니는 거.(그 물 조류에 흘러 다니는 거.)

101008 @ 예.(예.)

101008 #1 배에 건저 건저서 배에 싣고 와서 여기 와서 몰려갔고.(배에 건저 건저서 배에 싣고 와서 여기 와서 말려가지고.)

101008 @ 예.(예.)

101008 #1 것도 이제 걸름으로 것도 했어요 들린 것도.(것도 이제 거름으로 것도 했어요 말린 것도.)

101008 @ 그러면은 저기 땅 저 땅콩예.(그러면은 저기 땅 저 땅콩요.)

101008 #1 으.(으.)

101008 @ 땅콩은 어느 제 심고 어느 제 수확합니까?(땅콩은 어느 때 심고 어느 때 수확합니까?)

101008 #1 보통, 저 오월 이십일부터 심어서.(보통, 저 오월 이십일부터 심어서.)

101008 @ 예.(예.)

101008 #1 에 구월 한 구월 말 구월 말일까지는 수확해요.(에 구월 한 구월 말 구월 말일까지는 수확해요.)

101008 @ 아.(아.)

101008 #2 땅콩 역사는 길지 않다고 으 근래와서 했다고 이게.(땅콩 역사는 길지 않다고 요 근래 와서 했다고 이게.)

101008 #1 빨리 심으면 빨리 수확되고 늦게 심으면 늦게 되는데.(빨리 심으면 빨리 수확되고 늦게 심으면 늦게 되는데.)

101008 @ 예.(예.)

101008 #1 보통 지금은 백 이십일 백 삼십일에서 백 스십일 그 사이 백 오십 일은 그 사이에 수확해요.(보통 지금은 백 이십일 백 삼십일에서 백 사십일 그 사이 백 오십 일은 그 사이에 수확해요.)

101008 @ 예.(예.)

101008 #1 심어서.(심어서.)

101008 @ 그러면은 이거 저기 윤작으로 땅콩 다음에는 저 마늘예.(그러면은 이거 저기 윤작으로 땅콩 다음에는 저 마늘요.)

101008 #1 아 땅콩그리에 보리나 보리나 유채.(아 땅콩그루에 보리나 보리나 유채.)

101008 @ 보리나 유채마씨?(보리나 유채요?)

101008 #1 으, 땅콩그리에는.(으, 땅콩그루에는.)

101008 @ 예예.(예예.)

101008 #1 또 저 그 그리에.(또 저 그 그루에.)

101008 @ 응.(응.)

101008 # 또 마늘이나 으.(또 마늘이나 오.)

101008 @ 예.1(예.)

101008 #1 마늘 심지 그 쪽파나 마늘.(마늘 심지 그 쪽파나 마늘.)

101008 @ 예. 마늘 그르에예.(예. 마늘 그루에요.)

101008 #2 상품이 되게 왜 그러냐허문 이 저 땅콩이 보통 이제 구월 이상 되면은 그 때 땅콩 해두고 쪽파를 심어노문, 이렇게 굶어버린다고 굶으문 만약에 이제 그 종자용으로 절라도 그 뜰에서 알아주질 않는다고.(상품이 되게 왜 그러냐하면 이 저 땅콩이 보통 이제 구월 이상 되면은 그때 땅콩 해두고 쪽파를 심어놓으면, 이렇게 굶어버린다고 굶으면 만약에 이제 그 종자용으로 전라도 같은데서 알아주질 않는다고.)

101008 @ 아.(아.)

101008 #2 으 그래서 대게는 땅콩 해난 뒤에는 아까 이 한희장이 얘기 했지만은.(으 그래서 대게는 땅콩해난 뒤에는 아까 이 한희장이 얘기 했지만은.)



101008 @ 아.(아.)

101008 #2 저 뭘 허냐문 저 머 유채하고 유채 심던가 보릴 심던가 허지.(저 뭘 하나면 저 뭘 유채하고 유채를 심던가 보릴 심던가 하지.)

101008 @ 아.(아.)

101008 #2 다른 거 지금 마늘 ㄱ쁜 거 너무 늦따고 늦어, 상품까치가 떨어져. [부딪치는 소리](다른 거 지금 마늘 같은 거 너무 늦다고 늦어, 상품가치가 떨어져. [부딪치는 소리])

101008 #1 응.(응.)

101008 #2 아판 누워시카부덴 왓주게. 이젠 관찬웃과?(아판 누웠을까봐 왔지. 이젠 팬찮습니까?)

101008 #1 아, 갓단 아침이.(아, 갓다가 아침에.)

101008 #2 으.(으.)

101008 #1 갓단 이 사름들 와네 이거 헝켄 해부난.(갓다가 이 사름들 와서 이거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101008 #2 으.(으.)

101008 #1 그디서 헝켄 헝니까 여러 사름덜[싸름덜] 잇고.(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름들 잇고.)

101008 #2 으.(으.)

101008 #1 또 텔레비전도 잇고 헝니까 이 사름들이 더워도 여깃 헝켄 허연.(또 텔레비전도 잇고 하니까 이 사름들이 더워도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101008 @ 아 덩지 안우다예.(아 덩지 않습니다요.)

101008 #2 난 또 안 나왔길레.(난 또 안 나왔기에.)

101008 #1 아이 아니.(아이 아니.)

101008 @ 그러면은 지금은 보리, 어 그거는 보리허고 유채는 잘 안 허는 거 아니웃파예.(그러면은 지금은 보리, 어 그거는 보리하고 유채는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요.)

101008 #1 지금은 같지 않주게.(지금은 같지 않지.)

101008 @ 거문 옛날에 조하고예. 보리는.(그러면 옛날에 조하고요. 보리는.)

101008 #1 예. 그건 또 이제 팔십년도 이전에.(예. 그건 또 이제 팔십년도 이전에.)

101008 @ 예예. 그 전에는.(예예. 그 전에는.)

101008 #1 땅콩허고 마늘 나오기 이전에.(땅콩하고 마늘 나오기 이전에.)

101008 @ 콩 콩도 같지 않습니까예.(콩 콩도 같지 않습니다요.)

101008 #1 콩.(콩.)

101008 @ 콩그르에 조.(콩그루에 조.)

101008 #1 아 아 짝금.(아 아 조금.)

101008 #2 큰섬에는 콩 갈아도.(제주에는 콩 갈아도.)

101008 #1 이 이기는 콩 안 갈아.(이 여기는 콩 안 갈아.)

101008 @ 콩 안 갈고예.(콩 안 갈고요.)

101008 #2 이기 콩 안 간다고 전부 조 ㄴ쁜 거나 그때는 조만 같았다고.(여기 콩 안 간다고 전부 조 같은 거나 그때는 조만 같았다고.)

101008 @ 조 불리는 거는 유월에 유월에 시작합니까?(조 밝는 거는 유월에 유월에 시작합니까?)

101008 #1 칠월에 칠월 들에 보통.(칠월에 칠월 달에 보통.)

101008 @ 칠월?(칠월?)

101008 #1 응.(응.)

101008 @ 유월 지나근에?(유월 지나서?)

101008 #1 응 칠월, 칠월 칠일이 유월절이거든.(응 칠월, 칠월 칠일이 유월절이거든.)

101008 @ 예. 유월절 지나근에.(예. 유월절 지나서.)

101008 #1 그때ㄲ지가.(그때까지가.)

101008 @ 예.(예.)

101008 #1 가름지에 좋은 밋이문 그때ㄲ지 같고 경 아년 건 칠 월 혼 초승에.(가름지<sup>67)</sup>에 좋은 밋이문 그때까지 같고 그렇지 않은 건 칠월 한 초순에.)

101008 @ 예.(예.)

101008 #1 이 일 일경에 같아야 돼.(이 일 일경에 같아야 돼.)

101008 @ 예. 유월절에예.(예. 유월절에요.)

101008 #1 예예.(예예.)

101008 @ 그 다음에는 보리씨 부릴 때는 언제 됩니까?(그 다음에는 보리씨 부릴 때는 언제 됩니까?)

101008 #1 보리씨는 옛날에 입동 들어야 간덴 허주게 입동.(보리씨는 옛날에 입동 들어야 간다고 하지 입동.)

101008 @ 예.(예.)

101008 #1 입동 지나야 되는데 이 입동을 기준으로 예. 옛날에 입동으로 했주만은 보통으로 이제는, 말 이렇게 같아야 돼주.(입동 지나야 되는데 이 입동을 기준으로 예. 옛날에 입동으로 했지만은 보통으로 이제는, 말 이렇게 같아야 되지.)

101008 @ 예. 이렇게 행 같아근에예. 그 다음에 사월 오 월경에.(예. 이렇게 해서 같아서요. 그 다음에 사월 오 월경에.)

101008 #1 수확.(수확.)

101008 @ 예. 사월 오 월경에 수확하고 조는?(예. 사월 오 월경에 수확하고 조는?)

101008 #1 조는 저 옛날에는.(조는 저 옛날에는.)

101008 @ 조는 구월에?(조는 구월에?)

101008 #1 에에 칠월 말에 갈아갓고 구월 말경에 수확.(에에 칠월 말에 갈아가지고 구월 말경에 수확.)

101008 @ 구월 말에 수확하고예. 조하고 보리는예.(구월 말에 수확하고요. 조하고 보리는요.)

---

67) '가름지'는 동네 근처에 소재한 밭을 가리키는 말이다.

101008 #1 조 보리는 구경 못허여 맥주보리 이제는.(조 보리는 구경 못해 맥주보리  
이제는.)

101008 @ 예.(예.)

101008 # 옛날 보리가 아니고 맥주보리 이제는.(옛날 보리가 아니고 맥주보리 이  
제.)

101008 @ 맥주보리도오.(맥주보리도.)

101008 #1 맥주 원료로.(맥주 원료로.)

101008 @ 예. 맥주보리도 지금 쫄쫄 여기 수확을 많이 헌덴 허는 거 아니라예.(예.  
맥주보리도 지금 쫄쫄 여기 수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101008 #1 으. 게, 맥주보리.(으. 그럼, 맥주보리.)

101008 @ 맥주보리는 또 가는 그거는 언제.(맥주보리는 또 가는 그거는 언제.)

101008 #1 맥주보리는 데게 아까 말헌 식으로.(맥주보리는 데게 아까 말한 식으로.)

101008 @ 아까 말헌 식으로예.(아까 말한 식으로요.)

101008 #1 으.(으.)

101008 @ 유채는.(유채는.)

101008 #1 유채도 유채도 보리 갈 때 ㄴ치.(유채도 유채도 보리 갈 때 같이.)

101008 @ 보리 갈 때 같이허곡예. 보리 갈 때 같이허곡.(보리 갈 때 같이하고요. 보  
리 갈 때 같이하고.)

101008 #1 그전에 갈아비여 꽃만 피면, 수확 안코. 여물은 수확 안 해.(그전에 갈아버  
려 꽃만 피면, 수확 안고. 여물은 수확 안아.)

101008 @ 예.(예.)

101008 #1 꽃만 피워서 이.(꽃만 피워서 이.)

101008 #2 스월ㄴ지.(사월까지.)

101008 #1 스월 한 이십일 스월 말 돼민 딱 비여서 갈아비여야 돼여.(사월 한 이십일  
사월 말 되면 딱 베어서 갈아버려야 돼.)

101008 @ 거문예. 바당엿 걸 한번 곁아봅서예.(그럼요 바다에 걸 한번 말해보십시오.)

101008 #1 으.(으.)

101008 @ 바당에 고기.(바다에 고기.)

101008 #1 고기, 옛날에야 뭐 저기.(고기, 옛날에야 뭐 저기.)

101008 @ 다금바리는 언제 잡는 것과.(다금바리는 언제 잡는 겁니까.)

101008 #1 다금바리, 북바리 저 돔.(다금바리, 북바리 저 돔.)

101008 @ 예.(예.)

101008 #1 황돔.(황돔.)

101008 @ 예.(예.)

101008 #1 또 이제 흑돔 또 이제 예.(또 이제 감성돔 또 이제 예.)

101008 @ 계절별로 혼번 곁아줍서.(계절별로 한번 말해주십시오.)

101008 #1 게난 건 계절이 었어.(그러니까 건 계절이 없어.)

101008 @ 아.(아.)

101008 #1 그물 노면.(그물 놓으면.)

101008 @ 그물 놔기네예.(그물 놔서요.)

101008 #1 이 저 잡는 데나 그물 놔기네 저 주낙에 잡는 거나.(이 저 잡는 데나 그물 놔서 저 주낙에 잡는 거나.)

101008 @ 예.(예.)

101008 #1 그자 물때 맞앙 더하고 싶으면 물때 맞앙 그자 바다 속에다 놓으면 아무 때도 물었으니까.(그자 물때 맞아서 더하고 싶으면 물때 맞아서 그자 바다 속에다 놓으면 아무 때도 물었으니까.)

101008 @ 여기는 흔히 우리 그 시에 흘 때는 낙지도 잡으려 간덴 하고예. 저.(여기는 흔히 우리 그 시에 할 때는 낙지도 잡으려 간다고 하고요. 저.)

101008 #1 헛불이지 헛불.(헛불이지 헛불.)

101008 @ 예.(예.)

101008 #1 옛날에는 저.(옛날에는 저.)

101008 @ 한치? 한치바당도 있습니까 한치바당.(한치? 한치바다도 있습니까 한치바다.)

101008 #2 응 한치있어요 그것도.(응 한치있어요 그것도.)

101008 #1 이 낚씨꾼덜.(이 낚시꾼들.)

101008 @ 예.(예.)

101008 #1 낚씨꾼덜 허고 저 그 갯곳에 가서 그자 나끄는 거고 또 바다에 강도 나끄는 건데 아주 옛날에는 오징어가 들어 와나서 오징어가 이 앞에.(낚시꾼들 하고 저 그 갯가에 가서 그자 나끄는 거고 또 바다에 가서도 나끄는 건데 아주 옛날에는 오징어가 들어왔어 오징어가 이 앞에.)

101008 #2 거 오징어가 한친데 한치도 있고 일부는 강원도서 강원도 오징어렌 해서 거 오징어 생김새가 틀리다고 한치허고, 주 여기서 조금 여 큰디 가서 나끄는 것은 한치고.(거 오징어가 한치인데 한치도 있고 일부는 강원도서 강원도 오징어라고 해서 거 오징어 생김새가 다르다고 한치하고, 주 여기서 조금 여 큰데 가서 나끄는 것은 한치고.)

101008 @ 예.(예.)

101008 #2 그 옛날 역살 알면 우도에 역살 알면 큰 고기가 있어 저립이라고 저립은.(그 옛날 역사를 알면 우도에 역사를 알면 큰 고기가 있어 재방어이라고 재방어는.)

101008 #1 방어 종률편.(방어 종률편.)

101008 #2 우도 전역이 나는 게 아니고.(우도 전역이 나는 게 아니고.)

101008 @ 음.(음.)

101008 #2 데게 이기 오봉리 지역이 낫다고, 이 오봉리<sup>68)</sup> 지역에 그거는 이 저 사람이 저 곳으로 가서 나끄는 것이 아니고.(대개 이데 ‘오봉리’ 지역에서 낫다고, 이 ‘오봉

68) ‘오봉리’는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 소재한 마을이다.

리' 지역에 그거는 이 저 사람이 저 제주로 가서 나끄는 것이 아니고.)

101008 @ 예.(예.)

101008 #2 돛단배 일찍이 우리 그저 넓메역 건지는 그런 돛단배나, 또 발동기 이제 즉 말하자면 이 삼 톤 짜리로 가서 저립 그거는 한 백이십 키로 보통 이제 그 팔십 키로 육십 키로 이런 저립을 낚았다고.(돛단배 일찍이 우리 그저 넓미역 건지는 그런 돛단배나, 또 발동기 이제 즉 말하자면 이 삼 톤짜리로 가서 재방어 그거는 한 백이십 킬로 보통 이제 그 팔십 킬로 육십 킬로 이런 재방어를 낚았다고.)

101008 @ 예.(예.)

101008 #2 계문 이제는 저립이 없어진 일이 있다고 그거는 우리가 가만이 판단해보문 예, 지금 이 저.(그러면 이제는 재방어가 없어진 일이 있다고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판단해보면 예, 지금 이 저.)

101008 #1 멜.(멸치.)

101008 #2 멜도 허지만 저 성산포나 제주시나 굵은 배들 이 야간에 보게 뽀문 전기 환한 불을 키고 갈치를 낚는다고.(멸치도 하지만 저 성산포나 제주시나 굵은 배들 이 야간에 보게 되면 전기 환한 불을 켜고 갈치를 낚는다고.)

101008 @ 예.(예.)

101008 #2 저립 저립이 먹이가 전드란게 전드미 이런 것들이 그제 지금 열테언데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열테어예요.(재방어 재방어가 먹이가 전어라는 것이 전어 이런 것들이 그제 지금 열대어인데 여기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열대어예요.)

101008 @ 예.(예.)

101008 #2 지금 거기 살았다가 이시기 뽀민 여기에 들어왔다가 그 나가는 건데 그제 들어오는 건데 갈치불에 차단 뽀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라.(지금 거기 살았다가 이시기 되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그 나가는 건데 그제 들어오는 건데 갈치불에 차단 뽀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101008 @ 예.(예.)

101008 #2 그러니까 저립이 안 들어오는 거라. 우리도 저립을 많이 낚았는데 상당히 저립을 많이 낚았지. 우리도 일 년에 저립 머 그런 팔십 키로 이런.(그러니까 재방어가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도 저립을 많이 낚았는데 상당히 재방어를 많이 낚았지. 우리도 일 년에 저립 뽀 그런 팔십 킬로 이런.)

101008 #1 멜이 플랑크톤에 따라 다니거든.(멸치가 플랑크톤에 따라 다니거든.)

101008 @ 예.(예.)

101008 #1 첫체는 멜. 멜 먹는 게 뽀냐면 갈치, 또 아까 말한 저립 미끼뽀는 저 전데미, 그제 이제 저 멜을 먹는 건데 멜이 이 연안에 엇어저분 거라.(첫체는 멸치. 멸치 먹는 게 뽀냐면 갈치, 또 아까 말한 재방어 미끼뽀는 저 전어, 그제 이제 저 멸치를 먹는 건데 멸치가 이 연안에 엇어저버린 거야.)

101008 @ 아.(아.)

101008 #1 아까 바다에서 먼저 잡아 버리면 멜이 이 주위에 전에 옛날에는 멜이 오

월 들만 나면, 음력 시월 오월 들까지 이 우도 연안에 딱 찼어요.(아까 바다에서 먼저 잡아 버리면 멸치가 이 주위에 전에 옛날에는 멸치가 오월 달만 나면, 음력 시월 오월 달까지 이 우도 연안에 딱 찼어요.)

101008 @ 예.(예.)

101008 #1 뭐 해마다 딱 차면은 하는데 지금은 그게 딱 차질 못해 엇어저부러 지금 다 먼 배들이 와서 잡아 가버리면.(뭐 해마다 딱 차면은 하는데 지금은 그게 딱 차질 못해 엇어저부러 지금 다 먼 배들이 와서 잡아 가버리면.)

101008 @ 예.(예.)

101008 #1 그러니 그 멸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고기덜이.(그러니 그 멸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고기들이.)

101008 #2 미끼가 안 들면은게.(미끼가 안 들면.)

101008 #1 그 따위로는 고등어나 갈치나 아까 말헌 저립미끼나 안 따라 오는 거지. 그 미끼가 엇어노니까 아까 말한 저립도.(그 따위로는 고등어나 갈치나 아까 말한 재방어미끼나 안 따라 오는 거지. 그 미끼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재방어도.)

101008 @ 예.(예.)

101008 #1 미끼가 엇어노니까 안 들어오는 거라 지금.(미끼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101008 @ 예.(예.)

101008 #1 게메 그것도 어디 혼이 잇느냐 물 조류가 쉰, 이 방머리<sup>69)</sup>엔 혼데.(글썸 그것도 어디 혼히 잇느냐 물 조류가 쉰, 이 ‘방머리’라고 한데.)

101008 #2 으 으? 으기히고 또.(요 요? 요 데하고 또.)

101008 #1 으기가 많이 살지. 저.(요 데가 많이 살지. 저.)

101008 #2 비양동<sup>70)</sup> 황돔 으 두 군데만.(‘비양동’ 황돔 요 두 군데만.)

101008 #1 저립이라는 게.(재방어라는 게.)

101008 #2 주로 여기가 많이 낚지.(주로 여기가 많이 낚지.)

101008 #1 거 또 물 쉰 디가 많이 잇고 거기서 이제 저 저립이 그 미끼 작업을 한다 고.(거 또 물 쉰 데가 많이 잇고 거기서 이제 저 재방어가 그 미끼 작업을 한다고.)

101008 @ 예. 우돏말 우돏말 이 소섬말로, 저립이엔 험니까?(예. 우도말 우도말 이 우도말로, 재방어라고 험니까?)

101008 #1 저립이엔 헤서, 소섬말로 저립.(재방어라고 했어, 우도말로 재방어.)

101008 @ 우돏말예.(우도말요.)

101008 #1 겐디 그게 천구백 년도부터 잡기 시작해갔고, 우리 ㅇㅇ가 잡기 시작했다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도에서는 주장하고 이제 살아시민 백 혼 삼십 세난 하르버진 데 일본사람 조수로 텅겅다고.(그런데 그게 천구백 년도부터 잡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ㅇㅇ가 잡기 시작했다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도에서는 주장하고 이제 살았으면 백 한

69) ‘방머리’는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 소재한다.

70) ‘비양동’은 우도면에 소재한 행정동의 한 곳이다.

삼십 세니까 할아버지인데 일본사람 조수로 다녔다고.)

101008 @ 아.(아.)

101008 #1 그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와갖고 엄청나게 그때 그 하르방이 저립을 많이 낚았다고 하루가면 두세 마릿씩 잡았다고, 그걸.(그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그 할아버지가 재방어를 많이 낚았다고 하루가면 두세 마릿씩 잡았다고, 그걸.)

101008 @ 아.(아.)

101008 #1 그렇게 헨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번건 다 화투헨 었어져불고, [웃음](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번건 다 화투해서 없어져버리고, [웃음])

101008 #2 허허.(허허.)

101008 #1 약헨에 었어져불고.(약해서 없어져버리고.)

101008 #2 나 계민 가쿠다.(나 그러면 가겠습니다.)

101008 #1 어?(어?)

101008 #2 넌 병원에 갈 거?(내일 병원에 갈 거?)

101008 #1 어 가크라.(어 가겠어.)

101008 #2 어 내일 병원이 가민.(어 내일 병원이 가면.)

101008 #1 나 저 저녁 때 배로 갓다근에.(나 저 저녁 때 배로 갔다가.)

101008 #2 어 검사 잘 받아불여.(어 검사 잘 받아버려.)

101008 #1 으, 기여게.(오, 그래.)

101008 #2 난 또 아판 누웠는가 해서.(난 또 아파서 누웠는가 해서.)

10100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1008 #2 문병 왔는데.(문병 왔는데.)

101008 @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수다.(아이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101008 #2 우리를 위해서 많이 피알 좀 해주십시오예.(우리를 위해서 많이 피알 좀 해주십시오.)

101008 @ 예. 예. 경 험서.(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01008 #1 피알이 아니라.(피알이 아니라.)

101009 @ 삼촌 마을에 자랑거리를예. 삼촌이 생각허는.(삼촌 마을에 자랑거리를 예. 삼촌이 생각하는.)

101009 #1 자랑꺼린 남들보단 먼저 바다에 가서 저저 바다에 가서 잠수질해서 돈 많이 벌어들려는 거하고 뱃긴 난 다른 건 없어요. 지금.(자랑거린 남들보단 먼저 바다에 가서 저저 바다에 가서 잠수질해서 돈 많이 벌어들려는 거하고 밖에는 난 다른 건 없어요. 지금.)

101009 @ 아, 옛날에 바다에 저 잠수 저기예. 메역 즈물고예.(아, 옛날에 바다에 저 잠수 저기요 미역 자맥질하고요.)

101009 #1 예.(예.)

101009 @ 저기예. 해녀들 여긴 다 여자들은 다 물질힐 거 아넛과예.(저기요. 해녀들

여긴 다 여자들은 다 물질할 거 아닙니까요.)

101009 #1 게메 물질 물질.(글쎄 물질 물질.)

101009 @ 물질은 안허는.(물질은 앓는.)

101009 #1 물질을 안허는 여즈는 없주게.(물질을 앓는 여자는 없지.)

101009 @ 예.(예.)

101009 #1 물질 허는데 또 이 인심이 인심 포악해 박해여.(물질 하는데 또 이 인심이 인심 포악해 박해.)

101009 @ 예.(예.)

101009 #1 저 서로 바다에 것도 ㄴ치 돌아가면서 참 나는 깊은디 숨이니까 깊은 디만 강 허곡 또 저 어 늙은 할망덜은 앓은 디만 허니까 앓은 디만 헤기네 서로 돌아가면서 허기로 허는데 그런 그러한 정신 저 양보심이 앓어 먼저.(저 서로 바다에 것도 같이 돌아가면서 참 나는 깊은데 숨이니까 깊은 데만 가서 하고 또 저 어 늙은 할머니들은 앓은 데만 하니까 앓은 데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는데 그런 그러한 정신 저 양보심이 앓어 먼저.)

101009 @ 예.(예.)

101009 #1 가까운디 거 좋은 거 먼저 쉬운 거 뜯어 먹어도근에 먼 디 거 자기네 독점할거니까 자기네만 강 독점 흘라고.(가까운데 거 좋은 거 먼저 쉬운 거 뜯어 먹어두어서 먼 데 거 자기네 독점할거니까 자기네만 가서 독점하려고.)

101009 @ 예.(예.)

101009 #1 그런 심리가 난 께쌌해 베여.(그런 심리가 난 께쌌해 배.)

101009 @ 예.(예.)

101009 #1 그런 식 이제 협동심이란게 앓어 아주 뒤튼.(그런 식 이제 협동심이란 게 앓어 아주 뒤튼.)

1010010 @ 그런 이 마을에 대해서 삼촌님이 바라는 거 같은 경우가 어떻 웨쿠가.(그런 이 마을에 대해서 삼촌님이 바라는 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0010 #1 바라는 거는.(바라는 거는.)

1010010 @ 그 협동심 같은 것이나?(그 협동심 같은 것이나?)

1010010 #1 뭐 뭐 젊은 사름덜이.(뭐 뭐 젊은 사름들이.)

1010010 @ 젊은 사름덜이.(젊은 사름들이.)

1010010 #1 우선 여기에 살아야 돼는데 살아서 이 지역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우리 지역에서 뭐 어떠한, 이제 그 새로운 걸 개발해서 어떻게 살아갈랴고 해야 돼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안 살고.(우선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살아서 이 지역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우리 지역에서 뭐 어떠한, 이제 그 새로운 걸 개발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안 살고.)

1010010 @ 예.(예.)

1010010 #1 안 살아부니까 그게 문제라.(안 살아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1010010 @ 예.(예.)



1010010 #1 왜 안 사느냐.(왜 안 사느냐.)

1010010 #3 원, 병원에 가주.(원, 병원에 가지.)

1010010 #1 아 하영 안 아프우다게.(아 많이 안 아픕니다.)

1010010 #3 하영 안 아파도 게도.(많이 안 아파도 그래도.)

1010010 #1 엇수다게.(없습니다.)

1010010 #3 나이 먹어가는 사름이.(나이 먹어가는 사람이.)

1010010 #1 으.(오.)

1010010 #3 난 두 달에 혼 번씩 강 검사 받는 게.(난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 받는 게.)

1010010 #1 으 게메 나도 저.(오 글썸 나도 저.)

1010010 #3 게 예약 해놔젠 허멍.(그럼 예약 해놨다고 하면서.)

1010010 #1 예. 게.(예. 그럼.)

1010010 #3 으 경 행게 가사주.(오 그렇게 해서 가야지.)

1010010 #1 예게.(예.)

1010010 #3 게난 뭐 말씀 해 점서? 헤드려 점서.(그러니까 뭐 말씀 해 지고있어 헤드려지고 있어.)

1010010 #1 예예.(예예.)

1010010 #3 행 갑서덜. 나 영 우영밧디 풀 험저 약 처둥.(해서 가십시오들. 나 이렇게 텃밭에 풀 한다고 약 쳐두어서.)

1010010 @ 예. 젊은 사름덜예.(예. 젊은 사름들요.)

1010010 #1 젊은 사름덜이 살아서 뭇도 젊은 사름만이 잇겠습니까마는, 지금 그 사름덜이 살아갓고 이 마을을 이끌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살면은 여러 가지 좇건이 나쁘거든, 지금 자녀덜 교육시키는데도 문제가 많거든게.(젊은 사름들이 살아서 뭇도 젊은 사름만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그 사름들이 살아가지고 이 마을을 이끌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거든, 지금 자녀들 교육시키는데도 문제가 많거든.)

1010010 @ 음.(음.)

1010010 #1 첫체는 요기 학원이 엇거든 요새는 학원 학교 다녀야 으세는 늣허고 경쟁, 시험에서 경쟁 홀라고하지.(첫체는 요기 학원이 없거든 요새는 학원 학교 다녀야 요새는 남하고 경쟁, 시험에서 경쟁 하려고하지.)

1010010 @ 음.(음.)

1010010 #1 경 아녀면 그만큼 경쟁을 못하거든 학원이 엇어.(그렇게 안하면 그만큼 경쟁을 못하거든 학원이 없어.)

1010010 @ 예.(예.)

1010010 #1 첫체는 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워도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네 보내는 거라 지금, 그런 데가 문제가 자녀들 키우는데 좀 문제가 잇는 거라.(첫체는 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워도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네 보내는 거야. 지금, 그런 데가

문제가 자녀들 키우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1010010 @ 음.(음.)

1010010 #1 계문 요기는 도항선이 막음대로 다니게 되면, 수시로 밤에도 시에서 근무  
하당 요기 왕 잤다가 출퇴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뜬 섬이라노니까 그  
렇게 못하거든.(그러면 여기는 도항선이 마음대로 다니게 되면, 수시로 밤에도 시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와서 잤다가 출퇴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 뜬 섬이라서  
그렇게 못하거든.)

1010010 @ 예.(예.)

1010010 #1 그렇게 한테 또 주의보만 내리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지금 도항선 저  
주위보가 내리면 출입을 못하는 거라.(그렇게 한테 또 주의보만 내리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지금 도항선 저 주의보가 내리면 출입을 못하는 거야.)

1010010 @ 음.(음.)

1010010 #1 이런 지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래도 네가 자녀들 넷 이라도 여기  
와서 살라고 권하고 싶질 아녀어.(이런 지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자  
녀들 넷 이라도 여기 와서 살라고 권하고 싶질 않아.)

1010010 @ 교육문제가 제일 크고예.(교육문제가 제일 크고요.)

1010010 #1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010010 @ ○○환경.(○○환경.)

1010010 #1 자녀들한테 똑 너이는 고향땅을 직허라 영 허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한테 똑 너희는 고향땅을 지키라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1010010 @ 우도는 앞으로 어떻 변해시민 좋으쿠과? 자식, 우도 전체 마을 머 자연환  
경 다 해기네.(우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식, 우도 전체 마을 뭐 자  
연환경 다 해서.)

1010010 #1 참 나 고민을 많이 해집니다게. 머 개방을 해야 돼느냐 으, 아니면 땅을  
그대로 지켜야 돼느냐, 게 우리 ㄴ뜨면 우리가 편리한대로 쫓 개방도 해야되고 또 이  
자연도 쫓 훼손도 해야 돼여.(참 나 고민을 많이 해집니다. 뭐 개방을 해야 되느냐 오,  
아니면 땅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편리한대로 쫓 개방도 해  
야되고 또 이 자연도 쫓 훼손도 해야 돼.)

1010010 @ 음.(음.)

1010010 #1 지금 현재 우리 해안곳에 가면은 쫓 이제 그 진입노 어장 진입노, 툇 ㄴ  
튼 거 캐면.(지금 현재 우리 해안가에 가면은 쫓 이제 그 진입로 어장 진입로, 툇 같은  
거 캐면.)

1010010 @ 음.(음.)

1010010 #1 그걸 경운기로나 뭐 차로 실코 육상터레 오라 와야돼여.(그걸 경운기로나  
뭐 차로 실고 육상으로 와 와야 돼.)

1010010 @ 예.(예.)

1010010 #1 훼손을 해서 저 포장을 안하면 올라 올 수가 없지 그레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 훼손이라고 해서 과거에 못하게 해놔다고 행정에서 자연훼손 시킨다고, 경 해도 우리 몰래 짚고 억지로 해서 짚고 우리는 그런데로 허는데 어떤 부락에는 어떻게 못해갖고 헌는 부락도 있다고.(훼손을 해서 저 포장을 안으면 올라 올 수가 없지 그리로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 훼손이라고 해서 과거에 못하게 했다고 행정에서 자연 훼손시킨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 몰래 조금하고 억지로 해서 조금 우리는 그런대로 하는데 어떤 부락에는 어떻게 못해가지고 하는 부락도 있다고.)

1010010 @ 예.(예.)

1010010 #1 게난 그런 거 조금 용서해 줘야 되겠고 겐디 으 근래 와서는 행정에서 조금 용서는 허기는 헌다고 허는데.(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용서해 줘야 되겠고 그런데요 근래 와서는 행정에서 조금 용서는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1010010 @ 예.(예.)

1010010 #1 첫째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다 늙은 사람들만 살아노니까.(첫째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다 늙은 사람들만 살아서.)

1010010 @ 예.(예.)

1010010 #1 또 젊은 사람들만 저기서 구 흘라고 하니까 시간상 도항선 시간이나 시간상으로 저 큰섬에 사람보단 사람을 빌면은 한 시간내지 두 시간을 일을 덜 시켜야 돼, 시간상으로, 도항선 배.(또 젊은 사람들만 저기서 구하려고 하니까 시간상 도항선 시간이나 시간상으로 저 제주에 사람보단 사람을 빌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일을 덜 시켜야 돼, 시간상으로, 도항선 배.)

1010010 @ 남은 시간에.(남은 시간에.)

1010010 #1 맞창 다닐려고 할당 보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또 인건비는 좀 더 비싸지 여기는 도립공원이 되기 때문에 도항선비 공원 입장료 하다보면 스 천원 더 네야 돼여.(맞춰서 다니려고 하다가 보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또 인건비는 좀 더 비싸지 여기는 도립공원이 되기 때문에 도항선비 공원 입장료 하다보면 사천 원 더 내야 돼.)

1010010 @ 어.(어.)

1010010 #1 한 사람이 여기 왔다 갈라고하면 스천 원 더 네야돼지 시간상으로는 지금 한 두 시간을 일 못 해야돼지 지금. 그런 여건에서도 할 수 없이 사람을 빌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한 사람이 여기 왔다 가려고하면 사천 원 더 내야 돼지 시간상으로는 지금 한 두 시간을 일 못 해야 돼지 지금. 그런 여건에서도 할 수 없이 사람을 빌어서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1010010 @ 응.(응.)

1010010 #1 잇는데 그런 여건이 나쁘고 으, 저기는 으숫시만 되면 밭디 강 앓는데 여기는 으둑 시나 돼야 밭디 강 안꺼든 아침 되도.(잇는데 그런 여건이 나쁘고 으, 저기는 여섯시만 되면 밭에 가서 앓는데 여기는 여덟시나 돼야 밭에 가서 앓거든 아침 되도.)

1010010 @ 예.(예.)

1010010 #1 그러니까 혼 두 시간 차이가 나고 딱시 혼 삼십분 또 먼저 갈라고 해여.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차이가 나고 다시 한 삼십분 또 먼저 가려고 해.)

1010010 @ 예.(예.)

1010010 #1 갈 사람도 도항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면에 있어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또 양식 그든 것도 할라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양식은 단지가 돼야 돼는데.(갈 사람도 도항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면에 있어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또 양식 같은 것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양식은 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1010010 @ 예.(예.)

1010010 #1 예 켜데 육지 큰섬엔 보면은 계도.(예 그런데 육지 제주에는 보면은 그래도.)

1010010 @ 양식하는.(양식하는.)

1010010 #1 마을마다 짝끔씩 양식하는 디가 잇잖아요.(마을마다 조금씩 양식하는 데가 잇잖아요.)

1010010 @ 예.(예.)

1010010 #1 청정환경을 만들라고 하고 잠수들 사람이 우선 크니까.(청정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잠수들 사람이 우선 크니까.)

1010010 @ 예.(예.)

1010010 #1 그거 반 저 잠수들이 반대를 해서 못해요 지금. 또 젊은 사람이 누게 할라는 사람도 엇곡.(그거 반 저 잠수들이 반대를 해서 못해요 지금. 또 젊은 사람이 누구 하려는 사람도 없고.)

1010010 @ 음.(음.)

1010010 #1 투자가 많이 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으 할라면 딱시 잠지역에서 반대 할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투자가 많이 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오 하려면 다시 좀 지역에서 반대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10010 @ 음.(음.)

1010010 #1 이렇게 하는데 임시는 그자 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사람덜한테 그자 으 그저 하다가 그 사람덜 이용해서 돈벌이할라고 하는 사람뻘이 없어요 지금.(이렇게 하는데 임시는 그저 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저 오 그저 하다가 그 사람들 이용해서 돈벌이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1010010 @ 예. 그 사람덜이 오니까 복잡복잡하는 게.(예. 그 사람들이 오니까 복잡복잡하는 게.)

1010010 #1 또 그 사람덜이 여기서 자진 안 허지, 앞으로 이제 다섯 시만 되면 뭐 도깨비 날 정도로 돼여 다 가버려요 그 사람덜[싸름덜].(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지는 않지, 앞으로 이제 다섯 시만 되면 뭐 도깨비 날 정도로 돼 다 가버려요 그 사람들.)

1010010 @ 맞수다.(맞습니다.)

1010010 #1 오, 아침 열씨썸 해여 여기 왔다가 확 하게 돌아갔고 다 저기 가서 자는데 여기서 자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지금.(오, 아침 열씨썸 해서 여기 왔다가 확 하게 돌아가고 다 저기 가서 자는데 여기서 자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지금.)

1010010 @ 예.(예.)

1010010 #1 가끔 그런대로 짝금 여기 숙박시설도 있고 짝금 잘라고 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가끔 그런대로 조금 여기 숙박시설도 있고 조금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1010010 @ 계난 다섯시만 되면 도체비 나온덴 해서.(그러니까 다섯 시만 되면 도깨비 나온다고 해서.)

1010010 #1 예.(예.)

1010010 @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청정해역도 좋긴 좋은디.(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청정해역도 좋긴 좋은데.)

1010010 #1 예. 좋은데.(예. 좋은데.)

1010010 @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서는.(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는.)

1010010 #1 예.(예.)

1010010 @ 걱정도 되고예.(걱정도 되고요.)

1010010 #1 그렇다고 청정해역이라고 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청정해역이라고 상표를 부찌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그렇다고 청정해역이라고 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청정해역이라고 상표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1010010 @ 예.(예.)

1010010 #1 오.(오.)

1010010 @ 자식들은 어디나 영 촌에 영 봐도예. 자식들은 다 저 일자리 좇앙 저 직장 좇앙.(자식들은 어디나 이렇게 촌에 이렇게 봐도요 자식들은 다 저 일자리 찾아서 저 직장 찾아서.)

1010010 #1 저 이농현상은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우도만 아니라.(저 이농현상은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우도만 아니라.)

1010010 @ 예.(예.)

1010010 #1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지 이농현상은.(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지 이농현상은.)

1010010 @ 예. 그렇긴 허우다.(예. 그렇긴 합니다.)

1010010 #1 농사 지어근에 수지 안 맞는다는 건 세계적인 문제고.(농사 지어서 수지 안 맞는다는 건 세계적인 문제고.)

1010010 @ 예. 경 험겨우다.(예. 그렇게 할 겁니다.)

1010010 #1 번저 가는데 그렇지만은 또 이제 생산허는 사람도 죽고.(번저 가는데 그렇지만은 또 이제 생산하는 사람도 작고.)

1010010 @ 응.(응.)

1010010 #1 어 사람이 많이 살아놔야 되는데 지금 칠십년 육십년 대까지만 하여도 여기 육십년 대로부터 칠십년 대만 해도 삼천칠백 삼천오백 인구가 되던게, 이제 천칠백명 뺏기 안 되니까.(어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칠십년 육십년 대 까지만 해도 여기 육십년대로 부터 칠십년 대만 해도 삼천칠백 삼천오백 인구가 되던 것이, 이제 천칠백 명밖에 안되니까.)

1010010 @ 예.(예.)

1010010 #1 경뻘기 안 돼주 지금 열한 개 열두 개 마을 해기네 천칠백 명이라는 거 아닛과.(그렇게밖에 안 되지 지금 열한 개 열두 개 마을 해서 천칠백 명이라는 거 아닛니까)

1010010 #1 으 그렇게 뺏기 안 되는 거지 지금.(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1010010 @ 예. 이제 초등학생 수는 몇 명잇과.(예. 이제 초등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1010010 #1 초등 아이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한 칠십 명인가 되고.(초등 아이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한 칠십 명인가 되고.)

1010010 @ 칠십 명마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칠십 명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10010 #1 응, 중학교가 한.(응, 중학교가 한.)

1010010 @ 중학교가 통합 뻘주예.(중학교가 통합 뻘지요.)

1010010 #1 삼십 명 이십 오명내지 삼십 명 뻘 거라. 백 명만 뻘어도 폐교는 안 뻘 겁니다.(삼십 명 이십 오명내지 삼십 명 뻘 거야. 백 명만 뻘어도 폐교는 안 뻘 겁니다.)

1010010 @ 응.(응.)

1010010 #1 분교도 안 되고, 저 본교가 뻘긴 뻘 겁니다게. 우리 우에 특수지구기 때 문에, 어떻게 해난 교육당국에서 배려를 해주지 안헐까 이런 생각인데 겐디 그 이하로 떨어질까 걱정이 뻘니다게 지금.(분교도 안 되고, 저 본교가 뻘긴 뻘 겁니다게. 우리 위 에 특수지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배려를 해주지 았을까 이런 생각인 데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질까 걱정이 뻘니다게 지금.)

1010010 @ 음, 예. 교육이 제일 걱정인게예. 삼촌.(음, 예. 교육이 제일 걱정이네요 삼촌.)

1010010 #1 예. 첫째는 으세 뻘니뻘니 해도, 자식 잘 키워야 여건이 좋와야 되는데 도 여건 중에서도.(예. 첫째는 요새 뻘니뻘니 해도, 자식 잘 키워야 여건이 좋아야 되는 데 도 여건 중에서도.)

1010010 @ 예.(예.)

1010010 #1 으세는 학원교육시대기 때문에 옛날은 학원교육 아닌 본 교육만 뻘어도 겐사도 나오곡 판사도 뻘주만은, 이제는 학원교육 아니문 뻘떨어지지 아무래도. 나가 겐작하는 데로 그렇게 생각하여.(요새는 학원교육시대기 때문에 옛날은 학원교육 아닌 본 교육만 뻘어도 겐사도 나오고 판사도 뻘지만은, 이제는 학원교육 아니면 뻘떨어지지 아무래도. 나가 겐작하는 데로 그렇게 생각해.)

1010010 @ 예.(예.)

## 2. 제보자 일생

102001 @ 이번은예.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거 한번.(이번은요.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거 한번.)

102001 #1 사십 년도에 지금 어머니가 나가 나기는 저 부산 용당이엔 현디 있어났어요. 어머니가 출가해녀 해갔고.(사십 년도에 지금 어머니가 나가 나기는 저 부산 용당이라고 한테 있었어요. 어머니가 출가해녀 해가지고.)

102001 @ 아, 출가해녀예.(아, 출가해녀요.)

102001 #1 어, 출가해녀 해갔고 용당에서 낫는데, 나가 혼 세 살 네 살 네 살쯤 돼갔고 다섯 살쯤에 우도에 들어왔어요.(어, 출가해녀 해가지고 용당에서 낳았는데, 나가 한 세 살 네 살 네 살쯤 되어가지고 다섯 살쯤에 우도에 들어왔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ㄴ찌 출가를 했는데 술만 먹고 맨 날 술만 먹고 화투만 치고 ㅎ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거기 살앙은 성공을 못 할 거 같으니까 이제 남편보고 제주에 가 살자 제주에 가서 살자고 해서 제주에 들어와서, 이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같이 출가를 했는데 술만 먹고 맨 날 술만 먹고 화투만 치고 하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거기 살아서은 성공을 못 할 거 같으니까 이제 남편보고 제주에 가 살자 제주에 가서 살자고 해서 제주에 들어와서, 이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아버지가, 친구백사십오 년도에 해방되는 해에 저 제주시에 이제 저 징용으로 ㄴ지 갔다 왔어요. 지금 저 아 아버지가, 갔다 와네 그 해에 해방 됐니까 ㅁ 오 월 달쯤에 징용에 갓당 해방 됐언 돌아 왔는데.(아버지가, 친구백사십오 년도에 해방되는 해에 저 제주시에 이제 저 징용으로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저 아 아버지가, 갔다 와서 그 해에 해방 되니까 오 오월 달쯤에 징용에 갔다가 해방 되어 돌아 왔는데.)

102001 @ 아.(아.)

102001 #1 해방 됐어네 혼 혼 들만이 늑막염으로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그래요.(해방 되어서 한 한 달만에 늑막염으로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102001 @ 예.(예.)

102001 #1 지금 나가 알기로는, 늑막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ㅁ쫓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네가 춤 학교에서 겨우 중학교까지 다닌 것도 나가.(지금 나가 알기로는, 늑막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여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가 참 학교에서 겨우 중학교까지 다닌 것도 나가.)

102001 @ 예.(예.)

102001 #1 큰 형님이 이제 군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혜여 어머니가 연금

을 조금 탔어요.(큰 형님이 이제 군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해서 어머니가 연금을 조금 탔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그 돈으로 네가 공납금을 내갖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중학교 졸업장을.(그 돈으로 내가 공납금을 내어가지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중학교 졸업장을.)

102001 @ 예.

102001 #1 받았는데 나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덜도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받았는데 나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지금 젠디 어머니가 참 나보고 게도 웰 수 이시민 공부를 허라고, 어머니가 홀어머니라도 학교를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걸로 공납금을 놔서 중학교 졸업장은 받았는데 그때도 홀어머니 자식이 돼노니까.(지금 그런데 어머니가 참 나보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하라고, 어머니가 홀어머니라도 학교를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또 그걸로 공납금을 놔서 중학교 졸업장은 받았는데 그때도 홀어머니 자식이 돼서.)

102001 @ 예.(예.)

102001 #1 그 내선배가 그때 잇었어 여기 살았는디 나보다 세 살 우인디 아, 그 선배가 담배도 ㄴ찌 피와보자 또 화투도 치레 가는디 ㄴ치 나 딸아오라고 해서 같이 가다보니까 담배도 열다섯 살에 담배도 피웁꼬.(그 내선배가 그때 잇었어 여기 살았는디 나보다 세 살 윈데 아, 그 선배가 담배도 같이 피워보자 또 화투도 치러 가는데 같이 나 따라오라고 해서 같이 가다보니까 담배도 열다섯 살에 담배도 피우고.)

102001 @ 음.(음.)

102001 #1 화투도 그 사름도 그추록 허다보니까 ㅎ쫄 일찍 배웁꼬, 네가 청년 시절에는 화투도 아주 참 망나이질 했지.(화투도 그 사름도 그처럼 하다보니까 조금 일찍 배우고, 네가 청년 시절에는 화투도 아주 참 망나니질 했지.)

102001 @ 으.(으.)

102001 #1 그러다가 으 우에 잇는 그 김○○ 씨렌 ㅎ 분이 아주 유식한 분이 잇었다고 그 분이 나 부모ㄴ찌 해서 네가 그 분이 추대 해갖고 여기서 나가 열아홉 살 때 부락장을 했어요. 젊은 사름 엇이니까 부락장 할 사름 엇이니까 그레 나보고 약관 동장 나왔다고 그렇게 해났어요.(그러다가 요 위에 잇는 그 김○○ 씨라고 한 분이 아주 유식한 분이 있었다고 그 분이 나 부모같이 해서 나가 그 분이 추대 해가지고 여기서 나가 열아홉 살 때 부락장을 했어요. 젊은 사름 없으니까 부락장 할 사름 없으니까 그레 나보고 약관 동장 나왔다고 그렇게 했어요.)

102001 @ 아.(아.)

102001 #1 약관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약관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102001 @ 스무 살에.(스무 살에.)

102001 #1 이 사름아, 지금 어렷 때 벼슬 할 때 벼슬하는 것이 약관이렌 ㅎ는 게 아닌가. 으 그 분이 항상 김옥균이 말을 항상 나신디 와서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해 냈어



요.(이 사람아, 지금 어릴 때 벼슬 할 때 벼슬하는 것이 약관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오 그 분이 항상 김옥균이 말을 항상 나한테 와서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했어 요.)

102001 @ 아.(아.)

102001 #1 오 그 분이 또 역사를 좋아 해갖고 흐룬 나한테 와서 이 사람아 김옥균이 는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았신가. 오 또 이제 김성숙은 어떤 사람인줄 알았신가 해서 그 사람이 춤 나신디 와서 그런 이야길 해갖고.(오 그 분이 또 역사를 좋아 해가지고 하루 는 나한테 와서 이 사람아 김옥균이는 어떤 사람인 줄은 알고 있는가. 오 또 이제 김성숙은 어떤 사람인줄 알고 있는가 해서 그 사람이 참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길 해가지고.)

102001 @ 예.(예.)

102001 #1 이 사람아 책을 보자, 그 사람이 나한테 권하는데 나 그래서 육십오년도에 육십스년도에 디엠프렛드에 근무했어요.(이 사람아 책을 보자, 그 사람이 나한테 권하건 데 나 그래서 육십오년도에 육십사년도에 ‘디엠프렛드’에 근무했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디엠프렛드, 전방에.(‘디엠프렛드’, 전방에.)

102001 @ 아, 디엠지.(아, ‘디엠지’.)

102001 #1 군에 군에 갖고 전방에 가서 근무하면서 나 책을 본 사람이여 학교 저 교 육실에 있는 거를 거 내무반에 책 있잖아요.(군대에 군대에 갔고 전방에 가서 근무하면 서 나 책을 본 사람이야 학교 저 교육실에 있는 거를 거 내무반에 책 있잖아요.)

102001 @ 예.(예.)

102001 #1 일반 잡지책 책을 보면서까지 했고 그 후에도 네가 춤 시간 이시민 공부 를 해야 되겠다고 책을 많이 보기도 봤어요게.(일반 잡지책 책을 보면서까지 했고 그 후에도 내가 참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책을 많이 보기도 봤어요게.)

102001 @ 예.(예.)

102001 #1 보았는데 그래도 네가 가난 했어요게. 정말 눈물이 나요 저[울음이 터짐] 네가 이 마을에서 일곱 밭디 중매를 샀어요.(보았는데 그래도 내가 가난 했어요게. 정말 눈물이 나요 저 (울) 내가 이 마을에서 일곱 군데 중매를 샀어요.)

102001 @ 아.(아.)

102001 #1 처녀 달라고, 게 가난뱅이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어찌다보니까 이 사람이 춤 네 아버지가 중매를 해네 네가 결혼을 했는데, 춤 나 자서전을 쓸라고 해도 으세 이 것저것 춤 감투를 많이 쓰다보니까 또 네가 욕심이 세 갖고 지금도 농사를 스천오백 평 을 농사를 관리하고 있어요게. 이렇게 하는데 작은아들 두 번째 아들 서울 있는 두 번 제 아들 꼭 쓰라고 영 했는데 언젠가는 꼭 써야 되겠어요.(처녀 달라고, 그럼 가난뱅이 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어찌다보니까 이 사람이 참 내 아버지가 중매를 해서 내가 결혼 을 했는데, 차 나 자서전을 쓰려고 해도 요새 이것저것 참 감투를 많이 쓰다보니까 또 내가 욕심이 세 가지고 지금도 농사를 사천오백 평을 농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작은아들 두 번째 아들 서울 있는 두 번째 아들 꼭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

가는 꼭 써야 되겠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다문 댕 페이지라도, 겐디 옛날 산 이야길 흘라고하면 우리 큰아덜 왜 그때는 옛날 아넵니까?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 게고 또 난 너네들 공불 시길랴고 이렇게 예를 췌노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 헐 노릇 아넵니까.(다만 댕 페이지라도, 그런데 옛날 산 이야길 하려고하면 우리 큰아들 왜 그때는 옛날 아넵니까?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 그리고 또 난 너희들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췌노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 할 노릇 아넵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이런 말을 허면 헐 말이 없어요.(이런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102001 @ 아.(아.)

102001 #1 헐 일은 헐 일인데 게민 년 왜 학교에 가서 역스 교육을 뵤느냐 게도 아바지 헛던 걸 게도 귀담아 들어 봐야 뵤 거 아니냐, 으, 이렇게 해도 즈식덜은 그걸 몰라줍니다. 그거 경 헉데 우리 두 번째 서울아들은 또 다른 아들광 달라서 내가 과거를 참 많이 들을랴곤 하는데.(할 일은 할 일인데 그러면 년 왜 학교에 가서 역사 교육을 배우느냐 그래도 아버지 헛던 걸 그래도 귀담아 들어봐야 뵤 거 아니냐, 오, 이렇게 해도 자식들은 그걸 몰라줍니다. 그거 그렇게 한데 우리 두 번째 서울 아들은 또 다른 아들하고 달라서 내가 과거를 참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102001 @ 삼춘 요 자만 빼긴에 해줍서.(삼춘 요 자만 빼서 해주십시오.)

102001 #1 으?(으?)

102001 @ 요, 요 허난 해근에 요는 표준말로 이 서울말 표현이라부니까 우리 제주도 저기 소섬 말 허젠 허니까.(요, 요 하니까 해서 요는 표준말로 이 서울말 표현이어서 우리 제주도 저기 우도 말 하려고 하니까.)

102001 #1 아, 네가 군대에 가실 덕에 좀 표준어를 쓰면은 경기도 말 경기도 사름이라고 이렇게 해났어요게.(아, 네가 군대에 갔을 적에 좀 표준어를 쓰면 경기도 말 경기도 사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겐디 여기에 와서도 순 토백이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 헐.(그런데 여기에 와서도 순 토박이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2001 @ 예예. 지금은 토백이말로예.(예예. 지금은 토박이말로요.)

102001 #1 양심상 으 많이 허조 지금예.(양심상 오 많이 하조 지금요.)

102001 @ 예.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옛날 말이라부니까는 헛수다, 경 헛주, 경 안헤서예. 우스갯소리로 해뵤수다만은 요만 빼고예.(예.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옛날 말이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았았어요. 우스갯소리로 해뵤니다만 요만 빼고요.)

102001 #1 중학교를 다니게 고문 이상하게 중학교를 다니게 뵤요. 지금 그때겐 국민학곤 참 졸업 해갓고 중학교 갈 힘이 엇엇어. 저 일 년을 지났서요, 일 년을 날 지났는데.(중학교를 다니게 고문 이상하게 중학교를 다니게 되어요.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 참 졸

업해가지고 중학교 갈 힘이 없었어. 저 일 년을 지냈어요, 일 년을 날 지냈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아까 여기 왔던 형이 나하고 갑장인데 야, 두선아 우리 저 천초 우뭇가사리 메어갖고 공납금 낼 걸로 해서 고등학교 입학허자. 아, 계딘 그 친구하고 ㄱ치 가서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했어요게.(아까 여기 왔던 형이 나하고 갑장인데 야, 두선아 우리 저 천초 우뭇가사리 매가지고 공납금 낼 걸로 해서 고등학교 입학하자. 아, 그런데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서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했어.)

102001 @ 아.(아.)

102001 #1 경 학교 그 앞서.(그렇게 하고 그 앞에.)

102001 @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 어디에마씨.(고등학교는 어느 학교 어디예요.)

102001 #1 여기에 고등국민학교 중학교 인가 나기 이전에.(여기에 고등국민학교 중학교 인가 나기 이전에.)

102001 @ 아, 고등국민학교.(아, 고등국민학교.)

102001 #1 오 고등국민학교.(오, 고등국민학교.)

102001 @ 예.(예.)

102001 #1 나가 여기 고등국민학교가 여기에서 천구백 혼 스십팔년도엔가 고등학교 설립을 해놔어요.(내가 여기 고등국민학교가 여기에서 천구백 한 사십팔년도인가 고등학교 설립을 했었어.)

102001 @ 예.(예.)

102001 #1 설립이 돼어서 이제 그 고등학교 공민학교 허다가 나가 우리가 들어간 후에 오십삼년도에, 오 오십스년도에 입학한 후에 여기에 고태주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여기 중학교 아니 저 초등학교 여기 출신인데 저 교장으로 있었어요, 여기.(설립이 돼어서 이제 그 고등학교 공민학교 하다가 내가 우리가 들어간 후에 오십삼년도에, 오 오십사년도에 입학한 후에 여기에 고태주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여기 중학교 아니 저 초등학교 여기 출신인데 저 교장으로 있었어요, 여기.)

102001 @ 예.(예.)

102001 #1 그 분이 고등학교 저 고등국민학교 설립도 그 분이 했고 또 중학교 인가도 그 분이 노력해서, 지금 이제 시켜줬어요 저 인가를 받은 건 왜냐하면 그때가 부○○ 씨라고 도 학무과장이 부○○ 씨라고 지금 구좌 출신 구좌읍 출신이랴어요.(그 분이 고등학교 저 고등국민학교 설립도 그 분이 했고 또 중학교 인가도 그 분이 노력해서, 지금 이제 시켜줬어요 저 인가를 받은 건 왜냐하면 그때가 부○○ 씨라고 도 학무과장이 부○○ 씨라고 지금 구좌 출신 구좌읍 출신이었어요.)

102001 @ 음.(음.)

102001 #1 그래서 지역이 가까우니까 그 분한테 가서 아, 우도 지금 중학교 인가받게 해달라고 당신이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참 우리 중학교 인가받게 했어요게.(그래서 지역이 가까우니까 그 분한테 가서 아, 우도 지금 중학교 인가받게 해달라고 당신이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참 우리 중학교 인가

를 받게 했어요.)

102001 @ 음.(음.)

102001 #1 그래서 그 분이 후배들이 만해요 지금, 퇴직 할 때까지 한 삼십년 한 삼십년 동안 여기 우도에서만 근무했어요. 오, 지금 근무해서 퇴직을 하다가 그 영감이 게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저 나 왜가론 나에게 팔촌빠릇인데 에 돌아갔는데, 그 분이 송덕비도 우리 세와있어요.(그래서 그 분이 후배들이 많아요 지금, 퇴직 할 때까지 한 삼십년 한 삼십년 동안 여기 우도에서만 근무했어요. 오, 지금 근무해서 퇴직을 하다가 그 영감이 게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저 나 외가로는 나에게 팔촌빨인데 에 돌아갔는데, 그 분이 송덕비도 우리 세웠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겐디 공덕비를 세와줘야 게 송덕비하고 공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송덕비를 세와갖고 지금 구 초등학교 자리에 그대로 세와 있어요, 이제.(그런데 공덕비를 세워줘야 그럼 송덕비하고 공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송덕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구 초등학교 자리에 그대로 세워 있어요, 이제.)

102001 @ 아.(아.)

102001 #1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내가 정신을 차려갖고, 그 분도 공덕비도 우리 중학교에, 세우게 해드려야 되는데 공덕비하고 송덕비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가 그걸 참 분석해갖고 공덕비를 세와 드려야 되겠고.(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분도 공덕비도 우리 중학교에, 세우게 해드려야 되는데 공덕비하고 송덕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내가 그걸 참 분석해가지고 공덕비를 세워드려야 되겠고.)

102001 @ 예.(예.)

102001 #1 지금 또 그 왜로 우리 중학교 설립을 하는데 천백 평을 부지를 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 행년 저 행년 씨라고 아 그 분이 어떻게 착오 돼갖고 지금 기록상으론 오백 평만 지금 회사한 결로 돼어 있어서 나가 그 분도 이제 공덕비를 세와주겠끔 해야 되는데.(지금 또 그 왜로 우리 중학교 설립을 하는데 천백 평을 부지를 내놓은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분 행년 저 행년 씨라고 아 그 분이 어떻게 착오 되어가지고 지금 기록상으론 오백 평만 지금 회사한 결로 되어 있어서 내가 그 분도 이제 공덕비를 세워주게끔 해야 되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내가 육성회장 때에 이제 그 비를 세울려고 하니까 그 비보다 그 사람보다 더 앞서 먼저 세울 사람이 있어갖고 못 세와갖고 이제 지금 그 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가정 일에 이거 신경을 쓰다보니까 돈만 벌려 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지금 우선 선공후사라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욕심이 많아서예.(내가 육성회장 때에 이제 그 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비보다 그 사람보다 더 앞서 먼저 세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못 세워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가정 일에 이거 신경을 쓰다보니까 돈만 벌려 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지금 우선 선공후사라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욕심이 많아서요.)

102001 @ 예.(예.)

102001 #1 개인 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잊어요게.(개인 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잊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지금 이제. 그래서 춤 나가 이제 막춤에 끼리고 있는데.(지금 이제. 그래서 춤 내가 이제 막춤에 끼리고 있는데.)

102001 @ 아.(아.)

102001 #1 그래서 춤 나가 으 으 으 집에 밖거리에 오년 동안 늬이 집 살았어요, 칠년 동안, 남이 이제 밖거리 그때는 이제 돈을 안 줬어요, 방만 빌고 살았는데.(그래서 춤 나가 요 요 요 집에 바깥채에 오년 동안 남의 집 살았어요, 칠년 동안, 남의 이제 바깥채 그때는 이제 돈을 안 줬어요, 방만 빌리고 살았는데.)

102001 @ 아.(아.)

102001 #1 여기에 오년 살고 요 집이 이제 해고 해서 칠십삼년도에 여기 이제 초가집으로 그때 돈 구만천 원 쥐갖고 이 집을 사 갖고 와 갖고 나대로 쓰레뜨 다 올리고 이것도 나 손으로 다 한 거요 이거 안백 하는 것도.(여기에 오년 살고 요 집에 이제 하고 해서 칠십삼년도에 여기 이제 초가집으로 그때 돈 구만천 원 쥐가지고 이 집을 사가지고 와 가지고 나대로 슬레이트도 다 올리고 이것도 내 손으로 다 한 거요 이거 안백 하는 것도.)

102001 @ 아.(아.)

102001 #1 이 벽 7튼 것도 나 손으로 다 불리고, 이게 이제 칠십일년도에 이 저 쓰레뜨를 올렸어요. 아 저 칠십삼년도에.(이 벽 같은 것도 나 손으로 다 바르고, 이게 이제 칠십일 년도에 이 저 슬레이트를 올렸어요. 아 저 칠십삼 년도에.)

102001 @ 예.(예.)

102001 #1 에 쓰레뜨를 올려갖고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경 혼디 나가 좀 삼형제 어머니가 삼형제 나고 또 딸 하나 나갖고 딱 형제만 낳고 다 죽어버리고 나 하나뿐이우다게.(에 슬레이트를 올려가지고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참 삼형제 어머니가 삼형제 낳고 또 딸 하나 낳아가지고 딱 형제만 낳고 다 죽어버리고 나 하나뿐입니다.)

102001 @ 아.(아.)

102001 #1 어머니가 좀 에 구십오년도에 돌아갔는데 팔십다섯 살에 돌아가셨어요. 나가 그때 병원에만 갓이민 살았을런지 모르지 아직도 살아시민 백다섯 살인데.(어머니가 좀 에 구십오년도에 돌아갔는데 팔십다섯 살에 돌아가셨어요. 나가 그때 병원에만 갓으면 살았을는지 모르지 아직도 살았으면 백다섯 살인데.)

102001 @ 예.(예.)

102001 #1 나 그때 간염 걸려갖고 골골했다고.(나 그때 간염 걸려가지고 골골했다고.)

102001 @ 아.(아.)

102001 #1 나 그때 이장 말기라 구십이년도에 이장 해갖고 구십삼사년도에 간염 걸려갖고 내가 우울증도 걸리고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지릅디게.(나 그때 이장 말기라 구십이년도에 이장 해가지고 구십삼사년도에 간염 걸려가지고 내가 우울증도 걸리고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겠습디다.)

102001 @ 예.(예.)

102001 #1 게, 어머니가 이제 그 앞서 도립병원에서 그 간 쓸개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한 일주일 만에 치료를 받았어요.(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앞서 도립병원에서 그 간 쓸개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한 일주일 만에 치료를 받았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이런 증상이 돌아 또 뒤편이될 줄 모르니까 멍심허렌 했는데 아 내가 죽게 되니까 그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이런 증상이 돌아 또 되풀이될 줄 모르니까 명심하라고 했는데 아 내가 죽게 되니까 그거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게 어머니 나 앞이 돌아가야 됩디다, 나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했어요게.(그래, 어머니 나 앞에 돌아가야 됩디다, 나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102001 @ 아.(아.)

102001 #1 이제 오 남매 나갖고 나만 나가지 죽으면 어머니 더 험하니까 팔십 스 세까지 살아시니까 어머니 할 수가 엇수다 하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엇다 그래도 스십일 만에 저 방에서 돌아가셨어요게.(이제 오 남매 돌아가시고 나만 나가지 죽으면 어머니 더 험하니까 팔십사 세까지 살았으니까 어머니 할 수가 없습디다, 하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엇다 그래도 사십일 만에 저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잡음) 저 후회가 납니다. 지금만이라도 건강해시민.((잡음) 저 후회가 납니다. 지금만이라도 건강했으면.)

102001 @ 아.(아.)

102001 #1 나가 왜 병원에 어머니를 못 데려가느냐 아이들하고 그렇게 얘기해예.(내가 왜 병원에 어머니를 못 데려가느냐 아이들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102001 @ 예.(예.)

102001 #1 참, 네가 항상 후배들 보고 경 합니다, 저 부모 불효 사 후회라고, 부모가 살아생전에 효도 못하고 죽어야 후회가 난다고.(참, 내가 항상 후배들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 부모 불효 사 후회라고, 부모가 살아생전에 효도 못하고 죽어야 후회가 난다고.)

102001 @ 예.(예.)

102001 #1 그 옛날 너무나 어렵게 살기 때문에 돈뵈기 모릅디다게. 돈 벌 생각만 지금도 해집니게.(그 옛날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밖에 모릅디다. 돈 벌 생각만 지금도 해집니다.)

102001 @ 예.(예.)

102001 #1 경 하고 또, 밧디 가서 일해야 속도 편하고 밥도 잘 먹어지고 줌도 잘 오  
곡 놀면은 줌도 잘 아니 오곡 먹음도 그렇고 그날 밧디 가서 물이라도 하나 허면 아,  
나 오늘 벌일 헤시니까 이런 먹음에서 밥도 잘 먹어지고 줌도 잘 오곡.(그렇게 하고 또,  
밭에 가서 일해야 속도 편하고 밥도 잘 먹어지고 줌도 잘 오고 놀면 줌도 잘 안 오고  
마음도 그렇고 그날 밧에 가서 물이라도 하나 하면 아, 나 오늘 벌일 했으니까 이런 마  
음에서 밥도 잘 먹어지고 줌도 잘 오고.)

102001 @ 음.(음.)

102001 #1 나 참 완전이 이기주이잡니다.(웃음).(나 참 완전히 이기주이 잡니다.(웃  
음).)

102001 @ 아이고 부지런하신 말씀이주마씨, 예.(아이고 부지런하신 말씀이지요, 예.)

102002 @ 계난 부모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주만은 배를 했구나예.  
배 출가물질을 나가놔텐 허니깐.(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  
지만은 배를 했군요. 배 출가물질을 나가셨다고 하니까.)

102002 #1 아, 그때 그 어릴 때.(아, 그때 그 어릴 때.)

102002 @ 예.(예.)

102002 #1 아버지가 젊은 때는 남이 집 머슴살이를 살았어요.(아버지가 젊은 때는 남  
의 집 머슴살이를 살았어요.)

102002 @ 아버지가.(아버지가.)

102002 #1 우리 하르버지가.(우리 할아버지가.)

102002 @ 예.(예.)

102002 #1 술만 먹고 호걸로 살았어요게. 술만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셋아바  
지나 우리 작은아버지나 다른 이 동네에 젊은이들은 다 서당에 보내곡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르버지는 즈식들 공부 시키질 아녀고 당신 술 먹고 호걸 할 생각만 해서.(술만  
먹고 호걸로 살았어요. 술만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둘째아버지나 우리 작은아버  
지나 다른 이 동네에 젊은이들은 다 서당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자  
식들 공부 시키질 았고 당신 술 먹고 호걸 할 생각만 해서.)

102002 @ 예.(예.)

102002 #1 우리 하르버지가 살아네 작은 하르버지 형제가 배를 헤여서 저립 나끄레  
가면 저립 저립 아까 말 한 거.(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서 작은 할아버지 형제가 배를 헤  
서 재방어 낚으리 가면 재방어 재방어 아까 말 한 거.)

102002 @ 예. 아까 말한 거예.(예. 아까 말한 거요.)

102002 #1 낚아오면 걸 폴아 갖고 돈 나오면 술이나 먹고.(낚아오면 걸 팔아 가지고  
돈 나오면 술이나 먹고.)

102002 @ 예.(예.)

102002 #1 이렇게 하면서 우리 웨하르버지가 워낙 사름이 유하니까, 그 참 친구 말을  
들어갖고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시켰는데.(이렇게 하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워낙 사  
람이 유하니까, 그 참 친구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02002 @ 예.(예.)

1102002 #1 시켜서 아 우리 아버지가 또 어릴 때 경 고생해어나도 우리 어머니하고 저 용당이엔 혼 디 육질 가니까 술만 먹으면서 친구들 보아지면은 술 받아주기, 또 화투치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안정되게시리 거기 생활을 못하게 허드랍니다게. (시켜서 아 우리 아버지가 또 어릴 때 그렇게 고생했어도 우리 어머니하고 저 용당이라고 한 데 육질을 가니까 술만 먹으면서 친구들 보아지면은 술 받아주기, 또 화투치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안정되게끔 거기 생활을 못하게 하더랍니다.)

102002 @ 예.(예.)

102002 #1 그래서 여기 데려온 후에 일 년도 참 돼자마자 그렇게 헨 참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삼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밋집이 으 앞이 있는데 저기 이제 집을 폐가 시켜버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항상 우리 큰누님이 거 육이오 스변 때 가는 날.(그래서 여기 데려온 후에 일 년도 참 되자마자 그렇게 해서 참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삼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바깥채에 요 앞에 있는데 저기 이제 집을 폐가 시켜버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항상 우리 큰누님이 거 육이오 사변 때 가는 날.)

102002 @ 예.(예.)

102002 #1 조반밥도 못 먹고 갓다고 항상 죽어갈 때까지 울었어요, 거 아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 우이 형님은 성산포서 공사 성산 축항공사 헐다가 낙반사고로, 돌 떨어져서 죽었어요게.(조반밥도 못 먹고 갓다고 항상 죽어갈 때까지 울었어요, 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위의 형님은 성산포서 공사 성산 축항공사 하다가 낙반사고로, 돌 떨어져서 죽었어요.)

102002 @ 아.(아.)

102002 #1 형님들이 다 해서 그 덕으로 짝끔 네 재산은 짝끔 형님들이 멘들어 놓은 재산들은 있어요.(형님들이 다 해서 그 덕으로 조금 네 재산은 조금 형님들이 만들어 놓은 재산들은 있어요.)

102002 #4 예. 식사 어떻 헐 것과.(예. 식사 어떻게 할 겁니까.)

102002 @ 어수다, 어수다.(없습니다, 없습니다.)

102002 #4 미안 해언마씨게 라면이라도 끓여주면.(미안 해서요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102002 @ 전여 아니우다, 여기 말씀이 듣는 게 중해예.(전혀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 듣는 게 중해요.)

102002 #1 저 우리 할망허고 나허고 으 집이 시집 오란에 저녁 끓인 흐룻밤 잔 적도 있어요.(저 우리 할머니하고 나하고 요 집에 시집 와서 저녁 끓어서 하룻밤 잔 때도 있어요.)

102003 @ 예. 게 어머니는 물질 하섯고예.(예. 그럼 어머니는 물질 하섯고요.)

102003 #1 예.(예.)

102003 @ 원래 물질해네예.(원래 물질해서.)

102003 #1 예. 원래 물질 원래는 여깃 고향이랴는데 열세 살 때 우리 처남이 웨아들



이랴어요.(예. 원래 물질 원래는 여기 고향이었는데 열세 살 때 우리 처남이 외아들이었어요.)

102003 @ 예.(예.)

102003 #1 어디 심방안티 물으니까 타향살이 허지 말고 저 육지 남방 낡 살아야 잘 우리 하니까.(어디 심방한테 물으니까 타향살이 하지 말고 저 육지 남방 봐서 살아야 잘 우리 하니까.)

102003 #4 양 차 아니 끌여당 안네지.(예. 차 아니 끌여다가 드리지.)

102003 #1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동무덜 제주시 동국민<sup>71)</sup>학교 뒤에.(이 사람이 세 사람이 동무들 제주시 동국민학교 뒤에.)

102003 @ 예.(예.)

102003 #1 거기 강 자리 잡앙 살았어요게.(거기 가서 자리 잡아서 살았어요.)

102003 @ 아.(아.)

102003 #1 그때 초가삼간 마련해연 우리 장인어른이 초가삼간 해연에 우리 장모도 거기 남이 밭 빌면서 그때는 빌면서 농사했고 우리 장인어른도 노조 부두노조에 다니는데 하필이면 우리 장모가 반신불수 돼갖고 삼 년 동안.(그때 초가삼간 마련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초가삼간 해서 우리 장모도 거기 남의 밭 빌면서 그때는 빌면서 농사했고 우리 장인어른도 노조 부두노조에 다니는데 하필이면 우리 장모가 반신불수 되어가지고 삼 년 동안.)

102003 @ 아.(아.)

102003 #1 삼년 동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대소변을 머 했어요게.(삼년 동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대소변을 뭐 했어요.)

102003 @ 예.(예.)

102003 #1 약혼해도 좋은 데서 데려가겠다고 해도 차마 어머니를 놔둬 어떻 데려 갑네까? 시집갑네까게?(약혼해도 좋은 데서 데려가겠다고 해도 차마 어머니를 놔두어서 어떻게 데려 갑니까? 시집갑니까?)

102003 @ 아.(아.)

102003 #1 게서 이제.(그래서 이제.)

102003 #4 아, 무사 우리 어머니 역사를 다감수과?(아, 왜 우리 어머니 역사를 닦습니까?)

102003 #1 그 사람한테 씨집 못 갖다고 나한테 맨날 싸우면은 후회를 해서 싸웁네다.(그 사람한테 시집 못 갖다고 나한테 맨날 싸우면 후회를 해서 싸웁니다.)

102003 @ 아.(아.)

102003 #1 그 사람한테 씨집가면 잘 살 건데 나한테 와서 씨집와서 고생했노라고.(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잘 살 것인데 나한테 와서 시집와서 고생했노라고.)

102003 #4 팔자스주 풀이.(팔자사주 풀이.)

102003 @ 예.(예.)

---

71) '동국민학교'는 제주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가리킨다.

102003 #1 지금 어떤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허는데 그게 다 인연 아니우파.(지금 어떤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하는데 그게 다 인연 아닙니까.)

102003 @ 예예. 어머니는 몇 살 때까지 물질을 하셨수과?(예예. 어머니는 몇 살 때까지 물질을 하셨습니까?)

102003 #1 지금도 험니다 지금 열세 설부터 시작해갓고.(지금도 합니다 지금 열세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02003 @ 아, 저 우에 우리 어머니 말고 할머니 돌아가신 저 할머니.(아, 저 위에 우리 어머니 말고 할머니 돌아가신 저 할머니.)

102003 #1 팔십 세까진 헛습니다.(팔십 세까진 헛습니다.)

102003 @ 팔십 세 때까지예.(팔십 살 때까지요.)

102003 #1 예. 팔십 세까지 어머니도 헨 으 집이 어머니가, 우리 조카들이 잇었어요.(예. 팔십 세까지 어머니도 해서 요 집에 어머니가, 우리 조카들이 있었어요.)

102003 @ 예.(예.)

102003 #1 우리 나 우에 형님 그 사고 난 죽었다는 형님 그 자녀가 서 오녀이가 잇었는데.(우리 내 위의 형님 그 사고 나서 죽었다는 형님 그 자녀가 세 오누이가 있었는데.)

102003 @ 예.(예.)

102003 #1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데령 살던 도중에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나가게 돼고 해서 어머니 혼자만 잇게 되니 모셔다가 살았어요게.(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데려서 살던 도중에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나가게 되고 해서 어머니 혼자만 잇게 되니 모셔다가 살았어요.)

102003 @ 아, 거 어머니가 거 손지들을 키웠구나예.(아, 거 어머니가 거 손주들을 키웠군요.)

102003 #1 예. 어머니가 저 스고 난.(예. 어머니가 저 사고 나서.)

102003 #4 커피 저 무시것이 어디 가시니.(커피 저 무엇이 어디 갔니.)

102003 #1 죽은 손지덜 키웠어요.(죽은 손주들 키웠어요.)

102003 @ 예. 경 헛구나예.(예. 그렇게 헛군요.)

102003 #1 견데 그 손지 중에 큰손자가 이제 원일곱인데.(그런데 그 손주 중에 큰손주가 이제 원일곱인데.)

102003 #4 예. 코드 어디 벗수과? 이디 코드.(예. 코드 어디 버렸습니까? 코드.)

102003 #1 이거 아니라 코드는게 여기서 켜야주게.(이거 아니야 코드는 여기서 켜야지.)

102003 @ 음.(음.)

102003 #1 원일곱인데 ○○○ 돼갓고 지금 ○○○, 게고 저 또 이제 밑에 저 수산 그디 저 시집간 살고.(원일곱인데 ○○○ 되가지고 지금 ○○○, 그리고 저 또 이제 밑에 저 수산 거기 저 시집가서 살고.)

102003 @ 예.(예.)

102003 #1 또 막내는 학교도 못 탕겼어요. 학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일학년인가 중퇴 해네 좀 자기데로 독학 하여네 한글을 겨우 알정도 허다가.(또 막내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 일학년인가 중퇴해서 좀 자기대로 독학 해서 한글을 겨우 알정도 하다가.)

102003 @ 예. 삼춘 어린 때예. 어린 때.(예. 삼춘 어린 때요. 어린 때.)

102003 #1 예.(예.)

102004 @ 동네 아이들 허고 놀아난 기억이 이시민예. 한 번 골아줍서 어떤 놀이를 해나수과? 자치기여 뭐.(동네 아이들 허고 놀아난 기억이 있으면요. 한 번 말해주십시오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자치기다 뭐.)

102004 #1 그때 놀 떡이는 자 치기 허고 무단치기<sup>72)</sup>.(그때 놀 적에는 자치기하고 ‘부단치기’.)

102004 @ 예? 자치기허고.(예? 자치기하고.)

102004 #1 또 무단치기.(또 ‘부단치기’.)

102004 @ 무단치기?(‘부단치기’?)

102004 #1 예. 이렇게 돌 세워갖고.(예. 이렇게 돌 세워가지고.)

102004 @ 예.(예.)

102004 #1 이제 돌 세워갖고 돌 심어갖고 마칩니다게.(이제 돌 세워가지고 돌 잡아가지고 맞춥니다.)

102004 @ 그걸 무단치기엔 해나수과.(그걸 ‘부단치기’라고 했습니까.)

102004 #1 예 무단치기엔 해나서 무단치기.(예 ‘부단치기’라고 했어 ‘부단치기’.)

102004 @ 무단치기?(부단치기?)

102004 #1 예. 무단치기.(예. ‘부단치기’.)

102004 @ 예. 경 하고 또.(예. 그렇게 하고 또.)

102004 #1 쪼끼차기.(제기차기.)

102004 @ 쪼끼차기.(제기차기.)

102004 #1 예예. 쪼끼차기도 하고 또 백토로 백토로 해서.(예예. 제기차기도 하고 또 백토로 백토로 해서.)

102004 @ 예.(예.)

102004 #1 저 우리 중앙에 가민 소방서 옆에 가면은 그 흙이 그 양병방통<sup>73)</sup>, 그 위엔 헌데 거기는 그 흙이 찰집니다.(저 우리 중앙에 가면 소방서 옆에 가면은 그 흙이 그 ‘양병방통’, 그 위엔 헌데 거기는 그 흙이 찰집니다.)

102004 @ 예.(예.)

102004 #1 흙이 케민 그 흙 파다가 담야.(흙이 그러면 그 흙 파다가 담야.)

102004 #4 설탕 커피 엇수과.(설탕 커피 없습니까.)

102004 #1 설탕, 설탕 거 아니라게 설탕.(설탕, 설탕 거 아니야 설탕.)

72) ‘부단치기’는 제주도 구좌읍 우도면에서 어린아이들 놀이의 이름이다.

73) ‘양병방통’은 제주도 구좌읍 우도면에 소재한 지경 이름이다.

102004 #4 아, 설탕 커피.(아, 설탕 커피.)  
 102004 #1 설탕 커피 여기 잇잖여.(설탕 커피 여기 잇잖아.)  
 102004 #4 아니 오래만이 온디 뭐 해 드리도 아녀고 겿겿 안 다닐 때 흐니까양. 해녀  
 질 아닐 때니까.(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해 드리지도 않고 바다겿 안 다닐 때 하니까  
 요. 해녀 질 았을 때니까.)  
 102004 @ 예.(예.)  
 102004 #4 물엿 것이 어수다게.(물에 것이 없습니다.)  
 102004 @ 예. 아이고.(예. 아이고.)  
 102004 #4 예. 물엿 거 헐 때는.(예. 물에 것 할 때는.)  
 102004 @ 너무 죄송해네 이거.(너무 죄송해서 이거.)  
 102004 #4 예. 물엿 거 헐 때는 이제 손님이 와도 좀 안주는 잇는디, 물엿 것도 안허  
 고 흐니까 막 미안허우다게.(예. 물에 것 할 때는 이제 손님이 와도 좀 안주는 잇는데,  
 물에 것도 았고 하니까 막 미안합니다.)  
 102004 @ 아이고 이거 어떻 허코마씨 우리가 죄송해가지고, 막 귀헌 말씀 듣는디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죄송해가지고, 막 귀한 말씀 듣는디요.)  
 102004 #1 거니까 다마<sup>74</sup> 멘들아 갓고.(거니까 ‘다마’ 만들어 가지고.)  
 102004 @ 예. 다마 만들양.(예. ‘다마’ 만들어서.)  
 102004 #1 다마치기 해서 다마치기.(‘다마’치기 해서 ‘다마’치기.)  
 102004 @ 게난 흑으로.(그러니까 흑으로.)  
 102004 #1 예. 흑예.(예. 흑요.)  
 102004 @ 저기 다마 만들아마씨.(저기 ‘다마’ 만들어요.)  
 102004 #1 다마 만들아 갓고.(‘다마’ 만들어가지고.)  
 102004 @ 예예.(예예.)  
 102004 #1 저 다마치기를 해요게 이제.(저 ‘다마’치기를 해요 이제.)  
 102004 @ 연도 만들엉 떠와납디가?(연도 만들어서 띄웠습니까.)  
 102004 #1 예. 연도 만들양 뽕고 연도 만들양.(예. 연도 만들어서 띄우고 연도 만들어  
 서.)  
 102004 @ 삼춘예. 연들은 잘 만들아났지예?(삼춘요, 연들은 잘 만들었지요?)  
 102004 #1 으, 연들은 게골라기가 잇고 딱시 이제 이에 너귀 방장훈 거시 잇고.(오,  
 연들은 가오리연이 잇고 다시 이제 이에 네모 반듯한 것이 잇고.)  
 102004 @ 예. 방페엔 해신가마씨.(예. 방패라도 했는가요.)  
 102004 #1 예예. 또 풀리 연이엔 혼 게 잇어 꼬리 연.(예예. 도 꼬리 연이라고 한 게  
 잇어 꼬리 연.)  
 102004 @ 예.(예.)  
 102004 #1 게골라기엔 게골리기 연이엔 흐고.(가오리라고 가오리 연이라고 하고.)  
 102004 @ 예. 게골라기엔.(예. 가오리라고.)

74) ‘다마’는 제보자가 일본어로 구슬을 말하고 있다.

102004 #1 또 정연 정연이엔 혼 건.(또 정연 정연이라고 한 건.)

102004 @ 예. 네모 반뜻.(예. 네모 반뜻.)

102004 #1 이렇게 웬 건 정연이라고 해요.(이렇게 된 건 정연이라고 해요.)

102004 @ 아, 정연예.(아, 정연요.)

102004 #1 그레 그 땐 줌 정연 띄우는 사람을 짝끔 저 뭐히는 사람으로 보곡예.(그리로 그 땐 줌 정연 띄우는 사람을 조끔 저 뭐하는 사람으로 보고요.)

102004 @ 예.(예.)

102004 #1 즘끔 높은 사름으로 보곡 게골리헌 사름은 줌 잘 서툰 서툰 사름이고,(조끔 높은 사름으로 보고 가오리 한 사름은 줌 잘 서툰 서툰 사름이고.)

102004 @ 예.(예.)

102004 #1 또 잘 못히는 사름으로 보고 영 이렇게 헤낫어요. 것도 서로 생각히는 게.(또 잘 못하는 사름으로 보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것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102004 @ 예. 거 삼춘 연 허젠 허문 데가 잇엇야 텔 거 아넛과예?(예. 거 삼춘 연하려고 하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2004 #1 예. 게.(예. 그럼.)

102004 @ 대는?(대는?)

102004 #1 대는 까가근예.(대는 깎아서.)

102004 @ 예. 깎아근예.(예. 깎아서.)

102004 #1 예. 대헤근에 막 까가근에 이녕양으로 밥풀 헤다근에 밥풀로 부치멍.(예. 대해서 막 깎아서 이녁대로 밥풀 헤다가 밥풀로 붙이면서.)

102004 @ 예.(예.)

102004 #1 부치멍 이제 만들멍 이제.(붙이면서 이제 만들면서 이제.)

102004 @ 그때는 어디 강 헤다근에 헛수과?(그때는 어디 가서 헤다가 했습니까?)

102004 #1 대가 여기.(대가 여기.)

102004 #4 대밭 잇어낫수다게.(대밭 있습니다.)

102004 #1 집집마다 대밭 잇어요.(집집마다 대밭 있어요.)

102004 #4 겐디 지금은 다 엇에벳수다게.(그런데 지금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102004 @ 예.(예.)

102004 #1 게 대가 여기서는 데가 어디서 헤오느냐면 저 예 수산<sup>75</sup>.(그럼 대가 여기서서는 대가 어디서 헤오느냐면 저 예 ‘수산’.)

102004 @ 예.(예.)

102004 #1 여기서 이제 겨울에 새 흐레 가 새.(여기서 이제 겨울에 떠 하러 가 떠.)

102004 @ 예.(예.)

102004 #1 여 우리 집 집 저 지붕 덮을 새 흐레 가면은.(여 우리 집 집 저 지붕 덮을 떠 하러 가면은.)

102004 @ 예.(예.)

75)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소재한 행정리 수산리이다.

102004 #1 그때는 침대 홀라고도 하고 이 이제 지붕에 무끌라고 허면은 여기에 그대로 무겨주어야 돼여 여기에.(그때는 침대 하려고도 하고 이 이제 지붕에 묶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그대로 묶어주어야 돼 여기에.)

102004 @ 예예.(예예.)

102004 #1 게야 그기에 저 줄을 무끄거든.(그래야 거기에 저 줄을 묶거든.)

102004 @ 줄을 무끄니까예.(줄을 묶으니까요.)

102004 #1 그 그런 거 있으문 그런 걸로 해근에 아까 말한 거.(그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한 거.)

102004 @ 잘라근에예.(잘라서요.)

102004 #1 그런 거 저 어디로 부튼 거 똥가리가 잇이민.(그런 거 저 어디로 붙은 거 동강이가 있으면.)

102004 @ 예.(예.)

102004 #1 그런 거 좇아서 이제 그 그런 거 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그런 거 주워서 이제 그 그런 거 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2004 @ 예. 썰은 어떻 험디가 실?(예. 실은 어떻게 합니까 실?)

102004 #1 예?(예?)

102004 @ 옛날.(옛날.)

102004 #1 저 어머니네, 어머니네 저 머 홀라고 이제 현 거 잇엇고 그런 실도 또 어디서 또 저 어디 겹쳐지는 썰이 어디서 나와났어요 또, 예.(저 어머니네, 어머니네 저 뭐 하려고 이제 한 거 잇엇고 그런 실도 또 어디서 또 저 어디 겹쳐지는 실이 어디서 나왔어요 또, 예.)

102004 @ 예.(예.)

102004 #1 그런 썰도.(그런 실도.)

102004 @ 그거에 허곡.(그거에 하고.)

102004 #1 예.(예.)

102004 @ 삼촌 동네에서 연 잘 만들고 잘 날려났수과?(삼촌 동네에서 연 잘 만들고 잘 날렸습니까?)

102004 #1 아이 연을 나 그렇게 연을 많이 만들어보질 못 했어.(아이 연을 나 그렇게 연을 많이 만들어보질 못 했어.)

102004 @ 어.(어.)

102004 #1 연은.(연은.)

102004 @ 연은예. 거문 딱 뺏장? 빠장 만든 거? 빠장이엔 험니까? 저기 종이 해 가지고 탁 처근에 영 뒤집기허고 그런 놀인 안 해났수과?(연은요. 그러면 딱 딱지? 딱지 만든 거? 딱지라고 합니까? 저기 종이 해가지고 탁 쳐서 이렇게 뒤집기하고 그런 놀이는 았았습니까?)

102004 #1 그런 그런 놀이는 몰릅주.(그런 그런 놀이는 모르지.)

102004 #4 이거 이거 드셔 보십서 나 맛있게 못 해가지고예.(이거 이거 드셔 보십서

오 나 맛있게 못 해가지고요.)

102004 @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삼촌.(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삼촌.)

102004 #4 촌이 살아서 음식을 만들 줄 모릅니다게.(촌에 살아서 음식을 만들 줄 모릅니다.)

102004 @ 아이고 무슨 아이고 이거 잘 먹쿠다. 삼촌 거문 바당에 레기 낚으레 가는 거는 아이 때.(아이고 무슨 아이고 이거 잘 먹겠습니다. 삼촌 거문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가는 거는 아이 때.)

102004 #1 나 어릴 때는 갈치 나끄레.(나 어릴 때는 갈치 낚으러.)

102004 @ 예.(예.)

102004 #1 갈치 낚으레, 지금 나가 지금 총각 저저 결혼해서도 헛주만은 갈치 나끄레.(갈치 낚으러, 지금 나가 지금 총각 저저 결혼했어도 했지만은 갈치 낚으러.)

102004 @ 예. 어릴 적에.(예. 어릴 적에.)

102004 #1 흐 오류 칠년 다녔어요 그 땐 갈치 낚안 돈은 못 사고.(한 오류 칠년 다녔어요 그 땐 갈치 낚아서 돈은 못 사고.)

102004 @ 예.(예.)

102004 #1 이제 본격적으로 텅길 뻘이는 하루 가근에 흐 두 세 마리씩 낚아당 그자 집이서 반찬.(이제 본격적으로 다닐 적에는 하루 가서 한 두 세 마리씩 낚아다가 그자 집에서 반찬.)

102004 @ 반찬정도.(반찬정도.)

102004 #1 어떤 때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루에 가근에 흐 뽕 마리나 흐 오십 마리 낚을 때가 있어요.(어떤 때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루에 가서 한 백 마리나 한 오십 마리 낚을 때가 있어요.)

102004 @ 예.(예.)

102004 #1 그때는 젓 담양 먹기도 흥곡.(그때는 젓갈 담아서 먹기도 하고.)

102004 @ 아 예.(아 예.)

102004 #1 돈은 못 사고.(돈은 못 사고.)

102004 @ 예.(예.)

102004 #1 또 흐 두 세 마리 열 마리 씩 나까오민 동네 이웃디 또 저 홀어멍 잇는 디덜 또 나시 두개 씩덜.(또 한 두 세 마리 열 마리 씩 낚아오면 동네 이웃에 또 저 홀어머니 잇는 데들 또 몫 두 개 씩덜.)

102004 @ 예.(예.)

102004 #1 주곡 이렇게 해났어요, 돈 사보지도 못 흥고.(주고 이렇게 했어요, 돈 사보지도 못 하고.)

102004 @ 예.(예.)

102004 #1 또 자리도 거리레<sup>76)</sup> 쫌 텅겨봐도 헛거리나 쫌 헛지 본격적으로 웨냐하면 쫌 꺾기 텅기는 사름은 서툰고 서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아주 기술적인

76) '거리다'는 자잘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아니면 자리를 많이 못 거립니다게.(또 자리돔도 뜨러 줌 다녀보아도 회 거리나 줌 했지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좀 같이 다니는 사람은 서툰고 서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아주 기술적인 사람이 아니면 자리돔을 많이 못 뜬다.)

102004 @ 예. 자리 거리는.(예. 자리돔 뜨는.)

102004 #1 지금, 물때도 잘 보꼭 여도 잘 알아야 돼곡.(지금, 물때도 잘 보고 여도 잘 알아야 되고.)

102004 @ 예.(예.)

102004 #1 저 자리 나는 저 기술을 잘 알아야 돼는디 나영 그찌 혼 사람은 기술적인 사람이 못 됐어요게.(저 자리돔 나는 저 기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한 사람은 기술적인 사람이 못 됐어요.

102004 @ 예.(예.)

102004 #1 경 해서게 반찬정도나 진행허고 했거리나 줌 했지 큰돈은 못 사봤어요게.(그렇게 해서 반찬정도나 진행하고 회 거리나 줌 했지 큰돈은 못 사 봤어요.)

102005 @ 삼촌, 일제시대 때 왜정시대 때는 곤는디예. 그때 기억나는 거 잇수과? 생활이나.(삼촌, 일제강점기 때 왜정시대 때는 말하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생활이나.)

102005 #1 기억나는 건 나가.(기억나는 건 내가.)

102005 @ 경 해도 여섯 살 일곱 살 때쯤.(그렇게 해도 여섯 살 일곱 살 때쯤.)

102005 #1 해방, 해방 돼는 해.(해방, 해방 되는 해.)

102005 @ 예.(예.)

102005 #1 해방 돼는 해 짝끔 기억나는 건.(해방 되는 해 조금 기억나는 건.)

102005 @ 예.(예.)

102005 #4 미선이 아버지 왕 커피 드십쎄.(미선이 아버지 와서 커피 드세요.)

102005 #3 미선이 어멍 안 와십디가?(미선이 어머니 안 왔습니까?)

102005 #4 아니 나 이제사 어디 밋디 잣다 왓수다게. 커피 드성 갑서게.(아니 나 이제야 어디 밋에 잣다 왔습니다. 커피 드셔서 가십시오.)

102005 #1 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님이, 자갈 깨라곡 깨레.(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님이, 자갈 깨라고 깨러.)

102005 @ 예.(예.)

102005 #1 저 서머리.(저 ‘서머리’.)

102005 @ 건 건 나라에서 막 그때 해방 되기 전엿 거니까.(건 건 나라에서 막 그때 해방되기 전에 거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나라에서 이제 자갈을 깨라고 헌 거라. 그 콘크리 흘라고, 자갈을 깨려고 가불 때.(나라에서 이제 자갈을 깨라고 한 거야. 그 콘크리트 하려고, 자갈을 깨려고 가버릴 때.)

102005 @ 예.(예.)



102005 #1 우리 어머니가 나 우리 아까 와 여기 와난 그 좀 나안티 병원에 가라고  
헌 사람이 나 작은아버지요게, 오춘 당숙이요게 그 어른이 여기 살았어요. 우리 작은 하  
르버지네가.(우리 어머니가 나 우리 아까 와 여기 왔던 그 좀 나한테 병원에 가라고 한  
사람이 나 작은아버지요, 오춘 당숙이요 그 어른이 여기 살았어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  
네.)

102005 @ 예.(예.)

102005 #1 나하고 나하고 한 살위이에요 그 아깃 분이.(나하고 나하고 한 살위예요  
그 아까 분이.)

102005 @ 예.(예.)

102005 #1 둘이가 나 죽은할머니영 ㄴ찌 여기 이시렌 죽은할망은 그디 안 가고, 아!  
비행기 소리가 바름바름 나 전쟁이 난거라.(둘이가 나 작은할머니하고 같이 여기 있으라  
고 작은할머니는 거기 안 가고, 아! 비행기 소리가 바름바름 나 전쟁이 난거야.)

102005 @ 예.(예.)

102005 #1 게난 우리 죽은할망이 아까 우리 삼촌하고 안아서 비행기가 절로 소리나  
민 이쪽 더레 오꼭 또 절로도 소리 나민 이쪽 더레 오꼭 아 그렇게 헤났어요.(그러니까  
우리 작은할머니가 아까 우리 삼촌하고 안아서 비행기가 저리로 소리나면 이쪽으로 오  
고 또 저리로도 소리 나면 이쪽으로 오고 아 그렇게 했어요.)

102005 @ 아.(아.)

102005 #1 경 헉꼭 또.(그렇게 하고 또.)

102005 @ 그때 폭격은 었어나고예.(그때 폭격은 없었고요.)

102005 #1 응?(응?)

102005 @ 폭격은 었어나고.(폭격은 없었고.)

102005 #1 폭격은 안허고.(폭격은 앓고.)

102005 @ 응.(응.)

102005 #1 또 하루는 비행기가 먼데서 폭격 와신디 막 동네 사름덜이 여기 몰ㄴ랑이  
잇어 몰ㄴ랑.(또 하루는 비행기가 먼데서 폭격 왔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여기 연자매가  
잇어 연자매.)

102005 @ 예.(예.)

102005 #1 아 몰ㄴ랑에 다 모이는 거라.(아 연자매에 다 모이는 거야.)

102005 @ 아.(아.)

102005 #1 으, 모이는데 저 나보다 혼술 윗사름인데, 그 사름은 동생이 이시니까 걸  
어서 거길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동생이 었이니까.(오, 모이는데 저 나보다 한 살 윗  
사름인데, 그 사름은 동생이 있으니까 걸어서 거길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동생이 없  
으니까.)

102005 @ 업어줘.(업어줘.)

102005 #1 날 업어서 거길 가난 적이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날 업어서 거길 갔던  
적이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102005 @ 아, 비행기가.(아, 비행기가.)

102005 #1 지금.(지금.)

102005 @ 그때 영 폭격기.(그때 이렇게 폭격기.)

102005 #1 예. 폭격기 저 디서 폭격해서 여기서예.(예. 폭격기 저 디서 폭격해서 여기서요.)

102005 @ 예.(예.)

102005 #1 으 저 우리 형님 말론 허면 저 북쪽에서 폭격기가 일본 비행기혹 미국 비행기가 서로 공중에서 썬다가 일본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그런 말이 잇었어요게.(오 저 우리 형님 말로는 하면 저 북쪽에서 폭격기가 일본 비행기하고 미국 비행기가 서로 공중에서 싸우다가 일본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2005 @ 아.(아.)

102005 #1 지금, 이제에.(지금, 이제.)

102005 @ 예에.(예에.)

102005 #1 저 우리 형님 그런 말 이제 이렇게 허멍 이렇게 해났는데 그 기억 이웨로는 엇고.(저 우리 형님 그런 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억 이외로는 없고.)

102005 @ 예.(예.)

102005 #1 또 해방 됐니까.(또 해방 되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우리 집 앞에서 영 보니까 막 태극기를 돌면서, 거 일주 해난 거, 우리 우도.(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태극기를 돌면서, 거 일주 했던 거, 우리 우도.)

102005 @ 예.(예.)

102005 #1 일주 해난 거 그 기억은.(일주 했던 거 그 기억은.)

102005 @ 예. 해방 때에 그렇게 헌 거예.(예. 해방 때에 그렇게 한 거요.)

102005 #1 예. 짝금 납니다 지금.(예. 조금 납니다 지금.)

102005 @ 계난 공출은 그 서머리에 가근에 돌을 깨는 거를 공출 해났구나예.(그러니까 공출은 그 ‘서머리’에 가서 돌을 깨는 거를 공출 했군요.)

102005 #1 경 흐고 딱시 이제 거기에 저 여기 공출하는 사름덜이 잇어났어요. 으 밥 얻어먹으레.(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거기에 저 여기 공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 밥 얻어먹으러.)

102005 @ 예.(예.)

102005 #1 이 저 민궤에 내려 와났어요. 그레 우리 어머니가 줄건 엇이니까 밥이 엇이니까 누물 저 뿍다가 누물 뿍은 거 주니까 누물 뿍은 걸 그 사름들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된장에 찍어먹고 가랍니다게 워낙 배고프니까.(이 저 민궤에 내려 왔어요. 그레 우리 어머니가 줄건 없으니까 밥이 없으니까 나물 저 뿍다가 나물 뿍은 거 주니까 나물 뿍은 걸 그 사람들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된장에 찍어먹고 갓습니다 워낙 배고프니까.)

102005 @ 예. 된장에.(예. 된장에.)

102005 #1 [웃음]어머닌 막 가난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었는데, 뭘 줘니까게 지금.([웃음]어머닌 막 가난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뭘 줘니까 지금.)

102005 @ 예예.(예예.)

102005 #1 예. 이제 해방 댜니까 그 사름덜이 다 나가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예. 이제 해방 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102006 @ 삼촌, 사삼사건 때 저기 소개 행 온 사름덜 소개해기네 사름덜 막 여기도 와났지예? 사삼사건 때.(삼촌, 사삼사건 때 저기 소개해서 온 사름들 소개 해서 사름들 막 여기도 왔지요? 사삼사건 때.)

102006 #1 사삼사건 때.(사삼사건 때.)

102006 @ 저 하도리 사름이나 어디 수산 사름덜.(저 하도리 사름이나 어디 수산 사름들.)

102006 #1 저 스삼사건 때 쫓끔 연류 댜갓고 와 간 사름이, 지금 이제 김○○선생이라고 그 사름이 구좌읍장 아버집니다게.(저 사삼사건 때 쫓끔 연류 되가지고 와 간 사름이, 지금 이제 김○○선생이라고 그 사름이 구좌읍장 아버지입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사름이 연류 댜가 그때 쫓끔 저 스삼사건 때 연류댜갓고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 처가 들었.(그 사름이 연류 되가 그때 쫓끔 저 사삼사건 때 연류되여가지고 여기 왔다가 여기 와서 처가 들어서.)

102006 @ 예.(예.)

102006 #1 여기서 중학교 우리 은삽니다.(여기서 중학교 우리 은사입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게게 우리 이제 여기서 선생질하다가 정식 선생이 댜갓고, 성산중학교에 졸업해연에 겐 여기서 난 각시는 구좌읍장까지 하고, 그 성산중학교까지 나온 구좌읍장까지는 해서.(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선생질하다가 정식 선생이 되가지고, 성산중학교에 졸업해서 그럼 여기서 난 각시는 구좌읍장까지 하고, 그 성산중학교까지 나온 구좌읍장까지는 했어.)

102006 @ 예.(예.)

102006 #1 그 김○○선생이 성산리에서 저 춤 노인회장까지 하다가 나가 꼭 선성헌 거 흔 번 꼭 그 춤 선성이사 스승이 낳은 꼭 식사를 헐랴고 허는데 나도 춤 흔 번 못했어요.(그 김○○선생이 ‘성산리’에서 저 참 노인회장까지 하다가 내가 꼭 선성한 거 한번 꼭 그 참 선생이야 스승이 낳은 꼭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참 한번 못했어.)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선생이 여기 살면서 나 웅변도 써줬예. 육이오사변 기념으로.(그 선생이 여기 살면서 나 웅변도 써주었어, 육이오사변 기념으로.)

102006 @ 웅변마씨?(웅변요?)

102006 #1 웅변 원고도 써 췌 나 웅변도 해났어요.(웅변 원고도 써 줘서 나 웅변도 했어.)

102006 @ 아.(아.)

102006 #1 나 중학교 일학년 때, 그런 인정 또 이 동네 살아부니까 우린 학교 갔다 오면 캄뽕이 우럭이라고, 으만헌 춤데 가정 강 우럭만 나끄는 거라 아까 여기왔던 형하고 ㄴ치.(나 중학교 일학년 때, 그런 인정 또 이 동네 살아버리니까 우린 학교 갔다 오면 ‘캄뽕이’우럭이라고, 요만한 큰대 가져서 가서 우럭만 낚는 거야 아까 여기왔던 형하고 같이.)

102006 @ 예.(예.)

102006 #1 우럭 나끄레 가면은 그 선생은 장인어른하고 그물 노래, 저 구릿<sup>77)</sup> 그물 노래.(우럭 낚으러 가면은 그 선생은 장인어른하고 그물 놓으러, 저 감성돔 그물 놓으러.)

102006 @ 예.(예.)

102006 #1 저 벵에돔 그물.(저 벵어돔 그물.)

102006 @ 예.(예.)

102006 #1 그 곳 그물 노래, 가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 이 새끼덜 하면 이제 막 야단 하면 이렇게 하고 아, 또 우리가 못돼니까예. 술찍이 네가 이제 일 년 후에 또 년 후배덜 데려다가 성산 성산 짜 성 내 곶.(그 바다 그물 놓으러, 가면 선생님 선생님하면 이 새끼들 하면서 이제 막 야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 또 우리가 못 되니까요 솔직히 내가 이제 일 년 후에 또 년 후배들 데려다가 성산 성산 저 성 내 곶.)

102006 @ 예.(예.)

102006 #1 성냥 짤 네길 화투를 했으니까 어떻 혼 말잇과.(성냥 짤 내기를 화투를 했으니까 어떻게 한 말입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게난 그 선생안티 걸려갖고 얼마나 메를 맞는 중 알았수과.(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는 줄 알고 있습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저 동한집이서 네가 어릴 때 못된 짓은 많이 했수다.(저 동한집에서 내가 어릴 때 못된 짓은 많이 했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게난 그 아이들이 지금 이○○나 강○○이는 여기서 춤 부자 노릇허당 이 도향선 허명 큰 부자노릇을 허명 죽었고예. 삼년 후벤디.(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이○○나 강○○이는 여기서 참 부자 노릇하다가 이 도향선 하면서 큰 부자노릇을 하면서 죽었고요, 삼년 후배인데.)

102006 @ 예.(예.)

102006 #1 저 어디 춤 인물은 인물인디 그디도 각시 죽어부니까, 춤 이제 저 사름 보민 저 도지 그때 우○○이나 신○○고는 춤 느영 나영 하면 이렇게 지네다가 그 사름덜[싸름덜] 하고도 멀어지어 버렸는디 게 삼년 후배가 그렇게 헤냇어요. 머리가 좋아났

77) ‘구릿’은 표준어 감성돔의 우도 지역에서 쓰는 말이다.

어요, 그단.(저 어디 참 인물은 인물인데 거기도 각시 죽어버리니까, 참 이제 저 사람 보면 저 도지 그때 우○○이나 신○○하고는 참 너하고 나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 하고도 멀어지어 버렸는데 게 삼년 후배가 그렇게 했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거기는.)

102006 @ 예.(예.)

102006 #1 에 그 이○○엔 혼 사름은 이제 경찰에 들어간 또 그 놈도 이제 경찰에 들어간 이 거 장난하던 파직 됐어네 이제, 저 삼천포 각시가 물질 나가니까.(에 그 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경찰에 들어가서 또 그 놈도 이제 경찰에 들어가서 이 거 장난하다가 파직 되어서 이제, 저 삼천포 각시가 물질 나가니까.)

102006 @ 아.(아.)

102006 #1 다이버 물질 허니까 이제 각시하고 삼천포 가네 이제 그디 간 다이버질 하면서도 복장이 크니까 돈을 잘 쓰니까, 나 그 혼해 삼 우도면 개발자문의원으로 이실 때 그 삼천포 서금 동서금동하고 우도하고 자매결연 했어요게.(다이버 물질 하니까 이제 각시하고 삼천포 가서 이제 거기 간 다이버질하면서도 복장이 크니까 돈을 잘 쓰니까, 나 그 한해 삼 우도면 개발자문의원으로 있을 때 그 삼천포 서금 동서금동하고 우도하고 자매결연 했어요.)

102006 @ 예.(예.)

102006 #1 일 년에 혼 번씩 잤다 왔다 합니다게. 나 그때 갈 덕에 워낙 그 그디 사름 델[싸름델] 오니까 사천시 시의장이 우리하고 오찬을 하러 왔단 와주더라고.(일 년에 한 번씩 잤다 왔다 합니다게. 나 그때 갈 적에 워낙 그 거기 사람들 오니까 사천시 시의장이 우리하고 오찬을 하러 왔다가 와주더라고.)

102006 @ 예.(예.)

102006 #1 그때 계난 그 사름이 다 소개를 혼 거라 그 사름이 연극을 꾸민거라. 다 그 사름 집이 자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 사름이 다 소개를 한 거야 그 사름이 연극을 꾸민거야. 다 그 사름 집에 자고 그때.)

102006 @ 예.(예.)

102006 #1 하고 어머니가 지금 홀어명인데 그디도 홀어명인데 그 이○○ 혼나를 키울라고 상당히 공을 드려고 춤 여기 절간에 다 지고 으. 이렇게 하면서 다 키웁다가 삼천포 데령 갖는데 헨 어머니도 혼 삼년 전에 이제 그 놈도 깃지도 암으로 죽어 버렸어 게.(하고 어머니가 지금 홀어머니인데 거기도 홀어머니인데 그 이○○ 하나를 키우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참 여기 절간에 다 짓고 으. 이렇게 하면서 다 키웁다가 삼천포 데려서 갖는데 해서 어머니도 한 삼년 전에 이제 그 놈도 까지도 암으로 죽어 버렸어.)

102006 @ 예.(예.)

102006 #1 부인이 벌어서 다이버 혼명 하루 스오십 만원씩 뱅만 원씩 벌었다고 다이버질 혼명.(부인이 벌어서 다이버 하면서 하루 사오십 만원씩 백만 원씩 벌었다고 다이버질 하면서.)

102006 @ 아.(아.)

102006 #1 그 번 돈으로 마작도 흥곡 그 높은 사람덜[싸름덜] 사겨 낫던 살렸던 거라. 게 흥번은 나 좀 〇〇 할 땐가 저 도의원 시의원으로 나올라고 흥다가 못 나오게 댜 기념으로 우리 동창회에 뱅 만원까지 기안을 흥고 했다고 지금 이제.(그 번 돈으로 마작도 하고 그 높은 사람들 사귀어났던 살렸던 거야. 그럼 한번은 나 좀 〇〇 할 땐가 저 도의원 시의원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게 된 기념으로 우리 동창회에 백만 원까지 기안을 하고 했다고 지금 이제.)

102006 @ 아.(아.)

102006 #1 그렇게 해서 일 년에 흥 번씩 자꾸 여기 행사 때 와요 이기 소라축제 때 이제.(그렇게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자꾸 여기 행사 때 와요 여기 소라축제 때 이제.)

102006 @ 계난 삼춘은 여기서는 사삼사건에 대해서 겪었던 거는.(그러니까 삼춘은 여기서는 사삼사건에 대해서 겪었던 거는.)

102006 #1 스삼사건에 겪었던 건 무사, 스삼사건 때까지만 흥드레도 나가 스삼 사건 말기 때도 어머니흥고 저 뭐 흥레 가났어.(사삼사건에 겪었던 건 왜, 사삼사건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사삼사건 말기 때도 어머니하고 저 뭐 하러 갔었어.)

102006 @ 아.(아.)

102006 #1 저 새 허레, 지붕 더끌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웨하르버지가 아들이 엇는 집안이주게 계난 웨하르버지는 몸 늙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새를 해당, 흥 해에는 우리 집 일곡 흥 해에는 또 우리 웨하르방네 집 일곡 해여 어머니가.(저 띠 하러, 지붕 덮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들이 엇는 집안이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몸 늙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띠를 해다가, 한 해에는 우리 집 일고 한 해에는 또 우리 외할아버지네 집 일고 해 어머니가.)

102006 @ 예.(예.)

102006 #1 그런 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좀 못살고 허니까 또 웨하르버지가 밧이 흥 천 평가랑 잇어서.(그런 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좀 못살고 하니까 또 외할아버지가 밧이 한 천 평가랑 잇어서.)

102006 @ 예.(예.)

102006 #1 예. 계문 그 디서 밧디 나는 걸, 쫓 쫓라다가 우리가 먹으면서 살았다고 지금 이제 그디서 농사 지어근에 고구마도 갈곡 또 조도 갈곡 허여근에 하르버지가 거기 힘이 엇이니 농스를 못 지니까 초불 농스를 어떻 어떻 동네 쉼을 빌영 했는디 쉼쉴령으로 우리 죽어분 형님흥고 나흥고 우리 형님흥고 또.(예. 그러면 거기서 밧에 나는 걸, 좀 잘라다가 우리가 먹으면서 살았다고 지금 이제 거기서 농사 지어서 고구마도 갈고 또 조도 갈고 해서 할아버지가 거기 힘이 없으니 농사를 못 지으니까 초불 농사를 어떻게 어떻 동네 소를 빌어서 했는데 쇠스랑으로 우리 죽어버린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또.)

102006 @ 하르버지.(할아버지.)

102006 #1 나 우에 형님흥고 쉼쉴령으로 굶으면서 조씨를 뿌려서 조를 갈면서 해난 적도 잇어요.(내 위에 형님하고 쇠스랑으로 굶으면서 조씨를 뿌려서 조를 갈면서 했던

적도 있어요.)

102006 @ 예.(예.)

102006 #1 지금 이제 그렇고 어머니 안 난 할망 아니난 할망이라 췌씨 할망인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지금, 그 할망이 육지서 못 살게 됐니까 여기서 고구마 심근 거 팔러 가는 배, 절라도 저 어디고 해남.(지금 이제 그렇고 어머니 안 난 할머니 아니니까 할머니라 췌 씨 할머니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지금, 그 할머니가 육지에서 못 살게 됐니까 여기서 고구마 심은 거 팔러 가는 배, 전라도 저 어디고 해남.)

102006 @ 예.(예.)

102006 #1 절라도 팔러 간 배에 부떠 앓안 여기 얻어먹으려 온 거라. 그 우리 웨하르버지가 부인이 엇이니까 그때 딸을 두 형젤 데려온 거라. 겐 형제 데령 완 어떻게 헨 우리 웨하르버지를 만나네 그 딸들은 늬이 집, 양녀로 다 주어버리고 우리 웨하르버지 헉고 살았는데 물질도 할 줄 모르고 물질 할 줄 모르민 못 사는 거 아니라게 지금.(전라도 팔러 간 배에 붙어 앓아서 여기 얻어먹으려 온 거야.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부인이 없으니까 그때 딸을 두 형젤 데려서 온 거야. 그래서 형제 데려서 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딸들은 남의 집, 양녀로 다 주어버리고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물질도 할 줄 모르고 물질 할 줄 모르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102006 @ 못 사는 거 못 살주마씨.(못 사는 거 못 살지요.)

102006 #1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 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또 내중에는 우리 웨하르버지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할망을 우리 집에서 모성 살다가 죽었어요게 지금. 이제 지금.(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 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또 나중에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할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셔서 살다가 죽었어요게 지금.)

102006 @ 예.(예.)

102006 #1 몰라 양자를 택하다 보니까 저 강원도 사람을 강원도에 강 사는 사람을 택하다 보니까 양자한테 못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성 살다가 참 죽었는데.(몰라 양자를 택하다 보니까 저 강원도 사람을 강원도에 가서 사는 사람을 택하다 보니까 양자한테 못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셔서 살다가 참 죽었는데.)

102006 @ 그 아까는 새 허레 어디 갓텐 헛지예.(그 아까는 띠 하러 어디 갔다고 했지요.)

102006 #1 새 허레 수산.(띠 하러 수산.)

102006 @ 수산에.(수산에.)

102006 #1 예.(예.)

102006 @ 게난 사삼허고 수산 저.(그러니까 사삼하고 수산 저.)

102006 #1 그때는 스삼사건이 다 완전히 끝나지 않을 때까지.(그때는 사삼사건이 다 완전히 끝나지 않을 때까지.)

102006 @ 앓을 때난.(앓을 때니까.)

102006 #1 예. 게민 우리가 새 허레 췌 예 군데오름<sup>78)</sup>, 수산에 군데오름 이엔 혼디

78) '군데오름'은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에 소재한 오름이다.

올라가곡 또 올라 가면은 저 토벌대가.(예. 그러면 우리가 떠 하러 저 에 ‘군데오름’, 수산에 ‘군데오름’ 이라고 한테 올라가고 또 올라 가면은 저 토벌대가.)

102006 @ 예.(예.)

102006 #1 산 위에서 그 새 허는 사름덜을[싸름덜을] 보호했어요 지금 이제 보호하고.(산 위에서 그 떠 하는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지금 이제 보호하고.)

102006 @ 아.(아.)

102006 #1 보호해서 이젠 또 성문 더끄기 전에.(보호해서 이젠 또 성문 닫기 전에.)

102006 @ 예.(예.)

102006 #1 다섯 시 전에 들어와야 돼어.(다섯 시 전에 들어와야 돼.)

102006 @ 예.(예.)

102006 #1 경 안 허민 성문 닫아, 닫아 버리면 곤란하니까.(그렇게 안하면 성문 닫아, 닫아 버리면 곤란하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경 쫓끄만 잇으면 늦게 왔으면 성문 닫아 버릴 뻔 했어요 지금.(그렇게 조그만 있으면 늦게 왔으면 성문 닫아 버릴 뻔 했어요 지금.)

102006 @ 아.(아.)

102006 #1 경 한 적이 잇고 또 우리 셋어머니가 또 수산 아는 집이가 잇언에, 우리 어머닌 그 날 새 허단 집이 오게 되고 우리 셋어머니는 이제 저 못 오게 돼니까 나하고 넬낭 ㄴ치 가자고 나 사는디 가근에 나 자는디 강 ㄴ찌 강 자젠 가니까 바로 성문 성담 [성담] 옆이라.(그렇게 한 적이 잇고 또 우리 둘째어머니가 또 수산 아는 집이 있어서, 우리 어머닌 그 날 떠 하다 집에 오게 되고 우리 둘째어머니는 이제 저 못 오게 되니까 나하고 내일랑 같이 가자고 나 사는데 가서 나 자는데 가서 같이 가서 자자고 가니까 바로 성문 성담 옆이야.)

102006 @ 응.(응.)

102006 #1 방이 암호소리.(방위 암호소리.)

102006 @ 예.(예.)

102006 #1 서로 이제 서로 암호 흥는 소리가 워, 워 흥는 암호소리가 들렸다고 그때 암호 흥는 소리가.(서로 이제 서로 암호 하는 소리가 워, 워 하는 암호소리가 들렸다고 그때 암호 하는 소리가.)

102006 @ 예.(예.)

102006 #1 아, 그래서 나는 잠이 안 와 어릴 때도 지금 이제.(아, 그래서 나는 잠이 안 와 어릴 때도 지금 이제.)

102006 @ 예.(예.)

102006 #1 그렇게 헤면서 헛는데 그 후에 참 몇 년 엇어서 헛고.(그렇게 하면서 헛는데 그 후에 참 몇 년 엇어서 헛고.)

102006 @ 예.(예.)

102006 #1 또 우리가 별초를 못 다녔어요 그때 산에 우리가 지금 칠 대 조로부떠 십



일 대까지 벌초가 저기 월정에 있는데 스삼사건 때는 벌초하러 못 갔어요게.(또 우리가 벌초를 못 다녔어요 그때 산에 우리가 지금 칠 대 조로부터 십일 대까지 벌초가 저기 월정에 있는데 사삼사건 때는 벌초하러 못 갔어요.)

102006 @ 예.(예.)

102006 #1 게 완전히 스삼사건이 끝나고 간 보니까 아 우리 칠 대 조, 산 뒤에 바로 산을 썼어.(그래서 완전히 사삼사건이 끝나고 가서 보니까 아 우리 칠 대 조, 산 뒤에 바로 산을 썼어.)

102006 @ 아.(아.)

102006 #1 게난 옛날에 산을 잘 쓰민 즈슨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산을 딱 부쩍 썼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찾을 길이 있어.(그러니까 옛날에 산을 잘 쓰면 자손이 잘 된다고 해서, 바로 산을 딱 붙여서 썼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찾을 길이 있어.)

102006 @ 예.(예.)

102006 #1 그래도 벌출 허다보니까 몇 년 후에는 그 산을 파 갔더고마는 양심이 가책 돼신고라예. 이제.(그래도 벌초를 하다보니까 몇 년 후에는 그 산을 파 갔더군 양심이 가책 됐는지 이제.)

102006 @ 예.(예.)

102006 #1 경 험 이제 그 산에 우리 칠 대 조들을 묻어있어요 지금. 아 칠 대 조로부터 십일 대까지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에 우리 칠 대 조들을 묻혀있어요 지금. 아 칠 대 조로부터 십일 대까지 이제.)

102006 @ 응.(응.)

102006 #1 이제 파다가 이제 월정에 우리 칠 대 조 삼형제인데 작은 가지가 월정입니다 한○○이라고 옛날에 저 구좌읍장도 헤나고 딱시 이제 저 유명헌 사람입니다.(이제 파다가 이제 월정에 우리 칠 대 조 삼형제인데 작은 가지가 월정입니다 한○○이라고 옛날에 저 구좌읍장도 했고 다시 이제 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유명헌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덜하고 이논 해가지고 우리 칠 대조로부터는 십일 대까지는 산을 열세 열세 산을 파다가 다 화장해네 우리 칠 대조에 산을 묘에 자리에 그 자리에 묻천 잇는디.(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우리 칠 대조로부터는 십일 대까지는 산을 열세 열세 산을 파다가 다 화장해서 우리 칠 대조에 산을 묘에 자리에 그 자리에 묻혀서 잇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아 원래 십대 대에 묻을랴고 하니까 아, 판 보니까 산 개관에 물이 그득 찻어.(아 원래 십대 대에 묻으려고 하니까 아, 파서 보니까 산 개관에 물이 그득 찻어.)

102006 @ 아.(아.)

102006 #1 웨 그득 찻느냐고 허니까 그때는 정성으로 산 물을 개관 팔 자리를, 파 갖고 출혹으로.(왜 그득 찻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정성으로 산 물을 개관 팔 자리를, 파가지고 찰혹으로.)

102006 @ 출혹예.(찰흙.)

102006 #1 출혹으로 막 다린 거라.(찰흙으로 막 다진 거야.)

102006 @ 아.(아.)

102006 #1 그러니 물이 \*\*\*를 못 허는 거라 저 흔 거 ㄴ짜.(그러니 물이 \*\*를 못 하는 거야 저 한 거 같이.)

102006 @ 아, 빠지지 못 헨.(아, 빠지지 못 해서.)

102006 #1 걸 몰랐던, 몰랐던 거라 그 이치를 몰랐던 거라.(걸 몰랐던, 몰랐던 거야 그 이치를 몰랐던 거야.)

102006 @ 아.(아.)

102006 #1 게 우으론 물이 떨어진 거지 그레 물이 우수가 잇는 거라. 아 게 파보니까 개광도 삼백 년 켜 산이 개광도 안 썩언 잇어 저 관도 안썩언 잇어.(그, 위로는 물이 떨어진 거지 그리로 물이 우수가 잇는 거야. 아, 파보니까 광중도 삼백 년 된 묘가 광중도 안 썩어서 잇어 저 관도 안 썩어서 잇어.)

102006 @ 아.(아.)

102006 #1 게 손을 넣어갓고 손으로 다 헛나헛나 건전 겐 완에 화장을 해서, 아 그런 경우도 잇었다고 참.(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다 하나하나 건져서 그래서 와서 화장을 해서, 아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참.)

102006 @ 아.(아.)

102006 #1 아, 거기는 이제 정리할 입장이 못 돼다 정리해 그 산들을 묻으려고 했는데 못 \*\*\* 우리 칠대조에 산에 정리헨 묻읍주, 경 헨 정리헨 지금 묻었다고.(아, 거기는 이제 정리할 입장이 못 되다 정리해 그 묘들을 묻으려고 했는데 못 \*\*\* 우리 칠 대조에 산에 정리해서 묻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지금 묻었다고.)

102006 @ 그런 일도 잇구나예.(그런 일도 있군요.)

102006 #1 예. 건 헨 나 항상 이제 경로당에 앓으면 아, 우리 하르방 삼백 년대 우리 십 대 십일 대 하르방인데 아, 그런 일이 잇었다고 지금 이제.(예. 그렇게 해서 나 항상 이제 경로당에 앓으면 아, 우리 할아버지 삼백 년대 우리 십 대 십일 대 할아버지인데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이제.)

102007 @ 예. 계난 삼촌은 이제 중매결혼헌 셈이로구나예.(예. 그러니까 삼촌은 이제 중매결혼한 셈이로군요.)

102007 #1 중매결혼.(중매결혼.)

102007 @ 예. 중매결혼.(예. 중매결혼.)

102007 #1 나 아까.(나 아까.)

102007 @ 예.(예.)

102007 #1 여기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람이 인정이 잇고 유식했다고.(여기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람이 인정이 잇고 유식했다고.)

102007 @ 예.(예.)

102007 #1 또 큰형이 여기 이장도 해나고 나 바로 그 사름은 이대 이장을 헛고 난

삼대이장을 했어.(또 큰형이 여기 이장도 했고 나 바로 그 사람은 이대 이장을 하고 난 삼대 이장을 했어.)

102007 @ 예예.(예예.)

102007 #1 그 사람 우리 장모가 걸을 만하니까 이젠 이 언니 집을 온 거라 시에서.  
(그 사람 우리 장모가 걸을 만하니까 이젠 이 언니 집을 온 거야 제주시에서.)

102007 @ 예.(예.)

102007 #1 언니한테 아이고 우리 셋년, 셋년이주게 두 번째 딸이난 우리 셋년은 나 때문에 좋은 디 있어도 결혼 못허연.(언니한테 아이고 우리 둘째 딸, 둘째 딸'이지 두 번째 딸이니까 우리 둘째 딸은 나 때문에 좋은 데 있어도 결혼 못해서.)

102007 @ 아.(아.)

102007 #1 이젠 자유당 때난 어느 깡패한테 만남 고생을 흘는지 모르켄 영 허난 아, 그 아까 이 말 했던 아버지가 하 여기 얌전한 총각이 잇우텐 건 나를 소개흔 거라.(이젠 자유당 때니까 어느 깡패한테 만나서 고생을 할지 모르겠다고 일하게 하니까 아, 그 아까 이 말 했던 아버지가 하 여기 얌전한 총각이 있습니다하고 그래서 나를 소개한 거야.)

102007 @ 아.(아.)

102007 #1 겐 그 그 아까 큰형이 나한테 완 우리 어머니한테 저 우리 두○이 결혼 시킵주 으. 이렇게 이예길 혼 거라 아, 느네가 알아근에 헤여 드라 허난에 알았수다 게 두○이 우리 집이 와봐 게 간 거라.(그래서 그 그 아까 큰형이 나한테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저 우리 두○이 결혼 시킵시다 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아, 너희가 알아서 해 달라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이 우리 집이 와봐 그래서 간 거야.)

102007 @ 예.(예.)

102007 #1 간 보난 그 아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우리 처형이 지금 이제 딸이 잇엇저.(가서 보니까 그 아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우리 처형이 지금 이제 딸이 있다.)

102007 @ 예.(예.)

102007 #1 게 딸이 알주게.(그림 딸을 알지.)

102007 @ 예.(예.)

102007 #1 과거에 이모네 집이 가깝게 텅기는 거 혼 번은 보아났주게.(과거에 이모네 집에 가깝게 다니는 거 한 번은 보았지.)

102007 @ 예.(예.)

102008 #1 잇는디 이만저만헐 여기 결혼은 못 헐 잇인디 느 어떻 허니 허길레 게메 마썸 나 게민 죽은 아버지하고 강 의논을 해 보쿠다 어머니광 의논을 해보쿠다 혼연 어머니한테 강 곁으난 아이고 좋다 경 헐 이제 우리 죽은 아버지 강 스주 강 가져옵서 그 때까지 스주를 봤거든.(잇는데 이만저만해서 여기 결혼은 못 해서 잇는데 너 어떻게 하니 허길레 글썄요 나 그러면 작은아버지하고 가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니까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가서 사주 가서 가져오십시오 그때까지 사주를 봤거든.)

102008 @ 아, 예. 스주를 봐야 거니까예.(아, 예. 사주를 봐야 할 거니까요.)

102008 #1 응 스주 봄주 겐 스주 앓양 강 앓양 읍센 보난 그때 강소장이엔 혼 살아 잇어서, 겐 보난 줍디텐 게민 약혼식 홉주 원칙은 약혼식을 우리 저 처가가 거 어디냐면 거 비양동이라.(응 사주 봄시다 그래서 사주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하고 보니까 그때 강소장이라고 한 살아잇어서, 그래서 보니까 좋습니다고 그러면 약혼식 합시다 원칙은 약혼식을 우리 저 처가가 거 어디냐면 거 비양동이야.)

102008 @ 예.(예.)

102008 #1 건디 우리 가시어명이 그 차례를 몰른 거라 오, 그 원칙을 안 따져와네 그자 그저 동생네 집에서.(그런데 우리 가시어머니가 그 차례를 모른 거야 오, 그 원칙을 안 따져서 그저 그저 동생네 집에서.)

102008 @ 예.(예.)

102008 #1 쉽게시레 헤어분 거라. 원칙으론 저 우리 처.(쉽게금 해버린 거야. 원칙으론 저 우리.)

102008 @ 예.(예.)

102008 #1 처분 이제.(처부는 이제.)

102008 @ 집이 가근예.(이 가서.)

102008 #1 큰아방 잇엇주게 큰아부지네가.(큰아버지 있지 큰아버지가.)

102008 @ 예.(예.)

102010 #1 큰아부지네가 이시난 그 집이 강 해야 텔 건디 경 아년 경 약혼식을 헤어네 춤 결혼식을 했는디 허게 돼난 아, 그 음력 동짓달 열흘날 결혼날짜를 잡안 낫는디 아, 그때에 나 지금도 그 배가 만 배가 혼 들 동안 아파갖고 꼭 죽을 지경이라 게난 그때 돈도 엇고 병원에도 못 가지 안해수과게, 아 경 헛단 결혼날짜 열흘 남으난 헛끔 좋아지데 이제.(큰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앓아서 그렇게 약혼식을 해서 참 결혼식을 했는데 하게 돼니까 아, 그 음력 동짓달 열하루날 결혼날짜를 잡았는데 아, 그때에 나 지금도 그 배가 만 배가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꼭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때 돈도 엇고 병원에도 못 가지 앓았습니까, 아 그렇게 하다가 결혼날짜 열흘 남으니까 조금 좋아지데 이제.)

102010 @ 음(음.)

102010 #1 아 결혼은 좋아지난 이제 헛 걸로 했는디 어떠한 우리어머니가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우리 시에 가근에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 의논을 행 읍서 아 이제 작은아버지가 의논을 헛레 가니까 우도에 강 결혼식 헛켄 우도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아버지하고 갑장이고.(아 결혼은 좋아지니까 이제 할 걸로 했는데 어찌다보니까 우리어머니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우리 제주시에 가서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 의논을 해서 오십시오 아 이제 작은아버지가 의논을 하러 가니까 우도에 가서 결혼식 하겠다고 우도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아버지하고 갑장이고.)

102010 @ 예.(예.)

102010 #1 갑장이랏수다게. 또 우도 우도니까. 이제 저 우도식으로 이제 게민 다음 장에는 세화장으로 올거엔, 게 난 또 서화장<sup>79)</sup>에 갈 적에 저 새각기 ㅁ슴 완시킨 옷도 곱게 입영 간 거 뜻고냥 주운 옷을 입영 간 거라 뒤 준 옷을.(갑장이었습니다. 또 우도 우도니까. 이제 저 우도식으로 이제 그러면 다음 장에는 ‘세화장’으로 올거라고, 그럼 난 또 ‘세화장’에 갈 적에 저 새색시 감 오고 있으니까 옷도 곱게 입어서 간 거 똥구멍 기운 옷을 입어서 간 거야 뒤 기운 옷을.)

102010 @ 예.(예.)

102010 #1 게난 우리 집사람은 저 장모안터레, 저 서방 ㅁ심 어느 것과 나 친구를 곤는 거라. 친구는 나보다 키도 작고 얼굴이 좋았주게 게난 날 ㅁ르킨 거라 날 ㅁ르킨 거 보난 뜻고냥 터진 거 입고 하니까 결혼 아니 하겠다고, 원 막 둥굴 춤 혼 거라 장에서 경 혼난 아 이년 말이여 ㅁ음데로, 결혼 허락하고 말이여 지금 이 년 죽이켄 헤여가난 우리 집사람은 어멍 메 안 맞추젠, 할 수없이 나 결혼 허쿠다 나 결혼 허쿠다.(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 장모한테로, 저 서방 ‘ㅁ심’ 어느 것입니까 나 친구를 말하는 거야. 친구는 나보다 키도 작고 얼굴이 좋았지 그러니까 날 가리킨 거야 날 가리킨 거 보니까 똥구멍 터진 거 입고 하니까 결혼 않겠다고, 원 마구 둥굴 춤 한 거야 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 이년 말이다 마음대로, 결혼 허락하고 말이다 지금 이년 죽이겠다고 해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 매 안 맞게 하려고, 할 수없이 나 결혼 하겠습니까 나 결혼 하겠습니까.)

102010 @ 아.(아.)

102010 #1 허쿠덴 헤네 이젠 하도 우리 집사람이 아방안티 애원허난 게민 너 가고정 혼디 가라 경 헨 비양동<sup>80)</sup>에서 춤 음력 동짓달 열흘날 결혼식을 헛십주게 지금.(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이젠 하도 우리 집사람이 아방한테 애원하니까 그러면 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렇게 해서 ‘비양동’에서 참 음력 동짓달 열하루 날 결혼식을 했지요 지금.)

102010 @ 예.(예.)

102009 #1 헛는디 경 헨 이제 춤 그 뒷 헤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젠 똥 빨리 지금 네 똥슬림 나렌 마련헤여네 그때 나 고기 나끄레가네 그때 고질멩이엔 혼 고질 뉘안 그때는 고질멩이 풀아네 그걸로 숟가락 열 개.(헛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그 이듬해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젠 똥 빨리 지금 너희 똥살림 나라고 마련해서 그때 나 고기 뉘으러가서 그때 공미리라고 한 고기를 뉘아서 그때는 공미리 팔아서 그걸로 숟가락 열 개.)

102009 @ 예.(예.)

102009 #1 바꿨어, 물물교환하고 또 집사람 이제 그때 경북 저 출가 갓단 출가 해녀로 갓단에 헤먹던 요만한 냄비.(바꿨어, 물물교환하고 또 집사람 이제 그때 ‘경북’ 저 출가 갓다가 출가 해녀로 갔다가 헤먹던 요만한 냄비.)

102009 @ 예.(예.)

102009 #1 그거 앓이고 헤여네 요 집이 가네 이젠 저 그거 빌언 가네 그 그걸 재산

79) ‘서화장’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민속오일장을 말한다.

80) ‘비양동’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 소재한 자연마을의 하나다.

흐고 어머니 줍쌀 혼말.(그거 가지고 해서 요 집에 가서 이젠 저 그거 빌어서 가서 그 그걸 재산하고 어머니 줍쌀 한 말.)

102009 @ 예.(예.)

102009 #1 줍쌀 혼말 이제 주는 거라 게 거를 가져 간 거라 게 거 다 먹으난 뭐 없지 그때 마침 나 동장 때난 저 교환미라고, 저 나라에서.(줍쌀 한말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져 간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먹으니까 뭐 없지 그때 마침 나 동장 때니까 저 교환미라고, 저 나라에서.)

102009 #1 예.(예.)

102009 #1 저 보릿쌀 보릿쌀 저 받아 들렸단 저 보릿쌀이 저 뭐가 잇엇거든, 정부미가 잇엇다고.(저 보리쌀 보리쌀 저 받아 들였던 저 보리쌀이 저 뭐가 잇거든, 정부미가 있다고.)

102009 @ 예.(예.)

102009 #1 계문 일반 저 일반 국민들한테 빌려 줬다가 또 보리수확 하면은 또 받아 들이곡 허는 거라 지금 계민 그때는 이젠 그 보리를 정미 해논 거.(그러면 일반 저 일반 국민들한테 빌려 줬다가 또 보리수확 하면은 또 받아들이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때는 이젠 그 보리를 정미 해놓은 거.)

102009 #1 예.(예.)

102009 #1 정리 해논 걸 이제 빌려주는 거라 게 다음에는 그때 정미 해논 건 스십 키로짜리고.(정리 해놓은 걸 이제 빌려주는 거야 그럼 다음에는 그때 정미 해놓은 건 사십 키로짜리고.)

102009 @ 예.(예.)

102009 #1 다음 내어 놓은 건 오십 키로 짜리.(다음 내 놓은 건 오십 키로 짜리.)

102009 @ 예.(예.)

102009 #1 으 오십 키로 짜릴 내놓아야 까끄면은 그 돼가 돼거든.(으 오십 키로 짜릴 내놓아야 깎으면은 그 돼가 되거든.)

102009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09 #1 그래서 나가 동장 힘으로 헨 그때도 세 통을 먹은 거라 세통은 이제 교환미를 먹은 거라.(그래서 내가 동장 힘으로 해서 그때도 세 통을 먹은 거야 세통은 이제 교환미를 먹은 거야.)

102009 @ 세 통이민 몇 말 정도 될 거파.(세 통이면 몇 말 정도 될 겁니까.)

102009 #1 몇 말?(몇 말?)

102009 @ 예.(예.)

102009 #1 지금 혼통 혼 말이면.(지금 한통 한 말이면.)

102009 @ 예.(예.)

102009 #1 혼 열 말 정돈 돼주게.(한 열 말 정도는 되지.)

102009 @ 아.(아.)

102009 #1 그제 열 말 계난 혼 서른 말로 혼겨울 보리 날 때까지 먹은 거라.(그것이

열 말 그러니까 한 서른 말로 한겨울 보리 낱 때까지 먹은 거야.)

102009 @ 보리 낱 때까지 먹었어.(보리 낱 때까지 먹어서요.)

102009 #1 보리가 낱 때까지 못 먹었어. 못 먹었는데 그 해 이월 들 나면은 집사람이 저 물질 헤어근에 미역을 캐거든 메역.(보리가 낱 때까지 못 먹었어. 못 먹었는데 그 해 이월 달 나면은 집사람이 저 물질 해서 미역을 캐거든 미역.)

102009 @ 예. 메역.(예. 미역.)

102009 #1 메역 케네 풀멍 이제 걸로 이제 쓸 풀아먹곡 행 살아왔던 거라 지금 이제.(미역 캐서 팔면서 이제 걸로 이제 쌀 팔아먹고 해서 살아왔던 거야 지금 이제.)

102009 @ 아, 그게 자본이로구나예.(아, 그게 자본이로군요.)

102009 #1 예예. 경 험 경허난 이제 농스를 질 수가 있나. 농스를 못 짓게 됐었는데 아 마침 아까 여기 왔던 그 어머니가, 이모 거든 게 나 저 형이 나하고 ㄱ찌 중학교 들어갔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거라.(예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농사를 못 짓게 되었는데 아 마침 아까 여기 왔던 그 어머니가, 이모 거든 나 저 형이 나하고 같이 중학교 들어갔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거야.)

102009 @ 예.(예.)

102009 #1 계난 신부 옷감이 엇인 거라 신부, 신부 저 신랑집에서 옷 감을 해 주어서 돼거든 옷감을 못 해주난에 아 그저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완 허난 이제 이모네 저 작은이모가 살았수다게. 그디 간 하루 저 줌제올라 갈 덕에 아 저 선물 받은 게 이서 그 이모부가 일본 무역선을 타났어.(그러니까 신부 옷감이 엇는 거야 신부, 신부 저 신랑집에서 옷감을 해 주어야 되거든 옷감을 못 해주니까 아 그저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하니까 이제 이모네 저 작은이모가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 저 잠재우려고 갈 적에 아 저 선물 받은 게 있어 그 이모부가 일본 무역선을 탔었어.)

102009 @ 음.(음.)

102009 #1 밀항선을 타났어 밀항 험 덕에 양단치마 양단 저고리 곱 잇인 거라 이렇게 혼 거 그 사람 뭉이 밧이 혼 오백 평 밧이 잇었주 그 밧 헤어먹고 거라근에 낱 드라게 그걸로 이젠 저 신부 옷감을 혼 거라.(밀항선을 탔었어 밀항 할 적에 양단치마 양단 저고리 곱 잇는 거야 이렇게 한 거 그 사람 뭉이 밧이 한 오백 평 밧이 있었지 그 밧 헤어먹고 그것은 낱 달라 그럼 그걸로 이젠 저 신부 옷감을 한 거야.)

102009 @ 으.(으.)

102009 #1 게 집사람이 그걸로 이젠 첫 농스를 짓게 시작웤 거라 거기 이젠 줄 갈안 줄 갈안 그 사람이 조킴질 메젠 하니까 방석 그딜 ㄱ러 앓이니까 다리 시리니까 집이 가 방석 앓아 가근에 방석 깔앙 앓아근에 걸로 움직이멍 저 조킴질을 메멍 해낫수다게 지금.(그럼 집사람이 그걸로 이젠 첫 농사를 짓게 시작된 거야 거기 이젠 조를 갈아서 조를 갈아서 그 사람이 조 김을 매려고 하니까 방석 거길 깔아 앓으니까 다리 시리니까 집에 가 방석 가지고 가서 방석 깔아서 앓아서 걸로 움직이면서 저 조 김을 매면서 했 습니다 지금.)

102009 @ 아.(아.)

102009 #1 경 헤어네 조컴질을 매기 시작헿멍 첫 농스를 헿기 시작 헿수다게.(그렇게 해서 조 김을 매기 시작하면서 첫 농사를 하기 시작 헿습니다.)

102009 @ 예. 경 헿구나예.(예. 그렇게 헿군요.)

102009 #1 경 헿 줍 헿 저.[기침을 한다.](그렇게 해서 줍 헿 저.[기침을 한다.])

102009 @ 게난 사주는 동네에서 헤네 가네 그 동네 강 강소장이엔 헿 사람이 사주는 봐주고예.(그러니까 사주는 동네에서 해서 가서 그 동네 강 강소장이라고 한 사람이 사주는 봐주고요.)

102009 #1 무시거마씨?(무엇요?)

102009 @ 사주 사주 삼춘.(사주 사주 삼춘.)

102009 #1 강스장 하르방이 스주는.(강사장 할아버지가 사주는.)

102009 @ 맞수다 강스장 하르방이 봐주고.(맞습니다 강사장 할아버지가 봐주고.)

102009 #1 예예.(예예.)

102009 @ 또 혼수품헿고 결혼예물은 그 새각시안티 해주곡.(또 혼수품하고 결혼예물은 그 새색시한테 해주고.)

102009 #1 아, 그때는.(아, 그때는.)

102009 @ 예.(예.)

102009 #1 집에서 저 어머니가 어디 가네 구헿 헿고 아까 말헿 건 아까.(집에서 저 어머니가 어디 가서 구해서 하고 아까 말한 건 아까.)

102009 @ 거는 사.(거는 사.)

102009 #1 나 밭농스 밭을 구헿게 헿 건 그런 식으로 헿.(나 밭농사 밭을 구하게 된 건 그런 식으로 해서.)

102009 @ 그런 식으로.(그런 식으로.)

102009 #1 밭을 구헤네 농스를 헿게 헿다.(밭을 구해서 농사를 하게 헿다.)

102009 @ 저기 스춘.(저기 사춘.)

102009 #1 예예.(예예.)

102009 @ 스춘 혼수품은.(사춘 혼수품은.)

102009 #1 예예.(예예.)

102009 @ 그런 식으로 헿는 거고예.(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예.)

102009 #1 그걸 주면은 그 값으로.(그걸 주면은 그 값으로.)

102009 @ 예.(예.)

102009 #1 밭이영 공짜로 헤먹어라.(밭하고 공짜로 헤먹어라.)

102009 @ 헤먹은 거고예.(헤먹은 거고요.)

102009 #1 저장헿는 식으로.(저장하는 식으로.)

102009 @ 예. 경헿고 살림살이는 그 강원도 물질 갈 때 헿 솥단지 헿고.(예. 그렇게 하고 살림살이는 그 강원도 물질 갈 때 한 솥단지 하고.)

102009 #1 솥단지 헿나 헿고.(솥단지 하나 하고.)

102009 @ 삼춘 그.(삼춘 그.)



102009 #1 저 숟가락 저 숟가락 딱 열 개.(저 숟가락 저 숟가락 딱 열 개.)  
 102009 @ 열 개하고.(열 개하고.)  
 102009 #1 나가 이제 나 이제 낚은 고기로 걸 사는 거 왜에는.(내가 이제 나 이제 낚은 고기로 그걸 사는 거 외에는.)  
 102009 @ 사온 거하고.(사온 거하고.)  
 102009 #1 어머니가 또 이제.(어머니가 또 이제.)  
 102009 @ 어머니가 또 이제 줍쌀 혼 말.(어머니가 또 이제 줍쌀 한 말.)  
 102009 #1 어머니가, 줍쌀 혼 말.(어머니가, 줍쌀 한 말.)  
 102009 @ 지원 해주고.(지원 해주고.)  
 102009 #1 오, 걸로 시작했다.(오, 걸로 시작했다.)  
 102010 @ 결혼사진은 그때는.(결혼사진은 그때는.)  
 102010 #1 결혼사진은 그때 우리 그저 결혼사진은 그 날 저 주의보 내런 못 완.(결혼 사진은 그때 우리 그저 결혼사진은 그 날 저 주의보 내려서 못 왔어.)  
 102010 @ 예.(예.)  
 102010 #1 아, 몇 칠만이 우리 당숙이 사진을 찍어나서 그 사람 큰 형이.(아, 며칠 만에 우리 당숙이 사진을 찍었어. 그 사람 큰 형이.)  
 102010 @ 예.(예.)  
 102010 #1 성산포에서 사진을 찍어나수다게.(‘성산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02010 @ 아.(아.)  
 102010 #1 아, 젠디 사진기를 앓영 오고 카메라 사진을 앓영 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놔 잘 돼지를 안해서 그거 주어돈 어떻연 흐지부지현 우리가 나가 잊어지어부렸어.(아, 그런데 사진기를 가지고 오고 카메라 사진을 가지고 와서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잘 돼지를 앓아서 그거 줘두어서 어떻게 흐지부지해서 우리가 내가 없어져버렸어.)  
 102010 @ 사진 찍어신디예.(사진 찍었는데요.)  
 102010 #1 아, 참 나가 원.(아, 참 내가 원.)  
 102010 @ 아이고 아까운 거예.(아이고 아까운 거요.)  
 102010 #1 아까운 걸.(아까운 걸.)  
 102010 @ 계난에 아까 저기 여자삼춘은 연지곤지하고.(그러니까 아까 저기 여자삼춘은 연지곤지하고.)  
 102010 #1 계난 결혼식 결혼하는 건 못 찍고.(그러니까 결혼식 결혼하는 건 못 찍고.)  
 102010 @ 예.(예.)  
 102010 #1 그 후에.(그 후에.)  
 102010 @ 후에예.(후에요.)  
 102010 #1 뒷날 그냥 둘이만 찍은 건디, 그걸 나가 보관을 못헨 잇어서.(뒷날 그냥 둘이만 찍은 건데, 그걸 내가 보관을 못해서 있었어.)  
 102010 @ 그때 활옷 입고 이거 족두리 허곡 해네 현 거라예.(그때 활옷 입고 이거 족두리 하고 해서 한 거예요.)

102010 #1 예.(예.)

102011@ 계난 집은 또 이제 동녘 서녘 집.(그러니까 집은 또 이제 동녘 서녘 집.)

102011#1 ○○○이네 박거리.(○○○이네 바깥채.)

102011@ 예.(예.)

102011#1 박거리.(바깥채.)

102011@ 예. 박거리.(예. 바깥채.)

102011#1 방 하나 부엌 저 하나 마루 있고 부엌 있고 해네 세 칸은 세 칸이랴수다  
계.(방 하나 부엌 저 하나 마루 있고 부엌 있고 해서 세 칸은 세 칸이었습시다.)

102011@ 예. 그축 해네예.(예. 것처럼 해셔요.)

102011#1 그 집이 우 저 오년 동안 살아수다 그 집이.(그 집에 우 저 오년 동안 살았  
습시다 그 집에.)

102011@ 예. 오년예.(예. 오년요.)

102011#1 예.(예.)

102011@ 계난 결혼식은 뭐 삼촌 집이서예. 어머니 집이서 해네예.(그러니까 결혼식은  
뭐 삼촌 집에서요. 어머니 집에서 해셔요.)

102011#1 예. 어머니 집이서 결혼식은 하고.(예. 어머니 집에서 결혼식은 하고.)

102011@ 결혼식이엔 해도 무신 신랑 상 받고 신부 상 받고 신부집이 강 비양동 가  
네 상 받고.(결혼식이라고 해도 무슨 신랑상 받고 신부상 받고 신부집에 가서 ‘비양동’  
가서 상받고.)

102011#1 예. 게 그땐 가네 그때 물 타고.(예. 그럼 그때는 가서 그때 말 타고.)

102011@ 물 타고 신부는 가마.(말 타고 신부는 가마.)

102011#1 예. 정식은 어려와도 물은 타고.(예. 정식은 어려워도 말은 타고.)

102011@ 예. 가마해네.(예. 가마해서.)

102011#1 가마하고.(가마하고.)

102011@ 가마는 사람이 저기 그 이 들렁 왔수파 아니민 물.(가마는 사람이 저기 그  
이 들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말.)

102011#1 사람이 저 가마가마 들르는 그때 밭에 하인이.(사람이 저 가마가마 드는  
그때 마을에 하인이.)

102011@ 가마꾼.(가마꾼.)

102011#1 하인.(하인.)

102011@ 밭을 하인.(마을 하인.)

102011#1 밭을 하인이 들러다 줬수다.(마을 하인이 들어다 줬습시다.)

102011@ 밭을 하인.(마을 하인.)

102011#1 그 밭을 하인한테.(그 마을 하인한테.)

102011@ 예.(예.)

102011#1 물 품샀이나.(말 품샀이나.)

102011@ 예.(예.)

102011#1 가마 들러오는 샅이나 주어마썸 이제.(가마 들고 오는 샅이나 주어요 이제.)

102011@ 예. 그축 헤기네예.(예. 것처럼 해서요.)

102011#1 예. 주어마씨.(예. 주어요.)

102011@ 예. 그렇게 헤기네 헝고예.(예. 그렇게 해서 하고요.)

102012 @ 자식은 이거 사남 이녀?(자식은 이거 사 남 이녀?)

102012 #1 스 남 이녀.(사 남 이녀.)

102012 @ 그 결혼 허자마자 그 바로 살림나신게예.(그 결혼 하자마자 그 바로 살림 났네요.)

102012 #1 예. 살림 결혼헌 뒷헤예.(예. 살림 결혼한 이듬해요.)

102012 @ 예.(예.)

102013 @ 이 여자 삼촌이 잇어사 들어볼 건디 시집살이를 어떻 헤시니 헤가지고.(이 여자 삼촌이 있어야 들어볼 건데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헤가지고.)

102013#1 아이고 시집살이는 우리 집사름 나 저 경 험 결혼헤여네 지금 저 쳇헤 쳇 번 동장할 땐 아녀고, 저 나가 저 육십구년도부터 칠십이년도까지 동네 부락장을 헤수 다게 그때.(아이고 시집살이는 우리 집사람 나 저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지금 저 쳇헤 쳇 번 동장할 땐 앓고, 저 내가 저 육십구년도 부터 칠십이년도까지 동네 부락장을 했습니다 그때.)

102013 @ 예.(예.)

102013 #1 육십년도에 혼 번헝고 혁명 일어나는 해에 혼 번 헤여난.(육십년도에 한 번하고 혁명 일어나는 해에 한 번 했어.)

102013 @ 예.(예.)

102013 #1 혼 헤헝난 머 동네사름덜 귀찮게 헝고 혼 해 헝난에 치완 집어치워된에, 집어치워된에 어디 저 삼천단.(한 해하니까 뭐 동네사람들 귀찮게 하고 한 해 하니까 치워서 집어치워두고, 집어치워두고 어디 저 산천단.)

102013 @ 예.(예.)

102013 #1 저 무신 서귀포헝고 중산간도로 빼는 거 뭐우파?(저 무슨 서귀포하고 중산간도로 빼는 거 무엇입니까?)

102013 @ 오일육.(오일육.)

102013 #1 오일육도로 그디 간 삼천당에 간 저 삼부토건에 소속웨언, 구락장 저 돌 저 삼부토건에서, 저 머 길 뺄 때게는 야 내창돌 깨어.(오일육도로 거기 가서 산천단에 가서 저 삼부토건에 소속되어서, 구락장 저 돌 저 삼부토건에서, 저 뭐 길 뺄 때에는 야 냇돌 깨어.)

102013 @ 예.(예.)

102013 #1 야 내창돌 깨어근에 야생돌 걸 구락장에서 곶아.(야 냇돌 깨어서 야생돌 그걸 구락장에서 곶아.)

102013 @ 예.(예.)

102013 #1 그 돌ㄴ루ㄴ지 나오면 그 돌ㄴ루헝고 또 자갈.(그 돌가루까지 나오면 그

돌가루하고 또 자갈.)

102013 @ 예.(예.)

102013 #1 흐 네 가지로 하고 구분해 나왔다고.(한 네 가지로 하고 구분해 나왔다고.)

102013 @ 예.(예.)

102013 #1 흙은 자갈 그 다음 잔자갈 겐 그거 놔근에 그거 다져놔근에 이젠 돌꺾루 꺾루 놔근에 골탕<sup>81)</sup> 뿌리면은 이제 그거가 도로가 되는 거라. 겐 나 이젠 삼부토건<sup>82)</sup> 일하는 디 간 처음에는 제주 주정공장에 취직하면 켈 그디가 제일 최고로 좋은 직장이라.(굵은 자갈 그 다음 잔자갈 겐 그거 놔서 그거 다져놔서 이젠 돌가루 가루 놔서 ‘골탕’ 뿌리면 이제 그거가 도로가 되는 거야. 겐 나 이젠 삼부토건 일하는 데 가서 처음에는 제주 주정공장에 취직하면 켈 거기가 제일 최고로 좋은 직장이야.)

102013 @ 아.(아.)

102013 #1 게난 우리 처남이 있으니까 처남이 연결로 그디나 들어가 보카 허영 처음엔 우쭐하게 시리 제주시에 나 간 거라, 아 나간 뭐 저 처갓집이 오래 있기도 미안하고 동문통<sup>83)</sup> 홀어멍 잇는디 하숙집이, 그디서 그 할망이 좋은 할망이데.(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있으니까 처남이 연결로 거기나 들어가 볼까 해서 처음엔 우쭐하게끔 제주시에 나 간 거야, 아 나가서 뭐 저 처갓집에 오래 있기도 미안하고 ‘동문통’ 홀어머니 잇는데 하숙집에, 거기서 그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인데.)

102013 @ 응.(응.)

102013 #1 나 벌영 주커메, 하숙방이랑 웨상 험준 헨 아 그디서 이젠 밥을 몇칠 먹는 거라. 아, 먹어보니까 머 그 게 어떻게 직장이 됩니까게 겐, 삼부토건에 그디 가민 일엇이 잇단 잇젠 허드라.(나 벌어서 주겠으니까, 하숙방이랑 외상 하죤 해서 아 거기서 이젠 밥을 며칠 먹는 거야. 아, 먹어보니까 뭐 그 게 어떻게 직장이 됩니까 그래서, ‘삼부토건’에 거기 가면 일없이 있다가 있다고 하더라.

102013 @ 예.(예.)

102013 #1 경 헨 그딜 좇아가는디 가단 황세왓<sup>84)</sup>디 이제 저 일 허는 디 잇젠 흐난 황세왓딘 가니까 황세왓 저 잔디 이기는 일 왜냐하면 그딘 미깡 싱그젠.(그렇게 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가다가 ‘황세왓’에 이제 저 일 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 ‘황세왓’에 가니까 ‘황세왓’ 저 잔디 이기는 일 왜냐하면 거기는 굴 심으려고.)

102013 @ 아.(아.)

102013 #1 미깡 곧 나올 때난 미깡밭 개간하젠 그때는 또 무신 저 삼으로만 밭을 개간을 할 때라.(굴 곧 나올 때니까 굴밭 개간하려고 그때는 또 무슨 저 삼으로만 밭을 개간을 할 때야.)

102013 @ 예.(예.)

102013 #1 아, 게 그디 간 흐 번 나꺾라 우리가 헤보렌 흐는 거라 헤보난 좋으난엔

81) ‘골탕’은 아스팔트(asphalt)를 말한다.

82) ‘삼부토건’은 회사명이다.

83) ‘동문통’은 제주시 건입동의 옛 이름이다.

84) ‘황세왓’은 제주시에 소재한 지명이다.

나 혼 몇 칠 잇이민 연락흐크메 몇 칠간 기다리렌, 아 경 헨 꺾나지만은 아 건 믿을 수가 었언 삼부토건에 올라가십주게.(아, 그럼 거기 가서 한 번 나보고 우리가 해보라고 하는 거야 해보니까 좋으니까 나 함 며칠 있으면 연락하겠으니 며칠간 기다리라고, 아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은 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서 ‘삼부토건’에 올라갔습니다.)

102013 @ 음.(음.)

102013 #1 올라간 삼부토건에 간 흐난 이제 일흐라고 젠 나는 이제 좀 흐끔 더 벌켄 해네 그 네창돌 큰 다이너마이트로 깨면.(올라가서 ‘삼부토건’에 가서 하나까 이제 일하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조금 더 벌겠다고 해서 그 넷돌 큰 다이너마이트로 깨면.)

102013 @ 응.(응.)

102013 #1 이젠 또 석수덜이 그 지엠쓰시<sup>85)</sup>에 시끌 수 잇게시리 돌을 깨는 거라.(이젠 또 석수들이 그 ‘지엠쓰시’에 실을 수 있게끔 돌을 깨는 거야.)

102013 @ 예.(예.)

102013 #1 게민 그 돌을 우리는 싣그는 거라 게민 동아리 치영 너이가 동아리헤근에 흐나 싣그면은 스십 원 그 땃 돈 게민 혼 사름이 십 원씩 버는 거라 오.(그러면 그 돌을 우리는 싣는 거야 그러면 동아리 지어서 넷이서 동아리해서 하나 싣으면은 사십 원 그 때 돈 그러면 한 사람이 십 원씩 버는 거야 오.)

102013 @ 아.(아.)

102013 #1 게민 그 땀 또 흐루 너이가 동아리 헤근에 열일곱 차 이상 싣그면은 백칠십만원이 뛴는 거라 혼 사름이, 백칠십만원 이상 벌면은 소득세를 공제허는 거라 십 원씩 혼 차에, 게민 열옴둑 차를 싣그면은 그거.(그러면 그 땀 또 하루 넷이서 동아리 해서 열일곱 차 이상 싣으면은 백칠십만원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백칠십만원 이상 벌면은 소득세를 공제하는 거야 십 원씩 한 차에, 그러면 열여덟 차를 싣으면은 그거.)

102013 @ 엇이.(엇이.)

102013 #1 혼 찰 싣곤 거는 공짜거든 게민 열옴둑 차를 싣그면은 아니 해부는 거라.(한 차를 실은 거는 공짜거든 그러면 열여덟 차를 싣으면은 아니 해버리는 거야.)

102013 @ 예.(예.)

102013 #1 스무 차 싣곁직흐민 우리 네병이라든 게민 두 차 더 싣글 거난 세 차 더 싣글 거난 허자고 갱 또 허기도 헤어가곡 영 허명 허영 혼 스십일 동안 거기서 흐는디 회사에서 공짜로 보릿쌀 혼 통.(스무 차 싣음직하면 우리 내버려도 그러면 두 차 더 실을 거니까 세 차 더 실을 거니까 하자고 그렇게 또 하기도 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한 사십일 동안 거기서 하는데 회사에서 공짜로 보리쌀 한 통.)

102013 @ 예.(예.)

102013 #1 또 장 혼 통 주뵈 웨상으로.(또 장 한 통 주뵈 외상으로.)

102013 @ 예.(예.)

102013 #1 게 그걸로 보릿쌀 혼 통으로 장에 장쿡만 먹으멍 걸로 경허명 스십일 동안 일헤여네 이젠 겨울도 들어가곡 춥기도 흐뵈 지금 이제.(그럼 그걸로 보리쌀 한 통으

85) ‘지엠쓰시’는 제보자가 미군 화물차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로 장에 장국만 먹으면서 걸로 그렇게 하면서 사십일 동안 일해서 이젠 겨울도 들어가고 춥기도 하데 지금 이제.)

102013 @ 예.(예.)

102013 #1 겐 우리 집에 오키엔 해네 경 헨 그것도 간조<sup>86)</sup> 간조엔 헛주 간조, 돈 나오기 이전에 오 그거 십 프로 공제해근에 돈으로 바꾸는 곳이 전표를 바꾸는 곳이 있어 걸로 바뀐에 그때 재건복이엔 헨 옷이 있어.(그래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간조’ ‘간조’라고 했지 ‘간조’, 돈 나오기 이전에 오 그거 십프로 공제해서 돈으로 바꾸는 곳이 전표를 바꾸는 곳이 있어 걸로 바뀌서 그때 재건복이라고 한 옷이 있어.)

102013 @ 재건복마씨.(재건복요.)

102013 #1 저 재건복이엔 혼 건 그 고리텅으로 댜 거 그거 이제 삼천 원인가 그 댜 돈으로 해연 그 재건복 혼 불 저 사 입고 그런 집이 완 용돈 쓰멍 해나수다게 지금예. (저 재건복이라고 한 건 그 코르텐으로 된 거 그거 이제 삼천 원인가 그때 돈으로 해서 그 재건복 한 벌 저 사 입고 그런 집에 와서 용돈 쓰면서 했습니다 지금요.)

102013 @ 아.(아.)

102013 #1 아까ㄴ찌 가난 그 사름도 가나고 또 혼 사람 죽어불엇주만은 그 사름덜은 또 쪼금 덜 벌어도 뭘 허켄 허영 구락샤에 돌 등겨그넵에 드리치는 일 그 사름덜은 그런 일 해났어 거 아까 그 사름덜은 그건 쪼금 나보다 쪼금 덜 벌엇주, 쪼끔.(아까처럼 가니깐 그 사람도 샀고 또 한 사람 죽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은 또 쪼금 덜 벌어도 뭘 하겠다고 해서 ‘구락샤’에 돌 당겨서 들이치는 일 그 사람들은 그런 일 했었어 거 아까 그 사람들은 그건 쪼금 나보다 쪼금 덜 벌엇지, 쪼금.)

102013 @ 예.(예.)

102013 #1 경 흥멍 이제 해나고 헛는디 아이고 참.(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고 했는디 아이고 참.)

102013 @ 음.(음.)

102014 @ 자식덜 결혼은 어떻 시킵디가 어떻게 헛디가.(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2014 #1 양?(네?)

102014 @ 자식덜 결혼은.(자식들 결혼은.)

102014 #1 자식덜 결혼은예.(자식들 결혼은요.)

102014 @ 연애결혼잇과 중매결혼잇과.(연애결혼입니까 중매결혼입니까.)

102014 #1 다 다 저 어떻 어떻 다 연애결혼.(다 다 저 어떻게 어떻게 다 연애결혼.)

102014 @ 다 연애결혼예.(다 연애결혼요.)

102014 #1 예. 겐디 세 번째 아덜만은 어떻 어떻 소개해네, 저 소개헨 결혼식을 해줘서.(예. 그런데 세 번째 아들만은 어떻게 어떻게 소개해서, 저 소개해서 결혼식을 해줬어.)

86) ‘간조’는 일본어 발음(kanzo 勘定)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샅이다.

102014 @ 세 번째 아들.(세 번째 아들.)

102014 #1 세 번째 아들은예. 호텔은 탕겨도 아이가 온순해여.(세 번째 아들은요 호텔은 다녀도 아이가 온순해.)

102014 @ 응.(응.)

102014 #1 경 해네 연애를 못허는 거라.(그렇게 해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102014 @ 아.(아.)

102014 #1 아, 연애를 못헐 서른다섯까지 돼난 나가 미쳐질 지경입디다게.(아, 연애를 못해서 서른다섯까지 되니까 내가 미쳐질 지경입디다.)

102014 @ 응.(응.)

102014 #1 계난 처녀만 봐지민 우리 아들 만나보라 우리 아들 만나보아 응 나 농협 이사로 탕길 댄디 구좌농협이사로 탕길 댄디 또 농협직원안티도, 으 직원들 시켜근에 영 만나보게 해영 허명도 안 돼는 거라.(그러니까 처녀만 봐지면 우리 아들 만나보라 우리 아들 만나봐 응 나 농협이사로 다닐 댄데 구좌농협이사로 다닐 댄데 또 농협직원한테도, 오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만나보게 해서 하면서도 안 되는 거야.)

102014 @ 음.(음.)

102015 #1 경 허명 헌디 아, 하루는 경 해영 춤 저 육짓아가씨까지 구홀라고 혼 거라. 헌디 으 육지아가씨는 제주 아가씨보다 보통 아가씨보다 믿지 못허지 아니웃과게. 야 차마 육지아가씨안티 홀 티야 혼난, 우리 저 처형 처제가 혼나 부산 살았주게.(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 하루는 그렇게 해서 참 저 육지 아가씨까지 구하려고 한 거야. 한테 오 육지아가씨는 제주아가씨보다 보통 아가씨보다 믿지 못하지 않습니다. 야 차마 육지아가씨한테 할 테냐 하니까, 우리 저 처형 처제가 하나 부산 살았지.)

102014 @ 예.(예.)

102015 #1 계난 구해주켄 허여도 차마가 어떻 허코한다 계민 혼 달 조금만 기다려보 쿠다. 혼 쓸 시난에 그 호텔에 그랜드호텔<sup>87)</sup>에 근무해나수다게 제주전문대학<sup>88)</sup> 나완 ㄱ 짜 일행이 우리 누나안티 장게웁서. 나가 소개 해줍주 아 경 헐 소개를 해준거라.(그러니까 구해주겠다고 해도 차마 어떻게 할까하다 그러면 한 달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호텔에 ‘그랜드호텔’에 근무했습니다 제주전문대학 나와서 같이 일행이 우리 누나한테 장가오십시오. 내가 소개 해주지요 아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해준 거야.)

102015 @ 아, 같은 직장에서.(아, 같은 직장에서.)

102015 #1 아, 계난 그 아가씨는게 제주여상<sup>89)</sup> 우등생으로 나완에 그 보험회사에.(아,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제주여상 우등생으로 나와서 그 보험회사에.)

102015 @ 예.(예.)

102015 #1 댁이는 지집아이라. 여즈라. 해서 이제 결혼해여네 살암 수다게 지금.(다니는 계집아이야. 여자라. 해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87) ‘그랜드호텔’은 제주시에 소재한 호텔이다.

88) ‘제주전문대학’은 제주시에 소재한 대학이다.

89) ‘제주여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학교이다.

102015 @ 아.(아.)

102015 #1 계난에 ㄱ만시간에 인연이 따르난예. 존걸 경 헤네 저 허는 거라마씨.(그러니까 가만있으니까 인연이 따르니까요 좋은걸 그렇게 해서 저 하는 거예요.)

102015 @ 예.(예.)

102015 #1 아 계난 어찌나 거 사돈 봐지민 고마운지 지금 계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디 아 그 이제 메뉴리가 이제 막 발아지고 으망지우다게 제주여상양 저 뭘로 나오고 ㅇㅇ가 취직허민 말주 대학은 뭘 대학이엔 대학도 안 시켜줘서.(아 그러니까 어찌나 거 사돈 봐지면 고마운지 지금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는데 아 그 이제 며느리가 이제 마구 바라지고 야무집니다 ‘제주여상’요 저 무엇으로 나오고 ㅇㅇ가 취직하면 말지 대학은 뭘 대학이냐고 대학도 안 시켜줘서.)

102015 @ 아.(아.)

102015 #1 돈도 집이 세 척이엔 혼 거라 막 돈 예금하고 해노난.(돈도 집이 세 채라고 한 거야 마구 돈 예금하고 해놓으니까.)

102015 @ 아.(아.)

102015 #1 경 혼 하르방이 딸은 영리해도 대학은 안 시켰던 하르방인디 계도 그 사돈이 고마와.(그러한 할아버지가 딸은 영리해도 대학은 안 시켰던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그 사돈이 고마워.)

102015 @ 아.(아.)

102015 #1 우리 딸도 오누이 다 그 하르방이 다 키워줘서 지금 경노당에도 안탱겨 그 하르방 그 손지덜 키워줘 그 손지가 혼 둘 이십 일 날 저 어디고 저저 서귀포서 오 예술 뭘해서 발레 할게엔.(우리 딸도 오누이 다 그 할아버지가 다 키워줘서 지금 경로당에도 안다녀 그 할아버지 그 손주들 키워줘 그 손주가 한 달 이십 일 날 저 어디고 저저 서귀포서 오 예술 무엇해서 발레 할 거라고요.)

102015 @ 아.(아.)

102015 #1 아 요번이 그 손지가 전나 와서 하르버지 나 공연 할 거예요. 아 계난 그 날 가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아.(아 요번에 그 손지가 전화 와서 할아버지 나 공연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날 가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아.)

102015 @ 예.(예.)

102015 #1 손진 또 웅변을 잘 헤여 웅변학원에 텅기멍 혼 번은 웅변학원에서 이제 웅변 허노렌 이제 또 웅병대웨엔 와근에 이제 와근에 읍센, 가나고 이제 영 흥멍 허는디.(손주는 또 웅변을 잘 해 웅변학원에 다니면서 한 번은 웅변학원에서 이제 웅변 하노라고 이제 또 웅병대회라고 와서 이제 와서 오시라고, 갔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데.)

102015 @ 아, 아이고 것도 다복허우다게예.(아, 아이고 그것도 다복합니다요.)

102015 #1 아, 계난 이 메뉴리가 또 이제 제주대학<sup>90)</sup> 그 앞이 카페 출령 흥는디, 일종에 천만 원 출자헤여네 카페를 흥노렌 흥는디 그디가 수지 안 맞안 우도만 땅 사근에

90) ‘제주대학’은 제주시에 소재한 ‘제주대학교’를 이르는 말이다.



우도에만 장사헿켄 허길레 나가 반갑지 안허우다게. 주식농사 잘 돼야 될 거 아니우과게. 돈이 문제과양.(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또 이제 ‘제주대학’ 그 앞에 카페 차려서 하는데, 일종의 천만 원 출자해서 카페를 하노라고 하는데 거기가 수지 안 맞아서 우도만 땅 사서 우도에만 장사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갑지 않습니다. 자식농사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문제입니까요.)

102015 @ 예.(예.)

102015 #1 게고 나 이 지금 춤 폴면은 천백 평짜리주만은 지금 한 십억 짜리 밭 잇수다게.(그리고 나 이 지금 참 팔면은 천백 평짜리지만은 지금 한 십억 짜리 밭 있습니다.)

102015 @ 아.(아.)

102015 #1 그 폴민 혼 십억 받을 수 잇수다게 ㄴ.(그 팔면 한 십억 받을 수 있습니다어.)

102015 @ 예.(예.)

102015 #1 이제 폴렌 해도 지금 안 폴암서. 더 더 올르민 폴켄, 저디 저 마농 빌려줬는다. 경 헿는디 돈이 문젯과게 난 주식들 공부 잘 시켜줘야 될 거 아넛과게 지금. (이제 팔라고 해도 지금 안 팔고 있어. 더 더 오르면 팔겠다고, 저데 마늘 빌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02015 @ 예.(예.)

102015 #1 나가 지금 경 허젠 지금 공부 시키젠 나 오라 오라 안헿수다게. 왕 또 잘 웨민 헿주만은 못 허민 미안헤지고 어뎡 말잇과게.(내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부 시키려고 나 오라 오라 않습니다. 와서 또 잘 되면 하지만은 못 하면 미안헤지고 어떻게 말입니까.)

102015 @ 아.(아.)

102015 #1 경 헌디 메뉴리는 우리 제주에서 버틸 힘이 엿수다 제주 시내에선 소섬<sup>91)</sup> 강 장스도 헿곡 허길레 경 기영 헿라마는 난 모르키여 경만 헿연 잇는건디.(그런데 며느리는 우리 제주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주 시내에선 ‘소섬’ 가서 장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 하라마는 난 모르겠다 그렇게만 해서 잇는건데.)

102015 @ 예.(예.)

102015 #1 이거 혼 삼 년 전부떠 경 곱앗는디 땅값 오르난 지금 후훤 헿실 겨우다. 우리 메뉴리 우리 집사람도 막 옥해서 너 소섬 뭐 땅값 올르민 얼마나 올르곡 부제 웨민 얼마나 될 줄 알았던 주식 잘 가르치렌 우리 집사람도 경 주장헤분 거라.(이거 한 삼 년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땅값 오르니까 지금 후회 하고 잇을 겁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집사람도 마구 옥해서 너 ‘소섬’ 뭐 땅값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부자 되면 얼마나 될 줄 아느냐 자식 잘 가르치라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주장헤버린 거야.)

102015 @ 아.(아.)

---

91) ‘소섬’은 과거 우도읍을 말한다.

102015 #1 저 큰 아덜은 이제 저 지금 큰 딸 이야기나 해 봐 봐마썸? 큰 딸.(저 큰 아들은 이제 저 지금 큰 딸 이야기나 해 봐 봐요? 큰 딸.)

102015 @ 예.(예.)

102015 #1 큰 딸은 나 중학교 못 시켰수다.(큰 딸은 나 중학교 못 시켰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나데로 고등학교는 나 손으로 안 시건 지냥으로 산업체학교 나왔수다.(나 데로 고등학교는 나 손으로 안 시켜서 자기대로 산업체학교 나왔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우로 아덜 세 성제 대학 보내곡 고등학교 보내곡 허젠 허니까 그 아들은 도저히 그 딸은 머리 저 주쳐헛기가 힘들언 부산 산업체에 보냈수게.(위로 아들 세 형제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은 도저히 그 딸은 머리 저 주쳐하기가 힘들어서 부산 산업체에 보냈어요.)

102015 @ 아.(아.)

102015 #1 게네 나 그 딸 춤 부산 산업체에 보내는 날 양력 일 월 일 일 날, 춤 그 날 가야웨기 때문에 배 잡안 보내멍 주의보 네령 못 가멍 헤여네 나 울멍 헤수다게.(그래서 나 그 딸 참 부산 산업체에 보내는 날 양력 일월 일일 날, 참 그 날 가야되기 때문에 배 잡아서 보내면서 주의보 내려서 못 가면서 해서 나 울면서 했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그 딸은 제일 귀훈 딸입주 우로 아들 세 성제 나네, 딸 낳으니까양 여긴 딸나민 부제 됐수게 옛날에는.(그 딸은 제일 귀한 딸입조 위로 아들 세 형제 나서, 딸 낳으니까요 여긴 딸 나면 부자 됐습니다 옛날에는.)

102015 @ 예예.(예예.)

102015 #1 줌수질헤네 돈 벌어주니까. 게난 그 딸 날 때까지만 해도 우뭇가사리 물질 해서.(잠수질해서 돈 벌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딸 날 때까지만 해도 우뭇가사리 물질해서.)

102015 @ 아.(아.)

102015 #1 그뎨양 우리 학교에양 텅텅 비어났수다. 저 학생덜 여학생덜은 우미 물질 허레.(그뎨요 우리 학교예요 텅텅 비었습니다. 저 학생들 여학생들은 우뭇가사리 물질하러.)

102015 @ 응.(응.)

102015 #1 중학교에도 지금 우리 딸까지도 물질할 줄 압네게 이제예.(중학교에도 지금 우리 딸까지도 물질할 줄 압니다 이제요.)

102015 @ 예.(예.)

102015 #1 중학교 텅이는 아이도 지금. 경 혼디 이제 그 딸을 그디 보내젠 울멍 헤났는데 이제 그 딸이 지금 이제 어디 살암수다게 저 우리 처제 처형이 저 족은 아들호고 상고<sup>92)</sup> 동창이엔 경 아방도 어명도 엇인 사름이주만은 워낙 착허니까 그찌 부찌보는

92) '상고'는 제주시에 소재한 제주중앙고등학교의 옛 이름이다.

게 어떻힌 허길레 나도 어렵게 살아난 사름 아니과.(중학교 다니는 아이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딸을 거기 보내려고 울면서 했는데 이제 그 딸이 지금 이제 어디 살고 있습니다 저 우리 처제 처형이 저 작은 아들하고 ‘상고’ 동창이라고 그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워낙 착하니까 같이 붙여보는 것이 어떠니 하기에 나도 어렵게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102015 @ 예.(예.)

102015 #1 므음만 고우민 종수텐 경 헨 이제 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마음만 고우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야.)

102015 @ 아, 사위가.(아, 사위가.)

102015 #1 어멍 아방 다 일찍 죽어부난.(어머니 아버지 다 일찍 죽어버리니까.)

102015 @ 사위가예.(사위가요.)

102015 #1 예. 겐 고모 밑에서 자라난에 이제 춤 이제 저 고모가 상고 야간을 시겨줘서 어멍 고모가 잘사난에.(예. 그래서 고모 밑에서 자라니까 이제 참 이제 저 고모가 ‘상고’ 야간을 시겨줘서 어머니 고모가 잘사니까.)

102015 @ 예.(예.)

102015 #1 야간 시겨쥔 허는디 겐 그때 우리 처형데로 이제 결혼을 약혼을 이제 빵집이 텅이는 즈격증 뱃기 었어.(야간 시겨줘서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처형데로 이제 결혼을 약혼을 이제 빵집에 다니는 자격증 밖에 없어.)

102015 @ 예.(예.)

102015 #1 게난 빵집도 이젠 그 집이 텅기단 그 집도 폴아부난 이젠 못히게 쥔 거라 저 무신 치킨장스 흐쿠덴 헤네 이제 돼고 자기네 형이 이젠 일본 간 갑자기 죽어분 거라.(그러니까 빵집도 이젠 그 집에 다니다 그 집도 팔아버리니까 이젠 못하게 된 거야 저 무슨 치킨장사 하겠습니까고 해서 이제 되고 자기네 형이 이젠 일본 가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102015 @ 예.(예.)

102015 #1 일본 돈 벌레 갓단 죽어부난 일본 형이 이제 혼 일억이 잇어나서 게난 치킨이 장스가 돼여(일본 돈 벌러 갔다가 죽어버리니까 일본 형이 이제 한 일억이 있었어 그러니까 치킨이 장사가 돼.)

102015 @ 예.(예.)

102015 #1 이제, 경 허난 게민 이제 흘 수 었덴 이제 저 우리 큰 메누리가 자기네 오빠 양식장흐는디 양식장흐는디 강 혼 번 일해보렌 경 그디 간 일흐는디 또 흐룬 가보난 레기가 다 죽어분 거라. 아 게난 미안할 게 아니웃과게 이.(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저 우리 큰 며느리가 자기네 오빠 양식장 하는데 양식장 하는데 가서 한 번 일해보라고 그렇게 거기 가서 일하는데 또 하루는 가보니까 고기가 다 죽어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미안할 것이 아닙니까 이.)

102015 @ 아.(아.)

102015 #1 아, 게난 그기도 나와뻬다 게난 아까 서울 이신 죽은 스춘 형제가 이제 동

아리 행 거 비닐하우스를 헛켄 혼 거라.(아, 그러니까 거기도 나와 버렸다 그러니까 아  
까 서울 있는 작은 사촌 형제가 이제 동아리 해서 거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한 거야.)

102015 @ 음.(음.)

102015 #1 아 그디 간 허는디 저 헛켄 해보라 헨 아, 간 보난에 집도 이젠 지네 집이  
저 살리켄 해돈에 하우스 안에서 집이서 저 네 식구가 잠서, 켜 나도 이젠 딸을 생각  
하는 게 하우스 강 구경하고 강 검질도 강 메어주고 ㄴ짜 일도 허멍 허곡, 켜디 그날  
돈이 나오는 거라 그 하우스 안에서 상추 키우면.(아 거기 가서 하는데 저 하겠다고 해  
봐라 해서 아, 가서보니까 집도 이젠 자기 집에 저 살리겠다고 하렸다가 하우스 안에서  
집에서 저 네 식구가 자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젠 딸을 생각하는 것이 하우스 가서 구  
경하고 가서 김도 가서 매주고 같이 일도 하면서 하고, 그런데 그날 돈이 나오는 거야  
그 하우스 안에서 상추 키우면.)

102015 @ 아, 상추.(아, 상추.)

102015 #1 걸 식당에 납품허면 하루 그자 오륙 만원씩 버는 거라 지금.(그걸 식당에  
납품하면 하루 그저 오륙 만원씩 버는 거야 지금.)

102015 @ 예.(예.)

102015 #1 아, 경 현디 하루는 이제 아 어떻 형제가 싸운 거라 스촌 형제가 으, 싸우  
난 이제 우리 큰 딸이 나와분 거라.(아, 그렇게 한테 하루는 이제 아 어떻게 형제가 싸  
운 거야 사촌 형제가 오, 싸우니까 이제 우리 큰 딸이 나와 버린 거야.)

102015 @ 음.(음.)

102015 #1 으, 이제 나완에 이제 춤 올명 우리 집이 왓길레, 으 흘 수 엇텐 음, 경 해  
네 이젠 춤 함덕<sup>93)</sup>인가 간 이젠 저 자리 잡안 사는 거라 사는 도중에 이제 저 거기서  
이제 그 문방구.(오, 이제 나와서 이제 참 올면서 우리 집에 왔기에, 오 할 수 없다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젠 참 ‘함덕’인가 가서 이젠 저 자리 잡아서 사는 거야 사는 도중에  
이제 저 거기서 이제 그 문방구.)

102015 @ 예.(예.)

102015 #1 함덕마트에 문방구 허는 거 허켄 해여네 켜 경 안해도 해여보렐 허엇는디  
아 우리 큰아들이나 아 작은아들들은 그디 해봐야 수지도 안 맞을 디 뵈허레 험딘 막  
반대허는 거라.(함덕마트에 문방구 하는 거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해 보  
라고 했는데 아 우리 큰아들이나 아 작은아들들은 거기 해봐야 수지도 안 맞을 데 무엇  
하려 하느냐 마구 반대하는 거라야.)

102015 @ 예.(예.)

102015 #1 계난 우리 집사람은 너네가 뭐이나 망헛든 흥헛든 지가 알곡 해는 거 해  
봐야 흘 거 아니냐 아 경 해연 이젠 그거 이젠 허겟금 해여네 아 거기서 이젠 일어난  
밥 먹게 돼엄수다게 예예.(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너희가 뭐냐 망하든 흥하든 지가 알  
고 하는 거 해봐야 할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서 이젠 그거 이젠 하겟금 해서 아 거기  
서 이젠 일어나서 밥 먹게 되고 있습니다 예예.)

93) ‘함덕’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이다.

102015 @ 아이고 돼수다게.(아이고 됐습니다.)

102015 #1 밥 먹언 이제 거기서 허는디 우리 사위도 월급쟁이 흐는 것보다 나은 ㄱ  
라 두가시가 이제 아침저녁으로 오전 오후 교대허멍 그 점빵을 보멍 이렇게 흐는디, 술  
도 안 먹고 춤 저 담배도 안 피우고 이젠 담배도 막 끈어서 우리가 끈으라 끈으라 흐난  
이제 그 끈어네 이제 헛는디 착허우다게 경 흐난.(밥 먹어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우리  
사위도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나은 거야 두가시가 이제 아침저녁으로 오전 오후 교대하  
면서 그 점방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술도 안 먹고 참 저 담배도 안 피우고 이젠 담  
배도 막 끊어서 우리가 끊으라 끊으라 하니까 이제 그 끊어서 이제 헛는데 착합니다 그  
렇게 하니까.)

102015 @ 아.(아.)

102015 #1 죽은 아 죽은 안 이제 그 딸이 이제 춤 어렵게 살암수다게,(작은 아 작은  
안 이제 그 딸이 이제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죽은딸이 이제 저 하나 어떻게 처음에는 춤 나가 이 저 김○○ 의원안티  
는 그 군의원 땡길 때는 소개해네 북○○에 군무헌단, 거기서 이젠 나완에 땡시 이젠  
여기저기 땡기단에 이제 한○ 그저 자동차회사에 땡기단 이 저 스나이를 만난 거라. 이  
제 스나이는 그때 저 ○○금고에 이 저 과장으로 군무헌단에 그디 예금헌레 땡기멍 어  
떻연 그 지집아이히고 눈 맞안, 결혼은 헛는디.(작은딸이 이제 저 하나 어떻게 해서 처  
음에는 참 내가 이 저 김○○ 의원한테는 그 군의원 다닐 때는 소개해서 북○○에 군무  
하다가, 거기서 이젠 나와서 다시 이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한○ 그저 자동차회사  
에 다니다가 이 저 사나이를 만난 거야. 이제 사나이는 그때 저 ○○에 이 저 과장으로  
군무하니까 거기 예금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그 계집아이하고 눈 맞아서, 결혼은  
헛는데.)

102015 @ 예.(예.)

102015 #1 아 나중엔 삼년 후에 보니까 이만저만 부도 날 형편이 아니라, 이것이 골  
프치레 땡기지 처음엔 골프치레 땡겜젠 우리가 무시거엔 골으면은 얻어침숫게. 강 일해  
주면은 얻어 칠 수가 있읍니께.(아 나중에는 삼년 후에 보니까 이만저만 부도 날 형편이  
아니야, 이것이 골프치려 다니지 처음엔 골프치려 다닌다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얻어 칩니다. 가서 일해주면은 얻어 칠 수가 있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저 스홀 걸러 또 웨국에 땡기지, 또 밤 장 오면은 어디 가근에 잔 완딘 흐  
면은 저 스무실에서 스무보단 오ㄱ렌, 거짓말이라서, 나중에는 딸덜 아들덜 저 아들히고  
딸히고 어디서 돈 받은 거 것ㄱ지도 다 저금헛 놔두난 걸 다 털어 써불고.(저 사홀 걸러  
또 외국에 다니지, 또 밤 자서 오면은 어디 가서 자고 왔느냐고 하면은 저 사무실에서  
사무보다 온다고, 거짓말이어서, 나중에는 딸들 아들들 저 아들하고 딸하고 어디서 돈  
받은 거 그것까지도 다 저금해서 놔두니까 그걸 다 털어 써버리고.)

102015 @ 음.(음.)

102015 #1 저 퇴직금까지도 다 각씩히고 의논도 안하고 다 써부난에 우리 딸이 컴퓨터 정 찍어보난에 도저히 그쵸 살면은 그 빚을 벗어남직 못하난 나와 부러숫게.(저 퇴직금까지도 다 각씩하고 의논도 았고 다 써버리니까 우리 딸이 컴퓨터 저렇게 찍어보니까 도저히 함께 살면은 그 빚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와 버렸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나완 이제 혼자 이제 저 어디고 함덕<sup>94)</sup> 저 삼양<sup>95)</sup>, 거 무신 아파트파 이제야 생긴 아파트.(나와서 이제 혼자 이제 저 어디고 함덕 저 삼양, 거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제야 생긴 아파트.)

102015 @ 삼양에 저기 삼화아파트.(삼양에 저기 삼화아파트.)

102015 #1 아니 삼화가 말고 그 무시것과.(아니 삼화가 말고 그 무엇입니까.)

102015 @ 삼화 아파트 말아근에 주공아파트? 화북 말고.(삼화 아파트 말아서 주공아파트? 화북 말고.)

102015 #1 아 삼양 삼양게.(아 삼양 삼양.)

105015 @ 삼양.(삼양.)

105015 #1 삼양게 이제야 들어가는데 지서 아파 잇는다.(삼양 이제야 들어가는데 지서 앞에 잇는데.)

102015 @ 예예. 이제.(예예. 이제.)

102015 #1 그디 무신 아파트엔 임대.(거기 무슨 아파트라고 임대.)

102015 @ 아아 동양 아니 무신 아파트, 거기가 삼화아파트 아닌가.(아아 동양 아니 무슨 아파트, 거기가 삼화아파트 아닌가.)

102015 #1 삼화아파트 아니라.(삼화아파트 아니야.)

102015 @ 삼화아파트 말고예.(삼화아파트 말고요.)

102015 #1 삼화아파트가 아니고.(삼화아파트가 아니고.)

102015 @ 미리네 아니.(은하수 아니.)

102015 #1 으.(으.)

102015 @ 그 무신 아파트 ○아파트 에스.(그 무신 아파트 ○아파트 에스.)

102015 #1 ○도 아니고 옛스케이 옛스케이 일꺼라 옛스케이.(○도 아니고 에스케이 에스케이 일거야 에스케이.)

102015 @ 에스케이마씨.(에스케이요.)

102015 #1 예예. 거기 이제 헛는다 하필 이제 우리 저 큰 아들이 큰 아들이 저 춤 그디 저 군청에 ○과에 잇어나난예.(예예. 거기 이제 했는데 하필 이제 우리 저 큰 아들이 큰 아들이 저 참 거기 저 군청에 ○과에 있었으니까.)

102015 @ ○과마씨.(○과마씨.)

102015 #1 어디고 ○조합.(어데 인고 ○조합.)

102015 @ 아 예.(아 예.)

94) '함덕'은 제주시 조천읍에 소재한 함덕리이다.

95) '삼양'은 제주시에 소재한 삼양동이다.

102015 #1 ○조합에 아는 사람이 잇언에 그 조합에 기능직.(○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조합에 기능직.)

102015 @ 예.(예.)

102015 #1 처음에는 그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저 그 기능직도 안 시켜주난에 나가부난, 또 우리 아들한테 이젠 어디 소개 시켜주렌 흥난 우리 딸 처음엔 막 여기저기 탕겨 낫수다게.(처음에는 그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저 그 기능직도 안 시켜주니까 나가버리니까, 또 우리 아들한테 이젠 어디 소개 시켜주라고 하니까 우리 딸 처음엔 마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춤 저 이 씨누이덜이 저 시청에 저 시청직원이 둘이난에 시청에 아르바이트 허레.(참 저 이 씨누이들이 저 시청에 저 시청직원이 둘이니까 시청에 아르바이트 하러.)

102015 @ 예.(예.)

102015 #1 아주망 안 늘리켄 텡이멍 하루에 오만 원씩 받으멍 이제 아르바이트 텡이 단에 이제 그디도 나와불고 허난에 이젠 그디 춤 흘 수엇이 간 그디 간 했는디 우리 큰 아들 소개헸 ○조합에 들어간에 게도 혼 일 년쯤 댜난 기능직 시겨쥘.(아주머니 안 늘리 쟈다고 다니면서 하루에 오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다니다가 이제 거기도 나와 버리고 하니까 이젠 거기 참 할 수없이 가서 거기 가서 했는데 우리 큰아들 소개해서 ○조합에 들어가서 그래도 한 일 년쯤 되니까 기능직 시겨쥘서.)

102015 @ 아.(아.)

102015 #1 경 해네 이젠 그 아파트에.(그렇게 해서 이젠 그 아파트에.)

102015 @ 예.(예.)

102015 #1 이녀 돈 좀 잇고 흥난에 그디 이제 전세 넌 들어가수다게.(이녀 돈 좀 잇고 하니까 거기 이제 전세 내서 들어갔습니다.)

102015 @ 예.(예.)

102015 #1 서방흥곤 이혼해네 서방흥고 이혼해네 이젠 아들 흥나 딸 흥나 데련 이젠 사는디, 딸은 영리흥는디 아들 늑으세끼가 이이 똑 지에비 닥안.(서방하고 이혼해서 서방하고 이혼해서 이젠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려서 이젠 사는데, 딸은 영리하는데 아들놈 새끼가 이이 똑 지아비 닥아서.)

102015 @ 예.(예.)

102015 #1 아 지에비가 키는 쫓그마흔디, 복장이 어떻사 크는지양, 게고 또 저 금고에 잇일 떡에 ○금고에 잇일 떡에 그 어디 할라산에 네분 거 잇이난에 그거 이제 경매 나왔덴 그거 말안에 서이가 동아리헸 말은 거라 말앗단에 리조튼가 뭔가 리조트 머헸디, 안웁 직흥난에 ㄱ쫓 동아리 혼 사름도 안헸켄 해부난 지만 다 빗 질머진 거라. 지금 이제.(아 지아비가 키는 쫓그마한테, 복장이 어찌나 크는지요, 그리고 또 저 금고에 있을 적에 ○금고에 있을 적에 그 어디 한라산에 내버린 거 있으니까 그거 이제 경매 나왔다고 그거 말아서 셋이서 동아리해서 말은 거야 말앗다가 리조튼가 뭔가 리조트 뭐한

데, 안됨 직하니까 함께 동아리 한 사람도 앓겠다고 해버리니까 제만 다 빗 짚어진 거야. 지금 이제.)

102015 @ 아.(아.)

102015 #1 경 헨 도저히 우리 딸이 컴퓨터 짝언 보난에 몇 억 빗이 댜난 도저히 벗어남직 못함 직하난에.(그렇게 해서 도저히 우리 딸이 컴퓨터 짝어서 보니까 몇 억 빗이 되니까 도저히 벗어나지 못함 직하니까.)

102015 @ 아.(아.)

102015 #1 안혀켄 나와봄 겁주게.(앓겠다고 나와 버린 겁지요.)

102015 @ 예.(예.)

102015 #1 지금 게난 저 법으로도 ○수속 해볼엿수다게 법으로도.(지금 그러니까 저 법으로도 ○수속 해버렸습시다 법으로도.)

102015 #4 아이 심심 안헛과 안넬 것도 업곡게.(아이 심심 앓습니까 드릴 것도 없고.)

102015 @ 아이고 우리 일 막 재미나게 험수다.(아이고 우리 일 마구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102015 #4 아 우리 하르방 잘 몰릅니다게 무신 알 말입니까게 아이고 무슨.(아 우리 할아버지 잘 모릅시다 무슨 알 말입니까 아이고 무슨.)

102015 #1 딸들은 딸들은 경 헨 살암수다게.(딸들은 딸들은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102015 #4 아 막 미안 허우다게.(아 마구 미안 합니다.)

102015 #1 큰딸은 큰딸은 걱정 안 댜는다.(큰딸은 큰딸은 걱정 안 되는데.)

102015 @ 예.(예.)

102015 #1 족은딸이 딱시 아이덜 데령 살명 고생은 험수다마는 뭐 지 팔자에 지 뭐 지냥으로 그딘 지네냥으로 연애헛 가고.(작은딸이 다시 아이들 데려서 살면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제 팔자에 제 뭐 제대로 거기는 제대로 연애해서 가고.)

102015 @ 예.(예.)

102015 #1 또 우리 큰딸은 지네 이모가 소개해 쥘 흘 수 엿이 영 보난에 얼굴도 우리 큰스우가 키도 후리후리헛고 줌 뭐헛우다게 게난.(또 우리 큰딸은 제 이모가 소개해 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우리 큰사위가 키도 후리후리하고 줌 뭐 합니다 그러니까.)

102015 @ 예.(예.)

102015 #1 인물도 흰하난.(인물도 흰하니까.)

102015 #4 시에서 왓수파?(시에서 왔습니까?)

102015 @ 예.(예.)

102015 #1 인물에 반헤여네 게 해도 믅음도 착헛고양.(인물에 반해서 그럼 해도 마음도 착하고요.)

102015 @ 예.(예.)

102015 #4 아 무사 그 딸아기 자랑은 아기 자랑헛는 사람은 옛날로부터 바보엔 헛네



께.(아 왜 그 딸아기 자랑은 아기 자랑하는 사람은 옛날로부터 바보라고 합니다.)

102015 #1 으 딸 역사를 이애길 해줍센 해염주께.(으 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십사고 하고 있지.)

102015 @ 삼촌 삼촌은 잠깐 쉬고예. 우리 여자 삼촌이 흥끔만 곁아줍서.(삼촌 삼촌은 잠깐 쉬고요 우리 여자 삼촌이 조금만 말해주십시오.)

102015 #4 으 난 난 무시거 하나토 물론 사름이우다게.(으 난 난 무엇 하나도 모른 사람입니다.)

102015 @ 옛날 말 아니고 삼촌 말.(옛날 말 아니고 삼촌 말.)

102015 #4 옛날 말이고 뭐고.(옛날 말이고 뭐고.)

102015 #1 나 노름헿 에메겨난 말이랑 허지 마라이.(나 노름해서 애먹였던 말이랑 하지 말아.)

102015 #4 난 몰름니다게.(난 모릅니다.)

102013 @ 삼촌, 시집살이.(삼촌, 시집살이.)

102013 #4 예.(예.)

102013 @ 경 해도 이 우리 이 우도 소섬에 대해서 옛말을 저기 험수다게.(그렇게 해도 이 우리 이 우도 ‘소섬’에 대해서 옛말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102013 #4 에이그 그걸 아주머니 곤는 말은 다 알아먹겠는디.(에이그 그걸 아주머니 말하는 말은 다 알아먹겠는데.)

102013 @ 시집살이 해난 건만 흥끔 곁아줍서.(시집살이 했던 것만 조금 말해주십시오.)

102013 #4 에이고 씨집살이 나 씨집살이도 안허여수다 씨부모 잘 만나부난예.(에이고 시집살이 나 시집살이도 안했습니다 시부모 잘 만나버리니까요.)

102013 @ 예.(예.)

102013 #4 저 저 남편이엔 헿 만나 보난양.(저 저 남편이라고 해서 만나 보니까요.)

102013 @ 예.(예.)

102013 #4 완전히 노름쟁이 만나수다게 삼년을 노름을 헉디당게.(완전히 노름쟁이 만났습니다 삼년을 노름을 함디다.)

102013 @ 예.(예.)

102013 #4 나 그 역스나 닭으주 다른 역스 닭으도 안혀, 아이고 나가 이 얘기를 우리 큰아들은 엄마야 엄마야 허멍.(나 그 역사나 닭지 다른 역사 닭지도 앓아, 아이고 내가 이 얘기를 우리 큰아들은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102013 @ 예.(예.)

102013 #4 이 저 바짓가달 심영 엄마야 엄마야 가지 말아 가지 말아흐는 거양 눈에 동동 돌아지멍 설마 그 애기 네비둥 돌아나지 못허콧디다.(이 저 바짓가달 심영 엄마야 엄마야 가지 말아 가지 말아흐는 거양 눈에 동동 돌아지멍 설마 그 애기 네비둥 돌아나지 못허콧디다.(이 저 바짓가랑이 심어서 엄마야 엄마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하는 거요 눈에 동동 매달아지며 설마 그 애기 내버려두고 돌아나지 못하겟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4 계난 그 얘기를 믿엉 살당 보난에 이젠 행복허우다 옛날로 세민.(그러니까 그 얘기를 믿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젠 행복합니다 옛날로 세면.)

102013 @ 예. 맞수다. 경 혈 때 시어머니가 뭐엔 곱읍디가.(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시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02013 #4 아 시어머닌 하도 순헌 할망이라서.(아 시어머니는 하도 순한 할머니어서.)

102013 @ 예. 경 해도 막 속으로만 으지허고 헤실 건디예.(예. 그렇게 해도 마구 속으로만 의하고 했을 건데요.)

102013 #4 씨어멍은예. 씨어멍 말할 수가 엇수다게 할망이 막 용허고예. 할망이난.(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마구 용하고요 할머니니까.)

102013 @ 예.(예.)

102013 #4 무사 놀음을 경 삼 년을 허카붓과. 나가양 벨눔으. 말을 다해도양 귀에도 안 놓고 계난 이제 날 ㄱ라 하도 돈을 씹데다 돈이 부떠나지 안헤여.(왜 노름을 그렇게 삼년을 할까봅니까. 내가요 별눔이 말을 다해도요 귀에도 안 놓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고 하도 돈을 씹디다 돈이 붙어나지 않아.)

102013 @ 예.(예.)

102013 #4 경 흐난 요걸 어떻 헤시민 조콘 헨 아기 업엉, 돌아나불민 아거나 흐나만 이문 흐주만은 세 개가 되고.(그렇게 하니까 요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애아기 업어서, 달아나버리면 아거나 하나만이면 하지만은 세 개가 되고.)

102013 @ 예.(예.)

102013 #4 알엿 것덜 엇일 때난 세 개가 웬디, 이 애기덜 들앙 어디 강 밥 얻어 먹코 헤연 살단 보난 이 하르방이, 날 곱아 돈 오십 만원만 헤다 드렌 험디당게.(아래 것들 없을 때니까 세 개가 되는데, 이 애기들 데려서 어디 가서 밥 얻어먹을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보고 돈 오십 만원만 헤다 달라고 합디다.)

102013 @ 예.(예.)

102013 #4 계난 무신 거 혈 툴 허난, 이제 그 가는 구경 가는 사름 서울구경 강 완 이 노름을 딱 댜켄.(그러니까 무슨 거 할 테냐 하니까, 이제 그 가는 구경 가는 사름 서울구경 가서 와서 이 노름을 딱 되겠다고.)

102013 @ 예.(예.)

102013 #4 그 건만 실지로 허켄 허문 난 오십 만원이 문제 아니다. 계난 이제 어촌계 안티 가네 계장신디 간 나 오십만원 줄 수 잇수과 허난, 우미만 즈물양<sup>96)</sup> 주켄허민 주켄 아이고 고맙수텐 헨 그거 앓영 오난양 거짓말ㄱ치 저 노름을 뺏디당게.(그 것만 실지로 하겠다고 하면 난 오십 만원이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촌계한테 가서 계장한테 가서 나 오십 만원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뭇가사리만 ‘즈물아서’ 주겠다고 하면 주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오니까요 거짓말같이 저 노름을 뺏디다.)

96) ‘즈물다’는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내다.’는 뜻이다.

102013 @ 예.(예.)

102013 #4 계난 그 날로부터 오늘에 깬지 노름에 신경을 안 써수다게.(그러니까 그 날로부터 오늘에 깬지 노름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102013 @ 아.(아.)

102013 #1 나가 그때는, 동네서 아무 오락이엔 혼 게 엇습주게 계난 겨울에 보리 갈 아불곡 허면 노는 거라. 게 모아지면 먹을락이 চে엄 먹을락이 혼는 거라 먹을락이 아, 먹을락이 혼단 찻찻이 이젠 짝금 죽은 네기혼젠 해가민 이제 츠츠츠츠 해가민 내가 돈 복이 엇영양 따질 못허는 거라.(내가 그때는, 동네서 아무 오락이라고 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리 갈아버리고 하면 노는 거야. 그럼 모여지면 먹을 내기 처음 먹을 내기 하는 거야 먹을 내기 아, 먹을 내기 하다가 차차이 이젠 조금 작은 내기하려고 해 가면 이제 차차차차 해가면 내가 돈복이 없어서요 따지를 못하는 거야.)

102013 @ 아.(아.)

102013 #1 계민 늑안티 돈 혼 폰 간 걸 추궁혼저 혼당 보민 자꾸 함정더레 빠지는 거라.(그러면 남한테 돈 한 폰 간 걸 추궁하자 하다가 보면 자꾸 함정으로 빠지는 거야.)

102013 @ 아.(아.)

102013 #1 함정더레.(함정으로.)

102013 @ 계난 오십 만원으로 딱 정리 했구나예.(그러니까 오십 만원으로 딱 정리 했군요.)

102013 #1 아 아니 아까 오십 만원 혼 건.(아 아니 아까 오십 만원 한 건.)

102013 #4 아 거는 차비로 서울 가는 차비.(아 거는 차비로 서울 가는 차비.)

102013 #1 계난 그땐 나가 동장을 스년을 동장 해숫게.(그러니까 그땐 내가 동장을 사년을 동장 했어요.)

102013 @ 예.(예.)

102013 #1 게 동장 탕기멍 나가 화투를 친거라 탕기멍.(그럼 동장 다니면서 내가 화투를 친 거야 다니면서.)

102013 @ 아.(아.)

102013 #1 계난 그때 화투를 할 수 잇는 게 뭐냐면 양 동네 친쫓금 천초금도 나가 강 말혼민 저 어촌계장이 주고.(그러니까 그때 화투를 할 수 잇는 것이 뭐냐면 양 동네 우뭇가사리대금 우뭇가사리대금도 내가 가서 말하면 저 어촌계장이 주고.)

102013 #4 그 시절 어떻게사 살아신디 모르쿠다.(그 시절 어떻게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2013 #1 또 동네 공금도 쯤 잇어나곡 경 허는 거라.(또 동네 공금도 쯤 잇었고 그렇게 하는 거야.)

102013 #4 노름에 미쳐 노민.(노름에 미쳐 놓으면.)

102013 #1 계난 돈 풀이가 쯤 좋은 거라 나데로 해도.(그러니까 돈 풀이가 쯤 좋은 거야 나데로 해도.)

102013 @ 예.(예.)

102013 #1 재산은 엇어도 늡으. 돈은 갓엿 텡길 수 잇는 거 아넛과게. 경 헨 이젠 저 화투를 흐게 텡 건디, 혼 번은 이제 그 어촌계장 흐는 사름이 우리 저 부락장덜, 서울구경 가자허는 거라 게민 가자.(재산은 엇어도 남의 돈은 가져서다닐 수 잇는 거 아넛니까. 그렇게 해서 이젠 저 화투를 하게 된 건데, 한 번은 이제 그 어촌계장 하는 사름이 우리 저 부락장들, 서울구경 가자하는 거라야 그러면 가자.)

102013 @ 아.(아.)

102013 #1 겐 나도 이젠 그찌 이젠 갓다 오논디 할망안티 이젠 거짓말을 흐는 게 아넛과게 할망 나 이게 이젠 갓다 왕 따신 화투를 안 흐크라 으.(그래서 나도 이젠 같이 이젠 갓다 오논데 할머니한테 이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넛니까 할머니 나 이게 이젠 갓다 와서 다시는 화투를 안 하겠어 오.)

102013 #4 안 허긴 안 현 겨우다 거짓말이 아니꼬마씨.(안 하긴 안 한 겹니다 거짓말이 아니꼬요.)

102013 @ 아.(아.)

102013 #1 겐 그디 갓다오कु테 오일육 군사 십이륙 저 무시것고, 십이육스테 일어난 날 혁명이 일어난 날.(그래서 거기 갓다오더니 오일육 군사 십이륙 저 무엇이야, 십이륙 사태 일어난 날 혁명이 일어난 날.)

102013 @ 십이륙 사태마씨.(십이육 사태요.)

102013 #1 으, 그때 아 십이륙 사태가 아니고 삼선개헌.(오, 그때 아 십이육 사태가 아니고 삼선개헌.)

102013 @ 삼선개헌 이면은 칠십이 년에.(삼선개헌이면 칠십이 년에.)

102013 #1 아니 칠십 칠십삼 년도에.(아니 칠십 칠십삼 년도에.)

102013 @ 아 그러면은 박정희시땃 때우짜?(아 그러면은 박정희시대 때입니까?)

102013 #1 칠십삼 년도에 박정희 때.(칠십삼 년도에 박정희 때.)

102013 @ 예예. 삼선개헌예.(예예. 삼선개헌요.)

102013 #4 삼선개헌 때.(삼선개헌 때.)

102013 @ 삼선개헌 헌디 국회문 단을 때 우다게.(삼선개헌 한테 국회문 단을 때 입니다.)

102013 @ 예.(예.)

102013 #1 그때 일요일 날 홍병철이 국회의원 때우다 북제주군에는 이제 국회 구경 가네 동장덜이 갓젠 흐면 게 홍병철이 스무 그디 안갑니까게.(그때 일요일 날 홍병철이 국회의원 때입니다 북제주군에는 이제 국회 구경 가서 동장들이 갓다고 하면 홍병철이 사무 거기 안 갑니까.)

102013 @ 예.(예.)

102013 #1 홍병철이 스무실에 가나명 헤나서 양력으로 정월 초싱 저 초싱 때 갓다와네 그때 서울 구경 흐켄 허연 갓다 완양 그때부터 화투 구경.(홍병철이 사무실에 가면서 했어 양력으로 정월 초순 저 초순 때 갓다와서 그때 서울구경 하겠다고 해서 갓다 왔어

요 그때부터 화투 구경.)

102013 @ 아.(아.)

102013 #1 안 해십주게.(않았습지요.)

102013 @ 그때 오십 만원 행 안넛구나예.(그때 오십 만원해서 드렸군요.)

102013 #1 으.(오.)

102013 #4 예. 오십 만원 잤다 주난양 정말로 뽕텐 흐난 정말로 떼켄 정말로 뽕디다 게.(예. 오십 만원 잤다 주니까요 정말로 뽕 테냐 하나까 정말로 떼졌다고 정말로 뽕디 다.)

102013 @ 예.(예.)

102013 #4 계난양 노름을 흐면예. 밤새낭 오늘 나가민 밤새낭.(그러니까요 노름을 하면요, 밤새 오늘 나가면 밤새.)

102013 #1 아 나가민 경 흐주게.(아 나가면 그렇게 하지.)

102013 #4 미친 사람이나 마찬 가집디다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미친 사람이나 마 찬 가집디다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

102013 @ 예.(예.)

102013 #4 그 아기들은 엄마야 엄마야하고 아기 세 개가 네 개가 나가 이 바짓가달 에 심영 이 애기 둘양 어디 강 얻어먹습니까.(그 아기들은 엄마야 엄마야하고 아기 세 개가 네 개가 내가 이 바짓가랑이에 심어서 이 애기 데려서 어디 가서 얻어먹습니까.)

102013 @ 예.(예.)

102013 #4 운만 흐난 흐 번은 노름하는 디 좇앙 가수다 밤이, 아저 낮이 낮이 좇앙 가난 이 방으로 이만이 흐는 방으로 빙 돌아왔앙 남즈분들이 앉아서 가단 보난, 이만큼 현 옛날에 쥔 두드리는 마께가 잇수다게.(울기만 하나까 한 번은 노름하는 데 찾아서 갔 습니다 밤에, 아저 낮에 낮에 찾아서 가니까 이 방으로 이만큼 흐하는 방으로 빙 돌아 왔아서 남자분들이 앉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만큼 한 옛날에 쥔 두드리는 방망이가 있 습니다.)

102013 @ 예. 마께.(예. 방망이.)

102013 #4 예. 이만이 현 마께를 갓언에 그 나도 복은 커수다 그 마께로 그 사름 앓 은 수정을 마쳤으니까. 이녀 서방이 마쳐야 뽕 건디 그 마께를 던지면은 누게가 맞일런 지 알말잇과.(예. 이만큼 한 방망이를 가져서 그 나도 복은 컸습니다 그 방망이로 그 사 람 앓은 수를 맞쳤으니까. 이녀 서방에 맞춰야 뽕 건데 그 방망이를 던지면은 누가 맞 을지 알 말입니까.)

102013 @ 예.(예.)

102013 #4 계난 들어가명 마께를 심영 던드렁<sup>97)</sup> 마께를 심영 바락하게 넷기난양 사 름도 안 맞고 그 마께가 방안에 떨어저도양 가운디 강 떨어집디게.(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방망이를 잡아서 던드렁 마께를 심영 바락하게 넷기난양 사름도 안 맞고 그 마께가 방 안에 떨어저도양 가운디 강 떨어집디게.

97) ‘던드렁마께’를 말하고 있는데 쥔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102013 @ 예.(예.)

102013 #4 아이 경흐난 그 디 우수게 잘 흐는 우리 집이 주인 양반 갑이 잇수다게. 두선이 각썬 던드렁 거 누게 각신 요강단지 거 누게 각썬 거 무시거 허명 막 역스를 닦아 갑디다게 게난.(아이 그렇게 하니까 그 게 우스게 잘하는 우리 집에 주인 양반 갑이 있습니다. 두○이 각시는 ‘던드렁’ 거 누구 각시는 요강단지 거 누구 각시는 거 무엇 하면서 마구 역사를 닦아 갑디다 그러니까.)

102013 @ 예.(예.)

102013 #4 머 벨거엔 골아도 나가 살아야 웰 거난.(뭐 벨거라고 말해도 내가 살아야 될 거니까.)

102013 #1 혼 번은 아 경 험시난 화투를 침시난 아기가 우리 세 번째 아덜, 아까 장계가 못 먹을 그 아덜 놔두언 와부난 안안 화투를 헤낫수게게, 암만해도 화투를 못 허릅디다 안안, 아기 안안 화투를 츠마 못 허릅디다.(한 번은 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투를 치고 있으니까 아기가 우리 세 번째 아들, 아까 장가가 못 먹을 그 아들 놔두어서 와버리니까 안아서 화투를 했습니다, 암무래도 화투를 못 하겠습디다 안아서, 아기 안아서 화투를 차마 못 하겠습디다.)

102013 #4 미치갱이나 마찬 가집디다게. 미쳐노니까예.(미치광이나 마찬 가집디다. 미쳤으니까요.)

102013 @ 예.(예.)

102013 #1 게난 아까 그 나 존경흐는 그 어른이.(그러니까 아까 그 나 존경하는 그 어른이.)

102013 @ 예.(예.)

102013 #1 이 사람아 화투는 손 때는 게 버는 걸세 손 때자 손 때자 오, 손 때는 게 버는 걸세 흐단, 또 이거 살만이 살아가니까 이제랑 가끔 빗 또 허명 어디 강 놀고 화투도 혼 번씩 흐명 살자 영 흐명 골아나수다게 어른이.(이 사람아 화투는 손 때는 게 버는 걸세 손 때자 손 때자 오, 손 때는 게 버는 걸세 하다가, 또 이거 살만큼 살아가니까 이제랑 가끔 빗 또 하면서 어디 가서 놀고 화투도 한 번씩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른이.)

102013 @ 아.(아.)

102013 #1 이제 경 흐명.(이제 그렇게 하면서.)

102013 #4 아이고 난 노름 골아가민 혼 번은예. 노름을 하도 지나치게 허니까.(아이고 난 노름 말해가면 한번은요 노름을 하도 지나치게 허하니까.)

102013 @ 예.(예.)

102013 #4 아이고 이 애기덜 들앙흐고예.(아이고 이 애기들 데려서하고요.)

102013 #1 지나치게 아니라 혼 이삼 년 이랏수다 그때.(지나치게 아니라 한 이삼 년이었습디다 그때.)

102013 #4 이 애기덜 들앙 나 어덜 가민 강 어떻 행 살콘. 나가 밤이 이제 시어머니가 저 트로 살앗수다게.(이 애기들 데려서 나 어덜 가면 가서 어떻게 해서 살까. 내가

밤에 이제 시어머니가 저 따로 살았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4 어머니 나영 어떻 놀음허는디 좇앙가게 흥난 아이고 아기 어떻아 가민 어떻 허느니, 경 해도 난 이 애기덜 밥을 안 굶지젠 허민 이걸 막아야 됩니께, 흥난에 게민 느 가질타 흥난에 나영만 걸읍센, 아 씨어머니 들앙 간 그디 그 이제 어촌계 전홀동<sup>98)</sup> 어촌계 짓인 바로 여피우다.(어머니 나하고 어떻게 노름하는데 찾아서가게 하니까 아이고 아기 어머니야 가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해도 난 이 애기들 밥을 안 굶기려고 하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 가지겠니 하니까 나하고만 걸으십시오, 아 시어머니 데려서 가서 거기 그 이제 어촌계 ‘전홀동’ 어촌계 지은 바로 옆입니다.)

102013 @ 예.(예.)

102013 #4 그디서만 어떻, 이 집이서 노름을 허는 거 닥수다 창문이고 뭐 다 해 버려부니까양 불은 싸 놓은 공기는 엇고, 다 버려부난 ㄴ만이 산 들으난 노름하는 소리가 나 어떻, 이디 노름햐수다 어명은 부모고 난 가속이니까 나를 매질사 혈티, 어명이 들어갑센 아기 어떻아 난 못 들어간다 아이고 어떻 허민 좋코 흥 동안 샷단 나가 문을 확 올안 나도 힘은 써져 나수다게 영 꼬느라도.(거기서만 어머니, 이 집에서 노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창문이고 뭐 다 해 버려버리니까요 불은 켜 놓은 공기는 없고, 다 바라보니까 가만히 서서 들으니까 노름하는 소리가 나 어머니, 이데 노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고 난 가속이니까 나를 매질이야 할까, 어머니가 들어가십시오 아기 어머니야 난 못 들어간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동안 섰다가 내가 문을 확 열어서 나도 힘은 써졌습시다 이렇게 가늘어도.)

102013 @ 아.(아.)

102013 #4 그 둘레 둘레 돈을 싸 논 거라도, 양착 손으로 박하게 언주언 복끈 심어수게게 심으난 불을 안 싸노니까 남즈 몰라마썬.(그 둘레 둘레 돈을 쌓아놓은 거라도, 양쪽 손으로 박하게 그러모아 불끈 잡았어요 잡으니까 불을 안 켜놓으니까 남자 몰라요.)

102013 @ 예.(예.)

102013 #4 소섬 사람은 소섬 사람인디 이렇게 됩니까 그 남즈가 나 손만 펴라고 예를 써도 나 손을 못 펜 거라마썬. 아이고 나가 우리 서방 돈이 아닌디, 나가 왜 남이 돈을 먹어, 스그모니 이 손을 버드니까 그 손을 빼연에 이젠 저 나 조름에 가렌.(‘소섬’ 사람은 ‘소섬’ 사람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 남자가 나 손만 떼려고 애를 써도 나 손을 못 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서방 돈이 아닌데, 내가 왜 남의 돈을 먹어, 슬그머니 이 손을 번으니까 그 손을 빼서 이젠 저 나 나중에 가라고.)

102013 @ 예.(예.)

102013 #4 그디 사람들이 보내시킨 금방 또 나갑디게. 그냥 내버수다게. 허고시고, 게난 이제 저 그 서울 보낸 간 오란 후제 구신ㄴ썬 뻘디다, 이제.(거기 사람들이 보냈으니까 금방 또 나갑디다. 그냥 내버렸습시다.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 그 서울 보낸 가서 온 후에 귀신같이 뻘디다, 이제.)

98) ‘전홀동’은 우도읍에 소재한 마을이다.

102013 #1 계난양 화투란 헛는 건 늑잇사름 저 사름은 호강으로 헛젠 헛니께 건 헛 디 그게 아넛디다게 난양 어렵게 살아온 사름 아넛과 돈 헛 푼을 어떻 어떻 늑헛티 가 민양 걸 추금헛렌 헛고만 욕심난 가진 거라.(그러니까요 화투라고 하는 건 남의사름 저 사름은 호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테 그게 아넛디다 난요 어렵게 살아온 사름 아넛니까 돈 한 푼을 어떻게 어떻게 남한테 가면요 걸 추금하려고 하고만 욕심난 가진 거야.)

102013 @ 아.(아.)

102013 #1 게 늑덜은 호강으로만 생각힙니다 호강이 아니우다게.(그럼 남들은 호강으로만 생각합니다 호강이 아넛니다.)

102013 @ 본전 생각예.(본전 생각요.)

102013 #1 늑안티 돈 일러부민예.(남한테 돈 잃어버리면요.)

102013 #4 어리석으니까.(어리석으니까.)

102013 #1 눈이 벌경헛양 사름을양 예.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남디다게.(눈이 발개서요. 사름을요 예. 죽여 버리고픈 생각이 남디다.)

102013 #4 추구리는 말에.(추기는 말에.)

102013 #1 돈에 돈에 게메 돈 따문에 사름을 죽이는 거 아넛과게 지금.(돈에 돈에 글썽 돈 때문에 사름을 죽이는 것 아넛니까 지금.)

102013 @ 으.(으.)

102013 #1 양 지금 계난 지금 돈 엇영에 노름을 못허니까 사름 미쳐질 지경입디다게.(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돈 없어서 노름을 못하니까 사름 미쳐질 지경입디다.)

102013 #4 우리 씨어머니가예. 약흔 할망이라.(우리 시어머니가요 약한 할머니이야.)

102013 #1 추분<sup>99</sup>헛젠.(‘추분’하려고.)

102013 @ 추분.(‘추분’.)

102013 #1 호강 헛젠 헛는 게 아니라.(호강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2013 #4 계난양 아들을 쪼금은 때리고 욱헛시문 헛주만은 씨어머니가 막 순헌 할망이우다게.(그러니까요 아들을 조금은 때리고 욱헛으면 하지만은 시어머니가 마구 순헌 할머니입니다.)

102013 #1 우리 어머니가 믯음은 어질어수다게.(우리 어머니가 마음은 어질었습니다.)

102013 #4 순헌 할망이난 나만 막 웨면 나만 씹는 사름으로 쳐도양 학벌은 엇수다만은 말로는 나가 서방을 이겨수다게.(순헌 할머니니까 나만 마구 외치면 나만 싸우는 사름으로 쳐도요 학벌은 없습니다만 말로는 내가 서방을 이겼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4 양양거리지 앓으면 살 수가 엇인디마씨 밥을 굶게 돼니 늑이 집이, 꼭 오년을 살아숫게. 남이 집이 겐 오년 살단에 오년 살아네 우리 저 서울 간 셋 아덜 헛 몇 설 때에 이집을 산 들어와수다게.(양양거리지 앓으면 살 수가 없는데요 밥을 굶게 되니 남의 집에, 꼭 오년을 살았어요. 남의 집에 그래서 오년 살다가 오년 살아서 우리 저 서

99) ‘추분하다’는 ‘건지다’ ‘보충하다’ 손해 본 것이나 투자한 밀천 따위를 도로 찾는다는 뜻이다.



울 간 셋 아들 한 몇 살 때에 이집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4 경 허난 오늘날까지 그자 노름을 오늘날까지 설르난 신간 편안 허게 살  
았수다.(그렇게 하니까 오늘날까지 그저 노름을 오늘날까지 그만두니까 신간 편안 하게  
살았습니다.)

102013 @ 예게 아이고.(예. 아이고.)

102013 #4 아이고 나가 이 이 저 사람광 어떻연.(아이고 내가 이 이 저 사람하고 어  
떻게 해서.)

102013 #1 저 성공 일은양.(저 성공 일은요.)

102013 #4 무신 희망을 받 살아저신고양.(무슨 희망을 봐서 살았는가요.)

102013 #1 소 질란 소 키완양 칠십 삼년도에 나 암소 송아지를 하나 사왔수다게.(소  
길러서 소 키워서요 칠십삼년도에 나 암소 송아지를 하나 사왔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1 소가 잇언 그때는 췌가 채고라수다 췌 아니면 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줍  
주마썸.(소가 있어서 그때는 소가 최고였습니다 소 아니면 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줍지  
요.)

102013 #4 췌로 이제 저 우리가 살았수다.(소로 이제 저 우리가 살았습니다.)

102013 #1 소는 이제 새끼 나근 돈 벌어주지양 또 제 때 농스 시겨주지 소똥 싸면은  
걸름하지 또 굴묵 진지 그거 몰량.(소는 이제 새끼 나서 돈 벌어주지요 또 제 때 농사  
시겨주지 소똥 싸면 거름하지 또 아궁이 때지 그거 말려서.)

102013 #4 이제는 노름은 설르니까 췌를 질랑 부제가.(이제는 노름은 그만두니까 소  
를 길러서 부자가.)

102013 #1 소가 그때 으라 가지 역할을 해마썸.(소가 그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102013 #4 덜씩덜씩 해 갑디다게. 밧도예. 삼백 췌짜리 저 천 췌짜리 사고 또 천육췌  
짜리 사고 존거랑 네베도 씨어머니덜 물려준 거 존존흔 들랭이 혼 서너 개 물려줍디다  
게.(들씩들씩 해 갑디다. 밧도요 삼백 췌짜리 저 천 췌짜리 사고 또 천육 췌짜리 사고  
잔거랑 내버려도 시어머니들 물려준 거 자잘한 달랑이 한 서너 개 물려줍디다.)

102013 @ 예.(예.)

102013 #4 경 현디 그 췌 폴민 췌 흥나 폴민 밧 흥나라마썸 경 허멍 어떻 어떻 거  
엇이 살단에양 부제가 동곳 동곳 올라오난양 애기덜도 건강하고예.(그렇게 한테 그 소  
팔면 소 하나 팔면 밧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거 없이 살다가요 부자가  
동곳 동곳 올라오니까요 애기들도 건강하고요.)

102013 #1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2013 #4 저 참 췌안하게 오닐까지 살았수다게.(저 참 편안하게 오늘까지 살고 있습  
니다.)

102013 @ 아이고 잘도예.(아이고 잘도요.)

102013 #4 참 나가 삶이 삶으로 안 알양 살아수다게 아이고.(참 내가 삶이 삶으로 안

알아서 살았습니다 아이고.)

102013 @ 예.(예.)

102013 #1 이 저 게난 처음엔 켜로 헤네 지금 이제 저 켜가 지금 여기 그 땐 수췌만 나네 이 돈이랏수다게.(이 저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로 해서 지금 이제 저 소가 지금 여기 그땐 수소만 나서 이 돈이었습시다.)

102013 @ 예.(예.)

102013 #1 게난 수췌를 총총 다섯 번이나 납디다게 다섯 번이나 나단 보난에 그 수췌 폴안에 이제 줌 저.(그러니까 수소를 총총 다섯 번이나 납디다 다섯 번이나 나다 보니까 그 수소 팔아서 이제 참 저.)

102013 @ 예.(예.)

102013 #4 게 아기덜토 ○○아덜 하나만 떨어 놓고는 착허는디 ○○아덜이 돈이 너무 써어, 그 아방엿 아덜로예. 돈이 한강물로.(그럼 아기들도 ○○아들 하나만 떨어 놓고는 착하는데 ○○아들이 돈이 너무 써, 그 아버지예 아들로요. 돈이 한강물로.)

102013 #1 돈이 써도예. 복이 잇수다.(돈이 써도요 복이 있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4 나도 막 걱정이우다.(나도 마구 걱정입니다.)

102013 #1 복이 서 두가시가 이제 월급이 일 억 이상 돼우다 즈식도.(복이 있어 부부가 이제 월급이 일억 이상 됩시다 자식도.)

102013 #4 일억이고 삼억이고 돈 그만 써면양.(일억이고 삼억이고 돈 그만 쓰면요.)

102013 #1 각시가 이제 저 공무원.(각시가 이제 저 공무원.)

102013 @ 예.(예.)

102013 #4 돈 월급 타는 게 문제가 아니우다게.(돈 월급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102013 #1 지도 공무원 다 이십년 이상 다녔수게. 다 삼십 년이나 뽄숫게.(제도 공무원 다 이십년 이상 다녀습시다. 다 삼십년이나 됩시다.)

102013 @ 예.(예.)

102013 #1 지금 게난 복이 오히려 돈은 써도 복은 잇고양.(지금 그러니까 복이 오히려 돈은 써도 복은 잇고요.)

102013 @ 예.(예.)

102013 #4 늙은 또 우리 ○○아덜이.(남은 또 우리 ○○아들이.)

102013 #1 즈식도 아들 흥나 뽄 흥나 잇고,

102013 #4 아방예 아덜로 늙 주는게 정 좋아흥난 ○○을 늙 뽄여숫게. 각시가 흥 번 나신디 며누리 밤 열시에 전나 와십디다 아이고 아기 어멍아 이 밤이 어뽄연 전나 완디 허난에, 어머니를 들으면은 좋은 전나 아니우다게. 아이고 아기 어멍아 어떤 일이고 허난에 저양 ○○이 아방이 늙이 돈 ○○을 뽄여수다게 나 아기덜 뽄벼동 돌아나불कु다. 기여 돌아나라 니 살아도 우리 아들이영 살아도 희망엿다 돌아나라 경 헨 이젠 숨느려 셴 또 전날 헛숫게 메누리신디, 아기 어멍아 나이 느신디 곱은 말이 거 어떤 말고, 살암 시민 살아진다. 느 가불민 저 ○○이 누게가 키울것고 나가 느가 예를들언 나간다면, 나

자식보단 더 손지를 잘 키우키여만은, 설마 느가 우리 아덜 네비여똥 갈티야, 살암시민 살아진다. 아이고 나도 그 생각이우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아기 어멍아 고맙다 경 헨 오늘까지 우리 메누리 산다.(아버지에 아들로 남 주는것 저렇게 좋아하니까 ○○을 남 먹였습니다. 각시가 한 번 나한테 며느리 밤 열시에 전화 왔습디다 아이고 아기 어멍아 이 밤이 어떻게 해서 전화 왔니 하니까, 어머니를 들으면은 좋은 전화는 아닙니다. 아이고 아기 어머니야 어떤 일인가 하니까 저요 ○○이 아버지가 남의 돈 ○○을 먹였습니다 나 아기를 놔버려두고 달아나버리겠습니다. 그래 달아나라 너 살아도 우리 아들하고 살아도 희망없다 달아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숨내리게 하고 또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한테, 아기 어머니야 내가 너한테 말할 말이 거 어떤 말인가, 살고 있으면 살아진다. 너 가버리면 저 ○○이 누가 키울것이고 내가 너가 예를들어서 나간다면, 나 자식보다는 더 손주를 잘 키우겠다만은, 설마 너가 우리 아들 내버려두고 갈테냐, 살고있으면 살아진다. 아이고 나도 그 생각입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아기 어머니야 고맙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 며느리 사는데.)

102013 @ 예.(예.)

102013 #1 중학교 동창.(중학교 동창.)

102013 @ 아.(아.)

102013 #1 말이 좋주게.(말이 좋지.)

102013 #4 나가 게 메누리신디.(나가 그럼 며느리한테.)

102013 @ 예.(예.)

102013 #1 그 놈안티 거.(그 놈한테 거.)

102013 #4 돌아나볼렌 까지 곱아수다게.(달아나버리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102013 @ 예.(예.)

102013 #1 ○○만원 빚져췌단 농협마다 뎡이멍 다 ○○원씩 다섯빳디 ○○만원.(○○만원 빚져주었다가 농협마다 다니면서 다 ○○원씩 다섯 군데 ○○만원.)

102013 @ 음.(음.)

102013 #1 이자까지 허난 ○○원까지 ○○만원 그 빚을 이제.(이자까지 하니까 ○○원까지 ○○만원 그 빚을 이제.)

102013 #4 아, 며느리 이제 ○○○이 아들만 ○○만원 뵈수게.(아, 며느리 이제 ○○이 아들만 ○○만원 뵈어요.)

102013 @ 예.(예.)

102013 #1 게 게메게. 경 헨 이제 우리 아들이 어멍 말잇과 월급이 ○○부떠노난.(그래서 글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말입니까 월급이 ○○붙어놓으니까.)

102013 #4 우리 메누리가 그거 다 물어수다.(우리 며느리가 그거 다 물었습니다.)

102013 #1 ○○에 잇일 때 월급이 ○○뵈 노난 거 어멍 그걸 아니 갚앙 뵈니까게.(○에 있을 때 월급이 ○○되어 놓으니까 거 어떻게 그걸 아니 갚아서 뵈니까.)

102013 @ 예.(예.)

102013 #4 게난 그 사름이 이제도 안 물고.(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도 안 물고.)

102013 #1 계난 그 사름은 이제 가남<sup>100)</sup> 봉사 돼수다.(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과남’ 봉사 돼수다.)

102013 #4 계난 그 사름은 이제도 안 물어수다, 경 해도.(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도 안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102013 #1 이제 계난 그 즈식은양.(이제 그러니까 그 자식은요.)

102013 @ 예.(예.)

102013 #4 우리 큰며느리가 착허우다.(우리 큰며느리가 착합니다.)

102013 #1 그 돈을 빚저단, 전기 저 고속화물, 차 두 대 산 거에다 짝끔헐 이것에 딱 시 붓그단 보난 이 것 저 것에 몰아먹언 있어.(그 돈을 빚저다가, 전기 저 고속화물, 차 두 대 산 것에다 조금해서 이것에 다시 용솟음치다가 보니까 이 것 저 것에 몰아먹어서 있어.)

102013 @ 예.(예.)

105015 #4 게 아덜은 못났수다만은.(그래서 아들은 못났습니다만.)

105015 #1 경 해도 지금양.(그렇게 해도 지금요.)

105015 @ 예.(예.)

105015 #4 저 메뉴린 진짜 착헌 메뉴리 헛수다.(저 며느리는 진짜 착한 며느리 했습니다.)

105015 #1 지금양 지금은 쁘찬허우다. 지금은 경 해도.(지금요 지금은 쁘찮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도.)

105015 #4 우리 애기어멍ㄱ라 돌아나볼라 ㄱ장도 나가 헌 사람이고 우리 아덜이영 살아도 희망 엇덴 헌 사람이고 오늘날ㄱ지 살아준 메뉴리가 고마운 사람이우다게.(우리 애기어머니보고 달아나버리라 까지도 내가 한 사람이고 우리 아들하고 살아도 희망 없다고 한 사람이고 오늘날까지 살아준 며느리가 고마운 사람입니다.)

105015 @ 예.(예.)

105015 #4 아이고.( 아이고.)

105015 @ 예.(예.)

105016 @ 여기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 부치고 싶은 그 삼촌이 그 철학이라든가 잇이민.(여기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더 붙이고 싶은 그 삼촌이 그 철학이라든가 있으면.)

105016 #1 철학은.(철학은.)

105016 @ 게 살아온 게 모든 게 철학이우다마는.(그럼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철학입니다마는.)

102016 #1 예.(예.)

102016 @ 예게.(예.)

102016 #1 계난 뭐니 해도 난 그자 첫체는 저 즈식 농사가 제일 중요호고.(그러니까

---

100) ‘가남’은 제보자가 과만(過滿)으로 말하는 대상을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비판하고 있다.

뭐니 해도 난 그저 첫째는 저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고.)

102016 @ 예.(예.)

102016 #1 주식 농사가 잘돼야 됩니다게 첫째는.(자식 농사가 잘돼야 됩니다 첫째는.)

102016 @ 예.(예.)

102016 #1 나가 느낀 건 뭐냐, 육성회장으로 텅이멍 옛날에 그 춤 강정숙<sup>101)</sup>, 그 춤 교육장.(내가 느낀 건 뭐냐, 육성회장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그 참 ‘강정숙’, 그 참 교육장.)

102016 @ 예. 강정숙예.(예. ‘강정숙요.’)

102016 #1 그 사람은 이 우리 가난 우리가 그때 무신 사건이 잇었는고 하니까 나 육성회장 때, 하 김찬흡<sup>102)</sup>교장이 아 큰일 나수다 회장님 무신 일잇과 저 초등학교에양 큰 난리가 났수다. 무신 난리파 허난 초등학교 선생덜이 토요일 날 나장 이 월요일 아침 때 배 잡양 ‘종달리’로 들어오는 거라.(그 사람은 이 우리 가니까 우리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내가 육성회장 때, 하 ‘김찬흡’교장이 아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 초등학교에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입니까 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덜이 토요일 날 나가서 이 월요일 아침 때 배 잡아서 ‘종달리’로 들어오는 거야.)

102016 @ 예.(예.)

102016 #1 계난 도선주가 도선주가 고발을 해분 거라 교육청 아피, 학교선생덜이 월요일 날 저 일요일 날 안 들어왕 월요일 아침 들어왓젠 경 허난 강정숙 교육장이 이 세끼 교장부터 모가지 쫄라부켄.(그러니까 도선주가 도선주가 고발을 해버린 거야 교육청 앞에, 학교선생덜이 월요일 날 저 일요일 날 안 들어와서 월요일 아침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강정숙’ 교육장이 이 세끼 교장부터 모가지 잘라버리겠다고.)

102016 @ 아.(아.)

102016 #1 경 험 이제 해가난 우리 저 김찬흡교장이 힌트를 알아신ㄴ라 아 나신더래 어떻 험니까 허난 나 여기 이장, 동창회장, 동문회장, 초등학교 동문회장, 들양 가네 어떻 험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엇게시리 허크메, 우리 열심이 춤 머 허크메 춤 스정허난.(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니까 우리 저 ‘김찬흡’교장이 힌트를 알았는지 아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나 여기 이장, 동창회장, 동문회장, 초등학교 동문회장 데려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끔 하겠으니, 우리 열심히 참 뭐 하겠으니 참 사정하니까.)

102016 @ 예.(예.)

102016 #1 강정숙이 저 교육장이 알아수다 당신네가 영 와부니까 나가 용서는 허쿠 다마는, 당신네 아니 오라시민 나 다 쫄라볼 뻔 했수다 했는디 어떻 험니까. 춤 촌에서 어렵게 살아도 주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까 나 그 말을 거기서 들어수다 아.(‘강정숙’이 저 교육장이 알았습니다 당신네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내가 용서는 하겠습니까마는, 당신네 아니 왔으면 나 다 잘라버릴 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 촌에서 어렵

101) ‘강정숙’은 제주도 교육계에 주요 인물이다.

102) ‘김찬흡’은 제주도 교육계에 주요 인물이다.

게 살아도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나 그 말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아.)

102016 @ 예.(예.)

102016 #1 아, 즈식 농스 잘 지어사 돼는 구나 또 나도 과거에 설움을 받았기 때문에 양.(아, 자식 농사 잘 지어야 죄는 구나 또 나도 과거에 설움을 받았기 때문예요.)

102016 @ 예.(예.)

102016 #4 아이고 베고팡 어떻 허코마씨.(아이고 배고파서 어떻게 할까요.)

102016 #1 경 해네 신경은 써수다마는 경 해도 크게 신경은 못 켜수다게.(그렇게해서 신경은 켜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크게 신경은 못 켜습니다.)

102016 @ 예.(예.)

102016 #1 시시각각이라 사람은양 벤소에 갈 땀 뭍음광 돌아올 때 뭍음이.(시시각각 이야 사람은요 변소에 갈 땀 마음과 돌아올 때 마음이.)

102016 #4 나면 어디신가.(라면 어디 있는가.)

102016 #1 틀리는 거 아니라게 양. 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라 계난 어떤 때는 교육도 중요호주만은 또 돈도 중요호는 생각이 나는 거라.(다른 거 아니야 예. 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또 돈도 중요한 생각이 나는 거야.)

102016 @ 맞수다.(맞습니다.)

102016 #1 어린 때 못 살아난 생각허명.(어린 때 못 살아난 생각하면서.)

102016 @ 예.(예.)

102016 #4 아이고 게메 사는 게 뭇지 사난 사는 거우다.(아이고 글썽 사는 게 뭇지 사니까 사는 겁니다.)

102016 @ 예.(예.)

102016 #1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돼는지 아직도 뭍음을 하나로 못 잡암수다.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전예. 지금.(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마음을 하나로 못 잡고 있습니다.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져서요. 지금.)

102016 @ 변해전예. 예.(변해져서요. 예.)

102016 #1 야 츠츠로 뭍음이 강해야 돼는데.(야 차차로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102016 @ 삼춘 앓아신디 막 불편.(삼춘 앓았는데 마구 불편.)

102016 #1 엇수다.(없습니다.)

102016 @ 아프거나 허지 안햐수과.(아프거나 하지 않습니까.)

102016 #1 으으 어떻 아녀. 아 게메 흘 만호주 켜찬허우다.(으으 어떻게 하지 않아. 아 글썽 할 만하지 켜찮습니다.)

102016 @ 억지로 허는 거는.(억지로 허는 거는.)

102016 #1 예게.(예.)

### 3. 발일

103001 @ 삼촌 농사를 여기서도 많이 지어나니깐예. 다, 밭 산디 췌허고.(삼촌 농사를 여기서도 많이 지었으니깐요 다, 밭 밭벼 소하고.)

103001 #1 예.(예.)

103001 @ 조농사 보리농사.(조농사 보리농사.)

103001 #1 예.(예.)

103001 @ 밭 산디예.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고마씨. 밭일이문 농사일이주마씨예. 어떻 것들이 잇이고예.(밭 밭벼요, 밭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밭일이면 농사일이 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103001 #1 예. 계난 그 년도 별로 그 년도 별로 틀립주마씨 그 밭 농사일이, 옛날 예, 팔십년도 이전에는 조 보리농사만 헛수다. 조 보리만.(예. 그러니까 그 년도 별로 그 년도 별로 다르지요 그 밭 농사일이, 옛날 예, 팔십년도 이전에는 조 보리농사만 헛수다. 조 보리만.)

103001 @ 막 그 옛날에도예.(마구 그 옛날에도요.)

103001 #1 예. 그 팔십년도 이전에는 옛날 조상대대로 그자 보리허고 조만 갈아서 우선 의식주.(예. 그 팔십년도 이전에는 옛날 조상대대로 그자 보리하고 조만 갈아서 우선 의식주.)

103001 @ 예.(예.)

103001 #1 이제 입에 풀칠할 것만 해십주.(이제 입에 풀칠할 것만 했지요.)

103001 @ 예.(예.)

103001 #1 돈 사젠도 앓고, 그렇게 해오다가 팔십 예, 육십년도 깃지는, 그래서 육십오년도 부터는 고구마를 짝끔씩 갈기 시작해수다.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서속에 ㄴ치 보태서 이제 먹기도 헛고 이젠.(돈 사려고도 앓고, 그렇게 해오다가 팔십 예, 육십년도 까지는, 그래서 육십오년도 부터는 고구마를 조금씩 갈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를 이제 서속에 같이 보태서 이제 먹기도 헛고 이젠.)

103001 @ 서속마씨 아까 고구마를 서속에.(서속요 아까 고구마를 서속에.)

103001 #1 예. 조조 조예, 서꺼서 밥도 해 먹기도 흥곡 가난헌 집은 이제, 또 이제 겨울에 간식으로 쳐도 먹고 이렇게 헛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헛주만은 그때는 또 이제 신식 고구마가 나오라낫수다.(예. 조조 조예, 섞어서 밥도 해먹기도 하고 가난한 집은 이제, 또 이제 겨울에 간식으로 쳐도 먹고 이렇게 헛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헛지만은 그때는 또 이제 신식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옛날 제죽 감저라고 해서 들어오긴 헛는데 그때 나온 건 동글동글 해갓고 예. 게 고구마가 잘 들어마썸 옛날 거 보담, 이제 그 고구마를 찰흙 찰흙 안 해가니까 이제는 절간고구마, 이제 술 원료 그거 만드느 절간고구마를 흥기 시작해십주.(옛날 제죽 고구마라고 해서 들어오긴 헛는데 그때 나온 건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그래서 고구마가 잘 들어요 옛날 거 보다는, 이제 그 고구마를 차츰 차츰 안 해가니까 이제는 절간

고구마, 이제 술 월료 그거 만드는 절간고구마를 하기 시작했지요.)

103001 @ 예.(예.)

103001 #1 그래서 혼 팔십년도 깎지는 구십년도 깎지는 이 저 땅콩이 나오기 전 깎지는 구십년대 깎지는 이 절간고구마를 많이 해가수다게.(그래서 한 팔십년도 까지는 구십년도 까지는 이 저 땅콩이 나오기 전 까지는 구십년대 까지는 이 절간고구마를 많이 해갔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농협에 의탁을 허는 수매도 해서 걸 또 주장 예, 농협에서 받아갖고 또 이제 농협에서는 각 이제 주정공장에 술 원료로 이렇게 이제 나가기도 허고 팔기도 해수다.(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농협에 의탁을 하는 수매도 해서 그걸 또 주장 예,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제 농협에서는 각 이제 주정공장에 술 원료로 이렇게 이제 나가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103001 @ 으.(으.)

103001 #1 글다가 구십 년도 와서는 이제 그 춤 땅콩.(그렇다가 구십년도 와서는 이제 그 참 땅콩.)

103001 @ 예.(예.)

103001 #1 또 왜 고구마를 또 저 안 갈기 시작 했느냐 허면은 중국산 전분이 들어와 가니까 그 전에 혼 팔십 혼 오년에 오륙년도 칠년도 깎지는 절간고구마를 하다가 팔십 칠 년도부터 구십년도 이삼년 사이에는, 전분 월료로 고구마를 저 큰섬<sup>103)</sup>에.(또 왜 고구마를 또 저 안 갈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중국산 전분이 들어와 가니까 그 전에 한 팔십 한 오년에 오륙년도 칠년도 까지는 절간고구마를 하다가 팔십칠 년도부터 구십년도 이삼년 사이에는, 전분 월료로 고구마를 저 제주에.)

103001 @ 예.(예.)

103001 #1 육지에 실러 날랏수다. 저 성산포 하천리 공장에.(육지에 실어 날랐습니다. 저 ‘성산포 하천리’ 공장에.)

103001 @ 예.(예.)

103001 #1 아니면 또 저 애월<sup>104)</sup>에 거 무슨 공장에 이렇게 해서 전분 월료를 이제 생고구마를 실러 날랏는데 그 사이 이삼년 신견 날르다보니까 이젠 전분 전분 공장이 잇어도 공장이 줄어들어부러서마썸 제주도에 나가 알기로는 이십군데 전분공장이 생겨 낫수다게.(아니면 또 저 ‘애월’에 거 무슨 공장에 이렇게 해서 전분 월료를 이제 생고구마를 실어 날랏는데 그 사이 이삼년 실어서 나르다보니까 이젠 전분 전분공장이 잇어도 공장이 줄어들어버려서요 제주도에 내가 알기로는 이십군데 전분공장이 생겼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1 경ㅎ다가 중국산 전분이 들어와 가니까 이젠 수지가 안 맞아가니까 저 전분공장이 이젠 다 폐업을 헐기시작 헐는 거라.(그렇게 하다가 중국산 전분이 들어와 가

103) ‘큰섬’은 우도에서 제주본섬을 가리키는 말이다.

104) ‘애월’은 제주시 애월읍의 애월리를 말한다.



니까 이젠 수지가 안 맞아가니까 저 전분공장이 이젠 다 폐업을 하기시작 하는 거야.)

103001 @ 아.(아.)

103001 #1 또 이제 세로 시작을 할라고하니까 요새 이 환경 관계로 해서 신식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또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고하니까 요새 이 환경 관계로 해서 신식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103001 @ 예.(예.)

103001 #1 또 중국에서 전분 원료가 많이 들어와가니까 경쟁해서 수지가 안 맞았으니까, 예 전분공장들을 다 폐업해 버리니까 아 우리가 생산을 고구마를 가 팔아 올 라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서마썸.(또 중국에서 전분 원료가 많이 들어와 가니까 경쟁해서 수지가 안 맞음직 하니까. 예 전분공장들을 다 폐업해 버리니까 아 우리가 생산을 고구 마를 가 팔아 오려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서요.)

103001 @ 예.(예.)

103001 #1 예. 그렇게 해서 힘이 드는 도중에 아 땅콩을 갈아보니까 지금 소득이 생 기는 거라마썸 그래서 이젠 땅콩을 갈자.(예. 그렇게 해서 힘이 드는 도중에 아 땅콩을 갈아보니까 지금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땅콩을 갈자.)

103001 @ 예.(예.)

103001 #1 땅콩을 갈아서 또 농협에 팔다보니까 아, 농협에서도 이젠 저 유통공사엔 혼디서가 더 이상 받아들이질 못하겠다, 그걸 사서 가공할 사람들이 벨 이제 좋게 생각 을 안해서, 수량도 적게 나고 또 우리도 취급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앞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겠다고 하니까.(땅콩을 갈아서 또 농협에 팔다보니까 아, 농협에서도 이젠 저 유통 공사라고 한테서가 더 이상 받아들이질 못하겠다, 그걸 사서 가공할 사람들이 벨 이제 좋게 생각을 안아서, 수량도 적게 나고 또 우리도 취급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앞으로 받 아들이질 못하겠다고 하니까.)

103001 @ 예.(예.)

103001 #1 아 계문 큰일 났다 하여서 그때 우리 국회의원 앞세워 갖고.(아 그러면 큰 일 났다 해서 그때 우리 국회의원 앞세워 가지고.)

103001 @ 으.(으.)

103001 #1 유통공사에 가서 삼년만 받아 주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작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테니까 해주세요 하니까. 계민 그렇게 허라고 해서 아 삼년 짜가 되니까 이제 우도가 관광지가 돼분 거라마썸.(유통공사에 가서 삼년만 받아 주십시 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작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테니까 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 삼 년짜가 되니까 이제 우도가 관광지가 돼버린 거 예요.)

103001 @ 계난 어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예.(그러니까 어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

103001 #1 예. 이 얘기해십주.(예. 이 이야기했지요.)

103001 @ 시대별로해서 얘기 그런 저기 마늘깎지는 들언예.(시대별로해서 얘기 그런

저기 마늘까지는 들었어요.)

103001 #1 예. 헛고예.(예. 헛고요.)

103001 @ 예. 그런데 그 이외에 것덜.(예.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

103001 #1 그건 이제 여름농사고 땅콩은.(그건 이제 여름농사고 땅콩은.)

103001 @ 예.(예.)

103001 #1 또 이제 겨울농사로써는 이제 그 마늘을 허기 시작헌 겁주 마늘을.(또 이제 겨울농사로써는 이제 그 마늘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마늘을.)

103001 @ 마늘예.(마늘요.)

103001 #1 거 이제 마늘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마늘은 짝끔 갈긴 갈아도 경심하게는 안 갈았수다. 많이 안 갈았는데 예,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거라마씨.(그거 이제 마늘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마늘은 조금 갈기는 갈아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갈았습니다. 많이 안 갈았는데 예,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103001 @ 으.(으.)

103001 #1 또 농협에서도 이제 저 그 중앙 정부에서 그 지정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농민덜 생산헌 마늘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해라.(또 농협에서도 이제 저 그 중앙 정부에서 그 지정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농민들 생산한 마늘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해라.)

103001 @ 예.(예.)

103001 #1 경 해서 아 농협에서 팔아먹기가 쉬운 거라마씨.(그렇게 해서 아 농협에서 팔아먹기가 쉬운 거예요.)

103001 @ 예.(예.)

103001 #1 그 웨에는 마늘 생산해갖고 못 팔아갖고 나도 일 년 넘이한테 팔아갖고 일 년치 값도 못 받안 내불엇수다.(그 외에는 마늘 생산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나도 일 년 남한테 팔아가지고 일 년치 값도 못 받아서 내버렸습시다.)

103001 @ 예.(예.)

103001 #1 겐디 농협엔 받으니까 즉시 수매해서 대금 정산도 해주고 허니까 마늘을 갈기 시작해오는 도중에 또 이제는 쪽파를 짝끔씩 갈기 시작헌 거라.(그런데 농협에는 받으니까 즉시 수매해서 대금 정산도 해주고 하니까 마늘을 갈기 시작해오는 도중에 또 이제는 쪽파를 조금씩 갈기 시작한 거야.)

103001 @ 예.(예.)

103001 #1 으. 쪽파, 갈아서 이제 행 오니까 쪽파가 쉬웁고 또 저 보성<sup>105)</sup> 등지에서 쪽파를 무조건 선호해마썸 종자가 좋다고 해서.(으. 쪽파, 갈아서 이제 해서 오니까 쪽파가 쉽고 또 저 ‘보성’ 등지에서 쪽파를 무조건 선호해요 종자가 좋다고 해서.)

103001 @ 씨앗으로예.(씨앗으로요.)

103001 #1 예. 씨앗용으로.(예. 씨앗용으로.)

103001 @ 예.(예.)

103001 #1 또 저 충청도 서산 예산 서천 이 지방에서는 노지재배도 허곡 겨울에는

---

105) ‘보성’은 전라남도에 있는 행정을 보성이다.

하우스 재배를 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수지가 맞으니까 우도 이제 그저 쪽과 씨를 사가기 시작하는 거라마썬.(또 저 충청도 서산 예산 서천 이 지방에서는 노지재배도 하고 겨울에는 하우스 재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지가 맞으니까 우도 이제 그저 쪽과 씨를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3001 @ 예.(예.)

103001 #1 게 우도는 이제 또 저 육지 제주 본섬에 이제 그저 한림<sup>106)</sup>이나 이 애월 지방더러는 우도 씨를 사갖고 재배해근에 그걸 또 상품용으로, 상품용으로 육지에 팔기도 합니다.(그래서 우도는 이제 또 저 육지 제주 본섬에 이제 그저 한림이나 이 애월 지방으로는 우도 씨를 사가지고 재배해서 그걸 또 상품용으로, 상품용으로 육지에 팔기도 합니다.)

103001 @ 음.(음.)

103001 #1 그래서 까갖고.(그럼 까가지고.)

103001 @ 예.(예.)

103001 #1 게 우리는 우도에서는 까질을 안 행 그자 순 종자 종으로만 팝니다게.(그래서 우리는 우도에서는 까지를 얹아서 그저 순 종자 종으로만 팝니다.)

103001 @ 종자 종으로예.(종자 종으로요.)

103001 #1 우도쪽과는.(우도쪽과는.)

103001 @ 그 이외에 밭디 밭일 거 농사일이고예.(그 이외에 밭에 밭일 거 농사일이고요.)

103001 #1 예.(예.)

## 보리농사

103002 @ 그 이외에 밭디에 밭일에는 또 경허젠 허면은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그 이외에 밭에 밭일에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103002 #1 예.(예.)

103002 @ 거름도 해야 되고.(거름도 해야 되고.)

103002 #1 예.(예.)

103002 @ 등등 허는디.(등등 하는데.)

103002 #1 걸름은.(거름은.)

103003 @ 예전에 조허고 보릿대를 짚끔 굴아주시고 땅콩헌 거.(예전에 조하고 보릿대를 조끔 굴아주시고 땅콩헌 거.)

103003 #1 옛날에는 이제 그 듬복을 허다가.(옛날에는 이제 그 듬복을 하다가.)

103003 @ 예.(예.)

103003 #1 육십년도 부터는 비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마썬.(육십년도 부터는 비료가

106)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을 말한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03003 @ 예.(예.)

103003 #1 게 비료로만 이제 밭디 뿌리는 거라. 퇴비를 생산 안해마씨.(그래서 비료로만 이제 밭에 뿌리는 거야. 퇴비를 생산 않아요.)

103003 @ 예.(예.)

103003 #1 게 비료로 이제 저 지금 농협에서게 주문을 허민 농협에서 사다 주는 거라마씨.(그래서 비료로 이제 저 지금 농협에서 주문을 하면 농협에서 사다 주는 거예요.)

103003 @ 예.(예.)

103003 #1 그래서 화학 비료만 막 써와십주.(그래서 화학 비료만 마구 써왔지요.)

103003 @ 예.(예.)

103003 #1 요 근래에는 유기농 유기농해서 저 퇴비가 혼 삼십 프로가 그 서꺼졌수다 그렇게 해서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집니다게 지금.(요 근래에는 유기농 유기농해서 저 퇴비가 한 삼십 프로가 그 섞여졌습시다 그렇게 해서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습시다 지금.)

103003 @ 그 전에 헐 때 그 비료엔 현 건 어떻 그 전 옛날에는.(그 전에 할 때 그 비료에는 한 것은 어떻게 그 전 옛날에는.)

103003 #1 아주 옛날에는 비료가 엇어십주. 그자 저 해조류.(아주 옛날에는 비료가 없었지요. 그저 저 해조류.)

103003 @ 예.(예.)

103003 #1 그 듬복을 헤어다근에 쌓아 밭다근에 그거 이제 밭을 갈아근에 듬복을 깔아서.(그 듬복을 해다가 쌓아 밭다가 그거 이제 밭을 갈아서 듬복을 깔아서.)

103003 @ 예.(예.)

103003 #1 게 보리씨를 빼영.(그래서 보리씨를 뿌려서.)

103003 @ 예.(예.)

103003 #1 경 그자 보리씨 더퍼근에.(그렇게 그저 보리씨 덮어서.)

103003 @ 예. 그게.(예. 그게.)

103003 #1 이제 쉼로 갈양 사이 이 저 사이를 쉼로 갈앗수다.(이제 소로 갈아서 사이 이 저 사이를 소로 갈았습시다.)

103003 @ 예.(예.)

103003 #1 쉼로 갈아 갈면은 양쪽으로 흙이 돼서 그 듬복이 감좌저마씨예.(소로 갈아 갈면 양쪽으로 흙이 되어 그 듬복이 감추어져요.)

103003 @ 예.(예.)

103003 #1 경해서 이제.(그렇게 해서 이제.)

103003 @ 그게 걸름이엇고예.(그것이 거름이고요.)

103003 #1 예.(예.)

103003 @ 돛걸름은 또.(돼지거름은 또.)

103003 #1 돛걸름 돛걸름도 마찬가지로 뿌려수다. 밭디 강.(돼지거름 돼지거름도 마

찬가지로 뿌렸습니다. 밭에 가서.)

103003 @ 예. 돛거름.(예. 돼지거름.)

103003 #1 예. 저 수산<sup>107)</sup>ㄴ쁜 디나 이런 딴 강 보면은예.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밧이 땅이 흐리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기 위해서, 이 돛걸름을 마당에 내 놔근에 그레 보리씨를 빼여근에 막 췌로 밧아.(예. 저 ‘수산’같은 데나 이런 데는 가서 보면은요.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밧이 땅이 차지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기 위해서, 이 돼지거름을 마당에 내 놓아서 그리로 보리씨를 뿌려서 마구 소로 밧아.)

103003 @ 예.(예.)

103003 #1 밧아근에 이제 딱시 그걸 전부다 그릇에 가져가근에 밧디 강 쪼금씩 쪼금씩 떡ㄴ치 갈라놔나서.(밧아서 이제 다시 그걸 전부다 그릇에 가져가서 밭에 가서 쪼금씩 쪼금씩 떡같이 갈라놔어.)

103003 @ 예.(예.)

103003 #1 저기에는예. 거기에는예. 빼지 아녀 여기는 이제 돛걸름 ㄴ쁜 것이 이시민 그대로 듬북하고 ㄴ치 서경 뿌렸수다.(저기에는요 거기에는요 뿌리지 않아 여기는 이제 돼지거름 같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듬북하고 같이 섞어서 뿌렸습니다.)

103003 @ 서경 뿌리고예.(섞어서 뿌리고요.)

103003 #1 그 고랑에 깔고 또 걸름도.(그 고랑에 깔고 또 거름도.)

103003 @ 예.(예.)

103003 #1 고랑에 놓아근에 그자 밧을 갈앙 어퍼근에 보리를 갈기 시작해놔고.(고랑에 놓아서 그저 밧을 갈아서 얹어서 보리를 갈기 시작했고.)

103003 @ 걸름 해주고.(거름 해주고.)

103003 #1 예.(예.)

103003 @ 그 다음에는 밧을 갈아주고.(그 다음에는 밧을 갈아주고.)

103003 #1 예. 그때는 육십년도ㄴ지 뿐이고.(그때는 육십년도까지 뿐이고.)

103003 @ 예.(예.)

103003 #1 육십년도 이후에는 보리가<sup>108)</sup>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듬북을 하지 안 헛수다.(육십년도 이후에는 ‘보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듬북을 하지 않았습시다.)

103003 @ 예.(예.)

103003 #1 이젠 듬북이 필요 엇거든마씨 비료를 하니까.(이제는 듬북이 필요 없거든요 비료를 하니까.)

103003 @ 예.(예.)

103003 #1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 력을 들이면서 듬북을 할 필요가 엇다고 지금.(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 력을 들이면서 듬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103003 @ 맞수다. 게민 이진 종자 잇곡.(맞습시다. 그러면 이진 종자 있고.)

103003 #1 예.(예.)

107)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이다.

108) ‘보리’는 제보자가 비료를 잘못 말한 것이다.

103003 @ 그 다음.(그 다음.)

103003 #1 보리를 갈아깎고 조는 조는 그렇게 보리 갈아난 그루에 듬복은 들여난 그루에는 조는 잘 돼여마썸. 비료도 비료도 엇거니와 비료 안 해도.(보리를 갈아가지고 조는 조는 그렇게 보리 갈아난 그루에 듬복을 들였던 그루에는 조는 잘 돼요. 비료도 비료도 없거니와 비료 않아도.)

103003 @ 예.(예.)

103003 #1 겐디 듬복을 안들여난 밧디 조를 갈양은 또 조가 안 돼는 거라 땅 땅 심이 약허기 때문에.(그런데 듬복을 안 들였던 밧에 조를 갈아서는 또 조가 안 돼는 거야 땅 땅 힘이 약하기 때문에.)

103003 @ 예.(예.)

103001 #1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밧이 만헌 사름덜은 자기 밧에 이제 듬복을 채웠다가 좀 남으면 이제 엇는 사람 밧 없는 사름덜 빌려줘나수다게 여기 듬복을 들여서.(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밧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밧에 이제 듬복을 채웠다가 좀 남으면 이제 없는 사람 밧 없는 사람들 빌려줬습니다 여기 듬복을 들여서.)

103003 @ 음.(음.)

103003 #1 보릴 갈아라 게민 그 그루에는 또 조가 잘 돼니까.(보리를 갈아라 그러면 그 그루에는 또 조가 잘 되니까.)

103003 @ 으.(으.)

103003 #1 조는 못 갈고 보리만 갈아먹어라.(조는 못 갈고 보리만 갈아먹어라.)

103003 @ 아, 보리만.(아, 보리만.)

103003 #1 이렇게 해놓고도 그 밧디 듬복은 들이고 쪼끔 듬복이 부족헌 못들이면 보리를 갈지 말아라.(이렇게 해놓고도 그 밧에 듬복은 들이고 쪼끔 듬복이 부족해서 못들이면 보리를 갈지 마라.)

103003 @ 응.(응.)

103003 #1 음 그 땅에는 듬복 안들이면 보리를 갈지 말라 혼 것이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놔수다.(음 그 땅에는 듬복 안들이면 보리를 갈지 마라 한 것이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03004 @ 게민 저기 조나 보리 같은 거는 씨는 이녁이 행 놔뒀다가.(그러면 저기 조나 보리 같은 거는 씨는 이녁이 해서 놔두었다가.)

103004 #1 준비해 놔두십주.(준비해 놔두죠.)

103004 @ 준비 행 이녁 갈아난 거를.(준비해서 이녁 갈아난 거를.)

103004 #1 예예.(예예.)

103004 #1 해 나뒀다근에. 예. 보리 갈안 이녁 준비해 뒀다가.(해 놔두었다가. 예. 보리 갈아서 이녁 준비해 두었다가.)

103004 @ 예.(예.)

103004 #1 일년에 몇 마지기 갈 거 또 듬복이 얼마 뒀난 저거 몇 마지기 헐 거.(일년에 몇 마지기 갈 거 또 듬복이 얼마 되니까 저거 몇 마지기 할 거.)

103004 @ 예산 해가지고예.(예산 해가지고요.)

103004 #1 딱 짐작해여근에 보리는.(딱 짐작해서 보리는.)

103004 @ 예. 뿌리고, 그 다음에는 뿌려난 다음에는 검질메야 되고.(예. 뿌리고, 그 다음에는 뿌려난 다음에는 김매야 되고.)

103008 #1 예. 흙 검질은 언제 매느냐하면 에 저 음력으로 정월달에.(예. 참 김은 언제 매느냐하면 에 저 음력으로 정월달에.)

103008 @ 예.(예.)

103008 #1 에 이제 또 양력으로는 한 이월 들쭈 뽕주마썸게.(에 이제 또 양력으로는 한 이월 달쭈 됩지요.)

103008 @ 예.(예.)

103008 #1 보리 검질을 한 이십일쭈 뽕주마썸.(보리 김을 한 이십일쭈 매지요.)

103008 @ 예.(예.)

103008 #1 나도 중학교 땡길 때는 어머니 똥양 가네 늪이 밭디 가네 보리 검질도 하루 메 나수다.(나도 중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 따라서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김도 하루 매었습니다.)

103008 @ 예.(예.)

103008 #1 한 번 메낫수다.(한 번 땀습니다.)

103008 @ 예. 보리검질매고예. 조는.(예. 보리 김매고요 조는.)

103008 #1 조검질은 여름 때에.(조 김은 여름 때에.)

103008 @ 여름 때에.(여름 때에.)

103008 #1 초벌 두벌 세벌까지를 메어낫수다.(초벌 두벌 세벌까지를 매었습니다.)

103008 @ 세벌까지예.(세벌까지요.)

103008 #1 망중 뽕 때까지.(망중 뽕 때까지.)

103008 @ 예.(예.)

103008 #1 저 그렇게 해서 일년에, 에 조 검질을 한 삼십일 내지 스십일 동안 초벌 두벌.(저 그렇게 해서 일년에, 에 조 김을 한 삼십일 내지 사십일 동안 초벌 두벌.)

103008 @ 음.(음.)

103008 #1 세벌까지 메젠 한 스십일 동안 걸렸수다 옛날에.(세벌까지 매려고 하니까 사십일 동안 걸렸습니다 옛날에.)

103008 @ 예.(예.)

103008 #1 에 이런 날도 지금도 옛날 그뜨민 지금시기에, 막 조밧디 강 검질 뽕 때우다예.(에 이런 날도 지금도 옛날 같으면 지금시기에, 마구 조밭에 가서 김 뽕 때입니다요.)

103010 @ 예. 맞수다. 경 행 크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 할 거 아닛과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요.)

103010 #1 수확은 이제 또 음력으로 구월 초싱웨면예.(수확은 이제 또 음력으로 구월 초순되면요.)

103010 @ 예. 그거하고 또 보리하고.(예. 그거하고 또 보리하고.)

103010 #1 양력으로 시월달 나면 또 조 비여근에 조코고리 가근에 호미로 다 툷아근에 예. 그거 이제 가마니에 담아근에 집이 와근에 마당에 놔근에 도리께로.(양력으로 시월 달 나면 또 조 비여서 조이삭 가서 낫으로 다 뜯어서 예. 그거 이제 가마니에 담아서 집에 와서 마당에 놔서 도리께로.)

103010 @ 도리께로 두두령예.(도리께로 두드려서요.)

103010 #1 보리도 마찬가지로 보리도.(보리도 마찬가지로 보리도.)

103010 @ 보리도예. 보리도.(보리도요 보리도.)

103010 #1 보리도 옛날에는 밭에 보릴 비영.(보리도 옛날에는 밭에 보리를 베어서.)

103010 @ 예.(예.)

103011 #1 이제 그대로 넣어 낱 조 마르민 걸 조금 이렇게 무경 등짐 지어근에 집이 깎지 지어 와근에 집어서 이제 마당에서, 홀테 영 혼 거 잇어 홀테 보리 영 홀트는 거 홀테.(이제 그대로 넣어 놔서 조 마르면 걸 조금 이렇게 묶어서 등짐 지어서 집에까지 지어 와서 집에서 이제 마당에서, 홀이 이렇게 한 거 잇어 홀이 보리 이렇게 훑는 거 홀이.)

103011 @ 예.(예.)

103011 #1 홀테도 보리 홀타근에 영 심지영 비나 즈주 오곡 홀 때는 방 방안에서 마루에서 홀타 낱으네, 방안에 홀타 낱으네 헛다근에 테작하게 돼민, 밖긋디 네와근에 도리께로 테작하고 이렇게 해놔주.(홀이도 보리 훑어서 이렇게 잡으면서 비나 자주 오고 할 때는 방 방안에서 마루에서 훑어 놔서, 방안에 훑어 놔서 했다가 타작하게 되면, 밖에 내놔서 도리께로 타작하고 이렇게 해놓았지.)

103011 @ 그 건 조나 헛디 보리는 또 잘도 잘도 어려우큰게예? 까시레기영예.(그 건 조나 한테 보리는 또 잘도 잘도 어려웠겠네요? 까끄라기하고요.)

103011 #1 보리가 좀 어렵주 조보다는 쫄끔 더 어려와마씨, 예. 멩텅이도 많이 담아와십주.(보리가 좀 어렵지요 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예. 멩둥구미도 많이 담았지요.)

103011 @ 예. 저기 경 허면은 그걸 행 오면은 그때도 수매를 해신가마씨.(예. 저기 그렇게 하면은 그걸 해서 오면은 그때도 수매를 했는가요.)

103011 #1 아니, 아니. 그때는 순전이 농사용으로 헤여근에.(아니, 아니. 그때는 순전히 농사용으로 해서.)

103011 @ 이녀 먹을 거예. 양식예.(이녀 먹을 거요 양식요.)

103011 #1 예. 그때는 몰ㄱ레 몰방아, 몰 잇는 사름은 연자방압주. 연자방아 연자방아 돌릴 적에 사름 힘으로도 돌리곡 쉼 잇는 사름은 저 서로 수눌어 갓고, 혼 네 사름이나 세 사름이나 다섯 사름이나 돼야 몰방아를 돌려서마씨.(예. 그때는 연자마 연자마, 말 잇는 사름은 연자방아지요. 연자방아 연자방아 돌릴 적에 사름 힘으로도 돌리고 소 없는 사름은 저 서로 품앗이해 가지고, 한 네 사름이나 세 사름이나 다섯 사름이나 돼야 연자마를 돌렸어요.)



103011 @ 예.(예.)

103011 #1 경흥디 쉼은 흥 사름만 저 쉼 흥나로 사름 뒤에서만 쉼 체쩍질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시리 허면 쉼나서.(그런데 소는 한 사람만 저 소 하나로 사람 뒤에서만 소 채쩍질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면 됐어.)

103011 @ 예.(예.)

103011 #1 그래서 그 물방아에서 보리도 찌어먹고 또.(그래서 그 연자매에서 보리도 찌어먹고 또.)

103011 @ 예. 그 보리나 조허게 뉘민 여기는 그 메뚜기 와근예예.(예. 그 보리나 조하게 되면 여기는 그 메뚜기 와서요.)

103014 #1 예. 메뚜기는 이제 으물이 반 으물 끝 때 반 으물 끝 땐 메뚜기가 그 즈연 적으로 생겨서마씨, 그때는.(예. 메뚜기는 이제 여물이 반 여물 끝 때 반 여물 끝 땐 메뚜기가 그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때는.)

103014 @ 게민 어떤 식으로 생기코 메칠 사이에 그냥 썩 생겨서.(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길까 며칠 사이에 그냥 썩 생겨서.)

103014 #1 예. 메칠 스이에 메뚜기가 생겨근에 저 그 조 코고리를 갈아 먹어서마씨.(예. 며칠 사이에 메뚜기가 생겨서 저 그 조 이삭을 갈아 먹었어요.)

103014 @ 예. 메뚜기 날아난 거 기억납니까?(예. 메뚜기 날았던 거 기억납니까?)

103014 #1 예예. 우리 학교 간 올 땐.(예예. 우리 학교 갔다 올 땐.)

103014 @ 예.(예.)

103014 #1 메뚜기 잡앙 막 썰에 꿰여.(메뚜기 잡아서 마구 실에 꿰서.)

103014 @ 예.(예.)

103014 #1 이만씩 꿰명 또 집어서 독을 흥두 므리씩 길릅주게.(이만씩 꿰면서 또 집에서 닭을 한두 마리씩 기르지요.)

103014 @ 예.(예.)

103014 #1 주곡 이렇게 흥곡 위낙 메뚜기가 어떤 때 갑자기 시면은예. 심지어는 물축곳<sup>109)</sup>이엔 헤근예.(주고 이렇게 하고 위낙 메뚜기가 어떤 때 갑자기 있으면요, 심지어는 ‘말축곳’이라고 해서.)

103014 @ 예. 물축곳.(예. ‘말축곳.’)

103014 #1 이 저 우리 당에 당에 가근에 심방 데려가근에 곳을 헤여마썸.(이 저 우리 당에 당에 가서 무당 데려가서 곳을 해요.)

103014 @ 예.(예.)

103014 #1 물축 돌아날, 돌아나썸센, 경 허민 그 자 심방 저 수심방흥곡 또 아래 심방흥고 ㄴ썸 그 썸 농장에 가근에, 골목으로 텅기면 물뚜기 돌아나가렌 휘어휘어<sup>110)</sup> 허명 막 달리명 이렇게 해났어.(메뚜기 달아날, 달아나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저 무당 저 수무당하고 또 아래 무당하고 같이 그저 농장에 가서, 골목으로 다니며 메뚜기 달아

109) ‘말축곳’은 우도읍 마을의 민간신앙의례인 백중제이다.

110) ‘휘어휘어’는 제보자가 메뚜기를 날리며 내는 소리이다.

나가라고 ‘휘어휘어’ 하면서 마구 달리면서 이렇게 했어.)

103014 @ 계민 막 무시거 두들기명.(그러면 마구 무엇 두드리면서.)

103014 #1 예. 우리 어릴 때.(예. 우리 어릴 때.)

103014 @ 예. 어릴 적에는예. 몰축굿예. 경 허곡 말축들이 막 같이 그냥 확 날아가곡 확 날아오곡 할 때는 막.(예. 어릴 적에는요. ‘몰축굿’요. 그렇게 하고 메뚜기들이 마구 같이 그냥 확 날아가고 확 날아오고 할 때는 마구.)

103014 #1 그렇게 심하게 심하게 놀았던 건 우리 안 봐서. 여기는 심하게 안하고 그 자.(그렇게 심하게 심하게 날았던 것은 우리 안 봤어. 여기는 심하게 앓고 그저.)

103014 @ 무리지언에 달리는 건 안 봐예.(무리지어서 달리는 건 안 봤어요.)

103014 #1 예 여간 몰축 그자 조 코고리 부엌텐 해근에 좀 피해 감젠 해근에 지금 경 워낙 쪼끔 심해가민 헐는디 막 무더기로 놀아다니는 건 안 판마씨.(예 여간 메뚜기 그저 조 이삭 붙었다고 해서 좀 피해 간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워낙 쪼끔 심해가면 했는데 마구 무더기로 놀아다니는 건 안 봤어요.)

103014 @ 지금 비료 있고 기계 있고 헌 거 빼예. 이거를 현대 세상 빼고 옛날 세상에는 밭일에는 밭 갈고.(지금 비료 있고 기계 있고 한 거 빼요, 이거를 현대 세상 빼고 옛날 세상에는 밭일에는 밭 갈고.)

103014 #1 그 후에 육십년 대까지는 예 이제 몰방아 허다가.(그 후에 육십년 대까지는 예 이제 연자매 하다가.)

103014 @ 예.(예.)

103014 #1 예, 육십 년대 이후부터는 정미소기계로, 보리를 갈기 시작하는 거라 조도.(예, 육십 년대 이후부터는 정미소기계로, 보리를 갈기 시작하는 거야 조도.)

103014 @ 계난에 예. 기계가 나오기 전.(그러니까 예. 기계가 나오기 전.)

103014 #1 예. 기계 나오기 전에.(예. 기계 나오기 전에.)

103014 @ 기계 나온 이후는 뭐 이미 다 뭐 똑 ㄴ뜨니까예.(기계 나온 이후는 뭐 이미 다 뭐 똑 같으니까요.)

103014 #1 예예.(예예.)

103014 @ 그 나오기 전에 일을 만약에 생각헌텐 허민.(그 나오기 전에 일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103014 #1 예.(예.)

## 조농사

103016 @ 그 한 멧 가지로 헌텐 허민 어떻 허쿠과? 밭을 갈고 준비허젠 허민예.(그 한 멧 가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을 갈고 준비하려고 하면요.)

103016 #1 처음에는 이제 조를 갈젠 허민.(처음에는 이제 조를 갈려고 하면.)

103016 @ 예.(예.)

103016 #1 조를 갈젠 허면. 조 갈젠 허면은 밭을 벌엄주마씨. 일차로 밭을 갈아마씨.

(조를 갈려고 하면. 조 갈려고 하면 밭을 벌었지요. 일차로 밭을 갈아요.)

103016 @ 예.(예.)

103016 #1 보리그리에.(보리그루에.)

103016 @ 예.(예.)

103017 #1 보리 그 저 그르 썩으라고, 일 차 밭을 갈아 놓고.(보리 그 저 그루 썩으라고, 일 차 밭을 갈아 놓고.)

103017 @ 예.(예.)

103017 #1 다음에는 썩을 만하면 흔 이주일이나 흔 이십일이나 되면, 이젠조를 갈기 시작해마씨.(다음에는 썩을 만하면 한 이주일이나 한 이십일이나 되면, 이제는조를 갈기 시작해요.)

103017 @ 예.(예.)

103018 #1 게민 이제 그때는 보통으로 이 저 음력으로 예 칠월 칠일이 이제 소서니까 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름 밭 가름 밭은 소서 넘어근에 흔 삼일까지 돼야허곡 또 이제 난전밭<sup>111)</sup> 난전밭은 가름에서 벗어난 밭.(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통으로 이 저 음력으로 예 칠월 칠일이 이제 소서니까 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동네 밭 동네 밭은 소서 넘어서 한 삼일까지 되어야하고 또 이제 ‘난전밭’ ‘난전밭’은 동네에서 벗어난 밭.)

103018 @ 예.(예.)

103018 #1 이제 가름에서 벗어난 밭, 가름에서 벗어난 밭은 난전밭이엔 협주 이제, 가름에서 지금 한 일 키로 이상 떨어진 밭덜 이런 덜, 난전 밭이엔 해기네 그 밭덜은 또에 소서보다 흔 일주일 먼저 허여마씨.(이제 동네에서 벗어난 밭, 동네에서 벗어난 밭은 ‘난전밭’이라고 함쵸 이제, 동네에서 지금 한 일 킬로 이상 떨어진 밭들 이런 데를, ‘난전밭’이라고 해서 그 밭들은 또 소서보다 한 일주일 먼저 해요.)

103018 @ 예.(예.)

103018 #1 이제 예. 자라나는 디도 허끔 지장이 잇고 이렇게 허니까.(이제 예. 자라나는 데도 조금 지장이 잇고 이렇게 하니까.)

103018 @ 예. 먼저 갈앙예.(예. 먼저 갈아서요.)

103018 #1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허곡 또 물 앓인 물 앓는 밭덜이 잇어마씨.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움팍 파진 밭덜은 게문 또 저 두벌 농사도 허여마씨.(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물 앓은 물 앓는 밭들이 있어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움팍 파진 밭들은 그러면 또 저 두벌 농사도 해요.)

103018 @ 예.(예.)

103018 #1 두벌 건 저 물 앓아나민 조가 안 납주마씨, 썩어버령.(두벌 그것은 저 물 앓아나면 조가 안 나지요, 썩어버려서.)

103018 @ 예.(예.)

103018 #1 안 나면 도로 이제 두벌 갈기도 허곡 세불까지도 헤여, 세불 차는 머 췌시령으로 강 안 나는 부분만 췌시령으로 글그명 씨 뿌령은에 또 밭을 세울라고 이렇게 허

111) ‘난전’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이다.

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내 자꾸 흐는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조농사를 하면은.(안 나면 도로 이제 두벌 갈기도 하고 세벌까지도 해, 세벌 짚는 뭐 쇠스랑으로 가서 안 나는 부분만 쇠스랑으로 긁으면서 씨 뿌려서 또 밭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내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조농사를 하면은.)

103021 #1 그 다음은 한 일주일만 해가면 딱시 저 조가 나기 시작 허거든마씨.(그 다음은 한 일주일만 해가면 다시 저 조가 나기 시작 하거든요.)

103021 @ 예.(예.)

103021 #1 한 나면은 세 입 두 입 저 세 입 네 입이 돼가는 거라. 그때는 초불검질이 엔 초불 검질 메는 거라.(한 나면은 세 입 두 입 저 세 입 네 입이 돼가는 거야. 그때는 초벌김이라고 초벌 김매는 거야.)

103021 @ 음.(음.)

103021 #1 그때는 정식으로, 약 한 삼 센치에 하나씩을 조를 세워주는 거라. 처음에는 무더기로 막 좇게 뿌려줬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일련에 그저 간격을 두면서 이 저 숨아주곡 또 이 저 검질 뽑아주곡 그렇게 하다가 두 불가면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 되니까 또 이제 또 또 하나씩 더 뽑아주는 거라마씨.(그때는 정식으로, 약 한 삼 센치에 하나씩을 조를 세워주는 거야. 처음에는 무더기로 막 좇게 뿌려줬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일련에 그저 간격을 두면서 이 저 숨아주고 또 이 저 김 뽑아주고 그렇게 하다가 두벌 가면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 되니까 또 이제 또 또 하나씩 더 뽑아주는 거예요.)

103021 @ 예.(예.)

103021 #1 이제 그렇게 세벌 차는 이제 뽑지는 아녀마씨 이제는 검질이 하나씩 잇거든마씨 그 검질을 이제 메어줘근에 해야 이제 조팠디 검질 잇어근에 조가 잘 뒀덴 해연 세 불까지 메는 디가 잇었수다.(이제 그렇게 세벌 짚는 이제 뽑지는 않아요. 이제는 김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김을 이제 매어주어서 해야 이제 조밭에 김이 없어서 조가 잘 된다고 해서 세벌까지 매는 데가 있습니다.)

103021 @ 예. 메고 저기 좇은 디는 거 숨아주고.(예. 메고 저기 좇은 데는 거 숨아주고.)

103021 #1 숨아주고.(숨아주고.)

103021 @ 또 부족한 디는 더 저기 옮겨 심어주고예.(또 부족한 데는 더 저기 옮겨 심어주고요.)

103021 #1 예. 경 흐고 또 이제는 만약에 드문드문 안 난 디는.(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만약에 드문드문 안 난 데는.)

103021 @ 예.(예.)

103021 #1 또 비가 왕 좀 머헌 때는 메영 가근에.(또 비가 와서 좀 뒀한 때는 매어서 가서.)

103021 @ 예.(예.)

103021 #1 그 뒤에 거 좀 좇이니까 매어다근에 거 심어근에 ㄴ쁜 간격을 전부다 영터와주고 해낫수다, 지금.(그 뒤에 것 좀 좇으니까 매어다가 거 심어서 같은 간격을 전

부다 이렇게 떼어주고 했습니다, 지금.)

103021 @ 예. 경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그 다음은 거뒤흔일 건게예. 수확을.(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그 다음은 거뒤흔일 거네요 수확을.)

103021 #1 그 다음은 이제는 저 서불 검질때면은 이제는 한동안은.(그 다음은 이제는 저 세벌 김매면 이제는 한동안은.)

103021 @ 예.(예.)

103022 #1 이젠 고고리 나왕 여기서 곡식이 이젠 고고리가 나왕 고고리엔 협주, 여기서 선.(이젠 이삭 나와서 여기서 곡식이 이젠 이삭이 나와서 이삭이라고 하지요, 여기서선.)

103022 @ 예.(예.)

103022 #1 고고리가 나왕 그게 열매가 이젠 멍 땃기 시작해여마썸.(이삭이 나와서 그게 열매가 이젠 땃어, 땃기 시작해요.)

103022 @ 예.(예.)

103023 #1 열매 땃엉 이젠 여물이 들면 이젠 노랗게 익어가마썸.(열매 땃어서 이젠 여물이 들면 이젠 노랗게 익어가요.)

103023 @ 예.(예.)

103024 #1 그 머 흰허게 알아집주마썸 이 그 열매 이 정도면은 수확을 해야 땃겠다는 걸 알면 그때는 비여근에, 비여근에 이젠 어느 정도 쪼끔 몰르면 이제는 고고리를 툷는 거라마썸.(그 머 흰허게 알아지지요. 이 그 열매 이 정도면 수확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면 그때는 베어서, 베어서 이젠 어느 정도 쪼끔 마르면 이제는 이삭을 뜯는 거예요.)

103024 @ 예.(예.)

103024 #1 툷아근에 멍탱이에 담아근에 집이 왕 마당에 놔근에 이젠 도리께로 두들여, 겐 이제 그걸 브람에 이젠 불려마썸.(뜯어서 망태기에 담아서 집에 와서 마당에 놓아서 이젠 도리께로 두들겨, 그래서 이제 그걸 바람에 이제는 불려요.)

103024 @ 예.(예.)

103024 #1 불리면 체는, 알맹이만 저 알맹이만 거기 나오곡 쪼끔 껍질 엇는 거나 껍덕 ㄱ뜯는 거는 다 놀아나 볍주마썸 이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이젠 물방에 가근에 찍어근에 이제 먹곡 이렇게 헤나십주.(불리면 체는, 알맹이는 저 알맹이만 거기 나오고 쪼끔 껍질 엇는 거나 껍데기 같은 거는 다 날아나 버리지요 이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이젠 연자매에 가서 찢어서 이제 먹고 이렇게 했지요.)

103024 @ 예. 경 행예. 수확해근에. 조 코고리는 밧디서 툷아수파?(예. 그렇게 해서요 수확해서. 조 이삭은 밧에서 뜯었습니까?)

103024 #1 밧디서 툷아수다. 집이 왕 안 툷다근에, 흙치 다 지어와마썸. 마당에 놔근에 도리께로 이제 터는 거라.(밧에서 뜯었습니다. 집에 와서 안 뜯어서, 한꺼번에 다 지어와요. 마당에 놔서 도리께로 이제 터는 거야.)

103024 @ 조농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보리농사는 아까 말 잘.(조농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보리농사는 아까 말 잘.)

## 보리농사

103002 #1 보리농사도 이제 아까도 잘.(보리농사도 이제 아까도 잘.)

103002 @ 보리농사 짓젠 허면은 처음에 준비하는 거를 제일 큰 걸 몇 가지.(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처음에 준비하는 거를 제일 큰 걸 몇 가지.)

103002 #1 제일 준비하는 걸 우선 듬북을 해. 듬북 첫체로.(제일 준비하는 걸 우선 듬북을 해. 듬북 첫체로.)

103002 @ 걸름 준비하는 거예.(거름 준비하는 거요.)

103002 #1 듬북, 듬북 안 허면은 보릴 못 갈아 먹어십주. 맨땅엔 보릴 갈아 안돼여마썸. 보리 비료가 엇일 때난.(듬북, 듬북 안 허면은 보리를 못 갈아 먹었지요. 맨땅에는 보리를 갈아서 안 돼요. 보리 비료가 없을 때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옛날에는 육십 년대는 비료가 안 나올 때는 지금.(옛날에는 육십 년대는 비료가 안 나올 때는 지금.)

103002 @ 예. 게난 보리씨. 보리씨 종자허고.(예. 그러니까 보리씨. 보리씨 종자하고.)

103002 #1 예. 최종으로 씨 준비허고.(예. 최종으로 씨 준비하고.)

103002 @ 그 답에 밭가는 거.(그 다음에 밭가는 거.)

103002 #1 예예. 그 다음에 밭을 갈아.(예예. 그 다음에 밭을 갈아.)

103002 @ 가는 것도 소 췌로 갈곡.(가는 것도 소 소로 갈고.)

103002 #1 소 갈곡.(소 갈고.)

103002 @ 예. 소로예.(예. 소로요.)

103002 #1 소 잇는 사람 아니면은 보리 저 농사를 못해 먹었주마썸.(소 잇는 사람 아니면 보리 저 농사를 못해 먹었지요.)

103002 @ 예, 예. 소 해가지고예. 걸름은 또 듬북으로.(예, 예. 소 해가지고요. 거름은 또 듬북으로.)

103003 #1 예. 듬북 또 듬북도 허고 또 돛걸름.(예. 듬북반 또 듬북도 하고 또 돼지거름.)

103003 @ 아, 돛걸름 맞수다. 돛걸름.(아, 돼지거름 맞습니다. 돼지거름.)

103003 #1 돛걸름도 네어근에 이런 디 제영 낫당 집안에.(돼지거름도 내어서 이런 데 제겨 놓았다가 집안에.)

103003 @ 예예.(예예.)

103003 #1 이런 디 제영 낫다근에 좀 어느 정도 쪼끔 물량.(이런 데 제겨서 놓았다가 좀 어느 정도 쪼끔 말려서.)

103003 @ 예.(예.)

103003 #1 수분기 쪼끔 빼어근에 이젠 밭디 강 뿌려근에 거 지어 가근에 등짐으로 지어다근에 다 영 드멍드멍 낱 뿌려근에 다 ㄱ찌 섞어근에 뿌려근에 이젠.(수분기 쪼끔 빼어서 이젠 밭에 가서 뿌려서 거 지어 가서 등짐으로 지어다가 다 이렇게 뜨문뜨문 놔

서 뿌려서 다 같이 섞어서 뿌려서 이젠.)

103003 @ 걸름은 혼 해에 몇 번 내는고예.(거름은 한 해에 몇 번 내는가요.)

103003 #1 그때 뿐 입주. 그 건.(그때 뿐 입쥔. 그 건.)

103003 @ 혼 번 냅니까.(한 번 냅니까.)

103003 #1 예. 그거 뿌리면 비료 엇일 덕이는 것뿐이라마썸.(예. 그거 뿌리면 비료 없  
을 적에는 것뿐이어요.)

103003 @ 걸름을 돛걸름 내는 거.(거름을 돼지거름 내는 거.)

103003 #1 돛걸름 내는 건 일 년에 부자칩이 사름덜은예.(돼지거름 내는 건 일 년에  
부자집에 사름덜은요.)

103003 @ 예.(예.)

103003 #1 보리칩 ㄹ쁜 걸 저 돛통에 이제 돛통에 두 번 세 번 놓는 사름도 잇입니  
다게. 두 번씩 푸는 사름도 잇고 또 보릿짚 없는 사름은 보릿짚 예껴갓고 것도 돛통에  
혼 번 네왕 혼 번 내는 사름도 잇고,(보릿짚 같은 걸 저 돼지우리에 이제 돼지우리에 두  
번 세 번 놓는 사름도 있습니다. 두 번씩 푸는 사름도 잇고 또 보릿짚 없는 사름은 보  
릿짚 아껴가지고 것도 돼지우리에 한 번 내어서 한 번 내는 사름도 잇고.)

103003 @ 예.(예.)

103003 #1 도야지가 또 크면은 도세기가 큰 도세기 길루면, 거름을 많이 만듭주마썸.  
이제 많이 블루국마썸.(돼지가 또 크면 돼지가 큰 돼지 기르면, 거름을 많이 만드지요.  
이제 많이 밟고요.)

103003 @ 걸름을 낼 때는예. 돛통이 저 저기 집 옆에 잇일 거 아닛과예.(거름을 낼  
때는요 돼지우리가 저 저기 집 옆에 잇을 거 아닛니까요.)

103003 #1 집 안네 돛통이.(집 안에 돼지우리가.)

103003 @ 집 안에.(집 안에.)

103003 #1 잇입주.(잇지요.)

103003 @ 예. 그러면은 걸름은 밖으로 네칠 것.(예. 그러면은 거름은 밖으로 내칠  
것.)

103003 #1 아, 집 안네.(아, 집 안에.)

103003 @ 집 안에 마당에.(집 안에 마당에.)

103003 #1 집안에 어느 구석에 마당 어느 구석에.(집안에 어느 구석에 마당 어느 구  
석에.)

103003 @ 어느 구석에.(어느 구석에.)

103003 #1 예예.(예예.)

103003 @ 그 바로 저기 통시.(그 바로 저기 돼지우리.)

103003 #1 밧굿디ㄱ지는 멀고.(밖에까지는 멀고.)

103003 @ 예.(예.)

103003 #1 지치지 안읍니까게. 게 계난 집이 울 예염 이시면은 좀 너른 데.(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집이 울타리 옆에 있으면 좀 너른 데.)

103003 @ 예.(예.)

103003 #1 영 앞뒤론 말고 윽디로.(이렇게 앞뒤론 말고 옆으로.)

103003 @ 윽예.(옆예)

103003 #1 흐끔 윽으로 영 해근예.(조금 옆으로 이렇게 해서.)

103003 @ 해기네.(해서.)

103003 #1 그대로 쌓아둡주마씨.(그대로 쌓아두지요.)

103003 @ 예.(예.)

103003 #1 경 머 덮어두어근에 이제 비 안 들게시리.(그렇게 뭐 덮어두어서 이제 비 안 들게끔.)

103003 @ 비가 안 들게시리.(비가 안 들게끔.)

103003 #1 이제 덮어두기도 하고 경하고 듬북은 듬북은 이제 헤어 줌 바다에서 해조류를 캐어오면 거기서 팔려.(이제 덮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듬북은 듬북은 이제 해 줌 바다에서 해조류를 캐오면 거기서 팔려.)

103003 @ 예.(예.)

103003 #1 등짐 지어근에 이제 집 가까이 갖다놔근예.(등짐 지어서 이제 집 가까이 갖다놔서.)

103003 @ 예. 경 행.(예. 그렇게 해서.)

103003 #1 듬북 늘 늘어근예.(듬북 가리 가리어서.)

103003 @ 예.(예.)

103003 #1 저 늑람지<sup>112)</sup> 새로.(저 이영 띠로.)

103003 @ 예.(예.)

103003 #1 늑람지 만들야.(이영 만들어.)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1 경 그 우이 들르는 거라마씨 이제 우엔 주쟁이 주쟁이 저 가운데론 물 들어가지 못하게 주쟁이.(그렇게 그 위에 두르는 거예요 이제 위에는 주저리 주저리 저 가운데로는 물 들어가지 못하게 주저리.)

103003 @ 주쟁기 해가지고 놓고예.(주저리 해가지고 놓고요.)

103003 #1 저 더끄곡 해근에 게근에 흐 멧 개월 동안 보관헐다근에 때가 되면 늘 건너근에 그 듬북을 이젠 주워 담아 밧디 저 갑주.(저 덮고 해서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보관헐다가 때가 되면 가리 건너서 그 듬북을 이젠 주워 담아 밧에 지어 가지요.)

103003 @ 예.(예.)

103003 #1 나 옛날에 저 우리도 저 비양이엔 흐 디 간 살아났는디 춤 거 어디 할망 흐곡 이제 듬북 흐루 종일 저 중앙에 흐루 종일 지어가난 적이 잇수다. 나 열세 설 때. (나 옛날에 저 우리도 저 ‘비양’이라고 한 데 가서 살았는데 참 거 어디 할머니하고 이제 듬북 하루 종일 저 중앙에 하루 종일 지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 열세 살 때.)

103003 @ 아이고.(아이고.)

---

112) ‘늑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말한다.



103003 #1 저 인정상 또 엇어노니까 또 그 집이 강 밥이라도 얻어먹곡, 또 이제 그거 지어주면 딱시 보릿쫄 혼 말 조 혼 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게.(저 인정상 또 없으니까 또 그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또 이제 그거 지어주면 다시 보리쌀 한 말 조 한 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103003 @ 아.(아.)

103003 #1 품삯으로.(품삯으로.)

103003 @ 품삯으로예.(품삯으로.)

103004 @ 보리는예. 언제 누게가 어떻 갑니까? 이 동네는 보리는 보리 갈 때는 구월 저기, 씨 뿌리는 거.(보리는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이 동네는 보리는 보리 갈 때는 구월 저기, 씨 뿌리는 거.)

103004 #1 음력 음력 입동 들면.(음력 음력 입동 들면.)

103004 @ 예. 입동예.(예. 입동예.)

103004 #1 음력으로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조는 이제 소서를 기준으로 헥곡예.(음력으로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조는 이제 소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103004 @ 예.(예.)

103004 #1 보리는 입동을 기준으로 헝주마씨.(보리는 입동을 기준으로 하지요.)

103004 @ 예.(예.)

103004 #1 그렇게 해서 음력으로 보통 그자 시월 혼 스무날 음력 시월 스무날 보름으로부터 시월 스무날 그 사이에 이제 보리를 갈기 시작 헝주마씨.(그렇게 해서 음력으로 보통 그저 시월 한 스무날 음력 시월 스무날 보름으로부터 시월 스무날 그 사이에 이제 보리를 갈기 시작하지요.)

103004 @ 그 누게가 갈 저기 저기 갈코예?(그 누가 갈 저기 저기 갈까요?)

103004 #1 우리 저 여기 집집마다 다 남자덜이 잇지 안우파 남자덜.(우리 저 여기 집집마다 다 남자들이 잇지 않습니까 남자들.)

103004 @ 집집마다 남자덜이 허고예.(집집마다 남자들이 하고요.)

103004 #1 남자덜이 이시니까.(남자들이 있으니까.)

103004 @ 예. 보리 갈 때.(예. 보리 갈 때.)

103004 #1 그대로 보통 집집마다 다 남자 한 사람 정돈 다 잇엇주게.(그대로 보통 집집마다 다 남자 한 사람 정돈 다 있었지.)

103014 @ 예. 보리 허는 건 아까 듬북 깔아놓고.(예. 보리 하는 건 아까 듬북 깔아놓고.)

103014 #1 예.(예.)

103014 @ 그 다음 밧 깔아놓고.(그 다음 밭 깔아놓고.)

103014 #1 예.(예.)

103014 @ 그 다음 뿌리는 거는.(그 다음 뿌리는 거는.)

103014 #1 뿌리는 거는 딱시 남자가 뿌리든지.(뿌리는 거는 다시 남자가 뿌리든지.)

103014 @ 씨로 영 뿌령예.(씨로 이렇게 뿌려서요.)

103014 #1 보통 남자가 하영 뿌립주마씨.(보통 남자가 많이 뿌리지요.)

103014 @ 보리는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보리는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  
요.)

103014 #1 뿌리는 겁주 보리씨는.(뿌리는 거지요 보리씨는.)

103014 @ 보리씨는.(보리씨는.)

103014 #1 경허민 보리씨가 백 평에.(그러면 보리씨가 백 평에.)

103004 @ 예.(예.)

103004 #1 백오십 평에 흔 말지기라고 허십주. 백삼십 평 백오십 평.(백오십 평에 한  
마지기라고 하지요. 백삼십 평 백오십 평.)

103004 @ 백오십 평에 흔 말지기예.(백오십 평에 한 마지기요.)

103004 #1 예. 천 평이면 흔 일곱 말.(예. 천 평이면 한 일곱 말.)

103005 @ 멩텅이 낱 옆에 놔근예.(망태기 놔서 옆에 놔서.)

103005 #1 예.(예.)

103005 @ 멩텅이에 씨를 놔근예.(망태기에 씨를 넣어서.)

103005 #1 예. 멩텅이에 낱 가근예.(예. 망태기 넣어서 가서.)

103005 @ 예.(예.)

103005 #1 그디 밧디 지영 강 즈그마헌 그릇에 즈그마헌 그릇에.(거기 밧에 지어 가  
서 조그마한 그릇에 조그마한 그릇에.)

103005 @ 쪼그마헌 그릇이 어떤 거.(쪼그마한 그릇이 어떤 거.)

103005 #1 조그마헌 씨 그릇 옛날에 멩텅이라헌 그릇도 잇어낫수다.(조그마한 씨 그  
릇 옛날에 망태기라한 그릇도 있었습니다.)

103005 @ 예. 멩텅이.(예. 망태기에.)

103005 #1 씨 뿌리는 그릇도 잇어낫어 씨 담양에 뿌리는 그릇도 잇고.(씨 뿌리는 그  
릇도 있어 씨 담아서 뿌리는 그릇도 잇고.)

103005 @ 씨멩텅이.(씨망태기.)

103005 #1 예.(예.)

103005 @ 예.(예.)

103005 #1 그건 그런 건 갓춘 사름덜토 잇고, 또 간난허고 또 머헌 사름은 못 가진  
사름도 잇고.(그건 그런 건 갓춘 사람들도 잇고, 또 간난하고 또 뭐한 사름은 못 가진  
사름도 잇고.)

103005 @ 예. 게민 그거 잇인 사름은, 그걸로 행 저 어깨에 메고 엇인 사름은.(예. 그  
러면 그거 잇는 사름은, 그걸로 해서 저 어깨에 매고 엇는 사름은.)

103005 #1 예. 겐디 차룽도 잇고야 차룽. 그걸로 행.(예. 그런데 채룽도 잇고요 채룽.  
그걸로 해서.)

103005 @ 예.(예.)

103005 #1 예. 차룽도 잇고.(예. 채룽도 잇고.)

103005 @ 예. 차룽도 잇고.(예. 채룽도 잇고.)

103005 #1 예. 또 바구리 바구니도 있고, 저 머냐 허면 바구니는 머냐면 구덕을 짜거 든마썸.(예. 또 바구니 바구니도 있고, 저 뭐냐 하면 바구니는 뭐냐 하면 바구니를 짜거 든요.)

103005 @ 예.(예.)

103005 #1 저 옷드르<sup>113)</sup>ㄴ든 디서는 구덕을 짜근에 이기 폴레 와마썸. 우리는 대가 없기 때문에 저기 옷드르 대가 많거든마썸.(저 ‘옷드르’같은 데서는 바구니를 짜서 여기 팔러 와요. 우리는 대가 없기 때문에 저기 ‘옷드르’는 대가 많거든요.)

103005 @ 예.(예.)

103005 #1 대를 해근에 구덕을 짜근에 여기에 오면은 우리가 사는 거라. 상 어느 정도 씨당 중고품이 되면 이젠 형겅을 불라 형겅, 이런 형겅을 불라근에 풀 썬근에 불황 브름구덕<sup>114)</sup>을 멩그는 거라 브름구덕예.(대를 해서 바구니를 짜서 여기에 오면 우리가 사는 거야. 사서 어느 정도 쓰다가 중고품이 되면 이젠 형겅을 발라 형겅, 이런 형겅을 발라서 풀 썬서 발라서 ‘브름구덕’을 만드는 거야 ‘브름구덕’요.)

103005 @ 예.(예.)

103005 #1 그 브름구덕에 이제 그 쌀을 놓기 시작하는 거라 보리쌀이든지 좁쌀이든지 그 브름구덕이 이젠.(그 ‘브름구덕’에 이제 그 쌀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보리쌀이든지 좁쌀이든지 그 ‘브름구덕’이 이젠.)

103005 @ 예.(예.)

103005 #1 그릇이 되는 겹주 브름구덕 하나 만들면은 혼 십 년 이상 씹주게.(그릇이 되는 겹쥬 ‘브름구덕’ 하나 만들면은 한 십년 이상 쓰지요.)

103005 @ 예예.(예예.)

103005 #1 지금.(지금.)

103005 @ 예. 그거 해가지고 옆구리에 놔근에양.(예. 그거 해가지고 옆구리에 놔서 요.)

103005 #1 예. 브름구덕에 씨 놔기네 뿌리기 시작헉주게.(예. ‘브름구덕’에 씨 넣어서 뿌리기 시작하지요.)

103005 @ 앞으로 옆으로 영 가면서예.(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요.)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인가마썸.(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103006 #1 게난 솔보리가 잇꼭 겉보리가 잇어 솔보리가 잇고 겉보리가 잇이난.(그러니까 쌀보리가 있고 겉보리가 잇어 쌀보리가 잇고 겉보리가 잇으니까.)

103006 @ 솔보리 솔오리엔 헉니까?(‘솔보리’ ‘솔오리’라고 헉니까?)

103006 #1 솔보리는 저 꺾데기 없는 보리.(쌀보리는 저 꺾데기 없는 보리.)

103006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3006 #1 건 솔보리엔 허고.(건 쌀보리라고 하고.)

103006 @ 솔보리엔 헉니까 솔우리엔 헉니까?(‘솔보리’라고 헉니까 ‘솔우리’라고 헉니

113)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이다.

114) ‘브름구덕’은 풀을 바른 바구니이다.

까?)

103006 #1 솔보리 솔보리.(쌀보리 쌀보리.)

103006 @ 솔보리엔 험니까?('솔보리'라고 합니까?)

103006 #1 예. 솔 잇는 보리.(예. 쌀 잇는 보리.)

103006 @ 아.(아.)

103006 #1 껍데기가 없는 보리.(껍데기가 없는 보리.)

103006 @ 솔보리엔 험니까?('솔보리'라고 합니까?)

103006 #1 예. 껍데기 또 주녕이보리.(예. 껍데기 또 두줄보리.)

103006 @ 주녕이보리.(두줄보리.)

103006 #1 주녕이 보리는 머냐면 지금 맥주보리 이제 가는 맥주보리.(지네 보리는 뭐냐면 지금 맥주보리 이제 가는 맥주보리.)

103006 @ 예. 보통 두 가지마씨.(예. 보통 두 가지요.)

103006 #1 예. 게난 맥주보리 말곡 주녕이보리도 잘 웬덴 햅여근에, 근디 그게 몰궤랑에 골젠 햅민 까다로와, 껍질이 이 저 뚜꺼우니까.(예. 그러니까 맥주보리 말고 두줄보리도 잘 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연자매에 갈려고 하면 까다로워, 껍질이 이 저 두꺼우니까.)

103006 @ 에예.(에예.)

103006 #1 솔보리는 좀 햅민.(쌀보리는 좀 햅민.)

103006 @ 햅민만 햅민.(햅민만 햅민.)

103006 #1 얼마 아니 갈아도, 또 껍질이 베껴져근에 쉬웁는디, 그렇게 해도 가끔 그 겉보리 저 주녕이보리만 가는 사람도 있어낫수다.(얼마 안 갈아도, 또 껍질이 벗겨져서 쉬웁는데, 그렇게 해도 가끔 그 겉보리 저 두줄보리만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3006 @ 응. 보리밭 밟으는 거 밟아줘사 햅지예.(응. 보리밭 밟는 거 밟아줘야 햅지요.)

103007 #1 찝끔은 밟아 줌은 불아줌은 햅주. 밟아줌은.(조끔은 밟아주기는 밟아주기는 햅쥬. 밟아주기는.)

103007 @ 아 안 밟음 밟지 안 햅기도 햅니까.(아 안 밟기도 밟지 않기도 햅니까.)

103007 #1 아, 씨 낱 정도는 갈면 감좌집주마씨. 경 해도 찝끔씩은 다니명 씨 보이져 보이는 건 좀 밟아주곡 햅주마씨.(아, 씨 낱 정도는 갈면 감추어져요. 그렇게 해도 조끔씩은 다니면서 씨 보이져 보이는 건 좀 밟아주고 햅지요.)

103007 @ 아, 말 놔기네 밟으거나.(아, 말 넣어서 밟거나.)

103007 #1 몰 햅는 건 저 머 햅 떡에 조 갈 떡에, 조 조 조농사 햅 떡에는 몰로나 쉼로나 불려줘수다.(말 햅는 건 저 뭐 햅 적에 조 갈 적에, 조 조 조농사 햅 적에는 말로나 소로나 밟아줬습니다.)

103007 @ 예. 경 햅디 그러면은 보리 햅 때는 막 저기 떠근에 막 밟아줘사 햅덴 햅는디.(예. 그런데 그러면은 보리 햅 때는 마구 저기 떠서 마구 밟아줘야 햅다고 햅는디.)

103007 #1 그 대신 그거 햅낱 새봄 나민, 이제 새봄 나민은 햅을 밟아줘수다.(그 대

신 그거 해놔서 새봄 되면, 이제 새봄 되면 밭을 밟아줬습니다.)

103007 @ 예.(예.)

103007 #1 왜냐하면 겨울에 춥거든마씨. 이제 곳넌 헝주 곳아불민 땅이 부꺼불민 그 뿌리가, 잘 부착이 땅에 안 돼영 몰라 죽어부는 수가 있어.(왜냐하면 겨울에 춥거든요. 이제 곱는다고 함쵸 곱아버리면 땅이 솟아올라버리면 그 뿌리가, 잘 부착이 땅에 안 되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103007 @ 예.(예.)

103007 #1 게민 몰라 죽지 안 허게시리 볏아놔수다.(그러면 말라 죽지 않게끔 밟았습니다.)

103007 @ 게민 그 보리밭을 다 볏아사 될 거 아니웃과.(그러면 그 보리밭을 다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3007 #1 게메 그 해에.(글쎄 그 해에.)

103007 @ 예.(예.)

103007 #1 막 추운 해가 있어. 추운 해가 덜 추운 해가 있고, 또 볏는 사람 있고 아니 볏는 사람 있어.(마구 추운 해가 있어. 추운 해가 덜 추운 해가 있고, 또 밟는 사람 있고 아니 밟는 사람 있어.)

103007 @ 아.(아.)

103007 #1 지금 게난 이제.(지금 그러니까 이제.)

103007 @ 볏는 사람 있고 안 볏는 사람 있어?(밟는 사람 있고 안 밟는 사람 있어?)

103007 #1 게난 우리 초등학교 때 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보리 볏아줄 디 있거들랑 볏아주렌 동네 반장한테 곶아.(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보리 밟아줄 데 있거들랑 밟아주라고 동네 반장한테 말해.)

103007 @ 예.(예.)

103007 #1 게 반장은 또 동네 사람덜한테 보리 볏을 사람 잇이넌 허면은 우린 밭 볏아드렌 볏아쥬.(그래서 반장은 또 동네 사람들한테 보리 밟을 사람 있느냐 하면은 우린 밭 밟아달라고 밟아줬어.)

103007 @ 예.(예.)

103007 #1 아 으 집이 할망, 강 이제 나 이학년 땡가 일학년 때, 밭 볏으노렌 흥난 그 할망이 저, 감저 떡 감저 물린 거 그때는 저 그걸 곶아근에 ㄹ루로 만들앗수다.(아 요 집에 할머니, 가서 이제 나 이학년 땡가 일학년 때, 밭 밟느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 저, 고구마 떡 고구마 말린 거 그때는 저 그걸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103007 @ 예.(예.)

103007 #1 감저도 몰령, 경 그것도 시리에 천, 완에 막 우리 시리에 네명 먹으멍 헤 낫수다게 지금.(고구마도 말려서, 그렇게 그것도 시루에 찌서, 와서 마구 우리 시루에 내면서 먹으면서 했습니다 지금.)

103007 @ 아, 감저 시리떡예.(아, 고구마 시루떡요.)

103007 #1 예. 우리 일학년 때예. 지금 저 천구백스십육년도 칠년도ㄱ지만도 흥드라

도 그렇게까지 고구마 떡을 먹어났수다.(예. 우리 일학년 때요. 지금 저 친구백사십육년도 칠년도까지만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고구마 떡을 먹었었습니다.)

103008 @ 보리밭매기에. 밭 보리밭을 저기 그 검질멜 때는예.(보리밭매기요 밭 보리밭을 저기 그 검멜 때는요.)

103008 #1 예.(예.)

103008 @ 몇 번 매킄예?(몇 번 맬까요?)

103008 #1 보리밭은 혼번만 매면 돼여마씨.(보리밭은 한번만 매면 돼요.)

103008 @ 혼번 만예.(한번 만요.)

103009 @ 보리밭디 검질은 대충 여기서는 보통 어떤 검질들이 납니까 보리밭디 검질 난 것은.(보리밭에 김은 대충 여기서는 보통 어떤 김들이 납니까 보리밭에 김 난 것은.)

103009 #1 보리밭디 ㄹ뜬디에서는 글썄 보리 ㄹ뜬 사시레기 사시레기엔도 허고.(보리밭에 같은 데에서는 글썄 보리 같은 사초 사초고도 하고.)

103009 @ 사시레기.(사초.)

103009 #1 예.(예.)

103009 @ 또.(또.)

103009 #1 제완지 제완지는 안 나 나실 꺼라. 제완지는 조코리 조밧디 나고.(바랭이 바랭이는 안 나 났을 거야. 바랭이는 조이삭 조밭에 나고.)

103009 @ 응.(응.)

103009 #1 예. 이제 또 해바라기<sup>115)</sup> 해바라기도 조밧디 조밧디 나 나고.(예. 이제 또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조밭에 조밭에 나 나고.)

103009 @ 해바라기 꽃을.(‘해바라기’ 꽃을.)

103009 #1 예. 해바라기 그 개해바라기라고 야 지금 우리 꽃피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또 여기 토종 해바라기가 잇수다.(예. ‘해바라기’ 그 ‘개해바라기’라고 야 지금 우리 꽃피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또 여기 토종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103009 @ 아, 해바라기, 크기는 어느 정도 험니까.(아, ‘해바라기’, 크기는 어느 정도 험니까.)

103009 #1 크기는 ㄴ 정도까지 안 돼여마씨.(크기는 ㄴ 정도까지 안 돼요.)

103009 @ 아, 사름 준둥이까지 올라오는구나예.(아, 사름 잔둥이까지 올라오는군요.)

103009 #1 예. 이렇게 가지 치어근에 가지가 많읍니다. 가지가 혼 스무 개.(예. 이렇게 가지 쳐서 가지가 많읍니다. 가지가 한 스무 개.)

103009 @ 그 개해바라기에.(그 ‘개해바라기’요.)

103009 #1 예예. 개해바라기는 지금 뿌리가 상당히 지프게 들어가곡 우리 지금 나 이 땅콩밧디 강보민 해바라기가 많이 나잇수다. 나가 지금 더워부난에 그거 못 멩 잇수다 게.(예예. 그럼 ‘해바라기’는 지금 뿌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우리 지금 나 이 땅콩밭에 가서보면 ‘해바라기’가 많이 났읍니다. 나가 지금 더워버리니까 그거 못 매어 있습니다.)

---

115) ‘해바라기’는 제보자가 잡초 이름을 말하는 제주어다.

103009 @ 개해바라기예. 그리고 또.(‘개해바라기’요, 그리고 또.)

103009 #1 또 물풀이<sup>116)</sup>엔도 허고예. 게난 그 보리밧디는 물풀이엔 혼 거 많이 나낫수다.(또 ‘물풀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보리밭에는 ‘물풀이’라고 한 거 많이 낫았습시다.)

103009 @ 물풀이.(‘물풀이’.)

103009 #1 예. 그거 이제 많이 나나고.(예. 그거 이제 많이 낫았고.)

103009 @ 사시레기 개해바라기 물풀이.(사초 ‘개해바라기’ ‘물풀이’.)

103010 @ 보리수확은 베는 거허고 무끄는 거.(보리수확은 베는 것하고 묶는 거.)

103010 #1 예.(예.)

103010 @ 무끄는 건 어느 정도 무끄는 거.(묶는 건 어느 정도 묶는 거.)

103010 #1 예. 어느 정도 무경. 경 해근에 그걸 지게에 지어근에.(예. 어느 정도 묶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지게에 지어서.)

103010 @ 예. 그 베는 거는 이 호미로.(예. 그 베는 거는 이 낫으로.)

103010 #1 예. 호미로.(예. 낫으로.)

103010 @ 호미로 베어근에.(낫으로 베어서.)

103010 #1 호미로 베어근에 즈근즈근 이러 늘어 늘어놓는 거라마쌌.(낫으로 베어서 차근차근 일어 늘어 늘어놓는 거예요.)

103010 @ 예.(예.)

103010 #1 이젠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이젠 어느 정도 마를 정도로.)

103010 @ 예예.(예예.)

103010 #1 경 멧칠씩 들류면은 무경 이젠 그전에도 안 들류면 지어 올라면 무겁주마씨 이제.(그렇게 며칠씩 말리면 묶어서 이젠 그전에도 안 말리면 지어 오려면 무겁지요 이제.)

103010 @ 예.(예.)

103010 #1 그래서 어느 정도 들리면 다 무끄는 거라마씨 무경.(그래서 어느 정도 말리면 다 묶는 거예요 묶어서.)

103010 @ 무꿀 때는 엇 어느 정도 낱 무릅니까?(묶을 때는 어 어느 정도 봐서 묶습니까?)

103010 #1 이 이정도로 무껴야 됩시다. 이 정도.(이 이정도로 묶어야 됩시다. 이 정도.)

103010 @ 예. 이 정도 무경예.(예. 이 정도 묶어서요.)

103010 #1 저 보리짚이 하나로 보리짚을 서로 겹쳐.(저 보릿짚이 하나로 보릿짚을 서로 겹쳐.)

103010 @ 예. 보리짚으로예.(예. 보릿짚으로요.)

103010 #1 머리와 머리끼리.(머리와 머리끼리.)

103010 @ 예예.(예예.)

---

116) ‘물풀이’는 제보자가 잡초 이름을 말하는 제주어다.

103010 #1 겹쳐 돌려근에 경 무끄는 거라마썬.(겹쳐서 돌려서 경 묶는 거예요.)

103010 @ 무꺼근에예.(묶어서요.)

103010 #1 춤 지게지민 많이 지는 사람은 쓰무못ㄱ지도 우리 지어낫수다. 쓰무 못ㄱ지.(참 지게지면 많이 지는 사람은 스무 못까지도 우리 지었습니다. 스무 못까지.)

103010 @ 보리는 못이엔 험니까.(보리는 못이라고 험니까.)

103010 #1 예. 스무 못.(예. 스무 못.)

103010 @ 아.(아.)

103010 #1 혼 못 두 못 해근에예. 스무 못 스무 못ㄱ지도 지어근에 춤 이제 지게, 지겟가달로 영 혼면 세 세 개씩 놔집네다. 혼나 둘 세 개 낳 그걸 혼 일곱 단계ㄱ지는 놔저, 일곱 단계ㄱ지.(한 못 두 못 해서요. 스무 못 스무 못까지도 지어서 참 이제 지게, 지게다리로 이렇게 하면 세 세 개씩 놓아집니다. 하나 둘 세 개 놔서 그걸 한 일곱 단계까지는 놓지, 일곱 단계까지.)

103010 @ 예.(예.)

103010 #1 경 오면은 이제 떨어지지 않게 배 줄을 뒤로 메영 막 땡겨근에 여기에 걸리는 거라마썬. 경 해도 이제 지영 와 가면은 워낙 무꺼노니까 움직이지 움직영 떨어지지 안읍주마썬게.(그렇게 오면 이제 떨어지지 않게 참바 줄을 뒤로 매서 마구 당겨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제 지어서 와 가면 워낙 묶었으니 움직이지 움직여서 떨어지지 않지요.)

103010 @ 예.(예.)

103010 #1 게 경ㄱ지 행 오고 또 그러지 않은 여자들은 배로.(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오고 또 그러지 않은 여자들은 참바로.)

103010 @ 예.(예.)

103010 #1 배로도 지영 읍니다 배로.(배로도 지어서 읍니다 참바로.)

103010 @ 배로 지고.(참바로 지고.)

103010 #1 예. 배 배 영 해근에 놓아근에 거지 해근에 열 못 정도는 놓아근에 배에 무꺼근에 지어오기도 하고.(예. 참바 참바 이렇게 해서 놓아서 거의 해서 열 못 정도는 놓아서 참바에 묶어서 지어오기도 하고.)

103010 @ 지어 오고예. 경 혼곡예.(지어 오고요. 그렇게 하고요.)

103011 @ 타작은 보리는 타작할 땐 어떻 헛수과.(타작은 보리는 타작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3011 #1 테작할 때는 집이 와근에.(타작할 때는 집에 와서.)

103011 @ 예.(예.)

103011 #1 아까 안 곶아, 집이 와근에, 이제는 늘어놓는 거라 첫채는.(아까 안 말해, 집에 와서, 이제는 가리어놓는 거야 첫째는.)

103011 @ 예.(예.)

103011 #1 우선은 비가 오면은 문제가 돼니까. 늘어놨다가 이젠 혼 못씩 혼 못씩 가져당 허멍 이제는.(우선은 비가 오면 문제가 되니까. 가리어놨다가 이제는 한 못씩 한



못씩 가져다가 하면서 이제는.)

103011 @ 예.(예.)

103011 #1 홀테에서.(홀이에서.)

103011 @ 예. 홀테에서.(예. 홀이에서.)

103011 #1 홀트는 거라.(홀는 거야.)

103011 @ 홀테에서 해근에.(홀이에서 해서.)

103011 #1 홀트는 것도 이젠 마당에서 홀트당.(홀는 것도 이제는 마당에서 홀다가.)

103011 @ 응.(응.)

103011 #1 비가 자주 와 가거나 영 흐면 그걸 다 거둬드려야 돼거든마씨. 경 흐면은  
홀 수 없이 당장은 뭐하니까 이젠, 방에 그 보리도 방에도 놓 때가 있어마씨. 딱시 마루  
에도 놓 때도 있고.(비가 자주 와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다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  
렇게 하면은 할 수 없이 당장은 뭐하니까 이젠, 방에 그 보리도 방에도 놓을 때가 있어  
요. 다시 마루에도 놓을 때도 있고.)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경 방에 놔기네 허당 또 비가 자주 안와가민 일을 못 흐거든마씨 경 흐민  
홀 못씩 빠가명 방에서 홀타근에.(그렇게 방에 넣어서 하다가 또 비가 자주 안와가면 일  
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못씩 빠가면서 방에서 홀어서.)

103011 @ 홀타근에.(홀어서.)

103011 #1 경 보리짚으로 해다근에 딱시 딱로 누는 거라.(그러게 보릿짚으로 해다가  
다시 따로 가리는 거여.)

103011 @ 늘어근에예.(가리어서요.)

103011 #1 보리 누는 디는 딱로 잇곡 보리짚 누는 디가 딱로 잇어마씨.(보리 가리는  
데는 따로 있고 보릿짚 가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늘어근에 이젠 거 보리짚으로 뿔감을 흐는 거라마씨.(가리어서 이제는 거  
보릿짚으로 뿔감을 하는 거예요.)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경 헨 거 보리테작홀 땐 이룬디 마당드레 다 네봐 네낱 찌끔 벳 맞춰가명  
이젠 테작흐는 거라마씨.(그렇게 한 거 보리타작할 땐 이룬데 마당으로 다 네봐 내 놓아  
서 조금 별 맞춰가면서 이젠 타작하는 거예요.)

103011 @ 예예.(예예.)

103011 #1 경 헨 보리테작홀 땐 마당드레 다 네낱.(그렇게 해서 보리타작할 때는 마  
당으로 다 내 놓아서.)

103011 @ 예.(예.)

103011 #1 찌끔 벳이영 맞춰명 테작흐는 거마씨.(조금 별하고 맞히면서 타작하는 거  
요.)

103011 @ 테작홀 땐.(타작할 땐.)

103011 #1 타작 현 거 그걸 이젠.(타작 한 거 그걸 이젠.)

103011 @ 도리께로.(도리께로.)

103011 #1 도리께로 타작 현 그걸 바람에 불리는 거라마썸.(도리께로 타작 해서 그걸 바람에 불리는 거예요.)

103011 @ 예.(예.)

103011 #1 알맹이만.(알맹이만.)

103011 @ 예.(예.)

103011 #1 껍질은 이젠 다 꺾시락하고 껍질은 다 떨어 놔버리는 겁주. 경 그 알맹이만 헛당.(껍질은 이젠 다 까끄라기하고 껍질은 다 떨어 놔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그 알맹이만 헛다가.)

103012 @ 예. 그 다음 쫄은.(예. 그 다음 쌀은.)

103012 #1 집이 왕 영.(집이 와서 이렇게.)

103012 @ 예. 보리쫄은예.(예. 보리쌀은요.)

103012 #1 멍텅이영 구덕이영 다 낫당.(망태기하고 바구니하고 다 넣었다가.)

103012 @ 예.(예.)

103012 #1 이젠 뱃 나민은 영 딱시 물리는 거라 물려.(이젠 뱃 나면 이렇게 다시 물리는 거야 말려.)

103012 @ 예.(예.)

103012 #1 물려근에 이젠 딱시 건 이젠 물꺾레에 굴레 가는 거라마썸.(말려서 이제는 다시 그건 이제는 연자매에 갈러 가는 거예요.)

103012 @ 물꺾레에예.(연자매예요.)

103012 #1 예. 물꺾랑에 이제 연자방아에 굴앙은에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양. 그걸 버려 버렸단 말이우다.(예. 연자매에 이제 연자방아에 갈아서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요. 그걸 버려 버렸단 말입니다.)

103012 @ 예.(예.)

103012 #1 그 우리 조상 그 이런 도구리 머가 잇으니까 물 담는 그릇이 없으니까 돌로, 돌 도고리 돌로 이젠 그걸 다 파갓고 도고리를 만들양 거기 이젠 그 보리를 놔근에 씻근다고.(그 우리 조상 그 이런 함지박 뭐가 없으니까 물 담는 그릇이 없으니까 돌로, 돌 함지박 돌로 이젠 그걸 다 파가지고 함지박을 만들어서 거기 이젠 그 보리를 넣어서 씻긴다고.)

103012 @ 예.(예.)

103012 #1 씻경 이젠 저 구덕에 건지명 건지명 이젠 물방에더레 갖다놔, 갖다 놔 이젠 물방아를 돌리는 거라.(씻겨서 이젠 저 구덕에 건지면서 건지면서 이제는 연자매에로 갖다놔, 갖다 놔서 와서 이젠 연자매를 돌리는 거야.)

103012 @ 아, 건지명마썸.(아, 건지면서요.)

103012 #1 예. 그 물방아를 돌리는 거라.(예. 그 연자매를 돌리는 거야.)

103012 @ 경허민 잘.(그러면 잘.)

103012 #1 썰으로 썰으로 안 돼어.(생으로 생으로 안 돼.)

103012 @ 물 적진덴 험니까? 물을.(물 적신다고 험니까? 물을.)

103012 #1 적저마씨.(적서요.)

103012 @ 예. 물 적진덴예.(예. 물 적신다고요.)

103012 #1 예예. 적저.(예예. 적서.)

103012 @ 물 적저근예.(물 적서서.)

103012 #1 예예.(예예.)

103012 @ 예.(예.)

103012 #1 예예. 경 어느 정도 헤나민 그 돌도고리도 고망을 뜯와, 게 고망 처음에  
헐 떡에는 고망을 막앗당, 내중엔 그걸 다 써나민 영 뜯시 그걸 빼버려.(예예. 그렇게  
어느 정도 하면 그 돌함지박도 구멍을 뚫어, 그럼 구멍 처음에 할 적에는 구멍을 막았  
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쓰면 이렇게 다시 그걸 빼버려.)

103012 @ 예.(예.)

103012 #1 고무 그걸로 물 나오게 흘러나오게시리, 사름 흘 땀 그걸 막아근에 또 이  
젠 씻그곡.(고무 그걸로 물 나오게 흘러나오게끔, 사름 할 땀 그걸 막아서 또 이제는 씻  
고.)

103012 @ 예. 게민 물방아는 경흐곡 집에 오라근예.(예. 그러면 연자매는 그렇게 하  
고 집에 와서는.)

103012 #1 또 이제 집이 왕 또 이젠 마당에 멍석에 물려야 돼어 또 그걸.(또 이제 집  
에 와서 또 이제는 마당에 멍석에 말려야 돼 또 그걸.)

103012 @ 예. 멍석에 물려근예.(예. 멍석에 말려서.)

103012 #1 달라.(말려.)

103012 @ 그 다음 멧돌에 굴아야 돼큰게.(그 다음 멧돌에 갈아야 되겠네.)

103012 #1 집이 왕 이제는 멧돌에.(집에 와서 이제는 멧돌에.)

103012 @ 멧돌이엔 험니까? 방에엔 험니까?(멧돌이라고 험니까? 방이라고 험니까?)

103012 #1 여기에서는 ㄴ레엔 험주 ㄴ레.(여기에서는 멧돌이라고 하지요 멧돌.)

103012 @ 연자매엔 험니까?(연자매라고 험니까?)

103012 #1 ㄴ레 ㄴ레.(멧돌 멧돌.)

103012 @ 예. ㄴ레예.(예. 멧돌요.)

103012 #1 ㄴ레에 굴아근에 이젠 저 두 개로 쪼게집주. 그대로 허는 건 통보리엔 허  
고 두 개로 쪼게는 건 이제 저 그건 무신 거엔 까끈 보리엔 험주마씨 그걸.(멧돌에 갈아  
서 이젠 저 두 개로 쪼개지지요. 그대로 하는 건 통보리라고 하고 두 개로 쪼개는 건  
이제 저 그건 무슨 거라고 깎은 보리라고 하지요 그걸.)

103012 @ 예.(예.)

103012 #1 게서 이제 그 그걸 이젠 밥을 흐면 이 통보리보단 ㄴ레에 굴은 보리가 밥  
이 빨라. 이제 빨리 익어근에 경 헐.(그래서 이제 그 그걸 이제는 밥을 하면 이 통보리  
보다는 멧돌에 같은 보리가 밥이 빨라. 이제 빨리 익어서 그렇게 했어.)

103012 @ 응.(응.)

103012 #1 꼭 골아야 뽕주마씨.(꼭 골아야 되지요.)

103012 @ 예.(예.)

103012 #1 ㄴ는 사름덜이 많이 잇엇수다. 통보리로 먹으젠 허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마씨 지금 이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보리로 먹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이제.)

103013 @ 보리쌀로는 대부분 밥행 뭐 어떻 험니까? 보리쌀로는 저기 뭘 험니까 밥행 먹는 거 허고.(보리쌀로는 대부분 밥해서 뭐 어떻게 험니까? 보리쌀로는 저기 뭘 험니까 밥해서 먹는 거 하고.)

103013 #1 아, 보리쌀로 행은에 보통 장 뽕장이 엇는 사름은 뽕장도 해먹어.(아, 보리쌀로 해서 보통 장 뽕장이 엇는 사름은 뽕장도 해먹어.)

103013 @ 예.(예.)

103013 #1 또 밀 밀쌀로도 저 뽕장 해먹고.(또 밀 밀쌀로도 저 뽕장 해먹고.)

103013 @ 예.(예.)

103013 #1 밀 뽕장도 맛있고 보리 뽕장도 맛있습니다게.(밀 뽕장도 맛있고 보리 뽕장도 맛있습니다.)

103013 @ 예.(예.)

103013 #1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미쳐 일을 못허난 보챇보리<sup>117</sup>.(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미쳐 일을 못하니까 ‘보챇보리.’)

103013 @ 예.(예.)

103013 #1 보리 ㄴ레 골지도 아년 보리로 뽕장을 담안 우리 먹어나서, 원첻 그게 영양가가 잇는 거주게. 따 좡 보면.(보리 맷돌 갈지도 았은 보리로 뽕장을 담가서 우리 먹엇어, 원체 그게 영양가가 잇는 거지. 따져서 보면.)

103013 @ 아.(아.)

103013 #1 왜냐하면 보리엔 껍질이 그게 영양가가 잇거든 실지 지금 따좡 보면예.(왜냐하면 보리에는 껍질이 그게 영양가가 잇거든 실지 지금 따져서 보면요.)

103013 @ 예. 눈, 눈, 눈을 얘기 허는 거짜.(예. 눈, 눈, 눈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103013 #1 예. 눈이 잇으니.(예. 눈이 있으니.)

103013 @ 그걸 보챇, 보챇보리.(그걸 ‘보챇’, ‘보챇보리.’)

103013 #1 예예.(예예.)

103013 @ 보챇보리.(‘보챇보리.’)

103013 #1 보챇보리, 저 ㄴ레 돌 ㄴ레 안 곤 보리는.(‘보챇보리’, 저 맷돌 돌 맷돌 안 간 보리는.)

103013 @ 돌 ㄴ레 안 곤.(돌 맷돌 안 간.)

103013 #1 돌방에나 돌 ㄴ레나 안 곤 보리.(연자매나 돌 맷돌이나 안 간 보리.)

103013 @ 예. 보챇보리에. 경 해근네예.(예. ‘보챇보리’요. 그렇게 해서요.)

---

117) ‘보챇보리’는 보리를 장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103013 #1 그런 보리로, 우리 어머니 참 된장을 담아근에 우릴 채낫수다게.(그런 보리로, 우리 어머니는 참 된장을 담아서 우리를 찼습니다.)

103013 @ 예. 게민 그걸로 이제 엿기름도 만들 거 아닛과? 그거 저기예.(예. 그러면 그걸로 이제 엿기름도 만들 거 아닛니까? 그거 저기요.)

103013 #1 모르くだ.(모르겠습니다.)

103013 @ 개역 만들영 먹어나지 안 헛수파?(미숫가루 만들어서 먹었지 않았습니까?)

103013 #1 개역은 만들주 미숫가루 겐디 미숫가루도 좀 헛다고 가난헌 집인 미숫가루를 안 행 먹었다고.(개역은 만들지 미숫가루 그런데 미숫가루도 좀 헛다고 가난한 집에는 미숫가루를 안 해서 먹었다고.)

103013 @ 예.(예.)

103013 #1 예. 부짓칩이나 미숫가루 해 먹어근에 또 미숫가루 선물도 이제 좀 갖다주곡 미숫가루 해근예.(예. 부жат집이나 미숫가루 해 먹어서 또 미숫가루 선물도 이제 좀 가져다주고 미숫가루 해서.)

103013 @ 미숫가루엔 안허고 개역이엔 허지예.(미숫가루라고 앓고 개역이라고 하지요.)

103013 #1 개역이엔 개역 미숫가루엔 안 허고 미숫가루는 요 근래에서 듣는 말이고.(미숫가루라고 미숫가루 미숫가루라고 앓고 미숫가루는 요 근래에서 듣는 말이고.)

103013 @ 예.(예.)

103013 #1 개역해연 이제 저 개역 헛는디도 부제칩이 사름덜만[싸름덜만] 개역허주 가난헌디 사름은 이 쌀이 헛헛게 들어간다고, 이제.(미숫가루해서 이제 저 미숫가루 하는데도 부жат집에 사름들만 미숫가루하지 가난한데 사름은 이 쌀이 헛헛하게 들어간다고, 이제.)

103014 @ 예. 그 보리쩍데기헛고 보리쩍허고예.(예. 그 보리쩍데기하고 보릿짚하고요.)

103014 #1 예.(예.)

103014 @ 보리에 해난 까끄레기 잇지예.(보리에 헛던 까끄라기 잇지요.)

103014 #1 예.(예.)

103014 @ 그건 또 어떻 헛니까?(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103014 #1 아 그건 늘어 놓는 거라 따로, 늘어 낫당 이젠 방 아궁이 굴묵 굴묵방 아궁일 때는 거라 걸로.(아 그건 가리어 놓는 거야 따로, 가리어 낫다가 이제는 방 아궁이 아궁이 아궁이방 아궁이를 때는 거야 걸로.)

103014 @ 그 까끄레기.(그 까끄라기.)

103014 #1 거 헛곡 저 소 길르는 사름은, 그 소똥헛곡 서꺼근에 게민 어떻 방이 뜻는 지 이방도 뜻고 그 보릿까락 그 꺼꺼 까렉이로만은 방이 경 뜻질 아녀.(그거 하고 저 소 기르는 사름은, 그 소똥하고 섞어서 그러면 어떻게 방이 따습지 이 방도 따뜻하고 그 보리카끄라기 그 까 까 까끄라기로만은 방이 그렇게 따뜻하지 앓아.)

103014 @ 아, 소똥허고.(아, 소똥하고.)

103014 #1 소똥 서끈 거짱 이, 경 해도 소 잇는 사람은 머.(소똥 섞은 것하고, 그렇게 해도 소 없는 사람은 뭐.)

103014 @ 보릿짚은 태우는 거 허고예.(보릿짚은 태우는 거 하고요.)

103014 #1 보릿짚은 집이서 아궁이 때야 하는 거. 걸로 밥 해먹는 거라.(보릿짚은 집에서 아궁이 때야 하는 거. 걸로 밥 해먹는 거야.)

103014 @ 밥 해먹는 거고예. 땀감허고.(밥 해먹는 거고요, 땀감하고.)

103014 #1 오.(오.)

103014 @ 보릿겨는 껍질 벗겨난 거는.(보릿겨는 껍질 벗겨난 거는.)

103014 #1 게메 그 껍질은.(글쎄 그 껍질은.)

103014 @ 그거 허고.(그거 허고.)

103014 #1 이젠 그거 이제 보릿까레기허고.(이젠 그거 이제 보리카끄라기하고.)

103014 @ 예. 까레기허고.(예. 까끄라기하고.)

103014 #1 그저 ㄴ치 서꺼지게 도망, 이제 불리면은 도망가거든 것도.(그저 함께 섞 어지게 도망, 이제 불리면 도망가거든 것도.)

103014 @ 예예.(예예.)

103014 #1 그 보리 뿔도 ㄴ치 도망가고 그거는 이제는 곡식이 없는 거거든 게문 그 걸 늘어놨다가 이젠 저 굴목 아궁이.(그 보리 뿔도 함께 도망가고 그거는 이제는 곡식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가리어놨다가 이젠 저 아궁이 아궁이.)

103014 @ 굴목예.(아궁이요.)

103014 #1 이, 이 겨울에 아궁이 때기 시작헉주마씨 이제.(이, 이 겨울에 아궁이 때기 시작하지요 이제.)

103015 @ 보리농사에 저기 가장 생각나는 거는예. 어떻 거 잇이쿠과? 한번 경험헌 거 보리농사에 데해서, 삼촌이 경험헉던 거. 어릴 적에 그 듬북헤난 거가 제일 생각나쿠과? 어떤.(보리농사에 저기 가장 생각나는 거는요 어떤 거 있겠습니까? 한번 경험한 거 보리농사에 대해서, 삼촌이 경험헉던 거. 어릴 적에 그 듬북헉던 것이 제일 생각나겠습니까? 어떤.)

103015 #1 듬북도 이제 어릴 덕에는 저 생각이 나주만은 듬북도 이제 나도 청년시절에는 이제 그, 난 밭이 우린 전혀 엇엇주마씨게.(듬북도 이제 어릴 적에는 저 생각이 나지만은 듬북도 이제 나도 청년시절에는 이제 그, 난 밭이 우린 전혀 없었지요.)

103015 @ 예.(예.)

103015 #1 밭이 엇어부난에 심지어는 저 이 거 우리 일갓 사름이주만은 그 줄나시<sup>118)</sup> 듬북 줄나시 말허지 안읍디가, 줄나시 듬북.(밭이 없어버리니까 심지어는 저 이 거 우리 일가에 사람이지만은 그 ‘줄나시’ 듬북 ‘줄나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줄나시’ 듬북.)

103015 @ 예예. 줄나시.(예예. ‘줄나시’.)

103015 #1 그 큰 긴 췌로, 둘이서 이렇게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흐민 그걸로 이제.

118) ‘줄나시’는 넓미역 작업에서 사용하는 어구이다.

(그 큰 긴 쇠로, 둘이서 이렇게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하민 그걸로 이제.)

103015 @ 예예.(예예.)

103015 #1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 듬북이 베어지는 거라.(물속에서 이렇게 하면 그 듬북이 베어지는 거야.)

103015 @ 예(예.)

103015 #1 게민 듬북이 떠 게민 뒤에 화물선이 있어 화물선이 걸 저 배에 실려다간 궂디 와기네 그걸 푸면, 걸 지게로 다 지어근예, 궂데 다 널지, 널영 물령 이 그거를 다 분배를 하는 거라 이제.(그러면 듬북이 떠 그러면 뒤에 화물선이 있어 화물선이 그걸 저 배에 실어다가는 바닷가에 와서 그걸 푸면, 걸 지게로 다 지어서, 바닷가에 다 널지, 널어서 말려서 이 그거를 다 분배를 하는 거야 이제.)

103015 @ 예(예.)

103015 #1 분배해근예 분배받아다근예 이젠 자기만씩 다 들여노는 거라 그렇게 이제 그런 듬북도 하고, 또 이젠 바람에, 바람에 또 이제 바람맞이 뒤편 해안 곳에는 브름에 올르는 수도 있주.(분배해서 분배받아다가 이젠 자기만큼 다 들여놓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런 듬북도 하고, 또 이젠 바람에, 바람에 또 이제 바람맞이 되는 바닷가에는 바람에 올르는 수도 있지.)

103015 @ 예(예.)

103015 #1 겨울에는 이쪽으로 북서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많이 올르고 여름에는 또 이쪽으로 이제 동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올르고.(겨울에는 이쪽으로 북서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많이 올르고 여름에는 또 이쪽으로 이제 동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올르고.)

103015 @ 응.(응.)

103015 #1 심지어는 또 올라근예 듬북이 엇이민 고지기라고, 또 잠수들이 물속에 가 근예 일부러 캐어, 캐어근예 홍악망아리<sup>119)</sup>에 담아 왕 집이 와근예 기냥 궂디 퍼근예 그걸 물류왕 놀엇다근예 또.(심지어는 또 올라서 듬북이 없으면 고지기라고, 또 잠수들이 물속에 가서 일부러 캐어, 캐어서 ‘홍악망아리’에 담아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바닷가에 퍼서 그걸 말려서 가리었다가 또.)

103015 @ 보리 갈, 보리농사에 대해서는 거문 듬북이 제일 생각나긴 남구나예. 그걸 해야.(보리 갈, 보리농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듬북이 제일 생각나기는 나는군요.)

103015 #1 예. 듬북이 없으면 보릴 못 갈아먹어, 저 밥은 주카 몰라, 사람이 궂 들어 가면 밥은 먹으라하카 몰라 듬북은 가져가렌 말 안 해여.(예. 듬북이 없으면 보릴 못 갈아먹어, 저 밥은 줄까 몰라, 사람이 제주에 들어가면 밥은 먹으라할까 몰라 듬북은 가져가라고 말 안 해.)

103015 @ 아.(아.)

103015 #1 그렇게 귀하게 듬북은 생각한 거라.(그렇게 귀하게 듬북은 생각한 거야.)

103015 @ 예.(예.)

103015 #1 겨고 옛날도 이제 우리 소시 ㄱ튼 때 들어보면 저 월정 김녕 ㄱ튼디 사는

119) ‘홍악망아리’는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한다.

사름들은 시집간 사름은, 날 아침이 가근에 바닷게에 가근에 듬북 혼 바구리 아이 해오민 시집을 못 살앗텐 우리 그런 말도 여기서 듣고 해낫수다게.(그리고 옛날도 이제 우리 소시 같은 때 들어보면 저 월정 ‘김녕’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시집간 사름은, 날 아침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듬북 한 바구니 아니 해오면 시집을 못 살았다고 우리 그런 말도 여기서 듣고 했었습니다.)

103015 @ 예. 맞수다예.(예. 맞습니다예.)

103015 #1 듬북이 그렇게 귀했던 거라 지금.(듬북이 그렇게 귀했던 거야 지금.)

103015 @ 저 비료 대신에예. 걸름대신에.(저 비료 대신에요 거름대신에.)

103015 #1 그런디 육십 년대부터는 요소비료가 나오기 시작해가니까 이제는, 그런 듬북이 없어도 것만 뿌리면 그대로 밧디 그대로 그저 씨만 뿌려근에 비료만 뿌리면 보리를 잘 해 먹었거든.(그런데 육십 년대부터는 요소비료가 나오기 시작해가니까 이제는, 그런 듬북이 없어도 것만 뿌리면 그대로 밧에 그대로 그저 씨만 뿌려서 비료만 뿌리면 보리를 잘 해먹었거든.)

103015 @ 예.(예.)

103015 #1 그래서 옛날엔 저 수산 고잡<sup>120)</sup> 사람덜, 여기 보리 비레 와나서 그때 옛날에 그 듬북 나오기 이전에는 육십년 데까지는 이제 거기는 단지 돛걸름으로만 보리 갈아 먹었거든 보리가 얼마 안 돼어 켜디 보리가 나옴직 시작하니까 거기는 이제 비료로 보리 갈기 시작하니까 오십 썸씩 삼스십 썸씩 해 먹었다고 허거든 거긴.(그래서 옛날엔 저 수산 ‘고잡’ 사람들, 여기 보리 베러 왔었어 그때 옛날에 그 듬북 나오기 이전에는 육십년 대까지는 이제 거기는 단지 돼지거름으로만 보리 갈아 먹었거든 보리가 얼마 안 돼 그런데 보리가 나옴직 시작하니까 거기는 이제 비료로 보리 갈기 시작하니까 오십 썸씩 삼사십 썸씩 해먹었다고 하거든 거긴.)

103015 @ 응.(응.)

103015 #1 또 토지가 너른 디고 흥니까.(또 토지가 넓은 데고 하니까.)

103015 @ 예. 토지가 널르니까.(예. 토지가 넓으니까.)

103015 #1 게 그 후로는 여기 보리 빌레 안 왔어. 하이고 여기 보리 빌레 오면 보리 빌레 왓수텐 흥면은 오지 말렌 흥는 사름도 잇곡.(그럼 그 후로는 여기 보리 빌러 안 왔어. 하이고 여기 보리 빌러 오면 보리 빌러 왔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름도 잇고.)

103015 @ 예.(예.)

103015 #1 또 오면은 비는 체흥민 으 만인 주어근에 으 거 비영 갑서. 갑서 행.(또 오면 비는 체하면 요 만큼 주어서 요 거 비어서 가십시오. 가십시오 해서.)

103015 @ 갑서 행예.(가십시오 해서요.)

103015 #1 집이도 오고, 으 그렇게까지 해낫어.(집에도 오고, 으 그렇게까지 했었어.)

103015 @ 예.(예.)

103015 #1 저 수산 ‘고잡’ 사름덜은[싸름덜은] 경 허다가 이젠 육십년 대 이후에는

120) ‘고잡’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를 가리키는 옛 이름이다.



비료 나오기 시작한 보리 잘 돼지 또 이제는 감귤제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디가 부자 아넛과?(저 ‘수산’ ‘고잡’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젠 육십년 대 이후에는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리 잘 돼지 또 이제는 감귤재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거기가 부자 아넛니까?)

103015 @ 예.(예.)

103015 #1 이제는 여기보다. 감귤 나오기 시작하니까.(이제는 여기보다. 감귤 나오기 시작하니까.)

103015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 조농사

103016 @ 삼춘예, 조농사를 허젠 허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리 현 거추룩예.(삼춘요, 조농사를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리 한 거처럼요.)

105015 #1 예. 보리도.(예. 보리도.)

105015 @ 조농사를 허젠 허민 준비를 해야 허는데 몇 가지 정도 준비는.(조농사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몇 가지 정도 준비는.)

103016 #1 첫째는 조농사 조는 보리, 보리 갈아난 그리에예. 이제는 비료를 안허여 비료도 엇일 때난 듬북 아무것도 안 허여.(첫째는 조농사 조는 보리, 보리 갈았던 그루에요. 이제는 비료를 안 해 비료도 없을 때니까 듬북 아무것도 안 해.)

103016 @ 예.(예.)

103016 #1 첫째는 밧을 갈아놔야 돼.(첫째는 밧을 갈아놔야 돼.)

103016 @ 예.(예.)

103016 #1 보릿그리를.(보리그루를.)

103016 @ 예.(예.)

103017 #1 갈아근에 보릿그리를 썬켜놔야 혼 이십일 동안 좀 썬을 동안 이십 일 동안 썬으면 이제는 때가 되면 밧을 가는 거라 갈아근에 이젠.(갈아서 보리그루를 썬켜놔야 한 이십일 동안 좀 썬을 동안 이십 일 동안 썬으면 이제는 때가 되면 밧을 가는 거야 갈아서 이젠.)

103017 @ 응.(응.)

103017 #1 어느 정도 혼 일차론 편편할 정도론 이제 골라놔 밧로 경 줍씨 빼영.(어느 정도 한 일차로는 편편할 정도로는 이제 골라놔 밧로 그렇게 조씨 뿌려서.)

105017 @ 응.(응.)

103020#1 그때부터는 이젠 사름덜 쉼는 제대로 밧으곡 또 쉼나 물이 잇는 사름은 쉼나 물로 밧고.(그때부터는 이젠 사름들 소는 제대로 밧고 또 소나 말이 잇는 사름은 소나 말로 밧고.)

103020 @ 밧곡예.(밧고요.)

103020 #1 밧곡, 그렇게 해서 조 ㄱ쁜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어 땅쪽에다

묻어지어근에.(밟고, 그렇게 해서 조 같은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 땅속에다 묻어져서.)

103020 @ 예.(예.)

103020 #1 이렇게 해서 이제.(이렇게 해서 이제.)

103020 @ 예. 이렇게 허는 거고예.(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3021 #1 그렇게 밟아난 후에 혼 열흘만 뒹어 가면은 조가 나서 이제 혼 두 잎 세 잎이 뒹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그렇게 밟아난 후에 한 열흘만 뒹어 가면은 조가 나서 이제 한 두 잎 세 잎이 뒹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103021 #1 그때는 이제 초불 검질 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때는 이제 초불 검질 매어가서 이제 두불 세불 검질 매어가서 혼 스십일 걸려.(그때는 이제 초벌 김 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라. 그때는 이제 초벌 김 매어가서 이제 두벌 세벌 김 매어가서 한 사십 일 걸려.)

103021 @ 예.(예.)

103021 #1 그때 뒹어 가민 이젠 혼 오십일 뒹어가민 막 막님이 내리기 시작해여.(그때 뒹어 가면 이제는 한 오십일 뒹어 가면 막 ‘막잎’이 내리기 시작해.)

103021 @ 예.(예.)

103021 #1 마지막 이파리 잎세기가 내리곡, 이 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여가주.(마지막 이파리 잎사귀가 내리고, 이 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가지.)

103021 @ 삼촌, 조밭디 걸름은?(삼촌, 조밭에 거름은?)

103021 #1 겐디 그때는 그러다가 이 동풍이 불면 이쪽으론 조를 못 해먹어서, 이쪽으로는 이제 동풍 바람에 지금 머 해부니까 겐디 으쪽으로는 잘 돼서 우리 서광리나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람 으지가 돼서 브름 으지가 돼서.(그런데 그때는 그러다가 이 동풍이 불면 이쪽으론 조를 못 해먹었어, 이쪽으로는 이제 동풍 바람에 지금 뭐 해버리니까 그런데 으쪽으로는 잘 됐어 우리 ‘서광리’나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람 의지가 되어 바름 의지가 되어.)

103021 @ 브름 으지가 돼서예.(바람 의지가 돼서요.)

103021 #1 게선지 그 대신 보리가 잘 돼나서 읍고 땅이 좋고 읍고 이렇게 했는데.(그래서인지 그 대신 보리가 잘 되었어 여물고 땅이 좋고 여물고 이렇게 했는데.)

103021 @ 예.(예.)

103021 #1 여기에 천구백사십팔년도쫘부터 오십팔년까지 오년 동안 흉년 들어났수다 계.(여기에 천구백사십팔년도쫘부터 오십팔 년까지 오년 동안 흉년 들었습니다.)

103021 @ 예.(예.)

103021 #1 고구마도 잘 안 들고 그때는 또 조도 잘 안 되고, 으 이렇게 혼 오년동안 흉년들언 엄청난 고생을 여기 했수다.(고구마도 잘 안 들고 그때는 또 조도 잘 안 되고, 으 이렇게 한 오년동안 흉년들어서 엄청난 고생을 여기 했습니다.)

103021 @ 으.(으.)

103021 #1 저 조농사도 잘 안 돼니까양.(저 조농사도 잘 안 되니까요.)

103021 @ 예.(예.)

103021 #1 조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해안가에 툄 툄이엔 혼 거 비여다가 비여다가 이제 좁쌀에 서꺼서, 이제 먹기 시작했수다.(조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해안가에 툄 툄이라고 한 거 베다가 베어다가 이제 좁쌀에 섞어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103021 @ 예.(예.)

103021 #1 게 그것도 나는양 커서 헤시민 줄 건디 곧 나기 시작할 때부터 비여다 먹어부니까 모지라갓꼬 그렇게 헛고 여름 때는 딱시 보리가 안 돼영 부족하니까 폰레엔 혼 거 있어.(그럼 그것도 나는요 커서 했으면 좋을 건데 곧 나기 시작할 때부터 베어다 먹어버리니까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헛고 여름 때는 다시 보리가 안 돼서 부족하니까 파레라고 한 거 있어.)

103021 @ 예.(예.)

103021 #1 폰레엔 혼 거 여기에 없으니까 저 큰섬에 강 배 풍선 잇는 사람은 풍선 타갓고 저 하도 그 게오리개<sup>121)</sup>엔 혼디 가근에 저 폰레를 해단에 밥을 보리쌀 서꺼근에 먹어난 적이 잇수다 지금 여기.(파레라고 한 거 여기에 없으니까 저 제주에 가서 배 풍선 잇는 사람은 풍선 타가지고 저 ‘하도’ 그 ‘게오리개’라고 한테 가서 저 파레를 해다가 밥을 보리쌀 섞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103021 @ 예. 조밭에 거름은 엇덴 허고예. 보릿그르에 허니까예.(예. 조밭에 거름은 없다고 하고요. 보리그루에 하니까요.)

103021 #1 예.(예.)

103021 @ 보리그르엔 헛니까? 보리 뉘엔 헛니까.(보리그루라고 합니까? 보리 뉘라고 합니까?)

103021 #1 아, 보리그리[보리끄리]에 이제 조는 갈고.(아, 보리그루에 이제 조는 갈고.)

103021 @ 보리그르.(보리그루.)

103021 #1 조크리에 또 보리는 갈고.(조그루에 또 보리는 갈고.)

103021 @ 예. 조크르에.(예. 조그루에.)

103018 @ 조는 조 가는 거는 아까 저기 동짓달 그름썸에 저기 조가는 거는예.(조는 조 가는 거는 아까 저기 동짓달 그름썸에 저기 조가는 거는요.)

103018 #1 조 가는 거?(조 가는 거?)

103018 @ 예.(예.)

103018 #1 아니게.(아니.)

103018 @ 아, 보리 다음에 허니까는 칠월예?(아, 보리 다음에 하니까는 칠월요?)

103018 #1 보리 가는 거는 시월 저 조가는 건 칠월 칠일 양력 저 유월절<sup>122)</sup>에 주. 유월절.(보리 가는 거는 시월 저 조가는 건 칠월 칠일 양력 저 ‘유월절’에지. ‘유월절.’)

103018 @ 음.(음.)

121) ‘게오리개’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소재한 포구 지명이다.

122) ‘유월절’은 이십사절기 가운데 ‘소서’를 말한다.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음력 6월, 양력 7월 7일이나 8일경이 된다.

103018 #1 소서.(소서.)

103018 @ 예.(예.)

103018 #1 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같고 또 이제 보리는 입동.(소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같고 또 이제 보리는 입동.)

103018 @ 응.(응.)

103018 #1 입동이면 동지가 겨울이 되는 거.(입동이면 동지가 겨울이 되는 거.)

103018 @ 예. 동지.(예. 동지.)

103018 #1 아니꽂?(아닙니까?)

103018 @ 예.(예.)

103018 #1 그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갈곡.(그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갈고.)

103019 @ 좁씨 뿌리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조씨 뿌리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103019 #1 게 좁씨 뿌리는 것도 기술적이라 그거 포, 많이 가는 딴 많이 가지 말고 골고루 가게시리 게서 혼 번 이렇게 혼쭈 잡으면, 스무 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그럼 조씨 뿌리는 것도 기술적이야 그거 포,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지 말고 골고루 가게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혼쭈 잡으면, 스무 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103018 @ 예.(예.)

103019 #1 스무 번까지 그게 기술이라 그게.(스무 번까지 그게 기술이야 그게.)

103019 @ 아.(아.)

103019 #1 게민 골고루 가거든마씨. 혼 뻐에 폭 머헤불면 아무리 머헤도 혼더레 모여 질 건디 영 하게 뿌리면은 골고루 가거든마씨.(전화 벨 소리)(그러면 골고루 가거든요 한 번에 폭 뒤흔어버리면 아무리 뒤흔어도 한데로 모여질 건데 이리하게 뿌리면 골고루 가거든요.(전화 벨 소리))

103020 @ 좁씨는 경하고 조밭 김질때는 거는 저기 아 조 밋디 헐 때는 조를 밟을 때 예. 조를 밟을 때에.(조씨는 그렇게 하고 조밭 김때는 거는 저기 아 조밭에 할 때는 조를 밟을 때요, 조를 밟을 때에.)

103020 #1 예.(예.)

103020 @ 발로만 밟는 거꽂?(발로만 밟는 겁니까?)

103020 #1 발로만 밟고, 또 췌가 엇는 사람은, 저 췌로도 밟는 사람도 있어났수다. 췌나 물로 밟곡.(발로만 밟고, 또 소가 엇는 사람은, 저 소로도 밟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나 말로 밟고.)

103020 @ 췌나 물로예?(소나 말로요?)

103020 #1 예.(예.)

103020 @ 남테나?('남테'나?)

103020 #1 남테<sup>123)</sup> 잇는 사람은 남테로 헛는데 남테가 우도에는 몇 군데 없었어요. ('남테' 잇는 사람은 '남테'로 헛는데 '남테'가 우도에는 몇 군데 없었어요.)

---

123)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붙여 만들고 굴리며 발의 흙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이다.

103020 @ 아.(아.)

103020 #1 흔 두 군덴가 세 군데벧긴 엇엇고, 남테도 뵤음은 뵤기도 헛는데.(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는 없엇고, ‘남테’도 뵤음은 뵤기도 헛는데.)

103020 @ 끽게엔 헛 것도 잇수과? 돌테 끽게?(끽게라고 한 것도 잇습니까? ‘돌테’ 끽게?)

103020 #1 끽게는 엇고, 저 끽게는 머냐면 그 밧을 갈아놓으면 저 발로 꺾르는 거보다 씨 뿌리젠 하면 어느 정도 골라야 돼거든.(끽게는 없고, 저 끽게는 뭐냐하면 그 밧을 갈아놓으면 저 발로 고르는 거보다 씨 뿌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골라야 되거든.)

103020 @ 예.(예.)

103020 #1 그 이렇게 투불투불<sup>124)</sup>하니까, 게민 그것이 이제 나뭇데기로 거기 돌을 놔갖고 게서 그걸 눌러지게해서 이제 거 땅을 골르는 거라.(그 이렇게 ‘투불투불’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뭇가지로 거기 돌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눌러지게 해서 이제 거 땅을 고르는 거야.)

103020 @ 예.(예.)

103020 #1 골라서 이제 그레 씨를 뿌리는 거라. 왜냐하면 이렇게 울통불통하면, 씨를 뿌려볼면은 어떤 데는 지프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야트게 들어가거든마씨. 거 고르지 못 허는 거라.(골라서 이제 그리로 씨를 뿌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울통불통하면, 씨를 뿌려버리면 어떤 데는 깊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얇게 들어가거든요. 거 고르지 못하는 거야.)

103020 @ 씨뿌리기 전에예.(씨뿌리기 전에요.)

103020 #1 예. 밧을 갈면 이렇게 깊은 디가 잇거든 이런 차이가 나서. 게민 너무 깊어불민 안 나오기도 허지 어느 정도 쪼끔 수평이 꺾타야.(예. 밧을 갈면 이렇게 깊은 데가 있거든 이런 차이가 나서. 그러면 너무 깊어버리면 안 나오기도 하지 어느 정도 쪼끔 수평이 같아야.)

103020 @ 그거는 무시거엔 허는 골르는 이름은 엇인가마씨?(그거는 무엇이라고 하는 말하는 이름은 없는가요?)

103020 #1 그게, 그거에 골르민 그거에 남테엔도 허곡, 딱시 이제 그건 잘 몰라.(그게, 그것에 말하면 그것에 ‘남테’라고도 하고, 다시 이제 그건 잘 몰라.)

103020 @ 예.(예.)

103021 #1 게난 그건 그렇게 흐는 사름도 잇고, 또 그런 걸 아니헤근에 발로만 이제 발로 행 툃툃 차면서 이제 골르는 사름도 잇곡 이제.(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사름도 잇고, 또 그런 걸 앓아서 발로만 이제 발로해서 툃툃 차면서 이제 고르는 사름도 잇고 이제.)

103021 @ 조밧 겹질은 세 번 멘덴 헛지예?(조밧 김은 세 번 맨다고 헛지예?)

103021 #1 예. 세 세 번.(예. 세 세 번.)

103021 @ 세 번예.(세 번요.)

124) ‘투불투불’은 제보자가 울통불통한 흙바닥을 표현하여 말하는 제주어다.

103021 #1 예.(예.)

103022 @ 저기 조밌디 검질은 어떤 것들이 남신고예? 검질.(저기 조발에 김은 어떤 것들이 나는가요? 김.)

103022 #1 게메 게난 보통으로 나 가, 헤바라기 췌비름이 보통 많이 나 제완지.(글쎄 그러니까 보통으로 나 가, ‘헤바라기’ 쇠비름이 보통 많이 나 바랭이.)

103022 @ 제완지.(바랭이.)

103022 #1 제완지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와 제완지.(바랭이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와 바랭이.)

103022 @ 제완지 허고예. 헤바라기 허고예.(바랭이 하고요 ‘헤바라기’ 하고요.)

103022 #1 췌비름.(쇠비름.)

103022 @ 예.(예.)

103022 #1 췌비름은 또 ㄱ물아 갈 때 이추룩 뵈 나 ㄱ물아 갈 덕에 잘 나근에.(쇠비름은 또 가물어 갈 때 이처럼 뵈 나 가물어 갈 적에 잘 나서.)

103023 @ 조 수확은? 고구리 꺼거근에 무꺼근에, 수확허는 거, 조를 수확허는 거.(조 수확은? 이삭 꺾어서, 수확하는 거, 조를 수확하는 거.)

103023 #1 무끄질 안 허여 조는.(묵지를 얹아 조는.)

103023 @ 무끄진 안 허여?(묵지는 얹아?)

103023 #1 비여낭 그대로 넣어놔.(베어나서 그대로 넣어놔서.)

103023 @ 예.(예.)

103023 #1 그대로 고구릴 톨는 거라.(그대로 이삭을 뜯는 거야.)

103023 @ 아.(아.)

103023 #1 고구리만 톨아뵈 조칩을.(이삭만 뜯어두어서 조짚을.)

103023 @ 예.(예.)

103023 #1 뽕감 헐라고 또 조짚만 별도로 무경 경 집이 지어당 넣어 놓는 거라 또.(뽕감 하려고 또 조짚만 별도로 묶어서 그렇게 집에 지어다가 가리어 놓는 거야 또.)

103023 @ 아.(아.)

103023 #1 넣어 놓앗당 빠가멍 이제 아궁이 뽕 때민 저 불을 때면서 밥을 해먹어서. 조칩은 췌도 맥이곡 어떤 집이는 췌 길르는 집이는 췌도 맥이는 맥여나십쭈. 고구마쭈도 맥이곡 것도 맥이곡 출 데신.(가리어 놓앗다가 빠가면서 이제 아궁이 뽕 때면 저 불을 때면서 밥을 해먹었어. 조짚은 소도 먹이고 어떤 집에는 소 기르는 집에는 소도 먹이는 먹였었지요. 고구마기는줄기도 먹이고 것도 먹이고 쭈 대신.)

103024 @ 타작은 조는 타작은 어떻 허코예?(타작은 조는 타작은 어떻게 할까요?)

103024 #1 조도 도리께로 네낭 것도.(조도 도리께로 내내 것도.)

103024 @ 도리께로예.(도리께로요.)

103024 #1 예. 톨아다근에.(예. 뜯어서.)

103024 @ 도리께엔 헉니까? 뭇엔 헉니까?(도리께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103024 #1 도께엔 도께.(도리께라고 도리께.)

103024 @ 도깨예.(도리깨.)

103024 #1 예. 도리 릿 제는 안 부정 도깨엔헤여 도깨.(예. 도리 리 자는 안 붙여서 도리깨라고 해 도리깨.)

103024 @ 예, 도깨엔 허고 나중엔 이 허는 거는 므수는 거는 덩드렁마께예?(예, 도리 깨라고 하고 나중엔 이 하는 거는 무수는 거는 ‘덩드렁마께’요?)

103024 #1 예. 스스이 그자 쪼금씩 허당 남은 건 그자 저 덩드렁마께 저 허는 사름도 있고.(예. 소소히 그저 쪼금씩 하다가 남은 건 그저 저 방망이 저 하는 사람도 있고.)

103024 @ 덩드렁마께 허는 거예.(‘덩드렁마께’ 하는 거요.)

103024 #1 나중에 마지막 그자 쪼끔 남은 건 도리깨질 허질 못헐 정돈헐 건. 많은 건 도리깨질 허고.(나중에 마지막 그저 쪼끔 남은 건 도리깨질 하지를 못할 정도된 것은. 많은 것은 도리깨질 하고.)

103025 @ 줍쌀 마지막 밥 행 먹젠 허민예. 마지막에 장만은 어떻 허코예?(줍쌀 마지막 밥해서 먹으려고 하민요. 마지막에 장만은 어떻게 할까요?)

103025 #1 줍쌀?(줍쌀?)

103025 @ 예. 밥 행 먹을 정도로.(예. 밥해서 먹을 정도로.)

103025 #1 네네 그 강 저 조 골아오면, 골아오면 초벌에 저거 그때 담번에 저 골질 안헤실 거라.(내네 그 가서 저 조 갈아오면, 갈아오면 초벌에 저거 그때 단번에 저 갈지를 앓았을 거야.)

103025 @ 예.(예.)

103025 #1 초벌 두벌 골아나실 거라. 골아근에 이젠 어느 정도 영 보아근에 다 골아 저시면 갓영 오는 거라.(초벌 두벌 갈았었을 거야. 갈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아서 다 갈아졌으면 가져서 오는 거야.)

103025 @ 으.(으.)

103025 #1 갓정 낫다근에 걸로 이젠 밥을 행 먹기 시작헐주.(가져서 놓았다가 그걸로 이젠 밥을 해서 먹기 시작하지요.)

103025 @ 응.(응.)

103025 #1 겐 처음에는.(그래서 처음에는.)

103025 @ 예. 연자매 가근예.(예. 연자매 가서요.)

103025 #1 밥 헐 덕에는 밥 헐 덕에는 물만 놔 어느 정도 물이 막 끌여지민.(밥 할 적에는 밥 할 적에는 물만 넣어 어느 정도 물이 마구 끓어지민.)

103025 @ 예.(예.)

103025 #1 이젠 줍쌀을 놓는 거라.(이젠 줍쌀을 넣는 거야.)

103025 @ 예.(예.)

103025 #1 낱 햅쌀쪼만 잇이민 밥이 뉘부는 뉘는 거라.(넣어서 쪼금쪼만 있으면 밥이 되 버리는 되는 거야.)

103025 @ 예.(예.)

103026 @ 줍쌀로는 대부분 데충 무신 거 헤신고예?(줍쌀로는 대부분 데충 무슨 거

했는데요?)

103026 #1 줍쌀로?(줍쌀로?)

103026 @ 예.(예.)

103026 #1 밥 행 먹꼬.(밥해서 먹고.)

103026 @ 조팍 허고.(조밥 하고.)

103026 #1 또 허린 줍쌀은.(또 차진 줍쌀은.)

103026 #4 차, 차, 차, 끌려오쿠다게.(차, 차, 차, 끌어오겠습니다.)

103026 #1 으, 강 헤어와.(으, 가서 해와.)

103026 #4 예예.(예예.)

103026 #1 허린 줍쌀은 또 이제 오메기떡.<sup>125)</sup>(차진 줍쌀은 또 이제 ‘오메기떡.’)

103026 @ 오메기떡.(‘오메기떡.’)

103026 #1 부제칩들 허는 거 부제칩덜 저기.(부잣집들 하는 거 부잣집들 저기.)

103026 @ 예. 떡예.(예. 떡요.)

103026 #1 저 무신 잔 으, 무신 제삿 때나 허고.(저 무슨 잔 으, 무슨 제사 때나 하  
고.)

103026 @ 예예.(예예.)

103026 #1 허린줍쌀을 잘 안 갈았어.(차진줍쌀을 잘 안 갈았어.)

103026 @ 아, 허린조 안 갈안예.(아, 차조 안 갈아서요.)

103026 #1 부제칩이만 부제칩 사름덜만 갈앙.(부잣집에만 부잣집 사름들만 갈아서.)

103026 @ 아.(아.)

103026 #1 경 행 그자 저 제삿 때만 해 먹쟁 갈곡.(그렇게 해사 그저 저 제사 때만  
해먹으려고 갈고.)

103026 @ 예.(예.)

103026 #1 또 줍쌀에 보리쌀에 서꺼근에 또 먹쟁.(또 줍쌀에 보리쌀에 섞어서 또 먹  
으려고.)

103026 @ 예.(예.)

103026 #1 옛날 부제칩덜은, 저 줍쌀 보릿쌀을 일 년 네냥 서경 먹엇거든, 게 가난헌  
집이 사름덜은 조 때는 조만 먹곡, 보릿 때는 보리만 먹엇거든, 게 가난헌 사름덜은.(옛  
날 부잣집들은, 저 줍쌀 보리쌀을 일 년 내내 섞어서 먹엇거든, 그럼 가난한 집에 사  
름들은 조 때는 조만 먹고, 보리때는 보리만 먹엇거든, 그럼 가난한 사름들은.)

103026 @ 아, 경 허민 감주나 술허고는.(아, 그러면 감주나 술하고는.)

103026 #1 감주 ㄱ뜬 거는.(감주 같은 거는.)

103026 @ 저 식게 허젠 허민.(저 제사 하려고 하면.)

103026 #1 예.(예.)

103026 @ 해사 될 거 아넛과?(해야 될 거 아넛니까?)

---

125) ‘오메기떡’은 차줍쌀 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게 빚은 뒤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삶아 낸 떡을 말하  
는 제주어로 제주 고유의 오메기술을 만드는 술밥으로 쓰인다.



103026 #1 오메기떡 만들앙.(‘오메기떡’ 만들어서.)

103026 @ 예.(예.)

103026 #1 오메기떡 만들앙 이제 그저 탁주 탁주 청주. 것도 부제침이 아니민 가난헌 집인 우리집더렌 원.(‘오메기떡’ 만들어서 이제 그저 탁주 탁주 청주. 것도 부잣집에 아니면 가난한 집에는 우리 집에서는 전혀.)

103026 @ 예.(예.)

103026 #1 그런 건 원 우리 어머니는 그거 원 냄세도 못 마찰서. 가난해부난.(그런 건 전혀 우리 어머니는 그거 전혀 냄세도 못 말았어. 가난해버리니까.)

103026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27 @ 그 조침은 또 아까 허는 거, 불태우는 거예.(그 조짚은 또 아까 하는 거, 불태우는 거요.)

103027 #1 게메, 불태워근에 허고 여유가 잇는 디는 좀 여유가 잇는 디는 또 췌가 잇는 디는.(글쎄, 불태워서 하고 여유가 잇는 데는 좀 여유가 잇는 데는 또 소가 잇는 데는.)

103027 @ 예.(예.)

103027 #1 췌 먹일 거 엇이민 걸로, 먹이긴 헛는디 얼마 못 헤여.(소 먹일 거 없으면 그걸로, 먹이기는 했는데 얼마 못 해.)

103027 @ 예.(예.)

103027 #1 걸 곳곳이 걸 고구마줄기만이 많이 안 먹어.(그걸 끝끝이 그걸 고구마기는 줄기만큼 많이 안 먹어.)

103027 @ 아.(아.)

103027 #1 그냥 잎사귀만 잎사귀만 뜯어 먹이면 말지.(그냥 잎사귀만 잎사귀만 뜯어 먹으면 말지.)

103027 @ 아.(아.)

103027 #1 이 데는 잘 아니 먹영 네버려. 경 해도 거 걸름도 흥곡.(이 데는 잘 안 먹어서 네버려. 그래도 거 거름도 하고.)

103027 @ 걸름도예.(거름도요.)

103027 #1 거기 네북도 흥고 먹단 건.(거기 내버리기도 하고 먹는 건.)

103027 @ 예. 조농사에 데헤서예. 특별나게 생각허는 건.(예. 조농사에 대해서요 특별나게 생각하는 건.)

103027 #1 소걸름도 저 소걸음도 이제 저 보리밭디 농사를 헛주게.(소두엄도 저 소두엄도 이제 저 보리밭에 농사를 헛지.)

103027 @ 아, 조 조.(아, 조 조.)

103027 #1 응.(응.)

103027 @ 조 조.(조 조.)

103027 #1 조 어떻.(조 어떻게.)

103027 @ 예. 조침으로.(예. 조짚으로.)

103027 #1 게메 조 예, 조짚으로는 조짚으로는 아까 저 화목도 허곡.(글쎄 조 예, 조짚으로는 조짚으로는 아까 저 화목도 하고.)

103027 @ 불 때는 거예.(불 때는 거요.)

103027 #1 예예. 옛날에 쉼도 맥이고 경.(예예. 옛날에 소도 먹이고 그렇게.)

103027 @ 예게, 쉼도 먹이고예.(예. 소도 먹이고요.)

103028 @ 조농사에 대한 생각나는 거.(조농사에 대한 생각나는 거.)

103028 #1 생각나는 거 머, 게메 게난 우리는 춤 조를 많이 가난한 집이난 밭이 엇언 조를 못 갈아나봤수다.(생각나는 거 뭐, 글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를 많이 가난한 집이니가 밭이 없어서 조를 못 갈아보았습니다.)

103028 @ 예.(예.)

103028 #1 보리나 쫄금 듬북헨 어머니나 듬북 쫄금 해오면 두말지기 서말지기 그 정도 보리베풀기 못 갈아 것도 초 시기에 이제 옛날은 예 호미 받은 아, 칼 받은 삼월 호미 받은 스월이엔 헛다고.(보리나 쫄금 듬북해서 어머니나 듬북 쫄금 해오면 두말지기 서말지기 그 정도 보리밖에 못 갈아 것도 초 시기에 이제 옛날은 예 호미 받은 아, 칼 받은 삼월 호미 받은 사월이라고 헛다고.)

103028 @ 예.(예.)

103028 #1 웨냐 으, 흥 흥년이기 때문에, 스월 들 나면은 보리익기 전에 호미로 다 베어당 먹어버리면은, 다음에 먹을 것이 엇었다고.(왜냐 오, 흥 흥년이기 때문에, 사월 달 나면은 보리익기 전에 호미로 다 베어다가 먹어버리면, 다음에 먹을 것이 엇었다고.)

103028 @ 칼 맞은 스월예.(칼 맞은 사월요.)

103028 #1 우리 우리집더렌 그렇게 해서.(우리 우리집에는 그렇게 했어.)

103028 @ 예예. 그 말 들었수다 우리도예.(예예. 그 말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103028 #1 우리 어머니가 워낙 가난해부니까 춤 보리 잘나민 혼 말 아이민 두말 아이민 서말 갈아근에 두석 섬 하면은 혼 사람이 보통 보리 혼 사람 아피 보리 두 섬은 갖어야 돼여.(우리 어머니가 워낙 가난해버리니까 참 보리 잘나면 한말 아니면 두말 아니면 세말 갈아서 두석 섬 하면은 한 사람이 보통 보리 한 사람 앞에 보리 두 섬은 가져야 돼.)

103028 @ 예.(예.)

103028 #1 두 섬은.(두 섬은.)

103028 @ 양식 허젠 허면.(양식 하려고 하면.)

103028 #1 예. 조농사까지 먹젠 허면 지금, 경 흥는데 혼 사람 혼 혼 섬 뭇이도 못헤여, 경 해근에 겨우 조농사 보듯 그 텅이곡 또 조농사 끝나면은 다음 보리때까지는 그때 기간이 좀 오래지, 조 낫을 때보다.(예. 조농사까지 먹으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한 한 섬 뭇도 못해, 그렇게 해서 겨우 조농사 바듯 그 다니고 또 조농사 끝나면 다음 보리때까지는 그때 기간이 좀 오래지, 조 낫을 때보다.)

103028 @ 예.(예.)

103028 #1 한 칠 개월 팔 개월 돼지 원추, 팔 개월 동안 살젠 허면은 어려웠지.(한

칠 개월 팔 개월 되지 원체, 팔 개월 동안 살려고 하면은 어려웠지.)

103028 @ 맞수다.(맞습니다.)

### 콩 농사

103029 @ 삼촌 콩도 있어야 될 거 아니ות과예? 콩농사.(삼촌 콩도 있어야 될 거 아  
닙니까요? 콩농사.)

103029 #1 콩?(콩?)

103029 @ 예.(예.)

103029 #1 콩 얼마, 콩 여기 얼마 안 갈아서.(콩 얼마, 콩 여기 얼마 안 갈아서.)

103029 @ 삼촌도 콩 안 갈아나수파?(삼촌도 콩 안 갈았었습니까?)

103029 #1 부자칩이나 갈았주. 우린 어머니 콩 안 못 갈아봐서.(부자칩이나 갈았지.  
우리는 어머니는 콩 안 못 갈아봤어.)

103029 @ 게민 웬장허젠 허민?(그러면 된장하려고 하면?)

103029 #1 게메 부제칩이 사름덜은 콩을 갈아.(글쎄 부자칩에 사람들은 콩을 갈아.)

103029 @ 아.(아.)

103029 #1 게난 어머니는 콩을 콩이 엇언 우리안티 보리장이나 만들어 주곡, 콩이 보  
리가 엇어갓고.(글쎄 어머니는 콩을 콩이 없어서 우리한테 보리장이나 만들어 주고, 콩  
이 보리가 없어가지고.)

103029 @ 아.(아.)

103029 #1 또 어디 강 겨우 얻어단 그자 콩장 좀 만들앙 부족하면 보리장 만들아근  
에 또 보리장을 못 만들민은 껌질차 껌질차 만들앙.(또 어디 가서 겨우 얻어다가 그저  
콩장 좀 만들어서 부족하면 보리장 만들어서 또 보리장을 못 만들면은 껌질째 껌질째  
만들어서.)

103029 @ 아.(아.)

103029 #1 우리 주민 우린 것도 맛있게 우린 입메<sup>126)</sup>가 좋앙 맛있게 먹어났수다.(우  
리 주면 우리는 그것도 맛있게 우리는 ‘입메’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103029 @ 예. 삼촌, 콩은 저기 농사 안 지어봬디가? 젊은 때.(예. 삼촌, 콩은 저기 농  
사 안 지어보셨습니까? 젊은 때.)

103029 #1 젊은 때?(젊은 때?)

103029 @ 예.(예.)

103029 #1 나 젊은 때는 이 우리시대에는, 나 저 이 사람허고 결혼 한 후에는 벨다르  
게 저 콩을 해도 콩 사다근에, 사다근에 이제 혼 번이나 헤 먹당 이젠 웬장 다 농협에  
당 사당 먹어.(나 젊은 때는 이 우리시대에는, 나 저 이 사람하고 결혼 한 후에는 벨다  
르게 저 콩을 해도 콩 사다가, 사다가 이제 한번이나 해먹다가 이제는 된장 다 농협에  
다가 사다가 먹어.)

103029 @ 음.(음.)

126) ‘입메’는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을 말한다.

103029 #1 웬장 안 돕아 이 사름 웬장 돕으렌 헤민 간세헤근에 웬장 안 돕앙.(된장 안 담가 이 사람 된장 담그라고 하면 게을러서 된장 안 담가.)

103029 @ 아, 콩 사다근에예.(아, 콩 사다가요.)

103029 #1 예. 그 전인 콩 사당 장 돕아나서. 옛날에 말이 있어 여자는 장돕아야 일 년 저 집인 일 다 허고 남자는 새, 새 해당 집 일어야.(예. 그 전에는 콩 사다가 장 담갔었어. 옛날에 말이 있어 여자는 장담가야 일 년 저 집에는 일 다 하고 남자는 띠, 띠 해다가 집 이어야.)

103029 @ 예.(예.)

103029 #1 집 일어야 돼어 남저 혈 일 다 헛젠 그런 속담이 있어났주게 옛날에.(집 일어야 되어 남자 할 일 다 했다고 그런 속담이 있었었지 옛날에.)

103029 @ 게민 여기 저기 소섬 우도에는, 콩농사 지어난 사람이 배랑 엿이키여예.(그러면 여기 저기 ‘소섬’ 우도에는, 콩농사 지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겠네요.)

103029 #1 아, 여간 부제침이 사름덜은 쫄끔씩 지어나서 쫄끔씩.(아, 여간 부잣집에 사람들은 조금씩 지었어 조금씩.)

103029 @ 쫄끔씩예.(조끔씩요.)

103029 #1 전문적으로 많이 짓지는 아녀고 콩 잘 돼지도 아녀 여긴 바람 불영 게근에.(전문적으로 많이 짓지는 않고 콩 잘 되지도 않아 여기는 바람 불어서 그래서.)

103029 @ 게민 콩 종류도 배랑 엿이쿠다예? 밥에 콩을 낱 먹어보지도 못 헤시키여예.(그러면 콩 종류도 별로 없겠군요? 밥에 콩을 넣어서 먹어보지도 못 했겠네요.)

103029 #1 그자 어떤 사름덜은 조 조팍다.(그저 어떤 사람들은 조 조발에.)

103029 @ 예.(예.)

103029 #1 콩 콩을 드멍드멍 심엇당.(콩 콩을 드문드문 심었다가.)

103029 #4 차 끓이는 솜씨가 엿수다게.(차 끓이는 솜씨가 없습니다.)

103029 @ 아이고 솜씨가예. 어저께 맛있게 먹엇수다예. 저기 배예.(아이고 솜씨가 요 어저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기 배요.)

103029 #1 배 까강은에 갖다 놔 이레.(배 깎아서 갖다 놔 이리로.)

103029 @ 예. 우리 반 받아왔수다 삼촌.(예. 우리 반 받아왔습니다 삼촌.)

103029 #1 이 분네 어디 간 오늘 저 하우목동당곳<sup>127)</sup> 허는다.(이 분들 어디 갔어 오늘 저 ‘하우목동당곳’ 하는데.)

103029 @ 으, 예.(으, 예.)

103029 #1 경 험 이 우도 헤난 콩으로 저 웬장은 안 돕아 먹어났수다.(그렇게 해서 이 우도 했던 콩으로 저 된장은 안 담가 먹었습니다.)

103029 @ 웬장도 안 허고 밥에 낱 먹는 것도.(된장도 않고 밥에 넣어서 먹는 것도.)

103029 #1 밥에 낱 먹지도 않고.(밥에 넣어서 먹지도 않고.)

103029 @ 예. 콩은예.(예. 콩은요.)

103029 #1 콩밥은 여기서 헤먹어 본적도 엿고.(콩밥은 여기서 해먹어 본적도 없고.)

127) ‘하우목동당곳’은 우도읍 하우목동 본향당에서에서 열린 백중제를 말한다.

### 발벼 농사

103039 @ 삼촌 산디는 갈아 납디가? 산디?(삼촌 발벼는 갈았었습니까? 발벼?)

103039 #1 우리도 가난해부난 산디는 못 갈아봐서.(우리도 가난해버리니까 발벼는 못 갈아봤어.)

103039 @ 아.(아.)

103039 #1 부제침이는 허고.(부잣집에는 하고.)

103039 @ 산디는 어느 저.(발벼는 어느 저.)

103039 #1 오십, 오십.(오십, 오십.)

103039 @ 난전에.(난전에.)

103039 #1 예. 난전에 난전 밭디가 잘 돼어.(예. 난전에 난전 밭이 잘 돼.)

103039 @ 난전 밭디에예.(난전 밭에요.)

103039 #1 이 사름 이 사름 저 제주시에 가기 전에는 이 사름네 집인 쯔끔 부제침이 난 산디 갈아나실거라 이 사람 어릴 때.(이 사람 이 사람 저 제주시에 가기 전에는 이 사람 집에는 쯔끔 부잣집이니까 발벼 갈았었을 거야 이 사람 어릴 때.)

103039 @ 아, 삼촌은 저기 산디 갈아나수파?(아, 삼촌은 저기 발벼 갈았었습니까? )

103039 #4 산디마씨?(발벼요?)

103039 @ 산디 산디.(발벼 발벼.)

103039 #4 예. 산디 갈아 난 아니 씨가에 와는 안 같고, 우리 친정에는.(예. 발벼 갈았어 아니 시가에 와서는 안 같고, 우리 친정에는.)

103039 @ 예. 친정에서.(예. 친정에서.)

103039 #1 우리 친정에서.(우리 친정에서.)

103039 @ 헐 때 한 번 곱아줍서.(할 때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3039 #4 예.(예.)

103039 @ 삼촌 흥끔.(삼촌 조금.)

103039 #4 것이 어릴 때우다마는.(것이 어릴 때입니다마는.)

103039 @ 예.(예.)

103039 #4 산딜 갈면.(발벼를 갈면.)

103039 @ 예. 아 삼촌 저기에. 삼촌 저가 질문허면예. 그거에 맞게 곱아줍서예.(예. 아 삼촌 저기요. 삼촌 저가 질문하면요. 그거에 맞게 말해주십시오.)

103039 #4 예.(예.)

103039 @ 저기에. 산디농스 농스 허젠 허민예.(저기요 발벼농사 농사하려고 하면요.)

103039 #4 예.(예.)

103039 @ 어떤 준비를 어떻 해야 될 건고예.(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103039 #4 그.(그.)

103039 @ 밧을 먼저 갈아야 될 건가마씨?(밭을 먼저 갈아야 될 건가요?)

103039 #4 산디를 갈라면.(발벼를 갈려면.)

103039 #1 처음에는.(처음에는.)

103039 #4 이 산디라는 거는 마, 물론 밧딘 안 돼고, 밧이 질어가지고.(이 밧벼라는 거는 마, 마른 밧에는 안 되고, 밧이 질어가지고.)

103039 #1 습기가 잇는 밧.(습기가 잇는 밧.)

103039 #4 물기가 많이 잇는디 가는데, 우리 친정에는 물기가 많이 잇이문예. 산디를 해 오면예. 에 두 섬도 허곡, 또 스무 말도 안 될 때는 스무 말도 허면은 그땐 기계가 엇일 때니까.(물기가 많이 잇는데 가는데, 우리 친정에는 물기가 많이 있으면요 밧벼를 해오면요 에 두 섬도 하고, 또 스무 말도 안 될 때는 스무 말도 하면은 그때는 기계가 없을 때니까.)

103039 @ 예.(예.)

103039 #1 물ㄱ레로 해야 돼.(연자매로 해야 돼.)

103039 #4 그 물ㄱ레라는 것이 잇어수다 믱을에.(그 연자매라는 것이 있었습시다 마을에.)

103039 @ 예예.(예예.)

103039 #4 우리 사는 믱을에.(우리 사는 마을에.)

103039 @ 예.(예.)

103039 #4 계민 그 물ㄱ레에 강 굴민 쏘이 혼 스무 말씩 헤기네 우리 어머니네 이웃 집이도 혼 사발씩 주고 우리도 먹어났는디.(그러면 그 연자매에 가서 갈면 쌀이 한 스무 말씩 해서 우리 어머니네 이웃집에도 한 사발씩 주고 우리도 먹었었는데.)

103039 @ 응.(응.)

103039 #1 씨가엔 오난에 그 산디를 갈지 안 헛디다게.(시가에는 오니까 그 밧벼를 갈지 안 헛디다.)

103040 @ 계난 산디는 언제 갈 어떻게 갈 건고예? 시기가.(그러니까 밧벼는 언제 갈 어떻게 갈 건가요? 시기가.)

103040 #1 옛날엔 빠꾸기 올민 빠꾸기 올면은 세 산디 간덴 해난는데.(옛날에는 빠꾸기 올면 빠꾸기 올면 새 밧벼 간다고 했었는데.)

103040 @ 응.(응.)

103040 #1 이른 봄에 갈아 일른 봄에.(이른 봄에 갈아 이른 봄에.)

103040 @ 이른 봄에예.(이른 봄에요.)

103040 #1 응 왜냐하면 그건 이제 보릿그르엔 좀 늦어, 보릿그르엔 늦고.(응 왜냐하면 그건 이제 보리그루에는 좀 늦어, 보리그루에는 늦고.)

103040 @ 보릿그르엔 늦고.(보리그루에는 늦고.)

103040 #1 봄 달화난디 봄에 농사 안 헤어난 밧디.(봄 이겨난데 봄에 농사 안 했던 밧에.)

103040 @ 아.(아.)

103040 #1 여름 겨울에 놀려난 밧디.(여름 겨울에 놀렸던 밧에.)

103040 @ 아 예.(아 예.)

103040 #1 경허면 한 사월 달, 오 오월 들쭈메 사월네지 사월에 갈아야 돼. 좀 일찍 늦은 봄에 갈아야 돼.(그러면 한 사월 달, 오 오월 달쭈메 사월네지 사월에 갈아야 돼. 좀 일찍 늦은 봄에 갈아야 돼.)

103040 @ 응.(응.)

103041 @ 산디밭디 거름은 어떤.(밭벼밭에 거름은 어떤.)

103040 #4 거름은 안 험니께.(거름은 안 합니다.)

103040 #1 아 안 험니다.(아 안합니다.)

103041 @ 아, 안 험니까?(아, 안합니까?)

103041 #4 비료도 아무것도 안허고.(비료도 아무것도 않고.)

103041 @ 아, 비료도 안허고예.(아, 비료도 안하고요.)

103041 #1 그땐 비료도 안 나올 때고 그때 산디 갈 때.(그땐 비료도 안 나올 때고 그 때 밭벼 갈 때.)

103042 @ 산디는 뿌리는 거는 산디도 씨는 뿌려야 될 거 아니웃과예?(밭벼는 뿌리는 거는 밭벼도 씨는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요?)

103042 #1 예.(예.)

103042 #4 씨는 뿌립니다.(씨는 뿌립니다.)

103042 @ 보리씨ㄴ치룩 뿌리는가마씨?(보리씨처럼 뿌리는가요?)

103042 #1 보리씨 뿌리듯이.(보리씨 뿌리듯이.)

103042 #4 예. 보리씨ㄴ치룩 뿌립니께.(예. 보리씨처럼 뿌립니다.)

103042 @ 보리씨ㄴ치룩예.(보리씨처럼요.)

103042 #1 게도예. 조 김질매듯이.(그래도요 조 김매듯이.)

103042 #4 나 어릴 때라부난 자세헌 모르कु다마는.(나 어릴 때라서 자세히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103042 @ 예예.(예예.)

103042 #4 우리 어머니는.(우리 어머니는.)

103043 @ 김질은 조 김질매듯이 혼 세 번예.(김은 조 김매듯이 한 세 번예.)

103043 #1 예.(예.)

103043 @ 예.(예.)

103043 #4 예.(예.)

103043 @ 경허고 김매기는? 김질매기.(그렇게 하고 김매기는? 김매기.)

103043 #1 두 번.(두 번.)

103043 @ 오.(오.)

103043 #1 두 번 네지 세 번은.(두 번 내지 세 번은.)

103043 @ 예. 두 번 네지 세 번예.(예. 두 번 내지 세 번요.)

103044 @ 이 저기 산디에 김질은 어떤 것들이.(이 저기 밭벼에 김은 어떤 것들이.)

103044 #4 거 김질마씨?(거 김요?)

103044 @ 예. 산디밭디 김질은.(예. 밭벼밭에 김은.)

103044 #4 아 검질은 원 아명토 안헌디.(아 김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103044 #1 제완지 헤바라기<sup>128</sup>.(바랭이 ‘헤바라기.’)  
 103044 #4 헤바라기.(‘헤바라기.’)  
 103044 #1 물폴 이런 거.(물폴 이런 거.)  
 103044 #4 예. 그런 거 납니다마는.(예. 그런 거 납니다마는.)  
 103044 #1 췌비름 췌비름.(쇠비름 쇠비름.)  
 103044 #4 나 어린 때라서.(나 어린 때라서.)  
 103044 #1 네나 조밧디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내내 조밭에 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44 @ 아, 예예.(아, 예예.)  
 103044 #1 여름에 나는 검질이 있고 겨울에 나는 검질이 잇주게.(여름에 나는 김이 있고 겨울에 나는 김이 있지.)  
 103044 @ 맞수다예. 계절 별예.(맞습니다요 계절 별요.)  
 103044 #1 온도에 따라 똑 ㄹ트질 아녀주게.(온도에 따라 똑 같지를 않지.)  
 103045 @ 산디도 수확할 때는 그 어떻 험니까? 베어다가 무꺼다가?(밭벼도 수확할 때는 그 어떻게 합니까? 베어다가 묶어다가?)  
 103045 #4 비어다가예. 그때는 기계가 엇이니까.(베어다가요.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103045 @ 예예.(예예.)  
 103045 #1 홀테 홀테로.(홀이 홀이로.)  
 103045 #4 도께로 두드니께 도께라는 건 아주머니네 모릅니다게.(도리께로 두드립니다 도리께라는 건 아주머니네 모릅니다.)  
 103045 @ 예예.(예예.)  
 103045 #1 그때는 홀트지 아녀신가?(그때는 홀지 않았는가?)  
 103045 #4 홀테에 홀트긴 홀트는디.(홀이에 홀기는 홀는데.)  
 103045 #1 홀트기도 해난 산디는.(홀기도 했어 밭벼는.)  
 103045 @ 예.(예.)  
 103045 #4 이렇게 홀타 놓고 저런 마당에 놔서 저.(이렇게 홀어 놓고 저런 마당에 놔서 저.)  
 103045 #1 도께로 두드려.(도리께로 두드려.)  
 103045 @ 예.(예.)  
 103045 #4 우리 어머니네 소리흐면서 “에야홍아 에야홍아” 허멍 그 우리 어머니네 그 우리어머니네 두드려난 기억이 납니다게.(우리 어머니네 소리하면서 “에야홍아 에야홍아” 하면서 그 우리 어머니네 그 우리어머니네 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03045 @ 아, 게민 도.(아, 그러면 도.)  
 103045 #4 거 일을 버치문예. 그 노래로 그 일을 이깁디다게.(그 일을 버치면요 그 노래로 그 일을 이깁니다.)

128) ‘헤바라기’는 제보자가 잡초 일종을 말한다.



103045 #1 어 도리는 게 네 네 네.(어 돌리는 것이 네 네 네.)  
 103045 @ 예.(예.)  
 103045 #1 거 줍수질 허멍 저 머 허듯이.(거 잡수질 하면서 저 뭐 하듯이.)  
 103045 @ 예.(예.)  
 103045 #1 네 네 또 밧디 강 일 허멍도 검질메멍도 또 검질 메는 소리가 잇거든.(네 네 또 밧에 가서 일 하면서도 김배면서도 또 김매는 소리가 잇거든.)  
 103045 @ 예.(예.)  
 103045 #1 검질메멍도 이제 그 흥곡 또 이 마당질 흥면서도.(김배면서도 이제 그 하고 또 이 마당질 하면서도.)  
 103045 @ 으.(오.)  
 103045 #1 이제 그 도계질 흥멍, 에야홍아 에야홍아 흥멍.(이제 그 도리깨질 하면서, ‘에야홍아 에야홍아’ 하면서.)  
 103045 @ 예. 에야홍아 에야홍아.(예. ‘에야홍아 에야홍아’.)  
 103045 #4 막 어린 때 우리 어머니네 노래를 해난.(막 어린 때 우리 어머니네 노래를 했어.)  
 103045 #1 박자에 맞추왕 그것 또 박자에 맞추민 뉘주게.(박자에 맞추어서 그것 또 박자에 맞추면 되지.)  
 103046 @ 그 산디로는 산디 쌀은 귀허긴 해신디 이거는 어떤 때 해먹어신고예?(그 밧벼로는 밧벼 쌀은 귀하긴 했는데 이거는 어떤 때 해먹었는가요?)  
 103046 #1 제삿 때.(제사 때.)  
 103046 @ 식계 때.(제사 때.)  
 103046 #1 제사 때 해여먹고.(제사 때 해먹고.)  
 103046 @ 예. 식계 때허고.(예. 제사 때하고.)  
 103046 #1 보통 제사 때 해먹고 해먹엇주.(보통 제사 때 해먹고 해먹엇지.)  
 103046 @ 식계 때 저 메 쫄이나.(제사 때 저 젓메쌀이나.)  
 103046 #1 으으 메쫄로.(오오 젓메쌀로.)  
 103046 @ 또 저기 흰떡 허젠 허민.(또 저기 흰떡 하려고 하면.)  
 103046 #1 또 떡 허젠 허문 그 산디 굴양에 허고.(또 떡 하려고 하면 그 밧벼 갈아서 하고.)  
 103046 @ 산디 굴양에 허고.(밧벼 갈아서 하고.)  
 103047 @ 산디짚은 또 어떻 써신고예?(밧벧짚은 또 어떻게 썼는가요?)  
 103047 #1 산디짚은 옛날엔 신도 삼아나고 이 신.(밧벧짚은 옛날에는 신도 삼았었고 이 신.)  
 103047 @ 신고고예?(신고고요?)  
 103047 #1 신, 멍석도 짜나고 멍석 걸로 이제.(신, 멍석도 짚고 멍석 그걸로 이제.)  
 103047 @ 음, 모자도 짜나신가마씨?(음, 모자도 짚던가요?)  
 103047 #1 모자는 산디짚으로 안허고 보리짚으로, 보리짚으로 모자를 짚주.(모자는

발벗짚으로 얹고 보릿짚으로, 보릿짚으로 모자를 짚지.)

103047 @ 보리짚으로마씨?(보릿짚으로요?)

103047 #1 우리 때까지만 허드라도 보리짚으로 저 쫓타리 끈어근에.(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릿짚으로 저 끝들이 끊어서.)

103047 @ 응.(응.)

103047 #1 쫓타리 끈어근에 그거 해근에 짜그네, 경 해기네 그걸로 으 으렇게 으 너비로 짜근에 걸로 이제 바늘로 이제 망 만들아근에 저 만들아나고.(끝들이 끊어서 그거 해서 짜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요 요렇게 요 너비로 짜서 걸로 이제 바늘로 이제 망 만들어서 저 만들었고.)

103047 @ 아 모자는 경 흥곡예. 모자 그 패랭이에.(아 모자는 그렇게 하고요 모자 그 패랭이요.)

103047 #1 패랭이 모자.(패랭이 모자.)

103047 @ 여름에 패랭이에.(여름에 패랭이에.)

103047 #1 예.(예.)

103047 @ 예.(예.)

103047 #1 나 그 그런 모자 지금 거 사 씨엄주마는 세 개나 잇는디 지금.(나 그 그런 모자 지금 거 사 쓰지마는 세 개나 잇는데 지금.)

103047 @ 그 경 허면은 이제 비 올 때 우장은 만들아나신가마씨? 산디짚으로.(그 그렇게 하면은 이제 비 올 때 우장은 만들었는가요? 발벗짚으로.)

103047 #4 예. 아니 산디가 아니고 산에 강 새 비여당.(예. 아니 발벼가 아니고 산에 가서 띠 베어다가.)

103047 #1 새 새.(띠 띠.)

103047 @ 새예.(띠요.)

103047 #1 우장은 산에서 나는 새로.(우장은 산에서 나는 띠로.)

103047 @ 새로예. 예. 계민 그 산디짚으로는 무시 거 더끄는 거 뭐 초석 같은 것 마당에 까는 것도 명석 같은 것도 안 해신가마씨?(띠로요, 예. 그러면 그 발벗짚으로는 무엇 덮는 거 뭐 초석 같은 것 마당에 까는 것도 명석 같은 것도 않았는가요?)

103047 #1 그건예.(그건요.)

103047 #4 그건예. 우리 하르버지네 명석을 만들아낫수다.(그건요. 우리 할아버지네 명석을 만들었습니다.)

103047 #1 명석만 만들고.(명석만 만들고.)

103047 @ 산디로 명석 해마씨?(발벼로 명석 해요?)

103047 #1 예예. 명석 명석을 짜.(예예. 명석 명석을 짜.)

103047 @ 산디 산디짚으로예.(발벼 발벗짚으로요.)

103047 #1 예. 산디짚으로 명석을 짜 딱시 이제 신도 삼고.(예. 발벗짚으로 명석을 짜다시 이제 신도 삼고.)

103047 @ 신 삼꼬예.(신 삼고요.)

103047 #1 신 삼꼬.(신 삼고.)

103047 @ 산디짚으로 신 삼은 거가 신이 좋은 종텐 헤실 건가마씨?(발벚짚으로 신 삼은 것이 신이 좋은 종다고 했을 건가요?)

103047 #1 아니 아니 산디짚 아니면은 신을 삼을 게 없주게 미<sup>129</sup>엔 혼 거 잇수다 미.(아니 아니 발벚짚 아니면은 신을 삼을 게 없지 새품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새품.)

105015 @ 미.(새품.)

105015 #1 예. 미엔 혼 거 저 어디 이 우도에는 엇고 저 어디 ګ<sup>130</sup>에서 들어왔어신 가.(예. 새품이라고 한 거 저 어디 이 우도에는 없고 저 어디 제주에서 들어왔었는가.)

105015 @ 예.(예.)

105015 #1 그거시 ㄴ<sup>131</sup>을 헤서 ㄴ.(그것이 ‘ㄴ’을 했어 ‘ㄴ.’)

103047 @ 예.(예.)

103047 #1 세끼를 꼬아갓고 ㄴ을 만들앗어, 산디짚보단 그게 질기니까 지금 이제.(새끼를 꼬아가지고 ‘ㄴ’을 만들었어, 발벚짚보다는 그게 질기니까 지금 이제.)

103047 @ 예. 그거 허고예. 게민 저기 여자 삼춘은.(예. 그거 하고요. 그러면 저기 여자 삼춘은. )

103047 #4 아니우다게 드십서게. 점심이영 사 잡습디가?(아닙니다 드십시오. 점심하고 사 잡수셨습니까?)

103047 @ 예예. 우리 막 먹엇수다 이것도 먹어봅서예. 삼춘네 걱정 안허게시리.(예예. 우리 막 먹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보십시오. 삼춘네 걱정 않게끔.)

103048 @ 게민 여자 삼춘은 산디 헤 나면은 어머니네 마당에서 이야홍아.(그러면 여자 삼춘은 발벼 하고 나면 어머니네 마당에서 이야홍아.)

103048 #4 예. 이야 홍아 어야 홍아.(예. 이야홍아 어야홍아.)

103048 @ 이야홍아 이야홍아.(이야홍아 이야홍아.)

103048 #4 그렇게 헤서 나 어릴 때 보면.(그렇게 했어 나 어릴 때 보면.)

103048 @ 예.(예.)

103048 #4 어머니네가 경 험 그 산디촨을 굴면, 물ㄱ레라고 험니다게 이제는 기계가 잇이난 테작허지만은.(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그 발벼쌀을 갈면, 연자매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계가 있으니까 타작하지만은.)

103048 #1 연자방아게 연자방아.(연자방아 연자방아.)

103048 #4 그때는 이만큼 ㅎ니까.(그때는 이만큼 하니까.)

103048 @ 예.(예.)

103048 #1 물ㄱ랑.(연자매.)

103048 #4 둘레돌을 만들어 가지고.(둘레돌을 만들어 가지고.)

103048 @ 이 거예.(이 거요.)

103048 #4 아이 그치록 헤난 거 나가 기억이 납니까.(아이 그처럼 했던 거 나가 기억

129) ‘미’는 제보자가 ‘미뻬쟁이’를 말한다.

130) ‘ګ’은 여기에서 제주 본섬을 말한다.

131) ‘ㄴ’은 짚신을 삼을 때 짚신 바닥에다 신의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은 줄이다.

이 납니다.)

103048 @ 예. 그치록 해난 거예.(예. 것처럼 했던 거요.)

103048 #4 우리 어머니넌 못 살진 안햇수다게.(우리 어머니네는 못 살지는 않았습니  
다.)

103048 @ 예예.(예예.)

103048 #4 저 재산은 좋아났수다게.(저 재산은 좋았습니다.)

103048 #1 밋이 혼 이 삼천 평은 잇어났수다게 여기 사름덜.(밭이 한 이 삼천 평은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103048 @ 예예.(예예.)

103048 #4 재산은 막 좋아났는다.(재산은 막 좋았었는데.)

103048 #1 막 존 건 아니고 혼 이삼천 평 잇어.(막 좋은 건 아니고 한 이삼천 평 있  
어.)

103048 #4 우리 어머니네가 저.(우리 어머니가 저.)

103048 #1 우리 장인어른이.(우리 장인어른이.)

103048 @ 예예.(예예.)

103048 #4 나 공부 안시켜부난 이제 막 후웁헉니께.(나 공부 안시켜버리니까 이제 막  
후회합니다.)

103048 #1 ㄱ찌 안 살안, 육지 저 배 타부니까.(함께 안 살았어, 육지 저 배 타버리니  
까.)

103048 @ 으.(으.)

103048 #1 우리 장인어른하고 ㄱ찌 오래 살지. 저 혼디 동거 생활을 안해부난 농사를  
많이 헐 수가 엇엇주 밋이 좀 잇어도.(우리 장인어른하고 함께 오래 살지. 저 한테 동거  
생활을 앓아버리니까 농사를 많이 할 수가 없었지 밋이 좀 잇어도.)

103048 @ 음.(음.)

### 고구마 농사

103049 @ 이제 고구마 농사고구마예.(이제 고구마 농사고구마요.)

103049 #1 음.(음.)

103049 #4 고구마는 많이 헤낫수다. 고구마덜은.(고구마는 많이 했었습니다. 고구마들  
은.)

103049 @ 음.(음.)

103049 #1 고구마는 육십년 대.(고구마는 육십년 대.)

103049 #4 고구마는 누나 엇이.(고구마는 누구나 없이.)

103049 @ 음.(음.)

103049 #1 육십오 년.(육십오 년.)

103049 #4 이 우도 ㅁ을이 다 전체가 헤낫수다게.(이 우도 마을이 다 전체가 했었습  
니다.)

103049 #1 육십오 년도부터 혼 팔십 년도 팔십오 년까지.(육십오 년도부터 한 팔십 년도 팔십오 년까지.)

103049 @ 고구마농사 허젠 허민, 준비를 어떻 허코예? 고구마 저.(고구마농사 하려고 하면,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고구마 저.)

103049 #1 고구마씨를.(고구마씨를.)

103049 @ 씨가예.(씨가요.)

103049 #1 이제 상자에, 상자에 방에 낫다가 방에, 낫다가 이제 에 봄 나면 입춘 들면 저 저, 이제 이월 혼.(이제 상자에, 상자에 방에 낫다가 방에, 놓았다가 이제 에 봄 나면 입춘 들면 저 저, 이제 이월 한.)

103049 @ 유월 유월 전에.(유월 유월 전에.)

103049 #1 아, 이월.(아, 이월.)

103049 @ 아, 이월.(아, 이월.)

103049 #1 음력으로 이월 보름 경에.(음력으로 이월 보름 경에.)

103049 @ 예.(예.)

103049 #1 음력으로 이월 보름 경에 이제 모종을 놓니께.(음력으로 이월 보름 경에 이제 모종을 놓습니다.)

103049 @ 예.(예.)

103049 #1 묘상을 만들앙.(묘상을 만들어서.)

103049 @ 예.(예.)

103049 #1 예, 거 옛날에는 으 근래에 육십년도 이후에는 비료 나옴 시작하니까는 비니루 더졌주만은 그 전에는 비니루 안 더졌수다게.(예, 거 옛날에는 요 근래에 육십년도 이후에는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비닐 덮었지만은 그 전에는 비닐 안 덮었습니다.)

103049 @ 예.(예.)

103050 #1 자연적으로 나게끔 했는데,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나게끔 이렇게 했고 저 유월 한 십일부터 유월 일이나 십일부터, 유월 일일부터 밭디 가 심읍주마씨.(자연적으로 나게끔 했는데,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나게끔 이렇게 했고 저 유월 한 십일부터 유월 일이나 십일부터, 유월 일일부터 밭에 가 심지요.)

103050 #4 수확허는 거 말잇과?(수확하는 거 말입니까?)

103050 @ 음.(음.)

103050 #1 아, 심는 거.(아, 심는 거.)

103050 #4 아, 고구마 심는 거.(아, 고구마 심는 거.)

103050 @ 예.(예.)

103050 #1 저 경운기로나 웨로나 갈아근에.(저 경운기로나 소로나 갈아서.)

103050 @ 응.(응.)

103050 #1 갈아근에 이제 그 심는 거라마씨.(갈아서 이제 그 심는 거예요.)

103050 @ 응.(응.)

103050 #1 이레 영 부쩌가면서 이제 그 이랑에.(이리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제 그

이랑에.)

103050 @ 이랑에 영.(이랑에 이렇게.)

103050 #1 예. 이랑에게.(예. 이랑에게.)

103050 @ 계민 고구마줄은 어느 정도씩 잘라근에.(그러면 고구마기는줄기는 어느 정도씩 잘라서.)

103050 #1 삼십 센치가 좋습니께.(삼십 센티가 좋습니다.)

103050 @ 아, 삼십 센치.(아, 삼십 센티.)

103050 #1 고구마가 삼십 센치 그 이상은 찢르면은 저 에 찢끔 수확이 떨어져 혼 오십 센치로 싱거버리면 이 양쪽으로 고구마가 드니까 양쪽으로 이제 고구마가 달리니까. 그 삼십 센치가 좋다합디다 보통으로.(고구마가 삼십 센티 그 이상은 자르면은 저 에 조끔 수확이 떨어져 한 오십 센티로 심어버리면 이 양쪽으로 고구마가 드니까 양쪽으로 이제 고구마가 달리니까. 그 삼십 센티가 좋다합디다 보통으로.)

103050 @ 삼십 센치, 예예. 게 고구마 순 심을 때는 손으로만 꺾 눌러면.(삼십 센티, 예예. 그럼 고구마 순 심을 때는 손으로만 꺾 누르면.)

103050 #1 예.(예.)

103050 @ 아, 그렇게만.(아, 그렇게만.)

103050 #1 이렇게 꺾 눌러민.(이렇게 꺾 누르면.)

103050 @ 꺾 눌러근에.(꺾 눌러서.)

103050 #1 그 가운데까지도 들어가.(그 가운데까지도 들어가.)

103050 @ 예.(예.)

103050 #1 그 땅이 며 혈 때는.(그 땅이 뭐 할 때는.)

103050 @ 응.(응.)

103050 #1 들어 강 이젠 더퍼근에.(들어가서 이제는 덮어서.)

103050 @ 응.(응.)

103050 #1 이렇게 해서 허다보면 또 가을되면.(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또 가을되면.)

103050 @ 예.(예.)

103050 #1 그대로 해서 거 며 그 전에는 고구마 그 검질도 메 주어.(그대로 해서 거 뭐 그 전에는 고구마 그 김도 매줘.)

103050 @ 검질은 저기.(김은 저기.)

103050 #1 고구마가 완전히 얼켜지기 이전에.(고구마가 완전히 영켜지기 이전에.)

103050 @ 예. 고구마는 유월에 유월 초에 부터에 저 심는.(예. 고구마는 유월에 유월 초에 부터에 저 심는.)

103050 #1 유월 십일까지라.(유월 십일까지야.)

103050 @ 예. 유월 십일까지.(예. 유월 십일까지.)

103050 #1 유월 혼 이십일까지도 심어.(유월 한 이십일까지도 심어.)

103050 @ 예.(예.)

103050 #4 심 심으는 거 말잇과?(심 심는 거 말입니까?)

103050 @ 예. 쉘나 그런 이랑을 만들어근에예.(예. 소나 그런 이랑을 만들어서요.)  
 103050 #1 예. 이랑을 만들엉.(예. 이랑을 만들어서.)  
 103050 #4 봄에 심을 겨우다게.(봄에 심을 겁니다.)  
 103051 @ 경 허곡 고구마 밧디 걸름은 엇 걸름은.(그렇고 고구마 밧에 거름은 엇 거  
 림은.)  
 103051 #1 비료, 옛날에는 저 지금은 비료고.(비료, 옛날에는 저 지금은 비료고.)  
 103051 @ 예. 옛날에.(예. 옛날에.)  
 103051 #1 옛날에는 듬북 켜아나니까.(옛날에는 듬북 켜아나니까.)  
 103051 @ 아, 듬북.(아, 듬북.)  
 103051 #1 비료가 돼어 잇는 거라.(비료가 되어 잇는 거야.)  
 103051 @ 예.(예.)  
 103051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51 @ 예. 듬북헤난.(예. 듬북했던.)  
 103051 #1 비료가 엇일 땐.(비료가 없을 땐.)  
 103051 @ 고구마 심기 전에 저기 농사 지어난 밧.(고구마 심기 전에 저기 농사 지  
 었던 밧.)  
 103051 #1 아, 계난 보리끄르에 가는 거라.(아, 그러니까 보리그루에 가는 거야.)  
 103051 @ 보리끄르에예. 보리끄르에.(보리그루에요. 보리그루에.)  
 103051 #1 보리그루 아니면 밧이 엇으니까.(보리그루 아니면 밧이 없으니까.)  
 103051 @ 예. 불치는 저기 고구마 헐 때 불치 씹니까? 쓰지예?(예. ‘불치’는 저기 고  
 구마 할 때 ‘불치’ 씹니까? 쓰지요?)  
 103051 #1 불치<sup>132)</sup> 안 뿌려.(‘불치’ 안 뿌려.)  
 103051 @ 불치 안 뿌려마씨?(‘불치’ 안 뿌려요?)  
 103051 #1 불치 안 뿌려.(‘불치’ 안 뿌려.)  
 103051 @ 으.(으.)  
 103051 #4 이젠 불치가 엇수다.(이젠 ‘불치’가 없습니다.)  
 103051 #1 불치도 엇고.(‘불치’도 없고.)  
 103051 @ 옛날에.(옛날에.)  
 103051 #1 아니.(아니.)  
 103051 @ 옛날에 불치도 고구마에는 안 헤나수짜?(옛날에 ‘불치’도 고구마에는 안 했  
 었습니까?)  
 103051 #1 안 헤여 안 뿌려. 불치는.(얹아 안 뿌려. ‘불치’는.)  
 103051 @ 어.(어.)  
 103051 #1 보통 보리 가는디 겐디 그제 보리 갈 때 불치를 많이 뿌렸다고 옛날엔.(보  
 통 보리 가는데 그런데 그제 보리 갈 때 ‘불치’를 많이 뿌렸다고 옛날에는.)  
 103051 @ 보리 보리.(보리 보리.)

132) ‘불치’는 검부러기 따위를 태우는 데서 생긴 재를 말한다.

103051 #4 그걸 던져볼지 못 허니까.(그걸 던져버리지 못 하니까.)  
 103051 #1 던져볼지 못 허영.(던져버리지 못해서.)  
 103051 @ 아.(아.)  
 103051 #4 거 불치를 처분을 못허니까.(거 ‘불치’를 처분을 못하니까.)  
 103051 #1 불치를 네볼지 못허니까.(‘불치’를 내버리지 못하니까.)  
 103051 @ 아.(아.)  
 103051 #4 거 밧디를 저 이런 마당에.(거 밧에를 저 이런 마당에.)  
 103051 #1 굴목에 잇는 불치.(아궁이에 잇는 ‘불치.’)  
 103051 #4 데밀 수가 엇으니까 밧디 간 뿌린 거지.(쟁일 수가 없으니까 밧에 가서 뿌린 거지.)  
 103051 #1 어.(어.)  
 103051 @ 아.(아.)  
 103051 #4 걸름으로 뿌린 건 아니우다게.(거름으로 뿌린 건 아닙니다.)  
 103051 @ 아.(아.)  
 103051 #1 게메.(글쎄.)  
 103051 #4 네가 생각할 때는 걸름으로 뿌린 게 아니고.(내가 생각할 때는 거름으로 뿌린 것이 아니고.)  
 103051 #1 저 어떤 사름덜은 걸름 웬다고도 하고.(저 어떤 사름들은 거름 된다고도 하고.)  
 103051 @ 예.(예.)  
 103051 #4 처분을 못허니까.(처분을 못하니까.)  
 103051 #1 어떤 사름은 안 웬다고도 하고.(어떤 사름은 안 된다고도 하고.)  
 103051 #4 밧디 간 뿌린 거라마씨.(밧에 가서 뿌린 거예요.)  
 103051 @ 아, 불치가.(아, ‘불치’가.)  
 103051 #1 예.(예.)  
 103051 #4 예.(예.)  
 103051 @ 그러면 지슬도 안 심어놔수파?(그러면 감자도 안 심었었습니까?)  
 103051 #1 지슬을 지슬을 위해서 불치는 안 뿌려나서. 안 뿌려.(감자를 감자를 위해서 ‘불치’는 안 뿌렸었어. 안 뿌려.)  
 103051 @ 예. 아까는 저기.(예. 아까는 저기.)  
 103051 #4 보리 갈 때.(보리 갈 때.)  
 103052 @ 예. 감저는 손으로 이 감저는 이 손으로 꼭꼭 눌러근에예.(예. 고구마는 손으로 이 고구마는 이 손으로 꼭꼭 눌러서요.)  
 103052 #4 예.(예.)  
 103052 @ 양쪽 곳으로예.(양쪽 끝으로요.)  
 103052 #4 예.(예.)  
 103052 @ 감저 밧디도 검질이 올라오자나예. 그거는.(고구마 밧에도 김이 올라오지



요. 그거는.)

103052 #4 이 거 고구마줄 아십니까?(이 거 고구마기는줄기 아십니까?)

103052 @ 예.(예.)

103052 #1 그러면은 이렇게 반이가 이렇게 올라가지면.(그러면은 이렇게 반이 이렇게 올라가지면.)

103052 @ 예. 경 쪽쪽 눌렁예.(예. 그렇게 쪽쪽 눌러서요.)

103052 #4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103052 #1 눌러.(눌러.)

103052 #4 끈끈 눌러서 예. 그렇게 헛수다게.(꼭꼭 눌러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103052 @ 예.(예.)

103053 @ 고구마밭디 검질, 저 검질은?(고구마밭에 김, 저 김은?)

103053 #1 땀니다게.(땀니다.)

103053 @ 예. 검질.(예. 김.)

103053 #1 겐디 이제는 약 쥐 불면.(그런데 이제는 약 쥐 버리면.)

103053 @ 어.(어.)

103053 #1 이제 제초제 해불면 안 나는데.(이제 제초제 해버리면 안 나는데.)

103053 @ 지금 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103053 #1 어우러지기 전에.(어우러지기 전에.)

103053 @ 예. 흄 나가민.(예. 조금 나가면.)

103053 #1 싹이 나지 못하여 그 검질이 나지 못 허는데.(싹이 나지 못해 그 김이 나지 못 하는데.)

103053 @ 예.(예.)

103053 #1 옛날에는 그런 제초제 안 나올 땐 고구마 검질은 메수다게.(옛날에는 그런 제초제 안 나올 땐 고구마 김은 매었습니다.)

103053 @ 검질예.(김요.)

103053 #1 예.(예.)

103053 @ 영 앓아근예 영 영 특허게.(이렇게 앓아서 이렇게 이렇게 특허게.)

103053 #1 전부 감저나 낭 거 다 뽑아 쫓수다게.(전부 고구마나 난 거 다 뽑아 쫓습니다.)

103053 @ 으.(으.)

103053 #1 전부 어우러져불면 그늘져불면 또 안 나는 거라. 저어.(전부 어우러져버리면 그늘져버리면 또 안 나는 거야. 저어.)

103053 @ 맞수다.(맞습니다.)

103053 #1 그늘져불면 안 나거든게.(그늘져버리면 안 나거든.)

103053 @ 으.(으.)

103053 #1 그늘 안 질 땐 나고.(그늘 안 질 때는 나고.)

103053 @ 으, 맞수다.(으. 맞습니다.)

103053 #1 햇빛 받으면 나곡 햇빛 안 받은 딴 못 나.(햇빛 받으면 나고 햇빛 안 받은 데는 못 나.)

103054 @ 감저밭디 검질은 또 어떤 것들이 잇어신고예? 그때.(고구마밭에 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그때.)

103054 #1 네네 것도 마찬가지로 췌비름.(내내 것도 마찬가지로 쇠비름.)

103054 @ 췌비름.(쇠비름.)

103054 #1 제완지.(바랭이.)

103054 @ 제완지이.(바랭이.)

103054 #1 예.(예.)

103055 @ 어, 감저 감저를 팔 때예. 팔 때는 그 어떻 허고 줄부터 먼저.(어, 고구마 고구마를 팔 때요 팔 때는 그 어떻게 하고 줄부터 먼저.)

105055 #1 옛날에는 줄 다 호미로 다 찼라.(옛날에는 줄 다 낫으로 다 찼라.)

105055 @ 예. 줄 걷어난 다음.(예. 줄 걷어난 다음.)

105055 #1 줄을 걷는 거라 경 헤난 다음에 굴쟁이로.(줄을 걷는 거야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호미로.)

103055 @ 예.(예.)

105055 #1 예. 경 행 옛날에는 굴쟁이로 찼는데 지금은 이젠 저 경운기.(예.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호미로 찼는데 지금은 이젠 저 경운기.)

103055 #4 기계가 좋아노니깐.(기계가 좋으니까.)

103055 @ 지금은 경운기로 하고.(지금은 경운기로 하고.)

103055 #1 예. 지금은 저 이제 파는 기계가 잇어.(예. 지금은 저 이제 파는 기계가 있어.)

103055 @ 옛날 옛날에.(옛날 옛날에.)

103055 #4 그때는 기계가 엇이니까.(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103055 #1 옛날에 순 손으로.(옛날에 순 손으로.)

103055 #4 손으로 다 찼지만.(손으로 다 찼지만.)

103055 #1 아, 또 손으로.(아, 또 손으로.)

103055 @ 예.(예.)

103055 #4 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103055 #1 아, 손으로도 찼어. 손으로도 찼어.(아, 손으로도 찼어. 손으로도 찼어.)

103055 #4 경 험니께게.(그렇게 합니다.)

103055 @ 아, 손으로도? 아, 저.(아, 손으로도? 아, 저.)

103055 #1 손으로.(손으로.)

103055 @ 굴쟁이로 안 헤근예, 기계로 안 헤기네.(호미로 안 해서, 기계로 안 해서.)

103055 #1 이 이랑을 가는 거라.(이 이랑을 가는 거야.)

103055 @ 어.(어.)

103055 #1 이랑을 이랑을 갈면 고 저 감저가 이렇게 이렇게 나서 둥글어.(이랑을 이

랑을 갈면 고 저 고구마가 이렇게 이렇게 나서 둥글어.)

103055 @ 어.(어.)

103055 #1 둥글어 게민 막 주어서 모여놓는 거지.(둥글어 그러면 마구 주워서 모아놓는 거지.)

103055 @ 아, 손으로예.(아, 손으로요.)

103055 #1 예.(예.)

103055 @ 흠이 막 딱딱 허진 안습니까?(흠이 막 딱딱하지는 안합니까?)

103055 #1 아, 안 딱딱허여 안 딱딱허여.(아, 안 딱딱해 안 딱딱해.)

103055 #4 우리 지금 감저 싱거 잇수다.(우리 지금 고구마 싱어 있습니다.)

103056 @ 아, 감저는, 보관은 어떻 험니까?(아, 고구마는,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103056 #1 감저는 여기는 옛날에는 구텡이 파근에 묻어놔는데 아주 옛날에는.(고구마는 여기는 옛날에는 구텡이 파서 묻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103056 @ 예.(예.)

103056 #1 이제는 구텡이 안 팡 그자 상자에 놔서 그자 방안에 놔두면.(이제는 구텡이 안파서 그저 상자에 넣어서 그저 방안에 놔두면.)

103056 @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56 #1 옛날에는 구텡이 팡 묻어나서.(옛날에는 구텡이 파서 묻었었어.)

103056 @ 구텡이 팡.(구텡이 파서.)

103056 #1 구텡이 파.(구텡이 파.)

103056 @ 으.(으.)

103056 #1 그기 윽으로 늑람지<sup>133)</sup> 둘러놓아 도<sup>134)</sup> 우이 늑람지 더꺼 더꺼근에 겨울 네낭 그자 그 구멍으로 손 디물량.(거기 옆으로 ‘늑람지’ 둘러놓아 ‘도’ 위에 ‘늑람지’ 덮어 덮어서 겨울 내내 그저 그 구멍으로 손 들이밀어서.)

103056 @ 예.(예.)

103056 #1 이제 꺾다 꺼네가명 찌어도 먹고.(이제 가져다 꺼내가면서 찌도 먹고.)

103056 @ 예. 감저 이제 우리는 감저엔 허는디예.(예. 고구마 이제 우리는 고구마라고 하는데요.)

103056 #1 으, 감저.(으, 고구마.)

103056 @ 감저 감저엔.(고구마 고구마에는.)

103056 #1 으, 감저.(으, 고구마.)

103056 @ 예. 경 허면은 그 저기 구텡이에서 썩은 거가 절반일건디예.(예. 그러면 그 저기 구텡이에서 썩은 것이 절반일건데요.)

103056 #1 경 그땐.(그렇게 그땐.)

103056 @ 감저는.(고구마는.)

103056 #1 잘못 잘못 팔리흐면 또 물이 들어가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허면 썩을 수

133) ‘늑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말한다.

134) ‘도’는 어떤 장소의 입구를 말한다.

가 잇었지. 잘 관리해야.(잘못 잘못 관리를 하면 또 물이 들어가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하면 썩을 수가 있었지. 잘 관리해야.)

103056 @ 감저놓은 저기 집이 몇 개 정도 늘어 이십니까?(고구마가리는 저기 집이 몇 개 정도 가리어 있습니까?)

103056 #1 우리 우리 우리 저 사는 사름덜은 감저 아니?(우리 우리 우리 저 사는 사 랐들은 고구마 아니?)

103056 #4 우리 여기 이 하르버지 만난 올 땐 그런 거 었어수다.(우리 여기 이 할아 버지 만나서 올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103056 @ 예.(예.)

103056 #1 그땐 감저까지는.(그땐 고구마까지는.)

103056 #4 열일곱 열다섯 설에.(열일곱 열다섯 살에.)

103056 #1 구덩이 안 묻고.(구덩이 안 묻고.)

103056 @ 예.(예.)

103056 #4 그 감저를 놓엇지 지금은 안 놓엇수게게.(그 고구마를 가리어엇지 지금은 안 가리어었습니다.)

103056 @ 예.(예.)

103056 #1 예, 한 육십년대 이전에.(예, 한 육십년대 이전에.)

103056 @ 으.(으.)

103056 #1 육십년대 이전에는 나가 웨가에 강 보면은 웨하르방네가 감저를 구덩이에 묻어근에.(육십년대 이전에는 나가 외가에 가서 보면 외할아버지네가 고구마를 구덩이에 묻어서.)

103056 @ 으.(으.)

103056 #1 이제 현 현 걸 봐놔주.(이제 현 현 걸 봤엇지.)

103056 @ 나중에 수매해부니깐 바로바로 해근에 가불고예.(나중에 수매해버리니까 바로바로 해서 가버리고.)

103056 #1 예. 나중에는.(예. 나중에는.)

103057 @ 예. 여기 저기 여기서 감저는 절간고구마호고.(예. 여기 저기 여기서 고구 마는 절간고구마하고.)

103057 #1 예.(예.)

103057 @ 또 소주로 행 육지에 파는 거 호고.(또 소주로 해서 육지에 파는 거 하고.)

103057 #1 예.(예.)

103057 @ 그전에는 졸망 먹은 거 호고.(그전에는 삶아서 먹은 거 하고.)

103057 #1 게 절간고구마가 육지에 파는 거.(그럼 절간고구마가 육지에 파는 거.)

103057 @ 예. 절간 감저호고 그거 호고.(예. 절간 감저하고 그거 하고.)

103057 #1 예 또 썩감저는 썩고구마는 여기 씨로도 냉기고 씨로 냉기는 거 뿐이주. (예 또 생고구마는 생고구마는 여기 씨로도 넘기고 씨로 넘기는 거 뿐이지.)

103057 @ 씨로 냉기는 거예.(씨로 넘기는 거요.)

103057 #1 게고 또 간식으로 짬뽕 그자,(그리고 또 간식으로 조금 그저,)  
 103057 @ 으.(으.)  
 103057 #1 먹을라고 냉기는 사름도 잇고 경 현디.(먹으려고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테.)  
 103057 @ 예.(예.)  
 103057 #1 좀 해 간식으로도 잘 안 먹어났다고.(좀 해 간식으로도 잘 안 먹었었다고.)  
 103057 @ 아 그 옛날에도 저기 감저 숲망 먹어나지 안 해수파?(아 그 옛날에도 저기 고구마 삶아서 먹었었지 았았습니까?)  
 103057 #1 아, 옛날에는 고구마로 때 행 먹었주.(아, 옛날에는 고구마로 때 해서 먹었지.)  
 103057 @ 때 행 먹고예.(때 해서 먹고요.)  
 103057 #1 밥을 아니 행 먹영 졸이 엇어근예.(밥을 아니 해서 먹어서 쌀이 없어서.)  
 103057 @ 예.(예.)  
 103057 #1 감저로만 때 산 사름도 잇어.(고구마로만 때 산 사람도 았어.)  
 103057 @ 예. 감저예.(예. 고구마로요.)  
 103057 #1 때를 메운 사름도 잇어.(때를 메운 사람도 았어.)  
 103057 @ 절간고구마가 빼떼기 아니파?(절간고구마가 절간고구마 아닙니까?)  
 103057 #4 예.(예.)  
 103057 #1 빼떼기 빼떼기.(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103057 @ 빼떼기예. 저기 그 빼떼기 널 때.(절간고구마요 저기 그 절간고구마 널 때.)  
 103057 #1 예.(예.)  
 103057 @ 널고 들이고 비 맞으면 안웨니까예.(널고 들이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요.)  
 103057 #1 밧디 썰멍 그대로 밧디 널어나서. 게 말 말르면 하나 하나 좇어났서 경 흥 단 그 이후에는 망사ㄴ쁜 것도 나오고 그물ㄴ쁜 것도 나오고.(밭에 썰면서 그대로 밧에 널었어. 그래서 말 마르면 하나 하나 주웠었어 그렇게 하다 그 이후에는 망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물 같은 것도 나오고.)  
 103057 @ 으.(으.)  
 103057 #1 경해서 이제 썰면은 이제 망사에도 널곡 그물에도 널면 쉽지.(그래서 이제 썰면 이제 망사에도 널고 그물에도 널면 쉽지.)  
 103057 @ 응.(응.)  
 103057 #1 그 전에는 그 그물망사 엇일 덕에는.(그 전에는 그 그물망사 았을 적에는.)  
 103057 @ 밧디.(밭에.)  
 103057 #1 저 그자 흥 ㄴ쁜디 널었다근예 하나하나 밤이 밤이 가네 흥나흥나 좇어나서 비 온텐 하나하나 땅 속에 흥 거 하나하나 일일이 좇어났다고, 세났서 세 나서, 하나 하나.(저 그저 흥 같은데 널었다가 하나하나 밧에 밧에 가서 하나하나 주웠었어 비 온다고 하나하나 땅 속에 한 거 하나하나 일일이 주웠었다고, 세었었어 세었었어, 하나하나.)

103057 @ 비예. 비 비 맞이민 안 되니까예.(비요 비 비 맞으면 안 되니까요.)

103057 #1 으, 비 맞히민 안 돼니까 지금.(으, 비 맞히면 안 되니까 지금.)

103058 @ 그 옛날에 저기 저기 감저줄기는예. 옛날에.(그 옛날에 저기 저기 고구마줄기는요. 옛날에.)

103058 #1 예.(예.)

103058 @ 그거는 어떻게 해기네 누구 쉼 맥어나신가예?(그거는 어떻게 해서 누구 소 먹였는가요?)

103058 #1 쉼 먹을 용으로.(소 먹을 용으로.)

103058 @ 예.(예.)

103059 @ 여기 이 저기 감저예. 이 농사에 대해서 어릴 적에나 나중에 지금이라도 제일 큰 뭐 수확이 좋아근에 해근에 돈을 하영 사났던가 해난 그 그런 기억이라든가예. (여기 이 저기 고구마요 이 농사에 대해서 어릴 적에나 나중에 지금이라도 제일 큰 뭐 수확이 좋아서 해서 돈을 많이 샀던가 했던 그 그런 기억이라든가요.)

103059 #1 그 고구마예.(그 고구마예.)

105015 @ 예. 감저엔 곱아줍서 감저 고구마가.(예. 고구마라고 말해주십시오 고구마 고구마가.)

105015 #1 감저에 돈 사보기는 뭐 큰돈은 못 사. 그자 저 생고구마로 해서 그자 한 천 평에를 갈면은 그자 한 백만 원 나신가?(고구마에 돈 사보기는 뭐 큰돈은 못 사. 그저 저 생고구마로 해서 그저 한 천 평에를 갈면 그저 한 백만 원 났는가?)

103059 #4 아, 그때는 늘감저로 받아가랏수께.(아, 그때는 날고구마로 받아갔었습니다.)

103059 @ 예.(예.)

103059 #1 늘감저로게 게메.(날고구마로 글썸.)

103059 #4 아, 돈이 되든 말든 예를 들어가지고 천 평을 싱그면 몇 가마니 나오면 완전 상인덜 받아가랏수다게.(아, 돈이 되든 말든 예를 들어가지고 천 평을 심으면 몇 가마니 나오면 완전 상인들 받아갔었습니다.)

103059 @ 특별하게 추억 같은 거. 저 감저에 대해서예.(특별하게 추억 같은 거. 저 고구마에 대해서요.)

103059 #1 추억 ㄱ쁜 건 어릴 덕에 감저 삶양 먹어난 거나 인척에 국민학교 일학년 때 조 불리레 가니까는 그 주인어른이.(추억 같은 건 어릴 적에 고구마 삶아서 먹었던 거나 일찍 초등학교 일학년 때 조 밟으러 가니까는 그 주인어른이.)

103059 #1 게난 감저가.(그러니까 고구마가.)

103059 @ 아, 감저.(아, 고구마.)

103059 #1 좋다는 건 우리가 조 보리보단 좋다는 건 춤 감저를 풀아서 우리 쏘을 사 먹었어. 그 전에는 쏘 낱 못 먹었어, 감저 갈기 시작한 후론 삶양먹기 시작 했다고.(좋다는 건 우리가 조 보리보다는 좋다는 건 참 고구마를 팔아서 우리 쌀을 사먹었어. 그 전에는 쌀 넣어서 못 먹었어, 고구마 갈기 시작한 후로는 삶아먹기 시작 했다고.)

103059 @ 으, 아 것도 좋은 거우다.(으, 아 것도 좋은 겁니다.)

103059 #1 감저가 우리 삶아 맥여 준거지.(고구마가 우리 삶아 먹여 준거지.)

103059 @ 예.(예.)

## 기타 농사

103060 @ 그 밖에 농사로 수박, 참외, 배추, 무수, 지슬, 피는예?(그 밖에 농사로 수박, 참외, 배추, 무, 감자, 피는요?)

103060 #1 아녀 아녀 그런 거 안 갈았어.(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안 갈았어.)

103060 #4 이 우도는 그런 거 안 합니다게예.(이 우도는 그런 거 안 합니다게.)

103060 @ 믰들?(메밀?)

103060 #4 믰들도 안 합니다.(메밀도 안 합니다.)

103060 #1 안 합니다.(안 합니다.)

103060 #4 옛날은 짝금씩 이제 갈아낫는다.(옛날은 조금씩 이제 갈았었는데.)

103060 #1 아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오십년 대에는 조금씩 갈아낫서.(아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 오십년 대에는 조금씩 갈았었어.)

103060 @ 믰들, 믰들은 어디 저 난전.(메밀, 메밀은 어디 저 난전.)

103060 #1 난전 밧디.(난전 밧에.)

103060 @ 난전밧디예.(난전 밧에요.)

103060 #1 농사가 조금 안 돼면, 조 조가 안 켜 밧디.(농사가 조금 안 되면, 조 조가 안 된 밧에.)

103060 #4 우리 우도는 안 갑니다게.(우리 우도는 안 갑니다.)

103060 @ 예.(예.)

103060 #1 조가 안 켜는 밧디는.(조가 안 되는 밧에는.)

103060 @ 으.(으.)

103060 #1 조가 물이 앓거나 그 머가.(조가 물이 앓거나 그 뭐가.)

103060 #4 해 먹을 때 제숫 때.(해 먹을 때 제사 때.)

103060 #1 많이 먹진 앓고 그자.(많이 먹진 앓고 그저.)

103060 @ 으.(으.)

103060 #4 목 쏘랴고.(목 쏘려고.)

103060 @ 목 쏘려고예.(목 쏘려고요.)

103060 #4 예. 그거 좀 갈았지.(예. 그거 좀 갈았지.)

103060 #1 밧 놀릴 수 엇고.(밭 놀릴 수 없고.)

103060 @ 예.(예.)

105060 #4 저 수산<sup>135)</sup>ㄴ뜰딘 믰들을 많이 갈았수다게. 우도는 그런 거 엇어수다게.  
(저 ‘수산’같은 데는 메밀을 많이 갈았습시다. 우도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135) ‘수산’은 서귀포시 성산을 행정마을 수산리 이다.

105060 #1 여기는 예 오십 년대와 육십 년대까지는 여기서 이 해산물 ㄱ쁜 거 고기 ㄱ쁜 거 잡으면 걸 물러 낚다가.(여기는 예 오십 년대와 육십 년대까지는 여기서 이 해산물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잡으면 걸 말려 놓았다가.)

103060 @ 으.(으.)

103060 #1 저 웃드르<sup>136)</sup>가근에 그거하고 ㄱ밀하고 교환 해 왔다고.(저 ‘웃드르’가서에 그거하고 메밀하고 교환 해 왔다고.)

103060 @ 예예. 맞수다. 맞수다게.(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03060 #1 산디 산디하고도 교환허곡.(발벼 발벼하고도 교환하고.)

103060 @ 요기 하영 나는 걸로예.(여기 많이 나는 걸로요.)

103060 #1 예. 산디하고도 교환허곡 ㄱ밀하고도 교환 해여근에, 저 이제 여기서 이제 ㄱ물묵도 썬먹고 교환허고예.(예. 발벼하고도 교환하고 메밀하고도 교환 해서, 저 이제 여기서 이제 메밀묵도 썬먹고 교환하고요.)

103060 @ 삼춘, 그 옛날에예. 수박 참외 같은 거는 여기 가는 사람이 엇수파?(삼춘, 그 옛날에요 수박 참외 같은 거는 여기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103060 #1 가는 거 엇어서게. 저 집에.(가는 거 없었어. 저 집에.)

103060 @ 예.(예.)

103051 #4 춤웨 ㄱ쁜 거는 영일동 이제 지금 영일동은 그 옛날 늙은 그 하르버지가 잇었는디 우리 영일동 그 하르버지가 그 춤웨를 갈양 이제 ㅎ면예. 동네 총각덜이예. 밤이 강 도둑질을 험니다게.(참외 같은 거는 ‘영일동’ 이제 지금 ‘영일동’은 그 옛날 늙은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우리 ‘영일동’ 그 할아버지가 그 참외를 갈아서 이제 하면요 동네 총각들이요 밤에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103060 @ 예.(예.)

103051 #1 밤이 강 따 따 먹어.(밤에 가서 따 따 먹어.)

103051 @ 예.(예.)

103051 #4 그걸 따다 먹을랴고.(그걸 따다 먹으려고.)

103051 @ 아.(아.)

103051 #4 도둑질을 해 그 하르버진 막 귀 막은 하르방이난 막 다올리고 우린 그 기억은 납니다.(도둑질을 해 그 할아버지는 마구 귀 막은 할아버지니까 마구 쫓고 우리는 그 기억은 납니다.)

103051 @ 아.(아.)

103051 #4 이 오봉리<sup>137)</sup>는 나 몰르고.(이 ‘오봉리’는 나 모르고.)

103051 @ 예.(예.)

103051 #4 나가 본래 영일동<sup>138)</sup>이니까 영일동은 그런 분이 혼 사름 잇어났수다.(나가 본래 ‘영일동’이니까 ‘영일동’은 그런 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103051 @ 아.(아.)

136)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을 말한다.

137) ‘오봉리’는 우도면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38) ‘영일동’은 우도면 조일리의 동이다.



103051 #1 우리 어린 때 으 앞이 그 수박 갈안 막<sup>139)</sup> 치언에.(우리 어린 때 요 앞에 그 수박 갈아서 막 쳐서.)

103051 @ 예. 원두막예.(예. 원두막요.)

103051 #1 그 영 막에서.(그 이렇게 ‘막’에서.)

103051 #4 아 도둑질 해 먹으레 갑니께. 청년덜.(아 도둑질 해 먹으러 갑니다. 청년들.)

103051 @ 아.(아.)

103051 #1 직허는 것도 봐 나고 이제 춤 도둑질도 해 먹으레 가나고 이렇게 해놔수다.(지키는 것도 보았었고 이제 참 도둑질도 해 먹으러 갔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03051 @ 예. 그 무수.(예. 그 무.)

103051 #4 무수도 우도는 많이 안 갑니다.(무도 우도는 많이 안 갑니다.)

103051 #1 우린 무 안 갈아.(우린 무 안 갈아.)

103051 #4 우영팟디.(텃밭에.)

103051 #1 우영팟디.(텃밭에.)

103051 @ 우영팟디이, 무시 거 갈앙 먹코예?텃밭에, 무엇 갈아서 먹을까요?)

103051 #1 우영팟딘 무수도.(텃밭에는 무도.)

103051 #4 가정용으로 가정용은 갑니께.(가정용으로 가정용은 갑니다.)

103051 @ 예. 가정용으로.(예. 가정용으로.)

103051 #4 게 가정용은 갑니께.(그럼 가정용은 갑니다.)

103051 #1 무우, 무우 배추는 우영팟디 갈앙 해 먹었어.(무, 무 배추는 텃밭에 갈아서 해 먹었어.)

103051 @ 우녕팟디예.(텃밭에요.)

103051 #4 예.(예.)

103051 @ 배추도.(배추도.)

103051 #4 예. 배추 게고 이제 가는 사람 엇입니다.(예. 배추 그리고 이제 가는 사람 없습니다.)

103051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3051 @ 응.(응.)

103051 #1 저 자기 집에서 무수나 배추 갈앙 김치를 담앙 해 먹었는데.(저 자기 집에서 무나 배추 갈아서 김치를 담아서 해 먹었는데.)

103051 @ 예.(예.)

103051 #1 이제는 그게 고급이 안 돼어.(이제는 그게 고급이 안 돼.)

103051 @ 아.(아.)

103051 #1 전문가들이 저 지은 거라야 쪽<sup>140)</sup>도 잘 앓고 또 공력도 덜 들고.(전문가들이 저 짓은 거라야 ‘속’도 잘 앓고 또 공력도 덜 들고.)

139) ‘막’은 ‘장막’으로 한데에서 별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도구이다.

140) ‘속’은 제보자가 배추 속을 말하고 있다.

103051 @ 그 지슬도 이녁 우녕빳디서 갈아근에 이녁.(그 감자도 이녁 텃밭에서 갈아서 이녁.)

103051 #1 지실감저.(감자.)

103051 @ 예. 지실감저.(예. 감자.)

103051 #1 지실감저도 가는 사름 엇고.(감자도 가는 사람 없고.)

103051 #4 가는 사름 엇입네께.(가는 사람 없습니다.)

103051 @ 이녁 우녕빳디도?(이녁 텃밭에도?)

103051 #1 예. 자기 우녕빳디도 안 갈아.(예. 자기 텃밭에도 안 갈아.)

103051 #4 예에 다 사만 먹지.(예에 다 사서만 먹지.)

103051 @ 그 옛날에도?(그 옛날에도?)

103051 #4 예. 그 옛날에도 지슬감저 놓는 사름도 없고 또 부제침이는 쫘 멧 방울씩 뉘가지고 가정용 잘.(예. 그 옛날에도 감자 놓는 사람도 없고 또 부갓집에는 쫘 멧 방울씩 뉘가지고 가정용 잘.)

103051 @ 지슬도 잘 될 거 ㄴ튼디.(감자도 잘 될 거 같은데.)

103051 #1 거 한도.(거 한도.)

103051 #4 돼긴 잘 돼긴 먹을 건 나옵니다게.(되긴 잘 되긴 먹을 건 나옵니다.)

103051 @ 음.(음.)

103051 #1 흐민 돼는디 흘랴고.(하면 되는데 하려고.)

103051 #4 이딘예. ㄴ이<sup>141)</sup> 큰섬하고 틀리우다게.(이 데는요 제주 큰섬하고 다릅니다.)

10305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3051 #4 사는 게 많이 나오면예. 이런 게 필요 엇다. 사 먹자 그렇게 해서 안갑니다게.(사는 것이 많이 나오면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사 먹자 그렇게 해서 안갑니다.)

103051 @ 돈이 잇이난.(돈이 없으니까.)

103051 #4 이 우도 사름덜은예. 우리는 예 여녕도 많이 먹고 못 허지마는예. 하루 가면은예. 오십만원 칠팔십만원 받아옵니께.(이 우도 사름들은요 우리는 예 연령도 많이 먹고 못 하지마는요 하루 가면은요 오십 만원 칠팔십 만원 받아옵니다.)

103051 @ 예.(예.)

103051 #4 흐 스십대 오십대는 또 오십대라고 다 잘 흐는 것도 아니고, 스십대라고 잘 흐는 그 물엇 거도 일 이등이 잇입니께 해녀가.(한 사십대 오십대는 또 오십대라고 다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십대라고 잘 하는 그 물에 것도 일 이등이 있습니다 해녀가.)

103051 @ 음.(음.)

103051 #4 수심 지픈디 간 들어가민예. 소라를 흐 팔십 키로씩 잡앙 납니다게.(수심 깊은데 가서 들어가면요 소라를 한 팔십 킬로씩 잡아서 납니다.)

103051 @ 으, 삼촌 그거는예. 흐끔.(으, 삼촌 그거는요 조금.)

---

141) ‘ㄴ’은 여기에서 제주 본섬을 말한다.

103051 #4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잇수다.(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103051 @ 헝끔 잇다근예.(조끔 있다가.)  
 103051 #4 예.(예.)  
 103051 @ 나중에 삼촌이 그거 바당이 일은 곱아줍서예. 바당이 일은 헝끔 예젓당 그 말은 지금 곧지 말아근예.(나중에 삼촌이 그거 바다에 일은 말해주십시오. 바다에 일은 조끔 아꼈다가 그 말은 지금 말하지 말아서.)  
 103051 #4 예예.(예예.)  
 103051 #1 으.(으.)  
 103051 @ 이제 들어 볼 때.(이제 들어 볼 때.)  
 103051 #4 예예, 우리는 쫄짜고.(예예, 우리는 졸자고.)  
 103051 #1 묻거들랑 데답헝곡, 묻지 아년 거랑 데답헝지 말아게.(묻거들랑 대답하고, 묻지 았은 거랑 대답하지 마라.)  
 103051 #4 아이고 우리는 쫄짜고예.(아이고 우리는 졸자고요.)  
 103051 @ 예.(예.)  
 103051 #4 우리 동네도예. 오십대 이제 혼 안직ㄱ지는 육십대 그 여자 둘이가 잇는디 상군이우다게 소라.(우리 동네도예. 오십대 이제 한 아직까지는 육십대 그 여자 둘이 잇는데 상군입니다 소라.)  
 103051 #1 거는 묻거들랑 헝여.(거는 묻거들랑 해.)  
 103051 @ 거는 나중에랑.(거는 나중에.)  
 103051 #4 예.(예.)  
 103051 #1 묻거들랑 데답헝여.(묻거들랑 대답해.)  
 103051 #4 무시거라고?(무엇이라고?)  
 103051 #1 물으걸랑 데답헝여.(물걸랑 대답해.)  
 103051 @ 나중에 나가 저기 들어보쿠다.(나중에 나가 저기 들어보겠습니다.)  
 103051 #4 예예예.(예예예.)  
 103051 @ 이 순서가 이서부난예. 이거.(이 순서가 있어버리니까요 이거.)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삼촌, 이제는예. 쉼 키워난 거 곱아줍서.(삼촌, 이제는요. 소 키웠던 거 말해주십시오.)  
 104001 #1 나?(나?)  
 104001 @ 예. 쉼는예. 쉼들 허는 거 쉼나 몰이나 허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들 들어보는디예. 그 쉼에 데해서 한 열가지우다 쉼는 쉼 쉼.(예. 소는요 소들 하는 거 소나 말이

나 하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들 들어보는데요 그 소에 대해서 한 열가지입니다 소는 소 소.)

104001 #1 예.(예.)

104001 @ 어떻 기릅니까? 길르는 거.(어떻게 기릅니까? 기르는 거.)

104001 #1 나가 지금 쉼을 나 생전에 시작한 지는 언젠고 하니까 예, 칠십삼년도부터 시작하기 쉼을 암쉼 혼 므리 키웠주.(나가 지금 소를 나 생전에 시작한 지는 언제인가 하니까 예, 칠십삼년도부터 시작하기 소를 암소 한 마리 키웠지.)

104001 @ 예.(예.)

104001 #1 농사용으로 경 험 경 쉼을 사다가 이제 메날 그때는 아침저녁으로 쉼 먹 이레 다니는 거라. 길가에 또 아니면 버리동산<sup>142)</sup>ㄴ똥디 그디 가서 쉼을 심어갓고 쉼을 풀을 뜯기는 거라.(농사용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를 사다가 이제 메날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소 먹이러 다니는 거야. 길가에 또 아니면 ‘버리동산’같은데 거기 가서 소를 심어가지고 소를 풀을 뜯기는 거야.)

104001 @ 예.(예.)

104001 #1 계민 한 두 시간 세 시간 뜯으면은 배가 조금 불어, 이 정도면 똥구나 경 험 집에 가근에 어디 좀 공지에 쉼을 메어 두었다가 저녁 때 그디 가서 어디 가서 또 이젠 또 배 채우러 나가야 돼여.(그러면 한 두 시간 세 시간 뜯으면 배가 조금 불어, 이 정도면 똥구나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어디 좀 공지에 소를 메어 두었다가 저녁 때 거기 가서 어디 가서 또 이젠 또 배 채우러 나가야 돼.)

104001 @ 예.(예.)

104001 #1 저녁 때 그디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메어 두었다가 또 아침이 또 나가, 게 서 이제 메날 아침 저녁 반복이라. 경 험 하다가 농삿 때가 되면 오, 이제 밤이 심지어 는 저 서머리<sup>143)</sup> 서머리.(저녁 때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메어 두었다가 또 아침에 또 나가, 그래서 이제 메날 아침 저녁 반복이야. 그렇게 해서 하다가 농사 때가 되면 오, 이제 밤에 심지어는 저 ‘서머리’ ‘서머리.’)

104001 @ 예.(예.)

104001 #1 그때 서머리 가근에 남이 출밧디 강, 이 남이 풀밧디 가근에 쉼도 먹이고 하다가근에 배를 채와근에 밧도 갈곡 이제.(그때 ‘서머리’ 가서 남의 풀밭에 가서, 이 남의 풀밭에 가서 소도 먹이고 하다가 배를 채워서 밧도 갈고 이제.)

104001 @ 으.(으.)

104001 #1 그때는 그렇게 흥곡 그 이후에 이제 보릿가루가 나기 시작하니까 보리를 많이 갈안 보리가 가루가 나오기 보릿가루를 먹이는 거라 쉼에게.(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보릿가루가 나기 시작하니까 보리를 많이 갈아서 보리가 가루가 나오기 보릿가루를 먹이는 거야 소에게.)

104001 @ 으.(으.)

142) ‘버리동산’은 우도면에 소재한 지경이다.

143) ‘서머리’는 우도면에 소재한 지경이다.

104001 #1 보릿가루를 먹여서 배를 불러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라.(보릿가루를 먹여서 배를 불러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104001 @ 아.(아.)

104001 #1 그래서 췌가 게서 췌가 일년에 똑 혼 마리씩 세끼 낳아, 이제 꼭 혼 마리씩 세끼 낳으면 암췌 낳는 해 또 숫소 낳는 해 이제.(그래서 소가 그래서 소가 일년에 똑 한 마리씩 새끼를 낳아, 이제 꼭 한 마리씩 새끼를 낳으면 암소 낳는 해 또 수소 낳는 해 이제)

104001 @ 응.(응.)

104001 #1 이렇게 해서 나 그때 낳은 소가 계속 오년동안 암췌 저 숫췌만 나더니까 저 숫췌 값이 그때 굉장히 갓서 경 험 수췌 그래서 용돈을 벌었지 가용돈을 벌었고.(이렇게 해서 나 그때 낳은 소가 계속 오년동안 암소 저 수소만 낳으니까 저 수소 값이 그때 굉장히 갓서 그렇게 해서 수소 그래서 용돈을 벌었지 가용을 벌었고.)

104001 @ 췌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쿠과? 무슨 흑췌여 무슨.(소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겠습니까? 무슨 흑우다 무슨.)

104001 #1 아 계난 여기는.(아 그러니까 여기는.)

104001 @ 흑췌여.(흑우.)

104001 #1 우리 흘 덕에는 토종 췌랏는데.(우리 할 적에는 토종 소였는데.)

104001 @ 예.(예.)

104001 #1 혼 팔십년도 췌니까 브라만<sup>144)</sup>이엔 혼 췌가 잇었어.(한 팔십년도 되니까. ‘브라만’이라고 한 소가 있었어.)

104001 @ 예.(예.)

104001 #1 브라만이엔 췌 어떤 췌냐하면은 이 저 제주도가 축산 선진지니까. 그 미국에 가서 도입을 해 온 거라. 제주도에서 도입을.(‘브라만’이라고 소는 어떤 소냐하면은 이 저 제주도가 축산 선진지니까. 그 미국에 가서 도입을 해 온 거야. 제주도에서 도입을.)

104001 @ 계난 저기 외국에서 온 췌 말고 우리가 저기 허젠 허민예. 그 옛날에.(그러니까 저기 외국에서 온 소 말고 우리가 저기 하려고 하면요 그 옛날에.)

104001 #1 계난 그것이 브라만이고.(그러니까 그것이 브라만이고.)

104001 @ 으. 그 전에.(으. 그 전에.)

104001 #1 그 이전에 순 토종이었지.(그 이전에 순 토종이었지.)

104002 @ 토종은 어떤 종류.(토종은 어떤 종류.)

104002 #1 옛날 위 조상덜이 길루던 소라.(옛날 위 조상들이 기루던 소라.)

104002 @ 계난 흑색은 무슨 저기.(그러니까 흑색은 무슨 저기.)

104002 #1 아, 검은.(아, 검은.)

104002 @ 검은 췌.(검은 소.)

144) ‘브라만’은 인도에서 유래한 육우 품종으로 가장 대표적인 피모(被毛) 색은 회색이며, 얼굴이 길고 어깨 부위에 커다란 견봉이 있으며, 목은 축 늘어지고 상당히 큰 귀가 앞으로 45도 각도로 늘어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104002 #1 토종도 검은 쇠가 있고.(토종도 검은 소가 있고.)

104002 @ 예.(예.)

104002 #1 또 이제 붉은 쇠가 있고.(또 이제 붉은 소가 있고.)

104002 @ 붉은 쇠는 적우엔 험니까? 적우엔 험니까?(붉은 소는 적우라고 합니까? 적우라고 합니까?)

104005 #1 아니 아니. 저 거니까 나이는 저 금싱은 다간 사릅 나릅 금싱은 혼 술 다간은 두 술 사릅은 세 술 나릅은 네 술 그 다음부터 다섯 술 여섯 술 이렇게.(아니 아니. 저 거니까 나이는 저 하릅은 두릅 사릅 나릅 하릅은 한 살 두릅은 두 살 사릅은 세 살 나릅은 네 살 그 다음부터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104005 @ 예. 나이에 대해서는예.(예. 나이에 대해서는요.)

104002 #1 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나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104002 @ 그 쇠 저기 쇠 털 색깔로.(그 소 저기 소 털 색깔로.)

104002 #1 예.(예.)

104002 @ 털 색깔이나 뿔 모양으로.(털 색깔이나 뿔 모양으로.)

104002 #1 응.(응.)

104002 @ 뭐 이름 쇠 이름 부랭이여 뭐여.(뭐 이름 소 이름 수소다 뭐다.)

104002 #1 게메 나 부랭이는 숫쇠보고 부랭이 이렇게 하고 또 암컷보고 암쇠엔 하고 영 하고 또 색깔로는 머 검다 그.(글쎄 나 ‘부랭이’는 수소보고 수소 이렇게 하고 또 암컷보고 암소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색깔로는 머 검다 그.)

104002 @ 거든 쇠, 검은 거?(검은 소, 검은 거?)

104002 #1 그건 식쇠엔 하여. 식쇠는 머냐면 검은 점도 백혀지곡 붉은 점도 서꺼진 걸 그걸 식쇠엔 하여.(그건 칙소라고 해. 칙소는 뭐냐면 검은 점도 박혀지고 붉은 점도 섞어진 걸 그걸 칙소라고 해.)

104002 @ 식쇠 맞수다. 식쇠 얼룩쇠.(칙소 맞습니다. 칙소 얼룩소.)

104002 #1 얼룩쇠는 흰점도 백혀지곡 붉은 점도 백혀지곡.(얼룩소는 흰점도 박혀지고 붉은 점도 박혀지고.)

104002 @ 얼룩쇠는 흰점도.(얼룩소는 흰점도.)

104002 #1 백혀지곡 붉은 점 박혀진 건 얼룩쇠.(박혀지고 붉은 점 박혀진 건 얼룩소.)

104002 @ 뿔 뿔 모양으로.(뿔 뿔 모양으로.)

104002 #1 오.(오.)

104002 @ 저 숫 숫쇠는예.(저 수소 수소는요.)

104002 #1 오.(오.)

104002 @ 저기 숫컷은.(저기 수컷은.)

104002 #1 오.(오.)

104002 @ 숫컷은 뿔 모양으로 숫컷이나 암컷이나 다 뿔 잇인.(수컷은 뿔 모양으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뿔 있는.)

104002 #1 아 게네 게난, 뿔은 뿔인데 아무래도 암쇄가 숫쇄가 뿔은 슬지고 크고 슬지고 암쇄는 쫘 뿔이 깰고 죽지게, 지금.(아 그러니 그러니까, 뿔은 뿔인데 아무래도 암소가 수소가 뿔은 살찌고 크고 살찌고 암소는 쫘 뿔이 가늘고 작지, 지금.)

104002 @ 예. 그걸로 뭐 저 이름을 정허거나.(예. 그걸로 뭐 저 이름을 정하거나.)

104002 #1 그걸로 머는 엇고.(그걸로 뿔은 없고.)

104002 @ 삼춘 그 쇠 헐 때는 이 저기 우도에 쇠를 사단에 기릅디가 아니면.(삼춘 그 소 할 때는 이 저기 우도에 소를 사다가에 길렀습니까. 아니면.)

104002 #1 예. 여기 저 우리 친구 어머니가, 지루던 쇠주 지금.(예. 여기 저 우리 친구 어머니가, 기르던 소지 지금.)

104002 @ 아.(아.)

104003 #1 경 해서 네가 농사용으로 지금 그땐 쇠가 엇어갓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데, 지금 이제.(그래 내가 농사용으로 지금 그땐 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데, 지금 이제.)

104003 @ 응.(응.)

104003 #1 제 시기에 쇠를 가져근에 감져 그땐 것도 심어야지 경 아년에 하다보니까 늦게 심단보니까 기획이 잘못 댜언 막 모든게 죽어불고.(제 시기에 소를 가져서 고구마 같은 것도 심어야지 그렇지 않아서 하다보니까 늦게 심다가보니까 기획이 잘못 되어서 막 모든 게 죽어버리고.)

104003 @ 음.(음.)

104003 #1 경 흥길레 아, 꼭 쇠가 필요허구나 해서, 참 돈을 빚저근에 쇠를 샀는데 그 쇠가 고맙게끔.(그렇기에 아, 꼭 소가 필요허구나 해서, 참 돈을 빚저서 소를 샀는데 그 소가 고맙게끔.)

104003 @ 게난 그때 쇠는 밧갈 용으로서.(그러니까 그때 소는 밧갈 용으로서.)

104003 #1 밧 갈용이고 첫째는 밧도 같고.(밧갈 용이고 첫째는 밧도 같고.)

104003 @ 예.(예.)

104003 #1 또 그 쇠가 새끼를 나면 새끼가 새끼를 팔아서 돈이 댜고.(또 그 소가 새끼를 나면 새끼가 새끼를 팔아서 돈이 되고.)

104003 @ 새끼 차근에 돈이 되고예.(새끼 차서 돈이 되고요.)

104003 #1 또 똥을 싸면 또 집이 아궁이 뿔곰도 흥고.(또 똥을 싸면 또 집에 아궁이 뿔감도 하고.)

104003 @ 뿔곰도 흥고예.(뿔감도 하고요.)

104003 #1 으.(오.)

104003 @ 또 쇠로 이제 물건 나르는 거 밧디서.(또 소로 이제 물건 나르는 거 밧에 서서.)

104003 #1 물건은 쫘 행 나르지 아녕, 그냥 밧만 가는 거라.(물건은 쫘 해서 나르지 않아서, 그냥 밧만 가는 거야.)

104003 @ 밧만 저기 보리짚 같은 거 운반용으로.(밧만 저기 보릿짚 같은 거 운반용

으로.)

104003 #1 운반용으로 안 써. 이 우도에서는 잘 안 써.(운반용으로 안 써. 이 ‘우도’에 서는 잘 안 써.)

104003 @ 경하고 여 저기 밧 저기 곡식 갈 때.(그렇고 여 저기 밧 저기 곡식 갈 때.)

104003 #1 응.(응.)

104003 @ 방앗간에 연자매.(방앗간에 연자매.)

104003 #1 아, 연자매 그 그 땐 나 췌허기 시작할 땐 연자방아는 엇어질 때.(아, 연자 매는 그 그 땐 나 소하기 시작할 땐 연자매는 없어질 때.)

104003 @ 응.(응.)

104003 #1 엇어질 때주. 육십 년데 저 칠십년대 이후에라부난.(없어질 때지. 육십 년 대 저 칠십년대 이후라서.)

104004 @ 췌 저기 세끼 낳으면예. 한 살 이나 두 살 때부터 질들이지 안습니까예.(소 저기 세끼 낳으면요, 한 살 이나 두 살 때부터 질들이지 않습니까요.)

104004 #1 왜냐하면.(왜냐하면.)

104004 @ 어디 강 어떻 그 질들입니까.(어디 가서 어떻게 그 질들입니까.)

104004 #1 췌가 이제 두 살 나기시작하면, 그 밧가는 걸 ㄱ리쳐나서 옛날에는.(소가 이제 두 살 나기시작하면, 그 밧가는 걸 가르쳤어 옛날에는.)

104004 @ 응.(응.)

104004 #1 밧 안 가는 밧갈 줄 모르면 좀 돈을 좀 덜 받았지 지금.(밧 안 가는 밧갈 줄 모르면 좀 돈을 좀 덜 받았지 지금.)

104004 @ 응.(응.)

104004 #1 여기는 순 밧용으로 허니까 옛날 췌가 어려울 때.(여기는 순 밧용으로 하니까 옛날 소가 어려울 때.)

104004 @ 예.(예.)

104004 #1 경해도 두 살 나면은 밧 가는 걸 ㄱ리쳐 줘사 췌.(그래도 두 살 나면은 밧 가는 걸 가르쳐 주어야 돼.)

104004 @ 게민 어떤 어떤 방법으로 ㄱ리칩니까?(그러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가르칩니까?)

104004 #1 처음 처음에는 이제 그저, 췌기를 ㄱ<sup>145)</sup>에 ㄱ뜨면 저 다이야<sup>146)</sup> ㄱ뜨는 걸 이렇게 등어리에 해서 이제 그 오리목에 만들아근예.(처음 처음에는 이제 그저, 췌기를 제주에 같으면 저 타이어 같은 걸 이렇게 등에 해서 이제 그 오리목에 만들어서.)

104004 @ 으.(응.)

104004 #1 ㄱ기 시작해여 ㄱ는 걸 베 베와낭 내중에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췌기에 매왕.(ㄱ기 시작해서 ㄱ는 걸 베 베워나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췌기에 매어서.)

145) ‘ㄱ’는 여기에서는 제주 본섬을 말한다.

146) ‘다이야’는 타이어(taiya)를 말하고 있다.



104004 @ 예.(예.)  
 104004 #1 응, 쟁기에 메와근에 이젠 혼 사름 잡고.(응, 쟁기에 매어서 이젠 한 사람 잡고.)  
 104004 @ 예.(예.)  
 104004 #1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모살에 강.(그렇게 해서 이제 저 모래에 가서.)  
 104004 @ 예.(예.)  
 104004 #1 흑 밧디서 안 갈앙 모레왔디서 갈기 시작햏여.(흙 밭에서 안 갈아서 모래 밭에서 갈기 시작해.)  
 105015 @ 모레밧디 강으네.(모래밭에 가서.)  
 105015 #1 모레밧디서 이제 혼 밧 번 갈아나면은 쩌금 숙달이 돼어.(모래밭에서 이제 한 밧 번 갈아나면 조금 숙달이 돼.)  
 104004 @ 으.(으.)  
 104004 #1 게면 또 이젠 흑 밧디 강 갈기 시작해어.(그러면 또 이젠 흙 밭에 가서 갈기 시작해.)  
 104004 @ 음.(음.)  
 104004 #1 흑 밧디 강 갈 때도 이젠 뒤에서 갈고 앞이서 심고 이제에.(흙 밭에 가서 갈 때도 이제는 뒤에서 갈고 앞에서 잡고 이제.)  
 104004 @ 응 경 행 배와정은예.(응 그렇게 해서 배워줘서요.)  
 104004 #1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가 가면 이제 앞이 심은 사름이 이제.(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가 가면 이제 앞에 잡은 사람이 이제.)  
 104004 @ 으.(으.)  
 104004 #1 또 가는석도 땡겨주곡 이리 저리 안 가게끔 또 가는석이란 게 있어 ㄴ는 석.(또 고삐도 당겨주고 이리 저리 안 가게끔 또 고삐란 것이 있어 고삐.)  
 104004 @ 으.(으.)  
 104004 #1 그걸로 좌우를 조정해주지 걸로 영 이레 가라 저레 가라 땡겨줘근에.(그걸로 좌우를 조정해주지 걸로 이렇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당겨줘서.)  
 104004 @ 응.(응.)  
 104005 #1 그 쉼 나이는 아까 곶아젼수게 금송.(그 소 나이는 아까 말해주었습니다 하릅송아지.)  
 104004 @ 예.(예.)  
 104005 #1 에 혼 술은 금싱.(에 한 살은 하릅.)  
 104005 @ 금싱 그 다음.(하릅 그 다음.)  
 104005 #1 그 다음 두 술은 다간.(그 다음 두 살은 두습.)  
 104005 @ 다간.(두습.9)  
 104005 #1 세 술은 사릅.(세 살은 사릅.)  
 104005 @ 사릅.(사릅.)  
 104005 #1 또 네 술은 나릅.(또 네 살은 나릅.)

104005 @ 나릅.(나릅.)

104005 #1 그 다음 다숫 술 으숫 술.(그 다음 다섯 살 여섯 살.)

104005 @ 다섯 술 으숫 술.(다섯 살 여섯 살.)

104005 #1 예.(예.)

104005 @ 열 술까지도.(열 살까지도.)

104005 #1 열 술까지도 허곡 어떤 사람은 스무 술까지도 키우는 사람도 있어.(열 살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무 살까지도 키우는 사람도 있어.)

104005 @ 아.(아.)

104005 #1 게 늙어 가민 고기용으로 팔아버리기도 허곡 허는데, 보통으로 혼 열다섯 때 가면은 하, 이제 청춘이 늙어지고 이젠 혼 세상 넘어강 이제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거.(그럼 늙어 가면 고기용으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으로 한 열다섯 때 가면은 하, 이제 청춘이 늙어지고 이제는 한 세상 넘어가서 이제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거.)

104005 @ 예.(예.)

104006 @ 삼춘 그 췌예. 저기 맞갈 때.(삼춘 그 소요 저기 맞갈 때.)

104006 #1 예.(예.)

104006 @ 그 쟁기여 질메여 멩에여 허는 게예.(그 쟁기다 길마다 멩에다 하는 것요.)

104006 #1 예.(예.)

104006 @ 그 멩칭예. 생각나는 데로 한번 쟁기부분에예.(그 멩칭요 생각나는 데로 한번 쟁기부분에요.)

104006 #1 예.(예.)

104006 @ 이 거 표준말로 쟁긴디 쟁기부분에 멩칭들 생각나는 거 곴아줍서.(이 거 표준말로 쟁기인데 쟁기부분에 멩칭들 생각나는 거 말해주십시오.)

104006 #1 쟁기를 영 잡는 건 양짓머리.(쟁기를 영 잡는 건 양지머리.)

104006 @ 양짓머리.(양지머리.)

104006 #1 양쪽으로 잡는 양짓머리.(양쪽으로 잡는 양지머리.)

104006 @ 예. 이거는 양짓머리.(예. 이거는 양지머리.)

104006 #1 따시 영 보섭 끼우는 것이 머냐하면 그건 머엔 혼다만은 다 것도 잊어불엇네이.(다시 영 보섭 끼우는 것이 뭇이나 하면 그건 무엇이라고 한다만 다 것도 잊어버렸네.)

104006 @ 예.(예.)

104006 #1 그리고.(그리고.)

104006 #4 그 이름 튼네집네까.(그 이름 떠올려집니까.)

104007 @ 길마 길마는 췌에 우에 언지는 거지예.(길마 길마는 소에 위에 었는 거지요.)

104007 #4 그것ㄴ란 질메엔 해.(그것보고는 길마라고 해.)

104007 #1 질 질메엔.(길 길마라고.)

104007 @ 질메.(길마.)

104007 #1 예.(예.)  
 104007 @ 질메 거 저기 생각나는 거 잇수과?(길마 거 저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4007 #1 난 질메를 안 해봐서.(난 길마를 안 해봤어.)  
 104007 @ 아, 질메를 안허고.(아, 길마를 앓고.)  
 104007 #1 질메엔 헌거 써 보질 안 헛수다.(길마라고 한거 써 보지를 앓았습니다.)  
 104007 @ 질메를 허젠허면은 그거 저기 구루마 해가지고 허젠허민 그거 허는 거고 예.(길마를 하려고하면 그거 저기 ‘구루마’ 해가지고 하려고하면 그거 하는 거고요.)  
 104007 #1 예.(예.)  
 104008 @ 소 이거 이기 영 해가지고 저기 밧갈젠 허민 그 멩에 지른 텐 허는디 그 멩에엔 헌 거.(소 이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밧갈려고 하면 그 멩에 지운 다고 하는데 그 멩에라고 한 거.)  
 104008 #1 멩에는 여기 영 목 우에.(멩에는 여기 이렇게 목 위에.)  
 104008 @ 목 우에.(목 위에.)  
 104008 #1 예. 목 우에 해근에 한 줄, 한 줄 영 해근에 짓줄<sup>147)</sup> 무끄는 거.(예. 목 위에 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짓줄’ 묶는 거.)  
 104008 @ 아, 그거를 줄이엔 험니까?(아, 그거를 줄이라고 험니까?)  
 104008 #1 이거는 한 줄.(이거는 한 줄.)  
 104008 @ 멩에는 췌 이.(멩에는 소 이.)  
 104008 #1 이 우에.(이 위에.)  
 104008 @ 우에 해가지고.(위에 해가지고.)  
 104008 #1 목 우에 영 이렇게 해갖고.(목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04008 @ 예.(예.)  
 104008 #1 으 양 곳으로 이쪽으로 줄 잇고 이쪽으로 줄 잇어근에 연결시키는 거.(요 양 끝으로 이쪽으로 줄 잇고 이쪽으로 줄 이어서 연결시키는 거.)  
 104008 @ 예. 경 행 연결시키는 거 멩에.(예.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거 멩에.)  
 104008 #1 걸 멩에렌 허곡.(걸 멩에라고 하고.)  
 104008 @ 예예, 그 부분 명칭은 뭐 나중에 그거 허고, 목장.(예예, 그 부분 명칭은 뭐 나중에 그거 하고, 목장.)  
 104008 #1 보섭 양짓머리.(보섭 양지머리.)  
 104008 @ 양짓머리?(양지머리?)  
 104008 #1 성에 성에엔 허는 거 몽쿨 영 버섭 끼우는디 영 휘어진 건 저 몽쿨 몽쿨 몽쿨이엔 흐주 몽쿨.(성에 성에라고 하는 거 쟁깃술 영 보섭 끼우는데 이렇게 휘어진 건 저 ‘몽쿨’ ‘몽쿨’ ‘몽쿨’이엔 흐주 ‘몽쿨.’)  
 104008 @ 보섭 몽쿨.(보섭 쟁깃술.)  
 104008 #1 또 영 쭈욱하게 나간 건 양짓머리엔 흐고 양짓머리.(또 이렇게 쭈 하게 나간 건 양지머리라고 하고 양지머리.)

147) ‘짓줄’은 제보자가 마소에 멩에를 씌울 때 멩에가 목에 고정되도록 동여매는 끈을 말하고 있다.

104008 @ 예.(예.)

104008 #1 아, 양젓머리 아니고 저 성에 성에.(아, 양지머리 아니고 저 성에 성에.)

104007 @ 아.(아.)

104009 @ 삼촌 그 좀 전에 맥이젠 허문 아침에 가근에.(삼촌 그 좀 전에 먹이려고 하면 아침에 가서.)

104009 #1 예.(예.)

104009 @ 낮전이 가근에 한 세 시간 정도 행 맥이고 열 시까지.(낮전에 가서 한 세 시간 정도 해서 먹이고 열 시까지.)

104009 #1 열 시까지 아침 으쓷시에 새벽에 일어났 강 혼 세 시간.(열 시까지 아침 여섯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한 세 시간.)

104009 @ 세 시간?(세 시간?)

104009 #1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맥여야.(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먹여야.)

104009 @ 응, 맥여야.(응, 먹여야.)

104009 #1 어느 정도 배가 부른 거라.(어느 정도 배가 부른 거야.)

104009 @ 배 불르게하고.(배 불게하고.)

104009 #1 혼 네 시나 다섯 시쯤 나가근에 또 이제 맥여야 배가 어느 정도.(한 네 시나 다섯 시쯤 나가서 또 이제 먹여야 배가 어느 정도.)

104009 @ 배가 불어불고.(배가 불어버리고.)

104009 #1 아침저녁으로 배를 채워줘야 돼여.(아침저녁으로 배를 채워줘야 돼.)

104009 @ 채워줘야예. 경 해근에예.(채워주어야, 그렇게 해서요.)

104010 @ 쉼을 질르면서 느꼈던 추억 같은 거 반복 행 험수다마는.(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 같은 거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04010 #1 난.(난.)

104010 @ 일년에 혼 마리씩 세끼 나주곡.(일년에 한 마리씩 새끼 나주고.)

104010 #1 게메 난, 술찍이 쉼을 키우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 중학교 육성회장이여 머여 중앙에 감투를 많이 썼어.(글쎄 난, 술직히 소를 키우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 중학교 육성회장이다 뭐다 중앙에 감투를 많이 썼어.)

104010 @ 예.(예.)

104010 #1 경 허면은 웨이 보레가곡 그런디 다 출입허젠 허면 저녁 땀 쉼을 못 맥이지, 아침때는 쉼을 못 맥이거든 겨민 이제 밤에 남이 산 ㄱ뜬디 강 밤이 강 비여.(그러면은 회의 보러가고 그런데 다 출입하려고 하면 저녁 땀 소를 못 먹이지, 아침때는 소를 못 먹이거든 그러면 이제 밤에 남의 산 같은데 가서 밤에 가서 베어.)

104010 @ 예.(예.)

104010 #1 밤이 경 마데 ㄱ뜬 거 앓영 강 거기에 담아근에 집에 와근에 어디 저 소 읍에 강 낫당 아침 일찍 나가근에, 거 갖어당 쉼 주영 그날 아침은 쉼을 안 먹이는 거라, 안 먹이는 거라.(밤에 그렇게 자루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거기에 담아서 집에 와서 어디 저 소 옆에 가서 놓았다가 아침 일찍 나가서, 거 갖다가 소 주어서 그날 아침은

소를 안 먹이는 거야, 안 먹이는 거야.)

104010 @ 으.(으.)

104010 #1 경 저녁때는 이제 다숫 시나 으숫 시나 돼야 그땐 딱시 시간 있으니까 막 쉼 먹이면서 이거 혼 이삼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그렇게 저녁때는 이제 다섯 시나 여섯 시나 되어야 그땐 다시 시간 있으니까 마구 소 먹이면서 이거 한 이삼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지금.)

104001 @ 으.(으.)

104001 #1 네가 그게 참 이제 좀 용돈을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이장하면서 그땐 이 동네서 제일 마지막으로 네가 쉼 키웠다고.(내가 그게 참 이제 좀 용돈을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이장하면서 그땐 이 동네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소 키웠다고.)

104001 @ 예.(예.)

104001 #1 다른 사름덜은 쉼을 설러부는데 이제, 쯔그만 쉼을 하나 길완에.(다른 사름들은 소를 그만두어버리는데 이제, 조그만 소를 하나 길러서.)

104010 @ 으.(으.)

104010 #1 길완에 이제 허곡 또 네가 그 팔십 팔십육년도엔가 지금 이백칠십만원에 그 암소를 풀아갖고 그 천 평짜리 밭 하나 샀어 그땐.(길러서 이제 허곡 또 내가 그 팔십 팔십육년도인가 지금 이백칠십만원에 그 암소를 팔아가지고 그 천 평짜리 밭 하나 샀어 그땐.)

104010 @ 아.(아.)

104010 #1 게 그게 지금 십억짜리 밭이 됐어 지금.(그래서 그게 지금 십억짜리 밭이 됐어 지금.)

104010 @ 바닷가에 잇수과?(바닷가에 있습니까?)

104010 #1 응, 세 번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물려줬는데 그거 지금으로 하면은 십억짜리가 돼다하여.(응, 세 번째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물려줬는데 그거 지금으로 하면은 십억짜리가 된다해.)

104010 @ 삼촌은 어릴 적에는 늬이 소 맥이레 땡겨나거나 경은 안 해놔수과?(삼촌은 어릴 적에는 남의 소 먹이러 다녔었거나 그렇게는 안았습니까?)

104010 #1 늬이 쉼 먹이질 안 해서 늬이 쉼은 혼 번도 쯔끄만 해서민 나 늬이 소를 맥였더라면 그 늬이 쉼 맥여주레 갖더라면은 중학교도 못 입학할 뻔 했어.(남의 소 먹이지를 안았어 남의 소는 한 번도 쯔끄만 했으면 나 남의 소를 먹였더라면 그 남의 소 먹여주러 갔더라면 중학교도 못 입학할 뻔 했어.)

104010 @ 아.(아.)

104010 #1 으기에 사름 지금 좀 잘 사는 어른인디 쉼 먹이는데 아 그 어른이, 나가 못 살고 해가니까 흥년 때 못 살고 하니까 자기네 집이 왕 쉼 먹여주고 자기네 아들하고 공부시켜주곡 으, 가르켜주곡 하면서 저, 쉼만 맥여 달라고 해도.(여기에 사름 지금 좀 잘 사는 어른인데 소 먹이는데 아 그 어른이, 나가 못 살고 해가니까 흥년 때 못 살

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 소 먹여주고 자기네 아들하고 공부시켜주고 오, 가르쳐주고 하면서 저, 소만 먹여달라고 해도.)

104010 @ 아.(아.)

104010 #1 그 집이 가문 네가 고생 할 걸 생각해서 어머니도 절대 가지 말아라 나가라고 말은 못 했겠다. 게 난 배고프니까 가고 싶은 생각은 난 거라 게도 가면 고생 할 생각이 나는 거라.(그 집에 가면 내가 고생할 걸 생각해서 어머니도 절대 가지 마라 나가라고 말은 못 하겠다. 그래서 난 배고프니까 가고 싶은 생각은 난 거야 그래도 가면 고생 할 생각이 나는 거야.)

104010 @ 예.(예.)

104010 #1 그래서 세 번을 와도 네가 세 번째엔 못 가겠다. 영 헨 그 해 참 저 겨울 지나니까 봄 때 네가 중학교에 입학할 했어.(그래서 세 번을 와도 내가 세 번째에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해 참 저 겨울 지나니까 봄 때 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했어.)

104010 @ 음.(음.)

104010 #1 게난 나가 운명이 그 어른 말 들었 그 집이 강 살아시면은 중학교는 못 다녔지.(그러니까 내가 운명이 그 어른 말 들어서 그 집에 가서 살았으면 중학교는 못 다녔지.)

104010 @ 응.(응.)

104010 #1 지금 이제. 게도 그런 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주.(지금 이제. 그래도 그런 게 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 말 기르기

104011 @ 삼촌, 물을 질러놔디가?(삼촌, 물을 길렀었습니까?)

104011 #1 어?(어?)

104011 @ 물 물.(말 말.)

104011 #1 물은 못 키워봤어.(말은 못 키워봤어.)

104011 @ 응, 어릴 적에도?(응, 어릴 적에도?)

104011 #1 겐디 남이 물로 저 밭 갈아주레 갔다가, 물이 나 여기 물어분 적은 잇어 예.(그런데 남의 말로 저 밭 갈아주러 갔다가, 말이 나 여기 물어버린 적은 있어요.)

104011 @ 예.(예.)

104011 #1 밭 갈다가 여기 질매 통이 벗겨지길레 거를 잘 쳐매주레 가니까 바싹하게 물어부는 거라 물 사람 물어.(밭 갈다가 여기 길마 통이 벗겨지기에 거를 잘 쳐매주러 가니까 바싹하게 물어버리는 거야 말 사람 물어.)

104011 @ 어, 이빨 막 췌고예.(어, 이빨 마구 세고요.)

104011 #1 으으, 겐 물어변 나 이디 간 막 나 올명 헤낫다고 이디 간 겐디 많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허고 그자.(으으, 그래서 물어버려서 나 이테 가서 마구 나 올면서 했었다고 이테 가서 그런데 많이 찢어질 정도는 았고 그저.)

104011 @ 어.(어.)

104011 #1 확 확 헤벗다고 지금.(확 확 헤버렸다고 지금.)

104011 @ 물은 어떻 기르코예? 보통예. 삼촌 들어나지 안 헛수파?(말은 어떻게 기를 까요? 보통요, 삼촌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104011 #1 예? 물도 췌나 마찬가지로.(예? 말도 소나 마찬가지로.)

104011 @ 췌나 마찬가지로. 멕이고.(소나 마찬가지로. 멕이고.)

104011 #1 예.(예.)

104011 @ 어? 켄디 물은.(어? 그런데 말은.)

104011 #4 켄디 물은 낱 키웁니께.(그런데 말은 놓아서 키웁니다.)

104011 #1 으 게 저 겨울에.(어 그럼 저 겨울에.)

104011 @ 집에 안들이고예.(집에 안들이고요.)

104011 #1 겨울에 이 저 그 어디, 저 여기는 허는데, 여기는 그런 목장이 었주게.(겨울에 이 저 그 어디, 저 여기는 하는데, 여기는 그런 목장이 없지.)

104011 @ 응.(응.)

104011 #1 목장이 좁아, 경허고 물이 아니 겨울에 잘 견디는 고라 난장에 메어두긴 헤여 물은.(목장이 좁아, 그렇고 말이 아니 겨울에 잘 견디는 게야 난장에 메어두기는 해 말은.)

104011 @ 으.(으.)

104011 #1 췌는 메어두지는 않는데 우리 소 키울 덕에는 아침저녁으로, 그 췌막 앞에서 아침뽕면은 저 낮이는 네 낫다가, 밤이는 췌막 안에 또 들여메곡 또 네어 농곡 들여 농곡 헛다고.(소는 매어두지 않는데 우리 소 키울 적에는 아침저녁으로, 그 외양간 앞에서 아침 되면 저 낮에는 내 놓았다가, 밤에는 외양간 안에 또 들어서 매고 또 내놓고 들여놓고 헛다고.)

104011 @ 췌는 경허곡예.(소는 그렇게 하고요.)

104011 #1 겨울에는 게서 이제 췌가 추우면은 축진다고 살찌질 못 헛다고 살이 저기 축난다고, 이렇게 해서 데게 췌 관리를 그렇게 헛다고 아침 저녁으로.(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소가 추우면 축진다고 살찌질 못 헛다고 살이 저기 축난다고, 이렇게 해서 대게 소 관리를 그렇게 헛다고 아침저녁으로.)

104011 @ 예. 켄디 그 밧디서 이것 저것덜 행 오젠 허민예. 구르마를 허거나 말에 말이 잇어서 운반을 할 건디, 그 췌라도 어디 강 행 오젠 허민.(예. 그런데 그 밧에서 이것 저 것들 해서 오려고 하면요 수레를 하거나 말에 말이 잇어야 운반을 할 건데, 그 소라도 어데 가서 해 오려고 하면.)

104011 #1 어.(어.)

104012 @ 그 물 종류 인칙에 저가 잘못 아까 혼돈해서 헛는데 말이 이름 같은 거 물 종류에 따라가지고.(그 말 종류 일찍이 제가 잘못 아까 혼돈해서 헛는데 말이 이름 같은 거 말 종류에 따라가지고.)

104012 #1 어.(어.)

104012 @ 알아지는 거 혹시 잇이문 저기.(알아지는 거 혹시 있으면 저기.)

104012 #1 물 종류는 잘 모르크라.(말 종류는 잘 모르겠어.)  
 104012 @ 물 종류.(말 종류.)  
 104012 #1 우리 옛날 우리 지금 다 토종말, 호마엔혼 말 들었어.(우리 옛날 우리 지금 다 토종말, 호마라고한 말 들었어.)  
 104012 @ 호마?(호마?)  
 104012 #1 어, 저 이제 신식으로 웨국에서 도입 된 것덜.(어, 저 이제 신식으로 외국에서 도입 된 것들.)  
 104012 @ 아.(아.)  
 104012 #1 키 큰 것덜.(키 큰 것들.)  
 104012 @ 제주 물에 데해서는.(제주 말에 대해서는.)  
 104012 #1 제죽 물은, 이제.(제주말은, 이제.)  
 104012 @ 조랑말마씨 제죽물은? 듣기로는.(조랑말요 제주말은? 듣기로는.)  
 104012 #1 여기서는?(여기서는?)  
 104012 @ 예.(예.)  
 104012 #1 그저 여기서는 물 몽생이.(그저 여기서는 말 망아지.)  
 104012 @ 물 몽생이?(말 망아지.)  
 104012 #1 응 몽생이.(응 망아지.)  
 104012 @ 응.(응.)  
 104012 #1 저 순 암말 보고는 암말 숫말이 그제 이제 잇일 거라.(저 순 암말 보고는 암말 수말이 그제 이제 있을 거야.)  
 104012 @ 예.(예.)  
 104013 @ 어, 다른 말은 안 들어봐수파?(어, 다른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4013 #1 어.(어.)  
 104013 @ 물예.(말요.)  
 104013 #1 여기 물 기르는 사람이 몇 사람 엇고.(여기 말 기르는 사람이 몇 사람 없고.)  
 104013 @ 예.(예.)  
 104013 #1 물로 운반용으로 물 기르는 사람은 엇어.(말로 운반용으로 말 기르는 사람은 없어.)  
 104013 @ 그 육, 저기 수산서 그 새라도 행오면은 걸 저 배에서 내리면 그거를.(그 육, 저기 '수산'에서 그 떠라도 해오면 그걸 저 배에서 내리면 그거를.)  
 104013 #1 다 등짐으로 지영 왔어.(다 등짐으로 지어서 왔어)  
 105013 @ 다 등짐.(다 등짐.)  
 105013 #1 으 가까운 포구까지 으 포구예.(요 가까운 포구까지 요 포구예.)  
 104013 @ 응.(응.)  
 104013 #1 여기서 그자 혼 오벙 메다.(여기서 그저 한 오백 미터.)  
 104013 @ 응 가까우니까.(응 가까우니까.)



104013 #1 혼 오뎡 떤다 거리에 잇는 배덜이 가서 시꺼 실러 오거든.(혼한 오뎡 미터 거리에 잇는 배들이 가서 실어 실어 오거든.)

104013 @ 응.(응.)

104013 #1 게민 뱃 저 등짐으로 저 오면은 혼 스무 못 열다섯 못 스무 못씩 지어얏 양 집이 와근에 집이 와근에 또 집이 늘었다가.(그러면 배 저 등짐으로 저 오면 한 스무 못 열다섯 못 스무 못씩 지어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또 집에 가리었다가.)

104013 @ 예.(예.)

104013 #1 이제 또 몇 못 꺼네영 줄 줄.(이제 또 몇 못 꺼내서 줄 줄.)

104013 @ 응.(응.)

104013 #1 줄을 이제 만들아근에 이제는 춤 집 일 덕에는 지봉에 올려근에.(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는 참 집 이는 적에는 지봉에 올려서.)

104013 @ 아.(아.)

104013 #1 집 일고 그렇게 했는디.(집 이고 그렇게 했는데.)

104013 @ 게난에 운반용로는.(그러니까 운반용로는.)

104013 #1 등짐으로.(등짐으로.)

104013 @ 예. 다 등짐으로 다 했구나예.(예. 다 등짐으로 다 했군요.)

104014 @ 뭇 이름 들어난 거?(말 이름 들었던 거?)

104014 #1 그 머 못 듣고 뭇 혼 술 두 설 이수 삼수엔 헤실 거라. 이수 삼수.(그 머 못 듣고 말 한 살 두 살 이수 삼수라고 했을 거야. 이수 삼수.)

104014 @ 예.(예.)

104014 #1 두 설 보고 이수 삼수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잇고 뭇.(두 살 보고 이수 삼수 그런 말 들어 본 적이 잇고 말.)

104015 @ 예. 뭇 구르마도 배랑 안허고예?(예. 말 수레도 별로 앓고요?)

104015 #1 겐데 저저 팔십 년데 뱃 사람이 뭇 구르마차 조합을 네 사름인가 헤났어. 마차 조합.(그러нде 저저 팔십 년데 뱃 사람이 말 수레 조합을 네 사름인가 했었어. 마차 조합.)

104015 @ 예.(예.)

104015 #1 건 운반용으로 건 어디 운반 했냐면 일반 저 예, 검멀레<sup>148)</sup> 모레 운반 할 랴고.(그건 운반용으로 그건 어디 운반 했냐면 일반 저 예, ‘검멀레’ 모레 운반 하려고.)

104015 @ 아.(아.)

104015 #1 여기 그 저 각 집집마다, 우물이 잇어. 물통이 잇어 물통 정부에서 여기 봉천수<sup>149)</sup> 봉천수가 자꾸 달라가지고 이제 쓰레또지봉을 개랑해서 쓰레또에서 물을 받아근에 그 물을 먹어라.(여기 그 저 각 집집마다, 우물이 잇어. 물통이 잇어 물통 정부에서 여기 ‘봉천수’ ‘봉천수’가 자꾸 달라가지고 이제 슬레이트지봉을 개랑해서 슬레이트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먹어라.)

148) ‘검멀레’는 우도면에 소재한 곳이다.

149) ‘봉천수’는 빗물을 모아서 생활에 쓰이고 있는 물을 말하는 제주어다.

104015 @ 응.(응.)

104015 #1 게민 집집마다 우물을 파라.(그러면 집집마다 우물을 파라.)

104015 @ 응.(응.)

104015 #1 우물을 파켄허면은 호당 얼마씩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헛  
니까 모래가 필요헌 거라.(우물을 파려고하면 호당 얼마씩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  
렇게 해서 하니까 모래가 필요한 거야.)

104015 @ 응.(응.)

104015 #1 모래가 필요허니까 모래를 ㄱ<sup>150</sup>)에 강 사올 순 엇고 저 검멀레엔 헌데 이  
제 검멀레에 모래가 잇었어 그 건축용 모래.(모래가 필요하니까 모래를 제주에 가서 사  
올 수는 없고 저 ‘검멀레’라고 헌데 이제 ‘검멀레’에 모래가 잇었어 그 건축용 모래.)

104015 @ 응.(응.)

104015 #1 그 모래를 집집마다 실어서 돈 벌려고 세 사람이 심지어는 밧을 팔아서  
마차를 샀다고.(그 모래를 집집마다 실어서 돈 벌려고 세 사람이 심지어는 밧을 팔아서  
마차를 샀다고.)

104015 @ 응.(응.)

104015 #1 우리 친구 헛나는 이제 경 해서 그 집집마다 그저 모래를 실어 날라서 저  
돈을 벌어냈었다고.(우리 친구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집마다 그저 모래를 실어  
날라서 저 돈을 벌었다고.)

104015 @ 그땐 후제예.(그땐 후에요.)

104015 #1 그래서 그제, 어느 정도 이젠, 것도 다 끝나니까 몰도 팔아불고 마차도 팔  
아불고 이제.(그래서 그제, 어느 정도 이젠, 그것도 다 끝나니까 말도 팔아버리고 마차  
도 팔아버리고 이제.)

104015 @ 예.(예.)

## 먹이

104016 @ 그 쉼하고 몰 먹이가 보통 우리는 출이엔 허는다.(그 소하고 말 먹이가 보  
통 우리는 풀이라고 하는데.)

104016 #1 출.(풀.)

104016 @ 예. 보통 출이엔 험니까?(예. 보통 풀이라고 합니까?)

104016 #1 예. 출.(예. 풀.)

104016 @ 예. 출 말고는 어떤 무시것덜, 저기 칙 칙, 뭇엔 험니까?(예. 풀 말고는 어  
떤 무엇들, 저기 줍 줍, 뭇라고 합니까?)

104016 #1 칙은 칙은 저 육지 ㄱ이 여기 칙 또 산에 가면 쫓끔 잇주만은 여기 칙이  
흔허지 안여는데, 머 줄 만든 거 줄 받는 거.(줍은 줍은 저 육지 제주에 여기 줍 또 산  
에 가면 쫓끔 잇지만은 여기 줍이 흔하지 않는데, 뭇 줄 만든 거 줄 받는 거.)

---

150) ‘ㄱ’은 여기에서는 제주 본섬을 말하는 제주어다.

104016 @ 예.(예.)

104016 #1 건디 여기는 칩 ㄱ쁜 거는 쉼 맥이거나 물 맥이지는 안 허여.(그런데 여기는 칩 같은 거는 소 먹이거나 말 먹이지는 않아.)

104016 @ 게민 들에 가면은 쉼 먹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잇이는고예.(그러면 들에 가면은 소 먹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104016 #1 산이 가민?(산에 가면?)

104016 @ 예.(예.)

104016 #1 산에도 잔디 순 잔디 잔디 크면은 그자 뜯어먹고.(산에도 잔디 순 잔디 잔디 크면은 그자 뜯어먹고.)

104016 @ 잔디엔 험니까 테역이엔 험니까 무시거엔 험니까?(잔디라고 험니까 잔디라고 험니까 무엇이라고 험니까?)

104016 #1 머 테역이엔 허주게.(뭐 잔디라고 하지.)

104016 @ 큰 것덜.(큰 것들.)

104016 #1 예. 테역출.(예. 잔디풀.)

104016 @ 테역출?(잔디풀.)

104016 #1 테역출.(잔디풀.)

104016 @ 테역출이엔 험니까?(잔디풀이라고 험니까?)

104016 #1 응, 테역출이엔 허주.(응, 잔디풀이라고 하지.)

104017 @ 출은 계난 출은 마련헌 거 힘들어근에 그냥 우에 가근에 저기 저.(풀은 그러니까 풀은 마련헌 거 힘들어서 그냥 위에 가서 저기 저.)

104017 #1 이 이 여기 동네사람은 저 서머리<sup>151)</sup>예.(이 이 여기 동네사람은 저 ‘서머리’예.)

104017 @ 예.(예.)

104017 #1 서머리 산에 가근에 소를 아이 키웠는데 저 동착녘<sup>152)</sup> 사람덜.(‘서머리’ 산에 가서 소를 아이 키웠는데 저 ‘동착녘’ 사람들.)

104017 @ 예.(예.)

104017 #1 그디 한 몇 집은 서머리에 자꾸 아침저녁으로 들락날락 했다고.(거기 한 몇 집은 ‘서머리’에 자꾸 아침저녁으로 들락날락 했다고.)

104017 @ 으.(으.)

104017 #1 게민 어느 정도, 한 한 오십 메다.(그러면 어느 정도, 한 한 오십 미터.)

104017 @ 응.(응.)

104017 #1 그 범위네에 돌아다니면서 뜯어 먹게시리.(그 범위내에 돌아다니면서 뜯어 먹게끔.)

104017 @ 응.(응.)

104017 #1 말뚝을 박아 논다고.(말뚝을 박아 놓는다고.)

151) ‘서머리’는 우도에 소재한 지경이다.

152) ‘동착녘’은 방향인 ‘동(東)’과 의존명사인 ‘녘’에 제주어 ‘착’이 결합된 동쪽을 말하는 제주어다.

104017 @ 응, 말뚝을.(응, 말뚝을.)

104017 #1 말뚝을 박아노민 그 물이나 썬가 돌아다니면서.(말뚝을 박아놓으면 그 말이나 소가 돌아다니면서.)

104017 @ 응, 먹는 거라예.(응, 먹는 거예요.)

104017 #1 이제 지금 이제 풀을 뜯어 먹는 거라.(이제 지금 이제 풀을 뜯어 먹는 거야.)

104017 @ 응.(응.)

104017 #1 경 행 또 아침 땀 그렇게 흐곡 또 저녁 때 또 다른 딜로 고쳐 박아주고, 웬겨주고.(그렇게 해서 또 아침 땀 그렇게 하고 또 저녁 때 또 다른 데로 고쳐 박아주고, 읊겨주고.)

104019 @ 예. 경허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인척에 골앗듯이 감저 저기 줄예. 감젓줄 같은 걸로 헤기네예.(예.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일찍이 말했듯이 고구마 저기 줄요. 고구마기는줄기 같은 걸로 해서요.)

104019 #1 게난 감젓줄도 지금 이제 채데한 데로 썬 한 마리 일 년 먹일라고 허면 한 사천평 오천평치 고구마넝쿨을 모아와야 돼어.(그러니까 고구마기는줄기도 지금 이제 최대한 대로 소 한 마리 일 년 먹이려고 하면 한 사천 평 오천 평치 고구마넝쿨을 모여와야 돼.)

104019 @ 예예.(예예.)

104019 #1 모아다근에 한 두 늘 세 늘을 늘어 놔야.(모아다가 한 두 가리 세 가리를 가리어 놔야.)

104019 @ 예예.(예예.)

104019 #1 걸 이제 꺼네멍 저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 줘사 돼어.(그걸 이제 꺼내면서 저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세 번 주어야 돼.)

104019 @ 세 번은 줘사 돼난예.(세 번은 주어야 되니까요.)

104019 #1 아침에 세 번씩. 주곡 또 물 하루 강 또 물 혼 번 가근에 우물궂에 가근에 물 맥여 와야 되고.(아침에 세 번씩. 주고 또 물 하루 가서 또 물 한 번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 맥여 와야 되고.)

104019 @ 으기 나는 물에 가근에 저기 물 맥영 와신가마씨?(여기 나는 물에 가서 저기 물 맥여서 왔는가요?)

104019 #1 우리 저 나 키울 덕에는 이제 수돗물이 얼마 안나 그때는 안나부난, 이 저기 우물궂가 잇었다고 저기.(우리 저 나 키울 적에는 이제 수돗물이 얼마 안나 그때는 안나버리니까, 이 저기 우물가가 있었다고 저기.)

104019 @ 우물 무슨 물이엔 험니까?(우물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104019 #1 우물, 동네에서 그때 빨래터.(우물, 동네에서 그때 빨래터.)

104019 @ 아.(아.)

104019 #1 빨래터 물을 맥여났다고.(빨래터 물을 먹였다고.)

104019 @ 응, 거 무슨 물이엔 험니까? 그 물은.(응, 거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그 물

은.)

104019 #1 걸 여기서는 궂인물<sup>153)</sup>이엔 허는다.(걸 여기서는 ‘궂인물’이라고 하는데.)

104019 @ 궂인물?(‘궂인물?’)

104019 #1 궂인물.(‘궂인물.’)

104019 @ 궂인물.(‘궂인물.’)

104019 #1 궂인물인디 그 빨래터주 빨래터.(‘궂인물’인데 그 빨래터지 빨래터.)

104019 @ 예. 궂인물이에.(예. ‘궂인물’이요.)

104019 #1 게고 거 빨래터 물을 저.(그리고 거 빨래터 물을 저.)

104019 @ 그 물을 맥영예.(그 물을 먹여서요.)

104019 #1 비누도 비누도 좀 비눗물도 좀 서꺼진 거지만은 쉼을 맥여왔다고 그때.(비누도 비누도 좀 비눗물도 좀 섞어진 거지만은 소를 먹여왔다고 그때.)

104021 @ 응, 인척에 삼촌 그 강 쉼 맥여난 추억은예. 아까 고향에예.(응, 일찍이 삼촌 그 가서 소 먹었던 추억은요 아까 말했으니까요.)

## 땃감

104022 @ 삼촌 저기 부엌에 밥해 먹젠 허민 땃 땃<sup>ㅁ</sup>슴 잇어야 땃 거 아니파예?(삼촌 저기 부엌에 밥해 먹으려고 하면 땃 땃감 잇어야 땃 거 아닙니까요?)

104022 #1 저 보리짚.(저 보릿짚.)

104022 @ 보리짚?(보릿짚?)

104022 #1 예.(예.)

104022 @ 예.(예.)

104022 #1 보리짚허고 조짚허고.(보릿짚하고 조짚하고.)

104022 @ 예. 보리짚허고.(예. 보릿짚하고.)

104022 #1 거 허다근에 옛날에는 걸로 흥쭈 부족하면은 우리시대까지는 곤노가 나와 땃주.(거 하다가 옛날에는 걸로 조금 부족하면은 우리시대까지는 곤로가 나와버렸지.)

104022 @ 예.(예.)

104022 #1 겐디 우리 어머니시대는 그 보리짚 좇짚이 떨어지면 이제 저 궂이 강 설피 설피엔 흥거 해 와.(그런데 우리 어머니시대는 그 보릿짚 조짚이 떨어지면 이제 저 제주에 가서 설피 설피라고 한 거 해 와.)

104022 @ 저 궂이는 어느 쪽이파?(저 제주는 어느 쪽입니까?)

104022 #1 큰섬에 큰섬에 강.(큰섬에 큰섬에 가서.)

104022 @ 큰섬에 가근에.(큰섬에 가서.)

104022 #1 큰섬에 종달리 하도 땃 해 월정 행원까지 월정까지 갓엇수다. 집집마다 강 그디 강 방, 가네 잡남덜 이짜녀.(섬에 ‘종달리’ ‘하도’ 땃 해 ‘월정’ ‘행원’까지 ‘월정’까지 갓엇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거기 가서 보아서, 가서 잡나무들 잇잖아.)

153) ‘궂인물’은 우도면에 소재한 지경이다.

104022 @ 예.(예.)

104022 #1 그디 거 빌엉 이 이만큼씩 무경, 무경 걸 포구에 갖다 노면 여기서 배에서 배가 가근에 실러당 그거 싹꺼당 여기 다 집이 집집마다 행 늘어놔근에 거 다 찢르면서 걸로 밥해먹고, 또 그 이전에는 딱시 그 이전에는 배도 장만 못허민 또 산에 강 잔디. (거기 거 빌려서 이 이만큼씩 묶어서, 묶어서 걸 포구에 갖다놓으면 여기서 배에서 배가 가서 실어다가 그거 실어다가 여기 다 집에 집집마다 해서 가리어놓아서 거 다 자르면서 걸로 밥해먹고, 또 그 이전에는 다시 그 이전에는 배도 장만 못하면 또 산에 가서 잔디.)

104022 @ 예.(예.)

104022 #1 잔디 해다근에 거 캐당, 겨울에는 잔디 몰라버리거든 풀이 엇이 저 푸리지 않고 하얀 때.(잔디 해다가 거 캐어다가, 겨울에는 잔디 말라버리거든 풀이 없이 저 푸르지 않고 하얀 때.)

104022 @ 예.(예.)

104022 #1 걸 이제 캐어근에 털어근에 터럭서네 이제 잔디가 나와 그걸 흔 짐씩 지영 집이 왕 몰렸다근에 불 때곡.(그걸 이제 캐어서 털어서 털어서 이제 잔디가 나와 그걸 한 짐씩 지어서 집에 와서 말렸다가 불 때고.)

104022 @ 잔디예.(잔디요.)

104022 #1 예.(예.)

104022 @ 저 저기서는 저 솔잎 걷는 식으로 여기는 잔디를 해근에.(저 저기서는 저 솔잎 걷는 식으로 여기는 잔디를 해서.)

104022 #1 예.(예.)

104022 @ 거 몰려근에.(거 말려서.)

104022 #1 예.(예.)

104022 @ 뽕아근에.(뽕아서.)

104022 #1 잔디 잔디.(잔디 잔디.)

104022 @ 응.(응.)

104022 #1 솔잎도 그때는 이제 해방 돼자마자 나무들 다 비어다 먹어부니까 솔잎 소낭도 얼마 엇어부니까 솔잎도 얼마 엇었어 그때는.(솔잎도 그때는 이제 해방 되자마자 나무들 다 베어다 먹어버리니까 솔잎 소나무도 얼마 없어버리니까 솔잎도 얼마 없었어 그때는.)

104022 @ 예.(예.)

104022 #1 지금 거 솔잎은 저디 강 굽어단에 무꺼나근에 또 이디 와근에 단에 뽕감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 큰섬에 가서.(지금 거 솔잎은 저데 가서 굽어다가 묶어놓아서 또 이데 와서 단에 뽕감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저 큰섬에 가서.)

104023 @ 쇄똥 똥똥은 배랑 아, 쇄똥 똥똥은.(소똥 말똥은 별로 아, 소똥 말똥은.)

104023 #1 쇄똥 똥똥은 엇어서. 저 이 저.(소똥 말똥은 없었어. 저 이 저.)

104023 @ 굴묵 지드는 거.(아궁이 지피는 거.)

104023 #1 첫 채는 굴묵 때는 거 아궁이 때는 때만 쓰고 또 걸름용으로만 했주. 불은 안 뗏주.(첫 채는 아궁이 때는 거 아궁이 때는 때만 쓰고 또 거름용으로만 했지. 불은 안 뗏지.)

104024 @ 예. 계난 저기 옛날에는 그 한동이나 월정 같은 디 가 가지고 ㄴ에 가 가지고.(예. 그러니까 저기 옛날에는 그 ‘한동’이나 ‘월정’ 같은 데 가 가지고 제주에 가 가지고.)

104024 #1 예. 설피.(예. 설피.)

104024 @ 설피를 행 왕예.(설피를 해서 와서요.)

104024 #1 예. 설피를 행 왕.(예. 설피를 해서 와서.)

104024 @ 설피예. 설피 설피면은 크기는 어느 정도 막 크게 해신고예? 막.(설피요. 설피 설피면 크기는 어느 정도 마구 크게 했는가요? 마구.)

104024 #1 지금 이 우 안음으로 혼 안음 남아 지금.(지금 이 위 아음으로 한 아음 남아 지금.)

104024 @ 아.(아.)

104024 #1 혼 무끔이.(한 묶음이.)

104024 @ 혼 묶음이에.(한 묶음이요.)

104024 #1 길이는 혼 발 이렇게 우리 혼 발 발정도 돼고 거 나무를 그런 식으로 잘라.(길이는 한 발 이렇게 우리 한 발 발정도 되고 거 나무를 그런 식으로 잘라.)

104024 @ 예. 그렇게 잘라근예.(예. 그렇게 잘라서.)

104024 #1 예.(예.)

104024 @ 둥글려근예 왕예.(뒹굴려 와서요.)

104025 #1 그거 잡남덜이주 ㄴ이 그저 쫄끔 올라가면 팍 차서 지금도. 꽃자왈 ㄴ뜰디 이제 나는 남덜.(그거 잡나무들이지 제주 그저 조금 올라가면 팍 차서 지금도. 꽃자왈 같은데 이제 나는 나무들.)

104025 @ 아, 그기 준남예.(아, 거기 잔나무요.)

104025 #1 꽃자왈 ㄴ뜰디 나는 남덜 이짜너 그런디.(꽃자왈 같은데 나는 나무들 있잖아 그런데.)

104025 @ 음.(음.)

104025 #1 경 허다가 이 전기 곤 저기 석유곤노가 나오기 시작헿니까 이젠 다 석유곤노로 인젠 데쳐 헤부니까 안 다니기 시작 헤연.(그렇게 하다가 이 전기 곤 저기 석유곤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젠 다 석유곤노로 인제는 대체 헤버리니까 안 다니기 시작했어.)

104026 @ 예. 숯 숯은 구원?(예. 숯 숯은 구워서?)

104026 #1 숯도 안 구워서.(숯도 안 구워서.)

104026 @ 숯은예. 식께 때 고기 굽젠 허문 어떻 구워신고예? 생선 굽는 거.(숯은요, 제사 때 고기 구우려고 하면 어떻게 구웠는가요? 생선 굽는 거.)

104026 #1 네가 쫄끔 쫄끔 만들어 놓은 사름도 잇긴 잇어 그때 썰라고.(내가 조금 조

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때 쓸려고.)

104026 @ 으. 경 안 허면은 불치에 구워근에 굽는다든가.(으. 그렇게 안 하면은 ‘불치’에 구워서 굽는다든가.)

104026 #1 아, 불치<sup>154)</sup>엔 안 굽고 숯을 만들앙, 물 뿌려근에 숯을 만들앗당 걸 잘 관리햇당 그거에 이제 씨게 돼면은 종이 그든 거 놔근에 불부쩌근에 연결해근에 화로에 놔근에 적 걸쳐근에 거기에서 적을 굽기도 했주게.(아, ‘불치’에는 안 굽고 숯을 만들어서, 물 뿌려서 숯을 만들었다가 걸 잘 관리했다가 그거에 이제 쓰게 되면은 종이 같은 거 넣어서 불붙여서 연결해서 화로에 넣어서 적 걸쳐서 거기에서 적을 굽기도 했지.)

104026 @ 음.(음.)

104026 #1 미릿에 준비를 해 놔근에.(미리서 준비를 해 놓아서.)

104027 @ 음, 계민문 삼촌은 거 어머니영 그찌 탕기멍 그 땀곰 허젠 해난 그런 추억 같은 거는 옛날 생각.(음, 그러면 삼촌은 거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땀곰 하려고 했던 그런 추억 같은 거는 옛날 생각.)

104027 #1 네가 이에 오십삼년도 사년도에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 죽어분 형님하고 나하고 형님 다섯 살 위에 형님인디 그 형님하고 저 서머리, 땀곰허레 매일 다녀서.(내가 이에 오십삼년도 사년도에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 죽어버린 형님하고 나하고 형님 다섯 살 위에 형님인데 그 형님하고 저 ‘서머리’, 땀곰하러 매일 다녔어.)

104027 @ 예. 서머리에.(예. ‘서머리’에.)

104027 #1 그때 흥 흥년 땀디.(그때 흥 흥년 땀데.)

104027 @ 예.(예.)

104027 #1 그걸로 해단에 저 해조류, 가시리 넓패 프레 이런 건만 메어단에 끓여먹어서.(그걸로 해다가 저 해조류, 가시리 넓패 파레 이런 것만 매어다가 끓여먹었어.)

104027 @ 아, 그거 해다근에예.(아, 그거 해다가요.)

104027 #1 계난 양식도 엇거니와 그건 땀곰도 엇어근에 저 서머리 가근에 지금 때단 해단 허멍.(그러니까 양식도 없거니와 그건 땀곰도 없어서 저 ‘서머리’ 가서 지금 때었던 해다가 하면서.)

## 사냥

104028 @ 이 소섬에는 그 족제비 같은 거 꿩 같은 거 잇인가마씨?(이 ‘소섬’에는 그 족제비 같은 거 꿩 같은 거 있는가요?)

104028 #1 없어 없어.(없어 없어.)

104028 @ 꿩도 엇어?(꿩도 없어?)

104028 #1 지금은 꿩 잇어.(지금은 꿩 있어.)

104028 @ 옛날에는.(옛날에는.)

104028 #1 옛날에는 족제비도 엇고, 꿩도 엇어 났는디 꿩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헌디

---

154) ‘불치’는 검부러기 따위를 태우는 데서 생긴 재이다.



가 혼 이십년 뽕서.(옛날에는 족제비도 없고, 꿩도 없었는데 꿩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  
한데가 한 이십년 되고 있어.)

104028 @ 아.(아.)

104028 #1 꿩이 일부러 씨를 해 와서 여기 여기 관광지로 해근에.(꿩이 일부러 씨를  
해 와서 여기 여기 관광지로 해서.)

104028 @ 꿩 꿩.(꿩 꿩.)

104028 #1 게.(그럼.)

104028 @ 예.(예.)

104028 #1 어, 게 꿩이 지금 너무 남발해영 왜 꿩을 해왔느냐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  
들은 원망이라 그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라.(어, 그럼 꿩이 지금 너무 남발해서 왜 꿩을  
해왔느냐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원망이야 그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104028 @ 꿩이 물 건너 못 가는구나예.(꿩이 물 건너 못 가는군요.)

104028 #1 못가는 모양이라. 여 여기 여기 꿩이 많이 이서 지금.(못가는 모양이야. 여  
여기 여기 꿩이 많이 있어 지금.)

104028 @ 아, 게난 어릴 적에는 뭐 이런 사냥은 해 본적이 었이큰게예.(아,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뭐 이런 사냥은 해 본적이 없겠네요.)

104028 #1 사냥은 해 본지가 었고 지금은 여기 이장으로 잇던 죽어부렸지만 우도에  
혼번 관광지 만들어보자고 행, 꿩을 몇 마리 갖다 낚는디 그게 이제 막 번식 돼어부러  
서.(사냥은 해 본데가 없고 지금은 여기 이장으로 잇던 죽어버렸지만 우도에 한번 관광  
지 만들어보자고 해서, 꿩을 몇 마리 갖다 놓았는데 그게 이제 막 번식 돼버려서.)

104028 @ 예. 아이고 경 헛구나예.(예. 아이고 그렇게 했군요.)

##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 물질허지 안 헛수파예?(바다에 물질하지 않았습니까요?)

105001 #4 예예.(예예.)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잇입니까? 물질허는 일들 허고예.(바다  
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물질하는 일들 하고요.)

105001 #4 저 저 바다에 강 툃다 오는 거.(저 저 바다에 가서 뜯어 오는 거.)

105001 @ 툃다 오는 거 허고.(뜯어 오는 거 하고.)

105001 #4 천초.(우뭇가사리.)

105001 #1 천초허고.(우뭇가사리하고.)

105001 #4 예. 소라.(예. 소라.)

105001 @ 예. 소란 물속에 들어간.(예. 소라는 물속에 들어가서.)

105001 #4 천초는 이 삼월에 허는 거고.(우뭇가사리는 이 삼월에 하는 거고.)

105001 @ 예.(예.)

105001 #4 에 소라는 이제 팔월 추석에 허는 거고.(에 소라는 이제 팔월 추석에 하는 거고.)

105001 @ 예. 경.(예. 그렇게.)

105001 #4 또 이제 성계라고 허는 거 잇는 거는 혼 동지섯들에 허는 거우다게.(또 이제 성계라고 하는 거 잇는 거는 한 동지선달에 하는 겁니다.)

105001 @ 아, 성계는 동지.(아, 성계는 동지.)

105001 #1 동지섯들에도 허곡 또 사 오월에도 허곡.(동지선달에도 하고 또 사 오월에도 하고.)

105001 #4 예. 사 오월엔 바빠 가지고 안 들고.(예. 사 오월에는 바빠 가지고 안 들고.)

105001 #1 예. 오뉴월에, 오뉴월에.(예. 오뉴월에, 오뉴월에.)

105001 #4 오뉴월에 허는 거.(오뉴월에 하는 거.)

105001 @ 아.(아.)

105001 #1 거 오뉴월에 비양 ㄱ뜬디 영일동 ㄱ뜬디.(거 오뉴월에 ‘비양’ 같은데 ‘영일동’ 같은데.)

105001 @ 아, 성계는?(아, 성계는?)

105001 #4 예, 성계는 원칙으로 허면은 동지섯들에 허는 거.(예, 성계는 원칙으로 하면은 동지선달에 하는 거.)

105001 #1 겨울에도 허곡 여름에도 허곡.(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105001 #4 겨울에 그거는 철을, 슬진 때 혼다고 해서 그들에 험네께게.(겨울에 그거는 철을, 살찐 때 한다고 해서 그달에 합니다.)

105001 @ 예. 그들에 허고.(예. 그달에 하고.)

105001 #4 지금은 막 설 때우다 성계가.(지금은 막 설 때입니다 성계가.)

105001 @ 예예.(예예.)

105001 #4 동지섯들에 막 슬쳐 가지고 맛도 잇고 그렇게 합니다.(동지선달에 막 살찌 가지고 맛도 잇고 그렇게 합니다.)

105001 @ 예.(예.)

105001 #1 산란기가 오뉴월 때가 아주 산란기우다.(산란기가 오뉴월 때가 아주 산란기입니다.)

105001 @ 예.(예.)

105001 #1 그때가 제일 살찌고 막, 머 허난.(그때가 제일 살찌고 마구, 뭐 하니까.)

105001 @ 예. 허는 거 헛고, 바당에 물건은예.(예. 하는 거 하고, 바다에 물건은요.)

105001 #1 전복은 엿수다.(전복은 없습니다.)

105001 #4 예, 전복은 전복은 머 저 상군덜 오십대 육십 대뻬긴 우리 전복 구경 못 합니다.(예, 전복은 전복은 뭐 저 상군들 오십대 육십 대밖에는 우리 전복 구경 못 합니다.)

105001 @ 맞수다 옛날에 옛날에.(맞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105001 #4 아, 옛날에는 아 전복도 머 하나 두 개 허는 거 우린 전복 많이 안 뜨주만  
은 혼 육십대 오십대 혼 세 개도 뜨고 두 개도 뜨고 이렇게 헤낫는디, 지금은 생복 씨  
지엇수다게.(아, 옛날에는 아 전복도 뭐 하나 두 개 허는 거 우린 전복 많이 안 떼지만  
한 육십대 오십대 한 세 개도 떼고 두 개도 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복 씨지엇습  
니다.)

105001 @ 예. 지언예.(예. 지어서요.)

105001 #4 가다오다 가끔 이 하나 정도 떼어오는 사람도 잇긴 잇입니께마는 건.(가다  
오다 가끔 이 하나 정도 떼어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105001 @ 예. 거난 바다에도 남자 허는 일 여자 허는 일 잇인 거 아니과예. 남자허는  
일은 그 넓메역도 헤나고 줄 줄나시 해 가지고.(예. 그러니까 바다에도 남자하는 일 여  
자 하는 일 있는 거 아닙니까요. 남자 하는 일은 그 넓미역도 했고 줄 ‘줄나시’ 해 가지  
고.)

105001 #1 예.(예.)

105001 #4 주인양반이 험니다 넓메역은.(주인양반이 함니다 넓미역은.)

105001 @ 예. 그런 거 헤나고예. 고기 나끄는 거.(예. 그런 거 했고요 고기 낚는 거.)

105001 #1 그물에 그물에서 고기 나까.(그물에 그물에서 고기 낚아.)

105001 @ 그물에서 고기 나끄는 거예.(그물에서 고기 낚는 거요.)

105001 #1 예.(예.)

105001 @ 게고 저기 주낙이엔 현 것도 한 사십년대 이후에 썸 헛텐 허고예.(그렇고  
저기 주낙이라고 한 것도 한 사십년대 이후에 썸 했다고 하고요.)

105002 @ 듬북 감태는 그 좀 전에도 말 곶앗주마는 듬북 감태도 바당이서.(듬북 감  
태는 그 좀 전에도 말 말했지마는 듬북 감태도 바다에서.)

105002 #1 예.(예.)

105002 @ 찰랑 올렸지예.(찰라서 올렸지요.)

105002 #1 옛날에야.(옛날에야.)

105002 @ 테우에.(떼에.)

105002 #1 팔십년도에서 부터 팔십오년<sup>155)</sup>까지 할망<sup>155)</sup>하고 나하고 감태 즈물아나  
서.<sup>156)</sup>(팔십년도에서 부터 팔십오년까지 아내하고 나하고 감태 ‘즈물’었어.)

105002 @ 감태 즈물아네예.(감태 ‘즈물어’서요.)

105002 #1 에 풍, 범선 헤갓고.(에 풍, 범선 해가지고.)

105002 @ 범선.(범선.)

105002 #1 할망하고 나하고 또 우리 친구하고 해서헤네 너 이서 감태.(아내하고 나하  
고 또 우리 친구하고 해서해서 넷이서 감태.)

105002 @ 으.(으.)

105002 #1 감태 즈물아네 감태 혼 층에 만원씩 헤네 일년에 혼 백 층씩 허연 혼 백

155) ‘할망’은 제주어로 일반적인 할머니를 이르나 여기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아내를 말하고 있다.

156) ‘즈물다’는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내다.’는 뜻이다.

만 원씩 벌어나서.(감태 ‘즈물어’서 감태 한 칠에 만원씩 해서 일년에 한 백칠씩 해서 한 백만 원씩 벌었어.)

105002 @ 어.(어.)

105002 #1 할망하고 나하고.(아내하고 나하고.)

105002 @ 어, 그 헐 땀 범선으로 헤기네예?(어, 그 할 땀 범선으로 해서요?)

105002 #1 예.(예.)

105002 @ 게민은 이 바당에.(그러면 이 바다에.)

105002 #1 바당에서 할망이, 감태 즈물젠 물속에 들어가면 이 저 줄 줄을 등에 짊어 정 들어가.(바다에서 아내가, 감태 ‘즈물’려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 저 줄 줄을 등에 짊어 쳐서 들어가.)

105002 @ 예.(예.)

105002 #4 건 빨리 올라오라고.(건 빨리 올라오라고.)

105002 #1 감태를 비영.(감태를 베어서.)

105002 @ 예.(예.)

105002 #4 땡기는 거예요.(당기는 거예요.)

105002 #1 비어근에 ㄱ만이 잡앙 잇이민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 이제.(비어서 가만히 잡아서 있으면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 이제.)

105002 @ 예.(예.)

105002 #1 알면은 땡겨주는 거라 땡겨주면 올라왕은에 감태 안앙 딱시 그걸 우리가 걸 안앙 배더레 놓곡.(알면 당겨주는 거야 당겨주면 올라와서는 감태 안아서 다시 그걸 우리가 걸 안아서 배로 놓고.)

105002 @ 아.(아.)

105002 #1 또 이제 들어가면.(또 이제 들어가면.)

105002 @ 물속에 들어가네.(물속에 들어가서.)

105002 #1 이젠 딱시 들어 갈 땀 징긋이 들어가당 내중에 감태 즈물앙 고개 영 들 땀 줄이 흑삭해영.(이젠 다시 들어 갈 때는 지긋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감태 ‘즈물어’서 고개 이렇게 들 때는 줄이 헐거워.)

105002 @ 예.(예.)

105002 #1 짝끔 어지럽고 허영.(조끔 어지럽고 해서.)

105002 @ 게민 확 잡아 땡영.(그러면 확 잡아 다녀서.)

105002 #1 아 이거 저 잡앙 머리 들렀구나 그 신호가 나는 거라.(아 이거 저 잡아서 머리 들었구나 그 신호가 나는 거야.)

105002 @ 아.(아.)

105002 #1 게문 땡겨 올령 토허게 헝곡 걸만 계속 반복허는 거라.(그러면 당겨 올려서 토허게 하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105002 @ 예.(예.)

105002 #1 경형 그저 바닥으로 혼 혼 백 바닥씩 배에 저 시끄곡.(그렇게 해서 그저

바닥으로 한 한 백 바닥씩 배에 저 신고.)

105002 @ 아.(아.)

105002 #1 시끌 정도로 막 지금 시꺼오꼭 막 한 건 오 메다.(실을 정도로 마구 지금 실어오고 마구 한 건 오 미터.)

105002 #4 아, 백 발은 안 돼어.(아, 백 발은 안 돼.)

105002 #1 혼 스 메다 오 메다벧긴 안 돼여 건 아주 얇은디.(한 사 미터 오 미터밖에 는 안돼 건 아주 얇은데.)

105002 #4 그런 지폰디 강 감테 못 즈물아 읍네께.(그런 깊은데 가서 감테 못 ‘즈물 어’ 읍니다.)

105002 #1 지금 더 이상 지폰디 못 가.(지금 더 이상 깊은데 못 가.)

105002 #4 우리 발로 혼 너 발정도 예예.(우리 발로 한 네 발정도 예예.)

105002 @ 아이고예.(아이고요.)

105002 #4 이거 너 발 안 텔 겨우다.(이거 네 발 안 될 겁니다.)

105002 @ 예.(예.)

105002 #4 안 됩니당께.(안 됩니다.)

105002 @ 예. 세 발정도.(예. 세 발정도.)

105002 #4 이거 저 남저 발로 두 발 반이나 두 발벧기 안 됩니다. 혼 서 발정도 그 정도 가는데 이젠 그 디 못 들어갑니께.(이거 저 남자 발로 두 발 반이나 두 발밖에 안 됩니다. 한 서 발정도 그 정도 가는데 이젠 그 곳 못 들어갑니다.)

105002 @ 예게.(예.)

105002 #4 이젠 턱도 엇수다.(이젠 턱도 없습니다.)

105002 @ 예.(예.)

105002 #1 그땐 젊은 때고.(그땐 젊은 때고.)

105002 #4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혼 발 반 정도벧기 못 들어갑니다.(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한 발 반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105002 @ 예.(예.)

105015 #1 할망도 오륙십 대고 그때.(아내도 오륙십 대고 그때.)

105002 @ 예게 오십 대 상군 헐 때고.(예게 오십 대 상군 할 때고.)

105002 #4 예. 감테 즈물민 그때도.(예. 감테 ‘즈물’면 그때도.)

105002 #1 다른 사름은 안 허고.(다른 사름은 앓고.)

105002 @ 으.(으.)

105002 #1 우리 집 주소 우리만 헛주 우리만 헛어.(우리 집 주소 우리만 헛지 우리만 헛어.)

105002 @ 아.(아.)

105002 #1 우리 몇 혼 두어 사름만 세 사름만.(우리 몇 한 두어 사름만 세 사름만.)

105002 @ 듬북허는 거는 바당 틀 때 아니고 그냥 우도 사름덜 다.(듬북하는 거는 바 다 틀 때 아니고 그냥 우도 사름들 다.)

105002 #4 예. 올르면.(예. 오르면.)

105002 @ 듬북힐 때 올르면은.(듬북할 때 오르면은.)

105002 #1 응 올르면.(응 오르면.)

105002 #4 예. 그거는 안 좋아 합니다게.(예. 그거는 안 좋아 합니다.)

105002 @ 응, 허고.(응, 허고.)

105002 #4 바람 불영 올른 거는 해오고.(바람 불어서 오른 거는 해오고.)

105002 @ 예.(예.)

105002 #4 겐디 이제는 아니 험니께.(그런데 이제는 안 합니다.)

105002 @ 이제는.(이제는.)

105002 #1 그 옛날.(그 옛날.)

105002 @ 그 옛날에.(그 옛날에.)

105002 #4 예. 옛날에.(예. 옛날에.)

105002 @ 그 옛날에도 배 저 네 사람이나 다섯 사름허면은 배 가진 사람허고.(그 옛날에도 배 저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하면은 배 가진 사람하고.)

105002 #4 예.(예.)

105002 @ 그저 듬북 즈물 때도 밑에 가 가지고 넓미역 할 때나 할 때도 거 싹 행 와 기네 널영 물렁 배 가진 사름 세 개 가지곡.(그저 듬북 ‘즈물’ 때도 밑에 가 가지고 넓미역 할 때나 할 때도 거 싹 해서 와서 널어서 말려서 배 가진 사름 세 개 가지고.)

105002 #4 예.(예.)

105002 @ 그 담 몇 개씩 가지고.(그 다음 몇 개씩 가지고.)

105002 #4 아니.(아니.)

105002 #1 넓미역은 보통 너이서 험주게. 너 이서.(넓미역은 보통 넷이 하죠. 넷 이.)

105002 @ 응.(응.)

105002 #1 너이서.(넷이.)

105002 @ 응.(응.)

105002 #1 흔 사름은 선장질하고 또 흔 사름은 줄 세 개 뇌근에 땡경허면 배도.(한 사람은 선장질하고 또 한 사람은 줄 세 개 뇌서 당겨서 하면 배도.)

105002 #4 뵤 안 해봐수다.(배는 안 해봤습니다.)

105002 @ 응.(응.)

105002 #4 뵤 안 해봐수다.(배는 안 해봤습니다.)

105002 #1 또 서이서 동아리 하는 수도 있고 너이서.(또 셋이서 동아리 하는 수도 있고 넷이.)

105002 @ 응.(응.)

105002 #1 이제 또 저 혼자만 이제 해서 너이가 작업을 하라고 딱시 빌려주는 수도 있고.(이제 또 저 혼자만 이제 해서 넷이 작업을 하려고 다시 빌려주는 수도 있고.)

105002 @ 예.(예.)

105002 #1 게민 이제 혼자만 이제 그 투자를 해기네 배를 만들앙 너 이서 작업 할

덕에는 배 훔축을 줘주.(그러면 이제 혼자만 이제 그 투자를 해서 배를 만들어서 넷이서 작업 할 적에는 배 한몫을 주지요.)

105002 @ 예.(예.)

105002 #1 게민 혼 너이 흥곡 배 흥곡 허민 다섯 짝 되는 거.(그러면 한 넷이 하고 배하고 하면 다섯 갓 되는 거.)

105002 @ 예. 다섯 짝 갈르는 거예.(예. 다섯 갓 가르는 거요.)

105002 #1 예.(예.)

105002 @ 다섯예. 네 명에서 다섯 명.(다섯요. 네 명에서 다섯 명.)

105002 #1 예.(예.)

105003 @ 삼촌, 우리는 여기 고동이엔 험니까? 소라를?(삼촌, 우리는 여기 고동이라고 합니까? 소라를?)

105003 #1 소라 보고?(소라 보고?)

105003 @ 예.(예.)

105003 #4 사투리는 고동이엔 흥고 이제 험니까 소라.(사투리는 고동이라고 하고 이제 합니다 소라.)

105003 @ 예.(예.)

105003 #1 고동이엔 흥고.(고동이라고 하고.)

105003 #4 이제 ㄱ<sup>157)</sup>이 사람들은 오민 소라라고 흥고 토백이는.(이제 제주에 사람들은 오면 소라라고 하고 토박이는.)

105003 @ 예.(예.)

105003 #1 토백이는 소라엔.(토박이는 소라라고.)

105003 @ 구쟁기엔 흥고예.(소라 하고요.)

105003 #1 구쟁기엔 구쟁기엔도 흥고.(소라라고 소라라고도 하고.)

105003 @ 예.(예.)

105003 #4 구쟁기엔도 여깃 사람은 안 흥고 저 ㄱ이사름만.(소라라고도 여기에 사람은 앓고 저 제주사람만.)

105003 @ ㄱ이사름만 흥고.(제주사람만 하고.)

105003 #4 저 서촌 사람만 구쟁기엔 험디다게.(저 서촌 사람만 소라라고 합디다.)

105003 @ 여기는 고동이엔 흥고예.(여기는 소라라고 하고요.)

105003 #4 예. 이디 고동이엔 흥고.(예. 이데 소라라고 하고.)

105003 @ 예.(예.)

105003 #4 거다 집안마다 이름이 다 틀립디게.(거다 집안마다 이름이 다 다릅디다.)

105003 @ 예예. 옛날부터?(예예. 옛날부터?)

105003 #4 나도 서촌 사람이영 영 잠시 잊어봤는다. 구쟁기, 경 허주 여기 시름은 고동이엔만 험니까.(나도 서촌 사람하고 이렇게 잠시 잊어봤는데. 소라, 그렇게 하지 여기 시름은 소라라고만 합니다.)

---

157) ‘ㄱ’은 여기에서는 제주 본섬을 말한다.

105003 @ 고동이엔예.(고동이라고요.)

105003 #4 예. 거 사투립주게.(예. 거 사투립지요.)

105003 @ 예.(예.)

105003 #1 여기 사름도 구쟁기엔 곧는 사름도 잇어서.(여기 사람도 소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잇어서.)

105003 @ 응, 옛날에도마씨?(응, 옛날에도요?)

105003 #4 옛날에도 소라엔 안 허고 우리.(옛날에도 소라라고 앓고 우리.)

105003 @ 고동 잡앙 왓저.(소라 잡아서 왔다.)

105003 #4 고동 잡으레 가자.(소라 잡으러 가자.)

105003 @ 예. 고동 잡으레 가자예.(예. 소라 잡으러 가자요.)

105003 #4 경 경 헤낫수다게.(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105003 @ 예. 구쟁기엔 안 허고예?(예. 소라라고 앓고요?)

105003 #4 예.(예.)

105003 #1 구쟁기엇이엔도 헝고 고동엇이엔도 헝는 거.(소라엇이라고도 하고 소라엇이라고도 하는 거.)

105003 #4 이제도, 이제도 젊은 사름도 고동이엔 헝주예. 소라엔 안헝니께. 이제도 야 오십대 스십대도예. 소라엔 안 헝니께.(이제도, 이제도 젊은 사람도 소라라고 하지요. 소라라고 안 합니다. 이제도 야 오십대 사십대도요 소라라고 안 합니다.)

105003 @ 예.(예.)

105003 #4 우리 고동 잡으레 가자.(우리 소라 잡으러 가자.)

105003 @ 예예.(예예.)

105003 #4 저 그것이 우리가 나오는 말이우다게.(저 그것이 우리가 나오는 말이입니다.)

105003 @ 예. 나오는 말예. 갱이엔 헝니까 갱이엔 헝니까?(예. 나오는 말요. 게라고 헝니까 게라고 헝니까?)

105003 #1 갱이?(게?)

105003 @ 예.(예.)

105003 #4 아, 우리 사투리론 갱이 갱이 헝는디 여기서.(우리 사투리로는 게 게 하는 데 여기서.)

105003 #1 갱이 갱이 게보고? 아.(게 게 게보고? 아.)

105003 @ 예. 여기서는.(예. 여기서는.)

105003 #1 갱이엔 갱이.(게라고 게.)

105003 #4 갱이.(게.)

105003 @ 갱이예.(게요.)

105003 #4 갱이라고 헝니께.(게라고 합니다.)

105003 @ 경 헝곡.(그렇게 하고.)

105003 #4 예.(예.)



105003 @ 고동히고 고동히고 강이는 어떻 잡읍니까? 잡을 때.(소라하고 소라하고 게는 어떻게 잡읍니까? 잡을 때.)

105003 #1 아 게난 고동히고 강이하고는.(아 그러니까 소라하고 게하고는.)

105003 @ 틀리지예?(다르지요?)

105003 #1 틀립주게 강이는 굿디<sup>158</sup>서만 쫓끔.(다르지 게는 바닷가에서만 쫓끔.)

105003 #4 아니 소라는 저 고동은 이런 우이 다 얹어지고.(아니 소라는 저 소라는 이런 위에 다 얹어지고.)

105003 @ 얹어지고.(얹어지고.)

105003 #4 이것이 이제 다 돌이라고 하면 이만씩 헌 돌고명에 잇는 거고.(이것이 이제 다 돌이라고 하면 이만씩 한 돌구명에 잇는 거고.)

105003 @ 예.(예.)

105003 #4 강이는 머 그냥 자기테로 막 벌어 뎡이는 거기 때문에 강이는 못 잡읍니다게.(게는 뭐 그냥 자기대로 마구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게는 못 잡읍니다.)

105003 @ 게민 고동은 가근에 영 강 손으로.(그러면 소라는은 가서 이렇게 가서 손으로.)

105003 #4 예.(예.)

105003 @ 영 영 돌 트멍에서.(이렇게 이렇게 돌 틈에서.)

105003 #4 예예. 숨이 긴 사람은, 다섯 개도 앓영 나오고.(예예. 숨이 긴 사람은, 다섯 개도 가져서 나오고.)

105003 @ 예.(예.)

105003 #4 우리도 숨 쫓른 사람은 두 개 세 개도 앓영 나오꼭 이젠 하나도 못 앓영 읍니다 엇어 가지꼭.(우리도 숨 짧은 사람은 두 개 세 개도 가져서 나오고 이젠 하나도 못 가지고 읍니다 엇어 가지고.)

105003 @ 예. 게민 갱이는 발아다니는 거 확 강 톡.(예. 그러면 게는 밟아 다니는 거 확 가서 탁.)

105003 #1 강이는 저.(게는 저.)

105003 #4 강이 잡을 수가 엇수다.(게 잡을 수가 없읍니다.)

105003 @ 예.(예.)

105003 #1 여러 가지.(여러 가지.)

105003 @ 예.(예.)

105003 #4 엇읍니께 여기.(없읍니다 여기.)

105003 #1 지픈 바당에.(깊은 바다에.)

105003 @ 예.(예.)

105003 #4 잇당 흐나이나.(이따가 하나나.)

105003 #1 사는 강이가 잇고 빨강흔 거.(사는 게가 잇고 빨간 거.)

105003 @ 예.(예.)

---

158) ‘굿디’는 가(邊)에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바닷가를 말한다.

105003 #4 잇당 헛나이나 잇인다.(이따가 하나나. 있는데)

105003 #1 거 육상에.(거 육상에.)

105003 #4 까꾸리나 콧 좇아 가지고 나옵니께게.(갈고리나 콧 쪼아 가지고 나옵니다.)

105003 #1 육상에 저 돌 일르면, 돌 속에 사는 갱이가 잇고 준준흔 거 준준 흔 거.  
(육상에 저 돌 일으키면, 돌 속에 사는 게가 잇고 자잘한 거 자잘한 거.)

105003 @ 아, 지픈 바당에서는 저기.(아, 깊은 바다에서는 저기.)

105003 #1 막 훑은 거.(마구 긁은 거.)

105003 @ 배로 가근에.(배로 가서.)

105003 #4 예.(예.)

105003 @ 잡는 거고예.(잡는 거고요.)

105003 #4 소라도 배로 강 잡아 옵니다게.(소라도 배로 가서 잡아 옵니다.)

105003 @ 예.(예.)

105003 #1 여기도 그렇게 또 배로도 엇곡 갱이 잡으레.(여기도 그렇게 또 배로도 없  
고 게 잡으러.)

105003 @ 예.(예.)

105003 #4 아니, 이제 배질은 안합니다마는 이제 육십대 오십대는 자기냥으로 막 나  
잡니께.(아니, 이제 배질은 안합니다마는 이제 육십대 오십대는 자기대로 마구 나잡니  
다.)

105003 @ 먼 바당에 가근에예.(먼 바다에 가서요.)

105003 #4 이제도 흔 망아리씩 잡아옵네다 그 여녕 어린 사람은.(이제도 한 망사리씩  
잡아옵니다 그 연령 어린 사람은.)

105003 @ 응.(응.)

105003 #4 계난 우리는 경해도 고동 저 이십 개를 못 잡앙 나옵니당게.(그러니까 우  
리는 그렇게 해도 소라 저 이십 개를 못 잡아서 나옵니다.)

105003 @ 응.(응.)

105003 #4 이제 가면.(이제 가면.)

105004 @ 삼춘, 생각나는 고동 이름 한번 곱아줍서. 큰 거나 작은 거나.(삼춘, 생각나  
는 소라 이름 한번 말해주십시오. 큰 거나 작은 거나.)

105004 #4 아, 고동이 이름 이수다.(아, 소라가 이름 있습니다.)

105004 @ 계난 작은 거는?(그러니까 작은 거는?)

105004 #4 작은 건 구쟁이 아니 작은 거나 큰 거나 저 고동이라고 훑니께.(작은 건  
소라 아니 작은 거나 큰 거나 저 소라라고 합니다.)

105004 #1 켄디 이게 막 쌀방구엔도 허곡게, 옛날엔 쫄방구 작은 고동은 쫄방구.(그  
런데 이게 마구 ‘살방구’라고도 하고, 옛날엔 ‘쌀방구’ 작은 소라는 ‘쌀방구.’)

105004 #4 아, 쌀방구.(아, ‘쌀방구.’)

105004 #1 거 준 거.(거 잔 거.)

105004 @ 쌀방구? 예. 고동 준준흔 거는? (‘쌀방구’? 예. 소라 자잘한 거는?)

105004 #4 예. 존존헌 거는 쌀방구라고.(예. 자잘한 거는 ‘쌀방구’라고.)  
 105004 @ 쌀방구? 또.(‘쌀방구’? 또.)  
 105004 #4 우리 하르방<sup>159)</sup> 잘 알앙.(우리 남편 잘 알아서.)  
 105004 @ 막 큰 거는?(막 큰 거는?)  
 105004 #4 건 고동.(건 소라.)  
 105004 @ 막 큰 것도 고동?(마구 큰 것도 소라?)  
 105004 #1 민둥고동, 민둥고동 막 커근에 빨이 엇는 거.(민둥소라, 민둥소라 마구 커서 빨이 엇는 거.)  
 105004 @ 예.(예.)  
 105004 #4 민둥고동이엔 해근에.(민둥소라라고 해서.)  
 105004 #1 빨이 엇는 거 빨이 엇인 거.(빨이 엇는 거 빨이 엇는 거.)  
 105004 @ 예.(예.)  
 105004 #4 막 이 만큼 흠네께.(마구 이 만큼 합니다.)  
 105004 #1 예.(예.)  
 105004 @ 예.(예.)  
 105004 #4 그거 웨롭니다게.(그거 어렵습니다.)  
 105004 #1 빨이 엇는 고동이 잇어.(빨이 엇는 소라가 잇어.)  
 105004 #4 건 열 개에 하나.(것은 열 개에 하나.)  
 105004 #1 고동이.(소라가.)  
 105004 @ 예.(예.)  
 105004 #4 쓰무 개에 하나.(스무 개에 하나.)  
 105004 #1 오래 불면.(오래 버리면.)  
 105004 #4 우린 구경도 잘 흐지도 못 허고.(우린 구경도 잘 하지도 못 하고.)  
 105004 @ 예.(예.)  
 105004 #1 민둥 민둥 고동이엔 흐여 민둥고동이라.(민둥 민둥 소라라고 해 민둥 소라야.)  
 105004 @ 예.(예.)  
 105004 #4 깊어 가지고.(깊어 가지고.)  
 105004 @ 막 깊이 나이가 많을수록 빨이 죽아지는구나예.(마구 깊이 나이가 많을수록 빨이 작아지는군요.)  
 105004 #4 예예.(예예.)  
 105004 @ 예.(예.)  
 105004 #1 게 경 흐는 모양이라.(그럼 그렇게 하는 모양이야.)  
 105004 #4 게 만 만이 저 여녕이 땡에 가지고.(게 만 많이 저 연령이 많아 가지고.)  
 105004 #1 나이가 땡에 가지고 빨이 엇이는 모양이라예.(나이가 많아 가지고 빨이 엇는 모양이에요.)

159) ‘하르방’은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를 말하는 제주어이나 여기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105004 #4 뱃짓디 못 나갑니께.(밖에 못 나갑니다.)  
 105004 @ 아.(아.)  
 105004 #4 수심 깊어 가지고 무서와서.(수심 깊어 가지고 무서워서.)  
 105004 #1 예.(예.)  
 105004 @ 어, 민둥고동.(어, 민둥소라.)  
 105004 #4 예. 민둥고동이라고 합니다.(예. 민둥소라라고 합니다.)  
 105004 #1 건 머 저 수심이 이십 메다 이상 쥔 디라야.(그건 뭐 저 수심이 이십 미터 이상 된 데라야.)  
 105004 @ 예. 민둥고동하고 그 다음.(예. 민둥소라하고 그 다음.)  
 105004 #4 쌀방구 하고.(‘쌀방구’ 하고.)  
 105004 @ 쌀방구 하고.(‘쌀방구’ 하고.)  
 105004 #4 그거 뱃기 가릴 수가 없어.(그거 밖에 가릴 수가 없어.)  
 105004 @ 그냥 고동하고예.(그냥 소라하고요.)  
 105004 #4 예.(예.)  
 105005 @ 강이 종류는?(게 종류는?)  
 105005 #4 아, 그냥 강이라고 뺏기 우린 아니 불런 낫수다.(아, 그냥 게라고 밖에 우린 안 불렀습니다.)  
 105004 @ 예.(예.)  
 105005 #1 강이 말고는 없어.(게 말고는 없어.)  
 105005 @ 강이.(게.)  
 105005 #4 강이 엇입니다 여기.(게 없습니다 여기.)  
 105005 @ 붉은강이 저기 물 깊은디서 나는 거는.(붉은게 저기 물 깊은데서 나는 거는.)  
 105005 #4 것도 강이라고 험네께게. 왕강이 왕강이라고 쥔.(것도 게라고 합니다. 왕게 왕게라고 해서.)  
 105005 @ 왕강이?(왕게?)  
 105005 #4 예. 왕강이라고 크니까 왕강이라고 허는 겨우다게.(예. 왕게라고 크니까 왕게라고 하는 겁니다.)  
 105005 @ 으.(으.)  
 105006 #4 이름이 아니고.(이름이 아니고.)  
 105006 @ 불을 밤중에 불을 싸근예예.(불을 밤중에 불을 켜서요.)  
 105006 #4 예.(예.)  
 105006 @ 바당에 강 무시거 잡양오지 안읍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안우파?(바다에 가서 무엇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5006 #4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5006 @ 불 싸근예.(불 켜서.)  
 105006 #4 불을 썩 가지고 문어를 잡아왔수다. 게난 사름마다 앓고.(불을 켜서 가지

고 문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않고.)

105006 #1 문어가 않고 낙지 낙지,(문어가 아니고 낙지 낙지.)

105006 @ 예.(예.)

105006 #4 아니 게난 문게도 잡고 낙지도 잡는디 머.(아니 그러니까 문어도 잡고 낙지도 잡는데 뭐.)

105006 #1 지금도 지금도.(지금도 지금도.)

105006 @ 예.(예.)

105006 #4 보통으론 낙지가 벗어나서 문게 잡으러 가는데.(보통으로는 낙지가 없어서 문어 잡으러 가는데.)

105006 #1 옛날에.(옛날에.)

105006 @ 그 옛날에.(그 옛날에.)

105006 #4 예. 바리.<sup>160</sup>(예. ‘바리.’)

105006 @ 바리짜? (‘바리’입니까?)

105006 #1 예.(예.)

105016 @ 바리? (‘바리’?)

105016 #1 바리 바리 바리.(‘바리’ ‘바리’ ‘바리.’)

105016 @ 바리예.(‘바리요.’)

105006 #4 불 싸근에 가는 거.(불 켜서 가는 거.)

105006 @ 예.(예.)

105006 #1 바릿<sup>161</sup>잡으러 가자. 왜냐면 보말 잡으러 가는 것도 저 바릿이엔 허고. (‘바릿잡으러’ 가자. 왜냐하면 보말 잡으러 가는 것도 저 ‘바릿’이라고 하고.)

105006 @ 예.(예.)

105006 #1 또 그런 소리 잡는 것도 바리엔 허곡.(또 그런 소리 잡는 것도 ‘바리’라고 하고.)

105006 #4 기냥 바릿이엔 안허고 여깃 사름덜은 소리 잡으러 가자.(그냥 ‘바릿’이라고 않고 여깃 사름들은 소리 잡으러 가자.)

105006 @ 예.(예.)

105006 #1 햏바릿이라고 해서 햏는 머냐면.(‘햏바릿’이라고 해서 햏는 머냐면.)

105006 #4 저 오분제기 뜨레 가자허멍 햏바리 드는 사름은 흔 사름도 벗어나.(저 ‘오분제기’ 떼러 가자하면서 ‘햏바리’ 드는 사름은 한 사람도 없어.)

105006 @ 소리 잡으레? 고동 잡으레 아니고?(소리 잡으러? 고동 잡으러 아니고?)

105006 #1 띠 띠를 묶은 띠를 무꺼근에.(띠 띠를 묶은 띠를 묶어서.)

105006 #4 고동 잡으러 가자.(고동 잡으러 가자.)

105006 #1 무경 불을 부집니다게. 그 기름 엇일 켜, 경 행 불을 물에 부치는 거라. 경 물에 부치는 걸 햏바리엔 헉니다.(묶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 기름 없을 켜, 그렇게 해서

160) ‘바리’는 제보자가 ‘바르’를 말하고 있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161) ‘바릿가다’는 제보자가 ‘바룻가다’라 하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채취하러가는 일을 말한다.

불을 물에 비추는 거야. 그렇게 물에 비추는 걸 ‘훼바리’라고 합니다.)

105006 @ 예.(예.)

105006 #1 경 허곡 기름이 많이 나온 후로부터는 그 기름에 이제 깡통에 기름은 행가근에 기름 적지면서 이제.(그렇게 하고 기름이 많이 나온 후부터는 그 기름에 이제 깡통에 기름은 해서 가서 기름 적시면서 이제.)

105006 @ 옛날에는 가젠 허민 그거 몇 개 허리에 창 가지예?(옛날에는 가려고 하면 그거 몇 개 허리에 차서 가지요?)

105006 #1 예예. 훼바리 몇 개 창 강 그거 다 뿔 때까지 이 저 작업을 허는 거라마썸. 집이서 만들엿은에 가근에.(예예. ‘훼바리’ 몇 개 차서 가서 그거 다 뿔 때까지 이 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서 가서.)

105007 @ 저기 여기 원 원이엔 현 거 잇수과? 원담?(저기 여기 원 원이라고 한 거 있습니까? ‘원담’?)

105007 #1 예게. 원<sup>162)</sup>이엔 현 건 옛날 뿔치.(예. 원이라고 한 것은 옛날 뿔치.)

105007 @ 예.(예.)

105007 #1 뿔치덜 이제 좀 헐 땀 잡을 땀.(뿔치들 이제 좀 할 땀 잡을 땀.)

105007 @ 예.(예.)

105007 #4 저 좀 혼 걸 잇수다게.(저 좀 한 걸 있습니다.)

105007 #1 뿔치헤네 원에서 뿔 거리기도 해수다게.(뿔치해서 ‘원’에서 뿔치 뜨기도 했습니다.)

105007 @ 으.(으.)

105007 #1 물 싸불민 이제 머 해근에 헨디, 이제는 먼 바당에서 잡아버리기 시작한 후론 뿔치가 었어.(물 써버리면 이제 뭐 해서 한테, 이제는 먼 바다에서 잡아버리기 시작한 후로는 뿔치가 없어.)

105007 @ 응.(응.)

105007 #4 거 원래.(거 원래.)

105007 #1 거 원에 들어온 뿔도 었수다.(거 ‘원’에 들어온 뿔치도 없습니다.)

105007 @ 뿔만 잡젠 원을 해신가마씨?(뿔치만 잡으려고 ‘원’을 했는가요?)

105007 #1 예게.(예.)

105007 @ 원담?(‘원담’?)

105007 #4 예.(예.)

105007 #1 원담이엔 험니까? 갯담이엔 험니까?(‘원담’이라고 합니까? ‘갯담’이라고 합니까?)

105007 #4 예예. 원담이엔 험니다.(예예. ‘원담’이라고 합니다.)

105007 @ 원담.(‘원담.’)

105007 #1 뿔 뿔치랏는다.(뿔치 뿔치 었는데.)

---

162) ‘원’은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 나면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105007 @ 응.(응.)

105007 #1 ㄱ<sup>163</sup>에 ㄱ뜬디도 보난 문어도 잡고 거기서 딱 딱시 저 다른 망치 ㄱ뜬 것도 거기서 잡고 영허기도 험디다양. 이거 ㄱ에 ㄱ뜬디는.(제주 같은데도 보니까 문어도 잡고 거기서 또 다시 저 다른 망상어 같은 것도 거기서 잡고 이렇기도 합니다. 이거 제주에 같은 데는.)

105007 @ 아, ㄱ에 ㄱ뜬디도 경 허는디, 여기에는.(아, 제주에 같은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105007 #1 여기는 순 멸치로.(여기는 순 멸치로.)

105007 @ 원에 뿔 저기.(‘원’에 멸치 저기.)

105007 #1 예.(예.)

105007 @ 고기 들어오는 것이 잇는가마씨?(고기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요?)

105007 #4 건 엇입니께.(건 없습니다.)

105007 @ 개엔 안 해수파?(개라고 앓았습니까?)

105007 #1 어?(어?)

105007 @ 개엔도 안 해수파?(개라고도 앓았습니까?)

105007 #1 개엔 안 해.(개라고 앓아.)

105007 @ 개엔 안 허고 그냥 원으로.(개라고 앓고 그냥 ‘원’으로.)

105007 #1 개엔헌 건 그자 움막 들어간 디가 켜테.(개라고한 건 그저 움막 들어간 데가 개인데.)

105007 @ 예.(예.)

105007 #1 이제 원보고 개엔 안 허고.(이제 ‘원’보고 개라고 앓고.)

105007 @ 음.(음.)

105007 #4 개엔도 해낫수다 할망덜은.(개라고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105007 #1 개엔도 해낫어.(개라고도 했어.)

105007 #4 개엔도 해낫수다 켜디.(개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105007 @ 예.(예.)

105007 #1 켜디 지금은.(그런데 지금은.)

105007 #4 그 지금은 그 말 안 험니께.(그 지금은 그 말 안 합니다.)

105007 @ 그 옛날에.(그 옛날에.)

105007 #1 원이라는 존재가 없어.(‘원’이라는 존재가 없어.)

105007 #4 옛날에는 그 개라고 헛지. 지금은 개라고 험 말 안 씁니다게.(옛날에는 그 개라고 헛지. 지금은 개라고 한 말 안 씁니다.)

105007 @ 응, 개가 배 들어 온데를 개엔 허지 앓읍니까예.(응, 개가 배 들어 온데를 개라고 하지 앓읍니까요.)

105007 #1 예.(예.)

105007 #4 이렇게 좀 둘레 헌디만 개라고.(이렇게 좀 둘레 한테만 개라고.)

---

163) ‘ㄱ’은 여기에서 제주 본섬을 말한다.

105007 #1 배가 드나드는 디를 개엔도 허고예.(배가 드나드는 데를 개라고도 하고요.)

105008 @ 원은 저기 돌 허물어지면 그 동네 사름덜이 가근예.(‘원’은 저기 돌 허물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105008 #1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 낫는데, 이제는 원이란 존재가 엇수다게.(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원’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105008 @ 지금은 말고 옛날에.(지금은 말고 옛날에.)

105008 #1 그 밑에 성게 ㄱ쁜 거.(그 밑에 성게 같은 거.)

105008 @ 응.(응.)

105008 #1 성게 ㄱ쁜 거 있으니까 성게 잡을라고.(성게 같은 거 있으니까 성게 잡으려고.)

105008 #4 원을 막 판나부럿수다게.(‘원’을 막 판나버렸습니다.)

105008 #1 원에.(‘원’에.)

105008 @ 응.(응.)

105008 #4 이렇게 다와 논 거. 성게 값이 워낙 좋아노니까.(이렇게 쌓아 놓은 거. 성게 값이 워낙 좋으니까.)

105008 #1 원 그전에 해서 멜도 안 들고, 멜도 안 들고.(‘원’ 그전에 했어 멀치도 안 들고, 멀치도 안 들고.)

105008 #4 그 힘 잇인 사름덜 간 몬 간 헤크란 성기를 잡안. 돌을.(그 힘 있는 사람들 가서 모두 가서 형클어서 성계를 잡았어, 돌을.)

105008 @ 응.(응.)

105008 #4 아, 지금 경 험니께 지금이 옛날 거를.(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지금이 옛날 거를.)

105008 @ 응.(응.)

105008 #4 옛날은 그 원을 다와진양 잇엇는디, 작년 오월 올리 힘 이신 여자덜 간 문 짹 헤네 흐루 혼 망아리씩 헤 노난 어떻 말잇과?(옛날은 그 ‘원’을 쌓아진 채 있었었는데, 작년 오월 올해 힘 있는 여자들 가서 몽땅 해서 하루 한 망사리씩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05008 @ 아.(아.)

105008 #4 경험 헤완 이제.(그래서 했어 이제.)

105008 #4 판처불어숫게.(판처버렸습니다.)

105008 @ 판처불언예, 게난 지금 말고 옛날에 옛날에는 원이.(판처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옛날에는 ‘원’이.)

105008 #1 예예.(예예.)

105008 @ 이렇게 막 저기.(이렇게 마구 저기.)

105008 #1 예.(예.)

105008 #4 다와져 잇어나수다게.(쌓아져 있었습니다.)

105008 #1 멀치 잡을라고 원을 만들어 잇어나수다.(멀치 잡으려고 ‘원’을 만들어 있었



습니다.)

105008 #4 다와 잇어나수다.(쌓아 있었습시다.)

105008 @ 만들고 이제 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닛과?(만들고 이제 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닛니까?)

105008 #1 예, 보수도 해나고 경 해.(예, 보수도 했고 그렇게 해.)

105008 @ 보수허젠 허민 마을에서 저기 남자 어른덜 가기네.(보수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저기 남자 어른들 가서.)

105008 #4 예(예.)

105008 #1 지금은 이제 원을 원이 필요 없어 이젠.(지금은 이제 ‘원’을 ‘원’이 필요 없어 이젠.)

105008 @ 응.(응.)

105008 #1 멜 잡을 이젠 조건이 못 돼어 이젠 멜 멜이 안 들어서 가지고 또.(멜치 잡을 이젠 조건이 못 돼 이젠 멜치 멜치가 안 들어서 가지고 또.)

105008 #4 올리 원 막 멩그러네 성기를 오 키로씩 잡으난에 누가 강 거 막읍니까. 이제 안 잡앙 먹을랴고 그냥 네베수께.(올리 원 막 몽그라져 성계를 오 킬로씩 잡으니까 누가 가서 거 막읍니까. 이제 안 잡아서 먹으려고 그냥 내버렸습시다.)

105008 @ 네불영.(내버려서.)

105008 #4 계난양 상군<sup>164</sup>덜 혼 으남은이 간 그 원을 히갓<sup>165</sup> 디벼놔수다. 그 원을, 힘덜토 존 사름덜이우다게. 계난 돈 처 벌었수께. 마 우린 거 불좌지지도 앓고.(그러니까요 ‘상군’들 한 여남은이 가서 그 ‘원’을 ‘히갓’ 뒤집었습시다. 그 ‘원’을, 힘들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처 벌었습시다. 뭐 우린 거 부럽지도 앓고.)

105008 #1 경 헨 우도에는 혼 두어 군덴 잇수다.(그렇게 해서 우도에는 한 두어 군데는 있습니다.)

105008 @ 응.(응.)

105008 #4 원 엇수다. 막 멜 싸부난.(‘원’ 없습시다. 아주 멜치 싸버리니까.)

105008 #1 관광용로 아이 저 멜 순 원으론게.(관광용로 아니 저 멜치 순 ‘원’으론.)

105008 @ 예.(예.)

105008 #4 아이 저 디난 모르쿠다.(아니 저 데니까 모르겠습시다.)

105008 #1 으 톨쑤원 ㄱ똥 딴 잇어.(오 멜치 순 ‘원’같은 데는 잇어.)

105008 #4 우리 동넨 엇수다.(우리 동네는 없습시다.)

105009 @ 멜은 옛날에 그 원에 들어 온 거를 멜을 거렸지예.(멜치은 옛날에 그 ‘원’에 들어 온 거를 멜치를 뗐지요.)

105009 #1 예.(예.)

105009 @ 겐디 그거 거릴 때는 무시거 뭇로 거렸수파?(그런데 그거 거릴 때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뗐습니까?)

164) ‘상군’은 잠수를 할 때에 숨을 오래 참을 수 있고 물질에 능숙한 해녀를 말한다.

165) ‘히갓’은 제보자가 상태가 많아서 손쓸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105009 #1 족바지 족바지.(뜰채 뜰채.)

105009 @ 족바지로.(뜰채로.)

105009 #1 족바지로.(뜰채로.)

105009 @ 어, 사들이엔 현 건 엇어수과?(어, ‘사들’이라고 한 건 없었습니까?)

105009 #1 엇어수다게.(없었습니다.)

105009 @ 족바지로.(뜰채로.)

105009 #1 족바지도 흐고 저 사들<sup>166)</sup>이엔 현 거 양쪽으로 잡아근에 영허는 거.(뜰채도 하고 저 ‘사들’이라고 한 거 양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

105009 @ 영허는 거 사들은 안허고 그냥 족바지로.(이렇게 하는 거 ‘사들’은 앓고 그냥 뜰채로.)

105009 #1 족바지도 사들도 멘드는 사름은 멘들아낫수다.(뜰채도 ‘사들’도 만드는 사름은 만들었습니다.)

105009 @ 으, 사들 사들이엔 현 것도 멘드는 사름은 해난 해난예.(으, ‘사들’ ‘사들’이라고 한 것도 만드는 사름은 해서 했어요.)

105009 #1 예. 해난.(예. 해서.)

105010 @ 이 바닷고기는 어떻 헤기네 낚아 올릴 건고예. 옛날에예. 지금은 머 발동선으로 강 그물로 행 허주만은 그 옛날에는.(이 바닷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아 올릴 건가요. 옛날에요. 지금은 뭐 발동선으로 가서 그물로 해서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105010 #4 고기씨도 지 엇엇수다.(고기씨도 죄 없었습니다.)

105010 #1 옛날에는 보통 갈치, 갈치는 돛단배.(옛날에는 보통 갈치, 갈치는 돛단배.)

105010 @ 예.(예.)

105010 #1 막 달리면서 밤이 강 나까와낫수다게.(마구 달리면서 밤에 가서 낚았습니다.)

105010 @ 예.(예.)

105010 #1 지금은 이제 저저저저 머엔 허나. 어, 방어 비스흔 건데, 멍텅구리<sup>167)</sup>엔도 허곡 뿔텐 머엔도 흐는 건디.(지금은 이제 저저저저 뿔이라고 하니. 어, 방어 비슷한 건데, 멍텅구리라고도 하고 뿔이라고 뭐라고도 하는 건데.)

105010 @ 아.(아.)

105010 #1 에 그런 걸 이제 돛단배로 달리명도 이제 나까나고 또 저립도.(에 그런 걸 이제 돛단배로 달리면서도 이제 낚았고 또 저립도)

105010 @ 예.(예.)

105010 #1 저립도 돛단배로 달리명도 낚아나고, 또 가만이 배가 정착행도 또 이제 줄풀로 행도 낚아나고, 저립도.(저립도 돛단배로 달리면서도 낚았고, 또 가만히 배가 정착해서도 또 이제 줄풀로 해서도 낚았고, 저립도.)

105010 @ 응, 저립.(응, 저립.)

166) ‘사들’은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것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말한다.

167) ‘멍텅구리’는 제보자가 가다랑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05010 #1 예.(예.)

105010 @ 예.(예.)

105010 #1 그 왜로는 머 저, 다른 건 그자 주낙으로나 그물로나 잡아쉽주. 다른 것덜도.(그 왜로는 뭐 저, 다른 건 그저 주낙으로나 그물로나 잡았지요. 다른 것들도.)

105010 @ 주낙이나예.(주낙이나요.)

105010 #1 예.(예.)

105010 @ 그 옛날에 그물은 어떻 만들어신고예. 그 옛날에 그 백 년 전이.(그 옛날에 그물은 어떻게 만들었는가요. 그 옛날에 그 백 년 전에.)

105010 #1 백 년 전이는.(백 년 전에는.)

105010 @ 증조 증조 하르버지네는 그물을 어떻.(증조 증조 할아버지네는 그물을 어떻게.)

105010 #1 예. 옛날에 백 년 전에는 저 그물, 이제 그저 모도리<sup>168)</sup> 저저 모도리를 머 라허나, 상어.(예. 옛날에 백 년 전에는 저 그물, 이제 그저 ‘모도리’ 저저 ‘모도리’를 무 엇이라 하나, 상어.)

105010 @ 예.(예.)

105010 #1 상어 그물 상어 그물을 찢찢 찢으로.(상어 그물 상어 그물을 찢찢 찢으로.)

105010 #4 산디찢으로 산디 남쟁이.<sup>169)</sup>(발벗찢으로 발벼 ‘남쟁이.’)

105010 #1 찢 노로 찢으로 이제 새끼를 꼬아 갓고.(찢 노로 찢으로 이제 새끼를 꼬아 가지고.)

105010 @ 예.(예.)

105010 #1 그걸로 이제 그물을 만들앗어 그걸로 이제 상어를 잡앗어.(그걸로 이제 그 물을 만들었어 그걸로 이제 상어를 잡았어.)

105010 @ 예.(예.)

105010 #1 상어 지느러미가 요리에 상당히 중국요리에 상당히 비싸게 비싸거든 중국 요리에, 그래서 그걸 지느러미 상어를 많이 잡아네 그 지느러미 팔아네 돈을 번 사름들이 있어 부자 된 사름덜이 이서.(상어 지느러미가 요리에 상당히 중국요리에 상당히 비싸게 비싸거든 중국요리에, 그래서 그걸 지느러미 상어를 많이 잡아서 그 지느러미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

105010 @ 예.(예.)

105010 #1 옛날에는.(옛날에는.)

105010 @ 예. 옛날에예.(예. 옛날에요.)

105010 #1 예.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상어 그물은 네네 찢으로.(예.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상어 그물은 내내 찢으로.)

105010 @ 응.(응.)

105010 #1 새끼를 꼬아 갓꼬 이제 그물을 만들앗어 그물을 짜서.(새끼를 꼬아 가지고

168) ‘모도리’는 ‘돌묵상어’를 말한다.

169) ‘남쟁이’는 ‘줄기’를 말한다.

이제 그물을 만들었어 그물을 짜서.)

105010 @ 예.(예.)

105010 #1 짜네.(짜서.)

105011 @ 거문 그 저립 낚싯대 낚싯줄 낚시 뽕돌이엔 현 거가 잇인데예.(그러면 그 저립 낚싯대 낚싯줄 낚시 뽕돌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105015 #1 예.(예.)

105015 @ 그 저립 현 때는 저립 낚을 때는 이거가 낚싯대하고 낚싯줄은 어떻 해기네 해실 건고예.(그 저립 할 때는 저립 낚을 때는 이것이 낚싯대하고 낚싯줄은 어떻게 해서 했을 건가요.)

105011 #1 저 저립은 저 저립광, 이저 입광 그 이제 딱시 줄 사이에 그 이 저립이 니가 아주 췌주마씨.(저 저립은 저 저립하고, 이저 입하고 그 이제 다시 줄 사이에 그 이 저립이 이가 아주 세지요.)

105011 @ 예.(예.)

105011 #1 니가 거치니까 그디 안 단을라고 췌로 췌줄로 췌줄로 이 정도는 저립 니 췌, 이 정도로 허고 알로는 췌.(이가 거치니까 거기 안 단으려고 쇠로 쇠줄로 쇠줄로 이 정도는 재방어 미끼 이 정도로 하고 아래로는 실.)

105011 @ 췌?(실?)

105011 #1 췌로 해서.(실로 해서.)

105011 @ 췌는 어떤 췌로 해신고예.(실은 어떤 실로 했는가요.)

105011 #1 췌는 이제 일반 명주췌 그든 겔로 했는데, 멧 겔 했지 멧 겔천.(실은 이제 일반 명주실 같은 겔로 했는데, 멧 겔 했지 멧 겔쳐서.)

105011 @ 아, 멧 겔쳐근예.(아, 멧 겔쳐서.)

105011 #1 멧 겔천 수십 겔 쳐네.(멧 겔쳐서 수십 겔쳐서.)

105011 @ 아 수십 겔쳐근예.(아 수십 겔쳐서.)

105011 #1 예. 경은 허고 으 근래는 또 정수<sup>170)</sup>로.(예. 그렇게는 하고 요 근래는 또 ‘정수’로.)

105011 @ 예. 정수.(예. ‘정수.’)

105011 #1 정수로.(‘정수로.’)

105011 @ 예.(예.)

105011 #1 바꾼 지는 얼마 안 뵈 저 해서 이제 정수는 허건디는 혼 이 삼년 안뵈 엇 어져버서 이젠.(바꾼 지는 얼마 안 된 저 해서 이제 정수는 한테는 한 이 삼년 안 된 엇 어져버렸어 이젠.)

105011 @ 예. 낚싯대는 어떻 행 와신고 대는.(예. 낚싯대는 어떻게 해서 왔는가 대는.)

105011 #1 대는 앓고.(대는 앓고.)

105011 @ 줄로만.(줄로만.)

---

170) ‘정수’는 제보자가 ‘정술’ 말하는 것으로 ‘낚시’줄을 말하고 있다.

105011 #1 그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갖고.(그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105011 @ 예.(예.)  
 105011 #1 이제 살에 노는 거라 그저 줄을.(이제 살에 넣는 거야 그저 줄을.)  
 105011 @ 예. 건 주낙 아넛과예.(예. 건 주낙 아넛니까요.)  
 105011 #1 에 아니 아니 그저 저립 나끄는 뭇도 줄도.(에 아니 아니 그저 저립 낚는 뭇도 줄도.)  
 105011 @ 아, 거기에.(아, 거기에.)  
 105011 #1 에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갖고, 둥그렇게 만들기도 헝꼭 네모나게 만들기도 행.(에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모나게 만들기도 해서.)  
 105011 @ 예.(예.)  
 105011 #1 거기에 빙빙 살에 낚.(거기에 빙빙 살에 넣어서.)  
 105011 @ 예.(예.)  
 105011 #1 경 어느 정도 저 흔 멧 십 발만 나가근에 해근에 그거 물어 차가면 이제.(그렇게 어느 정도 저 한 몇 십 발만 나가서 해서 그거 물어 차가면 이제.)  
 105011 @ 풀게끔.(풀게끔.)  
 105011 #1 이제 나가지 ㄴ치.(이제 나가지 같이.)  
 105011 @ 아.(아.)  
 105011 #1 게 이제 나갈 만하민 딱 저으면 딱시 저 고기가 돌아가면 또 땡기꼭 또 이제 창나가면 또 이제 저 풀어줬다가 또 땡기꼭.(그럼 이제 나갈 만하면 딱 저으면 다시 저 고기가 돌아가면 또 당기고 또 이제 차서나가면 또 이제 저 풀어줬다가 또 당기고.)  
 105011 @ 예.(예.)  
 105011 #1 그렇게 헝다 멧 번 해가면 지쳐 지치는 거라. 자기 힘대로.(그렇게 하다 몇 번 해가면 지쳐 지치는 거야. 자기 힘대로.)  
 105011 @ 아.(아.)  
 105011 #1 지쳐근에 나까 올리고 그렇게 해나서 지금.(지쳐서 낚아 올리고 그렇게 했어 지금.)  
 105011 @ 아, 게 상어 정도 상어나.(아, 그럼 상어 정도 상어나.)  
 105011 #1 나까 올리면 어느 정도 영 나깁 막 땡겨왕 가까이 있으면 까꾸리란게 있어 까꾸리.(낚아 올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낚아서 마구 당겨서 가까이 있으면 갈고리란게 있어 갈고리.)  
 105011 @ 예.(예.)  
 105011 #1 예. 까꾸리로 탁 경 까꾸리로 들어 올리는 거지.(예. 갈고리로 탁 그렇게 갈고리로 들어 올리는 거지.)  
 105011 @ 그 풍선 해가지고예.(그 풍선 해가지고요.)  
 105011 #1 예. 풍선행.(예. 풍선행해서.)

105011 @ 예. 풍선을 타 가지고, 젠디 이거는 큰 거고예. 이 고기는 큰 거고.(예. 풍선을 타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큰 거고요. 이 고기는 큰 거고.)

105011 #1 예. 큰 거고.(예. 큰 거고.)

105011 @ 고기 잡을 때는 큰 고기만 잡아 집니까게 준준훈 고기 잡을 때는.(고기 잡을 때는 큰 고기만 잡아 집니까 자잘한 고기 잡을 때는.)

105011 #1 아, 작은 거는.(아, 작은 거는.)

105011 @ 선창에서도 이제 낚싯대 해 가지고 잡아야 될 건디.(선창에서도 이제 낚싯대 해 가지고 잡아야 될 건데.)

105011 #1 아, 낚싯대 잡는 고긴 엇어서. 여기서 으 근래는 그저 소소히 한치<sup>7</sup> 뜯 것덜 무시거 소소한 것덜 그자 저 시기에 톨앙 그 뒤편 톨앙에 나오는 거도 잇주.(아, 낚싯대 잡는 고긴 없어서. 여기서 요 근래는 그저 소소히 한치같은 것들 무엇 소소한 것들 그저 저 시기에 따라서 그 뒤편에 따라서 나오는 거도 있지.)

105011 @ 게민 다 범선이 하시큰게예.(그러면 다 범선이 많겠네요.)

105011 #1 그때는 보통 여기가 개맞이 혼 세 군데 세 세군데 잇었는데 그 게 혼 이십 척 됐주 이십 척.(그때는 보통 여기가 갯머리 한 세 군데 세 세군데 잇었는데 그 게 혼 이십 척 됐지 이십 척.)

105011 @ 개맞 혼 개맞에 이십 척?(갯머리 한 갯머리에 이십 척?)

105011 #1 예. 아니 아니 혼 개맞에 혼 대으숯 척 잇주.(예. 아니 아니 한 갯머리에 한 대여섯 척 있지.)

105011 @ 대으숯 척 그러면 혼 마을에 대으숯 척이 잇었던 거 아닛과예.(대여섯 척 그러면 한 마을에 대여섯 척이 잇었던 거 아닙니까요.)

105011 #1 우도에 지금 거하면 스오십 척 됐주 범선이.(우도에 지금 거하면 사오십 척 되쥬 범선이.)

105011 @ 으.(으.)

105011 #1 경 현디 저립이라고 나끄는 거는 이 도아리<sup>171)</sup>만 해서 어장이 바로 가까운 디만 잇어부니까.(그런데 저립이라고 낚는 거는 이 ‘도아리’만 했어 어장이 바로 가까운 데만 있으니까.)

105011 @ 응.(응.)

105011 #1 요 동네 흥곡 요 동네만 다녔주.(요 동네 하고 요 동네만 다녔지.)

105011 @ 예.(예.)

105011 #1 게고 저 동네는 못 다녔어. 저 거리가 멀어부니까.(그리고 저 동네는 못 다녔어. 저 거리가 멀어버리니까.)

105011 @ 게민 저립 헐 때나 상어 헐 때나 뽕들은 안 써신게예.(그러면 저립 할 때나 상어 할 때나 뽕들은 안 썼네요.)

105011 #1 뽕들은 안 썼어.(뽕들은 안 썼어.)

---

171) ‘도아리’는 제보자가 일본말 ‘도나리(となり)’로 말하는데 이웃이나 옆집(隣)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105011 @ 켜로 헤시난예.(쇠로 했으니까요.)

105011 #1 갈치는 뽕돌을 씻주 갈치.(갈치는 봉돌을 씻지 갈치.)

105011 @ 갈치는예. 그때 뽕돌은 어떻 돌로 헤네?(갈치는요. 그때 봉돌은 어떻게 돌로 해서?)

105011 #1 아니 아니 연철. 연철이엔 흰 거 있어.(아니 아니 연철. 연철이라고 한 거 있어.)

105011 @ 연철 안 나올 땐 어떻 해실 건고예.(연철 안 나올 땐 어떻게 했을 건가요.)

105011 #1 연철이 나왔었다고 그때는.(연철이 나왔었다고 그때는.)

105011 @ 그 옛날에도 연철이.(그 옛날에도 연철이.)

105011 #1 예.(예.)

105011 @ 아, 연철이 돌아메여네.(아, 연철이 달아매어서.)

105011 #1 연철이 나오기 시작 허난, 갈치를 닦으기 시작헌 거라 연철이 있으니까. (연철이 나오기 시작 하니까, 갈치를 닦기 시작한 거야 연철이 있으니까.)

105011 @ 옛날에 그 생선은.(옛날에 그 생선은.)

105011 #1 연철이 엇이민 그자.(연철이 없으면 그저.)

105011 @ 들어가지 안 허주예.(들어가지 않지요.)

105011 #1 들어갈 수가 엇지.(들어갈 수가 없지.)

105011 @ 예. 오토미.(예. 옥돔.)

105011 #1 우리 우리 옥을<sup>172)</sup> 때는 연철이랐는디 그 후에는 몰라 어떤 걸 씻는지 모르크라 그때는.(우리 우리 ‘옥을’ 때는 연철이었는데 그 후에는 몰라 어떤 걸 씻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105011 @ 으.(으.)

105011 #4 아, 이제 뽕돌허는 거 연철 아닛과?(아, 이제 봉돌하는 거 연철 아닙니까?)

105011 #1 아, 게메 연철게.(아, 글썸 연철.)

105011 @ 아.(아.)

105011 #1 게난 우리 대으춧 설 그 이전에는 모르크라.(그러니까 우리 대어섯 살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

105011 @ 이전에는예.(이전에는요.)

105011 #1 이후에는 연철이고.(이후에는 연철이고.)

105011 @ 예.(예.)

105011 #4 이제도 저 우리 저 해녀 차는 것도 다 연철 아닛과?(이제도 저 우리 저 해녀 차는 것도 다 연철 아닙니까?)

105011 #1 거 연철이주게.(거 연철이지.)

105012 @ 작살로 고기는 어떻 잡을 건고예? 작살로.(작살로 고기는 어떻게 잡을 건가요? 작살로.)

105012 #1 작살은 물속에 들어강 영 고기 이시민.(작살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

---

172) ‘옥다’는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기 있으면.

105012 @ 예.(예.)

105012 #1 작살 이 거 저 홍아리에 끼웠다 끼워서 가져갔다가 이제 꺼내근에 경 헤기네 여기서 고무 늘라기네 잡아얏영 들어가기네 저 쏘으는 거주게.(작살 이 거 저 망사리에 끼웠다 끼워서 가져갔다가 이제 꺼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고무 늘려서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저 쏘는 거지.)

105012 @ 쏘아기네, 하영 잡아집니까?(쏘아서, 많이 잡아집니까?)

105012 #4 이디 작살이문 여기 고무줄을 달립니다게. 그렇게 고기가 히어 다니면 나도 쏘아낫수게게.(이데 작살이면 여기 고무줄을 달립니다. 그렇게 고기가 헤어 다니면 나도 쏘았었습니다.)

105012 @ 예게.(예.)

105012 #4 이것이 막 이꺼장 이제.(이것이 마구 이까지 이제.)

105012 #1 우리덜토 젊은 때 고기 쏘레 다녀낫수다.(우리들도 젊은 때 고기 쏘러 다녀왔습니다.)

105012 @ 예.(예.)

105012 #4 우리 하영 쏘아다 먹엇수다게.(우리 많이 쏘아다 먹었습니다.)

105012 #1 우리도 헤엄쳐네.(우리도 헤엄쳐서.)

105012 #4 이것이 막 늘르면, 고기가 ㄱ만이 잇이민 착 고무 네부면 그 고무에 강 맞이면예.(이것이 막 누르면, 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착 고무 내버리면 그 고무에 가서 맞으면요.)

105012 @ 예.(예.)

105012 #4 나도 이만큼 험 물툫, 멧 개 잡아다 먹어낫수다 젊은 때, 이제도 잇어십디 다마는양 무서와서 저 작살질 못합니께.(나도 이만큼 험 감성돔, 멧 개 잡아다 먹었습니다 젊은 때, 이제도 있습니다마는 무서워서 저 작살질 못합니다.)

105012 #1 작살은 저 조심허게.(작살은 저 조심하게.)

105012 #4 나도 무서와서.(나도 무서워서.)

105012 @ 예.(예.)

105012 #1 저 사름 몸에 걸려.(저 사람 몸에 걸려.)

105012 #4 나도 막 저 저 혼 삼년 스년 전이는 멧 개 쫓당 먹어수다게. 이만씩 혼 고기.(나도 아주 저 저 한 삼년 사년 전에는 멧 개 쏘아다가 먹었습니다. 이만씩 한 고기.)

105012 @ 으.(으.)

105012 #4 그렇게 쏘아 낫는디, 지금 올리도 이십디다마는양. 작살질허기가 겁나서 안햐수다게.(그렇게 쏘았는데, 지금 올해도 있습니다만요. 작살질하기가 겁나서 안합니다.)

105012 @ 겁나근에예.(겁나서요.)

105012 #4 고기, 갖정 오저 저.(고기, 가져서 오자 저.)

105012 #1 작살 안 갖어 간 날은 보이고 갖어 간 날은 안보이고 허는 거라.(작살 안



가져 간 낚은 보이고 가져 간 낚은 안보이고 하는 거야.)

105013 @ 고깃배는 어떤 종류들이 잇을 건고예. 고깃배 여기는 범선이엔 헤신디.(고깃배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고깃배 여기는 범선이라고 했는데.)

105013 #1 여기는 지금 육십 년대 이후부터는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해연.(여기는 지금 육십 년대 이후부터는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105013 @ 예.(예.)

105013 #1 나이롱 그물 시작했주게.(나일론 그물 시작했지.)

105013 @ 예.(예.)

105013 #1 나이롱 그물.(나일론 그물.)

105013 @ 예.(예.)

105013 #1 게 나이롱 그물에 삼마이<sup>173)</sup>그물 헛다가 삼마이 그물은 이젠 혼 몇 년 해 가니까 정부에서 못허게 해불고 행정에서 못허게 해불고.(그럼 나일론 그물에 ‘삼마이’ 그물 하다가 ‘삼마이’그물은 이젠 한 몇 년 해 가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해버리고 행정에서 못하게 해버리고.)

105013 @ 예.(예.)

105013 #1 그자 다른 그물만 해도 삼마이그물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고기가 잡혀.(그자 다른 그물만 해도 ‘삼마이’그물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 고기가 잡혀.)

105013 @ 옛날에 고깃배에는예. 여기 소섬에.(옛날에 고깃배에는요 여기 ‘소섬’에.)

105013 #1 아니 테우로는 저 나이롱그물 안 허고.(아니 떼로는 저 나일론그물 앓고.)

105013 @ 그냥 낚시, 낚싯배 고깃배.(그냥 낚시, 낚싯배 고깃배.)

105013 #1 테우로 안 허고 낚시질만 허고 옛날에.(떼로 앓고 낚시질만 하고 옛날에.)

105013 @ 테우는 잇어낚수짜?(떼는 있었습니까?)

105013 #1 게 아주 옛날에, 왜정 때에 감태 즈물젠<sup>174)</sup> 감태 즈물젠 테우를 헤난 모양이라. 고기 나끄젠 앓고, 또 테우로 자리도 거려난 혹시 거려난 배가 잇일런지 모를 거라.(그럼 아주 옛날에, 왜정 때에 감태 ‘즈물’려고 감태 ‘즈물’려고 떼를 했던 모양이야. 고기 낚으려고 앓고, 또 떼로 자리돔도 뜨던 혹시 뜨던 배가 있을지 모를 거야.)

105013 @ 으.(으.)

105013 #1 자리도.(자리돔도.)

105013 @ 풍선으로도 자리도 거리지 안옵니까?(풍선으로도 자리돔도 뜨지 않습니까?)

105013 #1 육십 년대까지도 자리 거리고.(육십 년대까지도 자리돔 뜨고.)

105013 @ 자리 거리젠 허문 그물을.(자리 뜨려고 하면 그물을.)

105013 #1 육십 년대까지만 해도예. 이렇게 이제 뭇 만드는 뭐가 이십주. 거기 두 겐데 두 개를 서로 포게 갖고 그레 영 그물을 언저 갖고 물속에 넣읍주마씨. 놓앙 놔두면 자리가 물때에 뜰앙에 그 그물 위로 물 조류에 따라랑 그 그물 우터레 올라온다고.(육십

173) ‘삼마이그물’은 제보자가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3중 자망을 만들어 파는 그물을 말하고 있다.

174) ‘즈물다’는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내다.’는 뜻이다.

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이제 뭘 만드는 뭐가 있죠. 거기 두 갠데 두 개를 서로 포개어 가지고 그리로 이렇게 그물을 얹어 가지고 물속에 넣지요. 넣어서 놔두면 자리돔이 물때에 따라서 그 그물 위로 물 조류에 따라서 그 그물 위로 올라온다고.)

105013 @ 예.(예.)

105013 #1 이제 그물을 막 땡기는 거라.(이제 그물을 마구 당기는 거야.)

105013 @ 확인은 수정으로 확인해근에.(확인은 수정으로 확인해서.)

105013 #1 예. 수정으로 보아근에.(예. 수정으로 보아서.)

105013 @ 이 우도에서도.(이 우도에서도.)

105013 #1 나도 그렇게 자리 거리멍 해마다 큰돈은 안 벌어도 우리 것같은 해낫수다 게.(나도 그렇게 자리돔 뜨면서 해마다 큰돈은 안 벌어도 우리 것같은 했습니다.)

105013 @ 예.(예.)

105013 #1 저 우리 나 배에 땡기는 그 사람이 기술이 좀 서투러, 자리를 기술 잇는 사람이 해야지 또, 바다에 여, 물때를 잘 알아야 돼여.(저 우리 나 배에 다니는 그 사람이 기술이 좀 서투러, 자리돔을 기술 잇는 사람이 해야지 또, 바다에 여, 물때를 잘 알아야 돼.)

105013 @ 으.(으.)

105013 #1 자리를 잘 거릴려면 첫체는 여를 잘 알아야 되고 물때를 잘 알아야 되고.(자리돔을 잘 뜨려면 첫체는 여를 잘 알아야 되고 물때를 잘 알아야 되고.)

105013 @ 으.(으.)

105013 #1 물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물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

105013 @ 거 테우히고 범선하고 풍선하고 옛날에는예.(거 떼하고 범선하고 풍선하고 옛날에는요.)

105013 #1 예.(예.)

105013 @ 나중에는.(나중에는.)

105013 #1 범선이 풍선이주.(범선이 풍선이지.)

105013 @ 아, 맞아예. 범자가 거고 나중에는 나이롱 그물하고.(아, 맞아요 범자가 거고 나중에는 나일론 그물하고.)

105013 #1 에 나이롱 그물이 시작흔디는 그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 흔디는 육십 년대 부터 육십오 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주게. 그때부턴 발동기도 다 나이롱 그물하고.(에 나일론 그물이 시작한지는 그 발동기가 나오기 시작한지는 육십 년대부터 육십오 년도 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그때부턴 발동기도 다 나일론 그물하고.)

105014 @ 여기는 해녀엔 험니까 줌녀엔 험니까? 옛날에.(여기는 해녀라고 험니까 해녀라고 험니까? 옛날에.)

105014 #1 줌수<sup>175</sup>게 줌수.(해녀 해녀.)

105014 @ 옛날에도 줌수엔 해낫수파?(옛날에도 해녀라고 했습니까?)

---

175) '줌수'는 잠수(潛嫂)로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해녀를 말한다.

105014 #1 줌녀엔도 허고 줌수엔도 허고.(해녀라고도 하고 ‘줌수’라고도 하고.)  
 105014 @ 줌녀예.(해녀요.)  
 105014 #1 어.(어.)  
 105014 @ 줌녀덜이 이 바당에서 이 저기 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잇일건 고예? 해산물.(해녀들이 이 바다에서 이 저기 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 해산물.)  
 105014 #1 첫체는 아까 그 우묵가사리.(첫째는 아까 그 우묵가사리.)  
 105014 @ 우묵가사리.(우묵가사리.)  
 105014 #1 예. 미 미 미역.(예. 미 미 미역.)  
 105014 @ 예.(예.)  
 105014 #1 어 그 다음에 이제 패류 종류는 소라 오분제기, 고동.(어 그 다음에 이제 패류 종류는 소라 ‘오분제기’, 소라.)  
 105014 @ 고동예.(소라요.)  
 105014 #1 응 여기는 고동.(응 여기는 소라.)  
 105014 @ 오분제기는 늘 어디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분제기 허고예.(‘오분제기’는 늘 어디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분제기’ 하고요.)  
 105014 #1 응, 오분제기.(응, ‘오분제기’.)  
 105014 @ 오분제기허고예.(‘오분제기’하고요.)  
 105014 #1 성게.(성게.)  
 105014 @ 성게허고.(성게하고.)  
 105014 #1 숨.(말뚝성게.)  
 105014 @ 숨 음.(말뚝성게 음.)  
 105014 #1 게도 성게 ㄱ든 거.(게도 성게 같은 거.)  
 105014 @ 여기 군소도 나온, 나와나신가예?(여기 군소도 나온, 나왔는가요?)  
 105014 #1 군소도 나오주.(군소도 나오지.)  
 105014 @ 군소도.(군소도.)  
 105014 #1 겐디 흔허질 아녀 흔헌 데가 잇고 줌헌.(그런데 흔하지를 앓아 흔한 데가 잇고 줌헌.)  
 105014 @ 옛날에도예.(옛날에도요.)  
 105014 #1 겐디 군소는 저 돈이 뿔 땀 흥쓸 잡고 경 안허면 안 잡아.(그런데 군소는 저 돈이 뿔 땀 조금 잡고 그렇게 앓으면 안 잡아.)  
 105014 @ 응.(응.)  
 105014 #1 경 흔허지도 안 허고.(그렇게 흔치도 앓고.)  
 105014 @ 귀엔 험니까? 성게엔 험니까?(성게라고 험니까? 성게라고 험니까?)  
 105014 #1 성게보고 귀엔 허주.(성게보고 성게라고 하지.)  
 105014 @ 귀예? 숨은 그냥 숨이고예.(성게요? 말뚝성게는 그냥 말뚝성게고요.)  
 105014 #1 숨이엔도 흥곡 밤송이엔도 허곡 어떤 사람은.(말뚝성게라고도 하고 밤송이

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5014 @ 그리고 또 저기 그 다른 거 먹는 거.(그리고 또 저기 그 다른 거 먹는 거.)

105014 #1 해삼 굴맹이.(해삼 군소.)

105014 @ 예. 청각 청각, 청각이엔 됩니까?(예. 청각 청각, 청각이라고 합니까?)

105014 #1 청각?(청각?)

105014 @ 예.(예.)

105014 #1 청각도 좀 나긴 나는디 건 이제 찌끔 요 동네 찌끔씩 잡곡 이 동네 찌끔씩 케는디 거는 저 머라야 돼여 저 바다 밑이 모래판이라야 돼여.(청각도 좀 나긴 나는데 건 이제 조금 요 동네 조금씩 잡고 이 동네 조금씩 케는데 거는 저 뭐라야 돼 저 바다 밑에 모래판이라야 돼.)

105014 @ 예.(예.)

105014 #1 청각은 모래가 찌끔 서꺼져야 청각이 나 메 돌밭에는 잘 안나.(청각은 모래가 조금 섞여져야 청각이 나 매 돌밭에는 잘 안나.)

105014 @ 몸도 허지예. 몸예.(모자반도 하지요 모자반이요.)

105014 #4 예. 몸은 이제도 캬니께.(예. 모자반은 이제도 캬니다.)

105014 #1 몸도.(모자반도.)

105014 @ 예.(예.)

105014 #1 몸 나는 돌이 있어 저것도 돌에 따라 나주 경 씨가 부착되는 돌이 있어 부착 안 되는 디는 안 나는 게 아니고.(모자반 나는 돌이 있어 저것도 돌에 따라 나지 그렇게 씨가 부착되는 돌이 있어 부착 안 되는 데는 안 나는 게 아니고.)

105014 @ 그 막 가는 가늘어근예예. 길어기네 허는 실 무시거엔 험게마는 실거리이? 실거리엔 험것도.(그 마구 가는 가늘어서요 길어서 하는 실 무엇이라고 하더니마는 실거리? 실겅이라고 하는 것도.)

105014 #4 그 실겅이<sup>176)</sup>엔 험 거는 엇입니다. 몸벳기 몸은 겨울나민 흥끔 캬니께. 겐디 그 돌이 해녀들이 몸 나는 디 뒤 엇어부니까 성게 잡을랴고.(그 ‘실겅이’라고 한 거는 없습니다. 모자반밖에 모자반은 겨울나면 조금 캬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해녀들이 모자반 나는 데 뒤 엇어버리니까 성게 잡으려고.)

105014 #1 몸 나는 것도.(모자반 나는 것도.)

105014 #4 수확 안 납니께.(수확 안 납니다.)

105014 @ 예.(예.)

105014 #1 요 동네하고 요 동네하고 이 우이 두 동네는 안나 몸 다 나는 게 아니라.(요 동네하고 요 동네하고 이 위에 두 동네는 안나 모자반 다 나는 게 아니야.)

105014 @ 아, 돌이 있어샤.(아, 돌이 있어야.)

105014 #1 예. 저 돌이 있어야 돼고 그 주위에 몸이 처음에, 그 씨가 나난 주위에만 나지 먼 디까지 안 가거든 지금, 계란 몸 잇는 동네는 이 우이 다섯 동네엔 해도 이양 동네뿐이라.(예. 저 돌이 있어야 되고 그 주위에 모자반이 처음에, 그 씨가 났었던

176) ‘실겅이’는 거름용 해초의 일종이다.

주위에만 나지 먼 데까지는 안 가거든 지금, 그러니까 모자반 있는 동네는 이 위에 다섯 동네라고 해도 이 양 동네뿐이야.)

105014 #4 뭍 먹어 낚디가?(모자반 먹어 었습니까?)

105014 @ 예게 뭍.(예. 모자반.)

105014 #4 뭍은 뭍 잇수파?(뭍은 모자반 었습니까?)

105014 #1 흐쵸 안네어게.(조금 드려.)

105014 @ 엇수다 엇수다.(아닙니다 아닙니다.)

105014 #4 뭍 안네릅서.(모자반 드려주십시오.)

105014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5014 #4 뭍은 뭍 우리 우리가 저.(뭍은 모자반 우리 우리가 저.)

105014 @ 녀, 음.(녀, 음.)

105014 #4 뭍은 뭍이사 올 겨울에 현 거라부니까.(뭍은 모자반이야 올 겨울에 한 거라 버리니까.)

105014 @ 아.(아.)

105014 #4 건디 그게 소쿠리에 낵으네 빨면 아 그냥 다 헛상 나갑니까 뭍은 거니까. 올 겨울에 현 거우다 선달에 켜 거.(그런데 그게 소쿠리에 넣어서 빨면 아 그냥 다 허물어져 나갑니까 뭍은 거니까. 올 겨울에 한 겁니다 선달에 캐서 거.)

105014 @ 아이고 삼춘, 이.(아이고 삼춘, 이.)

105014 #4 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예. 그것이 이제 돼지뺨다구 팔려 가지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매날 먹을 수가 엇습주게.(우리가 잘 안 먹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돼지뺨다귀 달여 가지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맨날 먹을 수가 없습쵸.)

105014 @ 예게.(예.)

105014 #4 그냥 저.(그냥 저.)

105014 @ 그 툷 뭍도 허고, 툷도 허고예. 녀페도 허고예.(그 툷 모자반도 하고, 툷도 하고요. 녀페 하고요.)

105014 #4 지금 녀페 씨도 지어수다게.(지금 녀페 씨도 졌습니다.)

105014 @ 예. 게난 옛날예.(예. 그러니까 옛날예.)

105014 #4 예.(예.)

105014 @ 삼춘네가 할 수 잇엇던 거.(삼춘네가 할 수 잇엇던 거.)

105014 #4 예.(예.)

105014 @ 바당에서 캐넌 것들.(바다에서 캐넌 것들.)

105014 #4 예. 녀페도 메어다가 쏘앙 국 끓리문 맛싯는디 아, 그게 어떻게 해서 씨가 젓는지예.(예. 녀페도 매다가 삶아서 국 끓이면 맛있는데 아, 그게 어떻게 해서 씨가 젓는지요.)

105014 @ 응.(응.)

105014 #4 하나 안 낵니까게.(하나 안 낵니다.)

105014 @ 녀페도 안 나고예.(녀페도 안 나고요.)

105014 #4 예게 예. 혼 삼스년 전이는 우리 메여다가 국 끓여 먹었는디.(예. 예. 한 삼사년 전에는 우리 매어다가 국 끓여 먹었는데.)

105014 @ 응.(응.)

105014 #4 지금 하나토 엇습니다.(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105014 @ 응.(응.)

105014 #4 가다오다 그자 혼 가지 두 가지 거 이자 혼 걸로 아넵니께.(가다오다 그저 한 가지 두 가지 거 이제 할 걸로 안합니다.)

105014 @ 그 저기 바당에서 나는 것들을 이름을 알아지는 데로 곶아저지쿠과? 고동 저기에. 보말이엔 험니까?(그 저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이름을 알아지는 대로 말해지 겠습니까? 고동 저기요 보말이라고 합니까?)

105014 #1 보말.(보말.)

105014 #4 보말.(보말.)

105014 @ 보말.(보말.)

105014 #4 예.(예.)

105014 @ 보말허고 고동.(보말하고 소라.)

105014 #4 고동.(소라.)

105014 #1 또 굼벵.(또 딱지조개.)

105014 @ 굼벵.(딱지조개.)

105014 #4 갱이.(게.)

105014 @ 갱이.(게.)

105014 #4 예.(예.)

105014 #1 대오살.(거북손.)

105014 #4 대오살.(거북손.)

105014 @ 예. 대오살.(예. 거북손.)

105014 #4 예. 대오살이엔 혼 건 돌끄멍에 이런 돌끄멍에 꼭꼭 박아집니다게.(예. 거북손이라고 한 건 돌구멍에 이런 돌구멍에 꼭꼭 박혀집니다.)

105014 @ 뽕쭈 뽕쭈난 것들.(뽕쭈 뽕쭈한 것들.)

105014 #4 예. 그거 꼬득꼬득 험니다. 꼬실꼬실 허고.(예. 그거 꼬득꼬득 험니다. 까슬까슬 하고.)

105014 @ 아.(아.)

105014 #4 그걸 이제 저 합네께. 그건 이제도.(그걸 이제 저 합니다. 그건 이제도.)

105014 @ 예예.(예예.)

105014 #4 이 저 작은 망녕이아덜이, 그 어머니 돌에 깍깍 박아진 거 해당 먹으면은 무릎 안 아픈다고 게도 그게 무슨 약이 됩스니?(이 저 작은 막내아들이, 그 어머니 돌에 깍깍 박힌 거 해당 먹으면 무릎 안 아프다고 그래도 그게 무슨 약이 되니?)

105014 @ 아.(아.)

105014 #4 게 앓어당 먹으면 맛입네께 것도 코셔마씨.(그럼 가져다가 먹으면 맛있습

니다 것도 고소해요.)

105014 @ 예.(예.)

105014 #4 이제 그런 건 많이 이십네께.(이제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105014 @ 음.(음.)

105014 #4 그 대오살이엔 흔 건.(그 거북손이라고 한 건.)

105014 @ 대오살예.(거북손예요.)

105014 #4 군벚도 하고.(딱지조개 많고.)

105014 @ 대오살이 이 저기 우도 말잇과? 대오살? 대오살.(‘대오살’이 이 저기 우도 말입니까? ‘대오살’? ‘대오살’.)

105014 #4 예. 우도 말이우다게.(예. ‘우도’ 말입니다.)

105014 @ 우도말이라예.(‘우도’ 말이에요.)

105014 #4 예. 대오살.(예. 거북손.)

105014 @ 대오살예.(거북손요.)

105014 #4 경 허난에 그걸 해당은넵에 굿이<sup>177)</sup> 사름덜은 무릎 아프문 할문니 메날 그거 딸령 그거 먹으민 존텐 해렌 해도 아이 그거 무슨 약이 돼느냐고 해서.(그렇게 하니까 그걸 해다가 제주에 사람들은 무릎 아프면 할머니 맨날 그거 달여서 그거 먹으면 좋다고 하라고 해도 아이 그거 무슨 약이 되느냐고 해서.)

105014 @ 아, 그거 딸령 먹으면 무릎이 좋텐마씨?(아, 그거 달여서 먹으면 무릎이 좋다고요?)

105014 #4 무릎이 아픈 사름이 좋넌 해도 거 고정 안들어집네다게. 하수다게 그런 거.(무릎이 아픈 사름이 좋다고 해도 거 고정 안 들어집니다. 많습니다. 그런 거.)

105014 @ 으.(으.)

105014 #4 과작 또 그거 저 홍파다가 삶아다가 먹으민 맛입네께.(곧은 또 그거 저 홈파다가 삶아다가 먹으면 맛있습니다.)

105014 @ 예.(예.)

105014 #4 코십니다게.(고소합니다.)

105014 @ 예예.(예예.)

105014 #4 겐디 그걸 흘 시간도 엇고게. 또 걸 약으로도 생각 아녀고.(그런데 그걸 할 시간도 없고. 또 걸 약으로도 생각 않고.)

105014 @ 으, 돈 돼는 물에 들어강 돈 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니까예.(으, 돈 되는 물에 들어가서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요.)

105014 #4 그런 거 안 합니다. 노는 사름이나 허주 막 이제도 와서, 저 우리 동네에 엇이민 지네 동네 엇인 사름은 막 홍파 갑네께.(그런 거 안 합니다. 노는 사름이나 하지마구 이제도 와서, 저 우리 동네에 없으면 제 동네 없는 사름은 마구 홈파 갑니다.)

105014 @ 예.(예.)

105014 #4 그걸 왕.(그걸 와서.)

---

177) ‘굿’은 여기에서 제주 본섬을 말한다.

105014 @ 응.(응.)

105014 #4 아, 머허자고 영 흥팡시니? 허문 아이고 삼촌 이걸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허멍 흥파갑니다.(아, 뭐하자고 이렇게 흥파니? 하면 아이고 삼촌 이걸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하면서 흥파갑니다.)

105014 @ 예.(예.)

105014 #4 저 우뭇개<sup>178)</sup> 사름덜은 여기 와 가지고.(저 ‘우뭇개’ 사람들은 여기 와 가지고.)

105014 @ 응, 예.(응, 예.)

105014 #4 건예. 아무딴 사름 해가도 욱 아념니께.(건요 아무데에 사름 해가도 욱 안합니다.)

105014 @ 대오살 뽀족뽀족헌 거. 부처 같은 거를.(‘대오살’ 뽀족뽀족한 거. 부처 같은 거를.)

105014 #4 꼬슬 꼬슬 햏여 영 햏여.(꼬실 꼬실 햏 이렇게 햏.)

105014 @ 뽀족뽀족헌 거예.(뽀족뽀족한 거요.)

105014 #4 까릿까릿 이파리는 햏니께.(까슬까슬 이파리는 햏니다.)

105014 @ 예예.(예예.)

105015 @ 삼촌, 그 좀 물질햏젠 햏문예.(삼촌, 그 좀 물질햏려고 햏면요.)

105015 #4 예.(예.)

105015 @ 햏요햏 것들이 잇인디예. 무신 것덜이 햏요햏니까? 물웃 햏요햏고, 수경 햏요햏고.(햏요햏 것들이 잇는데요 무슨 것들이 햏요햏니까? 물웃 햏요햏고, 수경 햏요햏고.)

105015 #4 수경햏고 고무웃햏기 햏요 햏어.(수경햏고 잠수복햏에 햏요 햏어.)

105015 @ 고무웃햏고.(잠수복햏고.)

105015 #4 예. 그햏햏기 햏요 햏입니다.(예. 그햏햏에 햏요 햏습니다.)

105015 @ 햏리에 차는 거 햏고.(햏리에 차는 거 햏고.)

105015 #4 햏돌.(햏돌.)

105015 @ 햏돌햏고.(햏돌햏고.)

105015 #4 예.(예.)

105015 @ 망사리햏고.(망사리햏고.)

105015 #4 망사리햏고 그거 우다게.(망사리햏고 그거 햏니다.)

105015 @ 테왁.(‘테왁’.)

105015 #4 테왁<sup>179)</sup>햏고.(‘테왁’햏고.)

105015 @ 테왁에 망사리?(‘테왁’에 망사리?)

105015 #4 테왁에 달아햏는 거 망사리.(‘테왁’에 달아햏는 거 망사리.)

105015 @ 망사리 햏고.(망사리 햏고.)

---

178) ‘우뭇개’는 제주시 우도면에 잇는 지경이다.

179) ‘테왁’은 햏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햏녀들이 햏업햏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105015 #1 예.(예.)

105015 @ 또 큰 망사리 죽은 망사리, 문어허젠 허면은.(또 큰 망사리 작은 망사리, 문어하려고 허면은.)

105015 #4 아 저 문어야 며.(아 저 문어야 뭐.)

105015 @ 잡아지면 헐 거.(잡아지면 할 거.)

105015 #4 잡아지면 허면 까꾸리로 해 가지고.(잡아지면 하면 갈고리로 해 가지고.)

105015 @ 담아 놓는 거.(담아 놓는 거.)

105015 #4 저 까꾸리로 꿰영 망아리에 들이쳐도 되는 거고.(저 갈고리로 꿰여서 망사리에 들이쳐도 되는 거고.)

105015 @ 예.(예.)

105015 #4 그건 메날 잡는 게 아니고.(그건 맨날 잡는 게 아니고.)

105015 @ 게난 으기 쪽꼬만 허게 저기 큰 망아리 말고 죽은 망아리.(그러니까 요기 쪽꼬만 허게 저기 큰 망사리 말고 작은 망사리.)

105015 #4 거 아녘니까.(거 안 합니다.)

105015 @ 아녘니까?(안 합니다?)

105015 #4 우미 즈물<sup>180)</sup> 때 만약에 문어가 봐지면, 저 까꾸리 잇인 사름은 잡아다가 우미 망아리에 들이치곡.(우미 ‘즈물’ 때 만약에 문어가 봐지면, 저 갈고리 잇는 사름은 잡아다가 우뭇가사리 망사리에 들이치고.)

105015 @ 으.(으.)

105015 #4 그렇지 앓은 사름은, 까꾸리 잇인 사름은 문어 네벼똥 땡깁니다게.(그렇지 앓은 사름은, 갈고리 앓는 사름은 문어 네벼려두고서 다닙니다.)

105015 @ 음.(음.)

105015 #4 까꾸리 잇이 멀로 잡읍니까?(갈고리 앓이 무엇으로 잡읍니까?)

105015 @ 빗창?(빗창?)

105015 #4 빗창<sup>181)</sup>은 우린 안 험니까 상군들은 행 땡깁니다 이제도.(‘빗창’은 우린 안 합니다 상군들은 해서 다닙니다 이제도.)

105015 @ 게난 젊은 때.(그러니까 젊은 때.)

105015 #4 예.(예.)

105015 @ 빗창.(빗창.)

105015 #4 젊은 땡 빗창 헤낫수다.(젊은 땡 ‘빗창’ 했습니다.)

105015 @ 빗창허고.(‘빗창’하고.)

105015 #4 까꾸리 굴책이허고.(갈고리 호미하고.)

105015 @ 굴책이허고.(호미하고.)

105015 #4 예. 굴책이허고.(예. 호미하고.)

105015 #1 이거 행군 거주마는양.(이거 행군 거지만요.)

180) ‘즈물다’는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내다.’는 뜻이다.

181) ‘빗창’은 길이는 약 30센티미터 정도이고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말총으로 만든 끈을 달아 놓은 주로 전복을 따는 데 쓰는 도구이다.

105015 #4 이거 묵은 몸이우다 올리.(이거 묵은 모자반입니다 올해.)  
 105015 #1 잘 물린 거난 맛섭니다 이거.(잘 말린 거니까 맛있습니다 이거.)  
 105015 #4 겨울에예. 빼다구 딸리문 맛입니께게.(겨울에요 빼다귀 달이면 맛있습니다.)  
 105015 @ 예.(예.)  
 105015 #4 두 개에 쌍 와사 아주머니 하나 아저씨 하나 앓앙 갈 거.(두 개에 싸서 와야 아주머니 하나 아저씨 하나 가지고 갈 거.)  
 105015 @ 우리 혼집이우다.(우리 한집입니다.)  
 105015 #4 혼집잇과?(한집입니까?)  
 105015 @ 예.(예.)  
 105015 #4 게메 부부로구나예.(글쎄 부부로군요.)  
 105015 @ 예.(예.)  
 105015 #4 부부민 똬수다게.(부부면 똬습니다.)  
 105015 @ 거문 쏘살.(그러면 작살.)  
 105015 #4 예.(예.)  
 105015 @ 쏘살은 옛날도 필요 헛고예.(작살은 옛날도 필요 헛고요.)  
 105015 #4 쏘살은 우린 쏘살ㄱ라 저.(작살은 우린 작살보고 저.)  
 105015 #1 작살ㄱ라 쏘살이엔 허주게.(작살보고 ‘쏘살’이라고 하지.)  
 105015 @ 예.(예.)  
 105015 #4 작살보고 쏘살이엔 허는디 작살.(작살보고 ‘쏘살’이라고 하는데 작살.)  
 105015 @ 물에 들젠 허문 옛날에 속 같은 거.(물에 들려고 하면 옛날에 쭉 같은 거.)  
 105015 #4 밀<sup>182)</sup> 막읍니께 밀.(밀 막읍니다 밀.)  
 105015 @ 밀?(밀?)  
 105015 #4 예.(예.)  
 105015 @ 밀로 막아근예.(밀로 막아서.)  
 105015 #4 그걸로 이제 찰흙 사다가 이제 만듭니께. 밀이 없으니까.(그걸로 이제 찰흙 사다가 이제 만듭니다. 밀이 없으니까.)  
 105015 @ 예.(예.)  
 105015 #1 꺾 꺾으로, 꺾으로 헤기네.(꺾 꺾으로, 꺾으로 해서.)  
 105015 #4 꺾허고 찰흙허고 허꺼 가지고 우리 이제 그거 막읍니께.(꺾하고 찰흙하고 흘뜨려 가지고 우리 이제 그거 막읍니다.)  
 105015 @ 응. 옛날에는 속 헤 가지고.(응. 옛날에는 쭉 헤 가지고.)  
 105015 #4 응, 그거 안 막으민 우리 물에.(응, 그거 안 막으면 우리 물에.)  
 105015 @ 예.(예.)  
 105015 #1 옛날에는 멋과?(옛날에는 무엇입니까?)

182) ‘밀’은 밀랍(蜜蠟)을 말한다.

105015 #4 흔 발도 못 들어갔어.(한 발도 못 들어갔어.)  
 105015 #1 저저 벌.(저저 벌.)  
 105015 @ 예.(예.)  
 105015 #1 벌통 벌에서도 저 밀.(벌통 벌에서도 저 밀.)  
 105015 @ 밀예.(밀요.)  
 105015 #1 밀 만들어나지 안 해서게 벌에서게.(밀 만들었지 않았어 벌에서.)  
 105015 #4 청 쭈시로.(청 찌꺼기로.)  
 105015 @ 청 쭈시.(청 찌꺼기.)  
 105015 #1 벌통 청쭈시로.(벌통 청 찌꺼기로.)  
 105015 @ 예. 청쭈시.(예. 청 찌꺼기로.)  
 105015 #4 이젠 찰흙이 나부니까.(이젠 찰흙이 나버리니까.)  
 105015 #1 벌통 쭈시로.(청 찌꺼기로.)  
 105015 #4 그거 필요 엇수다게.(그거 필요 없습니다.)  
 105015 @ 으.(으.)  
 105015 #4 찰흙 상점에 가민 그거 사고 또 그 밀을 만듭니께.(찰흙 상점에 가면 그거 사고 또 그 밀을 만듭니다.)  
 105015 @ 밀을 만들앙예.(밀을 만들어서요.)  
 105015 #4 이제도 우리 컷고망에 막읍니다 안 막는 사름도 잇고 막는 사름도 잇고 험니께.(이제도 우리 컷구멍에 막읍니다 안 막는 사람도 잇고 막는 사람도 잇고 합니다.)  
 105015 @ 으, 속도.(으, 쑥도.)  
 105015 #4 속으로는 밀을 안 험니께.(쑥으로는 밀을 안 합니다.)  
 105015 @ 아.(아.)  
 105015 #1 속으로는 머냐 허면 눈<sup>183)</sup> 시끄젠 눈.(쑥으로는 뭐이냐 하면 물안경 씻으려고 물안경.)  
 105015 @ 눈 시끄젠.(물안경 씻으려고.)  
 105015 #1 눈 영 시끄면은 눈이 몯아 속으로 우리 어린 땀.(물안경 이렇게 씻으면은 물안경이 맑아 쑥으로 우리 어린 땀.)  
 105015 @ 예.(예.)  
 105015 #4 속으론 못 막읍니다 물 들어갑니다 속으로.(속으론 못 막읍니다 물 들어갑니다 속으로.)  
 105015 #1 눈 눈 시끄젠 눈 시끄젠.(물안경 물안경 씻으려고 물안경 씻으려고.)  
 105015 @ 눈 시끄젠.(물안경 씻으려고.)  
 105015 #4 아, 눈 시끄젠 이제도 험니께.(아, 물안경 씻으려고 이제도 합니다.)  
 105015 #1 예.(예.)  
 105015 @ 예. 이제도예.(예. 이제도요.)

---

183) '눈'은 물안경을 말한다.

105015 #4 이제도 속을 행 강 그걸로 따끄면 환하고, 걸로 안 따끄면 캄캄 험니께.  
(이제도 속을 해서 가서 그걸로 닦으면 환하고, 걸로 안 닦으면 캄캄 합니다.)

105015 @ 그 지금은 물옷은 잇이난 고무옷 잇이난 허는디 그 옛날에 고무옷 엇일 때  
육십 년대 헐 때는.(그 지금은 물옷은 있으니까 잠수복 있으니까 하는데 그 옛날에 잠수  
복 없을 때 육십 년대 할 때는.)

105015 #1 솟곳.(속곳.)

105015 @ 솟곳 입고.(속곳 입고.)

105015 #4 예.(예.)

105015 #1 멘 멘 옷.(맨 맨 옷.)

105015 @ 예. 저기.(예. 저기.)

105015 #1 솟곳 입으민 거뿐.(속곳 입으면 거뿐.)

105015 #4 물수건 쓰고.(물수건 쓰고.)

105015 @ 물수건 쓰고 솟곳 입고.(물수건 쓰고 속곳 입고.)

105015 #4 예. 그 건만 해놔수다.(예. 그 건만 했습니다.)

105015 #1 돈 잇는 사름은 이거 행 좀 입데.(돈 잇는 사름은 이거 해서 좀 입던데.)

105015 @ 우에 적삼 입고.(위에 적삼 입고.)

105015 #4 저 서촌<sup>184)</sup>더레는 이 물옷을 입는디 우리 동쪽에는, 이제 고무옷 나고 행  
해도 그 전 몇 년 전에도 물옷을 안 입어놔수다 서촌들 사름덜 뵈기.(저 ‘서촌’으로는  
이 물옷을 입는데 우리 동쪽에는, 이제 잠수복 나고 해서해도 그 전 몇 년 전에도 물옷  
을 안 입었습니다 ‘서촌’들 사람들 밖에.)

105015 @ 아.(아.)

105015 #4 서촌 사름덜은예. 몇 년이 아니고 이제도 저 경북<sup>185)</sup> 강 보민, 그 물 사צל  
입습니께.(‘서촌’ 사람들은요, 몇 년이 아니고 이제도 저 ‘경북’ 가서 보면, 그 물 셔츠를  
입습니다.)

105015 @ 물 사צל예.(물 셔츠요.)

105015 #4 예. 물 사צל 입는디 이디 사름덜은 이 동촌<sup>186)</sup> 사름덜은 안 입어마씨.(예.  
물 셔츠를 입는데 이데 사람들은 이 ‘동촌’ 사람들은 안 입어요.)

105015 @ 그 고무옷 나오기 전에.(그 잠수복 나오기 전에.)

105015 #4 예.(예.)

105015 @ 전에 입은 거 소중이 저기.(전에 입은 거 속곳 저기.)

105015 #4 예. 솟곳이라고 험니께.(예. 속곳이라고 합니다.)

105015 @ 솟곳이라고, 이기 떠허고.(속곳이라고, 이데 떠하고.)

184) ‘서촌’은 조선조 태종(太宗)16년(1416)부터 약 5세기 동안 삼분(三分)하여 통치하기 위해 제주를 제  
주목(濟州牧), 한라산 남쪽은 지금의 서귀포시(西歸浦市)를 둘로 나눠 서(西)는 대정현(大靜縣), 동(東)  
은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었을 때의 서쪽을 말한다.

185) ‘경북’은 대한민국의 행정구분으로 경상북도를 말한다.

186) ‘동촌’은 조선조 태종(太宗)16년(1416)부터 약 5세기 동안 삼분(三分)하여 통치하기 위해 제주를 제  
주목(濟州牧), 한라산 남쪽은 지금의 서귀포시(西歸浦市)를 둘로 나눠 서(西)는 대정현(大靜縣), 동(東)  
은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었을 때의 동쪽을 말한다.

105015 #4 예.(예.)  
 105015 @ 여기 해가지고.(여기 해가지고.)  
 105015 #4 예.(예.)  
 105015 @ 여기 단추 옆에 현 거예.(여기 단추 옆에 한 거요.)  
 105015 #4 예.(예.)  
 105015 @ 솟곳 입고예.(속곳 입고요.)  
 105015 #4 이제 솟곳 안 입읍니께.(이제 속곳 안 입습니다.)  
 105015 @ 예. 이젠 안 입고 그 옛날에 속곳 입었지예.(예. 이젠 안 입고 그 옛날에 속곳 입었지요.)  
 105015 #4 그 옛날은 그거 다 행은에 입었수다게.(그 옛날은 그거 다 해서 입었습니다.)  
 105015 @ 물수건 허고.(물수건 하고.)  
 105015 #4 또.(또.)  
 105015 @ 눈 써기네예.(물안경 써서요.)  
 105015 #4 예.(예.)  
 105015 @ 눈도 작은 눈도 잇고 큰 눈도 잇지예?(물안경도 작은 물안경도 잇고 큰 물안경도 잇지요?)  
 105015 #4 큰 눈<sup>187</sup>도 잇고.(큰 물안경도 잇고.)  
 105015 @ 삼촌 눈은 저기 어디다 어디가 어디 가기네 맞춰다기네 해납디가?(삼촌 물안경은 저기 어디다 어디가 어디 가서 맞춰다가 했습니까?)  
 105015 #4 여기 상점 출령.(여기 상점 차려서.)  
 105015 @ 예.(예.)  
 105015 #1 점방에도.(점방에도.)  
 105015 #4 상점에 가민 이제 사 온 것덜 잇수다게.(상점에 가면 이제 사 온 것들 있습니다.)  
 105015 @ 지금 말고 옛날에.(지금 말고 옛날에.)  
 105015 #4 옛날에도.(옛날에도.)  
 105015 @ 그 옛날에예.(그 옛날에도요.)  
 105015 #4 상점에 놔수다게. 상점에 이시니까 그걸 썬 거 아잇과.(상점에 뒀습니다. 상점에 있으니까 그걸 쓴 거 아닙니까.)  
 105015 @ 예.(예.)  
 105015 #1 아주 옛날에 여기 눈 멘드는 사람도 잇어났어 옛날에는.(아주 옛날에 여기 눈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는.)  
 105015 @ 아, 눈 멘드는 사람예.(아, 물안경 만드는 사람요.)  
 105015 #1 예. 아주 옛날에는.(예. 아주 옛날에는.)  
 105015 @ 아주 옛날에.(아주 옛날에.)

---

187) '눈'은 수경을 말한다.

105015 #1 예. 이제 점방에서 흐주만 여기서 옛날 계국장시네<sup>188)</sup> 집이 무신 저.(예. 이제 점방에서 하지만 여기서 옛날 ‘계국장사’ 집에 무슨 저.)

105015 #4 예. 눈 해나서.(예. 물안경 했었어.)

105015 #1 하르방도 눈 멘들고 머히고 그디 강.(할아버지도 물안경 만들고 뭐하고 거기 가서.)

105015 #4 그 몇 년 돼신디.(그 몇 년 되었는데.)

105015 #1 게메 저 그때 오십년 대.(글쎄 저 그때 오십년 대.)

105015 @ 예. 오십년 대.(예. 오십년 대.)

105015 #1 스십년 대.(사십년 대.)

105015 @ 으.(으.)

105015 #1 오십년 대.(오십년 대.)

105015 #4 이제 눈 벌러지면 중앙에 상점에 가면 사웁니다.(이제 물안경 깨지면 중앙에 상점에 가면 사웁니다.)

105015 @ 지금은 경헌디 그 옛날에.(지금은 그런데 그 옛날에.)

105015 #1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5015 @ 만드는 사름 잇언예.(만드는 사람 있어서요.)

105015 #4 그 옛날엔, 췌로 만들어 가지고예.(그 옛날에는, 쇠로 만들어 가지고요.)

105015 @ 예.(예.)

105015 #1 예. 우도에서 눈 만드는 사름이 잇언예.(예. 우도에서 물안경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요.)

105015 #4 췌로 만들어 가지고.(쇠로 만들어 가지고.)

105015 @ 췌로 만들앙예.(쇠로 만들어 가지고요.)

105015 #4 예. 썬낫수다게.(예. 썼습니다.)

105015 @ 눈에 맞게예?(눈에 맞게요?)

105015 #4 예. 이녁 얼굴에 맞추와 가지고 행예.(예. 이녁 얼굴에 맞추어 가지고 해서요.)

105015 @ 얼굴에 맞게예.(얼굴에 맞게요.)

105015 #4 얼굴에 맞추와 가지고 썬는다.(얼굴에 맞춰서 가지고 썼는데.)

105015 @ 응.(응.)

105015 #4 지금은 얼굴에 맞추는 사름이 엇입니다.(지금은 얼굴에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105015 @ 그때는 눈 저기 노는 콧도 잇어나지 안 해수과?(그때는 물안경 저기 넣는 갑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105015 #4 예. 잇어나수다.(예. 있었습니다.)

105015 @ 응.(응.)

105015 #1 예. 눈 콧 잇어나서.(예. 물안경 갑 있었어.)

188) ‘계국장시네’는 제보자가 우도면에서 장사를 하던 집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105015 @ 눈 꺾예.(물안경 갑요.)  
 105015 #4 예.(예.)  
 105015 @ 예. 눈 꺾 해 가지고예.(예. 물안경 갑 해 가지고요.)  
 105015 #4 그렇게 돼수다게.(그렇게 됐습니다.)  
 105015 @ 으.(으.)  
 105015 #4 몇 년 전에.(몇 년 전에.)  
 105016 @ 그 이제 물질허는 거 옛날 지금 물질허고 옛날 물질허고.(그 이제 물질하  
 는 거 옛날 지금 물질하고 옛날 물질하고.)  
 105016 #4 예.(예.)  
 105016 @ 그 저기 비교 한번 해봅서. 옛날 어떻게 뜯나봐?(그 저기 비교 한번 해보  
 십시오. 옛날 어떻게 다릅니까?)  
 105016 #4 비교라는 거는, 옛날에는 고무옷도 엇고 이런 물옷만 입어 가지고 저 허는  
 디 시간 시간.(비교라는 거는, 옛날에는 잠수복도 없고 이런 물옷만 입어 가지고 저 하  
 는데 시간 시간.)  
 105016 @ 물속에 들어간 시간.(물속에 들어간 시간.)  
 105016 #4 시간상으로예.(시간상으로요.)  
 105016 @ 예.(예.)  
 105016 #1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게.(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5016 #4 세 시간을 못 살안 나왔는디 그땐.(세 시간을 못 살아서 나왔는데 그땐.)  
 105016 @ 응.(응.)  
 105016 #4 지금은 머 일고 으둡시간 삽니다예.(지금은 뭐 일곱 여덟 시간 삽니다요.)  
 105016 @ 예. 일고 으둡 시간을.(예. 일곱 여덟 시간을.)  
 105016 #4 예. 일고 으둡 시간을 사는데, 지금은 우리 여녕 먹으니까 혼 세 시간정도  
 살앙 뻗끼 못 나옵니다다게.(예. 일곱 여덟 시간을 사는데, 지금은 우리 연령 먹으니까 한  
 세 시간정도 살아서 밖에 못 나옵니다.)  
 105016 #1 옛날에 혼 삼십분 아이민 혼 시간이라서 옛날엔 속옷만 입을 땐, 맨 맨몸  
 으로 들어갈 땐, 막 힘이 준 사람은 혼 시간.(옛날에 한 삼십분 아니면 한 시간이어서  
 옛날엔 속옷만 입을 땐, 맨 맨몸으로 들어갈 땐,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은 한 시간.)  
 105016 @ 예.(예.)  
 105016 #4 두 시간ㄱ장은 삽니다게.(두 시간까지는 삽니다.)  
 105016 #1 또 그 아닌 사람은 삼십분, 혼 시간 경뻗기 못 살아.(또 그 아닌 사람은  
 삼십분, 한 시간 그렇게밖에 못 살아.)  
 105016 @ 지금 게민 물에 들영 일고 여덟 시간 물에 들영 살젠 허민.(지금 그러면  
 물에 들어서 일곱 여덟 시간 물에 들어서 살려고 하면.)  
 105016 #4 예.(예.)  
 105016 @ 배고프민 어떻 험니까.(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105016 #4 그 사람.(그 사람.)

105016 @ 주먹밥 같은 거 만들앙 가는가마씨?(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서 가는가요?)

105016 #4 아니 아무것도 안 먹읍니다게. 우리 동네(아니 아무것도 안 먹읍니다게 우리 동네.)

105016 @ 예.(예.)

105016 #4 우리는 며 두 시간 저 살앙 나오주마는 오십대 육십대 그것도 이제 상중군<sup>189)</sup> 잇수다 상중군 있어.(우리는 뭐 두 시간 저 살아서 나오지마는 오십대 육십대 그것도 이제 ‘상중군’ 있습니다 ‘상중군’ 있어.)

105016 @ 응.(응.)

105016 #4 상즙녀<sup>190)</sup>는예. 그냥 먹지도 앓고 해도야 오십 킬로씩 잡앙 낚니께 소라, 막 먼디 나잡니께.(‘상즙녀’는요, 그냥 먹지도 앓고 해도야 오십 킬로씩 잡아서 낚읍니다 소라, 마구 먼디 나잡니다.)

105016 @ 응 먼디 가근에예.(응 먼디 가서요.)

105016 #4 배로 갈 정도로 나가는데 우리 그딘 못 갑니께.(배로 갈 정도로 나가는데 우리 거기는 못 갑니다.)

105016 @ 예. 계난 그 옛날에 헐 땀 흘 삼십분 한 시간 저 물.(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할 땀 한 삼십분 한 시간 저 물.)

105016 #1 해났는데.(했는데.)

105016 #4 예.(예.)

105016 @ 물웃 입어근에 뭐짜? 소중이 입영 나가면은.(물웃 입어서 무엇입니까? 속 곳 입어서 나가면.)

105016 #1 예.(예.)

105016 @ 추우면은 불턱에 와근에 불 쪼 거 아닛과?(추우면 ‘불턱’에 와서 불 쪼 거 아닙니까?)

105016 #4 예. 불 췌수다.(예. 불 쪼었습니다.)

105016 #1 불 채근에예.(불 쪼어서요.)

105016 @ 예.(예.)

105016 #4 남 주어다가.(나무 주어다가.)

105016 @ 남 주어다가.(나무 주어다가.)

105016 #1 나무 집이서 또 나무도 갖앙 가야돼여.(나무 집에서 또 나무도 가져서 가야돼.)

105016 @ 갖앙 가근에예.(가져서 가서요.)

105016 #4 갖앙도 가고 또 부족하면 부족하면.(가져서도 가고 또 부족하면 부족하면.)

105016 #1 부족하면 그 주위엿 거 주서다가.(부족하면 그 주위에 거 주워다가.)

105016 #4 주워도 와서 저.(주워도 와서 저.)

105016 @ 응, 그때는 흔 대여섯 명이 ㄴ치 불 췌수과? 아니면.(응, 그때는 한 대여섯

189) ‘상중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190) ‘상즙녀’는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명이 같이 불 쪼였습니까? 아니면.)

105016 #4 열도 앓곡 으둡도 앓곡 불턱<sup>191)</sup> 그 찌리찌리 앓읍니께.(열도 앓고 여덱도 앓고 ‘불턱’ 그 끼리끼리 앓습니다.)

105016 @ 예.(예.)

105016 #4 여녕 많은 사름.(연령 많은 사람.)

105016 @ 많은 사름.(많은 사람.)

105016 #4 또 젊은 사람.(또 젊은 사람.)

105016 @ 예.(예.)

105016 #1 상군<sup>192)</sup>끼리 중군<sup>193)</sup>끼리.(‘상군’끼리 ‘중군’끼리.)

105016 #4 그렇게 해녀질<sup>194)</sup>을 많이 집집마다 허니까 허주만은.(그렇게 ‘해녀질’을 많이 집집마다 하니까 하주만.)

105016 @ 허니깐예.(허니까요.)

105016 #4 지금은예. 해녀 집집마다 엇수다게.(지금은요. 해녀 집집마다 없습니다.)

105016 @ 예.(예.)

105016 #4 이제 혼 거이.(이제 한 거의.)

105016 @ 게민 그때 옛날에 저기 삼촌 튼네어 봄서마는 불턱에서 서로 막 회의도 허고.(그러면 그때 옛날에 저기 삼촌 떠올려 보십시오마는 ‘불턱’에서 서로 막 회의도 하고.)

105016 #4 어.(어.)

105016 @ 물건 값 어떻 허는 것도 허곡.(물건 값 어떻게 하는 것도 하고.)

105016 #4 아이고 갯굿이서?(아이고 갯가에서?)

105016 @ 예.(예.)

105016 #1 이런 저런 말 하영 험주.(이런 저런 말 많이 하지요.)

105016 @ 이런 저런 말덜.(이런 저런 말들.)

105016 #1 예.(예.)

105016 #4 이런 저런 말 농담도 허곡.(이런 저런 말 농담도 하고.)

105016 @ 농담도 허고.(농담도 하고.)

105016 #4 예. 잔말을 허는디.(예. 잔말을 하는데.)

105016 #1 동네 일어나는 말.(동네 일어나는 말.)

105016 @ 예.(예.)

105016 #4 지금은 웨이를 불라고 허면 웨장을 험네께 웨장.(지금은 회이를 보려고 하면 회장을 합니다 회장.)

105016 @ 으.(으.)

---

191) ‘불턱’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이 하기 위하여 마련 해간 땀감으로 불을 지펴서 쪼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이다. 바닷가 바위의 자연적 뒹뒹이를 활용하여 꾸며지기도 하여 해녀들의 탈의장으로 이용된다.

192) ‘상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193) ‘중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보통인 해녀를 말한다.

194) ‘해녀질’은 제보자가 해녀가 바다물속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하는 일을 말한다.

105016 #4 잠수회장 계민 그 집이 모여 말을.(잠수회장 그러면 그 집에 모여 말을.)  
 105016 @ 허지예.(하지요.)  
 105016 #4 역사를 따까줍니께. 계민 그런 가 봅니다게.(역사를 닦아줍니다. 그러면 그런 가 봅니다.)  
 105016 @ 그때는 상군이 저기 제일 우두머리가 될 건가마씨?(그때는 ‘상군’이 저기 제일 우두머리가 될 건가요?)  
 105016 #4 예게, 그때나 지금이라도.(예. 그때나 지금이라도.)  
 105016 @ 그 옛날에도.(그 옛날에도.)  
 105016 #4 그 지금이나 저 이제나 그때나 상군 잇입니께게.(그 지금이나 저 이제나 그때나 ‘상군’ 있습니다.)  
 105016 @ 상군이 해근에 상군이 지도자도 해녀대표.(‘상군’이 해서 ‘상군’이 지도자도 해녀대표.)  
 105016 #4 예.(예.)  
 105016 @ 회장이엔 해나신가마씨? 그 옛날에도.(회장이라고 했는가요? 그 옛날에도.)  
 105016 #4 예. 그 중에서도 물질 잘허는 사람으로 회장허고, 또 좀 머리가 좋고 글을 안 사람도 회장도 허고 영 해낫수다마는.(예. 그 중에서도 물질 잘하는 사람으로 회장하고 또, 좀 머리가 좋고 글을 안 사람도 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05016 @ 음.(음.)  
 105016 #4 저 우리도 저 회장 즈격도 엇인디, 막 츠레 메기로 해야 웬덴 해낫수다게.(저 우리도 저 회장 자격도 없는데, 마구 차레 매기로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105016 @ 예.(예.)  
 105016 #1 이 할망<sup>195</sup>도 혼 해 혼 번 저 해녀회장 해낫주.(이 아내도 한 해 한 번 저 해녀회장 했지.)  
 105016 @ 예.(예.)  
 105016 #1 돌아가명 의무적으로.(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105016 @ 응.(응.)  
 105016 #4 예. 해낫수다마는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엇고 지금은 젊은 세대가 허는 때문예.(예.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없고 지금은 젊은 세대가 하는 때문예.)  
 105016 @ 예.(예.)  
 105016 #1 회장 허문 봉사적으로 해야 돼고 춤 괴롭주마썸게.(회장 하면 봉사적으로 해야 되고 참 괴롭지요.)  
 105015 @ 으.(으.)  
 105016 #1 이것저것 통술을 흥곡 딱 마음을 조정히려고 허면 괴로우니까 안 헐랴고 허여.(이것저것 통술을 하고 또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안 하려고 해.)  
 105016 @ 응.(응.)  
 105016 #1 큰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큰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이제.)

195) ‘할망’은 보통 할머니를 뜻하나,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아내를 칭하고 있다.

105016 @ 예.(예.)

105016 #4 계계 동네.(그럼 동네.)

105016 #1 의무적으로 해여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의무적으로 해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5016 @ 예.(예.)

105016 #4 그 머, 일 볼 때하는 거기 때문에게.(그 뭐, 일 볼 때하는 거기 때문에.)

105017 @ 이 좀녀들이예. 물웃이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소중이만 입고.(이 해녀들이 요 물웃이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 속곳만 입고.)

105017 #4 예예.(예예.)

105017 @ 수건 입었고, 그 다음에 한 칠십년 대 후반부터는 고무옷덜 나완에 입었고 예.(수건 입었고, 그 다음에 한 칠십년 대 후반부터는 잠수복들 나와서 입었고요.)

105017 #4 예. 고무옷 나온 후젠 이 가호마다 편리하게 살았수다게.(예. 잠수복 나온 후에는 이 가호마다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105017 @ 예.(예.)

105017 #4 예를 들어 가지고, 오만 원 벌어 올 디를 사오십 만원 버니까 어떻게허여 마썰.(예를 들어 가지고, 오만 원 벌어 올 데를 사오십 만원 버니까 어떻게 해요.)

105017 @ 예.(예.)

105017 #1 돈 버는 차이만 잇지, 시간상으로 물질은 거의 비슷해여마썰. 시간상으로 비슷해.(돈 버는 차이만 잇지, 시간상으로 물질은 거의 비슷해요. 시간상으로 비슷해.)

105017 #4 아, 시간상으로는 우리 ㄱ튼 여녕 하영 먹은 사람은 이녁 즈신이 엇이민 나는 거고.(아, 시간상으로는 우리 같은 연령 많이 먹은 사람은 이녁 자신이 없으면 나는 거고.)

105017 @ 예.(예.)

105017 #1 아니, 계도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엇입니께.(아니,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5017 #4 딱로 이제 힘이 이신 사람은 어둑두룩 살아도 누게 말리는 사람도 엇고.(따로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둑도록 살아도 누구 말리는 사람도 없고.)

105017 #1 물건도 많이 엇고.(물건도 많이 없고.)

105017 @ 예.(예.)

105017 #4 즈유우다 즈유 시간은.(자유입니다 자유 시간은.)

105017 @ 응, 옛날은 추워근예.(응, 옛날은 추워서.)

105017 #4 예.(예.)

105018 #1 그런데 천초 ㄱ튼 거 흘 때는 통제흡네다.(그런데 우뭇가사리 같은 거 할 때는 통제합니다.)

105018 @ 으.(으.)

105018 #1 부락장이.(부락장이.)

105018 @ 예.(예.)

105018 #1 가서 어 혼 시간이.(가서 어 한 시간이.)

105018 #4 세 시간씩은 물에.(세 시간씩은 물에.)

105018 #1 세 시간만 허자. 헤어근에 고동을 불고.(세 시간만 허자. 해서 고동을 불고.)

105018 @ 툇 허문예. 그 천초가 이제 나올 건디예. 툇은 개인으로 험니까?(툇 하면요 그 우뭇가사리가 이제 나올 건데요. 툇은 개인으로 험니까?)

105018 #4 어.(어.)

105018 @ 아니면 공동으로 툇 바당 탁 터근에 저 공동으로 험니까?(아니면 공동으로 툇 바다 탁 터서 저 공동으로 험니까?)

105018 #4 저 천초 즈물 때마씨?(저 우뭇가사리 켤 때요?)

105018 @ 툇, 툇.(툇, 툇.)

105018 #4 아, 툇 할 때는.(아, 툇 할 때는.)

105018 @ 예.(예.)

105018 #4 우리 하르방<sup>196)</sup>이 잘 압니까마는.(우리 남편이 잘 압니다마는.)

105018 @ 응.(응.)

105018 #4 가호마다 집집마다 혼 사름이 혼 집이 한 사람.(가호마다 집집마다 한 사람이 한 집에 한 사람.)

105018 @ 한 사람씩 공동으로 혼 때는예.(한 사람씩 공동으로 할 때는요.)

105018 #4 예. 공동으로예. 공동으로.(예. 공동으로요 공동으로.)

105018 @ 공동으로 헝고 개인은 안 험니까?(공동으로 하고 개인은 안 험니까?)

105018 #4 개인은 안 험니다.(개인은 안 험니다.)

105018 @ 안 헝고예.(안 하고요.)

105018 #4 공동으로는.(공동으로는.)

105019 @ 천초는?(우뭇가사리?)

105019 #4 천초는 개인으로 헝고.(우뭇가사리는 개인으로 하고.)

105019 @ 천초는 공동으로 안 헝고 개인헝고예.(우뭇가사리는 공동으로 안 하고 개인하고요.)

105019 #4 예. 개인으로 헝고.(예. 개인으로 하고.)

105020 @ 그리고 전복헝고 고동은?(그리고 전복하고 소라는?)

105020 #4 그것도 다 개인으로 험니다게.(그것도 다 개인으로 험니다.)

105020 @ 개인으로 헝고예.(개인으로 하고요.)

105020 #4 예.(예.)

105020 @ 아, 고동도 개인으로 험니까.(아, 소라도 개인으로 험니까.)

105020 #4 예예.(예예.)

105020 @ 모든 바당 탁 터기네.(모든 바다 탁 터서.)

105020 #1 예.(예.)

---

196)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105020 #4 예. 탁 터 노면은.(예. 탁 터 놓으면은.)  
 105020 @ 틀 때 시기만 틀리고.(틀 때 시기만 틀리고.)  
 105020 #1 예. 날짜.(예. 날짜.)  
 105020 @ 개인으로 허고.(개인으로 허고.)  
 105020 #4 개인으로 허민예. 엄청나게 버음니께게.(개인으로 하면요 엄청나게 법니다.)  
 105020 @ 예. 개인으로예.(예. 개인으로요.)  
 105020#4 오십대 육십대는.(오십대 육십대는.)  
 105021 @ 그 전복허고 고동에.(그 전복하고 소라에.)  
 105021 #4 예.(예.)  
 105021 @ 암전복하고 숫전복이 잇인데예.(‘암전복’하고 ‘수전복’이 있는데요.)  
 105021 #4 예.(예.)  
 105021 @ 암고동 허고 숫고동 잇인데 그거.(암소라 허고 수소라 있는데 그거.)  
 105021 #4 그거 고동은 저 분세<sup>197)</sup> 못힙니께.(그거 소라는 저 구분 못 합니다.)  
 105021 @ 아 고동은 구분.(아 고동은 구분.)  
 105021 #1 암커 숫커 구별 못 헤여.(암컷 수컷 구별 못 해.)  
 105021 @ 예.(예.)  
 105021 #4 구별 못 헤여.(구별 못 해.)  
 105021 @ 구별 못 헤여마씨?(구별 못 해요?)  
 105021 #4 예. 전복은 아는디.(예. 전복은 아는데.)  
 105021 @ 응.(응.)  
 105021 #4 전복은 수커 암커 아는디 소라는 몰라마씨.(전복은 수컷 암컷 아는데 소라는 몰라요.)  
 105021 @ 수커를 수침복이엔 험니까?(수컷을 수전복이라고 합니까?)  
 105021 #4 거 모르곡.(거 모르고.)  
 105021 #1 수침복<sup>198)</sup> 암침복<sup>199)</sup>이엔 헤여.(수전복 암전복이라고 해.)  
 105021 @ 아, 수침복 암침복?(아, 수전복 암전복?)  
 105021 #4 수침복 암침복이엔 험네께게.(수전복 암전복이라고 합니다.)  
 105021 @ 수침복호고 암침복은.(수전복 암전복은.)  
 105021 #4 꺾뻑으로 암네께게.(꺾데기로 압니다.)  
 105021 @ 꺾뻑이 어떻 험니까?(꺾데기 어떻게 합니까?)  
 105021 #4 수침복은양 움막호고 소랑, 이렇게 소랑 호는디 암침복은 이렇게 넙작.(수전복은요 우묵하고 길쭉, 이렇게 길쭉 하는데 암전복은 이렇게 납작.)  
 105021 @ 넙작, 넙작험니까?(납작, 납작합니까?)  
 105021 #4 예. 납작허우다.(예. 납작합니다.)

197) ‘분세’는 제보자가 ‘구분’으로 하는 말을 잘못 말한 것이다.

198) ‘수침복’은 전복의 수컷을 말한다.

199) ‘암침복’은 전복의 암컷을 말한다.

105021 @ 예. 납작해기네예.(예. 납작해서요.)

105021 #4 겐디 수침복이 웨롭니다게.(그런데 수전복이 어렵습니다.)

105021 @ 예.(예.)

105021 #4 암전복은 쉬웁고 아 우리는 머 늙어부니까 점복 못 톱니다마는.(암전복은  
쉽고 아 우리는 뭐 늙어버리니까 전복 못 톱니다마는.)

105021 @ 예.(예.)

105021 #4 젊은 사람 터 오민 암전복은 터 오주 수침복은.(젊은 사람 떼 오면 암전복  
은 떼 오지 수전복은.)

105021 @ 으.(으.)

105021 #4 잘 엇는 쟁<sup>200)</sup>이라마씨.(잘 엇는 형편이에요.)

105021 @ 암침복 틀 때는 어느 물에 암침복이 터 지는고예?(암전복 뜯 때는 어느 물  
에 암전복이 떼 지는가요?)

105021 #1 한 이십 메다 깊이 들어가야.(한 이십 미터 깊이 들어가야.)

105021 @ 이십 메다?(이십 미터?)

105021 #4 그건 저 그 전복이라는 건 이제도 궂<sup>201)</sup>밧디<sup>201)</sup>도 잇입니께.(그건 저 그 전복  
이라는 건 이제도 바닷가 밧에도 있습니다.)

105021 #1 이따가.(이따가.)

105021 @ 예.(예.)

105021 #4 잇주마는 이제는 전복이 웨로와가지고 혼 조금에 하나 트는 사람 엇입네  
다게 멧 조금에 그날 운이 좋으면은 오십대 육십 대에는 터 읍니께 이제도.(잇지마는 이  
제는 전복이 어려워가지고 한 조금에 하나 떼는 사람 없습니다 멧 조금에 그날 운이 좋  
으면은 오십대 육십 대에는 떼 읍니다 이제도.)

105021 @ 음.(음.)

105021 #4 하나 터와도.(하나 떠와도.)

105021 @ 그 옛날에.(그 옛날에.)

105021 #4 그 옛날엔 아이고 그 옛날엔 말 헐 수가 엇수다게. 많이 터 읍니께. 으라  
개.(그 옛날에는 아이고 그 옛날에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떼 읍니다. 여러 개.)

105021 @ 게난 삼춘네 그 옛날에.(그러니까 삼춘네 그 옛날에.)

105021 #4 다섯 마리도 터 오고.(다섯 마리도 떼 오고.)

105021 @ 예.(예.)

105021 #4 세 마리도 터오고 두 마리도 터 오고 혼 마리도 못하는 사람도 잇고.(세  
마리도 떠오고 두 마리도 떼 오고 한 마리도 못하는 사람도 잇고.)

105021 @ 못헐 때도 잇고에.(못할 때도 잇고요.)

105021 #4 예.(예.)

105021 @ 운에 따라 가지고예.(운에 따라 가지고요.)

200) '쟁'은 모양이나 어떤 형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형편을 의미한다.

201) '궂밧디'는 바다의 가(邊)를 말하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밭을 말하는 제주어다.

105021 #4 예.(예.)

105021 #1 게고 그리고 머정<sup>202)</sup>이 잇는 사름이.(게고 그리고 ‘머정’이 잇는 사름이.)

105021 #4 우리 전복 못 터 나수다. 잘 허면 가다오다 춤 일 년에 혼 두 번이주.(우리 전복 못 뗏습니다. 잘 허면 가다오다 참 일 년에 한 두 번이지.)

105021 @ 아 삼춘은 원래 젊은 때도 전복 못 터 낚디가?(아 삼춘은 원래 젊은 때도 전복 못 뗏습니까?)

105021 #1 못 터낚주.(못 뗏지.)

105021 #4 못 터낚수다 수심 지픈 딜 못가니까.(못 뗏습니다 수심 깊은 데를 못가니까.)

105021 @ 예.(예.)

105021 #1 수심 지픈 딜 못가.(수심 깊은 데를 못가.)

105021 @ 아.(아.)

105021 #4 이건 수심 지픈 딜 가야 해 읍네께게.(이건 수심 깊은 데를 가야 해 읍니다요.)

105021 @ 아, 예.(아, 예.)

105021 #4 게난 그것도 머정이라고 허는디.(그러니까 그것도 ‘머정’이라고 하는데.)

105021 #1 우리 할망<sup>203)</sup>은 넙메역 즈물<sup>204)</sup>레도 못 가낚수다게. 상군<sup>205)</sup> 아니라부난.(우리 아내는 넓미역 ‘즈물러’도 못 갔습니다. 상군 아니라버리니까.)

105021 #4 수심 지픈디 못갑네께게.(수심 깊은데 못갑니다.)

105021 @ 예.(예.)

105021 #1 상군덜른 넙메역 즈물도 가는디 넙메역 즈무는 가는 사름이 상군이우다게. 넙메역.(상군들은 넓미역 캐도 가는데 넓미역 캐는 가는 사름이 상군입니다. 넓미역.)

105021 @ 예. 십오 메타 이십 메타예. 들어가니까예.(예. 십오 미터 이십 미터에 들어가니까요.)

105021 #1 예.(예.)

105021 #4 나 발로 혼 일고 으둡 발 웰 거.(나 발로 한 일곱 여덟 발 될 거.)

105021 #1 난 혼티 시집 온 후에 넙메역 즈물레 못 가봤수다게.(난 한테 시집 온 후에 넓미역 ‘즈물러’ 못 가봤습니다.)

105021 #4 예. 나 못 즈뭍니께 넙메역.(예. 나 못 ‘즈뭍’니다 넓미역.)

105021 @ 으.(으.)

105022 @ 테우에 데해서 한 번 곁아줘봅서. 테우, 삼춘.(떼에 대해서 한 번 말해주십시오. 떼, 삼춘.)

105022 #1 테우?(떼?)

105022 @ 예.(예.)

202) ‘머정’은 무슨 일에 있어서 재수가 좋음을 말한다.

203) ‘할망’은 보통 할머니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아내를 칭하고 있다.

204) ‘즈물다’는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내다’는 뜻이다.

205) ‘상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105022 #1 테우는게,(떼는.)

105022 @ 테우는 그냥 테우지예?(떼는 그냥 떼지요?)

105022 #1 예게.(예.)

105022 @ 테우로 녀메역 해납디가?(떼로 뉘미역 했습니까?)

105022 #1 아이 해낫수다. 우리 이전에 웨정 때, 테우가. 육십년 오십년 대 이후엔 테우엔 현 배가 엇어낫수다.(아니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왜정 때, 떼가. 육십년 오십년 대 이후엔 떼라고 한 배가 없었습니다.)

105022 @ 테우 탕은예. 옛말 듣기로.(떼 타서는요 옛말 듣기로.)

105022 #1 예.(예.)

105022 @ 테우 탕 어디까지 가 낫텐 말 들어난 적 엇수과?(떼 타서 어디까지 갔 다고 말 들었던 적 없습니까?)

105022 #1 엇수다 그런 말 엇수다.(없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105022 @ 테우 탕 막 어디로 터낫텐.(떼 타서 마구 어디로 떠갔다고.)

105022 #1 옛날 우리 증조할망 말론 우리 으, 우리 당 할망 말로 우리 증조하르방 마 중간 동생 잇엇는디, 저 화투를 잘 헤신고라 화투ㅎ당 동네 그 화투 돈 꾸어준 사름이 돈만 네노렌 ㅎ난, 날썬 불고 강 저 불락이나 나끄고 그 할망 그 사람 퀴 흠이나 ㅎ젠 나갓단에 풍파 만난.(옛날 우리 증조할머니 말론 우리 오, 우리 당 할머니 말로 우리 증조할아버지 마 중간 동생 잇엇는데, 저 화투를 잘 했던 거야 화투하다가 동네 그 화투 돈 꾸어준 사람이 돈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날썬 잔잔하고 강 저 불락이나 뉘고 그 할머니 그 사람 성게 하려고나 하려고 나갔다가 풍파 만나서.)

105022 @ 아.(아.)

105022 #1 불런 브름에 불런 어디 간 죽엇젠 경 곱읍디다 우리 할망이.(불려서 바람 에 불려서 어디 가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105022 @ 아, 오지 못ㅎ고.(아, 오지 못 하고.)

105022 #1 예. 경 허난 우리 할망은 우리집안 사름덜은 어디 강 호투ㅎ영 안 웬다.(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는 우리집안 사름들은 어디 가서 화투해서 안 된다.)

105022 @ 으.(으.)

105022 #1 옛날 조상이ㅎ난 안 웬텐 허멍 우리 당 오춘이 화투치레 텡겨가난에 우리 당 할망이 그런 옛말 곱아난 적이 잇수다.(옛날 조상이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당 오춘이 화투치러 다녀가니까 우리 당 할머니가 그런 옛말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105023 @ 그, 범선예.(그, 범선요.)

105023 #1 예.(예.)

105023 @ 범선에 대해서 아는 데로 한 번 곱아줘 봅서. 삼춘은 범선은 타낫지예?(범선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 번 말해줘 보십시오. 삼춘은 범선은 탔었지요?)

105023 #1 풍선이여게.(풍선이야.)

105023 @ 예. 풍선 허면은.(예. 풍선 하면은.)

105023 #1 풍선이 그 길이가.(풍선이 그 길이가.)



105023 @ 예.(예.)

105023 #1 스물다섯 자 짜리 배도 있고 또 스물 자 짜리 배도 있고 배 크기를 잴 수로 따집네다.(스물다섯 자 짜리 배도 있고 또 스물 자 짜리 배도 있고 배 크기를 자 수로 따집니다.)

105023 @ 자 수로예.(자 수로요.)

105023 #1 예.(예.)

105023 #1 또 막 큰 건 서른다섯 자 짜리도 있고.(또 마구 큰 건 서른다섯 자 짜리도 있고.)

105023 @ 예.(예.)

105023 #1 또 삼대바지<sup>206)</sup>엔 딱시 혼 오십 자 스십 자도 있고.(또 ‘삼대바지’라고 다시 한 오십 자 사십 자도 있고.)

105023 @ 아, 삼대바지는 배가.(아, ‘삼대바지’는 배가.)

105023 #1 예. 삼대 자치로.(예. 삼대 자치로.)

105023 @ 예.(예.)

105023 #1 삼대바지는 돛이 세 개.(‘삼대바지’는 돛이 세 개.)

105024 @ 예. 돛은 뭘로 만드느고예.(예. 돛은 무엇으로 만드느가요.)

105024 #1 돛은 저 광목 옛날에.(돛은 저 광목 옛날에.)

105024 @ 광목으로예.(광목으로요.)

105024 #1 예. 광목으로 만들고 저 무지엔 혼 거 잇수다. 광목보단 머 무지엔 혼 것도 있어.(예. 광목으로 만들고 저 무지라고 한 것 있습니다. 광목보단 뭘 무지라고 한 것도 있어.)

105024 @ 무지마씨?(무지요?)

105024 #1 예예. 특수혼 기지라 그건.(예예. 특수한 기지야 그건.)

105024 @ 아.(아.)

105024 #1 그런 기지로 만든 돛 만드는 만들엉 허는 배 저 돛 만드는 배도 있어났수다. 광목에 물 안들이고 기지가.(그런 기지로 만든 돛 만드는 만들어서 하는 배 저 돛 만드는 배도 있었습니다. 광목에 물 안들이고 천이.)

105024 #4 흰 차해났수다.(흰 채했습니다.)

105024 #1 광목보다는 좀 든든해났수다. 뚜껍고 무지엔 헨 그와 ㄴ짜.(광목보다는 좀 단단했습니다. 두껍고 무지라고 해서 그와 같이.)

105024 @ 아, 광목은 옛날에 무명 만든 걸로 저기 해났수과? 아니면은.(아, 광목은 옛날에 무명 만든 걸로 저기 했습니까? 아니면.)

105024 #1 무명으로 좀 행 아녀고 광목으로 이 많이 헤수다.(무명으로 좀 해서 얇고 광목으로 이 많이 했습니다.)

105024 @ 예. 광목은 기계에서 나온 거 광목 아닛과?(예. 광목은 기계에서 나온 거 광목 아닙니까?)

---

206) ‘삼대바지’는 제보자가 돛대를 세 개 세운 배로 삼대선(三대船)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다.

105024 #1 예. 돛 천 돛 천예.(예. 돛 천 돛 천요.)

105024 @ 아.(아.)

105024 #4 화가<sup>207)</sup> 너분 거고 미녕이렌 혼 거는 짝고.(‘화가’ 넓은 거고 무명이라고 한 거는 짝고.)

105024 @ 노는? 노는 안 써나신가마씨?(노는? 노는 안 썼습니까?)

105024 #1 무사마씨 뉘 세 노 세 씨 봐야 됩니다.(왜요 노 세 노 세 씨 놓아야 됩니다.)

105024 @ 경 허난에 이물 이사공아 저물 저사공아.(그러니까 이물 이사공아 저물 저사공아.)

105024 #1 예게.(예.)

105024 @ 아, 고물 고사공아, 그런 말이 이게.(아, 고물 고사공아, 그런 말이 이게.)

105024 #1 예예. 경 허난 이제 브름 자근에 돛을 이용 못 할 땐.(예예. 그러니까 이제 바람 자서 돛을 이용 못 할 땐.)

105024 @ 예.(예.)

105024 #1 뉘 뉘 세 개나 봐근에 세 군데라숫게.(노 노 세 개나 봐서 세 군데였습니다.)

105024 @ 아.(아.)

105024 #1 세 군데 봐근에 젓어근에 배가 이동을 하는 거라.(세 군데 봐서 저어서 배가 이동을 하는 거야.)

105024 @ 배가 나가근에, 게민 배를 움직이지 안 허게 딱 고정 이 고정시경 허젠 허민은.(배가 나가서, 그러면 배를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 이 고정시켜서 하려고 하면.)

105024 #1 닷 닷 .(닷 닷.)

105024 @ 닷을 내려야 뉘큰게예.(닷을 내려야 되겠네요.)

105024 #1 예. 쉼로 만든 닷이 잇엇수다 지금.(예. 쇠로 만든 닷이 있습니다 지금.)

105024 @ 예. 쉼로도 허고 돌로도 뉘.(예. 쇠로도 하고 돌로도 된.)

105024 #1 돌로 허는 건 보통으로 저 돌로 허면 약해근에.(돌로 하는 건 보통으로 저 돌로 하면 약해서.)

105024 @ 들이쳐.(들이뜨려.)

105024 #1 땅에 부뜨질 못 헤여.(땅에 붙지를 못 해.)

105024 @ 아.(아.)

105024 #1 게 배가 끌어내려 브람에.(그럼 배가 끌어내려 바람에.)

105024 @ 으.(으.)

105024 #1 겐데 쉼로 헛 것은 딱 박아지민예.(그런데 쇠로 한 것은 딱 박혀지면요.)

105024 @ 박아저근에.(박혀져서.)

105024 #1 박아지는 힘으로.(박혀지는 힘으로.)

105024 @ 게민 그 쉼예. 무끄는 거.(그러면 그 쇠를요 묶는 거.)

---

207) ‘화’는 제보자가 ‘하바’(はば)를 말하는데 일본어로 너비의 폭(幅)을 의미하는 말이다.

105024 #1 예.(예.)

105024 @ 췌에.(쇠에.)

105024 #1 옛날에는 산디짚.(옛날에는 밭벚짚.)

105024 @ 산디짚?(밭벚짚?)

105024 #1 옛날에 산디짚으로 이제 닻을 만들기도 하고 그 후에 신사라<sup>208</sup>.(옛날에 밭벚짚으로 이제 닻을 만들기도 하고 그 후에 ‘신사라’.)

105024 @ 신사라?(‘신사라’?)

105024 #1 예. 신사락이엔 혼 거 잇었수다.(예. ‘신사라’라고 한 거 있었습니다.)

105024 @ 예.(예.)

105024 #1 신사라로 이제 저 닻을 만들아근에 저 로프엔 혼 거.(‘신사라’로 이제 저 닻을 만들어서 저 로프라고 한 거.)

105024 @ 예. 지금은 로프엔 혼 거가 잇고예. 처음에는.(예. 지금은 로프라고 한 것이 잇고요. 처음에는.)

105024 #1 칩도 헤낫수다.(칩도 했습니다.)

105024 @ 예. 칩.(예. 칩.)

105024 #1 예. 칩도 저 이제 곳<sup>209</sup>에 가근에 어디 강 뭐 혼 사름덜은 이 곳에 강제에 잇는 사름들은.(예. 칩도 저 이제 제주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한 사름들은 이 제주에 가서 계 잇는 사름들은.)

105024 @ 으.(으.)

105024 #1 곳에 강 칩 구해당.(제주에 가서 칩 구해다가.)

105024 @ 칩 구해다근에.(칩 구해다가.)

105024 #1 칩 칩으로도 이제 닻을 멘들어낫수다.(칩 칩으로도 이제 닻을 만들었습니다.)

105024 @ 아, 새는 빨리 영 끈어져 부니까예?(아, 띠는 빨리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요?)

105024 #1 예예. 새 좀 칩보다는.(예예. 새 좀 칩보다는.)

105024 @ 남총냥이넌 현 말 들어봐난?(종려나무라고 한 말 들어봤어?)

105024 #1 남총도 마찬가지로다 남총남도 여기 짝끔씩 잇어낫수다.(종려나무도 마찬가지로잡니다 종려나무도 여기 조금씩 있었습니다.)

105024 @ 짝끔씩 잇어낫수파?(조끔씩 있었습니까?)

105024 #1 예.(예.)

105024 @ 그거가 막 질기지 안읍니까?(그거가 매우 질기지 않습니까?)

105024 #1 예. 질깁주마씨 그게 신사락보다 더 질깁주.(예. 질기지요 그게 ‘신사라’보다 더 질기죠.)

105024 @ 신사락보다 더 질겨근에예. 근데 낭이 낭이 혼허질 아니 해네예.(‘신사라’보

208) ‘신사라’는 신서란(新西蘭)으로 집 울타리 안에 심어서 긴 잎을 두들겨 꼬아 밧줄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식물을 말한다.

209) ‘곳’은 제보자가 제주 본섬을 말한다.

다 더 질겨서요. 그런데 나무가 나무가 흔하질 않아서요.)

105024 #1 예. 질기지 아니 해납주마씨.(예. 질기지 않았지요.)

105024 #4 거 제 배 해난 사름이 엇어수다. 흔허게.(거 제 배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흔하게.)

105024 @ 거 돛대의 부분명칭에 데해 곁아봅서 앞에 잇는 거.(거 돛대의 부분명칭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앞에 잇는 거.)

105024 #1 앞에 잇는 건 야웃대<sup>210</sup>.(앞에 잇는 건 ‘야웃대’.)

105024 @ 야웃대?(‘야웃대’?)

105024 #1 또 이 뒤에 잇는 큰 건 허릿대고<sup>211</sup>.(또 이 뒤에 잇는 큰 건 ‘허릿대’고.)

105024 @ 허릿대, 뒤에 큰 거는?(‘허릿대’, 뒤에 큰 거는?)

105024 #1 야웃대.(‘야웃대’.)

105024 @ 예. 그 다음 돛이 그거고.(예. 그 다음 돛이 그거고.)

105024 #1 예.(예.)

105024 @ 돛 배 전체 앞머리는 뭐엔 험니까?(돛 배 전체 앞머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05024 #1 이물.(이물.)

105024 @ 이물.(이물.)

105024 #1 뒤에는 고물.(뒤에는 고물.)

105024 @ 뒤에는 고물.(뒤에는 고물.)

105024 #1 예.(예.)

105024 @ 계난, 이물 이 사공아 저 찌기예.(그러니까, 이물 이 사공아 저 저기요.)

105024 #1 예예. 이물에 잇인 사름은 이사공 저 이사공이고.(예예. 이물에 잇는 사름은 이사공 저 이사공이고.)

105024 @ 예.(예.)

105024 #1 고물에 잇인 사름은 고사공이고 어.(고물에 잇는 사름은 고사공이고 어.)

105024 @ 그 다음 노는?(그 다음 노는?)

105024 #1 예?(예?)

105024 @ 노는?(노는?)

105024 #1 하네가 잇고 젓걸이<sup>212</sup>가 잇엇수다게.(‘하노’가 잇고 돛줄이 잇었습니다.)

105024 @ 하네 허고.(하노 하고.)

105024 #1 예.(예.)

105024 @ 젓걸이 허고.(돛줄 하고.)

105024 #1 예. 젓걸이에.(예. 돛줄이요.)

105024 @ 하네는?(하노는?)

105024 #1 하네는 바로 치 치 엠에 잇는 걸 하네엔 흐고.(‘하노’는 바로 키 키 옆에

210) ‘야웃대’는 제보자가 낚시거루의 앞부분에 세워진 돛대를 이르는 말이다.

211) ‘허릿대’는 낚시거루에 세운 돛대 가운데 가장 큰 돛대를 말한다.

212) ‘젓걸이’는 제보자가 ‘젓네편’을 말하는데 거룻배의 양옆에서 젓는 노를 말한다.

있는 걸 ‘하노’라고 하고.)

105024 @ 하네엔 흐고예.(‘하노’라고 하고요.)

105024 #1 양쪽.(양쪽.)

105024 @ 예.(예.)

105024 #1 파락<sup>213</sup>에 잇어근에 잇는 건 이제 첫걸이엔 해낫수다.(‘파락’에 있어서 있는 건 이제 ‘첫걸이’라고 했습니다.)

105024 @ 그 다음엔 앓는 거. 이 경 해도 저기 이 판테기에 앓아근에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닛과예?(그 다음엔 앓는 거. 이 그렇게 해도 저기 이 판테기에 앓아서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닛니까요?)

105024 #1 판테기에 앓질 아녀고 저 그 후다<sup>214</sup>덜, 감빵<sup>215</sup>덜이 잇어수다 후다덜.(판테기에 앓지를 앓고 저 그 ‘후다’들, ‘감빵’들이 있었습니다 ‘후다’들.)

105024 #4 배 파락에 앓아낫수다게. 켜디 그 멘길아나진 안해수다 배는, 우리도 그 배에 앓아낫수게마는.(배 ‘파락’에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지는 앓았습니다 배는, 우리도 그 배에 앓았습니다마는.)

105024 #1 이 저 배 네 엇일 때는.(이 저 배 노 없을 때는.)

105024 @ 이름 이름.(이름 이름.)

105024 #1 다 사야 땡주마썸. 앓진 안 합니다.(다 서야 되지요, 앓지는 안 합니다.)

105024 @ 다 사근에예.(다 서서요.)

105024 #1 예. 노 젓젠 허문 다 사근에 노 젓는거주.(예. 노 저으려고 하면 다 서 노 젓는 거지.)

105024 #4 예.(예.)

105024 #1 노 방이 잇어 노 방이.(노 방이 있어 노 방이.)

105024 @ 노 방이?(노 방이?)

105024 #1 예. 노 방이라는 건 뉘에 영 길이 잇어 거기에 끈 끈 걸리는 몽클 잇어 몽클, 몽클에 걸여근에 밑에 노방에 해근에.(예. 노 방이라는 건 노에 이렇게 길이 잇어 거기에 끈 끈 걸리는 쟁깃술이 잇어 쟁깃술, 쟁깃술에 걸어서 밑에 노방에 해서.)

105024 @ 예.(예.)

105024 #1 거에 걸렁 그거에 기준이 웬 그걸로 맞게끔 해근에 밀엇당 땡겇당 험주마썸, 뉘쫘이 잇어 뉘쫘.(그것에 걸려서 그거에 기준이 되어 그걸로 맞게끔 해서 밀었다가 당졌다가 하지요, 뉘쫘이 잇어 뉘쫘.)

105024 @ 예. 뉘쫘예.(예. 뉘쫘요.)

105024 #1 그 고망에 끼와근에.(그 구멍에 끼워서요.)

105024 @ 구멍에 끼와근에.(구멍에 끼워서.)

---

213) ‘파락’은 거루 따위 배의 양옆 위쪽에 바깥으로 돌려 붙인 나무를 말한다.

214) ‘후다’는 제보자가 일본어 ‘ふた’의 뚜껑 또는 용기나 상자 등의 입구·구멍을 덮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215) ‘감빵’은 제보자가 일본어 갑판(甲板) (コウハン)을 의미하는 말로 함선의 상부에 있어서 나무 혹은 철판을 깔아 놓은 넓고 평평한 마루를 말한다.

105024 #1 예예. 그 고망으로 갖다 왔다 허고.(예예. 그 구멍으로 갔다 왔다 하고.)

105024 @ 예. 경 헉고.(예. 그렇게 하고.)

105024 #1 넷 단지.(노 단지.)

105024 @ 넷 단지마씨?(노 단지요?)

105024 #1 예. 네 끼우는 거 이제 네에도 나무떼기를 부칩니다.(예. 노 끼우는 거 이제 노에도 나무떼기를 붙입니다.)

105024 @ 예.(예.)

105024 #1 단지를 헐라고 허면, 고망 파는디 고망 파는 게 고망 파는 그것이 별도로 으맴게 삼각형으로 으만이 해근에 네에 부찌는 거라.(단지를 하려고 하면, 구멍 파는데 구멍 파는 게 구멍 파는 그것이 별도로 요만큼 삼각형으로 요만큼 해서 노105024 @ 예.(예.)에 붙이는 거야.)

105024 #1 게 넷 단지엔 해서 넷 단지, 든든헌 나무로 달아지지 않게시리 든든헌 나무로예. 네축 아, 넷입<sup>216)</sup> 넷입, 예. 물에 들어가는 건 넷 입.(그럼 노 단지라고 해서 노 단지, 든든한 나무로 달아지지 않게끔 든든한 나무로요. 놏쫓 아, ‘노입’ ‘노입’, 예. 물에 들어가는 건 ‘노입’.)

105024 @ 넷입 아.(‘노입’ 아.)

105024 #1 아, 멍얼 잇는 건 끈 돌리는 건 몽클이엔 허고양.(아, 멍얼 잇는 건 끈 돌리는 건 몽클이엔 허고양.(아, 망울 잇는 건 끈 돌리는 건 쟁깃술이라고 하고요.)

105024 @ 예.(예.)

105024 #1 거 짹짹하게 나온 건 으 이제 딱시 네 멋 들어가는 건 넷 단지 네 단지, 네 네 단지.(거 우쭉하게 나온 건 오 이제 다시 노 무엇 들어가는 건 노 단지 노 단지, 노 노 단지.)

105024 @ 네 단지.(노 단지.)

105024 #1 노 단지 노 단지 노 단집주. 노 노.(노 단지 노 단지 노 단지지요. 노 노.)

105024 @ 아 예.(아 예.)

105024 #1 노엔 헤십주게.(노라고 했지요.)

105024 @ 예. 노 단지 허고, 게문 키도 방향을 하는 건 뭇로 헤신고예?(예. 노 단지 하고, 그러면 키도 방향을 하는 건 무엇으로 했는가요?)

105024 #1 으, 노로도 방향을 조정 험주마씨게.(오, 노로도 방향을 조정합지요.)

105024 @ 노로도 방향을 조정헉고예.(노로도 방향을 조정하고요.)

105024 #1 예. 겐디 하네는.(예. 그런데 ‘하노’는.)

105024 @ 예.(예.)

105024 #1 방향 조정헉기가 쉬운데 젓걸이는.(방향 조정하기가 쉬운데 ‘젓걸이’는.)

105024 @ 하네는.(‘하노’는.)

105024 #1 방향 조정헉기가 힘들어.(방향 조정하기가 힘들어.)

105024 @ 하네는.(‘하노’는.)

---

216) ‘노입’은 제보자가 놏쫓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105024 #1 예. 양쪽에 이제 걸러부니까. 하네는 걸리는 데가 었는데 거 양쪽구역이 었는디 젓걸이는 구역이 있다 거 파락에.(예. 양쪽에 이제 걸러버리니까. ‘하노’는 걸리는 데가 없는데 거 양쪽구역이 없는데 ‘젓걸이’는 구역이 있다 거 ‘파락’에.)

105024 @ 예.(예.)

105024 #1 거 파락에.(거 ‘파락’에.)

105024 @ 예.(예.)

105024 #1 파락에 걸러근에 좀 저 조정을예. 판을 췌는 멀리서 영 그걸 움직여줘야 그 방향이 조정되는데.(‘파락’에 걸러서 좀 저 조정을요. 판을 조이는 멀리서 이렇게 그걸 움직여줘야 그 방향이 조정되는데.)

105024 @ 으.(으.)

105024 #1 저 젓걸이는 조정허기가 힘들어마씨.(저 ‘젓걸이’는 조정허기가 힘들어요.)

105024 @ 그 배에 허민은 물이 들어올 거 아닛과예?(그 배에 하면은 물이 들어 올 거 아닛니까요?)

105024 #1 예.(예.)

105024 @ 그 물을 막 거려놔야 될 거 아닛가예?(그 물을 마구 떠놔야 될 거 아닛니까요?)

105024 #1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5024 @ 배 물 안 들어갑니까?(배 물 안 들어갑니까?)

105024 #1 물 안 들어갑니다게.(물 안 들어갑니다.)

105024 @ 거 물 안 들어가게 어떻 만들아신고예?(거 물 안 들어가게 어떻게 만들었는가요?)

105024 #1 양, 아 저 나무와 나무끼리.(예. 아 저 나무와 나무끼리.)

105024 @ 예.(예.)

105024 #1 이게 다 접촉시기면은.(이게 다 접촉시키면.)

105024 @ 접촉시경예. 그 트멍에.(접촉시켜서요 그 틈에.)

105024 #1 나무가 또 물이 차가면 더 힘이 저 불어나근에.(나무가 또 물이 차가면 더 힘이 저 불어나서.)

105024 @ 불어나그네예.(불어나서.)

105024 #1 더 저 머 흐거든 고망이 안 생기는 거라.(더 저 뭐 하거든 구멍이 안 생기는 거야.)

105024 #4 뽕끼 메겨수게<sup>217)</sup>게 칠을.(페인트 ‘메겼습니다’ 칠을.)

105024 @ 아니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범선에예.(아니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범선에요.)

105024 #1 아니 게메.(아니 글썄.)

105024 #4 칠 메겨근에 물 안 들어가게.(칠 ‘메겨’서 물 안 들어가게.)

105024 #1 경 혼 칸에 알로 칠 메겨부리면 더 이제.(그러한 칸에 아래로 칠 ‘메겨’버리면 더 이제.)

---

217) ‘메기다’는 표준어 ‘칠하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105024 @ 그 옛날에도 뽕끼 칠 해신가마씨?(그 옛날에도 페인트 칠 했는가요?)

105024 #4 칠 칠.(칠 칠.)

105024 #1 칠이엔 혼 거 칠.(칠이라고 한 거 칠.)

105024 @ 칠?(칠?)

105024 #1 예.(예.)

105024 #4 예.(예.)

105024 #1 지금보다 좀 약헌 겹주. 지금보다.(지금보다 좀 약한 거지요. 지금보다.)

105024 @ 칠은 어떻 허는 칠인고예?(칠은 어떻게 하는 칠인가요?)

105024 #4 칠이란 꺼멍혼 거.(칠이란 까마한 거.)

105024 #1 페인트우다 페인트 종류우다게.(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종류입니다.)

105024 @ 화학 저기 사다근에 화학.(화학 저기 사다가 화학.)

105024 #1 페인트 종류데 ㅇ 옛날에 ㄹ뜨면은 이제 기름.(페인트 종류데 오 옛날에 같으면 이제 기름.)

105024 @ 예.(예.)

105024 #1 기름에서 조금 강흔 거 강흔 부분이란 모양이라. 예. 칠이란 게예.(기름에서 조금 강한 거 강한 부분이란 모양이야. 예. 칠이란 게요.)

105024 @ 아, 기름 뭐 동백기름이라든가 그런 거?(아, 기름 뭐 동백기름이라든가 그런 거?)

105024 #1 아니 아니 이 저 이 저 나오는 거 석유종류에서.(아니 아니 이 저 이 저 나오는 거 석유종류에서.)

105024 #4 석유주유소.(석유주유소.)

105024 @ 아.(아.)

105024 #1 게 아주 옛날에는 이제 웨정 이후에는 기름이 흔하게 나오기 전에는 그 칠이 엇어실 겨우다.(것이 아주 옛날에는 이제 왜정 이후에는 기름이 흔하게 나오기 전에는 그 칠이 없었을 겁니다.)

105024 @ 게민 배가 엇어시쿠다. 그 옛날에예.(그러면 배가 없었겠습니까. 그 옛날에요.)

105024 #1 예?(예?)

105024 @ 배가 엇어시크라.(배가 없었겠어.)

105024 #1 아, 배가 잇어도.(아, 배가 있어도.)

105024 @ 막 큰 배나 뭐 뭐 기술적으로 안 만들면은, 아니면 테우로만.(매우 큰 배나 뭐 뭐 기술적으로 안 만들면, 아니면 페로만.)

105024 #1 엇수다 배가 나오기 시작흔 디는 한 천구백년도 부터 배가.(없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한 데는 한 천구백년도 부터 배가.)

105024 @ 예. 천구백년 부터.(예. 천구백년도 부터.)

105024 #1 배가 범선이 나오라십주.(배가 범선이 나왔지요.)

105024 @ 그 전이는 테우로.(그 전에는 페로.)



105024 #1 예. 저거 이제 일본사람들이 와네, 저 배를 이제 보급 시켜실 거우다.(예. 저거 이제 일본사람들이 와서, 저 배를 이제 보급 시켰을 겁니다.)

105024 @ 우도에도 배 만드는 사람은 있어신가마씨?('우도'에도 배 만드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105024 #1 예. 목수가 이제 혼 열 사람 이상 있어수다.(예. 목수가 이제 한 열 사람 이상 있었습니다.)

105024 @ 아.(아.)

105024 #1 육십년 대에는, 육십년 대에는 열 사람 돼여.(육십년 대에는, 육십년 대에는 열 사람 돼.)

105024 @ 계민 냥을 해다근에예.(그러면 나무를 해다가요.)

105024 #1 예. 나무 굿이<sup>218)</sup> 육지 강 사다근에 지금 배를 지어근에 영업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었고.(예. 나무 제주에 육지 가서 사다가 지금 배를 지어거 영업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었고.)

105024 @ 예.(예.)

105024 #1 배를 지어주는 사람도 있어나고예.(배를 지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105024 @ 예.(예.)

## 6. 의생활

106001 @ 삼촌 그 옷감 옛날에 옷 만들어, 옛날엔 삼촌 결혼할 때 옷은 만들영 입지 안 해수파?(삼촌 그 옷감 옛날에 옷 만들어, 옛날에는 삼촌 결혼할 때 옷은 만들어서 입지 않았습니까?)

106001 #4 아니 저 우리냥으로 만들앙 입는 건, 그 그 옛날엔 멩지로 혼 불 행 입어나고 결혼할 때.(아니 저 우리대로 만들어서 입는 건, 그 그 옛날엔 명주로 한 벌 해서 입었고 결혼할 때.)

106001 @ 예.(예.)

106001 #4 근디 나머지는 이디 이제는 옷도 안 만들고.(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이제 옷도 안 만들고.)

106001 #1 돈 줘 사.(돈 줘서 사.)

106001 #4 큰 섬에 강 다 옷집이 강.(큰 섬에 가서 다 옷집에 가서.)

106001 #1 돈 줘 사마썸.(돈 줘서 사요.)

106001 @ 예.(예.)

106001 #4 그 옛날엔.(그 옛날엔.)

106001 @ 그 옛날에는.(그 옛날에는.)

106001 #4 저 그 옛날에는 멩지로 그 신랑집이서 던지 신부집이서 든지.(저 그 옛날

---

218) '굿'은 제보자가 제주 본섬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에는 멈추로 그 신랑집에서 던지 신부집에서 던지.)

106001 @ 잔치허젠 허민 만들아 살 거난예예.(잔치하려고 하면 만들었을 거니까요.)

106001 #1 한복 한복.(한복 한복.)

106001 @ 예.(예.)

106001 #4 만들아 입어.(만들어 입어.)

106001 @ 만들아 입어예.(만들어 입어요.)

106001 #4 만들아 입어사주게.(만들어 입어야지.)

106001 @ 삼촌 생각나는 옷감 잊이문 곁아줍서.(삼촌 생각나는 옷감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06001 #4 예.(예.)

106001 @ 옛날에 무슨 옷감, 옛날에 옷감이엔 허면은.(옛날에 무슨 옷감, 옛날에 옷감이라고 하면.)

106001 #1 옷감.(옷감.)

106001 #4 뭐 양단 뭐.(뭐 양단 뭐.)

106001 @ 예. 양단이여 뭐.(예. 양단이다 뭐.)

106001 #4 예.(예.)

106001 #1 양단은 뭐.(양단은 뭐.)

106001 #4 양단은.(양단은.)

106001 #1 양단은 오십년도 후에고.(양단은 오십년도 후의고.)

106001 @ 뽀뽀린?(포플린?)

106001 #1 뽀뽀린 뽀뽀린인가? 이제.(포플린 포플린인가? 이제.)

106001 @ 응응.(응응.)

106001 #4 이제 양단이 아니주만은.(이제 양단이 아니지만.)

106001 @ 옛날에는.(옛날에는.)

106001 #1 비로도<sup>219)</sup> 양단.(비로드 양단.)

106001 @ 비로도.(비로드.)

106001 #1 양단.(양단.)

106001 @ 예. 양단.(예. 양단.)

106001 #4 비로도도 저 험서.(비로도도 저 하고 있지.)

106001 @ 비로도도 잊어나고.(비로드 잊었고.)

106001 #4 예.(예.)

106001 #1 저 뽀뽀린.(저 포플린.)

106001 #4 뽀뽀린가 뭐파?(포플린이 무엇입니까?)

106001 #1 뽀뽀린 저 잊어서게.(포플린 저 있었어.)

106001 @ 예.(예.)

106001 #4 뽀뽀린?(포플린?)

---

219) ‘비로드’는 ‘비로도(veludo)’로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돌게 짠 벨벳으로 비단의 한 종류다.

106001 @ 예.(예.)  
 106001 #4 몰라 나 양단치메하고.(몰라 나 양단치마하고.)  
 106001 #1 뽀뽀린 하고 저.(포플린 하고 저.)  
 106001 #4 그 무신 저.(그 무슨 저.)  
 106001 #1 기지엔 현 거 잇어나서.(기지라고 한 거 있었어.)  
 106001 @ 예.(예.)  
 106001 #4 거시기 그 무시것꼬?(거시기 그 무엇이냐?)  
 106001 @ 집이서 입는 옷은?(집에서 입는 옷은?)  
 106001 #4 양?(예?)  
 106001 @ 집이서 입는 옷은?(집에서 입는 옷은?)  
 106001 #4 아 집이서 입는 옷은? 뭐 그냥 뭐 멘들앙 입고.(아 집에서 입는 옷은? 뭐 그냥 뭐 만들어서 입고.)  
 106001 @ 멘들앙 입고.(만들어서 입고.)  
 106001 #4 사당 입고.(사다가 입고.)  
 106001 @ 그담은?(그다음에는?)  
 106001 #4 으.(어.)  
 106001 @ 멘들앙 입젠 허면은.(만들어서 입으려고 하고.)  
 106001 #4 으.(어.)  
 106001 @ 광목천 해당은예 예. 저기.(광목천 해다가 예. 저기.)  
 106001 #4 만들앙은 미싱<sup>220)</sup> 하나 상온에 이넉냥으로 가정에 쓰는 옷도.(만들어서는 재봉틀 하나 사서 이넉대로 가정에 쓰는 옷도.)  
 106001 @ 예.(예.)  
 106001 #4 잇고 허주.(있고 하지.)  
 106001 @ 예예.(예예.)  
 106001 #4 또 입는 옷은.(또 입는 옷은.)  
 106001 @ 몸빼 ㄱ튼 것도 그냥.(몸빼 같은 것도 그냥.)  
 106001 #4 몸빼<sup>221)</sup> 몸빼도 만들앙 입고.(일 바지 몸빼도 만들어서 입고.)  
 106001 @ 예.(예.)  
 106001 #4 적삼도 만들앙 입고.(적삼도 만들어서 입고.)  
 106001 @ 적삼도예.(적삼도요.)  
 106001 #4 나머지는 이제 저 큰 섬에 강 상점에 강 시<sup>222)</sup>에 강 사당 했수다.(나머지는 이제 저 큰 섬에 가서 상점에 가서 제주시에 가서 사다가 했습니다.)  
 106001 @ 예.(예.)  
 106001 #1 육십년 대 이후에는 아니 이 저.(육십년 대 이후에는 아니 이 저.)  
 106001 @ 예. 사당은예.(예. 사다가.)

220) '미싱'은 영어 (mishin)으로 바느질을 하는 기계로 우리말 재봉틀을 말한다.

221) '몸빼'는 일본말 (monpe)인데 일바지로 순화되었다.

222) '시'는 제주도행정지역으로 제주시 동지역을 말한다.

106001 #1 저 장에 강 많이 사당 해놔어.(저 장에 가서 많이 사다가 했어.)  
 106001 #4 예.(예.)  
 106001 @ 계민 이 디서 만드는 옷감은.(그러면 이 데서 만드는 옷감은.)  
 106001 #4 예.(예.)  
 106001 @ 광목천 해당은에.(광목천 해다가.)  
 106001 #4 예.(예.)  
 106001 @ 예. 물들영은에.(예. 물들여서.)  
 106001 #4 예.(예.)  
 106001 @ 응.(응.)  
 106001 #4 몸빼도 만들앙 입고 또 저 일허는 옷.(몸빼도 만들어서 입고 또 저 일하는 옷.)  
 106001 @ 일허는 옷도.(일하는 옷도.)  
 106001 #4 남저 분덜 옷도 만들앙.(남자 분들 옷도 만들어서.)  
 106001 @ 예.(예.)  
 106001 #4 입곡해놔수다게.(입고했습니다.)  
 106001 @ 계민 물도 감물도 여기 저기 많이 들여놔수파?(그러면 물도 감물도 여기 저기 많이 들었습니까?)  
 106001 #4 예예. 감 사당 곳<sup>223)</sup> 강 감 사다근에 남저 분 입는 옷이나 여자 입는 옷이나.(예예. 감 사다가 제주에 가서 감 사다가 남자 분 입는 옷이나 여자 입는 옷이나.)  
 106001 @ 물 들여사.(물 들여야.)  
 106001 #4 뚝 부뜨지 말게 헐라고.(뚝 붙지 말게 하려고.)  
 106001 #1 예. 흔허게 입어나진 안 해수다.(예. 흔히 입지는 않았습시다.)  
 106001 #4 그걸로 해놔수다게.(그걸로 했습니다.)  
 106001 @ 예.(예.)  
 106001 #1 예. 흔허게 멘들아 지진 안 헛수다게.(예. 흔히 만들어지지는 않았습시다.)  
 106001 #4 것도 아무나 못 입는 생이라.(것도 아무나 못 입는 모양이야.)  
 106001 @ 예.(예.)  
 106001 #4 부젓집이 사름만.(부젓집에 사람만.)  
 106001 #1 부젓집이 사름들만 허곡.(부젓집에 사람들만 하고.)  
 106001 @ 예.(예.)  
 106001 #4 가난헌 집이 사름은.(가난한 집에 사름은.)  
 106001 #1 호사하는 집이 사름이나 헛주.(호사하는 집에 사름이나 헛지.)  
 106001 #4 아무나 못 입읍니다.(아무나 못 입읍니다.)  
 106001 #1 난 이 사름 무신 감물 들인 거 안 입어봤수다.(난 이 사람 무슨 감물 들인 거 안 입어봤습시다.)

223) ‘곳’은 우도에서 제주 본섬을 지칭한다.

106001 #4 예. 우리시절엔 흐끔 뜸 해놔수다게.(예. 우리시절에는 조금 뜸 했습니다.)  
 106001 @ 예.(예.)  
 106001 #4 거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가 이제 그런 감옷을 많이 스윽했주.(그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가 이제 그런 감옷을 많이 사용했지.)  
 106001 @ 예.(예.)  
 106001 #4 우리 세대에는.(우리 세대에는.)  
 106001 #1 예.(예.)  
 106001 #4 경 아녜수다.(그렇지 않았습시다.)  
 106001 @ 그 삼촌네 어머니네 세대에는 길쌈도 해놔수꽈?(그 삼촌네 어머니네 세대에는 길쌈도 했습니까?)  
 106001 #4 아.(아.)  
 106001 @ 베틀 놔기네.(베틀 놓아서.)  
 106001 #4 그거 헐 줄 몰릅니다.(그거 할 줄 모릅니다.)  
 106001 #1 그때나.(그때나.)  
 106001 #4 흐는 사름 엇입니다.(하는 사람 없습니다.)  
 106001 #1 여기서 길쌈흐는 사름이 엇고.(여기서 길쌈하는 사람이 없고.)  
 106001 @ 응.(응.)  
 106001 #4 욱지나 그런 사름 욱지나.(욕지나 그런 사람 욱지나.)  
 106001 #1 우리 어린 땐 거 욱지서 저 무슨 볼목리<sup>224)</sup> 무신 어디고 저 정윳<sup>225)</sup> 온 할망.(우리 어린 땐 거 욱지서 저 무슨 ‘보목리’ 무슨 어디고 저 ‘정의’ 온 할머니.)  
 106001 @ 예.(예.)  
 106001 #1 우리 혼 대여섯 예실곱 설 때<sup>7</sup>지 그 할망이 길쌈해놔어.(우리 한 대여섯 예닐곱 살 때까지 그 할머니가 길쌈했어.)  
 106001 @ 아.(아.)  
 106001 #1 요 요 동네서.(요 요 동네서.)  
 106001 @ 베틀 놔기네예.(베틀 놓아서요.)  
 106001 #1 저 베틀인가.(저 베틀인가.)  
 106001 @ 예.(예.)  
 106001 #1 저 멩진가 무명인가 짜놔어 그 할망.(저 명주인가 무명인가 짚었어 그 할머니.)  
 106001 @ 예. 멩지예.(예. 명주요.)  
 106001 #1 무명.(무명.)  
 106001 @ 예. 멩지도 흐곡 무명도 하고예.(예. 명주하고 무명도 하고요.)  
 106001 #1 예. 그 할망이.(예. 그 할머니가.)  
 106001 #4 거 이 섬에선 안 해놔수다게.(거 이 섬에서는 안했습니다.)

224) ‘보목리’는 서귀포시 행정동 중에서 한 지역이다.

225) ‘정의’는 서귀포시(西歸浦市)를 둘로 나눠 서(西)는 대정현(大靜縣), 동(東)은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었을 때의 동쪽을 말한다.

106001 @ 이 섬에선 안 허곡예.(이 섬에서는 앓고요.)  
 106001 #4 저 큰 섬에서 헛주.(저 큰 섬에서 헛지.)  
 106001 #1 육지서 곳에서 곳에서 여기 시집은 사름이난 헛주.(육지서 제주에서 제주에서 여기 시집은 사름이니까 헛지.)  
 106001 @ 예.(예.)  
 106001 #1 다른 사름은 안 헛낫주.(다른 사름은 안 헛지.)  
 106001 @ 예.(예.)  
 106001 #4 아념니께 헛 줄 몰르고.(안 합니다 할 줄 모르고.)  
 106001 #1 베틀 헛기네 아녀고.(베틀 해서 앓고.)  
 106001 @ 삼촌 이 옷감은 광목, 무명.(삼촌 이 옷감은 광목, 무명.)  
 106001 #4 예.(예.)  
 106001 @ 멍지.(멍주.)  
 106001 #4 멍지도 스용허건디가 멍 년 돼지 아녀.(멍주도 사용한지가 몇 년 되지 앓아.)  
 106001 @ 삼촌 이 옷감 아는 거.(삼촌 이 옷감 아는 거.)  
 106001 #4 게난 멍지.(그러니까 멍주.)  
 106001 @ 멍지.(멍주.)  
 106001 #4 또 광목.(또 광목.)  
 106001 @ 광목.(광목.)  
 106001 #4 미녕.(무명.)  
 106001 @ 미녕.(무명.)  
 106001 #4 예. 그거 세 가지뿐이우다게.(예. 그거 세 가지뿐입니다.)  
 106001 @ 예. 그거.(예. 그거.)  
 106001 #4 예.(예.)  
 106001 @ 예. 경예.(예. 그렇게요.)

## 멍주

106002 @ 멍주 만드는 거는 여기는 거 누에도 아녀곡예.(멍주 만드는 거는 여기는 거 누에도 앓고요.)  
 106002 #4 예.(예.)  
 106002 @ 헛 수가.(할 수가.)  
 106002 #4 멍지는 이제 그.(멍주는 이제 그.)  
 106002 #1 멍지는 이제 치메저고리를 아니 멘들아 그 남자덜 조선옷.(멍주는 이제 치마저고리를 아니 만들어 그 남자들 조선옷.)  
 106002 @ 예.(예.)  
 106002 #1 한복 한복 입을 때.(한복 한복 입을 때.)

106002 #4 부제 부제할망덜은.(부자 부자할머니들은.)  
 106002 #1 으.(오.)  
 106002 #4 헤어났수게마는.(했습니다마는.)  
 106002 #1 것도 호상.(것도 수의.)  
 106002 #4 거 멩지옷 입는 사름은 부잣집입주.(거 명주옷 입는 사람은 부잣집이지.)  
 106002 #1 호상용으로.(수의용으로.)  
 106002 #4 아무나 입지.(아무나 입지.)  
 106002 @ 호상예.(수의요.)  
 106002 #1 예. 호상.(예. 수의.)  
 106002 #4 호상 옷은.(수의 옷은.)  
 106002 @ 호상 옷으로예.(수의로요.)  
 106002 #4 예. 일반으로 엇은 사름 없이.(예. 일반으로 없는 사람 없이.)  
 106002 @ 예.(예.)  
 106002 #4 허지만은.(하지만은.)  
 106002 @ 예.(예.)  
 106002 #1 나 생기는 이 사름 어멍 죽을 덕에 뭐허젠 호상 멩지 낫당 나 조선옷 멘  
 들어 쥘.(나 생기는 이 사람 어머니 죽을 적에 뭐하려고 호상 명주 낫다가 나 조선옷 만  
 들어 쥘어.)  
 106002 @ 예.(예.)  
 106002 #1 경 헨 입어난 적 잇수다.(그렇게 해서 입었던 적 있습니다.)  
 106002 @ 예. 멩지로예.(예. 명주로요.)  
 106002 #1 예. 걸 춤 술아불지 말아야 쥘 건디 술아변에 헨디.(예. 걸 참 살라버리지  
 말아야 쥘 건데 살라버려서 한데.)  
 106002 @ 예.(예.)  
 106002 #1 나가 건디 놔으. 옷 한복을 빌언 장계가낫수다.(나가 그런데 남의 옷 한복  
 을 빌어서 장가갔었습니다.)  
 106002 @ 예.(예.)  
 106002 #1 가난헤연.(가난해서.)  
 106002 @ 예예.(예예.)  
 106002 #1 경 헨 완 보난 이 사름이 보난에 한복이 엇거든.(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한복이 없거든.)  
 106002 @ 예.(예.)  
 106002 #1 그때 우리가 세배 텅길 때거든 정초예.(그때 우리가 세배 다닐 때거든 정  
 초예.)  
 106002 @ 예.(예.)  
 106002 #1 게 세배 텅길 때 걸 입어야 쥘는 거라.(그럼 세배 다 닐때 걸 입어야 되는  
 거야.)

106002 @ 예.(예.)

106002 #1 엇이난 어멍안티 강 우는 말을 허는 거라 이만저만 우리 집 사름은, 한복 어수텐. 계문 나 호상 멩지 놔둔 거라도 가정 가렌 가정 완 거 호상.(없으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우는 말을 하는 거야 이만저만 우리 집 사름은, 한복 없습니다. 그러면 나 호상 명주 놔둔 거라도 가져서 가라고 가져서 왔어 거 호상.)

106002 #4 허허.(허허.)

106002 #1 걸로 헛는데.(걸로 했는데.)

106002 @ 아.(아.)

106002 #1 나가 걸 영원이 기념으로 놔두어야 될 건디.(내가 걸 영원히 기념으로 놔두어야 될 건데.)

106002 @ 어.(어.)

106002 #1 거 이제 나이롱 나와 가난 다 허허.(거 이제 나일론 나와 가니까 다 허허.)

106002 #4 다 뗏겨벗수게게.(다 던져버렸습니다.)

106002 #1 다 뗏겨버렸주게.(다 던져버렸지.)

106002 @ 어.(어.)

106002 #1 지금.(지금.)

106002 @ 거 삼촌이 손으로 만들어근에 안넵디가?(거 삼촌이 손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까?)

106002 #4 예.(예.)

106002 #1 어.(어.)

106002 #4 손으로.(손으로.)

106002 @ 손으로 만들앙예.(손으로 만들어서요.)

106002 #4 우리어머니가 몰라주니까.(우리어머니가 말아주니까.)

106002 @ 아.(아.)

106002 #1 몰라주니까.(말아주니까.)

106002 @ 몰라쥬예.(말아줘서요.)

106002 #1 예.(예.)

106002 #4 예. 몰라주니까.(예. 말아주니까.)

106002 @ 계난 그때 삼촌 멩지옷 만들어난예.(그러니까 그때 삼촌 명주옷 만들었는데요.)

106002 #4 어.(어.)

106002 @ 그때 순서를 혼 번 곶아쥬 봄서예.(그때 순서를 한 번 말해쥬 보십시오.)

106002 #4 어?(어?)

106002 @ 멩지가 잇다.(명주가 있다.)

106002 #1 아 멩지는 엇수다게.(아 명주는 없습니다.)

106002 @ 아니 그때는 그때.(아니 그때는 그때.)

106002 #4 어.(어.)



106002 @ 어머니가.(어머니가.)  
 106002 #1 ㄴ심이 잇다.(감이 있다.)  
 106002 @ 멍지 ㄴ심이 잇이난.(멍주감이 있으니까.)  
 106002 #1 계문 이젠.(그러면 이젠.)  
 106002 @ 그거는 저기 그 할머니가 몰아쫓지예?(그거는 저기 그 할머니가 말아주었지요?)  
 106002 #1 예. 게.(예. 그럼.)  
 106002 @ 그 크기에 맞게.(그 크기에 맞게.)  
 106002 #1 예.(예.)  
 106002 @ 몰라주니까.(말아주니까.)  
 106002 #4 아 예. 몸에 맞게끔 몰라주니까.(아 예. 몸에 맞게끔 말아주니까.)  
 106002 #1 요정도 요정도면.(요정도 요정도면.)  
 106002 #4 아니 아니 바농질을 헛수다게.(아니 아니 바느질을 했습니다.)  
 106002 #1 바농질을 해.(바느질을 해.)  
 106002 @ 아 몰라주니까.(아 말아주니까.)  
 106002 #1 재단을.(재단을.)  
 106002 #4 흐쉴 영 잘라주니까.(조금 이렇게 잘라주니까.)  
 106002 #1 재단을 우리 가시어명이 허고 장모가.(재단을 우리 가시어머니가 하고 장모가.)  
 106002 @ 아.(아.)  
 106002 #1 이 사람은 이제 바농질만 허는 거주.(이 사람은 이제 바느질만 하는 거주.)  
 106002 #4 멘들안 입지는 건 이제 제가 헛수다게.(만들어서 입히는 건 이제 제가 했습니다.)  
 106002 @ 아.(아.)  
 106002 #1 예.(예.)  
 106002 #4 아 미싱도 잇고 나도 미싱 사다 놓고 허니까.(아 재봉틀도 잇고 나도 미싱 사다 놓고 하니까.)  
 106002 #1 그때 미싱도 엇일 때라게.(그때 재봉틀도 없을 때야.)  
 106002 #4 저기.(저기.)  
 106002 #1 그 후에 미싱 나와서.(그 후에 재봉틀 나왔어.)  
 106002 @ 아.(아.)  
 106002 #1 그 후에.(그 후에.)  
 106002 #4 그 후에 사오곡.(그 후에 사오고.)  
 106002 #1 칠십 년도에 이 사람 성게 잡으난.(칠십 년도에 이 사람 성게 잡으니까.)  
 106002 @ 아.(아.)  
 106002 #1 칠십삼 년도에 성게 즈물양<sup>226)</sup> 미싱 사다 놓은 게.(칠십삼 년도에 성게

226) ‘즈물다’는 ‘바다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따내다’는 뜻이다.

‘즈물아서’ 재봉틀 사다 놓은 게.)

106002 @ 아.(아.)

106002 #1 지금 잇수다.(지금 있습니다.)

106002 @ 아.(아.)

106002 #1 나 건 알주.(나 건 알지.)

106002 @ 계난 계난 삼촌 그 옷ㄴ슴은.(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 그 옷감은.)

106002 #4 어.(어.)

106002 @ 그 크기만큼 내여주난.(그 크기만큼 내어주니까.)

106002 #1 예.(예.)

106002 @ 그 크기만큼 해주난.(그 크기만큼 해주니까.)

106002 #1 재단 재단 해주난에 바느질은 이 사람이.(재단 재단 해주니까 바느질은 이 사람이.)

106002 @ 저기 친정어머니가 저기 옷 모양은 영 영.(저기 친정어머니가 저기 옷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106002 #1 예예.(예예.)

106002 #4 예.(예.)

106002 @ 모양은 해주난에 삼촌은?(모양은 해주니까 삼촌은?)

106002 #1 이 사람은 바느질.(이 사람은 바느질.)

106002 @ 바느질에 실 꿰는 거.(바느질에 실 꿰는 거.)

106002 #1 바느질.(바느질.)

106002 @ 해네.(해서.)

106002 #1 손 꺾은 읊읍니다. 바느질.(손끝은 여뭍니다. 바느질.)

106002 @ 예.(예.)

106002 #1 손으로서도.(손으로라도.)

106002 @ 바느질 할 때예.(바느질 할 때요.)

106002 #4 예.(예.)

106002 @ 방법을예. 바느질은 쪽꿍 잇다근예예. 요기.(방법을요 바느질은 조금 이따가요 여기.)

106002 #1 순 저 미싱으로 아녀 순 손으로만 해실 거라.(순 저 재봉틀로 았아 순 손으로만 했을 거야.)

106002 @ 손으로예.(손으로요.)

106002 #4 아 손으로만 그때 시절에.(손으로만 그때 시절에.)

106002 #1 예예.(예예.)

106002 #4 여기 저 하르방<sup>227)</sup> 만난 왕은.(여기 저 남편 만나서 와서는.)

106002 #1 그 후에 그때 후에.(그 후에 그때 후에.)

106002 #4 그 후에는.(그 후에는.)

---

22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106002 @ 예.(예.)

106002 #1 그 후에 혼 십년 후에.(그 후에 한 십년 후에.)

106002 @ 예.(예.)

106002 #1 성계 즈물양 돈 벌어지난 미싱은 허여 난 지금 잇수다.(성계 캐서 돈 벌어 지나까 재봉틀은 해서 놓아서 지금 있습니다.)

106002 @ 예.(예.)

106002 #1 가끔 지금도 이 사름 험니다 이제 으.(가끔 지금도 이 사름 합니다 이제 어.)

106002 @ 예.(예.)

106002 #1 나 기억으로 칠십삼 년도 산거우다.(나 기억으로 칠십삼 년도 산거입니다.)

106002 @ 칠십삼 년도쫘 게민.(칠십삼 년도쫘 그러면.)

106002 #1 예.(예.)

106002 @ 그거는 흥끔 나중에 허곡.(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106002 #1 음.(음.)

## 무명

106007 @ 그 무명 무명예.(그 무명 무명요.)

106007 #4 미녕웃은 안 해보고.(무명웃은 안 해보고.)

106007 @ 아 미녕.(아 무명.)

106007 #4 미녕웃은 안 해보고.(무명웃은 안 해보고.)

106007 @ 아 미녕 미녕종류 알아지쿠과?(아 무명 무명종류 알아지겠습니까?)

106007 #4 미녕종류는 그 거 저 큰섬<sup>228</sup>에 강 미녕을 사웁니다게.(무명종류 그 거 저 제주에 가서 무명을 사웁니다.)

106007 @ 예. 사름들이 예예.(예. 사름들이 예예.)

106007 #4 욱지 사름들이 꼭는다.(육지 사름들이 파는데.)

106007 @ 예.(예.)

106007 #4 거 재료는 거 소개로 험니다 소개로 미녕은.(거 재료는 거 소재로 합니다 소개로 무명은.)

106007 #1 아아아.(아아아.)

106007 #4 솜으로 만듭니다 미녕은.(솜으로 만듭니다 무명은.)

106007 #1 원료가 솜으로.(원료가 솜으로.)

106007 @ 예예. 솜인디.(예예. 솜인데.)

106007 #1 목화라.(목화야.)

106007 @ 원레 목환디예.(원래 목화인데요.)

106007 #4 예.(예.)

---

228) '큰섬'은 제보자가 제주 본섬을 말하고 있다.

106007 @ 그것도 이제 막 가는 거도 있고 또 저기.(그것도 이제 막 가는 거도 있고 또 저기.)

106007 #1 굵은 거도 잇주게.(굵은 거도 있지.)

106007 @ 작은 거도 있고 널븐 거도 있고.(작은 거도 있고 넓은 거도 있고.)

106007 #4 아 미녕 하바<sup>229</sup>로?(아 무명 폭으로?)

106007 #1 예.(예.)

106007 @ 예.(예.)

106007 #4 아 미녕 하바는 너븐 거 좁은 거 엇입니다게(아 무명 폭은 넓은 거 좁은 거 없습니다.)

106007 #1 건 저 곶을 건데.(건 저 곶을 건데.)

106007 #4 쪽 골라.(쪽 골라.)

106007 @ 쪽 골라서예.(쪽 골라서요.)

106007 #4 물건이 좋앗던.(물건이 좋았던.)

106007 @ 예.(예.)

106007 #4 나빴던 이제 그 치수는.(나빴던 이제 그 치수는.)

106007 @ 치수는 꼭 ㄱ따예.(치수는 꼭 같아요.)

106007 #4 꼭 ㄱ뜨고.(꼭 같고.)

106007 @ 게민 압지롱하고 흐끔 두꺼운 거 하고?(그러면 압압하고 조금 두꺼운 거 하고?)

106007 #4 아예. 그런 건 있고.(아예. 그런 건 있고.)

106007 @ 게민 압지롱헌 거는 어떤 뉘엔 험니까?(그러면 압압한 거는 어떤 뉘라고 합니까?)

106007 #4 압지롱헌 거는.(압압한 거는.)

106007 #1 건 시라목<sup>230</sup> 시라목.(건 ‘시라목’ 무명천.)

106007 #4 좀 좋은 거고.(좀 좋은 거고.)

106007 #1 시라목 아냐 시라목도 있어.(‘시라목’ 아니냐 무명천도 있어.)

106007 #4 예.(예.)

106007 @ 예.(예.)

106007 #4 거에 좀 좋은 거고 막 두꺼운 거는 통허게<sup>231</sup> 멘기니까 나쁜 걸로 나 생각은 납니다게.(것에 좀 좋은 거고 매우 두꺼운 거는 ‘통’하게 만드니까 나쁜 걸로 나 생각은 됩니다.)

106007 @ 예.(예.)

106007 #4 예.(예.)

106007 @ 이름은 그때 뉘엔 곶은 거는?(이름은 그때 뉘라고 말하는 거는?)

106007 #4 아 예. 좋은 거 나쁜 거로만 헛주.(아 예. 좋은 거 나쁜 거로만 헛지.)

229) ‘하바’는 제보자가 일본어 (はば)인 너비의 폭(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230) ‘시라목’은 ‘시렁목’과 같이 무명천을 말한다.

231) ‘통하다’는 제보자가 고르지 못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106007 @ 예.(예.)

106007 #4 그 그거는 자세히.(그 그거는 자세히.)

106007 @ 생목, 광목, 닛새무명, 엇새무명이엔 헌 건?(생목, 광목, 닛새무명, 엇새무명 이라고 한 건?)

106007 #4 그 그런 건 아 아녀고.(그 그런 건 아 았고.)

106007 @ 그런 건 아녀고예.(그런 건 았고요.)

106007 #4 여깃 사름은 그런 건 안 썸디다게.(여기에 사름은 그런 건 안 헤아렸습니 다.)

106007 @ 아.(아.)

106007 #4 미녕이엔 헌 건 좋은 거 나쁜 거 허고.(무명이라고 한 건 좋은 거 나쁜 거 하고.)

106007 @ 좋은 거 나쁜 거예.(좋은 거 나쁜 거요.)

106007 #4 예.(예.)

106007 @ 기력시는 꼭 ㄱ찌고예?(길이는 꼭 같이고요?)

106007 #4 예.(예.)

106007 @ 꼭 ㄱ찌고.(꼭 같고.)

106007 #4 기력시는 ㄱ뜨고.(길이는 같고요.)

106007 @ 예.(예.)

106007 #4 찻수.(치수.)

106007 @ 예. 너비는?(예. 너비는?)

106007 #4 너비는 꼭 ㄱ뜨고.(너비는 꼭 같고.)

106007 @ 꼭 ㄱ뜨고.(꼭 같고.)

106007 #4 찻수는 진 거.(치수는 긴 거.)

106007 @ 찻수는?(치수는?)

106007 #4 너븐 거 찻른 거 잇수다 진 거.(넓은 거 짧은 거 있습니다 긴 거.)

106007 @ 진 거 찻른 거예.(긴 거 짧은 거요.)

106007 #4 예.(예.)

106007 @ 예.(예.)

106007 #4 건 자 수로 보는 거니까.(건 자 수로 보는 거니까.)

106008 @ 미녕으로는 보통 무슨 옷을 만들어 입어신고예?(무명으로는 보통 무슨 옷 을 만들어 입었는가요?)

106008 #4 그 미녕옷 입는 시기는 밥도 굶을 때라노니까.(그 무명옷 입는 시기는 밥 도 굶을 때니까.)

106008 @ 예.(예.)

106008 #4 뭐 일 허는 사람덜 일허는 옷에 감 메겨서 입어수다게 거.(뭐 일 허는 사 람들 일하는 옷에 감 먹여서 입었습니다 거.)

106008 @ 예.(예.)

106008 #4 가장에 어디 출장 옷이 아니고 미녕이라는 건 맞디 스용 흘라고 그 옷을 스용 헛수다게.(가장이 어디 출장 옷이 아니고 무명이라는 건 밭에 사용 하려고 그 옷을 사용 했습니다.)

106008 @ 예.(예.)

106008 #1 미녕이나 저 광목옷을 만들면은 감물 메것십주.(무명이나 저 광목옷을 만들면 감물 먹었죠.)

106008 @ 예.(예.)

106008 #1 감 메기젠 그 걸 멘드는 거라 감옷 만들젠.(감 먹이려고 그 걸 만드는 거야 감옷 만들려고.)

106008 #4 그런 건양.(그런 건요.)

106008 @ 예.(예.)

106008 #4 저 저 출장 옷으론 안 만들고.(출장 옷으로는 안 만들고.)

106008 #1 출장 옷으로 안코.(출장 옷으로 앓고.)

106008 @ 아 출장 옷.(아 출장 옷.)

106008 #1 예.(예.)

106008 @ 미녕해도 출장 옷을 만들양 입을 만헌디예.(무명해도 출장 옷을 만들어서 입을 만한테요.)

106008 #4 에이구 아니우다 우리 알 건디는.(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알 건데는.)

106008 #1 미녕이나 감 저 광목옷을 멘들면은 똑 감물 맥엇다고.(무명이나 감 저 광목옷을 만들면은 꼭 감물 먹엇다고.)

106008 @ 예.(예.)

106008 #1 필히 똑.(필히 꼭.)

106008 #4 일헐 때 입을랴고.(일할 때 입으려고.)

106008 @ 일헐 때 입을랴고예.(일할 때 입으려고요.)

106008 #4 경 헛수다게.(그렇게 했습니다.)

106008 #1 베로도 베로도 딱시 이제.(베로도 베로도 다시 이제.)

106008 @ 예.(예.)

106008 #1 옷을 만든다고.(옷을 만든다고.)

106008 #4 베는 그 돈 한 사람들이 입게 뵈수다게.(베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입게 뵈었습니다.)

106008 #1 예.(예.)

106008 #4 베는.(베는.)

106008 @ 예.(예.)

106008 #4 베는.(베는.)

106008 @ 예.(예.)

106008 #4 베는 그 아무나 입게 뵈게 아니고.(베는 그 아무나 입게 된 것이 아니고.)

106008 #1 부잣 사름만.(부자 사름만.)

106008 #4 비싸니까.(비싸니까.)  
 106008 #1 호강으로 입기도 했고.(호강으로 입기도 했고.)  
 106008 #4 예.(예.)  
 106008 #1 또 가난한 사람도 입기도 했고 나 육학년 때.(또 가난한 사람도 입기도 했고 나 육학년 때.)  
 106008 @ 예.(예.)  
 106008 #1 베 허.(베 허.)  
 106008 #4 베는.(베는.)  
 106008 @ 예.(예.)  
 106008 #1 부잣 사람만 입지 일반 사람은 못 입었수다게.(부자 사람만 입지 일반 사람은 못 입었습니다.)  
 106008 #1 양복은 양복기지.(양복은 양복기지.)  
 106008 @ 예.(예.)  
 106008 #1 어디서 우리 어머니 구해단에 양복기지.(어디서 우리 어머니 구해다가 양복기지.)  
 106008 @ 예.(예.)  
 106008 #1 그게 이제 좋은 거라 그거 입어 앓안 종다리<sup>232)</sup> 초등학교 운동회 때.(그게 이제 좋은 거야 그거 입어 가지고 ‘종다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106008 @ 예.(예.)  
 106008 #1 아렌 베 베 베쓰봉 입고 우인 그 저 우와기<sup>233)</sup> 입고 헨 가랏수다.(아래는 베 베 베바지 입고 위에는 그 저 윗도리 입고 해서 갔었습니다.)  
 106008 @ 예.(예.)  
 106008 #1 그냥 발란스 맞는 게 아니주게 워낙 가난해노니까.(그냥 밸런스 맞는 게 아니지 워낙 가난하니까.)  
 106008 @ 예.(예.)  
 106008 #1 워낙 가난해노니까 어떻 말잇과 예.(워낙 가난하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예.)  
 106008 @ 맞수다.(맞습니다.)  
 106010 @ 광목으로 광목으로도 뭐 일복은 헛구나예?(광목으로 광목으로도 뭐 일복은 했군요?)  
 106010 #4 예게 광목으로 이제 남저분들 저 이 저 일허는 옷.(예. 광목으로 이제 남저분들 저 이 저 일하는 옷.)  
 106010 @ 일허는 옷예.(일하는 옷요.)  
 106010 #4 예. 우알 일허는 옷 입영.(예. 위아래 일하는 옷 입어서.)  
 106010 #1 그때는 시월 들인디 베옷을 입언에.(그때는 시월 달인데 베옷을 입어서.)  
 106010 @ 예.(예.)

232) ‘종다리’는 제주시 구좌읍 행정마을 종달리를 말한다.

233) ‘우와기’는 제보자가 윗도리를 가리키며 일본말 ‘우와기(uwagi)’를 말한다.

106010 #1 해신다.(했는데.)

106010 @ 이불 헐 때 호칭.(이불 헐 때 흘칭.)

106010 #4 이불 헐 때도 또 광목으로 발레여서 이런 벤틀 뽕명 자꾸 넣어가면 광목이 거멍흔 거 해영허지 안습니까.(이불 할 때도 또 광목으로 바래여서 이런 벌에 발면서 자꾸 넣어가면 광목이 거멍게 희지 않습니까.)

106010 @ 예.(예.)

106010 #4 이제는.(이제는.)

106010 @ 발레기네예.(바래서요.)

106010 #4 이제는 필요가 엇지만은.(이제는 필요가 없지만은.)

106010 @ 예.(예.)

106010 #4 이제는 잘 장에 강 사오지만은 그 옛날은 경 헛수다게.(이제는 잘 장에 가서 사오지만은 그 옛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106010 @ 예.(예.)

106011 @ 삼촌 흥세미녕, 한 번 골아줘봅서.(삼촌 ‘흥세미녕’, 한 번 말해줘 보십시오.)

106011 #1 어?(어?)

106011 @ 흥세미녕.(‘흥세미녕’.)

106011 #1 흥세미녕<sup>234</sup>은 저 옛날에는 허다가 요 중간에는 이제 시라목<sup>235</sup>으로 험네께.(‘흥세미녕’은 저 옛날에는 허다가 요 중간에는 이제 무명천으로 합니다.)

106011 @ 예.(예.)

106011 #1 옛날에.(옛날에.)

106011 @ 겐디 그 옛날에.(그런데 그 옛날에.)

106011 #1 그 옛날에.(그 옛날에는.)

106011 @ 예.(예.)

106011 #1 흥세미녕을 해낫수다 게난 흥세미녕을 뭇로 허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장게갈 때까지만 해도.(‘흥세미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흥세미녕’을 뭇로 허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장가갈 때까지만 해도.)

106011 @ 예.(예.)

106011 #1 흥세미녕 해네 아기덜 샷바 만들켄 해네.(‘흥세미녕’ 해서 아기들 살바 만들겠다고 해서.)어 나서

106011 #4 이 아기덜 샷바 만들어 나서.(이 아기들 살바 만들었어.)

106011 #1 그때 시절에도 경 해신가?(그때 시절에도 그렇게 했는가?)

106011 #4 아아 우리 시대도.(아아 우리 시대도.)

106011 #1 하 할망네<sup>236</sup> 온 때.(하 ‘할망’네 왔을 때.)

106011 #4 우리 시대에도게.(우리 시대에도.)

234) ‘흥세미녕’은 혼례를 치루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속에 넣는 무명을 말한다.

235) ‘시라목’은 ‘시렁목’과 같이 무명천이다.

236) ‘할망’은 할머니지만 여기에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아내를 칭하고 있다.



106011 @ 예.(예.)

106011 #1 그때 그땐 경 안헤실 걸 요 근래에 왕 경 헛주.(그때 그때는 그렇게 앓았을 걸 요 근래에 와서 그렇게 했지.)

106011 #4 아 우리 시대도.(아 우리 시대도.)

106011 #1 아들덜 장게 갈 때만 경 헛주.(아들들 장가 갈 때만 그렇게 했지.)

106011 #4 게메게.(글쎄.)

106011 #1 그 시절에도.(그 시절에도.)

106011 #4 그 옛날엿 거 말허는 거 아니까 아주망.(그 옛날에 짓 말하는 거 아아닙니까 아주머니.)

106011 @ 예.(예.)

106011 #4 말허는 거.(말하는 거.)

106011 #1 아 할망 시집 올 때 홍세<sup>237)</sup> 받은 거.(아 ‘할머니 시집 올 때 ‘홍세’ 받은 거.)

106011 #4 아 모르쿠다 나 받아신디사 안 받아신디사.(아 모르겠습니다 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06011 #1 어떻 헨지가 몰르크라 그건.(어떻게 했는지가 모르겠어 그건.)

106011 #4 홍세 물 능력은 잇었수파?(홍세 물 능력도 있었습니까?)

106011 #1 무사?(왜?)

106011 @ 아 하하.(아 하하.)

106011 #1 홍세 예문 예장 씨연에.(홍세 예문 예장 써서.)

106011 @ 예문 예장예.(예문 예장요.)

106011 #1 예문 예장 씨여근에.(예문 예장 써서.)

106011 #4 그때 광목은 스용헤낫주.(그때 광목은 사용했지.)

106011 #1 으.(오.)

106011 #4 미녕 스용 장게 올 때.(무명 사용 장가 올 때.)

106011 #1 게메게.(글쎄.)

106011 #4 그때 광목 스용헛주 미녕 스용 안 헛수다게.(그때 광목 사용했지 무명  
106011 #1 그때 광목 헤신가?(그때 광목 했는가?)

106011 #4 예게.(예.)

106011 #1 미녕 안 헨 광목 헨.(무명 안 하고 광목 해서.)

106011 @ 아.(아.)

106011 #1 어쨌든 광목을 놓든 미녕을 놓든 놓긴 놓아놔서게.(어쨌든 광목을 놓든 무명을 놓든 놓긴 놓았어.)

106011 #4 스용헌 거게.(사용한 거.)

106011 #1 게메.(글쎄.)

---

237) ‘홍세’는 ‘홍세함’을 말하는 것으로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을 말한다.

106011 #4 그때 북북 브리멍<sup>238)</sup> 애기덜 샷바도허곡 텃겨불기도.(그때 박박 찢으면서 애기들 살바도하고 던져버리기도.)

106011 #1 광목으로 샷바허기는 좀 아까울 건디.(광목으로 살바허기는 좀 아까울 건데.)

106011 @ 예.(예.)

106011 #1 그때 시절에.(그때 시절에.)

106011 @ 지금은 광목.(지금은 광목.)

106011 #1 예.(예.)

106011 #4 아까우나마나 어떻 말이파?(아까우나마나 어떻게 말입니까?)

106011 @ 미녕이 귀헌 거난.(무명이 귀한 거니까.)

106011 #4 엇이민 어떻 말이파? 엇이민 흘 수 엇는 거.(없으면 어떻게 말입니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106011 @ 예.(예.)

106011 #4 샷바 살 돈이 엇이난.(살바 살 돈이 없으니까.)

106011 @ 그.(그.)

106011 #4 에이고.(아이고.)

106012 @ 여기서는 목화를 솜 농사는 안 지엿지예?(여기서는 목화 솜을 농사를 안 지엿지요?)

106012 #4 여긴 스용 아녀고 큰섬에 강.(여긴 사용 않고 제주에 가서.)

106012 @ 예.(예.)

106012 #4 목화 사당 이불 만들엇수다게.(목화 사다가 이불 만들었습니다.)

106012 @ 예.(예.)

## 모시

106013 @ 모시도?(모시도?)

106013 #4 예. 모신 아무나 씨져수파?(예. 모시는 아무나 씨졌습니까?)

106013 @ 응.(응.)

106013 #4 부제칩 사름만 찢지.(부갓집 사람만 찢지.)

106013 @ 응.(응.)

106013 #4 응.(응.)

106015 @ 모시도 여기는 같거나?(모시도 여기는 같거나?)

106015 #4 안 갑니다.(안 갑니다.)

106015 #1 안 갑니다.(안 갑니다.)

106015 @ 안 같아예.(안 같아요.)

106015 #4 모시 안 갑니다.(모시 안 갑니다.)

---

238) '브리다'는 종이나 형겔 따위가 찢어지는 것을 말한다.

106015 @ 예.(예.)

106015 #4 이 딴 완전히 막은 섬이라서.(이 데는 완전히 막은 섬이라서.)

106015 @ 예.(예.)

106015 #4 저 큰섬에 강 베던 이제 광목이든 미녕이든 폴레 읍네께 지어왔저 가지고.(저 제주에 가 베든 이제 광목이든 무명이든 팔러 읍니다 지어가지고 가지고.)

106015 @ 지어왔저 가지고 예예.(지어가지고 가지고 예예.)

106015 #4 게 그때는 그게 가정에 필요허민 사곡.(그럼 그때는 그게 가정에 필요하면 사곡.)

106015 @ 예.(예.)

106015 #1 이제 십년 전이 깬지만 해도 베 베덜 사례.(이제 십년 전에 까지만 해도 베 베들 사례.)

106015 @ 예.(예.)

106015 #1 지어왔영 폴레 왔수다.(지어가져서 팔러 왔습니다.)

106015 @ 지어왔영.(지어가져서.)

106015 #1 예.(예.)

106013 @ 그 옛날에 다 지어왔이고예.(그 옛날에 다 지어가져서요.)

106015 #1 예.(예.)

106015 #4 예. 지어왔영 육지 사름덜 폴레오주.(예. 지어가져서 육지 사름들 팔러 오주.)

106015 @ 예.(예.)

106015 #4 여깃 사름덜은 또 그런 거 또 장서사 아녀고.(여기에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또 장사야 앓고.)

106014 @ 그 옛날에 다 모시로 무시걸 해낫을건고예?(그 옛날에 다 모시로 무엇을 했었을까요?)

106014 #1 예?(예?)

106014 @ 그 옛날에 모시.(그 옛날에 모시.)

106014 #1 아 모시로.(아 모시로.)

106014 #4 모시 스용허는 사름은.(모시 사용하는 사름은.)

106014 #1 보통으로.(보통으로.)

106014 #4 부제침이 사름만 헛지.(부갓집에 사름만 헛지.)

106014 #1 이딴 사름덜.(여기에 사름들.)

106014 @ 예.(예.)

106014 #1 한복 으.(한복 어.)

106014 @ 예.(예.)

106014 #1 한복덜 많이 해연 입어십주 으.(한복들 많이 해 입었쥬 어.)

106014 @ 그 옛날에.(그 옛날에.)

106014 #1 한량덜입주.(한량들이지.)

106014 @ 예.(예.)  
 106014 #1 그거 해 입은 사름들.(그거 해 입은 사름들.)  
 106014 @ 예. 한량덜예.(예. 한량들요.)  
 106014 #4 옷이 이 지금에는 옷이.(옷이 이 지금에는 옷이.)  
 106014 @ 예.(예.)  
 106014 #1 부제침이 사름만 입지.(부жат집에 사름만 입지.)  
 106014 #4 저 이름도 몰랐수다게.(저 이름도 몰랐습니다.)  
 106014 @ 예.(예.)  
 106014 #4 다 일반적으로 엇인 사름이 많이 입주 이제는 부제 가난이.(다 일반적으로 엇는 사름이 많이 입지 이제는 부자 가난이.)  
 106014 #1 모시로.(모시로.)  
 106014 #4 구별이 엇고.(구별이 없고.)  
 106014 #1 후리메ㄱ지 혼 사름이 잇수다 돈 많은 사름덜 부제덜.(두루마기까지 한 사름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름들 부자들.)  
 106014 @ 아 후리메.(아 두루마기.)  
 106014 #1 예.(예.)  
 106014 #4 그 옛날은 모시.(그 옛날은 모시.)  
 106014 #1 모시 저고리 중이.(모시 저고리 중의.)  
 106014 #4 건 막 부제 사름덜 아넛웁게.(그건 매우 부자 사름들 아넛니까.)  
 106014 @ 남자덜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말 아니꽈예?(남자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말 아니니까요?)  
 106014 #4 예.(예.)  
 106014 #1 예.(예.)  
 106014 #4 바지저고리.(바지저고리.)  
 106014 #1 잇고 엇고.(잇고 없고.)  
 106014 #4 만들앙 입어.(만들어서 입어.)  
 106014 #1 심지어 후리메ㄱ지도.(심지어 두루마기까지도.)  
 106014 @ 예.(예.)  
 106014 #1 이 저저 후리메ㄱ지도 이제 멋으로.(이 저저 두루마기까지도 이제 멋으로.)  
 106014 #4 건 아무나 입어수꽈?(건 아무나 입었습니까?)  
 106014 @ 게난.(그러니까.)  
 106014 #1 으.(어.)  
 106014 @ 멍지도 앞에도 보니까 남자덜.(멍지도 앞에도 보니까 남자들.)  
 106014 #1 멍지 멍지도 후루메기ㄱ지도 행 입어.(멍주 멍주도 두루마기까지도 해서 입어.)  
 106014 #4 뭐 그거.(뭐 그거.)  
 106014 @ 제 제 볼 때 입는 거.(제 제 볼 때 입는 거.)

106014 #1 예.(예.)

106014 #4 나도 저 저 양반 저 저 멧지 완 보난 조선옷도 엇언.(나도 저 저 양반 저 명주 와서 보니까 조선옷도 없어서.)

106014 #1 난 그때 후르메기.(난 그때 두루마기.)

106014 #4 울어감시난.(울어가니까.)

106014 #1 예.(예.)

106014 #4 이제 돈 주면서.(이제 돈 주면서.)

106014 #1 그때 후르메기 입어나신가?(난 그때 두루마기 입었을까?)

106014 #4 장에 강 멧지 사당.(장에 가서 명주 사다가.)

106014 #1 멧지 후르메기.(명주 두루마기.)

106014 #4 멧지 사당 옷 해주렌 나 친정어머니신디 간 해단.(명주 사다가 옷 해주라고 나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해다가.)

106014 @ 예.(예.)

106014 #4 옷 헨 입찻수다게.(옷 해서 입혔습니다.)

106014 @ 예.(예.)

106014 #1 예. 멧지 후르메기.(예. 명주 두루마기.)

106014 #4 막 가난해낫수다게.(매우 가난했습니다.)

106014 #1 예.(예.)

106014 #4 가난헨.(가난해서.)

106014 #1 가난해낫수다 참.(가난했습니다 참.)

106014 #4 가난해노난 어떤 말이봐?(가난하니까 어쩔 말입니까?)

106014 @ 예.(예.)

106014 #1 허허.(허허.)

106014 #4 우리 시어머니 장계 갈 때 조선옷도 빌언 입저십디다.(우리 시어머니 장가 갈 때 조선옷도 빌어서 입혔습니다.)

106014 @ 예.(예.)

106014 #4 겐 이제 정월 멧질이 돌아오니까.(그래서 이제 정월 명절이 돌아오니까.)

106014 #1 이웃집이 집사람안티 빌어단 헛주.(이웃집에 집사람한테 빌어다가 했지.)

106014 #4 앓다 줘부니까 울어가난 우리어머니가 왜 우냐 허난에 아 저 창피해가지고 운텐 허난 게민 네가 줄텐 헨 이제 어머니가 당헨.(가져다 줘버리니까 울어가니까 우리어머니가 왜 우냐 하니까 아 저 창피해가지고 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가 부담해서.)

106014 @ 친정어머니가?(친정어머니가?)

106014 #1 친정어머니가 그때.(친정어머니가 그때.)

106014 @ 예예.(예예.)

106014 #1 똥오줌 치우고 허니까 죽으민 어떻 허코 해네 호상.(똥오줌 치우고 하니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호상.)

106014 @ 허젠.(하려고.)  
 106014 #1 저 허젠 해난 모양이라.(저 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106014 @ 예예.(예예.)  
 106014 #1 또 사름 죽으민 멩지로 수이를 멘들지 안읍니까게.(또 사람 죽으면 멩지로 수의를 만들지 않습니까.)  
 106014 @ 예예. 맞쭈다.(예예. 맞습니다.)  
 106014 #1 그걸.(그걸.)  
 106014 @ 살 때는 입지.(살 때는 입지.)  
 106014 #1 낫단에.(났다가.)  
 106014 @ 못 헛다근예예.(못 했다가요.)  
 106014 #1 예예.(예예.)  
 106014 @ 죽을 땐.(죽을 땐.)  
 106014 #1 예예.(예예.)  
 106014 @ 죽어 갈 땐 멩지옷을 만들어근예.(죽어 갈 땐 명주옷을 만들어서요.)  
 106014 #4 막 가난해낫수다게 이 양반이.(매우 가난했습니다 이 양반이.)  
 106014 @ 예예.(예예.)  
 106014 #4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양반 소 질환 부제가 뵈수다게.(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양반 소 길러서 부자가 됐습니다.)  
 106014 #1 다른 말 곶아 다른 말.(다른 말 말해 다른 말.)  
 106014 @ 하하하.(하하하.)  
 106014 #1 그 말만 곧지 말앙.(그 말만 말하지 말아서.)  
 106014 #4 소 질와 가난예.(소 길러 가니까요.)  
 106014 @ 예.(예.)  
 106014 #4 부랭이만 길러근예.(수소만 길러서.)  
 106014 @ 인측예 우리 그 말 막 들엇수다.(일찍이 우리 그 말 마구 들었습니다.)  
 106014 #4 삼촌 엇을 때 막 자랑해난 막 들엇수다.(삼촌 없을 때 매우 자랑해서 마구 들었습니다.)

## 삼

106017 @ 삼촌 베는예. 어떤 옷을 만들어신고예?(삼촌 베는요 어떤 옷을 만들었는가요?)  
 106017 #4 베?(베?)  
 106017 @ 예.(예.)  
 106017 @ 베.(베.)  
 106017 #4 베?(베?)  
 106017 @ 예. 베.(예. 베.)

106017 #4 중이적삼 위에 저 남저 적삼.(중의적삼 위에 저 남자 적삼.)  
 106017 @ 남저 적삼예.(남자 적삼요.)  
 106017 #4 또 이 여기서도.(또 이 여기서도.)  
 106017 #1 중이적삼.(중의적삼.)  
 106017 #4 남저 저 몸빼 꺾치.(남자 저 몸빼 같이.)  
 106017 @ 예.(예.)  
 106017 #4 달라가지고.(말아가지고.)  
 106017 #1 몸빼도 멘들고.(일바지도 만들고.)  
 106017 #4 우린 그거 못 뵈립니다.(우린 그거 못 마릅니다.)  
 106017 #1 영장날은양.(영장 날에는요.)  
 106017 #4 어른덜 뵈긴.(어른들 밖에는.)  
 106017 @ 예.(예.)  
 106017 #1 베치메 베치메를.(베치마 베치마를.)  
 106017 @ 예.(예.)  
 106017 #1 멘들아 영장 날 때.(멘들아 영장 날 때.)  
 106017 @ 예.(예.)  
 106017 #1 상제덜.(상주들.)  
 106017 @ 예.(예.)  
 106017 #1 상제덜 베치메를 행 입언 헛수다.(상주들 베치마를 해서 입어서 헛습니다.)  
 106017 #4 그럴 때 뵈긴 안 입읍니다 베.(그럴 때 밖에는 안 입읍니다 베.)  
 106017 #1 어?(어?)  
 106017 #4 베 날 베옷 입는 거는 초상날 때 뵈긴게.(베 날 베옷 입는 거는 초상날 때 밖에는.)  
 106017 #1 아 게메게.(아 글썸.)  
 106017 @ 초상날 때.(초상날 때.)  
 106017 #1 치메 치메덜 행 입어나지 안 해서게.(치마 치마들 해서 입었지 않았어.)  
 106017 @ 요즘은 막.(요즘은 마구.)  
 106017 #1 응.(응.)  
 106017 @ 상관엇이 입는디.(상관없이 입는데.)  
 106017 #1 아.(아.)  
 106017 @ 예.(예.)  
 106017 #1 또 베로.(또 베로.)  
 106017 @ 예.(예.)  
 106017 #1 베로 또 옷도 행 입어.(베로 또 옷도 해서 입어.)  
 106017 #4 아 게난 부제 사름덜은.(아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은.)  
 106017 #1 예.(예.)  
 106017 #4 여름에.(여름에.)

106017 @ 예.(예.)

106017 #1 경 현.(그렇게 해서.)

106017 #4 안 더웁게 해근에 입주만은.(안 덩게 해서 입지만은.)

106017 #1 그거 저.(그거 저.)

106017 #4 엇는 사름은.(없는 사름은.)

106017 #1 감꺼지 감క్క지 메겨근에 입영 텡여난 사름 잇주.(감까지 감까지 먹여서 입어서 다녔던 사름 있지.)

106017 #4 그거 아무나 입엇수파?(그거 아무나 입엇습니까?)

106017 #1 게메.(글쎄.)

106017 #4 부제 사름만 입엇주.(부자 사름만 입엇지.)

106017 @ 예.(예.)

106017 #4 우리 가난헌 사름은 베 이름도 몰랏수다 어디 강 베웃을 입을 말이파? 어.(우리 가난한 사름은 베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베웃을 입을 말입니까? 어.)

106017 @ 예.(예.)

106017 #1 여기는 옛날에 베가.(여기는 옛날에 베가.)

106017 #4 부젯집이.(부잣집에.)

106017 @ 예.(예.)

106017 #1 베가 베가 귀헤십주게 아메도.(베가 베가 귀했습지요 아무래도.)

106017 #4 귀허고 비싸고.(귀하고 비싸고.)

106017 @ 예. 여기는 베 저기 뭐 키우지도 못허고예.(예. 여기는 베 저기 뭐 키우지도 못하고요.)

106017 #4 예. 생활비가 뵤듯 뵤듯.(예. 예. 생활비가 빠듯 빠듯.)

106017 @ 맞수다.(맞습니다.)

106017 #4 들고 허는디 어디 베웃을 입을 말이파?(들고 하는데 어디 베웃을 입을 말입니까?)

106017 @ 예.(예.)

106017 #4 저디 감 옷이나 끈영 감 드령 입음 뵤기 베웃은 이름도 몰랏수다게.(저데 감 옷이나 꿇어서 감 들여서 입는 것 밖에 베웃은 이름도 몰랐습니다.)

106017 @ 예.(예.)

106017 #4 이제난 우리가 부제다 가난이다.(이제니까 우리가 부자다 가난이다.)

106017 @ 예. 다른디도 경 험디다게.(예. 다른데도 그렇게 함디다.)

106017 #1 예.(예.)

106017 #4 예게.(예.)

106017 #1 마찬가지.(마찬가지.)

106017 @ 다른디도 경 허곡.(다른데도 그렇게하고.)

106017 #4 예.(예.)



## 도구

106019 @ 그 옆집에 정이<sup>239)</sup> 할망이 와근에 베틀 해 가지고 그 저기 썰도 만들곡 예?(그 옆집에 ‘정의’ 할머니가 와서 베틀 해 가지고 그 저기 실도 만들고요?)

106019 #4 어.(어.)

106019 @ 그 베틀헛덴 허는디 그거는 또.(그 베틀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106019 #4 소섬<sup>240)</sup>은 베틀 엇어낫수다.(‘소섬’은 베틀 없었습니다.)

106019 @ 어.(어.)

106019 #4 베틀 엇어낫수다.(베틀 없었습니다.)

106019 @ 예.(예.)

106019 #4 저 큰섬에 부제 사름덜 그거 헤지 이 우도 안에는 베틀 허는 사름 엇어낫수다.(저 제주에 부자 사람들 그거 했지 이 우도 안에는 베틀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106019 @ 예.(예.)

## 바느질

106022 @ 삼촌 여기 바느질 헐 때예.(삼촌 여기 바느질 할 때요.)

106022 #4 예.(예.)

106022 @ 그 저기 남자 삼촌 그 후리메 바지저고리 중이적삼 중이적삼 중이적삼은 아니고 바지저고리를 멩지로 만들지 아녜수파예?(그 저기 남자 삼촌 그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중의 적삼 중의 적삼 중의 적삼은 아니고 바지저고리를 명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요?)

106022 #4 예.(예.)

106022 @ 그때에는 그 재봉틀이 엇어부난 손바농질로 헛지예?(그때에는 그 재봉틀이 없어버리니까 손바농질로 헛지요?)

106022 #4 예. 손바농질로 헛수게.(예. 손바농질로 했습니다.)

106022 @ 손바농질로 허는데 그때는 바농이 큰 거엿수파? 죽은 거엿수파?(손바농질로 하는데 그때는 바늘이 큰 거였습니까? 작은 거였습니까?)

106022 #4 아.(아.)

106022 @ 멩지니까 죽은 걸로 헤실 거라예?(명주니까 작은 걸로 했을 거지요?)

106022 #4 아니 바농이 큰 바농이 이불만 끼우고.(아니 바늘이 큰 바늘이 이불만 끼우고.)

106022 @ 이불만 끼우고.(이불만 끼우고.)

106022 #4 또 옷 허는 거는 쪽끄만 헐 거 ㄴ는 걸로 허고.(또 옷 하는 거는 조그만

239) ‘정이’는 ‘정의’로 서귀포시(西歸浦市)를 둘로 나눠 서(西)는 대정현(大靜縣), 동(東)은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었을 때의 동쪽을 말한다.

240) ‘소섬’은 우도의 다른 이름이다.

한 거 가는 걸로 하고.)

106022 @ ㄴ는 걸로 허고?(가는 걸로 하고?)

106022 #4 예.(예.)

106022 @ 실도 멩지실로 허곡예.(실도 명주실로 하고요.)

106022 #4 멩지실로.(명주실로.)

106022 @ 예?(예?)

106022 #4 실도 또 ㄴ는 걸로 이제 한복 입을 때 멩질 때는 ㄴ는 거 허고.(실도 또 가는 걸로 이제 한복 입을 때 명질 때는 가는 거 하고.)

106022 @ ㄴ는 걸로 허고예.(가는 걸로 하고요.)

106022 #4 이불 끼울 때는 슬진 실로 허고.(이불 끼울 때는 살쩍 실로 하고.)

106022 @ 슬진 슬진 걸로?(살쩍 살쩍 걸로?)

106022 #4 예.(예.)

106022 @ 허고.(하고.)

106022 #4 예.(예.)

106022 @ 게민 그때 바농질 도구는 실허고 ㄴ췌허곡.(그러면 그때 바느질 도구는 실하고 ‘ㄴ췌’하고.)

106022 #4 예.(예.)

106022 @ 또 실 바농 끼우는 거 뭐엔 험니까?(또 실 바늘 끼우는 거 무어라고 합니까?)

106022 #4 어.(어.)

106022 @ 바농 끼우는 거.(바늘 끼우는 거.)

106022 #1 바농 귀.(바늘 귀.)

106022 @ 바농 끼웁 놔두는 거.(바늘 끼워서 놔두는 거.)

106022 #1 귀 귀 바농 귀.(귀 귀 바늘 귀.)

106022 @ 아 바농귀는.(아 바늘귀는.)

106022 #1 어.(어.)

106022 @ 바농에 잇인 거고.(바늘에 있는 거고.)

106022 #1 고망 뜯좌진 걸 귀엔 헤낫지?(구멍 뚫어진 걸 귀라고 했지?)

106022 #4 예.(예.)

106022 @ 예.(예.)

106022 #4 그거 그거뻐기.(그거 그거밖예.)

106022 @ 그거 말앙예.(그거 말아서요.)

106022 #4 스용 안 험니께.(사용 안 합니다.)

106022 @ 이 바농이 이 이 꽃아근에 놔뉘사 될 거 아넛꽈?(이 바늘이 이 이 꽃아서 놔두어야 될 거 아넛니까?)

106022 #1 으.(오.)

106022 @ 이 똥그레미 만들아근예.(이 동그라미 만들어서.)

106022 #1 동그락흔 거?(동글락 한 거?)  
 106022 @ 어.(어.)  
 106022 #1 바농썸이엔 뭐엔 흔 거냐?(바늘썸이라고 무어라고 한 거야?)  
 106022 #4 아 바농집이렌 흔 거.(아 바늘집이라고 한 거.)  
 106022 @ 예.(예.)  
 106022 #1 동그락하게 멘들아근에 흔 거?(동그랗게 만들어서 한 거?)  
 106022 @ 멘들아근에 흔 거를.(동그랗게 만들어서 한 거를.)  
 106022 #4 솜씨 존 사람은 쏘굽에 막 머리꺼럭.(솜씨 좋은 사람은 속에 마구 머리카  
 락.)  
 106022 @ 예.(예.)  
 106022 #1 게메.(글쎄.)  
 106022 #4 머리꺼럭을 막 담아 가지고.(머리카락을 마구 담아 가지고.)  
 106022 #1 그 웨에는.(그 외에는.)  
 106022 #4 요만큼.(요만큼.)  
 106022 #1 모르크라.(모르겠어.)  
 106022 #4 멍깁니다게.( 만듭니다.)  
 106022 @ 예.(예.)  
 106022 #1 예. 걸 모르크라.(예. 그걸 모르겠어.)  
 106022 @ 그거를 뭐엔 곤는 고예.(그거를 무어라고 말하는 가요.)  
 106022 #4 아 바농 찢르는 거라고 뻗기 뭐라고.(바늘 찢르는 거라고 밖에 무어라고.)  
 106022 @ 아 바농 찢르는 거예.(바늘 찢르는 거요.)  
 106022 #4 예.(예.)  
 106022 #1 예.(예.)  
 106022 @ 바농 찢르는 거.(바늘 찢르는 거.)  
 106022 #4 예.(예.)  
 106022 @ 실패허고.(실패하고.)  
 106022 #4 실패허고.(실패하고.)  
 106022 @ 예.(예.)  
 106022 #4 실패는 만들아 진거고.(실패는 만들어 진거고.)  
 106022 @ 예. 만들어진 거고예.(예. 만들어진 거고요.)  
 106022 #4 예.(예.)  
 106022 @ 그 냥으로 행 헌 거고.(그 나무로 해서 한 거고.)  
 106022 #4 실패는 만들아 진거.(실패는 만들어 진거.)  
 106022 @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엇인가마씨?(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없는가요?)  
 106022 #4 다른 거 엇수다게.(다른 거 없습니다.)  
 106022 @ ㄴ췌잇인 거 허곡.(‘ㄴ췌’ 있는 거 하고.)  
 106022 #4 ㄴ췌는 다 스용 허는 거 허곡.(‘ㄴ췌’는 다 사용하는 거 하고.)

106022 @ 예.(예.)

106022 #4 예.(예.)

106022 @ 다 스용 허는 거 허고예.(다 사용하는 거 하고요.)

106022 #4 바농도 다 스용 허는 거 허고예.(바늘도 다 사용하는 거 하고요.)

106022 @ 사용 허는 거 허고.(다 사용하는 거 하고요.)

106022 #4 예.(예.)

106022 @ 이데 뭐 도메ㄱ튼 거 일본말로 허주만은 손에 영 끼와근에 골메 ㄱ튼 거 골메.(이데 뭐 도메ㄱ튼 거 일본말로 허주만은 손에 영 끼워서 골무 같은 거 골무.)

106022 #4 이 이 저 바농질 손바농질 허젠 허민 저 쭈시면.(이 이 저 바느질 손바느질 하려고 하면 저 쭈시면.)

106022 @ 예.(예.)

106022 #4 그런 거 사름마다 앓고.(그런 거 사람마다 안하고.)

106022 @ 예.(예.)

106022 #4 가다오다 그런 거 끼우는 사름 잇엇수다게.(가다오다 그런 거 끼우는 사름 잇엇습니다.)

106022 @ 예.(예.)

106022 #4 예.(예.)

106022 @ 아.(아.)

106022 #4 그걸로 헤낫수게 그건.(그걸로 했습니다 그건.)

106022 @ 그건 사다가.(그건 사다가.)

106022 #4 그건 사다가마씨.(그건 사다가요.)

106022 @ 그건 사다가 허고.(그건 사다가 하고.)

106022 #4 예.(예.)

106022 @ 게민 가위허고 바농허고 그런 거 놔두는 거는 그릇이 잇어나신가마씨?(그러면 가위하고 바늘하고 그런 거 넣어두는 거는 그릇이 잇었는가요?)

106022 #4 아.(아.)

106022 @ 그런.(그런.)

106022 #4 상자 잇습니께.(상자 있습니다.)

106022 @ 무슨?(무슨?)

106022 #4 그 아니 게난 소쿠리 닳은 건데.(그 아니 그러니까 소쿠리 닳은 건데.)

106022 @ 예.(예.)

106022 #4 그 여기는 엇고 육지서 폴레 읍니께게.(그 여기는 없고 육지서 팔러 읍니다.)

106022 @ 예.(예.)

106022 #4 바농 소쿠리 허는 거.(바늘 소쿠리 하는 거.)

106022 @ 아.(아.)

106022 #4 폴레 오민 그걸 이쁨니께.(팔러 오면 그걸 예쁩니다.)

106022 @ 예.(예.)

106022 #4 우도 사름덜은 그거 할 줄 모르니까 폴레 오면 돈 잇인 사름은 사고 엇은 사름은.(‘우도’ 사람들은 그거 할 줄 모르니까 팔러 오면 돈 있는 사람은 사고 없는 사람은.)

106022 @ 그거는.(그거는.)

106022 #4 그대로 허고 경 험니께.(그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106022 @ 아.(아.)

106022 #1 그런 건 우리 모르는다.(그런 건 우리 모르는데.)

106022 #4 예?(예?)

106022 #1 어느 시대에 거 잇었나서?(어느 시대에 거 있었어?)

106022 #4 아 바농쌍지 엇입네까? 바농쌍지 바농쌍지 험니께 요런 소코리 멘들앙.(아 바늘쌈지 없습니까? 바늘쌈지 바늘쌈지 합니다 요런 소쿠리 만들어서.)

106022 #1 어?(어?)

106022 #4 여기 이제 그 바농 찢르는 거 멘들앙 허민.(여기 이제 그 바늘 찢르는 거 만들어서 하면.)

106022 #1 응.(응.)

106022 #4 이레 돌아메는 거 험네께.(이리로 돌아메는 거 합니다.)

106022 #1 게메 그런 것이 저.(글쎄 그런 것이 저.)

106022 #4 남저덜은 몰릅니다게.(남자들은 모릅니다.)

106022 @ 예(예)

106022 #1 요 근래에 잇어신가? 옛날에는 엇어.(요 근래에 있었는가? 옛날에는 없어.)

106022 #4 아 요 근래에는 출럼수짜? 다 던져범수께게.(아 요 근래에는 차리고 있습니까? 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106022 #1 어?(어?)

106022 @ 예(예)

106022 #1 허허.(허허.)

106022 @ 그 옛날에 종이 블라근에.(그 옛날에 종이 발라서.)

106022 #4 예.(예.)

106022 @ 요만큼 그 저기 그 차롱 차롱 말곡 구덕 쫓그만헌 구덕 ㄴ튼 거나.(요만큼 그 저기 그 채롱 채롱 말고 구덕 자그마한 구덕 같은 거나.)

106022 #4 소코리 소코리.(소쿠리 소쿠리.)

106022 @ 예. 소코리에 헤네.(예. 소쿠리에 해서.)

106022 #4 욱지 소코리 만든 거.(욕지 소쿠리 만든 거.)

106022 @ 예. 종이 블라근에.(예. 종이 발라서.)

106022 #4 예.(예.)

106022 @ 종이덜 막 그 가시리 췌근에 종이 블라근에.(종이들 마구 그 가사리 췌서 종이 발라서.)

106022 #4 예.(예.)

106022 @ 톱 놔뒀다근에 쓰거나 해나지 않읍디가?(톱 놓아두었다가 쓰거나 했지 않았습니까?)

106022 #4 아이고 우린.(아이고 우리는.)

106022 @ 바농쌘지.(바늘쌘지.)

106022 #4 저 저 불란 해어나진 안 혀고.(저 저 발라서 해보는지는 않고.)

106022 @ 예.(예.)

106022 #4 바농쌘지라고 헨 거 육지 사름덜 폴레 와서민 허민 그것도 우린 돈 엇이 난 안 헛수다게 놈이 부자칩 강 보면은 소쿠리 장시 보면.(바늘쌘지라고 해서 거 육지 사람들 팔러 왔으면 하면 그것도 우린 돈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 남의 부잣집 가서 보면 소쿠리 장사 보면.)

106022 @ 부자칩.(부잣집.)

106022 #4 바농쌘지 험십니께.(바늘쌘지 하고 있습니다.)

106022 @ 예.(예.)

106022 #4 게민 저걸 막 속으로 흐고 싶으면은 돈 쯔금 어디 가서 구해여지면은 그 거 사고 경 엇이민.(그러면 저걸 매우 속으로 하고 싶으면 돈 조금 어디 가서 구해지면 그거 사고 그렇게 없으면.)

106022 @ 경 안 허면.(그렇게 안 하면.)

106022 #4 엇이민 엇인데로.(없으면 없는대로.)

106022 @ 주멩기 만드아근에.(주머니 만들어서.)

106022 #4 예.(예.)

106022 @ 주멩기에.(주머니에.)

106022 #4 예.(예.)

106022 @ 놔근에.(넣어서.)

106022 #4 놔근에.(넣어서.)

106022 @ 어떻 만듭니까? 네모나게 형겍헤근에.(어떻게 만듭니까? 네모나게 형겍해서.)

106022 #4 아 거 돼는데로 네모나게 그냥 게 험니다게.(아 거 되는데로 네모나게 그냥 합니다.)

106022 @ 영 행 톱 허게?(이렇게 해서 톱 하게?)

106022 #4 예예.(예예.)

106022 @ 그다음 빙글빙글허게, 막 허영? 감앙예.(그다음 빙글빙글하게, 마구 해서? 감아서요.)

106022 #4 빙글빙글 막 감앙.(빙글빙글 마구 감아서.)

106022 @ 예예.(예예.)

106022 #4 예. 경 행.(예. 그렇게 해서.)

106022 @ 그걸 뒤편 굴읍니까?(그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6022 #4 그냥 이거 바놓 허는 거.(그냥 이거 바늘 하는 거.)  
 106022 @ 주맹기?(주머니?)  
 106022 #4 주맹기엔 험네께. 바놓.(주머니라고 합니다 바늘.)  
 106022 @ 바놓주맹기?(바늘주머니?)  
 106022 #4 예예.(예예.)  
 106022 @ 예예.(예예.)  
 106022 #4 예. 주머니.(예. 주머니.)  
 106022 @ 주머니 말고 주맹기? 바놓주맹기?(주머니 말고 주머니? 바늘주머니?)  
 106022 #4 주맹기 주맹기는 사투리고.(주머니 주머니는 사투리고.)  
 106022 @ 계난 사투리.(그러니까 사투리.)  
 106022 #4 예. 주맹기.(예. 주머니.)  
 106022 @ 우리 우도 말로.(우리 ‘우도’ 말로.)  
 106022 #4 예.(예.)  
 106022 @ 이 우도 말 소섬말로예.(이 ‘우도’ 말 ‘우도’ 말로.)  
 106022 #4 예. 경 험 헤낫수다.(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06022 @ 그리고 단추 떨어지면 단추를 돌아야 뿔 거난.(그리고 단추 떨어지면 단추를 달아야 될 거니까.)  
 106022 #4 예.(예.)  
 106022 @ 그거를 잘 저기 경 해도 잘 잇인디 봐사 거 좇아기네 또 달곡 험 거난.(그거를 잘 저기 그래도 잘 있는데 봐야 거 찾아서 도 달고 할 거니까.)  
 106022 #4 허허.(허허.)  
 106022 @ 아이덜이라도.(아이들이라도.)  
 106022 #4 아 그런 미싱 상자에라도 놓던지 무신 소코리세끼 해근에 놓던지.(아 그런 재봉틀 상자에라도 놓던지 무슨 소쿠리새끼 해서 놓던지.)  
 106022 @ 아.(아.)  
 106022 #4 바놓쌍지에 놔므로.(바늘쌈지에 넣으므로.)  
 106022 @ 계난 미싱 잇일 때는.(그러니까 재봉틀 있을 때는.)  
 106022 #4 예.(예.)  
 106022 @ 그거 딱 뿔 건디.(그거 딱 뿔 건데.)  
 106022 #4 예.(예.)  
 106022 @ 미싱에 딱 놓고예.(재봉틀에 딱 놓고요.)  
 106022 #4 예.(예.)  
 106022 @ 예.(예.)  
 106022 #4 그 미싱은 나 젊은 때 헛수다게.(그 재봉틀은 나 젊은 때 했습니다.)  
 106022 @ 예.(예.)  
 106022 #4 아이들 한 옷 줄여주젠 허난 바놓질을 못허니까.(아이들 한 옷 줄여주려고 하니까 바느질을 못하니까.)

106022 @ 예.(예.)

106022 #4 저 성기 잡아가지고 미싱허고.(저 성게 잡아가지고 재봉틀하고.)

106022 #1 돈 좀 벌어진만에 미싱 상 허난 지금 저기 잇을 게여.(돈 좀 벌어진니까 재봉틀 사서 하니까 지금 저기 잇을 거야.)

106022 @ 예.(예.)

106022 #4 게 이제도 잇수다 미싱.(그럼 이제도 있습니다 재봉틀.)

106022 @ 예.(예.)

106022 #1 이제도 가끔 합니다.(이제도 가끔 합니다.)

106022 @ 예.(예.)

106022 #4 거 이제도 바쁜 때는 그걸로 옷도 주어고.(거 이제도 바쁜 때는 그걸로 옷도 줘고.)

106022 @ 예.(예.)

106022 #4 만듬도 허고.(만들기도 하고.)

106022 @ 응.(응.)

106022 #4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세상 갈 시간이 가까와가지고.(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세상 갈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106022 @ 예.(예.)

106022 #1 허허.(허허.)

106023 @ 삼촌 바느질 하는 방법 잇지 안우파예?(삼촌 바느질 하는 방법 잇지 않습니까요?)

106023 #4 예.(예.)

106023 @ 바느질도 그냥 두 개 부처근에 그냥 저기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거 잇고.(바느질도 그냥 두 개 붙여서 그냥 저기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거 잇고.)

106023 #4 응.(응.)

106023 @ 저기.(저기.)

106023 #4 이것이 바느질이면.(이것이 바늘이면.)

106023 @ 예.(예.)

106023 #4 육지 사람이면 이렇게 심어서 바느질 험네께.(육지 사람이면 이렇게 잡아서 바느질 합니다.)

106023 @ 예.(예.)

106023 #4 예.(예.)

106023 @ 이렇게 심어예.(이렇게 잡아서요.)

106023 #4 예.(예.)

106023 @ 이렇게 봐근예?(이렇게 봐서요?)

106023 #4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허는디.(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하는 데.)

106023 @ 예.(예.)



106023 #4 욕지 사름덜은 똑 이렇게 심어마썸.(욕지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잡아요.)  
 106023 @ 예예.(예예.)  
 106023 #4 아 것도 우리 욕지 텅겨난 아는디 경 헤네.(아 것도 우리 욕지 다녀서 아는데 그래서.)  
 106023 @ 예예.(예예.)  
 106023 #4 이렇게 헨 것이 조음네다게.(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6023 @ 예.(예.)  
 106023 #4 이렇게 이렇게 헤근예예.(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106023 @ 예.(예.)  
 106023 #4 이렇게 이렇게 헤근넵에 우리 제줏식이고.(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제주의 식이고.)  
 106023 @ 예.(예.)  
 106023 #4 예 요렇게 썸는 건 욕지식이고.(예 요렇게 세우는 건 욕지의 식이고.)  
 106023 @ 욕지식이고.(욕지의 식이고.)  
 106023 #4 예.(예.)  
 106023 @ 거문 이거 허멍 앞으로 가 평평 평평하게 멘짜 허게 앞으로 가는 것도 잇곡 바농 잡아근에 영.(그러면 이거 하면서 앞으로 가 편편 편편하게 맨들 하게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바늘 잡아서 이렇게.)  
 106023 #4 뒤으로 가는 것도 잇고.(뒤로 가는 것도 있고.)  
 106023 @ 뒤으로 가는 것도 잇고.(뒤로 가는 것도 있고.)  
 106023 #4 예. 그렇게.(예. 그렇게.)  
 106023 @ 또 이 이거 한번 감춰근에 가는 것도 잇고.(또 이 이거 한번 감춰서 가는 것도 잇고.)  
 106023 #4 예.(예.)  
 106023 @ 응.(응.)  
 106023 #4 감창 가는 것도 잇곡 뒤으로 가는 것도.(감춰서 가는 것도 잇고 뒤로 가는 것도.)  
 106023 @ 뒤으로 가는 거.(뒤로 가는 거.)  
 106023 #4 다 저저 그것 굴아 나도 잃어먹었수다게 뒷 바농질 허는.(다 저저 그것 보고 나도 잃어먹었습니다 뒷 바느질 허는.)  
 106023 @ 뒷 바농질 허는.(뒷 바느질 하는.)  
 106023 #4 뒷 바농질 혼다 흐는 거고.(뒷 바느질 한다 하는 거고.)  
 106023 @ 앞으로 그냥 이렇게.(앞으로 그냥 이렇게.)  
 106023 #4 이렇게 이렇게 흐는.(이렇게 이렇게 호는.)  
 106023 @ 이렇게 이렇게 흐는?(이렇게 이렇게 호는?)  
 106023 #4 흐는 거라 헤 흐는.(호는 거라 헤 호는.)  
 106023 @ 흐는 거렌 흐고.(호는 거라고 하고.)

106023 #4 예.(예.)

106023 @ 이 영.(이 이렇게.)

106023 #4 감추는 건 흘체기라고 하고.(감추는 건 흘치기라고 하고.)

106023 @ 흘체기라고 하고예.(흘치기라고 하고요.)

106023 #4 예.(예.)

106023 @ 예. 아이고 삼춘.(예. 아이고 삼춘.)

106023 #4 하하.(하하.)

106023 #1 하하하하.(하하하하.)

106023 @ 아이.(아이.)

106023 #4 예?(예?)

106023 @ 좋수다예.(좋습니다요.)

106023 #4 예.(예.)

106023 @ 그렇게 그 말을 듣고정 해네 해신디예. 삼춘.(그렇게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요 삼춘.)

106023 #4 예.(예.)

106023 @ 역시나.(역시나.)

106023 #4 그렇게 해서 많이 잊어버수다게 어느 제.(그렇게 해서 많이 잊어버렸습니  
다 어느 제.)

106023 @ 예. 경허고 삼춘.(예. 그렇고 삼춘.)

106023 #4 예.(예.)

106023 @ 바지 허젠 허면예.(바지 하려고 하면요.)

106023 #4 예.(예.)

106023 @ 하지만 두 개만 이거 허젠 허면 약허지 안습니까?(하지만 두 개만 이거 하  
려고 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106023 #4 예.(예.)

106023 @ 젠디 이거를 한 번 둥그려근예.(그런데 이거를 한 번 둥글려서.)

106023 #4 예.(예.)

106023 @ 이렇게 해근예 영 저기.(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106023 #4 예.(예.)

106023 @ 저기.(저기.)

106023 #4 그치록 험네다.(그처럼 합니다.)

106023 @ 바지를 만들지예?(바지를 만들지요?)

106023 #4 예.(예.)

106023 @ 게 이런 이런 거를 뭐렌 험니까?(그럼 이런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106023 #4 뭐 그자 감 감추는 거라고 허주게.(뭐 그저 감 감추는 거라고 하주.)

106023 @ 감추는 거렌 험니까?(감추는 거라고 합니까?)

106023 #4 예.(예.)

106023 @ 계난 하나 놓고 영 해근에 감아.(그러니까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감아.)

106023 #4 예.(예.)

106023 @ 감좌근에?(감추어서?)

106023 #4 예.(예.)

106023 @ 옛날에는 바지 남자덜이 그 바지 입을 때 보면 그거 그 옷감허고 옷감 사이 잇은 거가 든든해야.(옛날에는 바지 남자들이 그 바지 입을 때 보면 그거 그 옷감하고 옷감 사이 이은 것이 든든해야.)

106023 #4 예.(예.)

106023 @ 저기.(저기.)

106023 #4 으.(오.)

106023 @ 흘터지지 안으난예. 술이 안 해지난.(흘어지지 않으니까요 살이 안 해지니까.)

106023 #4 계난 그거를 감추는 바농질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꼬아가는 것도 잇는디 ‘수다’. 아 저 나도 잇어먹엇수다게. 이녁 바농질 해나도 송당송당<sup>241)</sup> 감추라 허는 건 감추고 도 뭇.(그러니까 그거를 감치는 바느질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꼬아가는 것도 잇는데 ‘수다’, 아 저 나도 잇어버렸습니다. 이녁 바느질 했어도 ‘송당송당’ 감치라 하는 건 감치고 도 뭇.)

106023 @ 춤 춤.(춤 춤.)

106023 #4 뭇 뭇 뭇바농질 허라는 건 뭇바농질<sup>242)</sup> 허고.(뭇 뭇 반박음질 하라는 건 반박음질 하고.)

106023 @ 뭇바농질허고.(반박음질하고.)

106023 #4 예. 경 험 해엇수다게 나 잘 몰르쿠다게.(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106023 @ 예.(예.)

106023 #4 예.(예.)

106023 @ 게 옷감은 영 몰아근에?(그럼 옷감은 이렇게 말아서?)

106023 #4 예.(예.)

106023 @ 흔 번 감추어근에예.(한 번 감쳐서요.)

106023 #4 예. 몰아근에.(말아서요.)

106023 @ 예.(예.)

106023 #4 감추영 험네께게.(감쳐서 합니다요.)

106023 @ 예.(예.)

## 옷 종류

241) ‘송당송당’은 제보자가 바느질 할 때 바늘땀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242) ‘뭇바농질’은 제보자가 반박음질을 말한다.

106024 @ 예. 삼촌 남자 옷 종류에 대해서 혼 번 알아줘봅서.(예. 삼촌 남자 옷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말해줘 주십시오.)

106024 #4 예?(예?)

106024 @ 남자 옷.(남자 옷.)

106024 #4 오.(오.)

106024 @ 남자 옷은 어떤 옷들이 옛날에 지금 마라근에.(남자 옷은 어떤 옷들이 옛날에 지금 마라서.)

106024 #4 옛날에 남자 옷은 이 쓰봉<sup>243</sup>이나 한복이나 그게 문젱주.(옛날에 남자 옷은 양복바지나 한복이나 그것이 문제죠.)

106024 @ 예. 거 한복으로.(예. 거 한복으로.)

106024 #4 한복으로게 중이라고 험네다.(한복으로 중의라고 합니다.)

106024 @ 중이.(중의.)

106024 #4 아랫 바지는 중이라고 험네다.(아래에 바지는 중의라고 합니다.)

106024 @ 중이.(중의.)

106024 #4 예.(예.)

106024 @ 우에 꺼는?(위의 거는?)

106024 #4 우에 꺼는 적삼.(위의 거는 적삼.)

106024 @ 적삼.(적삼.)

106024 #4 예.(예.)

106024 @ 또 우에 입는 거는? 두루막?(도 위에 입는 거는? 두루마기?)

106024 #4 쪼기.(조끼.)

106024 @ 쪼기.(조끼.)

106024 #4 예.(예.)

106024 @ 쪼기 우에는 뭐 입습니까?(조끼 위는 뭐 입습니까?)

106024 #4 쪼기 우에는 입는 거 엇는디.(조끼 위에는 입는 거 없는데.)

106024 @ 예.(예.)

106024 #4 예.(예.)

106024 @ 나중에 제사 헐 때나 뭐 헐 때나 후르메 입고?(나중에 제사 할 때나 뭐 할 때나 두루마기 입고?)

106024 #4 쪼기 우에는 입는 거는 그 저 절헐 때 입는 거는 그 저 적삼이라고 험니께게.(조끼 위에는 입는 거는 그 저 절할 때 입는 거는 그 저 적삼이라고 합니다.)

106024 @ 저고리?(저고리?)

106024 #4 예.(예.)

106024 @ 저고리예.(저고리요.)

106024 #4 예.(예.)

106024 @ 예. 큰.(예. 예.)

---

243) ‘쓰봉’은 제보자가 하는 일본어 발음(zubon)인 양복바지를 말한다.

106024 #4 여름에 적삼.(여름에 적삼.)  
 106024 @ 예.(예.)  
 106024 #4 겨울에 저고리.(겨울에 저고리.)  
 106024 @ 저고리에.(저고리요.)  
 106024 #4 예.(예.)  
 106024 @ 경 겨곡 웨출복으로 큰옷 입을 때는?(그렇게 그리고 외출복으로 큰옷 입을 때는?)  
 106024 #4 후르메.(두루마기.)  
 106024 @ 후르메예.(두루마기요.)  
 106024 #4 두르메기엔 험니께.(두루마기라고 합니다.)  
 106024 @ 두르메기엔예.(두루마기라고요.)  
 106024 #4 두르메기엔 해.(두루마기라고 해.)  
 106024 @ 예.(예.)  
 106024 #4 예.(예.)  
 106024 @ 그제 우리는 여기는.(그제 우리는 여기는.)  
 106024 #1 이기는 두르메긴디.(여기는 두루마기인데.)  
 106024 @ 옛날에 후르메.(옛날에 두루마기.)  
 106024 #1 두르메기엔 해.(두루마기라고 해.)  
 106024 #4 후르메.(두루마기.)  
 106024 @ 우도 말은예?(우도말은요?)  
 106024 #4 후르메.(두루마기.)  
 106025 @ 여자 옷에 데해서 곁아줍서 옛날 그.(여자 옷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옛날 그.)  
 106024 #4 이이 여자 옷에 데해는 건 돈 그때 시절에는.(이이 여자 옷에 데해는 건 돈 그때 시절에는.)  
 106025 @ 처음에.(처음에.)  
 106024 #4 돈 잇인 사람은 뭐 것ㄴ라 코도 코도 사다가 한복 우이 입어나헤고.(돈 잇는 사람은 뭐 것보고 코트 코트 사다가 한복 위 입었나헤고.)  
 106025 @ 응.(응.)  
 106024 #4 그거는 아무나 안헤고.(그거는 아무나 앓고.)  
 106025 @ 예. 그거는 안헤고.(예. 앓고.)  
 106024 #4 막 부자칩이 돈이나 한 사름허고.(매우 부잣집에 돈이나 많은 사름하고.)  
 106025 @ 예.(예.)  
 106024 #4 일반으론 그런 옷 입은 사름 엇입니다.(일반으로는 그런 옷 입은 사름 없습니다.)  
 106025 @ 예.(예.)  
 106024 #4 부자칩이.(부잣집에.)

106025 @ 예. 삼촌네 어릴 적에는 그 적삼 바지 해가지고 입곡예. 여기 통 터지고 고무줄 놔기네예.(예. 삼촌네 어릴 적에는 그 적삼 바지 해가지고 입고요 여기 통 터지고 고무줄 놔서요.)

106025 #4 예. 고무 낱 입고.(예. 고무 넣어서 입고.)

106025 @ 우에는?(위에는?)

106025 #4 몸빼라고 허지 뭐.(일바지라고 하지 뭐.)

106025 @ 몸빼는 단추 일허게 흐끔 허고 적삼 닳은 건디 단추 놔근예.(일바지는 단추 이렇게 조금 하고 적삼 닳은 건데 단추 넣어서.)

106025 #4 오.(오.)

106025 @ 어릴 적에 처녀 때는?(어릴 적에 처녀 때는?)

106025 #4 그것ㄴ라 뭐엔 흐는디 뭐 쪼개 멘들앙 입어신가?(그것보고 뭐라고 하는지 뭐 쪼개 만들어서 입었는가?)

106025 @ 쪼끼?(쪼끼.)

106025 #4 사쓰엔 흐는 거?(셔츠라고 하는 거?)

106025 @ 사쓰?(셔츠?)

106025 #4 모르크라.(모르겠어.)

106025 @ 사쓰 안 허고 그냥.(셔츠 않고 그냥.)

106025 #4 오.(오.)

106025 @ 우에는?(위는?)

106025 #4 오.(오.)

106025 @ 여자들도 우에 적삼이엔 험니까?(여자들도 위는 적삼이라고 합니까?)

106025 #4 적삼이엔 ㄴ라.(적삼이라고 말해.)

106025 @ 적삼이엔 해근예예.(적삼이라고 해서요.)

106025 #4 쪼끼라고 험 거는 이 사츠 메는 건 이제 그 남저ㄴ치.(쪼끼라고 한 거는 이 셔츠 메는 건 이제 그 남자같이.)

106025 @ 응.(응.)

106025 #4 그 그런 건 이름 안 지왕 그냥 쪼끼 쪼끼적삼이엔 험네게게.(그 그런 건 이름 안 지엇 그냥 쪼끼 쪼끼적삼이라고 합니다.)

106025 @ 응.(응.)

106025 #4 아 몰르कु다 난 그런 건만 압니께 쪼끼적삼.(아 모르겠습니다 난 그런 건만 압니다 쪼끼 쪼끼적삼.)

106025 @ 예.(예.)

106025 #4 예.(예.)

106025 @ 예. 치메 결혼할 때는 뭐 치메 입곡예.(예. 치마 결혼할 때는 뭐 치마 입고요.)

106025 #4 치마게.(치마.)

106025 @ 속바지입고.(속바지입고.)

106025 #4 예.(예.)  
 106025 @ 속치메입고.(속치마입고.)  
 106025 #4 속치메입곡 걸치메입곡.(속치마입고 걸치마입고.)  
 106025 @ 걸치메입곡.(걸치마입고.)  
 106025 #4 예.(예.)  
 106025 @ 그다음에는 이 속에 저고리 속에 입는 거 적삼입곡.(그다음에는 이 속에 저고리 속에 입는 거 적삼입고.)  
 106025 #4 적삼입곡 저고리 벗기 더 입습니까?.(적삼입고 저고리 밖에 더 입습니까?)  
 106025 @ 저고리 벗기예.(저고리 밖예요.)  
 106025 #4 예.(예.)  
 106025 @ 예. 그렇게 벗긴예.(예. 예. 그렇게 밖에는요.)  
 106025 #4 그렇게 벗긴엔 안 해놔수다게.(그렇게 밖에는 안 했습니다.)  
 106025 @ 예.(예.)  
 106026 @ 아이덜 옷은? 그 옛날에 삼촌네 어릴 적에 입어난 그.(아이들 옷은? 그 옛날에 삼촌네 어릴 적에 입었던 그.)  
 106026 #4 아이덜 옷은.(아이들 옷은.)  
 106026 @ 그냥 바지저고리 허곡 우에.(그냥 바지저고리 하고 위에.)  
 106026 #4 아 그때 당신 아이덜 이 한복으로 맨글앙 입지는 아녜수다.(아 그때 당시는 아이들 이 한복으로 만들어서 입지는 않았습시다.)  
 106026 @ 그냥 바지 우아기?(그냥 바지 겹옷?)  
 106026 #4 예. 그런 거 우아기 사단 입지주.(예. 그런 거 겹옷 사다가 입히지.)  
 106026 @ 예.(예.)  
 106026 #4 그런 거 만들앙 입는 아긴 엇어수다.(그런 거 만들어서 입는 아기는 없었습니다.)  
 106026 @ 예.(예.)  
 106026 #4 아무리 못살아도.(아무리 못살아도.)  
 106026 @ 예.(예.)  
 106026 #1 응.(응.)  
 106026 #4 그 시절에도.(그 시절에도.)  
 106027 @ 예. 삼촌 옷을 그때 남자삼촌 옷을 만들아난 그 과정에 데해서예.(예. 삼촌 옷을 그때 남자삼촌 옷을 만들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요.)  
 106027 #4 예.(예.)  
 106027 @ 옷을 그 사람 길이 딱.(옷을 그 사람 길이 딱.)  
 106027 #4 예.(예.)  
 106027 @ 그 길이에 맞게 옷감을 낵.(그 길이에 맞게 옷감을 놓아서.)  
 106027 #4 예. 돌르지.(예. 마르지.)  
 106027 @ 돌르는데 허면은 그.(마른다고 하면 그.)

106027 #4 이 그 본 옷이 입는 거 엇이민 이 치수를 자로 잰니께게.(이 그 본 옷이 입는 거 없으면 이 치수를 자로 잰니다.)

106027 @ 자로 쟁예.(자로 재요.)

106027 #4 자로 제영 키에 맞춰가지고.(자로 재여서 키에 맞추어가지고.)

106027 @ 키에 맞춰가지고 팔라근예.(키 맞추어가지고 잘라서.)

106027 #4 딱르 그런 옷이 잇이면 그것이 맞아나면은 그 옷 놔서.(따로 그런 옷이 있으면 그것이 맞으면 그 옷 놓아서.)

106027 @ 그 옷 놔서.(그 옷 놓아서.)

106027 #4 둘랑 험니께게.(말라서 합니다.)

106027 @ 경 행 물르면은 이견 이것테로 이견 이것 데로 해근예.(그렇게 해서 마르면 이견 이것대로 이견 이것대로 해서.)

106027 #4 예.(예.)

106027 @ 그거에 맞게.(그거에 맞게.)

106027 #4 예예.(예예.)

106027 @ 바농질을 해근예예.(바느질을 해서요.)

106027 #4 바농질을 합니다.(바느질을 합니다.)

106027 @ 경 허당 손바농질 헐 땀 경 헛주만은 이제 미싱 저 재봉틀 잇일 땀 그냥 다르룩 해가지고?(그렇게 하자가 손바느질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재봉틀 저 재봉틀 있을 땀 그냥 다르룩 해가지고?)

106027 #4 예.(예.)

106027 @ 헛구나예.(했군요.)

106027 #4 뭐 이렇게 허다가 재봉틀 사 오민 그거 혼.(뭐 이렇게 하다가 재봉틀 사서 하면 그거 한.)

106027 #1 재봉틀 해 온 후로 한복 멘들아 보진 안 헛수다.(재봉틀 해 온 후로 한복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시다.)

106027 #4 멧 번 안 입언에 이.(멧 번 안 입어서 이.)

106027 #1 산 입엇주.(사서 입엇지.)

106027 #4 이 새 시대 나오난.(이 새 시대 나버리니까.)

106027 #1 한복헤네 재봉틀.(한복해서 재봉틀.)

106027 #4 양복 산 입엇주.(양복 사서 입엇지.)

106027 #1 요 근레사 저 재봉틀 사부난에 한복 안 멘들아 뵈수다.(요 근래야 저 재봉틀 사니까 한복 안 만들어 보았습시다.)

106027 #4 그때ㄱ장도 어둑은 시절이랏수다게.(그때까지도 어두운 시절이었습시다.)

106027 @ 예.(예.)

106027 #4 예.(예.)

106027 @ 경 해도 옷도 만들앙 안네고예?(그렇게 해도 옷도 만들어서 드리고요?)

106027 #4 만들앙.(만들어서.)



106027 @ 예.(예.)  
 106027 #4 옷은 달라만 주민.(옷은 말라서만 주면.)  
 106027 @ 예.(예.)  
 106027 #4 만드아낫수다게.(만들었었습니다.)  
 106028 @ 그 바지에, 바지, 저고리, 치마, 바지 이 밑에 거를예. 뭐렌헤신고예? 옛날 예?(그 바지에, 바지, 저고리, 치마, 바지 이 밑에 거를요 뭐라고 했는가요? 옛날요?)  
 106028 #4 으.(으.)  
 106028 @ 삼촌네 남자바지 헐 때는 이.(삼촌네 남자바지 항 때는 이.)  
 106028 #4 바자마.(파자마.)  
 106028 @ 바자만데 이 곳에 밑에 이 멘 아래 잇는 거.(파자마인데 이 끝에 밑에 이 멘 아래 잇는 거.)  
 106028 #4 멘 아래 잇는 거는 어.(멘 아래 잇는 거는 어.)  
 106028 @ 허리는 그냥 허리엔 헐 거고.(허리는 그냥 허리라고 할 거고.)  
 106028 #4 예.(예.)  
 106028 @ 예.(예.)  
 106028 #4 허리엔 허곡.(허리라고 하고.)  
 106028 @ 허리.(허리.)  
 106028 #4 허리엔 허고.(허리라고 하고.)  
 106028 @ 이거는? 바지통?(이거는? 바지통?)  
 106028 #4 바지통.(바지통.)  
 106028 @ 이건?(이거는?)  
 106028 #4 하만<sup>244)</sup> 고라 통이엔 허고.(‘하바’보고 바지통이라고 하고.)  
 106028 @ 이건? 하만이엔.(이거는? ‘하바’라고.)  
 106028 #1 아렌 아래 단이엔 헤신가? 단?(아래는 아래 단이라고 했는가? 단?)  
 106028 #4 예?(예?)  
 106028 #1 단이엔 헤나신가? 단?(단이라고 했었는가? 단?)  
 106028 #4 아이 단이엔 혼 건 아이고.(아니 단이라고 한 건 아니고.)  
 106028 #1 단이엔 곱쳐근에 허는 건 단이엔 헤나신가?.(단이라고 곱쳐서 하는 건 단 이라 했었는가?)  
 106028 #4 이거 이렇게 곱으는 거.(이거 이렇게 곱치는 거.)  
 106028 #1 아래 단.(아래 단.)  
 106028 #4 단이라고.(단이라고.)  
 106028 @ 이건 단이엔 허고.(이건 단이라고 하고.)  
 106028 #1 단.(단.)  
 106028 @ 바지 이렇게.(바지 이렇게.)  
 106028 #4 이렇게 이거 허는 거는 하바<sup>245)</sup>라고 허고.(이렇게 이거 하는 거는 ‘하바’

244) ‘하만’은 ‘제보자가 ‘하바’(はば)를 말하는데 일본어로 너비의 폭(幅)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하고.)

106028 @ 이건 하바엔 허고.(이건 ‘하바’라고 하고.)

106028 #4 응.(응.)

106028 @ 이거 영 무껍 바지해기네 헐 때 이기.(이거 이렇게 묶어서 바지해서 할 때  
여기.)

106028 #4 그건 그건 몰르쿠다 그건.(그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106028 @ 그냥 아니고예.(그냥 아니고요.)

106028 #4 다님이엔 헐 거난 난 그거.(대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난 그거.)

106028 @ 다님이엔 헐 거 말고예.(대님이라고 하는 거 말고요.)

106028 #4 응.(응.)

106028 @ 이데 이 데는 허리 허고예?(이데 이 데는 허리 하고예?)

106028 #4 허리.(허리.)

106028 @ 허고 이 데는 여기.(하고 이 데는 여기.)

106028 #4 그 길이.(그 길이.)

106028 @ 길이허고예.(길이하고요.)

106028 #4 예.(예.)

106028 @ 이 데는? 이.(이 데는? 이.)

106028 #4 갓<sup>246</sup> 이거는 품.(갓 이거는 품.)

106028 @ 이거는 품.(이거는 품.)

106028 #4 예.(예.)

106028 @ 예. 이 거는? 이.(예. 이 거는? 이.)

106028 #4 이.(이.)

106028 @ 이 거 또 무슨? 뭐.(이 거 또 무슨? 뭐.)

106028 #4 이거는 길이 허고.(이거는 길이 하고.)

106028 @ 길이 하고예.(길이 하고요.)

106028 #4 풀이나 길이.(팔이나 길이.)

106028 @ 길이에.(길어요.)

106028 #4 그거베키 몰르쿠다.(그거밖에 모르겠습니다.)

106028 @ 여기는? 목?(여기는? 목?)

106028 #4 으.(으.)

106028 @ 여기 무시거렌 험니까? 옛날에.(여기 무엇이라고 험니까? 옛날에.)

106028 #4 이거는 목 가는데.(이거는 목 가는데.)

106028 @ 여기는? 예. 목? 뒷목이고.(여기는? 예. 목? 뒷목이고.)

106028 #4 예.(예.)

106028 @ 으.(으.)

---

245) ‘하바’는 제보자가 일본어로 (はば) 너비의 폭(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246) ‘갓’은 제보자가 ‘깃’을 잘못 한 말이다.

106028 #4 그거 나 그거벧기 몰르कु다게.(그거 나 그거밖예 모르겠습니까.)  
 106028 @ 예. 그냥 아는 데로마씨게.(예. 그냥 아는 대로요.)  
 106028 #4 으.(으.)  
 106028 @ 예. 이것도 참 이것도.(예. 이것도 참 이것도.)  
 106028 #4 젠디 이런 사투리를 머 허젠 적아 감수파?(그런데 이런 사투리를 뭐 하려고 적어 갑니까?)  
 106028 @ 게난 여기 사투리를 알젠 허난예.(그러니까 여기 사투리를 알려고 하니까.)  
 106028 #1 여 여기는.(여 여기는.)  
 106028 @ 게난마씨게.(그러니까요.)  
 106028 #1 농촌에는 농촌을.(농촌에는 농촌을.)  
 106028 @ 예.(예.)  
 106028 #1 연구허는 사름이주게.(연구하는 사람이지.)  
 106028 @ 이거.(이거.)  
 106028 #1 농촌예 풍습이나 옷이나 풍습이나.(농촌에는 풍습이나 옷이나 풍습이나.)  
 106028 #4 요센양 양복 이런 학생덜 문짝, 옷집이 강 다 해 와부난예 부모들은 신경 안 쓸굽디게.(요새는요 양복 이런 학생들 전부, 옷집에 가서 다 해 와버리니까 부모들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106028 @ 예.(예.)  
 106028 #4 예.(예.)  
 106028 @ 치마는, 치마예 이 우리 저고리 치마예?(치마는, 치마예 이 우리 저고리 치마요?)  
 106028 #4 예.(예.)  
 106028 @ 저고리 치마는 여기는 여기는 팔? 소매? 여기는? 뭇엔 험니까?(저고리 치마는 여기는 여기는 팔? 소매? 여기는?)  
 106028 #4 소미 소미.(‘소미’ ‘소미’.)  
 106028 @ 여기 소미, 여기는?(여기 ‘소미’, 여기는?)  
 106028 #4 여기는 이제 저 하바 이 저 여기를 하바리고.(여기는 이제 저 ‘하바’ 이 저 여기를 ‘하바’이고.)  
 106028 @ 하바고예?(‘하바’고요?)  
 106028 #4 예.(예.)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1 하반 건 일본말인디.(‘하바’는 것은 일본말인데.)  
 106028 @ 예. 일본말예.(예. 일본말요.)  
 106028 #1 예.(예.)  
 106028 #4 아 이제 일본말을 많이 씬수다게.(아 이제 일본말을 많이 씬니다.)  
 106028 #1 하바 일본말.(‘하바’ 일본말.)  
 106028 @ 예.(예.)

106028 #4 일본말이 이거는? 이거는?(일본말이 이거는? 이거는?)

106028 @ 이거는? 이거는? 짓? 짓? 짓이엔 험니까? 짓이엔 험니까?(이거는? 이거는? 짓이라고 험니까? ‘짓’이라고 험니까?)

106028 #4 저고리는 짓이엔 허는데 이런 옷은 머라고 허는 지는게.(저고리는 ‘짓’이라고 하는데 이런 옷은 무엇이라고 하는 지는.)

106028 @ 게난 저고리는?(그러니까 저고리는?)

106028 #4 예.(예.)

106028 @ 예.(예.)

106028 #4 저고리 짓이엔 허고.(저고리는 짓이라고 하고.)

106028 @ 저고리 짓이엔 허고예.(저고리는 짓이라고 하고요.)

106028 #4 예.(예.)

106028 @ 이 등에는?(이 등에는?)

106028 #4 그거는 길이.(그거는 길이.)

106028 @ 길이?(길이?)

106028 #4 품.(품.)

106028 @ 품 품.(품 품.)

106028 #4 이거는 품.(이거는 품.)

106028 @ 이거는 고름이고.(이거는 고름이고.)

106028 #4 이거도 기레, 길이.(이거도 길이, 길이.)

106028 @ 길이 길이고.(길이 길이고.)

106028 #4 손, 길이엔 허고.(손, 길이라고 하고.)

106028 @ 이거는?(이거는?)

106028 #4 예.(예.)

106028 @ 이거는, 이 저고리 곶은?(이거는, 이 저고리 곶은?)

106028 #4 곶을 곶이엔 험네께 저고리 곶.(곶을 곶이라고 합니다 저고리 곶.)

106028 @ 저고리 곶예.(저고리 곶요.)

106028 #4 예.(예.)

106028 @ 저고리 곶 허고.(저고리 곶하고.)

106028 #4 예.(예.)

106028 @ 이것도 짓이엔.(이것도 짓이라고.)

106028 #4 이건 예리엔 허고.(이건 짓이라고 하고.)

106028 @ 예리? 동전?(짓? 동전?)

106028 #4 예. 동전.(예. 동전.)

106028 @ 동전 허고예.(동전 하고요.)

106028 #4 짓 짓.(짓 짓.)

106028 @ 짓.(짓.)

106028 #4 짓 우이 동전을 드니까.(짓 위에 동전을 다니까.)

106028 @ 짓 우이 동전을 단다예.(짓 위에 동전을 단다요.)

106028 #4 예.(예.)

106028 @ 예.(예.)

106028 #4 짓이엔 흐곡 동전이엔 흐는 거예.(짓이라고 하고 동전이라고 하는 거요.)

106028 @ 예. 치마 치마는 이데 가슴에 영 두르는 거는? 요기는?(예. 치마 치마는 이데 가슴에 이렇게 두르는 거는? 요기는?)

106028 #4 허리 허리.(허리 허리.)

106028 @ 이거는 허리에.(이거는 허리요.)

106028 #4 예.(예.)

106028 @ 그 다음 끈이고예?(그 다음 끈이고요?)

106028 #4 예. 끈이고(예. 끈이고.)

106028 @ 경하고 맨 밑에 이거는?(그렇고 맨 밑에 이거는?)

106028 #4 길이.(길이.)

106028 @ 길이엔 허고예(길이라고 하고요.)

106028 #4 예.(예.)

106028 @ 요 곳에 곳에 것도.(요 끝에 끝에 것도.)

106028 #4 예.(예.)

106028 @ 치마각이엔 험니까? 각이엔 현 거 잇수과?(치맛자락이라고 합니까? 꼬트머리라고 한 거 있습니까?)

106028 #4 각이엔 흐지 아녀고 이딴 거ㄴ라 하바엔 흐는디 품이엔 홉니께.(꼬트머리라고 하지 않고 이데 거보고 ‘하바’라고 하는데 품이라고 합니다.)

106028 @ 예.(예.)

106028 #4 너비가 얼마가 돼느냐?(너비가 얼마가 되느냐?)

106028 @ 예. 치마, 우리 저고리치마 혈 때 치마.(예. 치마, 우리 저고리치마 할 때 치마.)

106028 #4 치마 혈 때?(치마 할 때?)

106028 @ 예.(예.)

106028 #4 이 품?(이 품?)

106028 @ 예.(예.)

106028 #4 치마는 야.(치마는 야.)

106028 @ 밑에 있는 거.(밑에 있는 거.)

106028 #4 치마는 품이라고 아니형 그냥.(치마는 품이라고 안 해서 그냥.)

106028 @ 길이엔 험니까?(길이라고 합니까?)

106028 #4 이게.(이것.)

106028 @ 기레기?(길이?)

106028 #4 기레기만 마주민 세 두 폭 반을 부치는 걸 겨우다.(길이만 맞추면 세 두 폭 반을 붙이는 겁니다.)

106028 @ 응.(응.)  
 106028 #4 치마를 하바가.(치마를 ‘하바’가.)  
 106028 @ 예. 하바엔 허곡.(예. ‘하바’라고 하고.)  
 106028 #4 예.(예.)  
 106028 @ 품이엔 허고.(품이라고 하고.)  
 106028 #4 예. 품이엔 허고(예. 품이라고 하고.)  
 106028 @ 예.(예.)  
 106028 #4 하바엔도 허는디.(‘하바’라고도 하는데.)  
 106028 @ 하바엔 허고.(‘하바’라고 하고.)  
 106028 #4 예.(예.)  
 106028 @ 기레기.(길이.)  
 106028 #4 길이 길이.(길이 길이.)  
 106028 @ 기레기.(길이.)  
 106028 #4 길이.(길이.)  
 106028 @ 기레기예?(길이요?)  
 106028 #4 예.(예.)  
 106028 @ 예. 삼춘 보선?(예. 삼춘 버전?)  
 106028 #4 어?(어?)  
 106028 @ 보선은 이거 다 알지예?(버전은 이거 다 알지요?)  
 106028 #4 응.(응.)  
 106028 @ 영 허면은 이견? 이거는 뭐엔 험니까? 이거는?(이렇게 하면 이견? 이거는 뭐라고 험니까? 이거는?)  
 106028 #4 뒤치기.(뒤축.)  
 106028 @ 뒤치기.(뒤축.)  
 106028 #4 예.(예.)  
 106028 @ 그다음 이거는?(그다음 이거는?)  
 106028 #4 건 하바<sup>247</sup>라고 허지 너비라고.(건 ‘하바’라고 하지 너비라고.)  
 106028 @ 예.(예.)  
 106028 #4 하바여엔 허는 사름은 일본말이 거든.(‘하바’라고 하는 사름은 일본말이 거든.)  
 106028 @ 예.(예.)  
 106028 #4 너비엔 말이.(너비라는 말이.)  
 106028 @ 너비엔 불이엔도 험니까?(너비라는 불이라고도 험니까?)  
 106028 #4 품이엔 험네께, 품.(품이라고 합니다, 품.)  
 106028 @ 품?(품?)  
 106028 #4 예. 품.(예. 품.)

---

247) ‘하바’는 제보자가 일본어로 ‘はば’ 너비의 폭(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106028 @ 예. 이것도 품.(예. 이것도 품.)  
 106028 #4 품이라고.(품이라고.)  
 106028 @ 여기 이렇게 허는 거.(여기 이렇게 하는 거.)  
 106028 #4 예.(예.)  
 106028 @ 여기 짹 오는 거는? 여기에.(여기 짹 오는 거는? 여기에)  
 106028 #4 거는 그것도 품이라고 허지 그것에 마추와 가지고.(거는 그것도 품이라고 하지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106028 @ 여기에 보선예. (여기에 버선요.)  
 106028 #4 예. 보선.(예. 버선.)  
 106028 @ 이렇게 놔근예.(이렇게 놔서.)  
 106028 #4 하바 허지 하바.(‘하바’ 하지 ‘하바’.)  
 106028 @ 예.(예.)  
 106028 #4 하바라고 해여근예.(‘하바’라고 해서.)  
 106028 @ 넓어 저.(넓어 저.)  
 106028 #4 넓고 좁은 거는 이 품이 얼마만큼이 많으냐.(넓고 좁은 거는 이 품이 얼마만큼이 많으냐.)  
 106028 @ 으.(으.)  
 106028 #4 경 이것에 짹 쥼니께.(그렇게 이것에 짹 쥼니다.)  
 106028 @ 으.(으.)  
 106028 #4 제어가지고 보선을 돌립니다.(제어가지고 버선을 마릅니다.)  
 106028 @ 으.(으.)  
 106028 @ 게민 요거.(그러면 요거.)  
 106028 #4 자 놔가지고(자 놓아가지고.)  
 106028 @ 여기 앞에 뽀쪽 나온 거는?(여기 앞에 뽀쪽 나온 거는?)  
 106028 #4 길이 길이.(길이 길이.)  
 106028 @ 앞에 나온.(앞에 나온.)  
 106028 #4 아 길이 요건.(아 길이 요건.)  
 106028 @ 뽀쪽 나온 거는?(뽀쪽 나온 거는?)  
 106028 #4 요건.(요건.)  
 106028 @ 길이고.(길이고.)  
 106028 #4 길이고게.(길이고게.)  
 106028 @ 여기 앞에 뽀쪽 나온 거는?(여기 앞에 뽀쪽 나온 거는?)  
 106028 #4 으.(으.)  
 106028 @ 보선코?(버선코?)  
 106028 #4 코이라고.(코라고.)  
 106028 @ 앞에 여기 앞에.(앞에 여기 앞에.)  
 106028 #4 헐 수벳기 없어.(할 수밖에 없어.)

106028 @ 보선이라면 여기 쪼짝 나온 거 잊지 안우파?(버선이라고 여기 ‘쪼짝’ 나온 거 있잖습니까?)

106028 #4 코라고.(코라고.)

106028 @ 예. 코렌 허지예?(예. 코라고 하지요?)

106028 #4 예. 그기.(예. 거기.)

106028 @ 예. 여기 보선 불이고.(예. 여기 보선 불이고.)

106028 #4 그거벧기 몰라.(그거밖에 몰라.)

106028 @ 뒤치기 헝고.(뒤축 하고.)

106028 #4 으.(오.)

106028 @ 예. 여기 요만큼 올라오난예.(예. 여기 요만큼 올라오니까요.)

106028 #4 으. 길이주. 길이.(오. 길이지. 길이.)

106028 @ 길이허고예.(길이하고요.)

106028 #4 예.(예.)

106029 @ 삼춘 단추, 단추예.(삼춘 단추, 단추요.)

106029 #4 응.(응.)

106029 @ 단추 이름덜 알아지쿠과? 큰 거 작은 거?(단추 이름들 알아지겠습니까? 큰 거 작은 거?)

106029 #4 저 단추.(저 단추.)

106029 @ 와이셔츠 단추 뭐.(와이셔츠 단추 뭐.)

106029 #4 나 그건 몰라.(나 그건 몰라.)

106029 @ 예.(예.)

106029 #4 사, 와이사쓰 집이 강 와이사쓰 단추 집이 가민 남저 와이사쓰에 들 거엔 허민 거기서 알앙 주는 벧기.(사, 와이셔츠 집에 가서 와이셔츠 단추집에 가면 남자 와이셔츠에 달 거라고 하면 거기서 알아서 주는 밖에.)

106029 @ 알앙 주는 벧기 예.(알아서 주는 밖에 예.)

106029 #4 몰르쿠다 그거벧기.(모르겠습니다 그거밖에.)

106029 @ 예.(예.)

106029 #4 잘.(잘.)

106029 @ 단추에 데헤서.(단추에 대해서.)

106029 #4 단추 집이 강 그런 거 폴렌 허민 폴아주영 상오는 벧기.(단추 집에 가서 그런 거 팔라고 하면 팔아주어서 사서오는 밖에.)

106029 @ 예.(예.)

106029 #4 예.(예.)

106029 @ 아이고 삼춘 고맙수다.(아이고 삼춘 고맙습니다.)

## 재단과 염색



106030 @ 삼촌, 옷은예. 옷이 옛날에 옷 만들 때, 물옷도 만들곡 헛주만은 일옷도 만들고 게 여점 어디 뻗기디 가젠 허면은 옷 출령 입젠 허면은 옷도 만들곡 그 옛날에.(삼촌, 옷은요. 옷이 옛날에 옷 만들 때, 물옷도 만들고 헛지만은 일옷도 만들고 그럼 임시 어디 바깥에 가려고 하면은 옷 차려서 입으려고 하면은 옷도 만들고 그 옛날에.)

106030 #5 으. 두르메기.(으. 두루마기.)

106030 @ 예예.(예예.)

106030 #5 두르막 ㄴ쁜 거 만들어.(두루마기 같은 거 만들어.)

106030 @ 예예.(예예.)

106030 #5 그 바지 ㄴ쁜 거 만들어.(그 바지 같은 거 만들어.)

106030 @ 예. 만들곡 또.(예. 만들고 또.)

106030 #5 저고리 ㄴ쁜 거 만들어.(그 바지 같은 거 만들어.)

106030 @ 예. 또 빨래할 때는 또 다 저.(예. 또 빨래할 때는 다 ㅈ.)

106030 #5 빨래할 떡엔 그땐 비누도 잘 아니나면은 조 갈아난 조침나무 불 슬아나면 그런 거 해서 물 받쳐서 젓물로 거.(빨래할 적에는 그땐 비누도 잘 안 나면은 조 갈아난 조침나무 불 살려나면 그런 거 해서 물 받쳐서 젓물로 거.)

106030 @ 젓물로 빨아근예.(젓물로 빨아서요.)

106030 #5 으.(으.)

106030 @ 저기.(저기.)

106030 #5 경 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106030 @ 두들기도 허곡.(두드리기도 하고.)

106030 #5 막 빨래할 떡엔 저 방멩이로 가서 통<sup>248</sup>)에 가서 그냥 두드리멍.(마구 빨래할 적에는 저 방망이로 가서 ‘통’에 가서 그냥 두드리면서.)

106030 @ 두들려근예.(두드려서.)

106030 #5 빨고.(빨고.)

106030 @ 빨고 또 저기.(빨고 또 저기.)

106030 #5 또 감옷도 허면은 감 메기<sup>249</sup>)면은 막 저 영 폐와서 그냥 저 아침마다 이제 물에 적지면서 발레여사 빨강허메.(또 감옷도 하면은 감 ‘메기’면은 마구 저 이렇게 퍼서 그냥 저 아침마다 이제 물에 적지면서 바래어야 빨개져.)

106030 @ 예. 경 예. 경 허면은 그거를 다시 또 저기 옷을 만들젠 허면은 다 뜯어근에 저.(예. 그렇게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저기 옷을 만들려고 하면 다 뜯어서 저.)

106030 #5 아니 기지로 머 광목ㄴ쁜 거나 머 베 ㄴ쁜 거나허면 기지로 허면 그걸 다 끈어서 만들지.(아니 기지로 뭐 광목같은 거나 뭐 베 같은 거나하면 기지로 하면 그걸 다 끊어서 만들지.)

106030 @ 만들어근예 또예.(만들어서 또요.)

106030 #5 으.(으.)

248) ‘통’은 우도면에 소재한 장소다.

249) ‘메기다’는 ‘칠하다’에 대응한다.

106030 @ 그거 해난 다음에 또 다시 뜰어근에 다시 또 저기.(그거 해난 다음에 또 다시 뜰어서 다시 또 저기.)

106030 #5 따시 뜰어근에 또 빨아근에.(다시 뜰어서 또 빨아서.)

106030 @ 빨아근에.(빨아서.)

106030 #5 따듬이 해서 멍지 ㄴ쁜 건 따듬이 해서 이제 걸 하여 낚다가 따시 바느질 해서 이제 다 만들어서 입고.(다듬이 해서 명주 같은 건 다듬이 해서 이제 그걸 해서 낚다가 다시 바느질해서 이제 다 만들어서 입고.)

106030 @ 삼촌 다듬이도, 다듬이돌도 있어났수과?(삼촌 다듬이도, 다듬이돌도 있었습니까?)

106030 #5 다듬이돌 우리 집에 있어요.(다듬이돌 우리 집에 있어요.)

106030 @ 아, 그거는.(아, 그거는.)

106030 #5 다듬이 방망이 영 두드리는 거.(다듬이 방망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

106030 @ 예. 방망이.(예. 방망이.)

106030 #5 있어요.(있어요.)

106030 @ 그거는 어디서 샅다가?(그거는 어디서 샅습니까)

106030 #5 거 건 거시기 만들어서 그자 폭는디 팔면은 그거 사 온 거지.(거 것은 거시기 만들어서 그저 파는데 팔면은 그거 사 온 거지.)

106030 @ 옛날에도 있어나신가마씨?(옛날에도 있었습니까요?)

106030 #5 옛날에 그것이 있어요.(옛날에 그것이 있어요.)

106030 @ 다듬이돌이?(다듬이돌이?)

106030 #5 다듬이돌이.(다듬이돌이.)

106030 @ 제주말로.(제주말로.)

106030 #5 아니 돌로도 있고.(아니 돌로도 있고.)

106030 @ 으.(으.)

106030 #5 이거 나무로.(이거 나무로.)

106030 @ 아, 낭으로?(아, 나무로?)

106030 #5 나무.(나무.)

106030 @ 낭으로예.(나무로요.)

106030 #5 나무로게.(나무로.)

106030 @ 으, 계난 나무는 무슨 거엔 험니까?(으, 그러니까 나무는 무슨 거라고 합니까?)

106030 #5 뭇 남산디 몰라도 남은 막 썩썩한 남이니까 그것에서 그냥 다듬이 막게해서 그냥 놓아서 거 그리에.(뭇 나무인지 몰라도 나무는 막 썩썩한 나무니까 그것에서 그냥 다듬이 방망이해서 그냥 놓아서 거 그리로.)

106030 @ 어 그거 허곡 이 이 저 마께는?(어 그거 하고 이 이 저 방망이는?)

106030 #5 마께 계난 다듬이 마께 영.(방망이 그러니까 다듬이 방망이 이렇게.)

106030 @ 다듬이 마께예.(다듬이 방망이요.)

106030 #5 으.(으.)

106030 @ 다듬이 마께예.(다듬이 방망이요.)

106030 #5 다 있어요 우리.(다 있어요 우리.)

106030 @ 예예.(예예.)

106030 #5 으.(으.)

106030 @ 삼촌, 요 하지 말고, 이수다. 잇저 경 곱읍서.(삼촌, 요 하지 말고 있습니다. 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106030 #5 으.(으.)

106030 @ 우리 제주말로 잇저 해근에 경 곱읍서.(우리 제주말로 있다 해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106030 #5 으.(으.)

106030 @ 우리 제주말만 헐 거난.(우리 제주말만 할 거니까.)

106030 #5 어?(어?)

106030 @ 제주말만, 이거 무사냐민예. 제주도말만 연구허는 거라부니까. 있어요. 하지 말앙 삼촌 옛날에 물질허레 가나부니까. 요. 헛주게예? 예. 경 허난예.(제주말만, 이거 왜냐하면요. 제주도말만 연구하는 거라서 있어요. 하지 말아서 삼촌 옛날에 물질하러 갔어버려서. 요. 했지요? 예. 그러니까요.)

106030 #5 으.(으.)

106030 @ 잇저 해근에 제주말로 곱읍서 나헌티예.(있다 해서 제주말로 말하십시오 나한테요.)

106030 #5 으.(으.)

106030 @ 경 허민예.(그러면요.)

106030 #5 게 무시거 안해근에 어디 간만이를.(그럼 무엇 앓아서 어디 간만큼을.)

106030 @ 우리가 이거 그것만.(우리가 이거 그것만.)

106030 #5 으.(으.)

106030 @ 그냥 제주말로예.(그냥 제주말로요.)

106030 #5 으.(으.)

106030 @ 그 경 해근에예. 게민 그추록 해근에 뵈아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그 바농 끼와근에.(그 그래서요. 그러면 것처럼 해서 뵈아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그 바늘 끼워서.)

106030 #5 바농 끼왕 만들야.(바늘 끼워서 만들어.)

106030 @ 만들영 입영예.(만들어서 입어요.)

106030 #5 으.(으.)

106030 @ 두르마기건 적삼이건.(두루마기건 적삼이건.)

106030 #5 으.(으.)

106030 @ 그건.(그건.)

106030 #5 다 만들야.(다 만들어.)

106030 @ 멍지도 멍지도예.(명주도 명주도요.)

106030 #5 으.(으.)

106030 @ 멍지허젠 허면은 멍지 이.(명주하려고 하면 명주 이.)

106030 #5 아니 이 그거 빨아서 풀 해가지고.(아니 이 그거 빨아서 풀 해가지고.)

106030 @ 예.(예.)

106030 #5 다듬이 마께해서 막 물리는 거지.(다듬이 방망이해서 마구 말리는 거지.)

106030 @ 예.(예.)

106030 #5 두드리면서 이.(두드리면서 이.)

106030 @ 예.(예.)

106030 #5 두드리면서.(두드리면서.)

106030 @ 아. 두드리멍 물리멍예.(아, 두드리면서 말리멍서요.)

106030 #5 으.(으.)

106030 @ 예. 경 허면은(예. 그렇게 하면.)

106030 #5 경 물리면 옷은 따시 추석 때라 돼어 가민 문들아 입지곡.(그렇게 말리면 옷은 다시 추석 때가 되어 가면 만들어 입히고.)

106030 @ 문들앙 입정예.(만들어 입혀서요.)

106030 #5 으.(으.)

106030 @ 아, 게민 거는 아이덜토 경 헤저신가예?(아, 그러면 거는 아이들도 그렇게 해졌는가요?)

106030 #5 아이덜토 저 멍질 거시기 허면은 그 저 머 옛날은 소게.(아이들도 저 멍질 거시기 하면은 그 저 뭐 옛날은 숨.)

106030 @ 예.(예.)

106030 #5 소게 놓고덜 이젠 막 저 머 거시기 해도, 소게 놔근에 안 팟들로 행 저 데 싸근에 소게 놔사 뜨시게 입 입영 아기덜토 텡기곡.(숨 넣고들 이젠 마구 저 뭐 거시기 해도, 숨 넣어서 안 밖으로 해서 저 뒤집어서 숨 넣어야 따뜻하게 입 입어서 아기들도 다니고.)

106030 @ 기지예.(그렇지요.)

106030 #5 으.(으.)

106030 @ 예, 경 행 소게 놓으면은 그거를 소게 사이를 또 저기.(예, 그렇게 해서 숨 넣으면 그거를 숨 사이를 또 저기.)

106030 #5 또 틈을 떡에는 따시 빼어서 그 소게 낫다가 이제.(또 뜯을 적에는 다시 빼서 그 소 놓았다가 이제.)

106030 @ 으.(으.)

106030 #5 허고 경 아녀면은 또 커 가면은 막 따시 다른 걸로 해서 이제 거시기 면 네소게덜.(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커 가면은 마구 다시 다른 걸로 해서 이제 거시기 면 화 숨들.)

106030 @ 면네 소게 허곡예. 면네 소게.(면화 숨 하고요. 면화 숨.)

106031 @ 삼촌 명지도 물 들어 납디가?(삼촌 명주도 물 들었습니까?)

106031 #5 멍진 물들인 것덜 사오지 머.(명주 물들인 것들 사오지 뭐.)

106031 @ 물들인 거 사오고예.(물들인 거 사오고요.)

106031 #5 으.(으.)

106031 @ 물들이는 거는 어떤 것덜 물들입니까?(물들이는 거는 어떤 것들 물들입니까?)

106031 #5 아 저 초록색 그든 거 다 옛날엔 죽어가 죽으면 입을 저 거시기 장옷.(아 저 초록색 같은 거 다 옛날엔 죽어가 죽으면 입을 저 거시기 장옷.)

106031 @ 예. 장옷예.(예. 장옷요.)

106031 #5 장옷 만들쟁 허문 빨간 거허곡 노랑 거허곡 저 거시기 파란 거.(장옷 만들려고 하면 빨간 거하고 노랑 거하고 저 거시기 파란 거.)

106031 @ 파란 거허곡 해근예.(파란 거하고 해서.)

106031 #5 세 가지.(세 가지.)

106031 @ 세 가지 해근예예. 거문.(세 가지해서요. 그러면.)

106031 #5 으.(으.)

106031 @ 그거를 저.(그거를 저.)

106031 #5 바느질로 다 허주.(바느질로 다 하지.)

106031 @ 으, 바느질로 허곡.(으, 바느질로 하고.)

106031 #5 으.(으.)

106031 @ 거 엇일 땐 어떻 푸는 거 엇인 땐 어떻 헤신고예?(거 없을 땐 어떻게 파는 거 없을 땐 어떻게 했는가요?)

106031 #5 으?(으?)

106031 @ 물들인 거 집이서 물들여야 될 거 아닌가요?(물들인 거 집에서 물들여야 될 거 아닌가요?)

106031 #5 집이서 물은 안 들어 보곡.(집에서 물은 안 들어 보고.)

106031 @ 안 들어 보곡.(안 들어 보고.)

106031 #5 으.(으.)

106031 @ 옛날 어른덜은 어머니네는?(옛날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106031 #5 아니 그런 걸 다 그 거시기 물들인 걸 사다가.(아니 그런 걸 다 그 거시기 물들인 걸 사다가.)

106031 @ 사다가 헛구나예. 예.(사다가 했군요. 예.)

106031 #5 으.(으.)

106031 @ 게민 물들인 거는 감 뺏기 엇인게예?(그러면 물들인 거는 감 밖에 없네요?)

106031 #5 저 이 디서 메긴 건 감.(저 이 데서 ‘메긴’ 건 감.)

106031 @ 감예.(감요.)

106031 #5 감 사다가 그 도구리.(감 사다가 그 함지박.)

106031 @ 예.(예.)

106031 #5 옛날 영 도구리 그것에 마개로 막 빠져가꼬.(옛날 이렇게 함지박 그것에 방망이로 마구 빔어가지고.)

106031 @ 빠져근에예.(빔어서요.)

106031 #5 으.(으.)

106031 @ 예. 경해근에 물 흐끔 서꺼근에.(예. 그렇게 해서 물 조금 섞어서.)

106031 #5 겨문 막 영 옷에 막 해서.(그러면 마구 이렇게 못에 마구 해서.)

106031 @ 미처근에 그거 허젠 허민 멧 번 미처 저기.(묻혀서 그거 하려고 하면 몇 번 묻혀 저기.)

106031 #5 아니 혼 번에 해 놓면은 자꾸 그걸 저 물 적저서 그 네영 저영헌디 내여 불면은.(아니 한 번에 해 놓으면 자꾸 그걸 저 물 적저서 그 내어서 저런데 내어버리면.)

106031 @ 으.(으.)

106031 #5 발아서 그 빨강허지.(바래서 그 빨강지.)

106031 @ 빨강허영예.(빨개서요.)

106031 #5 으.(으.)

106031 @ 그거 헐 때쫘은 언제쫘 멧 월 들 쫘 나민?(그거 할 때쫘은 언제쫘 몇 월 달 쫘 나면?)

106031 #5 아니 이제 이제.(아니 이제 이제.)

106031 @ 이제.(이제.)

106031 #5 이제 감 올앗시니까 이제 타다가.(아니 이제 감 열었으니까 이제 따다가.)

106031 @ 아.(아.)

106031 #5 으.(으.)

106031 @ 이 여름에예.(이 여름에요.)

106031 #5 으.(으.)

106031 @ 여름에 해가지고예.(여름에 해가지고요.)

106031 #5 으.(으.)

106031 @ 그축룩 허민 무시것덜 무시것덜 허코예?(그처럼 하면 무엇들 무엇들 할까요?)

106031 #5 아니 감옷 멘들앙 다시 적삼이멍 중이덜 이닌 바지 남저덜토 바지로 입곡 여저 그 거시기 굴중이.(아니 감옷 만들어서 다시 적삼이며 중의들 이런 바지 남자들도 바지로 입고 여자 그 거시기 홀바지.)

106031 @ 굴중이 입곡예.(홀바지 입고요.)

106031 #5 으.(으.)

106031 @ 그축룩 허곡.(그처럼 하고.)

106031 #5 으.(으.)

106031 @ 경허면 그거가 하키여예.그거 미녕에도 들이곡.(그러면 그것이 많겠어요 그

거 무명에도 들이고.)

106031 #5 미녕에도 들이곡 광목에도 들이곡.(무명에도 들이고 광목에도 들이고.)

106031 @ 광목에도 들이곡예.(광목에도 들이고요.)

106031 #5 으.(으.)

106031 @ 옷 흔 번허민 멧 년 입어서쿠다예.(옷 한 번하면 몇 년 입었겠습니까요.)

106031 #5 그거 허면은게 으라 게 허면은게, 멧 년 입다가 터지민 잡아들러 데껴두곡 또 다른 거 해다가.(그거 하면은 여러 개 하면은, 몇 년 입다가 터지면 집어 들어서 던져두고 또 다른 거 해다가.)

106031 @ 다른 거 해당 허곡예.(다른 거 해다가 하고요.)

106031 #5 으.(으.)

106031 @ 애기털토 그추룩헌 거 입젓이곡.(애기들도 것처럼 한 거 입혔고.)

106031 #5 으.(으.)

106031 @ 그 옷을 입어사 일 허레도 갈 거예?(그 옷을 입어야 일 하러도 갈 거요?)

106031 #5 아 거 감옷 ㄱ쁜 건 입어서 밧디 강 여름 때민 밧디 가민 것 입어사 혀.  
(아 거 감옷 같은 건 입어서 밧에 가서 여름 때면 밧에 가면 것 입어야 해.)

106031 @ 입어사 해여예.(입어야 해요.)

106031 #5 으.(으.)

106031 @ 더웁 살 수가 엇엇 톱 차근에예.(더워서 살 수가 없어서 땀 차서요.)

106031 #5 으.(으.)

106031 @ 그거 빨 땀 어떻 빨아신고예?(그거 빨 땀 어떻게 빨았을까요?)

106031 #5 빨 때 그냥게 물에 강 빨아불민 따시 그 널민 거시기 허는 거.(빨 때 그냥 물에 가서 빨아버리면 다시 그 널면 거시기 하는 거.)

106031 @ 삼촌, 여기서 빨래는 허레는 어디 가근에.(삼촌, 여기서 빨래는 하려는 어디 가서.)

106031 #5 아, 통.(아, 통.)

106031 @ 물 받아근에?(물 받아서?)

106031 #5 아니 통이 잇어.(아니 통이 있어.)

106031 @ 통?(통?)

106031 #5 빨래허는 통.(빨래하는 통.)

106031 @ 어, 어느 쪽에 잇수파?(어, 어느 쪽에 있습니까?)

106031 #5 아, 통 다 메워져불영 이제 지금.(아, 통 다 메워져버렸어 이제 지금.)

106031 @ 아, 메워진 디는 이 동네 어디 어디 이수파?(아, 메워진 데는 이 동네 어디 어디 있습니까?)

106031 #5 아, 올로 올라 가면은.(아, 요리로 올라 가면은.)

106031 @ 예. 올라가는 디 이십디다.(예.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106031 #5 저 중앙더레 올라가는 디 요디 올라가면은.(저 중앙으로 올라가는 데 요데 올라가면.)

106031 @ 예.(예.)

106031 #5 그디 뭐 저 거시기 새왓덜 신 것들 논 무시거 씨레기 논 거시기.(거기 뭐 저 거시기 떠발들 있는 것들 그 놓은 무엇 쓰레기 놓은 거시기.)

106031 @ 예.(예.)

106031 #5 그 그디가 통 두 겔 두 개씩이랏지 저 행급는 거 잇고.(그 거기가 통 두 개를 두 개씩이었지 저 행구는 거 잇고.)

106031 @ 예.(예.)

106031 #5 저 무신 거 뺀는 딴 그자 막 굿인 거 빨아 놓곡 또 물 떠와서 이제 행과서 웃.(저 무슨 거 빼는 데는 그저 막 굿은 거 빨아 놓고 또 물 떠와서 이제 행귀서 웃.)

106031 @ 아 행구는.(아 행구는.)

106031 #5 으.(으.)

106031 @ 디 따로 잇고.(데 따로 잇고.)

106031 #5 으.(으.)

106031 @ 거길 물통이엔 해수파?(거기를 물통이라고 했습니까?)

106031 #5 으. 물통.(으. 물통.)

106031 @ 물통.(물통.)

106031 #5 으.(으.)

106031 @ 게민 동네사람도 거기 강.(그러면 동네사람도 거기 가서.)

106031 #5 으. 거기 박서방통<sup>250</sup>이엔 현 통이라.(으. 거기 ‘박서방통’이라고 한 통이야.)

106031 @ 박서방통이엔.(‘박서방통’이라고.)

106031 #5 으. 박서방통이고.(‘박서방통’이고.)

106031 @ 예.(예.)

106031 #5 저기 중앙더레 올라가는 딴 거긴 양방통<sup>251</sup>이고.(저기 중앙으로 올라가는 데는 거긴 ‘양방통’이고.)

106031 @ 양방통이고.(‘양방통’이고.)

106031 #5 양방.(‘양방’.)

106031 @ 양방?(‘양방’?)

106031 #5 양방통이고.(‘양방통’이고.)

106031 @ 양방통이고.(‘양방통’이고.)

106031 #5 으.(으.)

106031 @ 게민 여기서는 천진동에서는 박서방통에 가네.(그러면 여기서는 ‘천진동’에서는 ‘박서방통’에 가서.)

106031 #5 빨레허곡.(빨래하고.)

---

250) ‘박서방통’은 우도면 천진리에 소재한 곳이다.

251) ‘양방통’은 우도면 천진리에 소재한 곳이다.



106031 @ 예.(예.)

106031 #5 또 물 질어다 먹는 건 우리 각시물통<sup>252</sup>)에.(또 물 질어다 먹는 건 우리 ‘각시물통’에.)

106031 @ 예.(예.)

106031 #5 물 질어다 먹고.(물 질어다 먹고.)

106031 @ 각시물통에 가근에 물 질어다 먹고.(각시물통에 가서 물 질어다 먹고.)

106031 #5 또 그디 저 우엿 사름덜은 양방통에 강 물 질어다 먹고.(또 거기 저 위에 사람들은 ‘양방통’에 가서 물 질어다 먹고.)

106031 @ 양방통 가근에 물 질어다 먹고.(‘양방통’ 가서 물 질어다 먹고.)

106031 #5 으.(으.)

106031 @ 각시물통은 막 컷수꽈? 물이?(‘각시물통’은 매우 컷습니까? 물이?)

106031 #5 각시물통은 영 크멍 말멍 얼마 크진 안혀.(‘각시물통’은 이렇게 크면서 말면서 얼마 크지는 않아.)

106031 @ 경해도 물이 골라앗아시난예.(그래도 물이 가라앗았으니까요.)

106031 #5 으.(으.)

## 신발

106032 @ 삼촌 옷은 경허고 신발 옛날에.(삼촌 옷은 그렇고 신발 옛날에.)

106032 #5 으.(으.)

106032 @ 신발 허젠 허민 신 종류가? 고무신 나오기 전에?(신발 하려고 하면 신 종류가? 고무신 나오기 전에?)

106032 #5 고무신 나오기 전에 초신덜 신고.(고무신 나오기 전에 짚신들 신고.)

106032 @ 초신예. 초신덜 신고.(짚신요. 짚신들 신고.)

106032 #5 으.(으.)

106032 @ 또 비 오젠 허민.(또 비 오려고 하면.)

106032 #5 아 옛날에게 일본시대에게 저 거시기 게다 신언네 뎡기고 뭐 헤노난.(아 옛날에 일본시대에 저 거시기 왜나막신 신어서 다니고 뭐 했으니까.)

106032 @ 게다 신고.(왜나막신 신고.)

106032 #5 게다 신고.(왜나막신 신고.)

106032 @ 게난 고무신 나오기 전에는 초신 신고?(그러니까 고무신 나오기 전에는 짚신 신고?)

106032 #5 으.(으.)

106032 @ 저기 나무로 나막신?(저기 나무로 나막신?)

106032 #5 으.(으.)

106032 @ 게다.(왜나막신.)

---

252) ‘가기물통’은 우도면 천진리에 소재한 곳이다.

106032 #5 게다.(왜나막신.)  
 106032 @ 게다 허고.(왜나막신 하고.)  
 106032 #5 으.(으.)  
 106032 @ 게다 전에는 남자.(왜나막신 전에는 남자.)  
 106032 #5 남자덜은 그 남신도 나막신 으.(남자들은 나막신 나막신 으.)  
 106032 @ 으. 남신예?(으. 나무신요?)  
 106032 #5 나막신.(나막신.)  
 106032 @ 나막신.(나막신.)  
 106032 #5 으.(으.)  
 106033 @ 가족신도 신어근에 텅겨난 사름도 잇엇실거우다 가족신.(가족신도 신어서  
 다녔던 사람도 있었을겁니다 가족신.)  
 106033 #5 으.(으.)  
 106033 @ 가족신.(가족신.)  
 106033 #5 가족신 신은 건 건 못 보고.(가족신 신은 건 못 보고.)  
 106033 @ 못 보고?(못 보고?)  
 106033 #5 으.(으.)  
 106033 @ 예.(예.)  
 106034 @ 그 남신은? 나막신 만드는 거 봐 낚디가?(그 나막신은? 나막신 만드는 거  
 보았습니까?)  
 106034 #5 아 남신 만드는 거 저 거시기 허는 디서 푸는 거. 사름덜이 잇이난게 멘들  
 어.(아 나막신 만드는 거 저 거시기 하는 데서 파는 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106034 @ 멘들어근에.(만들어서.)  
 106034 #5 만들아.(만들어.)  
 106034 @ 이 동네서도예.(이 동네에서도요.)  
 106034 #5 으.(으.)  
 106034 @ 이 동네도 잇어낫지예?(이 동네도 있었지요?)  
 106034 #5 이 동네 그런 거 엇고.(이 동네 그런 거 없고.)  
 106034 @ 예.(예.)  
 106034 #5 다 큰 거 섬에서?(다 큰 거 섬에서?)  
 106034 @ 으.(으.)  
 106034 #5 으.(으.)  
 106034 @ 게민 장에 강은예.(그러면 장에 가서.)  
 106034 #5 으, 큰섬<sup>253)</sup>에서 이 디는 그런 거시 엇고.(으, ‘큰섬’에서 이 데는 그런 것  
 이 없고.)  
 106034 @ 으.(으.)  
 106034 #5 이제난 막 발달똥서 사름이 많이 사는 거 ㄴ치 허지. 옛날은 저 집을 뒀

253) ‘큰섬’은 제주도 본섬을 말한다.

이 디 흐나 저 디 흐나 저 옛날 집덜이 컷이멍 살안.(이제니까 매우 발달돼서 사람이 많이 사는 거 같이 하지. 옛날은 저 집을 뭐 이 데 하나 저 데 하나 저 옛날 집들이 지으면서 살았어.)

106034 @ 으.(으.)

106035 @ 삼촌 초신 만드는 거, 봐놔지예?(삼촌 짚신 만드는 거, 보았었지요?)

106035 #5 으.(으.)

106035 @ 무시거 무시거 준비 해당 만들어신고예?(무엇 무엇 준비 해다가 만들었는가요?)

106035 #5 그 거시기 저 뵈고 그 이 저 어웁에 허면 그 미<sup>254</sup> 님은 거.(그 거시기 저 무엇 그 이 저 억새에 하면 ‘미’ 님은 거.)

106035 @ 예.(예.)

106035 #5 그거 해다가 세끼 꼬왕.(그거 해다가 새끼 꼬아서.)

106035 @ 세끼 꼬왕.(새끼 꼬아서.)

106035 #5 으.(으.)

106035 @ 세끼 풀 때 물 흐끔 뿌리멍?(새끼 풀 때 물 조금 뿌리면서.)

106035 #5 영 마께로 흐끔 두드리민 흐쉴 부드로왔어.(이렇게 방망이로 조금 두드리면 조금 부드러웠어.)

106035 @ 예.(예.)

106035 #5 으.(으.)

106035 @ 예. 경 해근에 그걸로 미로 해다근예?(예. 그렇게 해서 그걸로 ‘미’로 해다가?)

106035 #5 세끼 꼬와근예.(새끼 꼬아서.)

106035 @ 으.(으.)

106035 #5 놀<sup>255</sup> 그 저 흐쉴 질기게 함으로.(놀 그 저 조금 질기게 함으로.)

106035 @ 예.(예.)

106035 #5 그 초신 삼는다.(그 짚신 삼는데.)

106035 @ 예.(예.)

106035 #5 으.(으.)

106035 @ 그게 어웁이엔 험니까?(그게 억새라고 험니까?)

106035 #5 어웁 어웁 님은 거.(억새 님은 거.)

106035 @ 예예.(예예.)

106035 #5 그거 영 해다근에 그.(그거 이렇게 해다가 그.)

106035 @ 응.(응.)

106035 #5 으.(으.)

106035 @ 그게 미 아니꽈?(그게 ‘미’ 아닙니까?)

254)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255) ‘놀’은 노로 짚신을 만들 때 짚신바닥에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는 굵은 줄을 말한다.

106036 @ 계난 초신허게 뉘면 초신도, 그 초신만 잇는 게 아니라 미투리도 이실거고.(그러니까 쥔신하게 되면 쥔신도, 그 쥔신만 잇는 게 아니라 미투리도 잇을 거고.)

106036 #5 아니 그거 헤영은에게 그 저 무슨 삼 님은 거헤영근에 율이 부치는 거 였기.(아니 그거 해서 그 저 무슨 삼 님은 거해서 옆에 붙이는 거 여기.)

106036 @ 부쩌근에.(붙여서.)

106036 #5 미로 혼 건 앞이.('미'로 한 건 앞에.)

106036 @ 앞이 질에기예.(앞에 길이요.)

106036 #5 지레기 영 마촐근에.(앞에 길이 이렇게 마추어서.)

106036 @ 예예.(예예.)

106036 #5 지레기 삼꼬 그.(길이 삼고.)

106036 @ 예.(예.)

106036 #5 그 삼 헤영근에 영 헤영근에 이런 그 바우에<sup>256)</sup> 다 그런 겐로.(그 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가장자리에 다 그런 겐로.)

106036 @ 삼으로 헤영근에 영.(삼으로 해서 이렇게.)

106036 #5 응 꼬아진 거.(응 꼬아진 거.)

106036 @ 꼬아진 겐로 헤가지고 영 돌앙 허고예?(꼬아진 겐로 헤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하고요?)

106036 #5 응.(응.)

106036 @ 그 초신도, 그 초신만 잇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말도 잇지 안우파?(그쥔신도, 그 쥔신만 잇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말도 잇지 않습니까?)

106036 #5 응?(응?)

106036 @ 뭘 미투리여 무슨 그런 초신이엔만 헤수파?(뭘 미투리여 무슨 그런 쥔신이 라고만 했습니까?)

106036 #5 아, 초신만 우린 그런 것들만 허주 다른 건 안 보고.(아, 쥔신만 우린 그런 것들만 하지 다른 건 안 보고.)

106036 @ 예.(예.)

## 모자 등

106037 @ 삼촌 머리에 쓰는 거예.(삼촌 머리에 쓰는 거요.)

106036 #5 응.(응.)

106037 @ 머리에 쓰는 거 그 모자 우린 모자엔 허는디.(삼촌 머리에 쓰는 거 그 모자 우린 모자라고 하는데.)

106036 #5 응.(응.)

106037 @ 그 옛날엔 그 페랭이엔도 곤꼭 허지 안 헤수파예?(그 옛날엔 그 패랭이라고도 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256) 여기에서 '바우'는 먹둥구미나 바구니 따위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106037 #5 패랭이.(패랭이.)  
 106037 @ 예. 그런 그거는 저기 어떤 거 겨울에 쓰는 거 여름에 해가지고 골아줍서.  
 (예. 그런 그거는 저기 어떤 거 겨울에 쓰는 거 여름에 해가지고 말해주십시오.)  
 106037 #5 아.(아.)  
 106037 @ 여름에 쓰는 거.(여름에 쓰는 거.)  
 106037 #5 여름에 쓰는 거게 패랭이고게.(여름에 쓰는 거 패랭이고.)  
 106037 @ 패랭이고.(패랭이고.)  
 106037 #5 응.(응.)  
 106037 @ 겨울에 쓰는 거.(겨울에 쓰는 거.)  
 106037 #5 겨울에 쓰는 건 모자 저 뿔 험벅으로 영 만든 모자.(겨울에 쓰는 건 모자  
 형질으로 만든 모자.)  
 106037 @ 모자?(모자?)  
 106037 #5 응.(응.)  
 106037 @ 모자엔 해수파?(모자라고 했습니까?)  
 106037 #5 으.(으.)  
 106037 @ 응 모자엔 헨.(응 모자라고 했어.)  
 106037 #5 으.(으.)  
 106037 @ 털, 털 그냥 모자?(털, 털 그냥 모자?)  
 106037 #5 으.(으.)  
 106037 @ 갓 이 감티?(갓 이 방한모?)  
 106037 #5 아 갓은 저 거시기 뭐 저.(아 갓은 저 거시기 뭐 저.)  
 106037 @ 제사?(제사?)  
 106037 #5 뭘 저 거시기 총 닮은 걸로덜 거.(말 저 거시기 총 닮은 거로들 거.)  
 106037 @ 허는 거고예. 그 갓은 그.(하는 거고요. 그 갓은 그.)  
 106037 #5 그런 걸로.(그런 걸로.)  
 106037 @ 그런 걸로 허고예.(그런 걸로 하고요.)  
 106037 #5 으.(으.)  
 106037 @ 그다음 감티엔 안허고?(그다음 감투라고 앓고?)  
 106037 #5 어?(어?)  
 106037 @ 감티 머리에 쓰는 거.(감투 머리에 쓰는 거.)  
 106037 #5 감티?(감투?)  
 106037 @ 예.(예.)  
 106037 #5 그 모즈 거시기 허영 뿔로 짜기네 써는 것덜 거 그런 것덜?(그 모자 거시  
 기 해서 무엇으로 짜서 쓰는 것들 거 그런 것들?)  
 106037 @ 그냥 머리에 쓰는 거.(그냥 머리에 쓰는 거.)  
 106037 #5 그 모즈 거시기 아이덜신더레 감티영 무시거엔 말 아녀뵈.(그 모자 거시기  
 아이들한테 감투랑 무엇이라고 말 앓아뵈어.)

106037 @ 아, 그냥 모자엔 해근에예?(아, 그냥 모자라고 해서?)  
 106037 #5 으.(으.)  
 106037 @ 어른덜토 모자엔 허고?(어른들도 모자라고 하고?)  
 106037 #5 으.(으.)  
 106037 @ 예.(예.)  
 106038 @ 여름 모자는?(여름 모자는?)  
 106038 #5 페랭이.(패랭이.)  
 106038 @ 페랭이.(패랭이.)  
 106038 #5 으.(으.)  
 106038 @ 예.(예.)  
 106038 #5 그냥 저 또 뭐니 보릿짚모전가 뭐 밀짚모전가 뭐 그런 것덜.(그냥 저 또  
 뭐니 보릿짚모전가 뭐 밀짚모전가 뭐 그런 것들.)  
 106038 @ 밀짚모자?(밀짚모자?)  
 106038 #5 으.(으.)  
 106038 @ 밀짚모자엔 해수파?(밀짚모자라고 했습니까?)  
 106038 #5 그저 으세에 그 이파리 나무에 이파리거추룩 행 혼 것덜 거.(그저 요사이  
 에 그 이파리 나무에 이파리처럼 해서 한 것들 거.)  
 106038 @ 예.(예.)  
 106038 #5 으.(으.)  
 106038 @ 그런 것도 옛날에 저기.(그런 것도 옛날에 저기.)  
 106038 #5 그런 것덜 거.(그런 것들 거.)  
 106038 @ 으.(으.)  
 106038 #5 보릿대 닳은 걸로 영 해근에 막.(보릿대 닳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마구.)  
 106038 @ 예예. 빙빙 감아기네.(예예. 빙빙 감아서.)  
 106038 #5 으.(으.)  
 106038 @ 거 파는 거 말고 허는 거는? 여기서 손으로?(거 파는 거 말고 하는 거는?  
 여기서 손으로?)  
 106038 #5 여기서 아니 거 다 사와.(여기서 아니 거 다 사와.)  
 106038 @ 사와근에.(사와서.)  
 106038 #5 으.(으.)  
 106038 @ 예. 그리고 대로 만드는데? 페랭이는?(예. 그리고 대로 만드는데? 패랭이는?)  
 106038 #5 어?(어?)  
 106038 @ 대로 만든 거.(대로 만든 거.)  
 106038 #5 대로 멘든 거 메 페랭이게.(대로 만든 거 매 패랭이.)  
 106038 @ 대로 멘든 것도 페랭이고예.(대로 만든 것도 패랭이고요.)  
 106038 #5 으.(으.)  
 106038 @ 정동으로 멘든 것도 잇어실 건디예?(댕댕이덩굴로 만든 것도 있었을 건데

요?)

106038 #5 몰라.(몰라.)

106038 @ 정동은 아니예?(댕댕이뎡굴은 아니요?)

106038 #5 으.(으.)

106038 @ 대패랭이.(대패랭이.)

106038 #5 으.(으.)

106038 @ 그리고 벧짚.(그리고 벧짚.)

106038 #5 거시기 그 무신 거시기게 보릿짚 닮은 걸로 영 멘들아정 으세에 꺾는 거  
추룩 저 으름에 씨엿 뎡기는 거.(거시기 그 무슨 거시기 보릿짚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  
어져서 요새에 꺾는 것처럼 저 여름에 씨서 다니는 거.)

106038 @ 예예. 그런 거예.(예예. 그런 거요.)

106038 #5 으.(으.)

106038 @ 그런 거 밀짚이엔은 안 허고?(그런 거 밀짚이라고는 앓고?)

106038 #5 으.(으.)

106038 @ 예.(예.)

106038 #5 보릿대모즈, 보릿대모즈.(보릿대모자, 보릿대모자.)

106038 @ 예.(예.)

106038 #5 으.(으.)

106038 @ 보릿대모즈.(보릿대모자.)

106039 @ 겨울모자는? 그 털로 만든 모자들은 엇어신가마씨?(겨울모자는? 그 털로  
만든 모자들은 없었는가요?)

106039 #5 그런 거는.(그런 거는.)

106039 @ 감티엔도 아까 그.(감투라고도 아까 그.)

106039 #5 그런 저 거시기 이넉 손으로 영 거시기 행 짜 거, 게셀 닮은 걸로 해당 봉  
가당 짬도 씨고 뭐 허난 그런 건.(그런 저 거시기 이넉 손으로 이렇게 거시기 해서 짜  
거, 털실 같은 걸로 해다가 주워다 짜기도 쓰고 뭐 하니까 그런 건.)

106039 @ 게셀은 저기 일본 시절에?(털실은 저기 일본 시절에?)

106039 #5 으.(으.)

106039 @ 그전에 저기 옛날에는 숨 놔기네 영 머리에 쓰게 만들지 안 해신가예?(그  
전에 저기 옛날에는 숨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 쓰게 만들지 앓았는가요?)

106039 #5 으.(으.)

106039 @ 막 브름도 불곡.(매우 바람도 불고.)

106039 #5 저 거시기 뭐 풍, 이디 씨는 거 머.(저 거시기 뭐 풍, 이데 쓰는 거 뭐.)

106039 @ 으.(으.)

106039 #5 것ㄱ라 뭐엔 헤라마는 나도 것도 잊어불어 츄츄 잊어부난.(것보고 무엇이  
라고 했는데 나도 것도 잊어버려 차차 잊어버리니까.)

106039 @ 풍?(풍?)

106039 #5 으.(으.)

106039 @ 머리에 여자들 머리에 영 쓰는 거마씨.(머리에 여자들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요.)

106039 #5 으.(으.)

106039 @ 예.(예.)

106039 #5 머리에 영 씨는 거.(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106039 @ 방한 아.(방한 아.)

106039 #5 으.(으.)

106039 @ 게난 여기서도 그런 거 만들앙 씨.(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 만들어서 씨.)

106039 #5 저 할망덜은 이녀 손으로 만들야.(저 할머니들은 이녀 손으로 만들어.)

106039 @ 손으로 만들야기네.(손으로 만들어서.)

106039 #5 으.(으.)

106039 @ 예.(예.)

106039 #5 소게 농곡 행.(숨 넣고 해서.)

106039 @ 예예. 소게 농곡(예예. 숨 넣고.)

106039 #5 만들앙 영 수건ㄱ추룩 영 둘렁.(만들어서 이렇게 수건처럼 이렇게 둘려서.)

106039 @ 예예.(예예.)

106039 #5 수건ㄱ추룩 둘러근예, 영 행 저울엔 영 씨와정 뎡기고.(수건처럼 둘려서, 이렇게 해서 저울에는 이렇게 씨가지고서 다니고.)

106039 @ 예.(예.)

106039 #5 으.(으.)

106039 @ 예. 그걸 튼네지 못 허쿠과?(예. 그걸 떠올리지 못 하겠습니까?)

106039 #5 으.(으.)

106039 @ 예.(예.)

106040 @ 그 말총으로 허는 거는 잘, 저기 말총으로 영 만드는 거? 양태 ㄱ튼 거 들 어난 거?(그 말총으로 하는 거는 잘, 저기 말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양태 같은 거 들 었던 거?)

106040 #5 그건 거 탕건 영 저.(그건 거 탕건 이렇게 저.)

106040 @ 예. 탕건이영(예. 탕건하고)

106040 #5 거시기해서 멘드는 거주.(거시기해서 만드는 거지.)

106040 @ 아, 그거는 그냥 해납디가? 해납디가?(아, 그거는 그냥 했었습니까? 했습니까?)

106040 #5 아니 우리사 해, 큰섬<sup>257)</sup>에서 그넌 것덜 다 흐는 나오는 거라 이 디.(아니 우리야 해, ‘큰섬’에서 그런 것들 다 하는 나오는 거야 이 데.)

106040 @ 예.(예.)

---

257) ‘큰섬’은 제주도 본섬을 말한다.



106041 @ 총모자엔 현 것도 다.(총모자라고 한 것도 다.)  
 106041 #5 그런 거 다.(그런 거 다.)  
 106040 @ 탕건이나.(탕건이나.)  
 106041 #5 큰섬에서 다 멘들앙 허민.(‘큰섬’에서 다 만들어서 하면.)  
 106041 @ 예.(예.)  
 106041 #5 여기선 또 강 헤어오곡덜.(여기선 또 가서 해오고들.)  
 106041 @ 양태가 무시거파? 양태?(양태가 무엇입니까? 양태?)  
 106041 #5 양태?(양태?)  
 106041 @ 양태를 만들영. 영 동그랑 현 거 닮은디예.(양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한 거 같은데요.)  
 106041 #5 양태엔 혼 건 몰라.(양태라고 한 건 몰라.)  
 106042 @ 탕건은 들어 보고예?(탕건은 들어 보고요?)  
 106042 #5 탕건은 영 저 거시기 갓 거 거시기 씨민 탕건 영.(탕건은 이렇게 저 거시기 갓 거 거시기 쓰면 탕건 이렇게.)  
 106042 @ 쓰는 거.(쓰는 거.)  
 106042 #5 씨는 거.(쓰는 거.)  
 106043 @ 망건 머리에 영 허는 거 허고예.(망건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106043 #5 으.(으.)  
 106044 @ 삼춘 비 올 때 쓰는 거예.(삼춘 비 올 때 쓰는 거요.)  
 106044 #5 으.(으.)  
 106044 @ 우장이엔 험니까?(우장이라고 합니까?)  
 106044 #5 거 비올 때 허는 거.(거 비올 때 하는 거.)  
 106044 @ 예예. 비올 때.(예예. 비올 때.)  
 106044 #5 거시기 뭐 우산 닮은 게 저 뭐 거시기 비에 씨는.(거시기 뭐 우산 닮은 게 저 뭐 거시기 비에 쓰는.)  
 106044 @ 예. 비에 들어가지 안 허게.(예. 비에 들어가지 않게.)  
 106044 #5 으.(으.)  
 106044 @ 영 허는 거. 그거를 무어런 험니까?(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44 #5 우장.(우장.)  
 106044 @ 우장?(우장?)  
 106044 #5 으.(으.)  
 106044 @ 우장허게 돼민.(우장하게 되면.)  
 106044 #5 비 우장 비 우장.(비 우장 비 우장.)  
 106044 @ 비 우장예. 비 우장 비 우장허곡.(비 우장요. 비 우장 비 우장하고.)  
 106044 #5 으.(으.)  
 106044 @ 머리에는 갓 저기.(머리에는 갓 저기.)

106044 #5 머리에 는 그자 그 저 거시기 이 혼 거 씨곡.(머리에 는 그자 그 저 거시기 이 한 거 쓰고.)

106044 @ 그거는 큰 대패랭이?(그거는 큰 대패랭이?)

106044 #5 으.(으.)

106044 @ 대패랭이 ㄴ튼 거?(대패랭이 같은 거?)

106044 #5 그 무신 으세에 그 웨국 거튼 거시기 영 해근에 멘들앙 영 빙빙허게 멘들앙 그레 영 부쩌근에 씨곡.(그 무슨 요새에 그 외국 같은 거시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빙빙하게 만들어서 그리로 이렇게 붙여서 쓰고.)

106044 @ 예. 그 부쩌근에 그 저기 검질멜 때 이 저 머리에 쓰는 거 잇잔우파?(예. 그 붙여서 그 저기 검멜 때 이 저 머리에 쓰는 거 잇잖습니까?)

106044 #5 검질멜 땐 네네 패랭이덜게.(검멜 땐 내내 패랭이들.)

106044 @ 패랭이덜예.(패랭이들요.)

106044 #5 여름에 패랭이 씨곡.(여름에 패랭이 쓰고.)

106044 @ 여름에 패랭이 쓰곡예.(여름에 패랭이 쓰고요.)

106044 #5 저울 땐 일허민 이는 수건 광목수건덜 광목덜이라도 뭐 해여서 수건 만들어서 쓰는 거.(겨울 땐 일하면 이런 수건 광목수건들 광목들이라도 뭐 해서 수건 만들어서 쓰는 거.)

106044 @ 예,(예.)

106044 #5 이이, 물에 헐 뻑이라도 저 다 수건 광목으로 다 수건 만들어서.(이이, 물에 할 적이라도 저 다 수건 광목으로 다 수건 만들어서.)

106044 @ 수건 만들엉 허고예.(수건 만들어서 하고요.)

106044 #5 으.(으.)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그 저기 밥허고 국에 데해서 흐끔 곁아줍서.(그 저기 밥하고 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1 #5 으.(으.)

107001 @ 밥이영 국이영예. 밥도 막 여러 가지 밥이 이실 건디예.(밥하고 국하고요. 밥도 매우 여러 가지 밥이 있을 건데요.)

107001 #5 으.(으.)

107001 @ 그 밥허젠 허민 조팍 잇저. 보리밥 잇저. 무슨 툷밥 잇저. 해가지고.(그 밥 하려고 하면 조밥 있다. 보리밥 있다. 무슨 ‘툷밥’ 있다. 해가지고.)

107001 #5 아니게.(아니.)

107001 @ 해 먹어난 것덜.(해 먹었던 것들.)

107002 #5 경허난게 저 밥 허민 거 찰, 히린좁쌀이엔 현 건 저 거시기 거멍허게끔 ㅎ  
ㄷ, 히린좁쌀이엔 흐리게시리 허는 거.(그러니까 저 밥 하면 거 찰, 차좁쌀이라고 한 건  
저 거시기 거멍게끔 한, 차좁쌀이라고 차지게끔 하는 거.)

107002 @ 밥 해먹을 수 있는 것들 쫄들을 곁아봅서.(밥 해먹을 수 있는 것들 쌀들을  
말해보십시오.)

107002 #5 으.(으.)

107002 @ 보리쫄.(보리쌀.)

107002 #5 보리쫄 좁쌀 뒸.(보리쌀 좁쌀 뒸.)

107002 @ 보리쫄 좁쌀.(보리쌀 좁쌀.)

107002 #5 거 다 뒸 그런 거지 뒸.(거 다 뒸 그런 거지 뒸.)

107002 @ 보리쫄 좁쌀도 산디도 .(보리쌀 좁쌀 산디도.)

107002 #5 산디 이 딴.(밭벼 이 데는.)

107002 @ 이 디.(이 데.)

107002 #5 게메 산디 갈안. 산디.(글썸 밭벼 갈았어. 밭벼.)

107002 @ 산디허고.(밭벼하고.)

107002 #5 으.(으.)

107002 @ 좁쌀허고 보리쫄허고 또 밥해, 기장쫄 ㄴ튼 거 뒸 그런 거.(좁쌀하고 보리  
쌀하고 또 밥해, 기장쌀 같은 거 뒸 그런 거.)

107002 #5 아니.(아니.)

107002 @ 그런 거 었어.(그런 거 없어.)

107002 #5 으.(으.)

107002 @ 모를쫄도.(메밀쌀도.)

107002 #5 ㄴ물쫄은 ㄴ물 갈아네 허면은 그 저 거시기 ㄴ레에 돌ㄴ레 정ㄴ레<sup>258)</sup>ㄴ튼  
거에 행 곁아근에 쫄 벌러근에.(메밀쌀은 메밀 갈아서 하면은 그 저 거시기 맷돌에 돌맷  
돌 풀맷돌 거에 해서 갈아서 쌀 쪼개서.)

107002 @ 쫄 벌러근에 허곡예.(쌀 쪼개서 하고요.)

107002 #5 으.(으.)

107002 @ 예.(예.)

107003 #5 ㄴ찌 놔기네 보리쫄 헤여근에 거시기 헤면은, 그것에 이제 흘 때에 좁쌀  
놔기네 또 그 허민 보리쫄 궤와 놔기네 또 좁쌀 놔기네 허는 것도 싯곡.(함께 놔서 보리  
쌀 해서 거시기 하면, 그것에 이제 할 때에 좁쌀 놔서 또 그 하면 보리쌀 끓여 놓아 또  
좁쌀 놔서 하는 것도 있고.)

107003 @ 예. 그러면.(예. 그러면.)

107003 #5 ㅍ헤영 보리쫄에 ㅍ양은에 또 그런 거헤영 놓곡 허영 허는 거.(팔해서 보

258) '정 ㄴ레'는 '풀맷돌'로 조금 알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이다.

리쌀에 삶아서 또 그런 거해서 놓고 해서 하는 거.)

107003 @ 그 밥은 무슨 밥이엔 됩니까?(그 밥은 무슨 밥이라고 합니까?)

107003 #5 으.(으.)

107003 @ 풋 행 논 밥은 풋밥이엔 허고.(팔 해서 넣은 밥은 팔밥이라고 하고.)

107003 #5 으. 저 거시기 보리쌀에 통보리쌀에 저 무신 거시기 히린좁쌀에 낱 저 밥  
헛궂렌 헛곡.(으. 저 거시기 보리쌀에 통보리쌀에 저 무엇 거시기 차좁쌀에 넣어서 저  
밥하였다고도 하고.)

107003 @ 경허면 조팝이엔 허고 흐린조팝이엔 허고?(그러면 조밥이라고 하고 차조밥  
이라고 하고?)

107003 #5 흐린조팝이엔 허고 모인 조팝이엔 허고.(차조밥이라고 하고 메조밥이라고  
하고.)

107003 @ 으.(으.)

107003 #5 보리밥이엔 허고 풋밥이엔 허고 경 허여.(보리밥이라고 하고 팔밥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

107003 @ 풋밥이엔 허고.(팔밥이라고 하고.)

107003 @ 경헛고 보리쌀로 밥허는 거 잇잔우파예?(그렇고 보리쌀로 밥하는 거 잇잖  
습니까요?)

107003 #5 으.(으.)

107003 @ 보리쌀로 밥허는 거 인칙에도 곶앗주마는, 그것도 보리도 통보리도 잇고.  
(보리쌀로 밥하는 거 일찍이도 말했지만, 그것도 보리도 통보리도 잇고.)

107003 #5 으. 곶보리쌀도 잇고.(으. 간 보리쌀도 잇고.)

107003 @ 곶보리쌀도 잇고?(간 보리쌀도 잇고?)

107003 #5 이 저 돌궂레 멧 멧돌에서 곶아근에 벌러진 거.(이 저 돌멧돌 멧 멧돌에서  
갈아서 쪼개진 거.)

107003 @ 벌러진 거는?(쪼개진 거는?)

107003 #5 건 저 거시기엔 헛고.(건 저 거시기라고 하고.)

107003 @ 그.(그.)

107003 #5 통 통 차 보리쌀 이제 보리쌀 그대로 나오는 건 통보리쌀이고.(통 통 채  
보리쌀 이제 보리쌀 그대로 나오는 건 통보리쌀이고.)

107003 @ 통보리쌀이엔 헛고예.(통보리쌀이라고 하고요.)

107003 #5 곶 곶보리쌀 통보리쌀 경 헤여.(갈 곶보리쌀 통보리쌀 그렇게 해.)

107003 @ 예. 경헤근에 헤기네 허민.(예. 그렇게 해서 하면.)

107003 #5 으.(으.)

107003 @ 통보리밥이엔도 헛고.(통보리밥이라고도 하고.)

107003 #5 으.(으.)

107003 @ 곶보리밥이엔 헛고.(갈보리밥이라고 하고.)

107003 #5 으.(으.)

107003 @ 보리쌀은 다 밥 허는디 다 들어가시난.(보리쌀은 다 밥 하는데 다 들어갔으니까.)

107003 #5 으. 다 들어가주.(으. 다 들어가지.)

107003 @ 다 들어가시난예.(으. 다 들어갔으니까요.)

107003 #5 으.(으.)

107003 @ 이 조밥에도 들어가곡.(이 조밥에도 들어가고.)

107003 #5 으. 다 들어가 그녕 밥 허는 거.(으. 다 들어가 그런 밥 하는 거.)

107003 @ 예예.(예예.)

107003 #5 좁쌀도 들어가곡 보리쌀도 들어가고.(좁쌀도 들어가고 보리쌀도 들어가고.)

107003 @ 예.(예.)

107003 #5 뭐 허린좁쌀이여 무신 모인좁쌀이여 혼 게 다 들어가주.(뭐 차조다 무슨 메조다 한 게 다 들어가지.)

107004 @ 쌀 햅끔 영 저기 밥에 쌀 햅끔 곤쌀 햅끔 놔기네 현 밥은 무슨 밥이엔 험니까?(쌀 조금 이렇게 저기 밥에 쌀 조금 흰쌀 조금 넣어서 한 밥은 무슨 밥이라고 합니까?)

107004 #5 반지우기밥.<sup>259</sup>(‘반지기밥.’)

107004 @ 반지기밥이엔 허고.(‘반지기밥’이라고 하고.)

107004 #5 반지우기밥.(‘반지기밥.’)

107004 @ 예. 반지기밥은 어떻 험 때 험니까?(예. ‘반지기밥’은 어떤 때 험니까?)

107004 #5 반지기밥은 게메 그것덜 몬 그 서경 허민 반지우기밥이지.(‘반지기밥’은 글썽 그것들 전부 그 섞어서 하면 ‘반지기밥’이지.)

107004 @ 반지기밥은예.(‘반지기밥’은요.)

107004 #5 으.(으.)

107004 @ 보통 때 반지기밥 허는 거 말해 줘서. 어떤 때 반지기밥 해수파?(보통 때 ‘반지기밥’ 하는 거 말해주십시오. 어떤 때 ‘반지기밥’ 했습니까?)

107004 #5 아니 그 이녁 거시기 식뚜덜게 믫음데로 막 거시기 험 떡엔 반지기밥덜 행 먹어서.(아니 그 이녁 거시기 식구들 마음대로 매우 거시기 할 적에는 ‘반지기밥’들 해서 먹었어.)

107004 @ 으. 막 서깝니까 아니면 톱 그기만 톱 놔근예.(으. 마구 섞습니까 아니면 톱 거기만 톱 놔서.)

107004 #5 아니 막 그 솟디 노민 다 서꺼지지 뭐 퀘여 가민.(아니 마구 그 솥에 넣으면 다 섞여지지 뭐 끓여 가면.)

107004 @ 으. 퀘여 가면.(으. 끓여 가면.)

107004 #5 으.(으.)

107004 @ 예.(예.)

107004 #5 바글바글 해여가민 다 서꺼지는 거 그디 서.(바글바글 해가면 다 섞여지는

259)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반 섞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거 거기서.)

107004 @ 보리 보리 솥앙기네.(보리 보리 삶아서.)

107004 #5 응.(응.)

107004 @ 보리 보리나 무시거 놔서.(보리 보리나 무엇 넣어서.)

107004 #5 솥앙은에 그디 ㄱ찌 놓민 몬 께여 가민 다 서꺼지는 거.(삶아서 거기 같이 넣으면 전부 끓여 가면 다 섞어지는 거.)

107004 @ 다 서꺼지는 거예.(다 섞어지는 거요.)

107004 #5 응.(응.)

107004 @ 예.(예.)

107004 #5 반지우기밥.(‘반지기밥.’)

107005 @ 흰쌀만 흰 밥은?(흰쌀만 한 밥은?)

107005 #5 건 흰밥이고 저 흰쌀밥이고 건.(건 흰밥이라고 하고 흰쌀밥이고 건.)

107005 @ 흰쌀밥이엔도 허고?(흰쌀밥 이라고 하고?)

107005 #5 곤밥이엔도 허고.(흰밥라고도 하고.)

107005 @ 곤밥이엔도 허고?(흰밥라고도 하고?)

107005 #5 흰쌀밥 흰쌀밥.(흰쌀밥 흰쌀밥.)

107005 @ 흰쌀밥허고.(흰쌀밥하고.)

107005 #5 으.(으.)

107005 @ 그 저기 식게나 헐 때 올리는 밥은 무슨 밥이엔 험니까?(그 저기 제사나 할 때 올리는 밥은 무슨 밥이라고 합니까?)

107005 #5 제삿밥.(제삿밥.)

107005 @ 제삿밥?(제삿밥?)

107005 #5 으.(으.)

107005 @ 그거를 또 제삿밥.(그거를 또 제삿밥.)

107005 #5 해라 험문.(해라 하면.)

107005 @ 올리라 험니까?(이라 합니까?)

107005 #5 어?(어?)

107005 @ 아니 메엔 험니까?(아니 메라고 합니까?)

107005 #5 메엔.(메라고.)

107005 @ 메엔 허곡.(메라고 하고.)

107005 #5 으.(으.)

107005 @ 또 저 그 잔치 때 허는 저 새각시안티 올리는 밥이나 새스방안티 올리는 밥, ㄱ튼 밥은 건 곤밥으로 행 올리지예?(또 저 그 잔치 때 하는 저 색시한테 올리는 밥이나 새신랑한테 올리는 밥, 같은 밥 건 흰밥으로 해서 올리지요?)

107005 #5 예. 곤밥.(예. 흰밥.)

107005 @ 게민 새각시밥이엔 험니까?(그러면 색시 밥이라고 합니까?)

107005 #5 새각시밥 새스방 우시밥.(색시밥 새신랑밥 위요밥.)

107005 @ 우식밥예.(위요밥요.)

107005 #5 으.(으.)

107005 @ 예. 우식밥예.(예. 위요밥요.)

107005 #5 으.(으.)

107005 @ 삼촌 흰밥, 흰밥 인척에 흰밥이엔 헛지예?(삼촌 흰밥, 흰밥 일찍이 흰밥이라고 했지요?)

107005 #5 으.(으.)

107005 @ 흰밥이엔 헤기네 곁아줍서.(흰밥이라고 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05 #5 으.(으.)

107005 @ 흰밥은 보통 때는 어려운 밥이난 머.(흰밥은 보통 때는 어려운 밥이니까 뭐.)

107005 #5 으.(으.)

107005 @ 산디헤기네 헛텐 허난예 흰밥 저기 헐 때나.(발벼해서 했다고 하니까요 흰밥 저기 할 때나.)

107005 #5 그때는 그 저기 산디 갈앙은에 허면은 제숫 때나 허곡.(그때는 그 저기 발벼 갈아서 하면은 제사 때나 하고.)

107005 @ 예.(예.)

107005 #5 이 저 멧질 때나 허곡.(이 저 멧질 때나 하고.)

107005 @ 예.(예.)

107005 #5 으. 그런 때 허는 거라.(으. 그런 때 하는 거야.)

107005 @ 멧질 때 허곡 특별 헐 때.(멧질 때 하고 특별 할 때.)

107005 #5 으. 손님이나 오랑 특별나게시리 흘 덕이나 그런 것덜 허지.(으. 손님이나 와서 특별나게끔 할 적에나 그런 것들 하지.)

107005 @ 예.(예.)

107005 #5 이제는 거시기 나록 아니 같고 그 산디 조금 갈아기네 헤여 먹을 덕에.(이제는 거시기 나락 아니 같고 그 발벼 조금 갈아서 해 먹을 적에.)

107005 @ 예.(예.)

107005 #5 으.(으.)

107005 @ 흰밥은 흰밥이엔도 허곡?(흰밥은 흰밥이라고도 하고?)

107005 #5 곤밥.(흰밥.)

107005 @ 저기 곤밥이엔도 허곡예.(저기 흰밥라고도 하고요)

107005 #5 으.(으.)

107005 @ 잔치 때 헐 때나 저기 뭐 그 제사 때 올리는 메로 헤기네 허곡.(잔치 때 할 때나 저기 뭐 그 제사 때 올리는 메로 해서 하고.)

107005 #5 으.(으.)

107005 @ 삼촌 당에도 뎡겨나수파?(삼촌 당에도 다녔었습니까?)

107005 #5 아니 게메 당에 뎡기단 이젠 연녕도 많고.(아니 글썽 당에 다니다가 이젠

연령도 많고.)

107005 @ 으.(으.)

107005 #5 안 탕겨.(안 다녀.)

107005 @ 경 험 때 메 해기네 거기도.(그렇게 할 때 메 해서 거기도.)

107005 #5 으. 그디 갈 땐 뭐 다 저 거시기 행 가 제주도 받아 놓고.(으. 거기 갈 땐 뭐 다 저 거시기 해서 가 제주도 받아 놓고.)

107005 @ 으.(으.)

107005 #5 과일도 문딱 행 가.(과일도 전부 해서 가.)

107005 @ 예. 경해기네 그때도 메밥 해기네 가곡예.(예. 그렇게 해서 그때도 메밥 해서 가고요.)

107005 #5 그때덜 다 제숙<sup>260</sup>덜 다 해근에 다 해근에.(그때들 다 ‘제숙’들 다 해서 다 해서.)

107005 @ 예. 경해기네 행 가곡.(예. 그렇게 해서가고.)

107006 @ 삼촌 조팝, 여기 조를 하영 갈아시난 조팝에 데해서 곁아줍서.(삼촌 조밥, 여기 조를 많이 갈았으니까 조밥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7006 #5 조팝은 줍쌀만 놔기네 허문 조팝이주.(조밥은 줍쌀만 넣어서 하면 조밥이지.)

107006 @ 예. 이 이 동네는 조가 어떤 조가 잘, 주로 헤실 건고마씨?(예. 이 이 동네는 조가 어떤 조가 잘, 주로 했을 건가요?)

107006 #5 아니 반씩 갈아 허린줍쌀 모인조 경 험 갈아.(아니 반씩 갈아 차조 메조 그렇게 해서 갈아.)

107006 @ 허린조 모인조?(차조 메조?)

107006 #5 으.(으.)

107006 @ 예.(예.)

107006 #5 으. 경 험 밧디 영 줄짓어근에 소 갈아놔기네 영 줄짓어근에 허면은 저 거시기 허린조 가는 디 싯곡 모인조 가는 디 싯곡.(으. 그렇게 해서 밧에 이렇게 줄지어서 소 갈아놔서 이렇게 줄지어서 하면은 저 거시기 차조 가는 데 있고 메조 가는 데 있고.)

107006 @ 예.(예.)

107006 #5 경 현디 반씩 갈라근에 허여놔다근에 또 빌 때는 따시 딱로 장만허곡.(그런데 반씩 갈라서 해놔다가 또 벨 때는 다시 따로 장만하고.)

107006 @ 예. 경헝곡예.(예. 그렇고요.)

107006 #5 으.(으.)

107006 @ 조도 허린조 모인조 잇주만은 노란 저 색깔은 어떻 험니까?(조도 차조 메조 있지만 노란 저 색깔은 어떻게 험니까?)

107006 #5 아이게 모인조 노랑허고.(아이 메조 노랑고.)

107006 @ 노랑허고.(노랑고.)

---

260) ‘제숙’은 제상에 올리는 생선류를 말하는 제주어다.



107006 #5 또 히린존 햅쌀 까망허고.(또 차조는 조금 까망고.)  
 107006 @ 까망허고.(까망고.)  
 107006 #5 으.(으.)  
 107006 @ 노란조에서도 저 햅쌀 찰진 거 잇지 안우짜?(노란조에서도 저 조금 찰진 거 잇지 않습니까?)  
 107006 #5 것도 찰진 거 잇긴 잇주.(것도 찰진 거 있기는 있지.)  
 107006 @ 잇긴 있어도 보통 여기선.(잇긴 있어도 보통 여기서는.)  
 107006 #5 으. 보통은 안 갈지.(으. 보통은 안 갈지.)  
 107006 @ 예.(예.)  
 107006 #5 으.(으.)  
 107006 @ 예. 안 갈앙예.(예. 안 갈아서요.)  
 107006 #5 으.(으.)  
 107007 @ 경햅곡 팻밥?(그렇고 팔밥?)  
 107007 #5 팻밥은 게 툇이나 무시거.(‘툇밥’은 툇이나 무엇.)  
 107007 @ 팻 팻.(팔 팔.)  
 107007 #5 팻은 게민 보리쌀에 놔기네게 삶아사 팻 놔기네 밥을 햅주.(팔은 그러면 보리쌀에 넣어서 삶아야 팔 넣어서 밥을 햅지.)  
 107007 @ 보리쌀에 놔기네게 삶아근예.(보리쌀에 넣어서 삶아서요.)  
 107007 #5 팻 팻만 삶아근에 좁쌀 거튼 거 놓지 아녀지.(팔 팔만 삶아서 좁쌀 같은 거 넣지 않지.)  
 107007 @ 팻만 삶앙.(팔만 삶아서.)  
 107007 #5 응.(응.)  
 107007 @ 팻허고 보리.(팔하고 보리.)  
 107007 #5 보리쌀에 팻이 삶아사 돼지.(보리쌀에 팔이 삶아야 되지.)  
 107007 @ 예.(예.)  
 107007 #5 응.(응.)  
 107007 @ 팻밥은 보통 어떤 때 햅 햅 먹을 거 보통.(팔밥은 보통 어떤 때 많이 먹을 거 보통.)  
 107007 #5 잔치 때 햅곡.(잔치 때 햅고.)  
 107007 @ 예.(예.)  
 107007 #5 이 저, 거시기 햅 떡에나 팻 놓고 햅 햅지 보통 때 햅 아녀.(이 저, 거시기 햅 떡에나 팔 놓고 그렇지 보통 때 그렇지 아냐.)  
 107007 @ 예.(예.)  
 107007 #5 보통 때 그자 햅상 그자 보리쌀햅고 그자 좁쌀이나 낱 그자 햅햅곡 햅 아녀민 보리쌀만 낱 햅햅곡 햅도.(보통 때 그자 햅상 그자 보리쌀햅고 그자 좁쌀이나 넣어서 그자 햅햅고 그렇지 않으면 보리쌀만 넣어서 햅햅고 햅도.)  
 107007 @ 경햅곡 햅장 낱 때 햅는 햅은?(그렇고 햅장 낱 때 햅는 햅은?)

107007 #5 초상밥.(초상밥.)  
 107007 @ 초상밥 허고.(초상밥 하고.)  
 107007 #5 으.(으.)  
 107007 @ 영장 날 때는 무신 쫄 햅끔 놔기네.(영장 날 때는 무슨 쌀 조금 넣어서.)  
 107007 #5 보리쫄덜 서꺼근에 저 그 거기기 으세에 그 찰, 흰쌀 농곡 해영.(보리쌀들 섞어서 저 그 거기기 요새에 그 찰, 흰쌀 넣고 해서.)  
 107007 @ 흰쌀 농곡 해영.(흰쌀 넣고 해서.)  
 107007 #5 으.(으.)  
 107007 @ 꾹도 햅끔 농고?(팔도 조금 농고?)  
 107007 #5 으. 꾹 농고 해영.(으. 팔 농고 해서.)  
 107007 @ 으.(으.)  
 107007 #5 꾹 낱 보리쫄에 꾹 낱 삶아근에 것에 흰쌀 농곡 해영.(팔 넣어서 보리쌀에 팔 넣어서 삶아서 것에 흰쌀 넣고 해서.)  
 107007 @ 예. 서꺼서.(예. 섞어서.)  
 107007 #5 세 가지 세 가지.(세 가지 세 가지.)  
 107007 @ 세 가지 놔기네예.(세 가지 넣어서요.)  
 107007 #5 으.(으.)  
 107007 @ 으.(으.)  
 107007 #5 지금은 막 흰 걸로만 다 허지마는.(지금은 마구 흰 걸로만 다 하지마는.)  
 107007 @ 으.(으.)  
 107007 #5 옛날은 그렇게 행.(옛날은 그렇게 해서.)  
 107009 @ 경햅곡 감저 날 때는?(그렇고 고구마 날 때는?)  
 107009 #5 감저 날 떡에는게 감저 농곡게, 저 거시기 보리쫄에도 농곡 낱 햅먹고.(고구마 날 적에는 고구마 넣고, 저 거시기 보리쌀에도 넣고 넣어서 햅먹고.)  
 107009 @ 예예.(예예.)  
 107009 #5 좁쌀에도 낱 햅먹곡.(좁쌀에도 넣어서 햅먹고.)  
 107009 @ 경허난에 그 그거 햅 때도 감저도 감저밥이엔 햅지키여예.(그러니까 그 그 거 햅 때도 고구마도 고구마밥이라고 햅지겠네요.)  
 107009 #5 으.(으.)  
 107009 @ 예예.(예예.)  
 107009 #5 으.(으.)  
 107009 @ 경햅곡 감저 감저밥은 저기?(그렇고 고구마 고구마밥은 저기?)  
 107009 #5 감저밥은 저 저 햅 떡에는 보리쫄이나 좁쌀이나 노민 감저 썰어 놔기네게 그레 낱 ㄴ썸.(고구마밥은 저 저 햅 적에는 보리쌀이나 좁쌀이나 넣으면 고구마 썰어 넣어서 그리로 넣어서 같이.)  
 107009 @ 햅 낱 ㄴ썸 농곡예.(햅 넣어서 같이 넣고요.)  
 107009 #5 으.(으.)

107009 @ 감저 절간허게 뉘면은 그 빼떼기 잇잔우짜?(고구마 절간허게 되면 그 절간 고구마 있잖습니까?)

107009 #5 으. 빼떼기.(으. 절간고구마.)

107009 @ 예. 빼떼기도 저기 밥이영 ㄴ짜 해근에.(예. 절간고구마도 저기 밥하고 같이 해서.)

107009 #5 아니 빼떼긴 빼떼기데로 솥양.(아니 절간고구마는 절간고구마대로 삶아서.)

107009 @ 빼떼기로 솥양은네예.(절간고구마로 삶아서요.)

107009 #5 으.(으.)

107009 @ 예.(예.)

107011 @ 경흥곡 옛날에 툇밥이영 프레밥이영도.(그렇고 옛날에 ‘툇밥’하고 ‘파래밥’ 하고도.)

107011 #5 툇밥<sup>261)</sup> 프레밥<sup>262)</sup>은 저 뭐 거시기 흘 득에 이녁이 막 곤란헌 떡에 툇 헤여다근에, 저 거시기 발레영 춤, 물류와기네 물 듬궂다근에 그거 흥곡.(툇밥 파래밥은 저 뭐 거시기 할 적에 이녁이 막 곤란한 때에 툇 해다가, 저 거시기 바래어 참, 말려서 물 담갔다가 하고.)

107011 @ 아까 툇밥?(아까 툇밥?)

107011 #5 툇은 게메게 저 곤란헌난게 프레밥 툇밥 흥는 건 게메, 그 옛날엔 저 어디서 저 ㄴ루덜 올라근에 흥면은 못살 덕에는 그년 거 해다근에 그 거시기 흥면은 ㄴ짜 저 서꺼근에.(툇은 글썸 저 곤란하니까 ‘파래밥’ ‘툇밥’ 하는 건 글썸, 그 옛날엔 저 어디서 저 가루들 와서 하면 못살 적에는 그런 거 해다가 그 거시기 하면 같이 저 섞어서.)

107011 @ 예.(예.)

107011 #5 찌어.(찌.)

107011 @ 찌근에예.(찌서요.)

107011 #5 으.(으.)

107011 @ 아.(아.)

107011 #5 밥으로.(밥으로.)

107011 @ 밥으로?(밥으로?)

107011 #5 으.(으.)

107011 @ 게민 툇밥 헐 때는 그 툇은 솥아근에.(그러면 ‘툇밥’ 할 때는 그 툇은 삶아서.)

107011 #5 솥아근에.(삶아서.)

107011 @ 예.(예.)

107011 #5 저 빨아되근에 문딱 그 거시기 썰어되근에 저 보리썰이나 뿔덜이나 놔기네 ㄴ짜.(저 빨아두어서 전부 그 거시기 썰어놓아서 저 보리썰이나 무엇들이나 놔서 같이.)

261) ‘툇밥’은 툇을 넣어 기근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툇과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어먹었다.

262) ‘프레밥’은 파래를 넣어 기근 때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툇과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어먹었다.

107011 @ ㄴ찌.(같이.)  
 107011 #5 헤여근에 영 서경은에.(해서 이렇게 섞어서.)  
 107011 @ 서꺼근에.(섞어서.)  
 107011 #5 헤서.(했어.)  
 107011 @ 예.(예.)  
 107011 #5 으.(으.)  
 107011 @ 흐끔 풀기?(조금 풀기?)  
 107011 #5 거 보리쌀 삶아 놓으면은 그레 붙어근에 풀기가 잇주게.(거 보리쌀 삶아  
 넣으면 그리로 붙어서 풀기가 있지.)  
 107011 @ 풀기가 잇어근에예.(풀기가 있어서요.)  
 107011 #5 으.(으.)  
 107011 @ 예.(예.)  
 107011 #5 경 아녀민 프레 ㄴ쁜 걸 헤다근에 또 널영 물류멍 발레영.(그렇지 않으면  
 파래 같은 걸 헤다가 또 널어서 말리면서 바래서.)  
 107011 @ 발레영.(바래서.)  
 107011 #5 헤영게 발레영.(하얗게 바래서.)  
 107011 @ 예. 발레영이네예.(예. 바래서요.)  
 107011 #5 으.(으.)  
 107011 @ 예.(예.)  
 107011 #5 발레여근에 찰에 흐끔 서꺼근에.(바래서 찰에 조금 섞어서.)  
 107011 @ 예.(예.)  
 107011 #5 프레밥.(파래밥.)  
 107011 @ 예.(예.)  
 107012 @ 페 너페엔 험니까?(꽤 넓패라고 합니까?)  
 107012 #5 으.(으.)  
 107012 @ 너페?(넓패?)  
 107012 #5 너페 저 것도 잇곡.(넓패 저 것도 있고.)  
 107012 @ 페밥예.(넓패밥요.)  
 107012 #5 페밥.<sup>263</sup>(넓패밥.)  
 107012 @ 페밥예.(넓패밥요.)  
 107012 #5 으.(으.)  
 107012 @ 페밥이엔 페밥이엔 험 수 있는 거는?(넓패밥이라고 넓패밥이라고 할 수있  
 는 거는?)  
 107012 #5 네 네게 보리찰이나 무시것덜 삶앙 흐찰 무시거 거시기 험 떡에 그것에  
 삶앙은에게 흐면은 영 서꺼지면.(내 내게 보리쌀이나 무엇들 삶아서 조금 무엇 거시기  
 할 적에 그것에 삶아서 하면은 이렇게 섞으면.)

263) '페밥'은 해조류 넓패를 넣어서 지은 밥이다.

107012 @ 서꺼지면.(섞어지면.)

107012 #5 부 부땡.(불 붙어서.)

107012 @ 예. 부땡예.(예. 붙어서요.)

107012 #5 응 부땡은예.(응 붙어서.)

107012 @ 패밥은 흐끔 부뜨는게 하크라예.(넙패밥은 조금 붙는 것이 많겠네요.)

107012 #5 경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107012 @ 그 부뜨는 거 톨은 부뜨는 거 조금해도 페는 흐끔 민지락민지락 허지 안헝  
니까예?(그 붙는 거 톨은 붙는 거 조금해도 넙패는 조금 미끌미끌 하지 않습니까요?)

107012 #5 으.(으.)

107012 @ 이 웨에 어디 드르에서 해다근에 밥 행 먹어난 거 엇수파?(이 웨에 어디  
들에서 해다가 밥해서 먹었던 거 없습니까?)

107012 #5 으.(으.)

107012 @ 물룣?(무룣?)

107012 #5 그런 건 저 거시기 현 떡에 곤란 현 떡에덜은 물룣도 해 당 솥앙 먹곡, 또  
저는 디 가서 갯변에 가서 또 패 ㄴ뜨는 것도 해당 그것에 ㄴ찌 솥앙 경 다 옛날은 그.(그  
런 건 저 거시기 한 적에 곤란 한 때에 무룣도 해다가 삶아서 먹고, 또 저는 데 가서  
해변에 가서 또 넙패 같은 것도 해다가 그것에 가같이 삶아서 그렇게 다 옛날은 그.)

107012 @ 아.(아.)

107012 #5 곤란허게 산 떡에 경.(곤란하게 살았을 적에 그렇게.)

107012 @ 무수 썰어 놔기네 밥 행 먹어나지?(무 썰어 넣어서 밥해서 먹었었지?)

107012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12 @ 늣뻘 늣뻘.(무 무.)

107012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12 @ 썰어넣은 아니?(썰어 넣어서는 아니?)

107012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12 @ 물룣은 옛날에 곤란현 때에예?(무룣은 옛날에 곤란한 때에 요?)

107012 #5 응.(응.)

107012 @ 건 물룣이엔 험니까? 무룣이엔 험니까?(건 무룣이라고 합니까? 무룣이라고  
합니까?)

107012 #5 무룣.(무룣.)

107012 @ 무룣? 무룣.(무룣? 무룣.)

107012 #5 응.(응.)

107012 @ 이 저 밧디 가기네.(이 저 밧에 가서.)

107012 #5 밧디 가민 그 동글동글 현 거.(밧에 가면 그 동글동글 현 거.)

107012 @ 마눔ㄴ치록 나온 거예.(마늘처럼 나온 거요.)

107012 #5 응.(응.)

107012 @ 예. 그거 흐곡.(예. 그거 하고.)

107013 @ 국은예. 국.(국은요. 국.)  
 107013 #5 으.(으.)  
 107013 @ 국.(국.)  
 107013 #5 국?(국?)  
 107013 @ 예.(예.)  
 107013 #5 국은게 장국 끌영 먹는 거. 장 듬양은네게 웬장 근장허멍 메주 솥양은예.  
 (국은 장국 끓여서 먹는 거. 장 담가서 된장 간장하면서 메주 삶아서.)  
 107013 @ 예.(예.)  
 107013 #5 콩 솥양.(콩 삶서.)  
 107013 @ 웬장 근장예.(된장 간장요.)  
 107013 #5 으.(으.)  
 107013 @ 웬장 근장허고.(된장 간장하고.)  
 107013 #5 으.(으.)  
 107013 @ 또 그 메역.(또 그 미역.)  
 107013 #5 메역.(미역.)  
 107013 @ 녹물도 놓주만.(나물도 넣지만.)  
 107013 #5 어? 메역국 행.(어? 미역국해서.)  
 107013 @ 메역국도 허곡.(미역국도 하고.)  
 107013 #5 어 녹물 ㄴ쁜 거 뭐.(어 나물 같은 거 뭐.)  
 107014 @ 녹물국허고.(나물국하고.)  
 107014 #5 그런 것들 다.(그런 것들 다.)  
 107014 @ 녹물국은?(나물국은?)  
 107014 #5 아이 녹물국덜은 웬장이나 무신 근장 거시기덜이나 무시것덜.(아 나물국들  
 은 된장이나 무슨 간장 거시기들이나 무슨것들.)  
 107014 @ 예.(예.)  
 107014 #5 보아지면 그런 것덜.(보아지면 그런 것들.)  
 107014 @ 예.(예.)  
 107014 #5 놔기네 허곡.(넣어서 하고.)  
 107014 @ 예. 근장에도 해가지고.(예. 간장에도 해가지고.)  
 107014 #5 으.(으.)  
 107014 @ 녹물국은? 녹물국 우녕에 녹물국 녹물덜 우녕에 다.(나물국은? 나물국 터  
 알에 나물국 나물들 터알에 다.)  
 107014 #5 으.(으.)  
 107014 @ 다 알아야 웰 거 아니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7014 #5 마늘 ㄴ쁜 거 무시것덜.(마늘 같은 거 무엇들.)  
 107014 @ 게민.(그러면.)  
 107014 #5 다 알아근예.(다 알아서.)

107014 @ 다 갈아근에.(다 갈아서.)

107014 #5 세우리 ㄹ쁜 거 다.(부추 같은 거 다.)

107014 @ ㄴ물국 헐 땀 어떻 저기 험니까?(나물국 할 땀 어떻게 저기 합니까?)

107014 #5 ㄴ물국은게 물 그레 놓아근네 끌어가면은게 그 노면은게 익어불민게 그것에 국 돼민 먹을 거.(나물국은 물 그리로 넣어서 끓으면 그 넣으면 익어버리면 그것에 국 되면 먹을 거.)

107014 @ 똥장은 언제 ㄴ?(된장은 언제 넣어서?)

107014 #5 아 똥장은게 그 저 거시기 물 ㄹ기 전에 ㄹ찌 ㄴ근에.(아 된장은 그 저 거시기 물 끓기 전에 같이 ㄴ서.)

107014 @ ㄹ찌 ㄴ근에.(같이 ㄴ서.)

107014 #5 저 ㄹ어ㄴ근에.(저 끓어나서.)

107014 @ 어.(어.)

107014 #5 그 저 거시기 ㄴ물 ㄴ중예 물 ㄹ어 놓으면 ㄴ물 ㄹ쁜 거나 똥 ㄹ쁜 거.(그 저 거시기 나물 나중예 물 끓어 놓으면 나물 같은 거나 똥 같은 거.)

107014 @ ㄴ물 해당은예 확 저 우녕에서 해당은예 확 시치근예 북북.(나물 해다가 확 저 터알에서 해다가 확 씻어서 박박.)

107014 #5 거 무지렁.(거 무지러서.)

107014 @ 무지러근예예.(무지러서요.)

107014 #5 으.(으.)

107015 @ 저기 ㄹ물이엔 험니까? ㄹ지름이엔 험니까? 여기는.(저기 ㄹ나물이라고 합니까? ㄹ나물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107015 #5 ㄹ물.(ㄹ나물.)

107015 @ ㄹ물예.(ㄹ나물요.)

107015 #5 으.(으.)

107015 @ ㄹ물국은 어떻 험니까? 어떻 끌여시민.(ㄹ나물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끓이면.)

107015 #5 아니 네네 그 그냥, 그딴 건 똥장이나 무시거 놓아기네게 ㄹ찌 ㄴ ㅅ어 ㄴ ㄹ찌 끌려.(아니 내내 그 그냥, 거기 건 된장이나 똥 ㄴ어서 같이 ㄴ어서 씻어 ㄴ서 같이 끓여.)

107015 @ 아, ㄹ 끌리기 전에 ㄹ찌 끌영.(아, 그렇게 끓기 전에 같이 끓여서.)

107015 #5 ㄹ찌 ㄴ 끌려벼사 익을 거.(같이 ㄴ어서 끓여버려야 익을 거.)

107015 @ ㄹ찌 익을 거.(같이 익을 거.)

107015 #5 으.(으.)

107015 @ 아, ㄹ물국은예.(아, ㄹ나물국은요.)

107015 #5 으.(으.)

107015 @ ㄹ물도 집이서 ㄴ지예?(ㄹ나물도 집에서 놓았지요?)

107015 #5 어, 집이서 ㄴ도 먹곡 거시기 이젠 ㄴ ㅅ 똥.(어, 집에서 놓아서도 먹고 거

시기 이젠 전부 참 뭐.)

107015 @ 이젠 문예. 다 저기.(이젠 전부요. 다 저기.)

107015 #5 사당은 먹고.(사다가는 먹고.)

107015 @ 사당은 먹고.(사다가는 먹고.)

107015 #5 으.(으.)

107015 @ 옛날은 콩 다.(옛날은 콩 다.)

107015 #5 다 이녁냥으로 저 밧디 콩도 흐쫄 거시기 해면은 그거 해당은에 낫당은에 저 국 끌려먹을 때나 이제 또 제숫 때나 그넌 것덜 이녁냥으로 와서 이제.(다 이녁대로 저 밧에 콩도 조금 거시기 하면 그거 해다가 놓았다가 저 국 끓여먹을 때나 이제 또 제사 때나 그런 것들 이녁대로 놓아서 이제.)

107015 @ 예.(예.)

107015 #5 키왕 키와서 이제.(키워서 키워서 이제.)

107015 @ 예.(예.)

107016 @ 그 무수 무수.(그 무 무.)

107016 #5 그 무수도 이녁 우영팟디덜 같아서 뭐 흐는 거.(그 무 무도 이녁 터탈에 같아서 뭐 하는 거.)

107016 @ 우영팟디 같아서 봐기네.(터알에 같아서 봐서.)

107016 #5 으.(으.)

107016 @ 그건.(그건.)

107016 #5 세우리 ㄱ튼 거나 무슨 ㄴ물 ㄱ튼 거 호박 ㄱ튼 거 다 이녁냥으로 이녁 손으로 다.(부추 같은 거나 무슨 나물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다 이녁대로 이녁 손으로 다.)

107015 @ 예.(예.)

107016 #5 우영팟 이년 우영에 같아서 먹는 거.(터알에 이런 터알에 같아서 먹는 거.)

107015 @ 무수는 썰 때 어떻 썬니까?(무는 썰 때 어떻게 썬니까?)

107016 #5 썰 때 어떻?(썰 때 어떻게?)

107015 @ 껍질.(껍질.)

107015 #5 껍질 벗겨 두고 써는 거주 무신.(껍질 벗겨 두고 서는 거지 무슨.)

107015 @ 썰어근에 그냥.(썰어서 그냥.)

107015 #5 영.(이렇게.)

107015 @ 영.(이렇게.)

107015 #5 응.(응.)

107015 @ 축축축 썰어근에.(착착착 썰어서.)

107015 #5 응 영 영 막 또 줌질게.(응 이렇게 이렇게 매우 또 자잘하게.)

107015 @ 줌질이 썰어근에예.(자잘이 썰어서요.)

107015 #5 응.(응.)

107015 @ 그냥 칼로 영 영 영 영 허는게 아니고?(그냥 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107015 #5 아니.(아니.)  
 107015 @ 아니라.(아니라.)  
 107015 #5 응.(응.)  
 107015 @ 게민 저기 돔베에.(그러면 저기 도마에.)  
 107015 #5 영 영 썰어놔기네 따시 영 썰어.(이렇게 이렇게 썰어놔서 다시 영 | 령게 썰어.)  
 107015 @ 게민 채 썰어근에 채 써는 거?(그러면 채 썰어서 채 써는 거?)  
 107015 #5 채 썰기.(채 썰기.)  
 107015 @ 예.(예.)  
 107015 #5 으.(으.)  
 107016 @ 저 늣뻘 허면은.(저 무 하면은.)  
 107016 #5 저 무수 ㄴ튼 거 막.(저 무 같은 거 마구.)  
 107016 @ 늣뻘엔 험니까? 무수엔 험니까?(무라고 함니까? 무라고 함니까?)  
 107016 #5 무수.(무.)  
 107016 @ 무수 해가지고예.(무 해가지고요.)  
 107016 #5 무수허곡 저는 디 갱변<sup>264</sup>에 가서게 너페 ㄴ튼 거.(무하고 저는 테 갯가에 가서 늣뻘 같은 거.)  
 107016 @ 너페허곡예.(늣뻘하고요.)  
 107016 #5 메어당은에 또 솟앙 낫당 끌이고.(매어다가 또 삶아서 뺏다가 끓이고.)  
 107016 @ 예.(예.)  
 107016 #5 그런 거.(그런 거.)  
 107016 @ 거는 저 겨울에 또 콩도?(거는 저 겨울에 또 콩도?)  
 107016 #5 으.(으.)  
 107017 @ 그 콩국도 하영 행 먹어실 거 아니파예?(그 콩국도 많이 해서 먹었을 거 아님니까요?)  
 107017 #5 으.(으.)  
 107017 @ 그 콩국은 어땡 해기네?(그 콩국은 어떻게 해서?)  
 107017 #5 콩게 콩국은게 콩 굴아다근에게 콩물 해뺏다근에 춤 먹곡.(콩 콩국은 콩 갈았다가 콩물 해놓았다가 참 먹고.)  
 107017 @ 예.(예.)  
 107017 #5 경 아녕은 그대로 또 거시기 행 먹곡 허는 거주.(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또 거시기 해서 먹고 하는 거지.)  
 107017 @ 콩은예.(콩은요.)  
 107017 #5 으.(으.)  
 107017 @ 콩은 ㄴ는 거는 옛날에는 기갯방 엇인 때는 집이서?(콩은 가는 거는 옛날

264) '갱변'은 제보자가 '갯가'를 잘못 말했다.

에는 기계방아 없을 때는 집에서?)

107017 #5 이 저 거시기 마레에 털 멧돌 마레에 굴민 콩국.(이 저 거시기 멧돌에 들 멧돌 멧돌에 갈면 콩국.)

107017 @ 마레로.(멧돌.)

107017 #5 물 물 저레 낫다가 가근에 멧돌로 마는 거라.(물 물 저리로 놓았다가 가서 멧돌로 가는 거야.)

107017 @ 멧돌로 굴아근네예.(멧돌로 갈아서요.)

107017 #5 으.(으.)

107017 @ 멧돌이엔 해수파? 마레로엔 해수파?(멧돌이라고 했습니까? 멧돌이라고 했습니까?)

107017 #5 멧돌 마레.(멧돌 멧돌.)

107017 @ 마레예.(멧돌요.)

107017 #5 마레 영.(멧돌 이렇게.)

107017 @ 아.(아.)

107017 #5 돌 마레 영.(돌멧돌 이렇게.)

107017 @ 돌 마레엔 해기네예.(돌멧돌이라고요.)

107017 #5 으.(으.)

107017 @ 아.(아.)

107017 #5 따시 거시기헌 큰 거시기엔 물 마레.(다시 거시기한 큰 거시기에는 연자매.)

107017 @ 예.(예.)

107017 #5 으.(으.)

107017 @ 아 물 담앗당 물에 헛당은에 그 멧돌로 굴앗당은에 그걸.(아 물 담았다가 물에 했다가 그 멧돌로 갈았다가 그걸.)

107017 #5 으게.(으.)

107017 @ 그걸로 해기네 콩국을 썰구나예?(그걸로 해서 콩국을 썰었군요?)

107017 #5 으.(으.)

107017 @ 콩국 쓸 때는 잘도 어려웠덴 허멍.(콩국 쓸 때는 잘도 어려웠다고 하면서.)

107017 #5 으. 그것이 그추록 해와근에 두부도 멘들고 거로 그렇게 허는 거라.(으. 그것이 그처럼 해놓아서 두부도 만들고 거로 그렇게 하는 거야.)

107017 @ 두부도?(두부도?)

107017 #5 으.(으.)

107017 @ 두부엔 허면은 둬비엔 험니까?(두부라고 하면 두부라고 합니까?)

107017 #5 저 거시기게 둬비이.(저 거시기 두부.)

107017 @ 둬비예.(두부요.)

107017 #5 으.(으.)

107017 @ 아 둬비예.(아 두부요.)

107018 @ 여름에 지금쫘 헐 때는 호박, 호박으로.(여름에 지금쫘 할 때는 호박, 호박

으로.)

107018 #5 호박국도 끌영 먹곡 호박 다 허는 거.(호박국도 끓여서 먹고 호박 다 하는 거.)

107018 @ 호박잎국은 어떻 끓여시쿠과?(호박잎국은 어떻게 끓였겠습니까?)

107018 #5 호박잎국은 게메, 호박 잎 툇아다가 그넨 줄거리 무시거 영 뱃겨두고.(호박잎국은 글썽, 호박 잎 뜯어다가 그런 줄거리 무엇 이렇게 뱃겨서.)

107018 @ 뱃겨두고예.(뱃겨서요.)

107018 #5 물에 싹쳐 낯다가 물 끌어 가민 그레 노민 뵤주게.(물에 싹어 놓았다가 물 끌어 가면 그리로 넣으면 되지.)

107018 @ 그레 뵤기네예.(그리로 넣어서요.)

107018 #5 으.(으.)

107018 @ 호박잎 흘 떼는 또.(호박잎 할 때는 또.)

107018 #5 ㄱ루 또 흥쉴 카 노민 그췌룩 행 먹고.(가루 또 조금 타 넣으면 것처럼 해서 먹고.)

107018 @ 으. ㄱ루는 옛날은 무슨 ㄱ루로 헤신고예?(으. 가루는 옛날은 무슨 가루로 했는가요?)

107018 #5 아 옛날도 뵤 밀ㄱ루나 뵤 무신거 보릿ㄱ루나 그넨 것덜 놓고.(아 옛날도 뵤 밀가루나 뵤 무엇 보릿가루나 그런 것들 넣고.)

107018 @ 보릿ㄱ루예.(보릿가루요.)

107018 #5 으.(으.)

107018 @ 그췌 헤기네 행 먹고 거 진짜 맛 좋으키여예.(그처럼 해서 해서 먹고 거 진짜 맛 좋겠네요.)

107018 #5 으으.(으으.)

107018 @ 지금도.(지금도.)

107018 #5 지금도 경 허멍 저 밀ㄱ루 노멍 끌여 먹는다.(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저 밀가루 넣으면서 끓여 먹는데.)

107018 @ 예.(예.)

107018 #5 으.(으.)

107018 @ 호박 뵤기네는?(호박 넣어서는?)

107018 #5 호박 ㄱ뜯 것도 다 이기서 허민.(호박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하면.)

107018 @ 호박 뵤기네 허민.(호박 넣어서 하면.)

107018 #5 국 헤먹곡 갈치 ㄱ뜯거 나까 오면 끌영도 먹곡.(국 헤먹고 갈치 같은 거 낚아 오면 끓여서도 먹고.)

107018 @ 끌영도 먹곡예.(끓여서도 먹고요.)

107018 #5 으.(으.)

107018 @ 갈치예.(갈치요.)

107018 #5 으.(으.)

107018 @ 으. 갈치허고 호박허고.(으. 갈치하고 호박하고.)

107018 #5 으.(으.)

107019 @ 몐도.(모자반도.)

107019 #5 으.(으.)

107019 @ 몐국 여기 몐도 하영 몐이 나시난.(‘모자반국’ 여기 모자반도 많이 모자반이 났으니까.)

107019 #5 으.(으.)

107019 @ 몐국 저 맛 좋게 끓이젠 허민 어떻게 끓여야 돼쿠과? 예.(모자반국 저 맛 좋게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끓여야 되겠습니까? 예.)

107019 #5 몐국은 저 젓국덜 그 저 무신 자리젓 국물이나 무신.(모자반국은 저 젓국들 그 저 무슨 자리젓 국물이나 무슨.)

107019 @ 으.(으.)

107019 #5 자리젓 국물 펠젓 국물이나 그런 것들 젓국 땡 끓이민 맛있지.(자리젓 국물 펠치젓 국물이나 그런 것들 젓국 넣어서 끓이면 맛있지.)

107019 @ 아 몐에.(아 모자반에.)

107019 #5 으.(으.)

107019 @ 아.(아.)

107019 #5 젓국, 끓릴 때.(젓국, 끓일 때.)

107019 @ 아.(아.)

107019 #5 장국은 별다로 안허고.(장국은 별로 안고.)

107019 @ 젓국.(젓국.)

107019 #5 그런 건.(그런 건.)

107019 @ 젓국 싸기네.(젓국 넣어서.)

107019 #5 으.(으.)

107019 @ 게민 몐 허민.(그러면 모자반 하면.)

107019 #5 젓갈 국.(젓갈 국.)

107019 @ 몐허고 또 무시거?(모자반하고 또 무엇?)

107019 #5 으?(으?)

107019 @ 몐만 놓니까?(모자반만 넣습니까?)

107019 #5 몐만.(모자반만.)

107019 @ 어 몐만허고 젓국 싸기네.(어 모자반만하고 젓국 넣어서.)

107019 #5 으.(으.)

107019 @ 끓여근에.(끓여서.)

107019 #5 으.(으.)

107019 @ 아. 그거는 계속 저기 뵈다기네 또 데와기네 먹어도.(아. 그거는 계속 저기 뵈었다가 또 데워서 먹어도.)

107019 #5 으.(으.)

107019 @ 거 그.(거 그.)

107019 #5 여름 땀 몰르주만은 거 겨울 땀이나 무시거 헐 땀 혼엇시 무시거 뵈허진 아녀.(여름 땀 모르지만 거 겨울 때이나 무엇 할 땀 별로 무엇 변하지는 않아.)

107019 @ 뵈허진 아녀예.(변하지는 않아예.)

107019 #5 으.(으.)

107019 @ 예. 경해근예.(예. 그렇게 해서.)

107019 #5 여름엔 이거 막 더울 때난 뵈헤 놓앙 놔두민 뵈허지.(여름엔 이거 매우 더울 때난 뵈헤 놓아서 놔두면 변하지.)

107019 @ 예.(예.)

107019 #5 먹당 놔두민.(먹다가 놓아두면.)

107019 @ 예. 경허고 또 몀은.(예. 그렇고 또 모자반은.)

107019 #5 몀게, 몀도 저 거시기 모자반덜토 헤여 헤다근예 몰라 놔둬서르 뵈앙 그것도 끌여 먹고.(모자반, 모자반도 저 거시기 모자반들도 해서 헤다가 말려 놔두어서 뵈아서 그것도 끓여 먹고.)

107019 @ 모자반 몀이엔 허지예?(모자반 모자반이라고 하지요?)

107019 #5 몀.(모자반.)

107019 @ 몀 헤가지고.(모자반 헤가지고.)

107019 #5 저 그런 것도게 도야지고기나 무신 거 그 큰일 때에나 허면은.(저 그런 것도 돼지고기나 무슨 거 그 큰일 때에나 하면은.)

107019 @ 몀.(모자반.)

107019 #5 몀 놔기네 몀.(모자반 넣어서 모자반.)

107019 @ 예.(예.)

107019 #5 으.(으.)

107019 @ 몀 뵈 허고.(모자반 넣어서 하고.)

107019 #5 국 끌여근예 허고.(국 끓여서 하고.)

107019 @ 국 끌여근예 허고.(국 끓여서 하고.)

107019 #5 으.(으.)

107020 @ 경허고 그 바닷궤기로.(그렇고 그 바다고기로.)

107020 #5 으.(으.)

107020 @ 그 국을 허젠 허민예?(그 국을 하려고 하면요?)

107020 #5 으.(으.)

107020 @ 바닷궤기도 종류가 막 하지 았우파예?(바다고기도 종류가 매우 많지 았습니까요?)

107020 #5 으.(으.)

107020 @ 게민 그 종류를 한 번 곱아줍서.(그러면 그 종류를 한 번 말해주십시오.)

107020 #5 물툏도<sup>265)</sup> 잇고.(감성돔도 잇고.)

---

265) '물툏'은 감성돔을 말한다.

107020 @ 물툫.(감성돔.)  
 107020 #5 웅이도 잇고 머.(흑돔도 잇고 뭐.)  
 107020 @ 예.(예.)  
 107020 #5 다금바리도 잇고.(다금바리도 잇고.)  
 107020 @ 국 끌릴 때.(국 끓일 때.)  
 107020 #5 으.(으.)  
 107020 @ 게민 물툫국이엔?(그러면 감성돔국이라고?)  
 107020 #5 으?(으?)  
 107020 @ 그 물툫국이엔 험니까?(그 감성돔국이라고 합니까?)  
 107020 #5 으.(으.)  
 107020 @ 게민 다금바리 국이엔허고?(다금바리도 국이라고 하고?)  
 107020 #5 으.(으.)  
 107020 @ 또.(또.)  
 107020 #5 논쟁이국.<sup>266</sup>(‘논쟁이’국.)  
 107020 @ 논쟁이국?(‘논쟁이’국?)  
 107020 #5 으.(으.)  
 107020 @ 예.(예.)  
 107020 #5 무신 볼락국도.(무슨 ‘볼락국.’)  
 107020 @ 예. 볼락국도.(예. ‘볼락국’도.)  
 107020 #5 우럭국.(‘우럭국.’)  
 107020 @ 우럭국.(‘우럭국.’)  
 107020 #5 어랭이 머 무신.(어랭놀래기 뭐 무슨.)  
 107020 @ 어랭이국.(어랭놀래기.)  
 107020 #5 그런 거 무신 다 이서.(그런 거 무슨 있어.)  
 107020 @ 예.(예.)  
 107020 #5 으.(으.)  
 107020 @ 그 식게 때 올리는 국은?(그 제사 때 올리는 국은?)  
 107020 #5 제삿 때 올리는 거는게 갱.(제사 때 올리는 거는 갱.)  
 107020 @ 갱이엔.(갱이라고.)  
 107020 #5 갱국 끌리는데 머 우럭국이나 머 참 저 닻 저 거시기 다금바리 ㄹ쁜 거나  
 머 무시거 그런 것덜 다 헤영 끌여근에.(갱 국 끓이는데 뭐 우럭국이나 뭐 참 저 다 저  
 거시기 다금바리 같은 거나 머 무엇 그런 것들 다 해서 끓여서.)  
 107020 @ 끌여근에.(끓여서.)  
 107020 #5 으.(으.)  
 107020 @ 올려근에예.(올려서요.)

266) ‘논쟁이’는 조기강 농어목의 한 과인 다동가릿과 물고기를 이리며 아홉동가리, 여덟동가리 따위가 있다.

107020 #5 으.(으.)

107020 @ 게민 그.(그러면 그.)

107020 #5 메역 놓고.(미역 넣고.)

107020 @ 메역 놓곡.(미역 넣고.)

107020 #5 으.(으.)

107020 @ 거 거기 가시가 세어서 헐 건데예.(거 거기 가시가 세서 할 건데요.)

107020 #5 으.(으.)

107020 @ 그 그걸 어떻 행?(그 그걸 어떻게 해서?)

107020 #5 그 거시기게 술 떼어놓고 거시기해서 그 특헉게시리 그 갱국으로 올리무  
뒀어.(그 거시기 살 떼어놓고 거시기해서 그 탁하게끔 그 갱 국으로 올리면 돼.)

107020 @ 아 특 해영 떼어근에예.(아 탁 해서 떼어서요.)

107020 #5 으.(으.)

107020 @ 게민 막 팔팔 끌영 고기를 놓쿠과? 어떻.(그러면 마구 팔팔 끓여서 고기를  
넣겠습니까? 어떻게.)

107020 #5 아니 고기 그자 물 거시기에 ㄴ찌 놔근에.(아니 고기 그저 물 거시기에 같  
이 넣어서.)

107020 @ ㄴ찌 놔근에.(같이 넣어서.)

107020 #5 ㄴ 맛좌근에 그 국 끌여근에 그 그레 올리는 거주.(간 맞추어서 그 국 끓  
여서 그 그리로 올리는 거지.)

107020 @ 거기 ㄴ은 무시걸로 마추코예?(거기 간은 무엇으로 맞출까요?)

107020 #5 아 ㄴ장으로.(아 간장으로.)

107020 @ ㄴ장으로.(간장으로.)

107020 #5 다 ㄴ장으로.(다 간장으로.)

107020 @ ㄴ장으로예.(간장으로요.)

107020 #5 으.(으.)

107020 @ 아.(아.)

107020 #5 쿵 ㄴ장.(쿵 간장.)

107020 @ 무수도 놔근에 그때 헤신가마씨?(무도 넣어서 그때 했는가요?)

107020 #5 무수도 메역 ㄴ쁜 거 아니 해면은 그런 것도 낱혀고.(무도 미역 같은 거  
아니 하면은 그런 것도 넣어서하고.)

107020 @ 무수도 낱혀고예.(무도 넣어서하고요.)

107020 #5 무수 ㄴ쁜 것덜.(무 같은 것들.)

107020 @ 예예.(예예.)

107020 #5 으.(으.)

107020 @ 게민 국이 안 되는 거가 엇이키여예?(그러면 국이 안 되는 것이 없겠네  
요?)

107020 #5 으.(으.)

107020 @ 바당엿 거.(바다에 겻.)  
 107020 #5 으.(으.)  
 107020 @ 예예.(예예.)  
 107020 #5 바당엿 거 국 아니 되는 거 엿어.(바다에 거 국 아니 되는 거 없어.)  
 107020 @ 국 안 되는 거예.(국 안 되는 거요.)  
 107020 #5 으.(으.)  
 107020 @ 너페국도 잇곡.(‘넙패국’도 있고.)  
 107020 #5 너페국도 잇곡.(‘넙패국’도 있고.)  
 107020 @ 뎡 또.(모자반 또.)  
 107020 #5 뎡 가시리국도 잇곡 다 잇어.(뎡 ‘우뎡가사리국’도 있고 다 잇어.)  
 107020 @ 예.(예.)  
 107020 #5 으.(으.)  
 107020 @ 생선 허게 뎡면은 저, 뎡국도 잇곡예.(생선 허게 뎡면은 저, ‘뎡치국’도 있  
 고요.)  
 107020 #5 으.(으.)  
 107020 @ 갈치국도.(‘갈치국’도.)  
 107020 #5 갈치국 뎡국 뎡 바당에 나는 건 다 잇어.(‘갈치국’ ‘뎡치국’ 뎡 바다에 나는  
 건 다 잇어.)  
 107020 @ 또 저기 이 종류별로 다예.(또 저기 이 종류별로 다요.)  
 107020 #5 으. 종류별로 다.(으. 종류별로 다.)  
 107020 @ 예.(예.)  
 107020 #5 으.(으.)  
 107021 @ 그 메역국?(그 미역국?)  
 107021 #5 메역.(미역.)  
 107021 @ 메역은 그 하간디 들어가는 거난.(미역은 그 많은데 들어가는 거니까.)  
 107021 #5 으.(으.)  
 107021 @ 그 메역국으로 헐 수 있는 것덜? 다.(그 미역국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107021 #5 다.(전부.)  
 107021 @ 생선 놓고도 헐 수 있는 거고.(생선 놓고도 할 수 있는 거고.)  
 107021 #5 막 그 고기덜 무시것덜 고기덜 노면.(마구 그 고기들 무엇들 고기들 놓으  
 면.)  
 107021 @ 으.(으.)  
 107021 #5 메역국 무수국.(미역국 못국.)  
 107021 @ 예.(예.)  
 107021 #5 으.(으.)  
 107021 @ 고기도 생선에 다 뎡고 또 육고기도.(고기도 생선에 다 되고 또 육고기도.)  
 107021 #5 으.(으.)



107021 @ 메역 놔기네 국 끌리지 안으쿠과예?(미역 넣어서 국 끓이지 않겠습니까요?)

107021 #5 육고기에도 메역 넣도 끌리고.(육고기에도 미역 넣어서 끓이고.)

107021 @ 예. 그 소고기 ㄱ뜬것도 저기 헐 수도 잇고예.(예. 그 소고기 같은 것도 저기 할 수도 잇고요.)

107021 #5 으. 소고기 ㄱ뜬 거 도야지고기 ㄱ뜬 것도.(으.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것도.)

107021 @ 도야지고기도 잇고예.(돼지고기도 잇고요.)

107021 #5 으.(으.)

107021 @ 예.(예.)

107021 #5 으.(으.)

107021 @ 답에는 그 메역 놓지 안으지예?(답에는 그 미역 넣지 않지요?)

107021 #5 어?(어?)

107021 @ 득 득.(답 답.)

107021 #5 답예?(답예?)

107021 @ 득.(답.)

107021 #5 득.(답.)

107021 @ 예.(예.)

107021 #5 아니.(아니.)

107021 @ 안 놓고예.(안 넣고요?)

107021 #5 안 놓고.(안 넣고.)

107021 @ 예.(예.)

107022 @ 그 삼촌 여름에.(그 삼촌 여름에.)

107022 #5 으.(으.)

107022 @ 냉국예?(냉국요?)

107022 #5 으.(으.)

107022 @ 냉국.(냉국.)

107022 #5 으.(으.)

107022 @ 여름에는 머 다 냉국이 될 건디 냉국에 데해서 골아줍서.(여름에는 뭐 다 냉국이 될 건디 냉국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22 #5 으.(으.)

107022 @ 냉국 허젠 허면은 제일 좋은 게 어떤 걸 노민 냉국에 제일 좋코예?(냉국 하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걸 넣으면 냉국에 제일 좋을까요?)

107022 #5 아 초 농곡게, 저 웬장 춤 걸러근에 툃허게 놔근에 머 저 국 만들민.(아 초 넣고 저 된장 참 걸러서 탁하게 넣어서 뭐 저 국 만들면.)

107022 @ 국 만들영예.(국 만들어서요.)

107022 #5 으. 곤장이나 농곡허민.(으. 간장이나 농고하면.)

107022 @ 아.(아.)  
107022 #5 그것이 냉국이지.(그것이 냉국이지.)  
107022 @ 냉국예.(냉국요.)  
107022 #5 으.(으.)  
107022 @ 게민.(그러면.)  
107022 #5 냉국.(냉국.)  
107022 @ 놓는 거는?(넣는 거는?)  
107022 #5 어?(어?)  
107022 @ 놓는 거.(넣는 거.)  
107022 #5 아 놓는 거는 저 꿔 ㄴ쁜 거, 머 볍은 거나 이시문 그넌 것도 놓고.(아 넣는 거는 저 깨 같은 거, 뭇 볍은 거나 있으면 그런 것도 넣고.)  
107022 @ 그거 놓고.(그거 넣고.)  
107022 #5 으.(으.)  
107022 @ 거는 양념이고 게민 메역도 꿔고예?(거는 양념이고 그러면 미역도 되고요?)  
107022 #5 메역도 냉국허젠 허민 그넌 것덜 노명 다 헤영 허고.(미역도 냉국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 넣으면서 다 해서 하고.)  
107022 @ 경허고 ㄴ물 솥양은예.(그렇고 나물 삶아서.)  
107022 #5 ㄴ물도 솥양도 냉국 해먹곡.(나물도 삶아서도 냉국 해먹고.)  
107022 @ 냉국 해먹곡.(냉국 해먹고.)  
107022 #5 으.(으.)  
107022 @ 예.(예.)  
107022 #5 모든 것이 다.(모든 것이 다.)  
107022 @ 예.(예.)  
107022 #5 으.(으.)  
107022 @ 물웨도 놓고.(물웨도 넣고.)  
107022 #5 물웨도 놓고.(오이도 넣고.)  
107022 @ 예.(예.)  
107022 #5 다 그치록.(다 그처럼.)  
107022 @ 으. 그 경허곡 거기에 저 생선덜은예?(으. 그 그렇고 거기에 저 생선들은요?)  
107022 #5 으.(으.)  
107022 @ 이 바당에서 나오는 거 ㄴ쁜 거 이시민.(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같은 거 있으면.)  
107022 #5 으.(으.)  
107022 @ 그거 꿔 ㄴ음 헤가지고 썰어 ㄴ근에 저.(그거 회감 헤가지고 썰어 넣어서 저.)

107022 #5 건 건 사시미이.(건 건 생선회.)  
 107022 @ 아 사시미?(아 생선회?)  
 107022 #5 으.(으.)  
 107022 @ 그거 국 안 허곡?(그거 국 았고?)  
 107022 #5 사시미로 먹어.(생선회로 먹어.)  
 107022 @ 사시미로 먹고.(생선회로 먹고.)  
 107022 #5 으.(으.)  
 107022 @ 국은 안 허곡?(국은 았고?)  
 107022 #5 으.(으.)  
 107022 @ 자리나?(자리돔이나?)  
 107022 #5 자리나 마 마찬가지로.(자리돔이나 마 마찬가지로.)  
 107022 @ 아 자리나 자리나 냉국허곡?(아 자리돔이나 냉국하고?)  
 107022 #5 으.(으.)  
 107022 @ 다른 고기들은?(다른 고기들은?)  
 107022 #5 며.(며.)  
 107022 @ 사시미로나 먹고.(생선회로나 먹고.)  
 107022 #5 으.(으.)  
 107022 @ 며 냉국은 안헛구나예?(뭐 냉국은 았았군요?)  
 107022 #5 냉국은 았아.(냉국은 았아.)  
 107022 @ 으.(으.)  
 107022 #5 며.(며.)  
 107022 @ 어랭이는 어떻 험니까?(어랭놀래기는 어떻게 합니까?)  
 107022 #5 어랭이도 저 그대로 저 사시미로 먹는 사름들은 사시미로 먹곡.(어랭놀래기도 저 그대로 저 생선회로 먹는 사름들은 생선회로 먹고.)  
 107022 @ 으.(으.)  
 107022 #5 경 아녀민 다 또 지지나 끌리나 저.(그렇지 았으면 다 또 지지나 끓이나 저.)  
 107022 @ 지지나 끌리나.(지지나 끓이나.)  
 107022 #5 으.(으.)  
 107022 @ 냉국은 안 허고예?(냉국은 았고요?)  
 107022 #5 으.(으.)  
 107022 @ 냉국에는 그 허는 게 메역 ㄱ뜬 거.(냉국에는 그 하는 게 미역 같은 거.)  
 107022 #5 으.(으.)  
 107022 @ 메역 ㄱ뜬 거.(미역 같은 거.)  
 107022 #5 으.(으.)  
 107022 @ ㄴ물 ㄱ뜬 거 그런 걸로 헤기네 허곡.(나물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하고.)  
 107022 #5 으.(으.)

107022 @ 그런 걸로 헤기네 허곡 헛구나예?(그런 걸로 해서 하고 했군요?)  
 107022 #5 으.(으.)  
 107022 @ 그 바다에 거 나 온 걸 사시미 허곡.(그 바다에 거 나 온 걸 생선회 하고.)  
 107022 #5 으.(으.)  
 107022 @ 이 고기 허거나 행 허지 안 허고예?(이 고기 하거나 해서 하지 않고요?)  
 107022 #5 으.(으.)  
 107022 @ 예.(예.)  
 107022 #5 자리훤나 ㄴ쁜 거나 벳긴 거 당취.(자리회나 같은 거나 밖에는 거 영.)  
 107022 @ 예.(예.)  
 107022 #5 으.(으.)  
 107022 @ 자리훤 훤로 먹고예?(자리회 회로 먹고요?)  
 107022 #5 경헌디 바다에 나는 것은 소라 ㄴ쁜 거나 무신 헤슴 ㄴ쁜 거나 그넌 것덜  
 이나 해서 저 좇국이나 허지.(그런데 바다에 나는 것은 소라 같은 거나 무슨 해삼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나 해서 저 좇국이나 허지.)  
 107022 @ 헤슴 ㄴ쁜 거예.(해삼 같은 거요.)  
 107022 #5 으.(으.)  
 107022 @ 헤슴이나예.(해삼이나요.)  
 107022 #5 으.(으.)  
 107022 @ 예.(예.)  
 107022 #5 그넌 것덜 허지 머.(그런 것들 하지 뭐.)  
 107022 @ 예.(예.)  
 107022 #5 다는 건 아니혀.(다른 건 앓아.)  
 107022 @ 예.(예.)  
 107022 #5 으.(으.)  
 107022 @ 그 고동 놔기네 국도 안헉니까?(그 소라 넣어서 국도 안합니까?)  
 107022 #5 으?(으?)  
 107022 @ 냉국?(냉국?)  
 107022 #5 게 소라게 그 고동.(그럼 소라 그 소라.)  
 107022 @ 아 소라, 예예.(아 소라, 예예.)  
 107022 #5 으.(으.)  
 107022 @ 예.(예.)  
 107022 #5 고동.(소라.)  
 107022 @ 고동예.(소라요.)  
 107022 #5 으.(으.)  
 107022 @ 그 웨로 냉국은 그거 허곡.(그 외로 냉국은 그거 하고.)  
 107022 #5 으.(으.)  
 107023 @ 그냥, 그 성게 요즘은 성게국 보말국 막.(그냥, 그 성게 요즘은 ‘성게국’ 보

말고등 매우.)

107023 #5 그년 것털은 다.(그런 것들은 다.)

107023 @ 유명허는디.(유명한데.)

107023 #5 그 성기국덜토 메역 놓앙 끌리민.(그 성게국들도 미역 놓아서 끓이면.)

107023 @ 아.(아.)

107023 #5 으.(으.)

107023 @ 옛날은 성기국이엔 해수파?(옛날은 성게국이라고 했습니까?)

107023 #5 으.(으.)

107023 @ 귀국이엔 해수파?(성게라고 했습니까?)

107023 #5 저 옛날은 성기엔도 허국 귀엔도 헛주게.(저 옛날은 ‘귀’라고도 하고 성게라고도 했지.)

107023 @ 귀엔도 허고예.(성게라고도 하고요.)

107023 #5 으.(으.)

107023 @ 예.(예.)

107023 #5 그거 저기 소라 소라 낱 저 거시기 고동 놓고.(그거 저기 소라 소라 넣어서 저 거시기 소라 넣고.)

107023 @ 고동 놓고 허고예.(소라 넣고 하고요.)

107023 #5 으.(으.)

107023 @ 보말?(보말고등?)

107023 #5 보말은 보말국이엔 허국.(보말고등은 보말고등이라고 하고.)

107023 @ 보말국이엔 허국.(보말고등이라고 하고.)

107023 #5 으.(으.)

107023 @ 보말도 종류가 이 잇실 거 아니파?(보말고등도 종류가 이 잇을 거 아닙니까?)

107023 #5 돌포말 무신 수두리보말 먹보말[먹뽕말] 경.(눈알고등 무슨 두드럭고등 밤고등 그렇게.)

107023 @ 먹보말국 수두리.(‘밤고등국’ 두드럭고등.)

107023 #5 으.(으.)

107023 @ 저기 돌보말도 국 헵니까?(저기 눈알고등도 국 헵니까?)

107023 #5 돌포말도 국 끌령 먹고 헤여.(눈알고등도 국 끓여서 먹고 해.)

107023 @ 국 끌령 해근에 먹고예.(국 끓여서 해서 먹고요.)

107023 #5 국 끌령 먹국 행.(국 끓여서 먹고 해서.)

107023 @ 예.(예.)

107023 #5 ㄱ메기영 다 거 개젓디 것털은 다 머 어떻 해도 다 먹는 거.(남방울타리고 등하고 다 거 갯가에 것들은 다 뭐 어떻게 해도 다 먹는 거.)

107023 @ 예. 거는 ㄱ메기지예?(예. 거는 남방울타리고등이지요?)

107023 #5 으.(으.)

107023 @ 보말이엔.(고둥이라고.)  
 107023 #5 보말.(고둥.)  
 107023 @ 보말 ㄱ똥 것덜예.(고둥 같은 것들요.)  
 107023 #5 가마구보말<sup>267</sup>)이니 머니 머 갯것디꺼덜은 전부 다.(가마귀보말이니 뭐니  
 뭐 갯가에 것들은 전부 다.)  
 107023 @ 예.(예.)  
 107023 #5 군벗이여 머여.(딱지조개다 뭐다.)  
 107023 @ 다 국 해근예.(다 국 해서.)  
 107023 #5 으.(으.)  
 107023 @ 메역 메역 놔기네.(미역 미역 넣어서.)  
 107023 #5 으.(으.)  
 107023 @ 예. 그 보말 저기 ㄱ메기국덜 허고 너페국도 인척에 허고.(예. 그 고둥 저  
 기 남방울타리고둥국들 하고 ‘넙패국’도 일찍이 하고.)  
 107023 #5 너페국도 싣고.(‘넙패국’도 있고.)  
 107023 @ 곱아신디.(말했는데.)  
 107023 #5 으.(으.)  
 107023 @ 너페국은 보통.(‘넙패국’은 보통.)  
 107023 #5 장 놔근예 끌리는 거라.(장 넣어서 끓이는 거야.)  
 107023 @ 장 놔근예.(장 넣어서.)  
 107023 #5 으.(으.)  
 107023 @ 예. 장 낱예?(예. 장 넣어서요?)  
 107023 #5 으.(으.)  
 107023 @ 예. 프레국도?(예. 파래국도?)  
 107023 #5 프레도 놓면 저 장 낱은예.(파래도 놓으면 저 장 넣어서.)  
 107023 @ 장 낱마씨.(장 넣어서요.)  
 107023 #5 으.(으.)  
 107023 @ 프레도예.(파래도요.)  
 107023 #5 곤 맞 곤 맞춤만 허민.(간 맞 간 맞추기만 하면.)  
 107023 @ 으. 이웨에 물훼 물훼는 이.(으. 이외에 물회 물회는 이.)  
 107023 #5 아 그 웨 썰어 놓앙은에게 더, 물훼도 허곡 머 허곡 허는 거주.(아 그 외  
 썰어 놓아서 더, 물회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지.)  
 107023 @ 예. 웨 썰어 놓앙예.(예. 외 썰어 놓아서요.)  
 107023 #5 으.(으.)  
 107023 @ 지슬로도 국 끌영은에 지슬.(감자로도 국 끓여서 감자.)  
 107023 #5 으?(으?)  
 107023 @ 저기 심엿다근예.(저기 심었다가.)

267) ‘가마구보말’은 ‘가마귀보말’로 껍데기가 까마귀와 같이 유난히 검은 다슬기 종류 중 하나다.

107023 #5 지슬 ㄱ쁜 건 이레.(감자 같은 건 이리.)  
 107023 @ 여름에는.(여름에는.)  
 107023 #5 전이 옛날은 지슬 ㄱ쁜 건.(전에 옛날은 감자 같은 건.)  
 107023 @ 예.(예.)  
 107023 #5 이 딴 안 싱거.(이 데는 안 심어.)  
 107023 @ 안 허고예.(않고요.)  
 107023 #5 으.(으.)  
 107023 @ 여기에 그 자리에.(여기에 그 자리돔에.)  
 107023 #5 자리도 자리 자리 ㄱ쁜 것도.(자리돔도 자리돔 자리돔 같은 것도.)  
 107023 @ 예.(예.)  
 107023 #5 젓 해여근에 거 젓 해놔도.(젓 해서 거 젓 해놔도.)  
 107023 @ 국, 국 자리로.(국, 국 자리돔으로.)  
 107023 #5 저 거시기 해영 자리회로도 먹고.(저 거시기 해서 자리회로도 먹고.)  
 107023 @ 자리회로 해기네.(자리회로 해서.)  
 107023 #5 으.(으.)  
 107023 @ 물 놔기네 물.(물넣어서 물.)  
 107023 #5 물회.(자리회.)  
 107023 @ 자리물회 웬장 농곡 행은네예.(자리회 된장 넣고 해서요.)  
 107023 #5 그넌 것덜 다.(그런 것들 다.)  
 107023 @ 예.(예.)  
 107023 #5 자리물회여 무시거라도 뭐.(자리회다 무엇이랄도 뭐.)  
 107023 @ 예.(예.)  
 107023 #5 고기덜토 뭐 싱싱헌 걸로 허면 사시미여 뭐여. 다 옛날은 먹는 거엔 허민 그자.(고기들도 뭐 싱싱한 걸로 하면 ‘사시미’다 뭐다. 다 옛날은 먹는 거라고 하면 그 저.)  
 107023 @ 예.(예.)

## 죽류

107024 @ 그 다음에 죽예.(그 다음에 죽요.)  
 107024 #5 어.(어.)  
 107024 @ 죽덜예. 옛날에.(죽들요. 옛날에.)  
 107024 #5 어.(어.)  
 107024 @ 애기덜 그 밥 먹거나 애기덜 해기네 맥이젠 허면은 죽을 끌여근에예.(애기들 그 밥 먹거나 애기들 해서 먹이려고 하면은 죽을 끓여서요.)  
 107024 #5 죽도게 줍쌀 낱 죽 쭈는 것도 싣고.(죽도 줍쌀 넣어서 죽 쭈는 것도 있고.)  
 107024 @ 예.(예.)

107024 #5 곤썰 낱 죽 쑤는 것도 싣고.(흰쌀 넣어서 죽 쑤는 것도 있고.)

107024 @ 예.(예.)

107024 #5 그 곤썰이엔 혼 건 저 썰 놓아기네 저 흰썰 놔기네 죽 썰덜 흥고게.(그 흰쌀이라고 한 건 저 쌀 넣어서 저 흰쌀 넣어서 죽 쑤어서들 하고.)

107024 @ 예.(예.)

107024 #5 그렇게덜 해서.(그렇게들 했어.)

107024 @ 예.(예.)

107024 #5 경 흥민 어린 아기덜 무시거 흥젠 허민 그것이 저 국물로만.(그렇게 하면 어린 아기들 무엇 하려고 하면 그것이 저 국물로만.)

107024 @ 국물로만예.(국물로만요.)

107024 #5 으.(으.)

107024 @ 예.(예.)

107024 #5 아기덜 그 목 목에 거시기 허카부덴 그 어린 것덜 맥일 덕에 머 그런 것도.(아기들 그 목 목에 거시기 할까보다고 그 어린 것들 먹일 적에 뭐 그런 것도.)

107024 @ 예예.(예예.)

107024 #5 으.(으.)

107024 @ 경허곡 그 감기 걸릴 때도 머 저기 죽 끌려근예.(그렇고 그 감기 걸릴 때도 뭐 저기 죽 끓여서.)

107024 #5 으.(으.)

107024 @ 먹으면은 그 믈 믈썰 놔근예.(먹으면 그 메 메밀쌀 넣어서.)

107024 #5 믈썰에 저 거시기 페마농.(메밀쌀에 저 거시기 파.)

107024 @ 페마농.(파.)

107024 #5 으.(으.)

107024 @ 예.(예.)

107024 #5 뿌리 놔근예 ㄹ찌.(뿌리 넣어서 같이.)

107024 @ 뿌리 놔근예요.(뿌리 넣어서요.)

107024 #5 으.(으.)

107024 @ 경허민 확 좋덴.(그러면 확 좋다고.)

107024 #5 으.(으.)

107024 @ 좋아진덴 헤기네예.(좋아진다고 해서요.)

107024 #5 으.(으.)

107024 @ 또 이제 전복죽도 삼춘네 물 물질헤시난예.(또 이제 전복죽도 삼춘네 물 물질했으니까.)

107024 #5 전복도 저 거시기 썰어 놔기네 저 거시기 기름에 기름 쪼끔 놔기네 옛날은 나물기름.(전복도 저 거시기 썰어 넣어서 저 거시기 기름에 기름 조금 넣어서 옛날은 나물기름.)

107024 @ 나물기름예.(나물기름요.)



107024 #5 누물키름 놔기네 쪼끔 놔기네 영 볍아기네 그것에 이제 그 쌀 놔기네.(나 물기름 넣어서 조금 넣어서 이렇게 볍아서 그것에 이제 그 쌀 넣어서.)

107024 @ 예.(예.)

107024 #5 흥썰 행 맥이고.(조금 해서 먹이고.)

107024 @ 예. 그.(예. 그.)

107024 #5 소라나 무시거나 다.(소라나 무엇이냐 다.)

107024 @ 예.(예.)

107024 #5 경 그렇게 허면서, 다 흥는 거라.(그러헛 그렇게 하면서, 다 하는 거야.)

107024 @ 예.(예.)

107024 #5 고동도.(소라도.)

107024 @ 고동, 예.(소라, 예.)

107024 #5 죽도.(죽도.)

107024 @ 죽도 경흥고.(죽도 그렇고.)

107024 #5 으.(으.)

107024 @ 전복은 빗이엔 헛지예?(전복은 전복이라고 했지요?)

107024 #5 으?(으?)

107024 @ 전복은 빗 빗이엔 헛지예?(전복은 전복 전복이라고 했지요?)

107024 #5 아니.(아니.)

107024 @ 그냥 전복이엔 해수파?(그냥 전복이라고 했습니까?)

107024 #5 으.(으.)

107024 @ 예.(예.)

107024 #5 생복.(생복.)

107024 @ 생복?(생복?)

107024 #5 생복.(생복.)

107024 @ 아 생복.(아 생복.)

107024 #5 으.(으.)

107024 @ 예.(예.)

107024 #5 전복이엔 아녀고 생복.(전복이라고 앓고 생복.)

107024 @ 생복예.(생복요.)

107024 #5 으.(으.)

107024 @ 예. 생복예.(예. 생복요.)

107025 @ 그 흰죽에 그 흰죽에 데행 곁아줍서.(그 흰죽에 그 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5 #5 으?(으?)

107025 @ 흰죽은?(흰죽은?)

107025 #5 쌀 흰 희영헌 쌀.(쌀 흰 하얀한 쌀.)

107025 @ 희영헌 쌀.(하얀한 쌀.)

107025 #5 회영헌 쌀만 낱.(하얀한 쌀만 넣어서.)  
 107025 @ 예.(예.)  
 107025 #5 죽 쑤 것이 흰죽.(죽 쑤 것이 흰죽.)  
 107025 @ 아, 건 저기 근도 아녀고?(아 건 저기 간도 았고?)  
 107025 #5 아, 건 근이 노나마나 그건 그대로 게메 기자 해영 흐는 거고.(아 건 간이  
 놓으나마나 그건 그대로 글썸 그저 해서 하는 거고.)  
 107025 @ 그건 그대로 해영 흐는 거고예.(그건 그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107025 #5 으.(으.)  
 107026 @ 조 좁쌀로 흐는 거는?(조 좁쌀로 하는 거는?)  
 107025 #5 좁쌀 흐는 건 좁쌀죽게.(좁쌀 하는 건 좁쌀죽.)  
 107026 @ 좁쌀죽.(좁쌀죽.)  
 107025 #5 으.(으.)  
 107026 @ 좁쌀죽은 어떻 험니까? 좁쌀도 흰죽이나 메 흐 가진가마씨?(좁쌀죽은 어떻  
 게 합니까? 좁쌀도 흰죽이나 매 한 가진가요?)  
 107026 #5 좁쌀죽도 흰죽이나 마찬가지로. 거혜여근에 저 아이덜 거시기 허젠 허민,  
 그거 톱 거시기 혜여근에 허민 멀로 옛날은 저 대 거름체<sup>268)</sup> 있지?(좁쌀죽도 흰죽이나  
 마찬가지로야. 거해서 저 아이들 거시기 하려고 하면, 그거 톱 거시기 해서 하면 무엇으로  
 옛날은 저 대 ‘거름체’ 있지?)  
 107026 @ 예.(예.)  
 107026 #5 혜여근에.(해서.)  
 107026 @ 혜여근에.(해서.)  
 107026 #5 걸러근에 아이덜.(걸러서 아이들.)  
 107026 @ 걸러근에.(걸러서.)  
 107026 #5 맥이는 거.(먹이는 거.)  
 107026 @ 응.(응.)  
 107026 #5 어른은 그 주세기라도 건지기라도 먹고.(어른은 그 찌꺼기라도 건더기라도  
 먹고.)  
 107026 @ 예.(예.)  
 107026 #5 으.(으.)  
 107026 @ 주세기예.(찌꺼기요.)  
 107027 @ 팍죽?(팍죽.)  
 107027 #5 팍죽은 팍 놓아근에게 솥양은에게 쫄 놓고 저 좁쌀 ㄱ든 거나 머 놔근에  
 ㄱ찌 낱 서경.(팍죽은 팍 놓아서 삶아서 쌀 넣고 저 좁쌀 같은 거나 뭐 넣어서 섞어서.)  
 107027 @ 아 좁쌀 놔근에 ㄱ찌 썬근에예.(아 좁쌀 넣어서 같이 썬어서요.)  
 107027 #5 으.(으.)

268) ‘거름체’는 찻불의 눈을 중간 크기로 만든 체이고 이는 맷돌질을 하고 난 뒤 굵은 쌀알과 찌꺼진 쌀알을 가리는 데 쓴다.

107027 @ 풋죽은 보통 때, 동지 때 먹어신가마씨?(팔죽은 보통 때, 동지 때 먹었는가요?)

107027 #5 이녁이 거시기 홀 떡이나 허영은에덜 보아지민덜 생각나민 무시것덜 행 먹엇주.(이녁이 거시기 할 적에나 해서들 보아지면 생각나면 무엇들 해서 먹엇지.)

107027 @ 예. 경해근에.(예. 그렇게 해서.)

107027 #5 으.(으.)

107028 @ 콩으로도 죽은 썬 낫지예?(콩으로도 죽은 썬었지요?)

107028 #5 콩 게메 콩으론게 콩 골안게.(콩 글썬 콩으로는 콩 갈아서.)

107028 @ 예.(예.)

107028 #5 콩ㄹ루 골안에게 죽 썬 먹곡 헛주게.(콩가루 갈아서 죽 썬서 먹고 했지.)

107028 @ 콩ㄹ루 골앙 죽 썬?(콩가루 갈아서 죽 썬서?)

107028 #5 으.(으.)

107028 @ 혈 때는 쫄도 흥끔 눕니까?(할 때는 쌀도 조금 놓습니까?)

107028 #5 쫄도 흥끔 그 줍쌀이나 흥쫄.(쌀도 조금 그 줍쌀이나 조금.)

107028 @ 줍쌀?(줍쌀?)

107028 #5 무신 것덜 놔.(무슨 것들 넣어.)

107028 @ 줍쌀이나 놔근에예.(줍쌀이나 넣어서요.)

107028 #5 그넌 것덜 놔 허주.(그런 것들 넣어서 하지.)

107028 @ 예.(예.)

107028 #5 으.(으.)

107029 @ 아까 믰죽은 감기혈 때 믰죽 허고.(아까 ‘메밀죽’은 감기할 때 ‘메밀죽’ 하고.)

107029 #5 으.(으.)

107029 @ 그 이외에는? 그 믰죽에는 들어가는 게 머가 믰만 들어가카마씨?(그 이외에는? 그 ‘메밀죽’에는 들어가는 게 뭐가 메밀만 들어갈까요?)

107029 #5 으?(으?)

107029 @ 다른 거는?(다른 거는?)

107029 #5 아 믰죽에 믰만 놔근에게.(아 ‘메밀죽’에 메밀만 넣어서.)

107029 @ 어.(어.)

107029 #5 거 감기엔 거시기허민게 페마농 거시기 헤영.(거 감기에는 거시기하면 파 거시기 해서.)

107029 @ 페마농허고.(파하고.)

107029 #5 헤 농곡 해서.(해 넣고 해서.)

107029 @ 예.(예.)

107029 #5 죽 썬근에 감기에 먹으민.(죽 썬서 감기에 먹으면.)

107029 @ 인척에 흰죽 혈 때 바다에서 나는 거 고기?(일찍이 흰죽 할 때 바다에서 나는 거 고기?)

107029 #5 으.(으.)

107029 @ 저기 죽 끓이거나 경 안 해신가마씨?(저기 죽 끓이거나 그렇게 앉았는데  
요?)

107029 #5 아니, 생선 ㄴ쁜 건 저 죽에 데헨 아녀고.(아니, 생선 같은 건 저 죽에 대  
해서는 않고.)

107029 @ 죽에 데헨 아녀고예?(죽에 대해서는 않고요?)

107029 #5 으.(으.)

107029 @ 예.(예.)

107030 @ 그 저기 녹디예?(그 저기 녹두요?)

107030 #5 으.(으.)

107030 @ 녹디도 갈아근에 허민 녹디죽도?(녹두도 갈아서 하면 녹두죽도?)

107030 #5 녹디도 죽 쑤민게 그 거시기 좁쌀 ㄴ쁜 거나 노민 그넌 것덜 죽 썰 먹고.  
(녹두도 죽 쑤면 그 거시기 좁쌀 같은 거나 넣으면 그런 것들 죽 썰서 먹고.)

107030 @ 아.(아.)

107030 #5 다.(다.)

107030 @ 녹디는 그냥 녹디도?(녹두는 그냥 녹두도?)

107030 #5 솥앙게.(삶아서.)

107030 @ 솥아근에.(삶아서.)

107030 #5 으.(으.)

107030 @ 조나 흐끔 농곡 해근에예.(조나 조금 넣고 해서요.)

107030 #5 으.(으.)

107030 @ 예. 녹디죽도 경흐고.(예. 녹두죽도 그렇고.)

107030 #5 으.(으.)

107030 @ 녹두로도 머리 감아나수파?(녹두로도 머리 감았었습니까?)

107030 #5 아니.(아니.)

107030 @ 으.(으.)

107030 #5 이파리덜이나 툇아서 춤 통에서 모욕홀 떡에나 그넌 것덜 행 금지, 아녀.  
(이파리들이나 뜯어서 참 ‘통’에서 목욕할 적에나 그런 것들 해서 감지. 앓아.)

107030 @ 아 녹디도 이파리 툇아근에.(아 녹두도 이파리 뜯어서.)

107030 #5 녹디나 꿇넙이나 그넌 것덜 행 허지. 아녀 판.(녹두나 깻잎이나 그런 것들  
해서 하지. 안 해봤어.)

107030 @ 응.(응.)

107030 #5 으.(으.)

107030 @ 그건 무사 경 모욕 할 때 그거 꿇넙덜 툇아근에.(그건 왜 그렇게 목욕 할  
때 그거 깻잎들 뜯어서.)

107030 #5 머리에 때 빠지렌.(머리에 때 빠지라고.)

107030 @ 때 빠지렌.(때 빠지라고.)

107030 #5 으.(으.)

107030 @ 아.(아.)

107030 #5 비누 이젠 비누 시난덜 무시거라도 흐주만은, 가근에 저 밧디 강 일 해낭  
올 떡에 그 통에서 빨래덜 행은에 옷덜 빨앙 입고 목욕 할 떡에는 그 그것이 머리 감양  
은에 영 흘 덕에 흐는 거.(비누 이젠 비누 있으니까들 무엇이랴도 하지만은, 가서 저 발  
에 가서 일하고 나서 올 적에 그 통에서 빨래들 해서 옷들 빨아서 입고 목욕 할 적에는  
그 그것이 머리 감아서 이렇게 할 적에 하는 거.)

107030 @ 응.(응.)

107030 #5 으.(으.)

107030 @ 그걸로 떼.(그걸로 떼.)

107030 #5 응.(응.)

107030 @ 이걸로 영 헤기네 헛구나예.(이걸로 이렇게 해서 했군요.)

107030 #5 으.(으.)

107031 @ 득죽?(답죽?)

107030 #5 득죽도.(답죽도.)

107031 @ 득죽은?(답죽은?)

107030 #5 게메 네네 흔 가지라.(글쎄 내내 한 가지야.)

107031 @ 예.(예.)

107031 #5 졸덜 노멍 쭈멍 먹는 건.(쌀들 넣으면서 쭈멍서 먹는 건. )

107031 @ 예.(예.)

107031 #5 저 녹디나 다 그년 졸들 놓으멍.(저 녹두나 다 그런 쌀들 넣으면서.)

107031 @ 졸 놔근에예.(쌀들 넣으면서.)

107031 #5 으.(으.)

107031 @ 그 득은 득죽은 삶아놔기네.(그 닭은 닭죽은 삶아놔서.)

107031 #5 삶아놔기네 툇툇하게 득 팡덜 털어근에 해야주게.(삶아놔서 툇툇하게 닭  
뼈들 떨어져 해야지.)

107031 @ 털어근에예.(떨어서요.)

107031 #5 으.(으.)

107031 @ 경 헤근에 그 국물에예.(그렇게 해서 그 국물예요.)

107031 #5 삶은 거 고기는 낱.(삶은 거 고기는 넣어서.)

107031 @ 고기는 먹고 졸 놔근에예.(고기는 먹고 쌀 넣어서요.)

107031 #5 으.(으.)

107031 @ 졸은 흰졸만 논 게 아니라.(쌀은 흰쌀만 넣은 게 아니라.)

107031 #5 흰졸도 놓는 거고.(흰쌀도 넣는 거고.)

107031 @ 예.(예.)

107031 #5 저 아무 거라도 잡 거시기 놓아근에 ㄱ찌 낱 썰 먹는 거.(저 아무 거라도  
잡 거시기 넣어서 같이 넣어서 쭈어서 먹는 거.)

107031 @ ㄴ찌 ㄴ근예예.(같이 넣어서요.)  
 107031 #5 으.(으.)  
 107031 @ 예예. 줍쌀도.(예예. 줍쌀도.)  
 107031 #5 으?(으?)  
 107031 @ 줍쌀도 넣고예.(줍쌀도 넣고요.)  
 107031 #5 으.(으.)  
 107031 @ 예.(예.)  
 107032 @ 쟁이 쟁이죽<sup>269</sup>에 강이죽?(게 계죽은 어떻게 합니까?)  
 107032 #5 으?(으?)  
 107032 @ 강이죽은 어떻 합니까?(계죽은 어떻게 합니까?)  
 107032 #5 강이도.(게도.)  
 107032 @ 행 먹었지예?(먹었지요?)  
 107032 #5 뽏아근예게.(게도 뽏아서.)  
 107032 @ 예.(예.)  
 107032 #5 뽏아근예게 저 거시기 허민 걸 걸러근예게, 그 팡덜 그 뭐 까시 님은 거.  
 (뽏아서 저 거시기 하면 걸 걸러서, 그 뽏들 그 뭐 가시 님은 거.)  
 107032 @ 그 까시.(그 가시.)  
 107032 #5 걸 팡덜 까시 헤팅.(걸 뽏들 가시 해두어서.)  
 107032 @ 까시 헤팅은네.(가시 해두어서.)  
 107032 #5 그 물로 국물로 헤여근에 그것에서 죽 쑤는 거.(그 물로 국물로 해서 그것  
 에서 죽 쑤는 거.)  
 107032 @ 예.(예.)  
 107032 #5 으.(으.)  
 107032 @ 강이는 저 몇 월, 모든 강이가 다 죽 됐는가마씨?(게는 저 몇 월, 모든 게  
 가 다 죽 되는가요?)  
 107032 #5 어?(어?)  
 107032 @ 모든 강이가 다 죽을 헤질 건 가마씨?(모든 게가 다 죽을 할 수 있는 건가  
 요?)  
 107032 #5 아니 이디서 강이 잡는 건 경 행 국 끌리는 거고.(아니 이디서 게 잡는 건  
 그렇게 해서 국 끓이는 거고.)  
 107032 @ 예.(예.)  
 107032 #5 저 디서 저 육지서<sup>270</sup> 무신 큰 것덜은 허면은 그건 삶으멍덜 머 먹곡 흥  
 는 거난 머.(저 데서 저 ‘육지’에서 무슨 큰 것들은 하면 그건 삶으면서들 뭐 먹고 하는  
 거니까 뭐.)  
 107032 @ 응.(응.)

269) ‘쟁이죽’은 계를 뽏아 더운물에 걸러낸 물에 쌀을 넣고 끓인 죽이다.

270) ‘육지’는 한국 본토를 말한다.

107032 #5 건 아니고.(건 아니고.)

107032 @ 이 바당에서 나는 강이는 다 죽을, 잡아당 죽 해.(이 바다에서 나는 게는 다 죽을, 잡아다가 죽 해.)

107032 #5 으.(으.)

107032 @ 다 크거나 죽거나?(다 크거나 작거나?)

107032 #5 으.(으.)

107032 @ 으. 몇 월 들에 강이가 좋텐 허거나 허는 건 엇고?(으. 몇 월 달에 게가 좋다고 하거나 하는 건 없고?)

107032 #5 에이 아니.(에이 아니.)

107032 @ 경 아녀고예?(그렇게 앓고요?)

107032 #5 으.(으.)

107032 @ 어떤 때에 강이죽은 행 먹으민 딱 좋으코예?(어떤 때에 게죽은 해서 먹으면 딱 좋을까요?)

107032 #5 아니 이녁이 머 뼈에도 좋고 멧도 좋고 머 혼텐 흐니까 머 그넌 것덜 잡아다가 저 삶아도 먹고.(아니 이녁이 뭐 뼈에도 좋고 멧도 좋고 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잡아다가 저 삶아도 먹고.)

107032 @ 아.(아.)

107032 #5 찌저도 먹고.(지저도 먹고.)

107032 @ 삼촌, 어릴 적에도 강이 먹으민 뼈에 좋텐 해기네.(삼촌, 어릴 적에도 게 먹으면 뼈에 좋다고 해서.)

107032 #5 으.(으.)

107032 @ 들어나수파?(들었었습니까?)

107032 #5 뼈에 좋다고 강이 먹으민 강이 머 행 삶앙도 먹고.(뼈에 좋다고 게 먹으면 게 뭐 해서 삶아서도 먹고.)

107032 @ 예.(예.)

107032 #5 지저도 먹고.(지저도 먹고.)

107032 @ 지저도 먹고예.(지저도 먹고요.)

107032 #5 으.(으.)

107032 @ 뼈에 좋텐 헛구나예.(뼈에 좋다고 헛군요.)

107032 #5 으.(으.)

107033 @ 이거 말고 또 죽은, 죽 잇이민 굴아줍서.(이거 말고 또 죽은, 죽 있으면 말 씀해 주십시오.)

107033 #5 으.(으.)

107033 @ 꿩 여기는 꿩이 엇어시난예.(꿩 여기는 꿩이 없었으니까.)

107033 #5 으.(으.)

107033 @ 꿩으로 죽 허거나 또 저 소고기나 머 그런 것덜.(꿩으로 죽 하거나 또 저 소고기나 뭐 그런 것들.)

107033 #5 소고기 것도 게메 이디서 죽덜 쏘 때민 네네게 좁쌀이나 머 무시것덜 그  
년 것덜 잇주, 어디 강은네 무신 저 나록 ㄱ뜨민 그런 거시기덜 잇주만은 이 디선 조  
가.(소고기 것도 글썸 이디서 죽들 쏘 때면 내내 좁쌀이나 뭐 무엇들 그런 것들 있지,  
어디 가서 무슨 저 벼 같으면 그런 거시기들 있지만 이 데서는 조가.)

107033 @ 아.(아.)

107033 #5 조가 필요해낫지.(조가 필요했었지.)

107033 @ 조가 필요해난예?(조가 필요했어요.)

107033 #5 으.(으.)

107033 @ 예.(예.)

107033 #5 좁쌀이 필요헐.(좁쌀이 필요해서.)

107033 @ 죽을 꿀릴 수 잇는 거는 이웨에 거는 베랑.(죽을 꿀일 수 잇는 거는 이외  
에 거는 별로.)

107033 #5 으.(으.)

107033 @ 더 생각나는 거는 엇인가마씨?(더 생각나는 거는 없는가요?)

107033 #5 으.(으.)

107033 @ 죽을 헐 수 잇는 거?(죽을 할 수 잇는 거?)

107033 #5 그죽 그년 거나 벳긴 다는 건 엇어.(그처럼 그런 거나 밖에는 다른 건 없  
어.)

107033 @ 꿔 꿔.(깨 깨.)

107033 #5 으.(으.)

107033 @ 꿔로 놔근예.(깨로 넣어서.)

107033 #5 예, 꿔도게 뺏아근예 그 쏘에 놔근예 뺏아근예 죽 썰 먹곡.(예, 깨도 빵아  
서 그 쏘에 넣어서 빵아서 죽 쪄어서 먹고.)

107033 @ 꿔도 쏘에 놔근예?(깨도 쏘에 넣어서?)

107033 #5 으.(으.)

107033 @ 그건 무슨 죽이엔 험니까?(그건 무슨 죽이라고 합니까?)

107033 #5 꿔죽.(깨죽.)

107033 @ 아 꿔죽예.(아 깨죽요.)

107033 #5 으.(으.)

107033 @ 예.(예.)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 다음은 범벅예?(그 다음은 범벅요?)

107034 #5 범벅?(범벅?)

107034 @ 예.(예.)

107034 #5 범벅은 거 저 거시기 믈물ㄱ루나 무신 저 보릿ㄱ루나 해서 그자 감저 썰



어 놔근에 감저 익어 가민 그레 ㄹ루 놔기네 허꺼근에 저 으릿게 젓이면은.(범벅은 거저 거시기 메밀가루나 무슨 저 보릿가루나 해서 그저 고구마 썰어 넣어서 고구마 익어 가면 그리로 가루 넣어서 흘뜨려서 저 요렇게 저으면.)

107034 @ 그제 범벅이구나예.(그제 범벅이군요.)

107034 #5 그제.(그것이.)

107034 @ 게민 그 저 범벅에 놀 때는 저 감저?(그러면 그 저 범벅에 넣을 때는 저 고구마?)

107034 #5 감저 낱게.(고구마 넣어서.)

107034 @ 보통 감저 놔근에예?(보통 고구마 넣어서요?)

107034 #5 감저 낱 범벅 하는 거게, ㄹ루 감저 숲양은에게 감저 거시기 익어 가면은.(고구마 넣어서 범벅 하는 거, 가루 고구마 삶아서 고구마 거시기 익어 가면.)

107034 @ 응.(응.)

107034 #5 ㄹ루 영 영 허꺼근에 저.(가루 이렇게 이렇게 흘뜨려서 저.)

107034 @ 응.(응.)

107034 #5 그거 영 영 허면은.(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7034 @ 응.(응.)

107034 #5 범벅이 되는 거.(범벅이 되는 거.)

107034 @ 그제 ㄹ루는 아까 보릿ㄹ루나 믈물ㄹ루.(그제 가루는 아까 보릿가루나 메밀가루.)

107034 #5 응응.(응응.)

107034 @ 믈물.(메밀.)

107034 #5 믈물 느쟁이나 저.(메밀 나께나 저.)

107034 @ 느쟁이나.(나께나.)

107034 #5 저 보릿ㄹ루나.(저 보릿가루나.)

107034 @ 예.(예.)

107034 #5 놔근에 범벅 멘드는 거.(넣어서 범벅 만드는 거.)

107034 @ 예.(예.)

107034 #5 으.(으.)

107034 @ 경호곡 다른 거 썩 ㄹ쁜 건 안 헤나수파?(그렇고 다른 거 썩 같은 건 안 했습니까?)

107034 #5 이제난 썩덜 거시기 햐주. 썩 ㄹ쁜 거 무시거 ㄹ쁜 거 아니호고.(이제니까 썩들 거시기 하고 있지. 썩 같은 거 무엇 같은 거 앓고.)

107034 @ 아니호고예.(앓고요.)

107034 #5 으.(으.)

107034 @ 예. 그 호박도 놔기네 범벅 헤나수파?(예. 그 호박도 넣어서 범벅 했었습니까?)

107034 #5 아니 호박이나 무시거나 그넌 거 막 질러 먹고 무시거 하는 거지.(아니 호

박이나 무엇이냐 그런 거 마구 끓여서 먹고 무엇 하는 거지.)

107034 @ 예.(예.)

107034 #5 범벅 ㄹ쁜 거.(범벅 같은 거.)

107034 @ 양식이냐예.(양식이냐요.)

107034 #5 범벅 으.(범벅 으.)

107034 @ 양식으로 안 허고예?(양식 양식으로 앓고요?)

107034 #5 으.(으.)

107034 @ 그다음에는.(그다음에는.)

107035 @ 삼춘 수제비는예? 저 ㄹ베기예?(삼춘 수제비는요? 저 수제비요?)

107035 #5 저 ㄹ베기?(저 수제비?)

107035 @ 예.(예.)

107035 #5 ㄹ베기.(수제비.)

107035 @ 예. ㄹ베기.(예. 수제비.)

107035 #5 으.(으.)

107035 @ ㄹ베기는 삼춘 어린 때 부떠 행 먹어수짜?(수제비는 삼춘 어린 때 부터 해서 먹었습니까?)

107035 #5 으. ㄹ베기덜사게 그 무시거 ㄹ물ㄹ루덜도 ㄹ ㄹ베기 허곡 보릿ㄹ루 ㄹ ㄹ베기 행 먹고 경.(으. 수제비들이야 그 무엇 메밀가루들도 ㄹ어서 수제비 하고 보릿가루 ㄹ어서 수제비 해서 먹고 그렇게.)

107035 @ 보릿ㄹ루?(보릿가루?)

107035 #5 으.(으.)

107035 @ 보릿ㄹ루도 ㄹ 허곡예?(보릿가루도 ㄹ어서 하고요?)

107035 #5 으.(으.)

107035 @ 애기 나 난 다음에 우리도 저기 ㄹ물.(애기 ㄹ아 난 다음에 우리도 저기 메밀.)

107035 #5 애기나민 저 ㄹ물ㄹ루 헤근에 그 저 카근에.(애기나면 저 메밀가루 해서 그 저 타서.)

107035 @ 카근에.(타서.)

107035 #5 으.(으.)

107035 @ 메역에 ㄹ아근에예?(미역에 ㄹ어서요?)

107035 #5 으.(으.)

107035 @ 그거 헤근에.(그거 해서.)

107035 #5 으.(으.)

107035 @ ㄹ물ㄹ루는 그 거 겔 때 그 잘 못 개민 막 딱딱 헌텐 허멍.(메밀가루는 그 거 겔 때 그 잘 못 개면 마구 딱딱 한다고 하면서.)

107035 #5 아니, 그 아기 베영 순산할 떡에 혼 사름덜 먹젠 허민 거 딱딱하게 아녀근 에 혼썰 영 물 혼썰 더 ㄹ아근에.(아니, 그 아기 배어서 순산할 적에 하는 사람들 먹으려

고 하면 거 딱딱하게 얹아서 조금 이렇게 물 조금 더 넣어서.)  
 107035 @ 더 봐근에예.(더 넣어서요.)  
 107035 #5 더 봐근에.(더 넣어서.)  
 107035 @ 예.(예.)  
 107035 #5 문질락하게 해근에, 흐민 그디 익어 가민 저 거시기 해불주게 경흐난.(반드럽게 해서, 하면 거기 익어 가민 저 거시기 해 버리지 그러니까.)  
 107035 @ 예.(예.)  
 107035 #5 너무 되게 톨민 딱딱흐곡.(너무 되게 말면 딱딱하고.)  
 107035 @ 딱딱흐고?(딱딱하고?)  
 107035 #5 으.(으.)  
 107035 @ 딱딱 해가지고예.(딱딱 해가지고요.)  
 107035 #5 으으.(으으.)  
 107035 @ 이빨이 막 안 좋덴 허멍예.(이빨이 매우 안 좋다고 하면서요.)  
 107035 #5 으.(으.)  
 107035 @ 예.(예.)  
 107035 #5 그것이 흐쉴 물르게 톨면.(그것이 조금 무르게 말면.)  
 107035 @ 예.(예.)  
 107035 #5 으.(으.)  
 107035 @ 게난 즈베기는?(그러니까 수제비는?)  
 107035 #5 영 영.(이렇게 이렇게.)  
 107035 @ 숟가락으로 톡 톡.(숟가락으로 톡 톡.)  
 107035 #5 숟가락으로도 흐곡 손으로도.(숟가락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107035 @ 손으로도?(손으로도?)  
 107035 #5 영 흐곡.(이렇게 하고.)  
 107035 @ 손으로도 영 저기 달라놔다근에.(손으로도 이렇게 저기 이겨놓았다가 이렇게.)  
 107035 #5 으.(으.)  
 107035 @ 해 놓고예.(해 넣고요.)  
 107035 #5 으.(으.)  
 107036 @ 그 칼, 칼국수로.(그 칼, 칼국수로.)  
 107036 #5 그 칼국수도 영.(그 칼국수도 이렇게.)  
 107036 @ 예.(예.)  
 107036 #5 미시것에 밀어 봐근에 영 해근에 칼로 썰어근에 따시 영 영.(무엇에 밀어놓아서 이렇게 해서 칼로 썰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107036 @ 그걸.(그걸.)  
 107036 #5 머 무수 썰 듯이 영.(뭘 무 썰 듯이 이렇게.)  
 107036 @ 무수 썰 듯이 행예.(뭘 무 썰 듯이 해서요.)

107036 #5 으.(으)

107036 @ 그 칼국수는 믰물썰로 해가지고?(그 칼국수는 메밀쌀로 해가지고?)

107036 #5 머 믰물썰로도 호곡 보릿ㄴ루도 호곡.(뽕 메밀쌀로도 하곡 보릿가루도 하고.)

107036 @ 보릿ㄴ루도 호곡.(보릿가루도 하고.)

107036 #5 다.(전부.)

107036 @ 믰물ㄴ루는 믰물 곶아근에?(메밀가루는 메밀 갈아서?)

107036 #5 으.(으)

107036 @ 허는 거고?(하는 거고?)

107036 #5 으.(으)

107036 @ 게민 보릿ㄴ루나 믰물ㄴ루나 헐 때는, 칼국수 헐 때는 그 요즘은 득 솟아난 물에.(그러면 보릿가루나 메밀가루나 할 때는, 칼국수 할 때는 그 요즘은 닭 삶아난 물에.)

107036 #5 으.(으)

107036 @ 득고기 호끔 놔근에 헐는다.(닭고기 조금 넣어서 하는데.)

107036 #5 으.(으)

107036 @ 옛날에는 경 헤저신가예?(옛날에는 그렇게 해졌는가요?)

107036 #5 아, 요즘은 모든 것이 춤 득 솟앙 그대로 햄주만은 옛날이사 무신 혼엇이며, 그년 거 저년 거 헤여 볼 거시기덜이 엇어.(아, 요즘은 모든 것이 참 닭 삶아서 그대로 하고 있지만은 옛날이야 무슨 별로 뽕, 그런 거 저런 거 해 볼 거시기들이 엇어.)

107036 @ 응.(응.)

107036 #5 으.(으)

107036 @ 경 호곡 그 보리ㄴ루 놔기네 칼국수나 즈베기 홀 때는 저기 ㄴ메기 ㄴ뜯 거 잡아당은에 열어 뽕.(경 호곡 그 보릿가루 넣어서 칼국수나 수제비 할 때는 저기 남방울타리고등 같은 거 잡아다가 열어 놓아서.)

107036 #5 게메 보말도 잡아다근에 저 그것에도 놔근에 춤 죽도 썬 먹곡 모든 것이 다 허는 거.(글쎄 보말도 잡아다가 저 그것에도 넣어서 참 죽도 썬 먹고 모든 것이 전부 하는 거.)

107036 @ 응.(응.)

107036 #5 다.(전부.)

107036 @ 응.(응.)

107036 #5 못하는 게 엇어 엇어.(못하는 것이 엇어 엇어.)

107036 @ 응.(응.)

107036 #5 옛날은.(옛날은.)

107036 @ 먹젠 허문.(먹으려고 하면.)

107036 #5 다 이녁 베, 먹을 수가 잇이면 다 그렇게 헤여.(전부 이녁 베, 먹을 수가 있으면 전부 그렇게 해서.)

107036 @ 예.(예.)  
107036 #5 으.(으.)  
107036 @ 예. 고맙수다.(예. 고맙습니다.)

## 김치

107037 @ 김치예.(김치요.)  
107037 #5 김치도게.(김치도.)  
107037 @ 옛날에 김치를 담그젠 허면은.(옛날에 김치를 담그려고 하면은.)  
107037 #5 녹물해서게, 소금 물에 담갔다근에 시쳐가지고게 고춧가루나 김치 씻아근  
에 그것에 이제 멜것 그쁜 거 놔근에.(나물해서, 소금 물에 담갔다가 씻어가지고 고춧가  
루나 고추 빵아서 그것에 이제 멀치것 같은 거 넣어서.)  
107037 @ 놔근에 버무려근에예.(넣어서 버무려서요.)  
107037 #5 응.(응.)  
107037 @ 예.(예.)  
107037 #5 무수도 경 허곡.(무도 그렇게 하고.)  
107037 @ 응.(응.)  
107037 #5 다 경허는 거.(다 그러는 거.)  
107037 @ 녹물은 우영.(나물은 터알.)  
107037 #5 다 우영밧디 갈아.(전부 터알에 갈아.)  
107037 @ 이녁 우영팻.(이녁 터알.)  
107037 #5 으.(으.)  
107037 @ 예. 우영밧디 갈아근에.(예. 터알에 갈아서.)  
107037 #5 으.(으.)  
107037 @ 녹물도 허곡 무수도 허곡.(나물도 하고 무도 하고.)  
107037 #5 으.(으.)  
107037 @ 또 그 녹물이 녹물이엔 허민 배추도 들어가, 어떻.(또 그 나물이 나물이라  
고 하면 배추도 들어가, 어떻게.)  
107037 #5 으, 배추게 게 녹물 배추.(으, 배추 게 나물 배추.)  
107037 @ 녹물이 배추지예?(나물이 배추지요?)  
107037 #5 으. 배추.(으. 배추.)  
107037 @ 녹물이 배추고.(나물이 배추고)  
107037 #5 세우리.(부추.)  
107037 @ 세우리.(부추.)  
107037 #5 정고지<sup>271)</sup>라 세우리.(‘정고지’보고 부추.)  
107037 @ 세우리허고 페마놓허고 머.(부추하고 파하고 뭐.)

271) ‘정고지’는 부추의 경상북도 방언이다.

107037 #5 으.(으.)

107037 @ 머?(뭘?)

107037 #5 콧데산이 허곡.(마늘 하고.)

107037 @ 콧데산이 허곡 또 우녕에 갈 수 잇는 거.(마늘 하고 또 터알에 갈 수 잇는 거.)

107037 #5 배추 ㄱ뜯 거 다 우영팻디 갈앙 먹어.(배추 같은 거 다 터알에 갈아서 먹어.)

107037 @ 게난 그 저기 배추 그 ㄴ물을 인척에 ㄴ물은?(그러니까 그 저기 배추 그 나물을 일찍이 나물은?)

107037 #5 으.(으.)

107037 @ 인척에 바당물에 강 듬근덴 헛지에?(일찍이 바닷물에 가서 담근다고 했지요?)

107037 #5 바당물에도 듬그고 집이도 이제 큰 거시기에도 듬과 놓고.(바닷물에도 담그고 집에도 이제 큰 거시기에도 담가 놓고.)

107037 @ 큰 거에?(큰 거에?)

107037 #5 으.(으.)

107037 @ 그 소금허젠 허민, 허난에 집이서 큰 거 담젠 허민.(그 소금하려고 하면, 하니까 집에서 큰 거 담으려고 하면.)

107037 #5 ㄱ디서<sup>272)</sup> ㄱ물 들러<sup>273)</sup>다가도.(바닷가에서 간물 떠서라도.)

107037 @ ㄱ물 들러다근예.(간물 떠서라도예.)

107037 #5 으.(으.)

107037 @ 예.(예.)

107037 #5 것에 소금 ㅎ쫄 노명.(것에 소금 조금 넣으면서.)

107037 @ 소금 ㅎ끔만 놓으멍예.(소금 조금만 넣으면서요.)

107037 #5 으.(으.)

107037 @ ㄱ물은 거 바당물을 애기하는 거파?(간물은 거 바닷물을 애기하는 겁니까?)

107037 #5 바당물게.(바닷물.)

107037 @ 바당물이파?(바닷물입니까?)

107037 #5 바당물.(바닷물.)

107037 @ 예예.(예예.)

107037 #5 으.(으.)

107037 @ 경 행 통에 와근예예?(그렇게 해서 ‘통’에 와서요?)

107037 #5 으.(으.)

107037 @ 예.(예.)

---

272) ‘ㄱ’은 바닷가를 말한다.

273) ‘들러’는 여기에서 양동이에 물을 ‘떠서’ 라는 말로 사용 된 말이다.

107038 @ 그 여름에 김치 헐 땀 허주만은 겨울에 김치 헝끔 하영 헐 거 아니파예?  
(그 여름에 김치 할 때는 하지만은 겨울에 김치 조금 많이 할 거 아닙니까요?)

107038 #5 으. 하영 허주.(으. 많이 하지.)

107038 @ 김치엔 험니까? 짐치엔 험니까?(김치라고 합니까? 김치라고 합니까?)

107038 #5 짐치.(김치.)

107038 @ 김치 하영 허젠 허민, 그때는 누물덜 헝끔 더 하영 놔근에.(김치 많이 하려고 하면, 그때는 나물들 조금 더 많이 놓아서.)

107038 #5 하영덜 갈아근에.(많이들 갈아서.)

107038 @ 갈아근에예.(갈아서요.)

107038 #5 으.(으.)

107038 @ 그 속에는.(그 속에는.)

107038 #5 너미 하면은 냉중에는 그 톤으멍 국도 끓여도 먹곡.(너무 많으면 나중에는 그 뜯으면서 국도 끓여도 먹고.)

107038 @ 으.(으.)

107038 #5 그대로 저 해서 싸도 먹곡.(그대로 저 해서 싸서도 먹고.)

107038 @ 예.(예.)

107038 #5 경 헝당 더레 냉기곡.(그렇게 하다가 더러 남기고.)

107038 @ 예. 경헝곡 저.(예. 그렇고 저.)

107038 #5 으.(으.)

107038 @ 고추 잇잔우파예?(고추 있잖습니까요?)

107038 #5 으.(으.)

107038 @ 고추, 고추는 옛날에도 ㄹ췌ㄹ루덜 헤여근에 먹어신가예?(고추, 고추는 옛날에도 고춧가루들 해서 먹었는가요?)

107038 #5 고춧ㄹ루 경 하영 아니, 미신 지금ㄹ추룩 아녀.(고춧가루 그렇게 많이 아니, 무슨 지금처럼 앓아.)

107038 @ 지금ㄹ추룩 안 허곡 우녕에.(지금처럼 앓고 터알에.)

107038 #5 우녕에.(터알에.)

107038 @ 예.(예.)

107038 #5 이녀 거시기에덜 갈아근에 영.(이녀 거시기에서들 갈아서 이렇게.)

107038 @ 예.(예.)

107038 #5 도고 도고, 저 방에에서 영.(함지박 함지박, 저 방아에서 이렇게.)

107038 @ 방에에서예.(방아에서요.)

107038 #5 ㄹㅂ아근에.(ㄹㅂ아서.)

107038 @ ㄹㅂ아근에예.(ㄹㅂ아서요.)

107038 #5 으.(으.)

107038 @ ㄹㅂ아근에 ㄹㅂ 서꺼근에예.(ㄹㅂ아서 같이 섞어서요.)

107038 #5 으.(으.)

107038 @ 경허곡. 그 마농은?(그렇고. 그 마늘은?)

107038 #5 마농도 게메, 마농도 콤포산이 ㄴ쁜 거 까, 저 해놔다근에 것애.(마늘도 글썽, 마늘도 마늘 같은 거 까서, 저 해놔다가 것애.)

107038 @ 것애.(것애.)

107038 #5 ㄴ짜 놔근애.(같이 놓아서.)

107038 @ 놔근애예.(놓아서요.)

107038 #5 빼져근애.(빚어서.)

107038 @ 빼져근애.(빚어서.)

107038 #5 으.(으.)

107038 @ 게민 저기 김치를 맛 좋게 허젠 허면은 그 잘 절여져야 돼쿠다예?(그러면 저기 김치를 맛 좋게 하려고 하면은 그 잘 절여져야 되겠네요?)

107038 #5 게난 그.(그러니까 그.)

107038 @ 메칠 절여신고예?(머칠 절였는가요?)

107038 #5 ㄴ물이 영 폭하게 죽어야 돼여.(나물이 이렇게 폭하게 죽어야 돼.)

107038 @ 죽어근애예.(죽어서요.)

107038 #5 죽어불민 그 뽕젓덜 엇어? 뽕젓.(죽어버리면 그 멸치젓들 엇없어? 멸치젓.)

107038 @ 으. 뽕젓.(으. 멸치젓.)

107038 #5 뽕젓.(멸치젓.)

107038 @ 해근애예.(해서요.)

107038 #5 그넌 것덜 해근애 ㄴ짜.(그넌 것들 해서 같이.)

107038 @ 예.(예.)

107038 #5 놔근애.(넣어서.)

107038 @ 뽕젓 행.(멸치젓 해서.)

107038 #5 으.(으.)

107038 @ 게난 ㄴ물김치가 배추김치난애 ㄴ물김치는 주로 이제 겨울애.(그러니까 나물김치가 배추김치니까 나물김치는 주로 이제 겨울애.)

107038 #5 으.(으.)

107038 @ 김장용으로 어느 정도 저기 듭읍니까?(김장용으로 어느 정도 저기 담굽니까?)

107038 #5 아이 저 시월 들나민 듭주 머.(아이 저 시월 달되면 담지 뭐.)

107038 @ 게난 어느 정도?(그러니까 어느 정도?)

107038 #5 저시월절 나민.(시월절 나면.)

107038 @ 뽕 폐기정도?(뽕 포기정도?)

107038 #5 너덜 폐기.(너 뽕 포기.)

107038 @ 으.(으.)

107038 #5 뽕 폐길 허질 아녀고.(뽕 포기를 하지를 앓고.)

107038 @ 항아리에?(항아리에?)



107038 #5 이녀 거시기 그자 어느 정도 먹을 만이 허면.(이녀 거시기 그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하면.)

107038 @ 으. 게민 어느 들까지 먹어지코예?(으. 그러면 어느 달까지 먹어질까요?)

107038 #5 아니.(아니.)

107038 @ 겨울 내냥 먹어지카?(겨울 내내 먹어질까?)

107038 #5 봄이 혼 정 이월 들 먹으면 그만이주.(봄에 한 정 이월 달 먹으면 그만이지.)

107038 @ 응. 정 이월 들예.(응. 정 이월 달요.)

107038 #5 으.(으.)

107038 @ 동김치? 저기 배추 저기 겨울에 배추 올라와근에 그 우에 나오기 전에 동김치?(봄동김치? 저기 배추 저기 겨울에 배추 올라와서 그 위에 나오기 전에 봄동김치?)

107038 #5 으. 동김치.(으. 봄동김치.)

107038 @ 예. 동김치.(예. 봄동김치.)

107038 #5 으 꽃 피기 전이.(요 꽃 피기 전에.)

107038 @ 피기 전이.(피기 전에.)

107038 #5 거.(거.)

107038 @ 경 헛구나예.(그렇게 했군요.)

107038 #5 으.(으.)

107038 @ 예. 그거 나올 때쯤 돼 가면은.(예. 그거 나올 때쯤 되 가면은.)

107038 #5 봄 나가면은.(봄 나가면.)

107038 @ 봄 나가면은 먹고예.(봄 나가면 먹고요.)

107038 #5 으.(으.)

107038 @ 세우리도 김치 허지 안 험니까?(부추도 김치 하지 않습니까?)

107038 #5 세우리도 김치도 행 먹고.(부추도 김치도 해서 먹고.)

107038 @ 꿩마농?(달래?)

107038 #5 꿩마농도 그년 것덜 다 해먹어.(달래도 그런 것들 전부 해먹어.)

107038 @ 예.(예.)

107038 #5 으.(으.)

107038 @ 꿩마농?(파?)

107038 #5 꿩마농도 김치도 허곡.(파도 김치 하고.)

107038 @ 꿩마농도 김치도 허고.(파도 김치도 하고.)

107038 #5 콧데산이 저 거시기도.(마늘 저 거시기도.)

107038 @ 콧데산이?(마늘?)

107038 #5 흐고.(하고.)

107038 @ 누물김치에 그것도 김치도 흐고.(나물김치에 그것도 김치도 하고.)

107038 #5 으.(으.)

107038 @ 무수도 흐곡.(무도 하고.)

107038 #5 무수집치도게 해 놔근에 정각 해다근에 ㄴ찌 서꺼근에.(무김치도 해 놓아서 청각 해다가 같이 섞어서.)

107038 @ 정각 해당 ㄴ찌 서꺼근에.(청각 해다가 같이 섞어서.)

107038 #5 으.(으.)

107038 @ 게민 시원하게 먹곡예.(그러면 시원하게 먹고요.)

107038 #5 으.(으.)

107039 @ 여름에 저기, 열무 그 무수해근에 이파리 열무로, 우리는 열무엔 허는디 그걸 무슨 ㄴ물이엔 흐는고예?(여름에 저기, 열무 그 무해서 이파리 열무로, 우리는 열무라고 하는데 그걸 무슨 나물이라고 하는가요?)

107039 #5 무신 ㄴ물?(무슨 나물?)

107039 @ 예.(예.)

107038 #5 으.(으.)

107039 @ 그 여름에 열무엔 허는디, 열무를 총각김치나 열무김치를 무신 김치엔 헐 건고예? 그런 걸.(그 여름에 열무라고 하는데, 열무를 총각김치나 열무김치를 무슨 김치라고 할 건가요? 그런 걸.)

107038 #5 그년 건, 이디 경 갈아나지 아녀난에게.(그런 건, 이테 그렇게 갈아나지 않았어.)

107039 @ 무수엔 험니까? 무수 이파리엔 헐 건가마씨?(무수라고 합니까? 무 이파리라고 할 건가요?)

107039 #5 무수 저 이디 그자 거 무수이파리엔 허주.(무 저 이테 그저 거 무이파리라고 하지.)

107039 @ 예.(예.)

107039 #5 그년 거 열무여 머여 아녀봐서.(그런 거 열무다 머다 알아보았어.)

107039 @ 경 아녀봤지예?(그렇게 알아보았지요?)

107039 #5 으.(으.)

107039 @ 무수 무수이파리엔 해수파? 무수 이파리로 김치를 듬가나신가?(무 무 이파리라고 했습니까? 무 이파리로 김치를 담갔었는가?)

107039 #5 무수이파린 헐엇이 아녀고 무수로.(무 이파리는 별로 않고 무로.)

107039 @ 무로예.(무로요.)

107040 @ 물김치덜도?(물김치들도?)

107040 #5 물김친게 그자게, 저 물 흐썰 놓고 곤 맞게시레 해여근에 그자.(물김치는 그저, 저 물 조금 놓고 간 맞게끔 해서 그저.)

107040 @ 해여근에.(해서.)

107040 #5 으.(으.)

107040 @ 무수?(무?)

107040 #5 으.(으.)

107040 @ 예.(예.)

107040 #5 흔 메칠 시면 익어근에.(한 며칠 있으면 익어서.)  
 107040 @ 익어근에예?(익어서요?)  
 107040 #5 으.(으.)  
 107040 @ 게민 무수로 하영 허지예?(그러면 무로 많이 하지요?)  
 107040 #5 으.(으.)  
 107040 @ 무수로예.(무로요.)  
 107040 #5 무수로.(무로.)  
 107041 @ 아까 곶은 동지김치, 동지김치가 거 저기 그 봄 돼면은 동지가 올라와근  
 에 그걸로 해기네 젓갈 놓고.(아까 곶은 봄동김치, 봄동김치가 거 저기 그 봄 되면 동지  
 가 올라와서 그걸로 해서 젓갈 넣고.)  
 107041 #5 으.(으.)  
 107041 @ 젓 행은에.(젓갈 해서.)  
 107041 #5 동김치?(봄동김치?)  
 107041 @ 예.(예.)  
 107041 #5 그건 봄 나가민게 거 해여근에 저, 그 근에 듚갓다근에 그자 저 무시젓덜  
 양념 흥쉴 놓아근에 뭉경은에.(그건 봄 나가면 해서 저, 그 간에 담갔다가 그저 저 무엇  
 들 양념 조금 넣어서 뭉개서.)  
 107041 @ 뭉겨근에예.(뭉개서요.)  
 107041 #5 으.(으.)  
 107041 @ 예예. 경 해근에.(예예. 그렇게 해서.)  
 107041 #5 으.(으.)  
 107041 @ 젓갈 놓고예.(젓갈 넣고요.)  
 107041 #5 젓갈 놓고.(젓갈 넣고.)  
 107041 @ 젓갈이면?(젓갈이면?)  
 107041 #5 뭉젓갈게.(뭉치젓갈.)  
 107041 @ 예.(예.)  
 107041 #5 옛날은 뭉덜이 다 거시기 허난.(옛날은 뭉치들이 다 거시기 하니까.)  
 107041 @ 예.(예.)  
 107041 #5 젓갈.(젓갈.)  
 107041 @ 뭉젓.(뭉치젓.)  
 107041 #5 그년 젓덜도 뭉젓도 이녁 거시기에 다 듚앙 잇주게 사름덜.(그런 것들도  
 뭉치젓 이녁 거시기에 다 담가서 있지 사람들.)  
 107041 @ 예.(예.)  
 107041 #5 으.(으.)  
 107042 @ 무수김치도 겨울에 저기.(무김치도 겨울에 저기.)  
 107042 #5 다 듚아 놓고.(다 담가 놓고.)  
 107042 @ 예. 깍두기엔 해나수파? 무수엔 해나수파?(예. 깍두기라고 했습니까? 무라

고 했습니까?)

107042 #5 네냥 무수.(내내 무.)

107042 @ 늬빠김치엔 안 허고 무수김치?(무김치라고 앓고 무김치?)

107042 #5 무수.(무.)

107042 @ 으. 무수김치예.(으. 무김치요.)

107042 #5 으.(으.)

107043 @ 아까 저기 콤포산이 김치는?(아까 저기 마늘 김치는?)

107042 #5 콤포산이는 그 저기 썩파리 영 헤똥은에 그저 지시ㄴ추록 허민 영 이년.  
(마늘은 그 저기 이파리 이렇게 해서 그저 장아찌처럼 이렇게 이런.)

107043 @ 예예. 우엿 건만예?(예예. 위에 건만요?)

107043 #5 으.(으.)

107043 @ 뿌린 안 허고 우에 것만 해가지고 허고예.(뿌린 안 하고 위에 것만 해가지고 하고요.)

107043 #5 으.(으.)

107043 @ 그거를 콤포산이김치엔 허고예.(그거를 마늘김치라고 하고요.)

107043 #5 으.(으.)

107044 @ 경허곡, 저기 썩마농?(그렇고, 저기 달래?)

107044 #5 어?(어?)

107044 @ 썩마농?(달래?)

107044 #5 썩마농?(달래?)

107044 @ 예예. 달레엔 허는디 썩마농.(예예. 달래라고 하는데 달래.)

107044 #5 달레마농?(달래?)

107044 @ 예예.(예예.)

107044 #5 달레마농도 옛날엔 그년 것도 헤다근에 저 데왕도 먹곡.(달래도 옛날에는 그런 것도 헤다가 저 데워서도 먹고.)

107044 @ 예.(예.)

107044 #5 경 헛주만은.(그렇게 했지만.)

107044 @ 예. 데와기네.(예. 데워서.)

107044 #5 으.(으.)

107044 @ 그걸 또 김치허지 안 헉니까?(그걸 또 김치하지 않습니까?)

107044 #5 것도 김치 많이 허지 아녀지. 저 멧덜 밧디 거 달래 파당 허쟁 허민.(것도 김치 많이 하지 앓지. 저 무엇들 밧에 거 달래 파다가 하려고 하면.)

107044 @ 예.(예.)

107044 #5 걸 누게가 집이 가는 것도 아니고.(걸 누가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107044 @ 가는 것도 아니고예.(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107044 #5 으.(으.)

107044 @ 예. 경허곡 그것도 김치는 아니주만 지시 돕는 건가마씨? 그거는?(예. 그

렇고 그것도 김치는 아니지만 장아찌 담그는 건가요? 그거는?)  
 107044 #5 아니.(아니.)  
 107044 @ 예. 쟁마농으로 해기네예.(예. 달래로 해서요.)  
 107044 #5 그건 거는 저 달래마농은 그자 해다가 저 데우쳐서 먹는 거.(그런 거는 저 달래는 그자 해다가 저 데워서 먹는 거.)  
 107044 @ 아. 그거는 쟁마농이엔 안 행.(아. 그거는 달래라고 알아서.)  
 107044 #5 응.(응.)  
 107044 @ 달래마농이엔 험니까?(달래라고 합니까?)  
 107044 #5 달래마농.(달래.)  
 107044 @ 달래마농?(달래?)  
 107044 #5 으.(으.)  
 107044 @ 쟁마농이엔 안 허는구나예?(달래라고 안 하는군요?)  
 107044 #5 으.(으.)  
 107044 @ 예.(예.)  
 107045 @ 갓, 갓, 갓이엔 험 거가? 저기 갓늑물?(갓, 갓, 갓이라고 한 것이? 저기 ‘갓늑물’?)  
 107045 #5 으.(으.)  
 107045 @ 갓늑물도 우녕이?(갓나물도 터알에?)  
 107045 #5 갓늑물 거뜬 것도 많이 아니, 이녁 저 어떻 헉다가 헉끔 거시기 헉는 거 주.(갓나물도 같은 것도 많이 아니, 이녁 저 어떻게 하다가 조금 거시기 하는 거지.)  
 107045 @ 아.(아.)  
 107045 #5 갓늑물도 경 같지 안 허주.(갓나물도 그렇게 같지 않지.)  
 107045 @ 우녕이 같거나 허지 안 허고예?(터알에 같거나 하지 않고요?)  
 107045 #5 으.(으.)  
 107045 @ 예.(예.)  
 107046 @ 세우리김치?(부추김치?)  
 107046 #5 세우린 이녁 양념 먹젠 허면은 다 우녕밧디 같고.(부추는 이녁 양념 먹으 려고 하면은 다 터알에 같고.)  
 107046 @ 세우린 다 우녕밧디 잇이난예.(부추는 다 터알에 있으니까요.)  
 107046 #5 으.(으.)  
 107046 @ 그것도 세우리도 하면 김치 행 먹고예?(그것도 부추도 많으면 김치 해서 먹고요.)  
 107046 #5 으.(으.)  
 107046 @ 허는 거고예.(하는 거고요.)  
 107046 #5 데우청도 먹고.(데쳐서도 먹고.)  
 107046 @ 데우청도 먹곡예.(데쳐서도 먹고요.)  
 107046 #5 막 또 무시거 냉국 험 때나 무신 험 험 때나 그건 것덜은 다 세우레 험

다가 흐는 게.(마구 또 무엇 냉국 할 때나 무슨 회 할 때나 그런 것들은 다 부추 해다가 하는 거.)

107046 @ 예.(예.)

107047 @ 그 배추김치, 나물김치허곡 그 저기 무수김치는 인척에 곤긴 해신디, 그거 허젠 허면은 제일 중요 한 게.(그 배추김치, 나물김치하고 그 저기 무김치는 일찍이 말 하기는 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 한 게.)

107047 #5 아 젓갈 게메.(아 젓갈 글썄.)

107047 @ 젓갈허고.(젓갈하고.)

107047 #5 저 고춧가루 고치 해여 타당은네 뺏아근에 마놓히고, 도곳통에서 뺏아근 예.(저 고춧가루 고추 해서 타당가 뺏아서 마늘하고, 절구통에서 뺏아서.)

107047 @ 예.(예.)

107047 #5 방에에서 방에서 뺏아근에, 그 마찌 서꺼근에 흐는 거.(방아에서 방아에서 뺏아서, 그 같이 섞어서 하는 거.)

107047 @ 예. 경허곡예.(예. 그렇게 하고요.)

107047 #5 으.(으.)

107047 @ 물 저기 바당물에 그 저기 잘 곤을 돕가 돕가사예.(물 저기 바닷물에 그 저기 잘 간을 담가 담가서요.)

107047 #5 으.(으.)

107047 @ 바당물은 하영, 항상 저기 질영 와야 뵈키여예?(바닷물은 많이, 항상 저기 길어서 와야 되겠네요?)

107047 #5 아니 거 건 그때 흘 때만 흐는 거주.(아니 거 건 그때 할 때만 하는 거지.)

107047 @ 흘 때만?(할 때만?)

107047 #5 으.(으.)

107047 @ 예.(예.)

107047 #5 생각 그 흐영하게 뵈민 그때만 강 해여 오는 거주.(생각 그 해서하게 되면 그때만 가서 해서 오는 거지.)

107047 @ 예.(예.)

107047 #5 경 하영 앓다다 놓지 아녀주. 경 흘 때.(그렇게 많이 가져다가 놓지 않지. 그렇게 할 때.)

107047 @ 앓다다?(가져다가?)

107047 #5 응.(응.)

107047 @ 두부홀 때는?(두부할 때는?)

107047 #5 두부홀 때는 두부흐젠 흐면은 해, 흐쫄 해당 낫당은에 두부 거시기털에 흐 쫘.(두부할 때는 두부하려고 하면은 해, 조금 해다가 놓았다가 두부 거시기들에 조금.)

107047 @ 흐쫘허는 거고예.(조금하는 거고요.)

107047 #5 우이 치는 거고.(위에 치는 거고.)

107047 @ 예.(예.)

##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을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을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을 온평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을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2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http://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